# 문예연감

## Culture&Arts Yearbook

2010

문학 · 시각예술 · 국악 · 양악 · 연극 · 무용 · 북한문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9년도판 문예연감 발간사

1976년 이후, 한 해의 거름도 없이, 우리나라 예술현장의 활동을 정리해 온 『문예연감』이 2009년도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해 우리나라 예술활동의 성장치이자 귀중한 사료집 역할을 하고 있는 『문예연감』은 이제 우리 예술사의 중요한 궤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0문예연감』은 각 장르별 편람에 따른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2009년 주요 이슈들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문화예술현장의 총량과 함께 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의 예술계 흐름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과거 기록에만 국한된 『문예연감』이 아닌, 우리 예술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양한 매체와 현장조사를 통해 연감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필자들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인해 혹여 누락된 활동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예연감』에서도 한 해의 문화예술계 활동상에 대한 진단과 분석, 정리함으로써 문화예술 관계자뿐만 아니라 문화향수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2010문예연감』부터는 본문에 '인쇄물음성변환출력'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활동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간이 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연감이 귀중한 사료집으로써 여러분들께 충분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오 광 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 목 차

문 학 ▣ 총 론 ····· 15
▣ 현황분석 ····· 24
시각예술 ▣ 총 론
· 회화, 조각, 공예 ····· 53
· 사진/판화, 미디어아트/설치미술, 서예, 미술이론/평론 ····· 74
▣ 현황분석 ····· 111
국 악 ▣ 총 론 ····· 125
▣ 현황분석 ····· 135
양 악 ▣ 총 론 ····· 175
▣ 현황분석 ····· 185
연 극 ▣ 총 론 ····· 225
▣ 현황분석 ····· 234
무 용 ▣ 총 론 ····· 277
▣ 현황분석 ····· 286
북한문학 ▣ 2009년도 북한 문화예술계의 동향과 성과 ····· 3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일러두기

## 【대상기간: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 ❑ 기록방법

- 모든 수집된 정보를 기록할 때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 분야별 수집된 정보에 기초해 기록했으며, 기록이 끝난 뒤 같은 작가의 동일 작품은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했다.
- 모든 수집된 자료는 현재 시행되는 그대로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모든 상황을 전부 추적할 수 없어 수집된 정보에 한해 최대한 기록하였다. 따라서 일부 경우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 ❑ 분석방법

- 편람 작성 뒤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가능한 데이터 오류를 최대한 제거하고자 했다.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2007의 피벗테이블 기능을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 각 정보의 기초통계적인 현황을 파악해 현황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 각 정보들을 다각도로 교차분석 해 분석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교차분석 종류와 결과는 각 분야가 가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미를 파악할 때 분야별 특성을 고려했다.
- 분야별 특성에 따라 발간현황과 발표 현황의 수집 원천을 달리했다.
- 기타 분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현황분석에서 그때그때 서술해두었다.

## [분야별 조사방법]

### ❑ 문학 문예연감

- 단행본 발간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도서 검색

| 구 분 | 시 | 소설 | 수필/산문 | 희곡 | 평론 | 번역 |
|---|---|---|---|---|---|---|
| 종 수 | 1552 | 2231 | 1424 | 37 | 376 | 1812 |

- 주요문학잡지

| 종 수 | 조사대상 |
|---|---|
| 79 | 계간 문예, 계간 수필, 나래 시조, 내일을여는작가, 대산문화, 리얼리스트, 리토피아, 문예연구, 문예중앙, 문장웹진, 문학 선, 문학과사회, 문학과창작, 문학나무, 문학동네, 문학들, 문학마당, 문학미디어, 문학사상, 문학수첩, 문학의문학, 미네르바, 미루, 미스터리, 불교문예, 사람의문학, 서정시학, 세계의문학, 시로여는세상, 시문학, 시와시, 시안, 시에, 시와동화, 시와반시, 시와사람, 시와사상, 시와세계, 시와시학, 시와정신, 시인세계, 시인시각, 시작, 시평, 신생, 실천문학, 심상, 아시아, 아침햇살, 애지, 어린이와문학, 에세이21, 에세이플러스, 열린시학, 오늘의문예비평, 월간문학, 월간에세이, 자음과모음, 작가들, 작가세계, 작가와사회, 창비어린이, 창작과비평, 통일과문학, 판타스틱, 펜문학, 학산문학, 한국문학, 한국문학평론, 한국소설, 한국수필, 한국희곡, 현대문학, 현대비평과이론, 현대시, 현대시문학, 현대시학, 황해문학, 21세기문학 |

- 주요문학상

| 구 분 | 종합 | 시 | 소설 | 아동 | 시조 | 수필 | 평론 | 번역 | 청소년 | 희곡 |
|---|---|---|---|---|---|---|---|---|---|---|
| 조사대상(종) | 161 | 72 | 41 | 38 | 24 | 12 | 11 | 5 | 5 | 1 |

- 주요문학행사

| 구 분 | 조사대상(종) |
|---|---|
| 기념 및 추모 행사 | 23 |
| 낭독·낭송 및 공연 | 47 |
| 독자와의 대화 및 만남 | 38 |
| 문인대회 | 4 |
| 문학강연 | 43 |
| 문학의 밤 | 13 |
| 문학기행 | 32 |
| 문학제, 문학축전 | 72 |
| 문학캠프, 문학학교 | 9 |
| 백일장 | 34 |
| 전시 | 34 |
|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 34 |
| 기타 | 9 |

- 작성항목

| 항 목 명 | 작성 내용 |
|---|---|
| 대분류 | 단행본, 잡지, 문학상, 문학행사, 문학소사 |
| 중분류 | 분야에 따른 장르 구분 |
| 소분류 | 장르별 특수사항 |
| 작가 | 단행본 및 작품발표 작가명 |
| 도서명 | 단행본 표제 |
| 출판사 | 단행본 출판사명 |
| 역자 | 단행본 번역자명 |
| 장르 | 단행본의 장르별 종류 |
| 작품명 | 잡지 게재 작품명 |
| 수록잡지 | 작품수록 잡지명 |
| 호 | 잡지 발행 호수 |
| 시상 명칭 및 호수 | 문학상명과 호수 |
| 수상자 | 문학상 수상자명 |
| 수상작 | 문학상 수상작명 |
| 주최 | 문학상 운영자명 |
| 연월일 | 문학행사 및 문학소사 관련 날짜 |
| 행사명 | 문학행사명 |
| 행사주체 | 문학행사운영자명 |
| 행사내용 | 문학행사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분류방법

- 문학 분야를 단행본, 잡지, 문학상, 문학행사, 문학소사 등 5개로 크게 분류했다.
- 단행본은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 희곡(시나리오), 번역 분야로 분류했다. 시 분야에는 시조, 개인 시집 외 편저, 합동시집을 포함했고, 소설 분야에는 개인 창작집 외 편저, 장르소설을 포함했다.
- 잡지는 소설, 수필(산문), 시, 시조, 평론, 기타 분야로 크게 분류했다. 평론 분야는 소설평, 시평, 공연평론, 희곡평론, 음악평론, 작가론, 시인론, 서평과 함께 특집 시평(時評), 특집 컬럼, 지상강좌, 계간평, 월평, 기고 등을 포함했다. 기타 분야는 희곡, 동시, 동화, 꽁뜨, 외국문학, 좌담, 청소년, 만화로 구성했다.
- 문학상은 특별한 분류 없이 매체와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된 문학상을 최대한 포괄하였다.
- 문학행사는 시간 순서로 개최된 문학관련 행사를 개최 날짜, 행사명, 주관단체, 장소, 행사내용 순으로 기재하였다.
- 문학소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문학관련 사건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 ❑ 시각예술 문예연감

- 자료조사 현황

| 조사대상 |
|---|
| 월간『서울아트가이드』1월호부터 12월호에 수록된 전시 목록을 바탕으로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수집한 팸플릿, 도록, 엽서, 보도자료, 신문 미술기사, 잡지 미술기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 |

- 신문 미술기사

| 지 역 | 신 문 |
|---|---|
| 서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등 15종의 신문 |
| 지방 | 『강원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경인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충청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일보』, 『광주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13개 해당 신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시 정보 및 연합뉴스의 미술 소식등 |

- 잡지 검색

| 분 야 | 검 색 어 |
|---|---|
| 미술종합지 | 『월간미술』, 『아트인컬쳐』, 『아트프라이스』, 『퍼블릭아트』, 『미술세계』, 『미술시대』, 『미술신문』, 『월간미술인』, 『서울아트코리아』, 『옥션앤컬렉터』, 『아트벤트』, 『아트웨이브』 |
| 조각 전문지 | 『계간조각』, 공예 관련 『월간도예』, 『공예사랑』, 사진 관련 『월간사진』, 『사진예술』, 『포토넷』, 『포토박스』, 『포토저널』 |
| 서예 잡지 | 『묵가』, 『서예문인화』, 『서예문화』, 『월간서예』 |
| 디자인 잡지 | 『월간디자인』, 『디자인네트』, 『디자인 정글』, 지방 문예지 『문화나루』, 『기전문화』, 『대구문화』, 『갑천문화』, 『대전예술』, 『이츠 대전』, 『예술에의 초대』, 『보일라』, 『광주아트가이드』 |
| 문화재 관련지 | 『박물관 뉴스(구 박물관신문)』, 『문화재사랑』, 『월간문화재』 |
| 무가지 | 『월간옥션(아트프라이스 발간)』, 『아트뉴스(주영출판사)』, 『아트와(아트인컬쳐 발간)』, 『전시가이드(월간전시 발간)』 |
| 기관지 | 『너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메세나(한국메세나협의회)』, 『예술의전당(예술의전당)』, 『문화공간(세종문화회관)』, 『아트뷰(성남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뉴스레터』 |
| 미술관 소식지 | 『SEMA(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박물관미술관소식』 |
| 온라인 | 네오룩 닷컴(www.neolook.com), 연합뉴스의 전시 정보 |

- 작성항목

| 항 목 명 | 작성 내용 |
|---|---|
| 대분류 | 국내전, 국외전 |
| 중분류 | 국내전-개인전/ 단체전/ 해외작가국내전, 국외전-국내작가해외전 |
| 소분류 | 장르별 특수사항 |
| 전시명 | 개인전-작가명, 단체전-전시명 또는 단체명, 해외작가국내전-작가명 또는 전시명,<br>국내작가해외전-작가명 또는 전시명, 행사명 |
| 지역 | 국내전-16개시도 단위, 국외전-나라/도시 단위 |
| 전시장 | 전시장소명 |
| 시작일 | 전시 시작일 |
| 종료일 | 전시 종료일 |
| 참여작가 | 단체전의 주요 참여 작가 및 해외참여작가 국적별 기록 |
| 전시내용 | 전시 주제, 간략한 내용 기록 |
| 지원금여부 | 문화예술지원금 지원 전시 표시 |

## ❑ 공연예술 문예연감

- 공연장: 현황

| 조사대상 |
|---|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원 공연장 127개(2010.1. 기준)<br>경기(19)+서울(13)+경북(13)+경남(12)+전남(12)+충남(11)+대구(10)+강원(10)+전북(7)+부산(5)+충북(4)+인천(3)+대전(3)+울산(3)+광주(1)+제주(1)<br>한국소극장협회 회원 소극장 116개(2010.5. 기준). 서울(81)+지방(35) |

- 분야별 전문잡지

| 분 야 | 잡 지 명 |
|---|---|
| 공통 | 객석, 공연과 리뷰, 문화예술(ARKO), 아르미(ARKO), Playbill, the Proud |
| 국악 | 국악누리(국립국악원), 국악신문 |
| 양악 | 음악춘추, 음악저널, Choir & Organ, International Piano, Music Friend, String & bow, the Music, the Piano, the Strad |
| 연극 | 서울스코프, 한국연극, the Musical |
| 무용 | 댄스포럼, 몸, 춤, 춤과 사람들 |

- KINDS 검색: 한국언론재단 제공(전국종합일간지+지역종합일간지+경제일간지) 기사 통합 검색.

| 분 야 | 검 색 어 |
|---|---|
| 국악 | 풍물(5,958건), 판소리(5,694건), 연희(5,663건), 산조(5,507건), 민요(5,104건), 사물놀이(4,238건), 마당놀이(4,129건), 2009 국악(3,477건), 풍류(1,567건), 병창(1,281건), 정악(1,229건), 창극(1,102건), 마당극(912건), 국극(242건) |
| 양악 | 오케스트라(9,069건), 합창단(6,844건), 교향악(4,301건), 2009 음악회(3,345건), 관현악(2,828건), 필하모니(2,592건), 심포니(2,377건), 2009 오페라(2,148건), 실내악(1,880건), 2009 연주회(1,878건), 2009 클래식 공연(1,594건), 콰이어(1,831건), 챔버(955건), 리사이틀(953건), 체임버(818건), 2009 음악제(503건), 2009 독주회(422건), 2009 합창제(152건), 2009 관악제(122건), 2009 독창회(111건), 첼버(111건) |
| 연극 | 2009 극장(7,643건), 2009 뮤지컬(4,722건), 2009 연극(4,675건) 2009 극단(3,407건), 2009 현대극(1,184건), 2009 인형극(582건), 2009 아동극(102건) |
| 무용 | 2009 무용(4,901건), 2009 춤(4,275건), 2009 댄스(4,273건), 2009 퍼포먼스(3,191건), 2009 안무(1,495건), 2009 발레(1,359건) |
| 기타 | 복합(495건), 다원(282건) |

- 작성항목

| 항 목 명 | 작성 내용 |
|---|---|
| 대분류 |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중 해당되는 분야 |
| 중분류 | 분야에 따른 장르 구분 |
| 소분류 | 장르별 특수사항 |
| 공연명1~2 | 공연명1은 공식 공연명, 부제 또는 페스티벌명은 공연명2에 기록 |
| 단체명 | 공연 단체명(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등) |
| 단체 국적 | 공연 단체의 국적. 국내/국외/협업 |
| 시작일 | 공연 시작일 |
| 종료일 | 공연 종료일 |
| 공연 횟수 | 총 공연 횟수 |
| 주최 | 포스터나 공식자료상의 주최로 명시된 기관·단체 |
| 지역1~2 | 지역1은 16개 시도 단위, 지역2는 시군구 단위 |
| 공연장1~2 | 예술의전당 오페라홀. 예술의전당은 공연장1, 오페라홀은 공연장2 |
| 페스티벌/경연대회 | 페스티벌이나 경연대회일 경우 표시 |
| 인적 정보 | 양악-작곡가, 연극-극작가·예술감독·연출가, 무용-안무가 표시 |

- 분류방법

- 공연예술 분야를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4개 분야로 크게 분류했다.
- 공연의 수를 세는 단위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두 가지다. 공연 건수는 하나의 공연장에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제목의 공연을 세는 단위다. 공연 횟수는 한 제목의 공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총 숫자다.
- 국악 분야 공연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했다. 악기 연주 중심 공연을 '기악', 판소리·농요 등 소리 중심 공연을 '성악', 창극·국극·음악극·마당놀이·사물놀이 등 놀이 요소가 강한 공연을 '연희'로 구분했다. '혼합'은 한 공연에서 기악, 성악, 연희가 섞여 공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립국악원의 토요상설공연은 정악·민속악 연주, 판소리·민요, 굿춤 등을 한 공연에 올린다.
- 양악 분야 공연을 기악, 성악, 오페라,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로 구분했다. 악기 연주 중심 공연을 '기악', 독창·합창 등 공연을 '성악', 음악 중심의 가극을 '오페라', 기악·성악·오페라의 구분 없이 국내 작곡가들이 작곡한 곡을 처음 발표하는 공연을 '작곡발표'로 구분했다. '혼합'은 기악·성악·오페라가 한 무대에 오르는 공연이다.
- 연극 분야 공연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로 구분했다. 몸짓과 대사 중심의 공연을 '연극', 음악이 가미되어 노래·춤·연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을 '뮤지컬', 언어적인 요소가 적고 여러 신체예술이나 행위예술이 중심이 되는 공연을 '퍼포먼스'로 구분했다.

## [2010 문예연감 집필자 소개]

### ❑ 문학

■ **총론 / 현황분석 / 편람: 이민호(1963년생)**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현재 서강대학교 국문과 대우교수

### ❑ 시각예술

■ **총론 / 하계훈(1958년생)**

고려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런던 시티대 미술관경영학 석사 /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 미술평론가

■ **총론 / 김성호(1966년생)**

중앙대, 동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석사, 파리10대학 철학과 DEA / 현재 중앙대 겸임교수, 미술평론가

■ **현황분석 / 편람: 김달진(1955년생)**

서울산업대,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석사 / 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 ❑ 공연예술

■ **국악 총론 / 전지영(1971년생)**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 서울대, 한양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앙대, 추계예술대학교 출강

■ **양악 총론 / 황성호(1955년생)**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넥스트 웨이브 콘서트 감독, ICMC 2000(베를린) 위촉 추천위원

■ **연극 총론 / 김윤철(1949년생)**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원장, 한일 연극 교류 협의회 초대회장 역임, 현 국제연극평론가협회(IATC) 회장

■ **무용 총론 / 김승현(1961년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학사, 동대학원 석사 / 서울고 불어교사, 문화일보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현 문화일보 문화부 선임기자, 무용평론가

■ **현황분석 / 편람: 황윤숙(1968년생)**

이화여대 무용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 석사 /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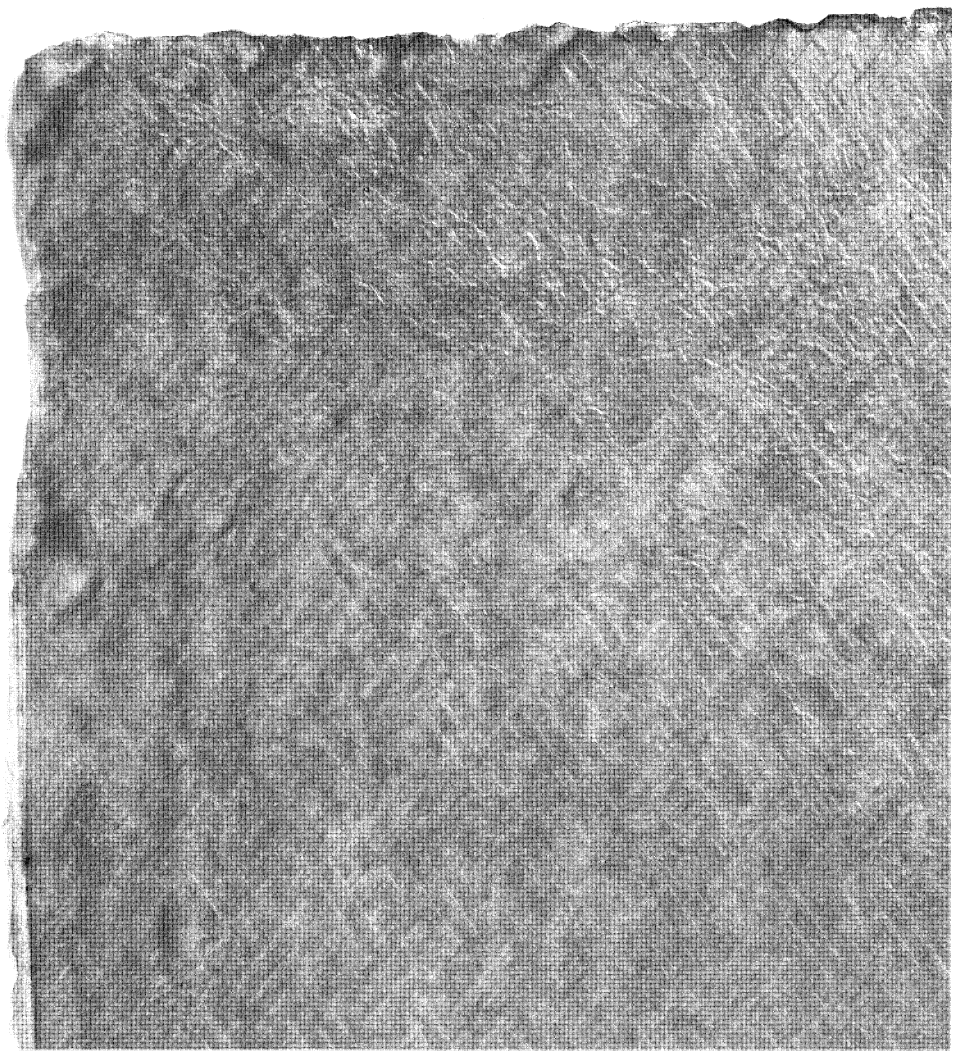
### ❑ 북한문화

■ **총론: 오양열(1953년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 연구'(1998)) /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 부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문화체육관광분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문 학



2010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2009년 문학 총론

이민호(시인, 문학평론가)

## Ⅰ. 머리말

2009년 문학계는 정치와 만나 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원리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현실적 상상력이 지배했던 시절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그 형식은 새롭다. 단선적 거부와 저항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대중과 함께하고 있다. 비록 상실과 위기의 전체적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페티시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설적(他說的)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설적(自說的) 목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Ⅱ. 2009년 주요 현황

### 1. 시

2009년 시단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도 출판사의 시집 출판도 전만 못한 상황에서 1,500권 이상의 시집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활성화의 동력은 젊은 시인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젊은 시인들의 활발한 시작 활동은 마침내 김언 시인의 미당문학상 수상과 김경주 시인의 김수영문학상 수상으로 구체적인 실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세대교체의 조짐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신춘문예와 문예지 공모에 당선된 시

들이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중견시인들의 분발이 눈부신 해였다. 김지하, 황동규, 이시영, 김명인, 최두석, 김용택, 허만하, 남진우, 박라연, 김기택, 송찬호, 채호기, 하종오, 신현림 등이 시집을 냈다. 이 중 9년 만에 시집을 낸 송찬호의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은 평단의 주목을 받아 대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젊은 시인 그룹으로는 박후기, 서동욱, 김언, 이덕규, 김희업, 고영민, 장인수, 오은, 김재홍, 김창균 등이 시집을 냈다. 이 중 박후기의 「내 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간극을 메우는 시로서 평가받기도 했다. 이처럼 중견과 신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단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신구의 조화는 2009년 시단의 힘으로 작용하여 현실적 발언에 토대를 마련한다. 시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중견시인과 젊은 시인의 목소리가 단일하게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하게 이곳저곳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는 놀라움을 체험한다. 이는 정치가 일부 계급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들의 향유물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인들은 80년대식의 결연한 정치시, 민중시, 노동시를 다시 쓰지는 않았다. 오히려 생활에 기반을 둔 일상의 민주적 생활을 시에서 구현하려는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김행숙, 심보선, 진은영의 시가 그러하다. 그 예로 진은영의 시집 「우리는 매일매일」이 시와 정치의 새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80년대 정치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 김해자, 임성용, 문동만은 눈여겨봐야 할 시인이다. 비록 평단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리얼리즘의 새로운 미학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즉 80년대 노동시가 간과한 미학을 이들 시인들이 시의 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송경동은 80년대 노동시의 전형성을 유지하면서도 2009년 오늘의 문제를 빠른 몸짓으로 담아냄으로써 백무산과 함께 시의 정치적 가치를 진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드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2009년의 시는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부녀자 연쇄살해사건, 성폭행 같은 반인륜 범죄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측면에서 고도화된 물신주의, 자본주의가 삶의 위기로 다가섰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연과 생명의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환경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됐다. 특히 4월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신종플루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한국 사회에도 더없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처럼 환경과 더불어 건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김기택의 <건강이 최고야>와 함민복의 <김선생의 환청>, 백무산의 <업>과 같은 시는 이러한 삶의 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백무산은 한가족처럼 지냈던 '소'의 상품화된 생명을 통해 신종플루의 공포가 어디서 연유되는지를 떠올리게 했으며, 김기택은 올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삼아 현대 사회인의 자기중심적 욕망의 추함을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승희, 문정희, 김혜순 등 여성 시인들은 여성 주체로서 중심의 해체라는 시 작업을 꾸준히 했다. 허수경의 <삶이 죽음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때처럼>, 유희경의 <서른>, 김은주의 <구름왕>은 그러한 맥락에서 읽힌다. 이외에 강성은, 김경미, 김민정, 김상미, 김은주, 김지유, 박미산, 신현림, 유희경, 이수명, 이은규, 임현정, 정한아, 조말선, 진수미, 최영미, 최정례, 하재연 등이 대열에 섰다. 새로운 시인들의 등장은 2009년 시단을 보다 젊게 했다. 김은상과 박찬세(『실천문학』 제16회 신인상), 이선욱(『문학동네』 제16회 신인상), 김상혁(『세계의 문학』 제3회 신인상), 손미(『문학사상』 제61회 신인문학상), 김정웅과 기세은(『시작』 제7회 신인상)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산문화 경향에 찌든 한국 시단에, 외래어와 일본 인디문화에 물든 독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라는 주문이 꼬리처럼 따랐다. 2009년 시단은 '시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시에서 탈각되었던 역사성이 중요한 요소로 다시 복원되었다는 데서 의미심장하다. 더불어 제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시인들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처럼 2009년 시단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 시의 구경을 가늠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 2. 소설

2009년 소설은 사회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내용으로는 가족 테마의 재등장이었으며, 형식으로는 장편의 풍미였다. 한국 문학에 있어 '가족' 테마는 단골 메뉴다. 가족은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멀리는

신화와 설화, 전설에서 가족은 이야기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며 인물의 관계 구조와 정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가까이는 가족의 만남, 이별, 결혼, 기약 등이 소설의 모티프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가족의 문제는 결혼, 성, 육체, 사회, 문화, 경제 등에 성찰의 계기를 제기하는 핵심적 테마다.

소설의 장편화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 단편으로 올곧게 담을 수 없는 역사의 재현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시기에 소설은 긴 이야기로서 반응하는 것이다. 과거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황석영의 「장길산」, 박경리의 「토지」, 최명희의 「혼불」 등은 제도적 역사 서술이 제대로 담지 못했던 민중의 역사를 다시 복원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울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 언론과 출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우리 사회 보수화 경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뜻을 둘 수 있겠지만, 한국사회의 상실과 위기에 대응하는 문학적 상상력으로는 걸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만 부 넘게 판매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신경숙의 섬세한 문체와 지명도와 출판 시스템의 결과로 단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위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엄마를 부탁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모성 신화'가 유효하며, 그만큼 현실이 각박함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날 우리는 아버지 부재 상태에서 어머니의 부단한 생존력에 의지해 오늘에 이르렀다. 고도로 자본화된 오늘날 어머니의 존재는 실로 미미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공황의 그림자와 신자유주의의로 배태된 양극화된 사회 구조는 다시금 어머니를 불러 오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홍명진의 「숨비소리」는 역사 속에 구현된 모성의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대비적으로 공지영의 「도가니」는 가족 서사의 또 다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도가니」의 배경은 어린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다. 성폭력은 한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사회적 공포다. 이 위기가 2009년 우리 사회를 가득 뒤덮었음을 생각할 때 공지영 소설의 발빠른 걸음은 신경숙의 행보와 사뭇 대비된다. 평단의 비판이 되고 있는 공지영의 통속성과 신파성에도 불구하고 「도가니」는 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독자의 또 다른 사회적 욕구를 해소시켰다.

2009년 소설의 장편화 역시 온전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출판시장의 요구에 순응한 것이다. 평단은 이러한 경향을 '출판사와 문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는 장편을 사랑해'라는 식으로 풍자하고 있다. 이처럼 2009년 출판 상업주의는 시와 단편소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돈이 되는 장편만을 골라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 와중에 사회적 문제의 문학적 대응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신경숙과 공지영의 소설은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문예지와 출판사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2009년을 달구었던 또 한 편의 장편소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의 10억 원대 선인세 논란과 흥행 성공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소설의 상업적 장편화 현상 중에 또 다른 경향으로 소설가와 인터넷 매체와의 만남을 들 수 있다. 이제 소설가는 홀로 고독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독자의 반응을 보며 소통하는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김훈, 공지영, 박민규 등이 인터넷에 소설을 연재함으로써 인터넷과 소설의 만남을 활성화했다.

양극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2009년 소설은 가족 서사에만 묶여 있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주변적 존재에 시선을 돌림으로써 2009년 우리 사회 상실과 위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이러한 소설로 주원규의 「열외인종 잔혹사」,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가 대표적이다. 「열외인종 잔혹사」는 우리 사회의 주변인이며 열외자들인 노인, 노숙자, 백수, 비정규직, 불량 청소년 등이 양머리를 뒤집어쓴 테러리스트와 중첩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가져올 비극을 환상적으로 처리하였다. 「국가의 사생활」은 우리 사회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 전체의 미래상을 예견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했다는 설정으로, 통일 이후 주변화된 북한의 인물들이 폭력조직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남북한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월한 힘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함축하고 있다.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는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전재되었던 장편소설로, 청계천 개발로 철거되는 전자상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자상가를 터전으로 살아 온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실과 위기의 비극성을 첨예하게 드러낸다.

젊은 소설가들의 고민은 보다 실제적이다. 박민규, 한재호, 장은진, 정유정 등은 사랑과 취업 문제 등 2009년 젊은이들의 세태를 담아낸다. 장은진의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 정유정의 「내 심장을 쏴라」,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한재호의 「부코스키가 간다」가 대표적이다. 이들 소설들은 우리 사회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2009년 한국의 젊은이들은 88만원 세대라는 우울한 호명 아래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거나, 정신병적 상태에 빠져 있거나, 순수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비극에 빠져들거나, 청년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군상들이다. 2009년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젊은 소설가들의 문학적 반응은 깊이를 떠나 절박하다.

이들 젊은 소설가들과 더불어 중견작가들도 현실의 끈을 놓지 않는다. 현기영, 구효서, 김인숙, 하성란 등의 소설들이 그러하다. 현기영의 「누란」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망각한 채 허무주의에 빠져 물신주의와 자본주의에 허우적대고 있음을 아프게 서술하고 있다. 하성란의 <제비꽃, 제비꽃이여>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인의 욕망 차원에서 재치 있게 접근한다. 김인숙의 <안녕, 엘레나>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견주어 '아빠를 부탁해'에 해당한다. 내용은 아버지의 위축된 사회 존재감이 자식에게 전이되는 부조리를 테마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9년 소설은 표면적으로 가족 서사와 상업적 장편 지향에 갇혀 있는 듯하지만, 지난 수년간 풍미했던 역사소설류의 허구적 역사성에서 벗어나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속성을 보인다. 이러한 참여적 소설 흐름은 근래에 보지 못했던 문학적 반응으로 소설이 갖는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 3. 평론·번역·기타

2009년 문학평론의 화두는 '문학과 정치'였다. 『실천문학』, 『창작과비평』, 『문학과 사회』, 『문학동네』, 『세계의 문학』, 『문학수첩』 등 주요 문학 계간지에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이 여러 차례 있었다.

『문학과 사회』 가을 특집에서 강계숙은 <'시의 정치성'을 말할 때 물어야 할 것들>을 『문학과 사회』 겨울 특집에서 <'미적 전위'가 탄생하기까지-4·19혁명이 한국시에 미친 영향하나>를 발표한다. 『리토피아』 봄호에서 고명철은 <'비평의 급진성과 비평의 정치성'을 다시 쟁취하는>을, 『문학수첩』 겨울 특집 "'문학과 정치'에서 '문학의 정치'까지"에서 고봉준은 <수용소에서의 글쓰기>를, 이경재는 <네이션과 2000년대 한국소설>을, 조연정은 <무심코 그린 얼굴>을, 조효원은 <문학, 비인칭의 묵시록>을, 『문학들』 여름 "예술과 정치, 그리고 미학적 모험" 특집에서 신항식은 <계급성을 거부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이명원은 <'적막의 비애'를 넘어서-시와 정치>를, 『문학동네』 여름 특집에서 이광일은 <이명박 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권, "이후의 일은 될 대로 돼라."-용산, 삶과 관계의 정치를 위하여>를, 『문학동네』 봄 특집에서 차미령은 <소설과 정치: '소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상>을, 『창작과비평』 여름호에서 권성우는 <정치적 올바름은 미학적 품격과 만날 수 있는가>를, 『창작과비평』 가을호에서 신형철은 <정치적 진보주의와 미학적 보수주의>를, 『창작과비평』 봄호에서 이장욱은 <시, 정치 그리고 성애학>을 발표한다.

이들 비평의 배경이 되는 담론이 있다면 그것은 200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서구 유명 지식인의 비평이론이었다. 발터 벤야민과 들뢰즈, 미셸 푸코를 비롯해 슬라보예 지젝, 안토니오 네그리, 조르조 아감벤, 알랭 바디우, 자크 랑시에르 등이 그들이다. 이들 지식인은 한국 비평가의 지식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젝의 폭력 개념과 데리다의 법 개념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 체계의 폭력을 언급하는 데 자주 등장하였다. 특히 네그리, 랑시에르 등이 주창하는 '정치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힘'은 국가 권력으로 명명되는 주권적 권력의 그늘에서 부조리와 제도적 횡포 때문에 고통받으며 소외받고 있는 시민 대중들을 구제하는 도구로 비평가들에게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문학의 정치성 담론은 과거 80년대 양상과는 달리 나타났다. 과거 비평문학이 문학 담론의 방향을 선도했다면 2009년은 시인과 작가들이 앞서 사회 문제를 이슈화하여 제시한 후 비평이 뒤따르는 형상이었다.

시와 소설을 제외한 장르 분야를 살펴보면, 수필의 경우 수필문학계가 스스로 자평하길 '실망과 반성과 의욕'으로 2009년을 결산하였다. '실망'이라 함은 수필문학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에서 나온 말인 듯하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의 경우 수필가는 시인 회원 수에 버금가며, 수필 전문 잡지만 해도 20종이 넘고, 올 한 해에도 500명이 넘는 수필가들이 새롭게 등단했으며,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필문학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에 걸맞은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성'은 미미한 해외교류와 일반 독자와의 소극적 소통, 수필 잡지의 폐쇄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부족에서 나온 듯하다. '의욕'은 수필의 현대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실망과 반성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르의 다양성, 퓨전성, 형식적 탈피가 필요하다고 수필문학계는 진단하고 있다.

희곡의 경우, 공연예술과의 친연성 때문에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희곡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희곡자료의 폐쇄적 관리에서

벗어나 공연대본이나 자료의 영속성을 기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연 이후 희곡집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드물며, 희곡작가를 전업으로 하는 작가들이 드문 현실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9년은 희곡문학의 변신을 도모하는 해였다.

이에 비해, 소위 장르문학이라 할 수 있는 판타지, 추리문학 등은 본격문학 장르가 외면한 대중성을 무기로 독자의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문단 세력으로 성장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답적인 문학 형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문학적 문학 기류와 사회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상 르포문학이 정력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 르포문학은 현대인의 삶에 다가가는 새로운 장르이고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변신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여기 사람이 있다」는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다른 여러 지역의 주거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 열다섯 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르포문학으로, 15명의 르포 작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건져낸 살아 있는 문학적 상상력이다.

2009년 한국문학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14개 언어권 57권이 번역지원 되었고, 한국문학번역원에서 50권, 대산문화재단에서 10권이 번역 출간되었다. 2008년에는 한국문화번역원에서 16개 언어권 34권, 대산문화재단에서 4개 언어권 13권이 번역지원되었다. 2009년 해외 소개된 한국작가 작품 중 미국 컬럼비아대 출판부에서 출판된 박완서의 소설 「Who Ate Up All the Shinga?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스페인 베르붐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순원의 소설 「El Camino Andado Con Mi Hijo 아들과 함께 걷는 길」, 프랑스 이마고 출판사에서 출판된 남상순의 소설 「Sur Les Traces du Serpent Blanc 흰 뱀을 찾아서」가 호평을 받았다.

문학계와 뗄 수 없는 2009년 출판계도 상실과 위기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비록 '엄마 신드롬'을 일으키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100만 부 이상의 판매실적을 보이며 출판계를 달아오르게 했지만, 여전히 경제경영 서적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요지부동 자녀교육 시장에 힘입어 학습 만화 시리즈가, 자녀교육서가 인기를 끌었지만, 2009년 내내 뒤덮었던 사건들이 출판계를 비집고 들어왔다. 우리 사회의 전직 대통령 추모 물결이 출판계로 이어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성공과 좌절」이 13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보, 나 좀 도와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잠언집 「배움」 등 관련된 책이 높은 판매를 기록했다. 더불어 김수환 추기경과 서강대 장영희 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kr.kotpe.www

수 등을 추모하는 책도 독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자기계발서'의 위축과 '일본 서적'의 불황은 그동안 자기중심적 사유에 집중했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을 겪으며 소통의 코드로 전환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외 인터넷서점이 사상 첫 매출 1조를 돌파하여 출판업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8월 삼성전자 '파피루스'를 비롯한 전자책 전용 단말기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전자책 출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에도 한국 문학계의 별들이 떨어졌다. 1월에 소설가 정을병이, 10월에 문학평론가 장백일이, 12월에 아동문학가 유재용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처럼 작고한 문인들에 대한 회고 행사도 많았다. 소설가 박경리를 선양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시인 신석정의 문학관이 전북 부안에서 착공되었고, 소설가 이병주를 재조명하는 문학강연회가 열렸다. 그밖에 소설가 서정인과 김승옥의 문학비가 세워졌다. 이와 발맞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고 문인들의 작품을 정리한 선집을 출간했다. 원로 이기형 시인이 93세의 나이로 열 번째 시집 「절정의 노래」를 출간했으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소설가가 용산참사 현장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 헌화하면서, '난쏘공'이 출간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 안타까워했다는 것이 후배 문인들에게 귀감으로 자리했다.

# 2009년 문학 현황분석

이민호(시인, 문학평론가)

## Ⅰ. 장르별 문인 작품 발표 현황

### 1. 문학 단행본 발간 현황

문학 단행본의 발간 현황분석에 앞서 2009년도 출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간 도서의 발행량은 총 4만 2,191종(만화 포함)이며, 발행 부수는 1억 621만 4,701부였다. 2008년도와 비교할 때 발행 종수는 908종이 감소하여 2.1%의 소폭 감소를 보였고, 발행 부수도 300,974부가 감소하여 0.3% 감소하였다(<표 1> 참조). (사)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이는 최근 10년간 발행 종수 및 발행 부수의 큰 변화 폭에 비하면 약보합세를 유지한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한파가 국내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지며 출판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2008년도의 상황(전년 대비 19.6% 감소)과는 다른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표 1. 2009년 출판 현황 ▐**

| 구 분 | 신간 발행 종수 | | | | 신간 발행 부수 | | | |
|---|---|---|---|---|---|---|---|---|
| | 2008년 | 2009년 | 증감률 | 점유율 | 2008년 | 2009년 | 증감률 | 점유율 |
| **문학** | **8,482** | **8,718** | **2.8** | **20.66%** | **17,640,805** | **18,643,635** | **5.7** | **17.55%** |
| 예술 | 1,451 | 1,407 | -3.0 | 3.33% | 2,264,538 | 2,202,223 | -2.8 | 2.07% |
| 어학 | 1,823 | 1,660 | -8.9 | 3.93% | 4,048,329 | 3,590,778 | -11.3 | 3.38% |
| 역사 | 1,139 | 1,008 | -11.5 | 2.39% | 2,150,681 | 1,825,727 | -15.1 | 1.72% |
| 학습참고 | 1,787 | 1,803 | 0.9 | 4.27% | 13,620,755 | 14,297,393 | 5.0 | 13.46% |
| 아동 | 8,417 | 7,884 | -6.3 | 18.69% | 26,885,334 | 29,275,142 | 8.9 | 27.56% |
| 만화 | 6,541 | 5,735 | -12.3 | 13.59% | 16,911,143 | 13,263,458 | -21.6 | 12.49% |

(계 속)

| 구 분 | 신간 발행 종수 | | | | 신간 발행 부수 | | | |
|---|---|---|---|---|---|---|---|---|
| | 2008년 | 2009년 | 증감률 | 점유율 | 2008년 | 2009년 | 증감률 | 점유율 |
| 총류 | 822 | 805 | -2.1 | 1.91% | 1,615,604 | 1,514,311 | -6.3 | 1.43% |
| 철학 | 946 | 915 | -3.3 | 2.17% | 1,729,434 | 1,487,791 | -14.0 | 1.40% |
| 종교 | 2,009 | 2,177 | 8.4 | 5.16% | 4,393,048 | 4,367,877 | -0.6 | 4.11% |
| 사회과학 | 6,335 | 6,483 | 2.3 | 15.37% | 10,853,406 | 10,937,175 | 0.8 | 10.30% |
| 순수과학 | 593 | 542 | -8.6 | 1.28% | 761,324 | 906,871 | 19.1 | 0.85% |
| 기술과학 | 2,754 | 3,054 | 10.9 | 7.24% | 3,641,274 | 3,902,320 | 7.2 | 3.67% |
| **총 계** | **43,099** | **42,191** | **-2.1** | **100.00%** | **106,515,675** | **106,214,701** | **-0.3** | **100.00%** |

* 출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문학도서의 2009년 발행 종수는 2008년 8,482종에서 8,718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발행 부수는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전체 발행 부수가 소폭 감소한 것에 비하면 문학도서의 발행 증가는 문학인들의 저술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 전체의 출판 현황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가늠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인용하였다.

2009년 문학 단행본 발간 현황은 (사)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가 회원 출판사에 국한해 납본된 통계이므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장르별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집은 1,552종, 소설집 및 장편소설은 2,231종, 수필·산문집 1,424종, 희곡 및 시나리오는 37종, 평론집 376종, 번역물이 1,812종이 발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표 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도서 장르별 발간 현황 ▐**

| 구 분 | 시 | 소설 | 수필/산문 | 희곡 | 평론 | 번역 | 계 |
|---|---|---|---|---|---|---|---|
| 2009년 종수 | 1,552 | 2,231 | 1,424 | 37 | 376 | 1,812 | 7,432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09년 출판 현황에는 수필집이 3% 감소된 것으로, 평론집이 4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현황을 보면, 2008년에 비해 수필집은 2배 이상 더 발간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론집은 337종 더 발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본 조사에서 수필집

에 산문집을 포함시켰고, 평론집에 문학비평가의 평론집뿐만 아니라 강단 연구자의 연구 성격의 평론집도 대폭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시집의 경우 소규모 출판사나 지방 출판사에서 발간된 시집과 중간된 시집들이 2009년 출판 현황에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것 같고, 소설집의 경우 로맨스나 무협, 판타지류의 장르소설집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적극적으로 납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본 조사에서는 번역집을 추가해 정리하였다.

**▌표 3. 문학도서 장르별 발간 현황 ▐**

| 구 분 | 시 | 소설 | 수필 | 희곡 | 평론 | 기타 | 계 |
|---|---|---|---|---|---|---|---|
| 2009년 종수 | 804 | 5,471 | 503 | 54 | 39 | 1,847 | 8,718 |
| 증감률(%) | 5 | 2 | -3 | 50 | -48 | 6 | 3 |
| 2008년 종수 | 765 | 5,353 | 517 | 35 | 75 | 1,736 | 8,482 |

* 출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09년 시집 발간은 시인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강화되었다. '용산참사', 두 명의 전 대통령의 죽음 등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이들을 모이게 한 것이다.

동인시집 중 25주년 기념 동인집을 출간한 '시힘' 동인들이 눈에 띈다. 안도현, 이병률, 문태준, 박형준, 이윤학 등이 묶은 동인집 「세상의 기척들 다시 쓰다」는 1980년 군사정권을 시대적 배경으로 탄생한 이들의 면면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2009년의 사회적 힘이 이들을 불러세우지 않았을까. 그 외 김해자, 박일환, 이명희 등 인천 지역 시인들이 묶은 「새들이 숨을 만큼」도 시와 사회가 서로 교감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사회적 목소리가 승한 가운데 원로시인들의 행보도 쉼이 없었다. 황동규는 자신의 열네 번째 시집 「겨울밤 0시5분」을 펴냈다. 「꽃의 고요」 이후 3년 만으로 시력 50년의 무게를 담았다. 최동호는 7년 만에 시집 「불꽃 비단벌레」를 펴냈다. 리얼리즘과 멀어져 정신주의에 매달린 근원적 사유가 신화와 전설과 역사 속에서 한데 묶였다. 홍신선의 「우연을 점찍다」는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으로 삶과 죽음, 성과 속 사이에서 성찰한 시적 결과물로 제21회 김달진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진규의 「공기는 내 사랑」은 몸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향하는 시인의 시적 흐름이 반세기의 시력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과 함께 묻어난다. 이시영은 등단 40년을 결산하는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펴냈다. 문정희도 40년 시력을 정리하는 시선집 「지금 장미를 따라」를 묶었다. 이생진의 「서귀포 칠십리길」은 다시금 그의 절창 첫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로 이끌었다. 김광림의 「버리면 보이느니」는 열여덟 번째 시집으로 삶의 끝을 어떻게 오므려야 하는지 시인의 고민이 깊게 배어 있다. 나태주는 사진시집 「비단강을 건너다」와 육필시집 「오늘도 그대는 멀리 있다」, 시화집 「너도 그렇다」를 연이어 냈다. 김지하의 「못난 시들」은 그의 일상을 담고 있다. 언론은 그의 시를 못난 시 속에 잘난 재주가 숨겨 있다고 평했다.

중견시인들의 시 쓰기도 멈춤이 없었다. 하종오, 황학주, 표성배, 채호기, 정일근, 정양, 정군칠, 신현림, 송찬호, 김기택 등의 시가 2009년을 든든히 채웠다. 하종오의 「입국자들」은 시인이 지속적으로 시적 화두로 삼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전면화시켰다. 그동안 하종오 시인은 「반대편 천국」(2004), 「국경 없는 공장」(2007) 등에서 이주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맥락에서 표성배의 「기찬 날」은 '공장'이라는 노동현장을 삶의 서정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표성배는 「아침 햇살이 그립다」, 「개나리 눈꽃」 이후 노동과 삶과 시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황학주의 「카지아도 정거장」은 육필시집으로 시인의 숨결을 그대로 담았다. 채호기는 7년 만에 시집 「손가락이 뜨겁다」를 냈다. 몸에 대한 그의 집요한 천착이 이 시집에도 가득하다. 정일근의 「기다린 것에 대하여」는 사회로 향하는 시인들을 뒤로 하고 자연으로 떠난 시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제주도 시인 정군칠은 두 번째 시집 「물집」에서 제주 섬만큼 묵묵하며 끈질긴 역사의 배경 속에 가라앉은 내면을 보여주었다. 신현림의 「침대를 타고 달렸어」는 6년 만에 찾아온 손님 같은 시집으로 그녀와 더불어 살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송찬호의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은 보호하고 보호받는 오늘날 제도적 문명 앞에 돌아갈 현대인의 자화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시집으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김기택은 「껌」을 통해 전업시인으로 세상을 다시 읽었다. 그 외에도 정양의 「철들 무렵」, 장석남의 「젖은 눈」, 이정록의 「가슴이 시리다」, 이승하의 「공포와 전율의 나날」, 이문재의 「신비한 희망의 샛별」, 나희덕의 「야생 사과」, 남진우의 「사랑의 어두운 저편」, 김행숙의 「볼륨을 높일까요」 등이 중견시인 대열에 합류했다.

2009년 시단의 젊은 시인들의 지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집이 발간되었다. 시

집 「우리시대 51인의 젊은 시인들」이 그것이다. 이 합동시집은 2000년 이후 등단한 51명의 시인들의 신작시 1편과 자선 대표시 1편을 묶었다. 50여 명의 비평가들의 추천을 받은 이들 시인들의 면면은 실로 우리 시대 시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김경주, 황병승, 장석원, 이근화, 신용목, 최금진, 진은영, 여태천, 김이듬, 박성우 시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을 묶은 것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성'과 '패기'였다. 2009년 젊은 시인의 대표주자 김언이 「소설을 쓰자」를, 김민정이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를, 김경주가 「시차의 눈을 달랜다」를 냈다. 이에 못지않게 박후기 시인의 「내 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문동만의 「그네」도 젊은 시다.

2009년의 마지막은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이 마무리했다. 거리의 시인으로 불리는 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변을 어떻게 시의 사유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시집이었다. 그처럼 시와 정치는 어떻게 어울려 우리 삶을 엮어갈 수 있을지 사소하게 묻게 되는 것이다.

2009년 소설 단행본 발간을 볼 때 단연 여성 작가들의 해였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공지영의 「도가니」를 필두로 공선옥, 권지예, 구혜선, 구경미, 김지현, 배수아, 김별아가 그 뒤를 따랐다. 공선옥의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2009년 1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인터넷 독자 커뮤니티에 연재되어 독자와 미리 교감 후 출간됨으로써 소설쓰기 시스템의 변화를 체감케 했다. 좋은 작품은 곧 보장된 작품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연예인 구혜선의 「탱고」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권지예의 「퍼즐」은 동인문학상 수상 이후 네 번째 소설집으로 여성의 삶이 갖는 상실을 그리고 있다. 결혼, 성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사적이라 곧 환상의 세계로 떠날 것 같은 그녀다. 반면 구경미의 「게으름을 죽여라」는 자기 안에서 벗어나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백수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에 걸맞게 아홉 편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에서 무력하게 삶을 영위하는 우리 사회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펼치고 있다. 김지현은 다른 눈으로 가족 서사를 펼치고 있다. 그녀의 소설집 「춤추는 목욕탕」은 우리 사회 상실의 키워드인 슬픔, 상처, 욕망,치유와 성취를 우리 시대 여인의 삶 속에서 찾고 있다. 배수아의 소설집 「북쪽 거실」은 오리무중으로 독자를 이끌었다. 어쩌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살았던 지하 세계와 같은 우리 사회의 난해한 현실에 제대로 반응한 것은 아닐까. 「미실」의 작가 김별아는 또 한번 역사소설을 내놨다. 「열애」는 일제시대를 배경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로 조선 청년과 일본 여인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장편 역사소설이다. 그러나 2009년 역사소설의 퇴조와 함께 소설 제목만큼 뜨겁지 못했다. 2009년 여성 작가의 소설집에는 혼란한 세상에 던지는 치유와 소통의 언어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 걸음은 너무 느린 것 같았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늘 거명되는 김훈, 김연수, 박민규도 소설집을 발간했다. 김훈의 「공무도하」는 그동안 그가 발표했던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 등의 역사소설과 달리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연재를 통해 독자와 소통함으로써 관심을 모았다. 김연수의 단편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는 그의 열 번째 소설집으로, 자기 세계를 노래했던 지난 작품과 달리 새롭게 세상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박민규는 인터넷에 연재했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출간했다. 이 소설은 우리 사회의 치부 중 하나인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가벼운 서사다. 그리고 소설 「근처」가 제9회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2000년대를 치열하게 물들일 것 같았던 작가들은 왠지 고요하다. 그 정적을 깨고 전성태의 「늑대」는 사납게 울부짖었다. 몽골을 배경으로 우리 사회의 위선을 헤집은 거기에 남북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신자유주의시대 자본주의 문제, 혼혈 문제 등이 드러났다. 이에 못지않게 현기영은 「누란」을 통해 우리 사회 상실과 위기를 극복하려 애썼고, 현길언은 「나의 집을 떠나며」를 통해 사회적 관심에서 자신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회를 향한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박범신은 70년대 말에 썼던 「역신의 축제」를 개작한 「틀」을 출간했다. 유신시대의 폭력적 상황을 오늘에 다시 읽게 된 것이다. 김정호의 생애를 그린 「고산자」도 함께 출간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경자의 「빨래터」는 박수근 화가의 생애를 담아 이 시대 사람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2009년 신예 작가들은 모색 중이다. 김애란, 김중혁, 윤성희, 조현, 김혜나 등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중에 한유주가 두 번째 소설집 「얼음의 책」을 출간했다. 전통을 거부하는 작가답게 차갑다. 서사를 버린 9개의 단편이 사소한 듯 싱겁게 웃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작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야기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되레 어른스레 쓰고 있다.

청소년 소설은 좀 더 가벼워졌다. 권하은의 「바람이 노래한다」는 창비가 힘주어 내놓고 있는 청소년 문학 시리즈물 스무 번째로 김려령의 「완득이」, 구병모의 「위저즈 베이커리」의 명성을 새로운 감각으로 이었다. 그런데 김숨에 이르러 다시 무거워

졌다. 소설집 「나의 아름다운 죄인들」은 춤바람이 나 가출한 엄마, 건설현장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중풍을 맞아 골방 신세인 할아버지, 공순이 고모, 한쪽 팔을 잃은 장애자, 간질병자 등 그늘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동화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 외 김려령의 「우아한 거짓말」, 박선희의 「파랑치타가 달려간다」, 이경하의 「선배와 그녀」, 박경희의 「분홍 벽돌집」 등이 성장소설의 입사식을 보여주었다.

유명작가들의 인터넷 연재가 2009년에도 계속되었다. 젊은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작가마다 독자의 반응이 달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태다. 특히 인터넷의 특징이 '쌍방향성'을 만족시키는 데 미흡하고, 본격 소설보다는 장르소설에 경도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 2008년에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이 인터넷 연재 후 책으로 출판되어 40만 부가 팔린 점이 작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러한 성공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2009년에는 공지영의 「도가니」, 공선옥의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정이현의 「너는 모른다」가 책으로 출판되었다(<표 4> 참조).

**▌표 4. 인터넷 소설 발간 현황 ▐**

| 매 체 | 2008년 | 2009년 |
|---|---|---|
| 네이버 | · 박범신 「촐라체」(푸른숲)<br>· 황석영 「개밥바라기별」(문학동네) | · 파울로 코엘료 「승자는 혼자다」(문학동네) |
| 다 음 | | · 공지영 「도가니」(창비)<br>· 이기호 「사과는 잘해요」(현대문학) |
| 문학동네 인터넷커뮤니티 | | · 공선옥 「내가 가장 예뻤을 때」(문학동네)<br>· 김훈 「공무도하」(문학동네) |
| 교보문고 | | · 정이현 「너는 모른다」(문학동네) |
| YES24 | | · 박민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예담)<br>· 백영옥 「다이어트의 여왕」(문학동네) |

평론집은 연구서와 문학지 비평과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어 문학을 텍스트로 삼아 해석한 모든 저술을 망라했다. 2009년 출간된 평론집을 통해 볼 때, 김윤식의 저술욕은 변함없이 왕성했다.

「우리 시대의 소설가들」,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기요시 교수: 경성제대문과의 문화자본」, 「신 앞에서의 곡예」, 「박경리의 토지」, 「탄생 백주년 속의 한국문학 지적도」 등이 출간되었다. 그런 중에 김준오의 유고집이 눈에 아프다. 「현대시의 방법론과 모더니티」, 「현대시의 해부」는 귀감이다. 김병익의 「기억의 타작」은 본인도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말했듯 '문학은 기억으로 살아남기 위한 소망'임을 박경리, 이청준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장석주의 집요한 문학 지향성은 삶의 터전으로 방향을 틀기 바라는 기원을 저절로 하게 된다. 「나는 문학이다」는 111명의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다룬 책으로 한국문학사를 연대기적으로 다루는 구습을 해체하고 인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상처 입은 용들의 노래」는 한국 시사 100년을 상실의 기록으로 적고 있다. '한, 어둠, 슬픔'은 그에게서 다시 유용한 키워드가 되었다. 심진경의 「떠도는 목소리들」은 소설 평론집으로 '여성성 담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문학작품 속에 투영된 '바로 지금' 사회의 모습이 담겼다는 서평에 걸맞은 목소리가 담겨 있다. 하상일의 「생산과 소통의 시대를 위하여」는 우리 문학 주변부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문학에 대한 '애정'과 '비판'을 담고 있다. 그중 지역 시인과 작품을 통해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는 비평적 눈이 살갑다.

고전과 현대의 소통을 꾸준히 도모하는 평론집들이 있어 반갑다. 류정월의 「오래된 운명의 숲을 지나다」가 대표적이다. 이 책은 옛날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여 쉽게 보여줌으로써 고전의 낯설음을 친숙함으로 바꾸어준다. 특히 이 책은 조선시대의 운명담과 운명론을 다루기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 같은 차원에서 고미숙의 「임꺽정, 길 위에서 펼쳐지는 마이너리그의 향연」은 평자의 지속적인 변두리 의식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김용희의 「한국 현대시어의 탄생」과 이광호의 「익명의 사랑」은 각각 김환태평론상과 대산문학상을 탈 만큼 빼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번역문학 단행본을 새롭게 조사해 실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1,812종의 외국문학 번역물 중, 소설 1,254종, 수필 포함 산문 414종, 시나리오 포함 희곡 75종, 시 35종으로 조사되었다. 통계를 볼 때, 외국 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이 번역되었다. 국내소설 단행본이 2,231종 출간된 것과 비교할 때, 약 56%의 소설이 외국번역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독자가 국내 소설보다 외국 소설을 더 많이 읽고 있음을 나타낸다. 외국번역 산문을 포함한다면 우리 출판계의 외국문학 의존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에 따른 나라별 번역 출판 현황은 일본 서적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미국이 그 다음이다(<표 5> 참조).

2009년에 간행된 주요 시집과 소설집(장편소설 포함), 평론집 목록은 책의 문학적

가치나 경중을 선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다만 2009년 문학 지형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마중길 정도로 이해했으면 한다.

시집과 소설집 목록은 『문학사상』 편집부에서 입수한 자료에서 선별하였고, 평론집은 『2010문학연감』 편람에서 발췌하였다.

**▌표 5. 2009년 주요 국가별 번역 출판 현황 ▐**

| 분 야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학습참고 | 아동 | 만화 | 계 |
|---|---|---|---|---|---|---|---|---|---|---|---|---|---|---|
| 총 발행 종수 | 805 | 915 | 2,177 | 6,483 | 542 | 3,054 | 1,407 | 1,660 | 8,718 | 1,008 | 1,803 | 7,884 | 5,735 | 42,191 |
| 번역 종수 | 122 | 512 | 859 | 1,528 | 202 | 550 | 345 | 125 | 2,425 | 283 | 2 | 2,330 | 2,398 | 11,681 |
| 번역서 비중(%) | 15.1 | 56.0 | 39.4 | 23.5 | 37.2 | 18.0 | 24.5 | 7.5 | 27.8 | 28.0 | 0.1 | 29.5 | 41.8 | 27.6 |
| 일본 도서 | 13 | 45 | 21 | 341 | 39 | 191 | 74 | 21 | 886 | 43 | 0 | 386 | 2,343 | 4,403 |
| 미국 도서 | 85 | 193 | 631 | 825 | 92 | 256 | 118 | 75 | 611 | 85 | 0 | 740 | 35 | 3746 |

* 미·일 이외에 100종 이상 번역 출판된 국가의 발행 종수 및 주요 분야 : 영국 9,969(아동 350, 문학 253), 프랑스 542(아동 222, 문학 166), 독일 500(아동 153, 문학 105), 중국 376(문학 101, 아동 88), 이탈리아 155(아동 51, 문학 33), 동유럽 133(문학 37, 아동 32), 유럽 125(문학 35, 아동 33), 오세아니아 100(아동 50, 문학 19)
* 출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 2. 문학잡지 작품 발표 현황

2009년도 문학잡지에 발표된 작품 현황은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요 문학잡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로 2008년도 자료를 토대로 몇 종을 더 추가해 총 79종의 문학잡지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6> 참조).

2008년도 현황을 대상으로 한 자료 중 중지된 1종(계간 『너머』)을 제외하고 새롭게 창간한 잡지 2종(계간 『시와시』, 반년간 『리얼리스트』)과 기존 문예지 1종(계간 『미네르바』)을 추가하였다. 문학잡지의 선정 기준은 예년의 관례를 따랐다. 즉 지난 몇 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문예지로 선정된 잡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지우수작품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다수 수록한 잡지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표 6. 2009년 신작 조사대상 문예지 목록

| 잡 지 명 | 간 별 | 비 고 |
|---|---|---|
| 계간 문예 | 계간 | 종합 |
| 계간 수필 | 계간 | 수필 |
| 나래 시조 | 계간 | 시조 |
| 내일을여는작가 | 계간 | 종합 |
| 대산문화 | 계간 | 종합 |
| 리얼리스트 | 반년간 | 종합 |
| 리토피아 | 계간 | 종합 |
| 문예연구 | 계간 | 종합 |
| 문예중앙 | 계간 | 종합 |
| 문장웹진 | 월간 | 종합 |
| 문학 선 | 계간 | 종합 |
| 문학과사회 | 계간 | 종합 |
| 문학과창작 | 계간 | 종합 |
| 문학나무 | 계간 | 종합 |
| 문학동네 | 계간 | 종합 |
| 문학들 | 계간 | 종합 |
| 문학마당 | 계간 | 종합 |
| 문학미디어 | 계간 | 종합 |
| 문학사상 | 월간 | 종합 |
| 문학수첩 | 계간 | 종합 |
| 문학의문학 | 계간 | 종합 |
| 미네르바 | 계간 | 종합 |
| 미루 | 반년간 | 청소년 |
| 미스터리 | 계간 | 장르문학 |
| 불교문예 | 계간 | 종합 |
| 사람의문학 | 계간 | 종합 |
| 서정시학 | 계간 | 시 |
| 세계의문학 | 계간 | 종합 |
| 시로여는세상 | 계간 | 시 |
| 시문학 | 계간 | 시 |
| 작가와사회 | 계간 | 종합 |
| 창비어린이 | 계간 | 아동 |
| 창작과비평 | 계간 | 종합 |
| 통일과문학 | 계간 | 종합 |
| 판타스틱 | 월간 | 장르문학 |
| 펜문학 | 계간 | 종합 |
| 학산문학 | 계간 | 종합 |
| 한국문학 | 월간 | 종합 |
| 한국문학평론 | 반년간 | 평론 |
| 한국소설 | 월간 | 소설 |

| 잡 지 명 | 간 별 | 비 고 |
|---|---|---|
| 시와시 | 계간 | 시 |
| 시안 | 계간 | 시 |
| 시에 | 계간 | 시 |
| 시와동화 | 계간 | 종합 |
| 시와반시 | 계간 | 시 |
| 시와사람 | 계간 | 시 |
| 사와사상 | 계간 | 시 |
| 시와세계 | 계간 | 시 |
| 시와시학 | 계간 | 시 |
| 시와정신 | 계간 | 시 |
| 시인세계 | 계간 | 시 |
| 시인시각 | 계간 | 시 |
| 시작 | 계간 | 시 |
| 시평 | 계간 | 시 |
| 신생 | 계간 | 시 |
| 실천문학 | 계간 | 종합 |
| 심상 | 월간 | 시 |
| 아시아 | 계간 | 종합 |
| 아침햇살 | 계간 | 아동 |
| 애지 | 계간 | 시 |
| 어린이와문학 | 월간 | 아동 |
| 에세이21 | 계간 | 수필 |
| 에세이플러스 | 월간 | 수필 |
| 열린시학 | 계간 | 시 |
| 오늘의문예비평 | 계간 | 평론 |
| 월간문학 | 월간 | 종합 |
| 월간에세이 | 월간 | 수필 |
| 자음과모음 | 계간 | 소설 |
| 작가들 | 계간 | 종합 |
| 작가세계 | 계간 | 종합 |
| 한국수필 | 월간 | 수필 |
| 한국희곡 | 계간 | 희곡 |
| 현대문학 | 월간 | 종합 |
| 현대비평과이론 | 반년간 | 평론 |
| 현대시 | 월간 | 시 |
| 현대시문학 | 계간 | 시 |
| 현대시학 | 월간 | 시 |
| 황해문학 | 계간 | 종합 |
| 21세기문학 | 계간 | 종합 |
| | | |

조사대상 79종 잡지의 문인 작품 발표 현황을 정리한 결과(<표 7> 참조), 총 6,280명의 문인이 18,780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이는 여러 장르에 걸쳐 중복 발표한 문인들이 존재함을 감안한 수치다). 예년과 같이 단연 시 장르가 12,003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고, 평론 2,831편이, 수필·산문 1,927편이, 소설 803편이 차례로 다음을 이었다. 그 다음으로 시조(453편), 동시(324편), 외국문학(225편), 동화(108편), 청소년문학(64편), 희곡·시나리오(37편), 콩트(5편) 순이었다. 장르별 1인당 발표 작품은 단연 시가 4.5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평론이 2.5편이었다. 이어 동시(1.9편), 시조(1.8편), 수필·산문과 소설(1.5편), 외국문학(1.3편), 청소년문학(1.2편), 동시(1.9편), 동화(1.1편), 희곡·시나리오와 콩트(1편) 순이었다.

**▌표 7. 2009년 주요 문학잡지의 문인 작품 발표 현황 ▐**

| 구 분 | 시 | 시조 | 소설 | 수필·산문 | 평론 | 동시 | 동화 | 희곡·시나리오 | 콩트 | 청소년 문학 | 외국 문학 | 계 |
|---|---|---|---|---|---|---|---|---|---|---|---|---|
| 문인 수 | 2,664 | 249 | 526 | 1,215 | 1,107 | 169 | 92 | 37 | 5 | 53 | 163 | 6,280 |
| 발표 작품 수 | 12,003 | 453 | 803 | 1,927 | 2,831 | 324 | 108 | 37 | 5 | 64 | 225 | 18,780 |
| 1인당 발표 작품 수 | 4.50 | 1.81 | 1.52 | 1.58 | 2.55 | 1.91 | 1.17 | 1.00 | 1.00 | 1.20 | 1.38 | 2.99 |
| 수록 잡지 수 | 58 | 9 | 40 | 49 | 65 | 14 | 14 | 9 | 2 | 2 | 15 | - |

이렇게 볼 때 개인별 작품 수도 운문문학 장르가 산문문학 장르보다 많았다. 동시의 1인당 발표량이 적은 것을 보면, 동시의 장르적 성격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시라는 것이 삶의 연륜과 경험이 절대적 조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평론의 활발한 작품 발표는 예년과 다름없이 이어졌는데, 장르를 불문하고 비평의 역할이 새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조사 대상 잡지가 2종이나 추가되었음에도 작품발표 문인의 수와 전체 발표 작품량이 감소했다. 2008년 작품발표 문인 총 6,912명에 비해 600여 명이 줄었고, 작품 발표 수도 19,874편에서 1,000여 편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상실과 위기의 사회 분위기에 반응했던 2009년도 문학 지형도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문인들은 내면의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의 길목마다 언제나 문인들이 함께했음을 떠올린다면, 설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가능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비례하여 문인들의 1인당 작품 발표 수도 감소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소설 장르다. 작품 발표 작가 수는 줄었지만 1인당 발표 작품 수는 1.45편에서 1.52편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만큼 지난해 작가들의 작업량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소설 장르를 선호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아동문학에 대한 조사 결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에 미흡하다. 그만큼 제도권 문학이 아동문학을 쉽게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희곡 분야의 경우는 전문 잡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과 연계된 장르 인식 때문에 읽기 장르로 자리매김하기엔 부족하다. 오늘날 영화, 연극, 뮤지컬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희곡과 시나리오의 독자적 작품화는 충분히 고려할 문제다. 시조와 수필 장르 역시 세인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작품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창작 욕구와 독자 향유 사이의 간극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학의 현실성, 사회성, 역사성이, 나아가 독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된다.

외국문학의 소개는 다른 분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방화를 향한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몽골, 베트남, 인도, 아랍 등 아시아, 중동 국가는 물론 남미와 동유럽 국가 작가들과의 교류 양상이 뚜렷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 서구 편중의 우리 문학 풍토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가는 우리 현실의 실질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문학은 작품 수에 비해 매체의 빈곤이 여실히 나타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시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걸맞은 매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잡지의 좌담과 대담은 주로 문학과 정치 담론에 할애하고 있다. 이 역시 2009년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유수의 문학잡지들이 주변 장르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 점이다. 장르문학으로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판타지, 추리, 만화 장르는 거대한 독자군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주요 문학잡지에서 만날 수 없는 실정이다. 문학의 대중성 혹은 문학의 역할, 잡지의 제도적 측면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특히 르포, 수기 등 현장

문학과 생활문학에 대한 몰이해는 시급히 수정돼야 할 것이다. 독자와 소통하는 인터넷 소설이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상호 소통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독자가 독자의 위치에서 창작의 위치로 이동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공간을 문학잡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르별로 문인들의 작품 발표 양상을 살펴보면, 시의 경우 원로와 중견시인들의 부지런함이 돋보였다. 고은이 <최근> 등 37편을, 유안진이 <가을을 타고 싶어라> 등 35편을, 정진규가 <슬픈 살> 등 35편을, 이승훈이 <내가 이렇다> 등 34편을, 김백겸이 <줄노랑 얼룩가지나방> 등 34편을, 이승하가 <항하에 와서 울다> 등 32편을, 허만하가 <동점역> 등 31편을, 오세영이 <너를 찾는다> 등 29편을, 나태주가 <대숲 아래서> 등 29편을, 김혜순이 <잠수함이 떠오르는 일에 대하여> 등 28편을 발표했다.

젊은 시들의 경우 이근화가 <물고기의 단잠> 등 34편을, 손택수가 <먼지노트> 등 33편을, 김경주가 <타로> 등 30편을, 김언이 <연기2> 등 26편을 발표했다. 다작으로는 이원철이 <DMZ> 연작 49편을 발표해 최고봉에 섰다. 이어 진헌성이 <당아 어둑 새벽> 연작 40편을 발표했는데, 주로 『시문학』에 집중 게재하였다. 이승훈, 유안진의 경우 작년에 이어 마르지 않는 시의 샘을 간직한 듯 놀라운 시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인군들은 사회적 목소리에 합류하는 탓에 그만 못한 느낌이다.

소설의 경우, 하성란이 <여름의 맛> 등 6편으로 다작 발표 1위였다. 이어 윤후명 <팔색조> 등 5편, 이시백 <송충이는 무얼 먹고 사는가> 등 5편, 김숨 <쥐> 등 5편, 김미월 <삼칠은 이십일> 등 5편, 김종성 <춤추는 몬스터> 등 5편, 이동욱 <아케이드> 등 5편, 정용준 <굿나잇, 오블로> 등 5편, 한유주 <서늘한 여름 사냥> 등 5편, 황충상 <별나고도 별나다> 등 5편으로 뒤를 이었다.

그외 김금희 <아이들> 등 4편, 우승미 <12월 31일> 등 4편, 장은진 <나무인형> 등 4편, 유시연 <수선화> 등 4편, 윤고은 <1인용 식탁> 등 4편, 강준희 <선배를 찾아서> 등 3편, 강진 <고양이와 헤이쯔마> 등 3편, 김경욱 <허리케인 조의 파란만장한 삶> 등 3편으로 지칠 줄 모르는 필력을 보였다. 김연수가 <바다 쪽으로 세 걸음>을, 강영숙이 <크리스마스에는 훌라를>을 각각 장편 연재하여 2009년도 소설 흐름의 선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평론에는 고봉준과 유성호가 28편을 써서 다작 1위였다. 고봉준이 <수용소에서의 글쓰기> 등 28편을, 유성호가 <거대한 사라짐의 기록> 등 28편을 썼다. 그 다음으로 박슬기가 <낯선 심장이 내 안에서 울릴 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다> 등 19편, 권혁웅이 <네거리의 불가지론> 등 18편, 김석준이 <타자적 사유의 두 형식> 등 17편을 썼다. 김정남, 이경수 등도 17편을 썼다. 나민애가 <육식의 상상력과 초식의 상상력> 등 16편을, 이재복도 16편을 썼다. 권희철은 <아프리카의 꽃밭에 세우는 시업의 지붕> 등 15편을, 이경재, 조연정 등이 15편이다, 장석주가 <시의 황금시대> 등 14편, 송준영이 <현대시에 대한 생각> 등 13편을 그 외 이성혁, 이찬, 장성규 등이 13편을, 고명철이 <시마에 들린 사랑> 등 12편, 그 외 권온, 김수이, 송종원, 이수정, 정한아 등이 12편, 강정구가 <긍정과 부정의 길항> 등 11편, 강지희, 구모룡, 김수철, 송기한, 유영숙, 전형철, 조강석 등도 11편을 썼다. 권경아가 <세계와의 소통방식, 거리의 시학> 등 10편, 오형엽, 이혜원, 조영복도 10편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식이 <누구를 위한 소설쓰기인가> 등 27편을 발표하여 노익장을 과시했다.

수필·산문에는 윤대녕, 이경자가 13편, 김학은, 장동은, 정택영, 최병광, 홍지연이 12편, 김미원, 목정배, 박누리, 박효종, 심영섭이 11편, 이윤기, 조귀열, 조무제, 허세욱이 10편을 발표했다.

이처럼 각 장르별로 작품 발표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아직도 일부 문인들에게 발표 지면이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매체의 빠른 진보로 잡지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독자의 참여가 부족한 현행 잡지 제도는 얼마나 유용하고 유효한 것인지 살펴봄이 절실하다.

## II. 문학상

2009년 현재 조사된 문학상은 370여 개에 달한다. 국내 문학상은 화수분처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본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전국의 문학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09년 실제 시상한 문학상은 170여 개 정도로 보인다. 문학상 제정 이후 시상제도를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9년도에는 노근리평화문학상, 목월문학상, 창비어린이신인문학상이 신설되었다. 2008년

도에 13개가 신설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상의 제정이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의 문학 분야 지원 축소와 참여적인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학상 제도의 난립은 오늘날 부끄러운 한국문학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상의 의미가 퇴색한 상황에서 작고한 문인마다 상을 제정한다면 문학상은 향후 한국 문인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9년도 현재 문학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이 중 '종합'은 두 개 이상의 부문에 수상자를 내거나, 단일 상이라 해도 한 장르에 고정돼 있지 않고 여러 장르에서 수상자를 내는 경우다. '종합'에 해당하는 상이 161개로 전체의 43.5%에 달한다. 시가 72개 19.5%, 소설 41개 11.1%, 아동이 38개 10.3%, 시조가 24개 6.5%, 수필 12개 3.2%, 평론 11개 3.0% 순이며, 그 외 청소년과 번역이 5개로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곡은 1개(0.3%)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 장르는 여전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듯했던 시조와 수필문학이 저변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희곡문학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하다.

**▌표 8. 2009년 문학상 분야별 현황 ▐**

| 구 분 | 문학상 수(개) | 비 율(%) |
|---|---|---|
| 종합 | 161 | 43.5 |
| 시 | 72 | 19.5 |
| 소설 | 41 | 11.1 |
| 아동 | 38 | 10.3 |
| 시조 | 24 | 6.5 |
| 수필 | 12 | 3.2 |
| 평론 | 11 | 3.0 |
| 번역 | 5 | 1.4 |
| 청소년 | 5 | 1.4 |
| 희곡 | 1 | 0.3 |
| 계 | 370 | 100.0 |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년 시상된 170여 종의 문학상 수상자는 300여 명이다. 장르별로 보면 시 부문이 109명, 소설 부문이 52명, 아동문학 부문이 31명, 수필 부문이 21명, 시조 부문이 17명, 평론 부문이 20명, 번역 부문이 4명, 희곡·시나리오 부문이 5명, 청소년문학 부문이 7명, 기타 순이다. 시와 소설, 아동문학 부문의 수상자들이 대부분이며, 특이한 것은 청소년문학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문학에 이어 청소년문학이 문단이나 출판계에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 소설, 평론 부문의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2009년 문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문인들이 두각을 나타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시 부문: 공광규(윤동주상), 김경주(김수영문학상, 시작문학상, 한국문협작가상), 김광림(청마문학상), 김기택(상화시문학상, 경희문학상), 김언(미당문학상), 김윤희(시와시학상), 김정환(아름다운작가상), 김종길(만해대상), 김행숙(노작문학상), 나태주(한국시인협회상), 도종환(정지용문학상), 마종기(현대문학상), 문무학(윤동주문학상), 박철(천상병시상), 백무산(오장환문학상), 송찬호(대산문학상), 안도현(백석문학상), 유안진(유심작품상, 이형기문학상), 윤의섭(애지문학상), 이건청(현대불교문학상), 이근배(고산문학대상), 이면우(호서문학상), 최동호(고산문학대상, 박두진문학상), 박형준(소월시문학상), 정호승(지리산문학상), 정일근(월하진해문학상, 지훈상), 조연호(현대시작품상), 황동규(김달진문학상), 허만하(목월문학상), 허형만(영랑시문학상) 등

■ 소설 부문: 공선옥(만해문학상, 오영수문학상), 김경욱(동인문학상), 김기홍(문학동네소설상), 김애란(신동엽문학상), 김연수(이상문학상), 김형경(무영문학상), 문진영(창비장편소설상), 박민규(황순원문학상), 박범신(대산문학상), 박상우(동리문학상), 우승미(오늘의작가상), 윤흥길(현대불교문학상), 이수영(김유정소설문학상), 이영철(한국문협작가상), 장은진(문학동네작가상), 전성태(채만식문학상), 정유정(세계문학상), 정지아(한무숙문학상), 주원규(한겨레문학상), 최수철(김유정문학상), 편혜영(이효석문학상), 하성란(현대문학상), 한유주(한국일보문학상), 한창훈(요산문학상) 등

■ 평론 부문: 권영민(시와시학상), 권유리야(고석규비평문학상), 김미현(팔봉비평문학상), 김용희(김환태평론문학상), 박찬일(유심작품상), 이광호(대산문학상), 이재복(애지문학상), 임헌영(현대불교문학상), 정영자(조연현문학상), 최유찬(김달진문학상) 등

시의 경우 유안진, 최동호, 백무산, 도종환, 황동규, 이건청, 허만하, 허형만 등 중진급 시인들이 여전히 시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김행숙, 나태주, 정일근, 정호승, 송찬호 등 중견 시인들의 활약도 지난해 못지않다. 특히 김경주와 김언, 김기택은 2009년 주요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신예들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젊은 시인들이 거리로 나갔던 사실과 역시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소설의 경우 공선옥, 박상우, 전성태, 하성란, 김연수, 박민규 등이 2009년 대표 작가의 면면이다. 이들은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평가받은 듯하다. 박범신, 윤흥길의 활동이 여전히 눈길을 끈다. 특히 김애란, 정지아 등 차세대 작가들의 승승장구가 계속되고 있어 볼 만하다.

평론의 경우 임헌영, 권영민의 지속적인 글쓰기가 돋보인다. 권유리야, 김용희, 김미현 등 여성 평론가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진 2009년이었다.

2009년 가장 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문인은 김경주다. 김수영문학상, 한국문협작가상, 시작문학상 등 문단의 성향을 불문하고 가장 주목받는 시인임이 확인되었다. 최동호, 김기택, 정일근이 뒤를 이어 두 개의 상을 수상했다. 다수의 상을 수상한 문인들이 주로 시문학 분야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09년은 아무래도 시의 해였던 것 같다. 이런 중에 소설 분야에서 공선옥이 두 개의 상을 수상함으로써 2009년 주목받는 작가였음이 증명되었다. 지난해에는 평론 부문에서 김종회가 가장 많은 상을 수상했지만, 2009년도에는 그처럼 여러 개의 상을 수상한 경우가 없었다. 2009년 평론의 역할이 그만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새로 제정된 상의 경우, 노근리평화문학상과 창비어린이신인문학상, 목월문학상은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근리평화문학상은 '자유와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주제로 이에 부합하는 문학작품에 시상하는 상이다. 과거 역사의 아픈 기억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치유하려는 뜻으로 2009년 상실과 위기의 상황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풀어가려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창비어린이신인문학상은 출판사의 발빠른 행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목월문학상의 제정은 한국시문학에서 목월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할 때 늦은 감이 있다. 산문화되고 서사화되는 2000년대 시문학의 흐름을 다시 서정으로 이끌어야 할 몫이 이 상의 제정에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09년 부동산 거품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문학상의 거품이 빠지는 순간 우리 문학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 정치나 권력 등 문학 외적인 타의에 의해 문학의 인플레이션이 수술받기 전에 문학인들 스스로가 문학 정신, 작가의식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몸가짐이 절실하다.

## Ⅲ. 문학행사

2009년의 문학행사 중 250여 개의 행사를 조사했다. 2008년도 297개의 문학행사가 치러진 것을 보면 2009년 문학행사는 국민적 관심사를 끌었던 국가적 행사와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번 문학행사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문기사 검색, 중요 문학단체에 문의, 홈페이지 조사,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등에 의존해 행사를 집계하고 조사했다.

문학행사는 여러 내용을 함께 편성해 더불어 치러졌다. 즉 기념행사와 낭독회와 강연이 어우러지는 형상으로 이들의 각개 행사로 집계할 경우, 250여 개 행사에서 392개로 행사 수가 늘어난다(<표 9> 참조).

**▌표 9. 2009년 문학행사 현황 ▐**

| 구 분 | 행사 수 | 비 율 |
|---|---|---|
| 기념 및 추모행사 | 23 | 5.9 |
| 낭송·낭독 및 공연 | 47 | 12.0 |
| 독자와의 대화 및 만남 | 38 | 9.7 |
| 문인대회 | 4 | 1.0 |
| 문학강연 | 43 | 11.0 |
| 문학의 밤 | 13 | 3.3 |
| 문학기행 | 32 | 8.2 |
| 문학제, 문학축전 | 72 | 18.3 |
| 문학캠프, 문학학교 | 9 | 2.3 |
| 백일장 | 34 | 8.7 |
| 전시 | 34 | 8.7 |
|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 34 | 8.7 |
| 기타 | 9 | 2.3 |
| 계 | 392 | 100.0 |

가장 많이 치러진 문학행사는 예년과 같이 문학제, 문학축전이었다. 지역이나 문학작품을 주제로 한 문학제 및 문학축전으로 경남문학제, 지리산문학제, 해양문학제, 목포문학축전, 토지문학제 등이 개최되었고, 시인들의 이름을 딴 오장환문학제, 박인환문학제, 홍명희문학제, 미당문학제, 김남주문학제, 영랑문학제, 김유정문학제, 동리목월문학제, 권환문학제, 이상화문학제, 박재삼문학제, 이형기문학제, 이육사문학축전 등이 회를 거듭하여 열렸다. 이처럼 문인들을 내세워 치르는 문학제는 지역과 연계되어 새로운 경향으로 이미 자리잡은 지 오래다. 문인과 문학상이 연계되듯 지역토산품처럼 문학제가 양산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특성도 없고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다. 2009년 눈여겨볼 문학제로는 탄생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였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환태, 이원조, 신석초, 모윤숙, 박태원, 김내성, 현덕, 안회남 등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및 문학의 밤이 열렸다. 한국문학평화포럼이 주최하는 문학축전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희망, 평화, 상생'을 주제로 개최됐다.

다음으로 많이 개최된 문학행사는 낭송·낭독 및 공연 행사였다. 각종 문학행사의 단골메뉴로서 특히 시낭송이 주류였다. 시낭송회는 시민과 청소년 등 시인과 독자가 만나는 중요한 문학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책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이 한계점에 와 있는 지금 직접 문인들이 찾아가는 행사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다음이 문학강연이다.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주관으로 도정일, 염무웅의 강연이 있었으며, 한국문인협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전국의 유명문학관을 찾아 '문학과 청소년과의 만남' 행사를 치렀다. 5월에 정지용문학관을 찾아 성찬경, 신동욱, 김병권 등의 강연이 있었다. 특히 영인문학관에서 열렸던 '한국문학, 그 새벽에 온 사람들'은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을 대상으로 원로학자인 이재선, 강인숙, 김현자 등의 강연을 실시했다.

네 번째로 많이 열린 행사는 문인들과 독자와의 만남 혹은 대담행사였다. 한국작가회의 산하 민족문학연구소와 함께하는 '젊은 작가와의 대화'는 2월에 황병승 시인을, 4월에 염승숙 소설가를, 6월에 김사이 시인을 초청해 독자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문학의 집에서 주관하는 '수요문학광장'은 93회에서 101회까지 이어졌는데, 황금찬 시인, 이문열 소설가, 이생진 시인, 엄기원 아동문학가, 허근욱 소설가, 박이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시인, 이경자 소설가, 박완서 소설가, 김여정 시인이 시민들과 만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행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루어졌다. 2009년 문학의 향기 '우리시대 작가와의 대화'가 대표적이다. 이 행사는 강원도 소재 토지문화관에서 열렸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문태준, 박완서, 황동규, 성석제, 정끝별, 천운영, 함성호, 전경린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과 전시회, 백일장 등이 연이어 열렸다. 10월에 열린 신동엽 40주기 학술대회 및 <신동엽학회> 창립 대회에서는 연구자 중심 학회 운영에서 벗어나 문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식의 학회를 표방하였다. 또한 같은 달 29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문학포럼과 한국문학번역원의 공동 주체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문학 심포지엄'은 서구에 편중되었던 문학교류를 다원함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틀에 걸쳐 첫째 날은 여성 작가의 목소리를 담았고, 둘째 날에는 세계화와 문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외 장르별 세미나가 있었다. 6월에 열린 단편소설 페스티벌과 디카시페스티벌, 7월의 한·중 아동문학세미나, 11월의 물의 생명력과 시적 상상력 등이다. 백일장은 전통적으로 문학행사의 백미라 할 수 있다. 2009년에도 백일장이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각종 문학제와 문학축전에서 빠짐없이 백일장을 주요 행사로 치렀다.

문학기행도 여전히 독자와 문학이 친숙하게 되는 주요 통로였다. 문학기행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작품의 배경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 있고. 작가의 고향 등 문학공간으로 지역순례를 하는 것이 있다. 전자로는 9월에 경주를 중심으로 동리·목월의 작품 배경을 찾아가는 문학기행이, 10월에 김유정 소설의 배경이 된 실레마을을 찾는 문학기행이 있었다. 후자로는 1월부터 연중행사로 열리는 '문인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이 대표적이다. 사색의 향기문화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포석 조명희와 진천, 심훈 선생과 당진, 김관식 시인과 논산 등으로 2009년에 1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기념행사로 두드러진 것은 한국문학번역원 주관행사였다. 6월에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문학행사-한·아세안 시인들의 만남은 '아름다움, 평화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 13명의 시인들이 참여했다. 그 외에도 한국문학번역원은 외국과 교류 도서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2009년에도 작고 문인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있었다. 2월에 청마문학관에

서 42주기 청마 유치환시인 추모제가, 3월에 김유정 선생 72주기 추모제가, 4월에는 박경리 선생 1주기 추모 사진전 및 시화전이, 7월에 소설가 이청준 1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고, 9월에는 한국작가회의가 주최한 조태일 민족시인 10주기 추념행사가 있었다. 2000년 타계한 이청준, 박경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다.

문학캠프 형식의 독자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계속됐다. 해마다 열리는 예스24문학캠프는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 추천 한국의 대표작가'를 선정하는 행사에 참여한 독자 약 200명을 선정해 무료로 치러졌다. 캠프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박경리의 토지문화관, 이효석문화관, 김유정문학관이 있는 강원도 문학의 본거지를 돌아보며 한국근대문학과 고인이 된 박경리, 이효석, 김유정 작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한국의 젊은 작가'로 뽑힌 공지영, 박현욱, 배영옥, 김선우가 참여했다.

2009년 치러진 문학행사는 지난해에 비해 행사 수는 줄었지만, 내용의 가짓수는 풍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행사의 내용이나 형식이 행사마다 대동소이하고 중첩돼 있다. 특히 참여하는 문인들이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행사가 치러지는 공간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 점에서 문학행사의 외형을 늘리기보다는 전문화, 다양화, 개성화해야겠다.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일부 명망가나 베스트셀러 작가 위주의 행사는 그 자체가 상업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문학행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무엇보다도 심각하다. 인터넷은 오늘날 새로운 문학소통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문학행사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계층, 남녀, 세대, 세계를 아우른 문학행사의 기획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은 우리 문학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Ⅳ. 한국문학 번역 현황

2009년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문학 번역작품집은 총 60권으로 집계되었다(<표 11> 참조). 이 수치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통계를 참고한 것으로 여타 기관이나 개인이 번역 출판한 작품집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록 전수 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KOR

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두 기관의 번역작품 출간 현황은 2009년 한국문학 번역 현황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모두 55권의 한국문학이 외국에서 번역, 출간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늘어난 수치다. 60권 가운데 시는 10권, 소설은 30권, 기타 20권(평론 2권 포함)이다(<표 10> 참조). 시는 2008년에 비해 4권이 줄었고 소설은 1권이, 기타는 8권이 늘었다. 이를 볼 때 한국문학 번역에서 고전문학, 소설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문학 작품이 세계화 혹은 보편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의 현대성 혹은 시문학의 폐쇄성을 인식하고 변모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언어권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어와 영어, 일어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어가 7권, 영어가 8권, 일어가 5권이 번역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어의 비중이다. 중국어는 2008년보다 1권이 늘어난 10권이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언어로 자리했다. 우리 문화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못지않게 최근에 중국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베트남 등의 번역 상황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제3세계 문학 교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0. 2009년 한국문학 번역작품집 출판 현황 ▐**

| 구 분 | 시 | 소설 | 기타 | 계 |
|---|---|---|---|---|
| 권 수 | 10 | 30 | 20 | 60 |
| 비 율(%) | 16.7 | 50.0 | 33.3 | 100.0 |

시의 경우 고은의 작품이 두 편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다. 프랑스어에 이어 영어,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벨문학상과 관련 고은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소설의 경우는 5권이나 번역 출판된 박완서의 작품이 두드러진다. 박완서의 작품은 중국어(「휘청거리는 오후」, 「아주 오래된 농담), 영어(「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파키스탄어(「박완서 중단편선」) 등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이를 이어 박경리의 대표작 「토지 1, 2」 편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황석영(「무기의 그늘」, 「심청」), 윤흥길(「윤흥길 단편선: 장마」, 「소라단 가는 길」)의 작품이 각각 두 편씩 번역되었다. 해방 이전의 작품으로는 고

전을 제외하고 염상섭의 작품 「만세전」이 두 개의 언어로 각각 번역(러시아어, 베트남어)되었다. 이를 볼 때 염상섭의 작품세계가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독자든 수용 가능한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작품으로 시는 김선우의 「도화 아래 잠들다」가, 소설은 하성란의 「삿뽀로 여인숙」이 각각 독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이를 볼 때 한국문학의 번역 작품 중에서 여성 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1. 2009년 한국문학 번역작품집 출간 현황 ▐**

| 언어권 | 작품명 | 장르 | 원작자 | 번역자 | 지원처 |
|---|---|---|---|---|---|
| 네덜란드어 | 무기의 그늘 | 소설 | 황석영 | 렘코 에릭 브뢰거/임꺼 판 할딩엔 | 한국문학번역원 |
| 독어 | 도화 아래 잠들다 | 시 | 김선우 | 강승희/카이 로스 | 한국문학번역원 |
| 독어 | 여자에 관한 명상 | 소설 | 송기원 | 정미기/하랄트 게르버 | 한국문학번역원 |
| 독어 | 성석제 단편선 | 소설 | 성석제 | 박인원/안냐 미하엘젠 | 한국문학번역원 |
| 독어 | 김승옥 단편선 | 소설 | 김승옥 | 박경희/마티아스 아우구스틴 | 한국문학번역원 |
| 독어 | 연암소설 | 기타 | 박지원 | 정형강/엘케 골셔트 정 | 한국문학번역원 |
| 러시아어 | 18-19세기 중세소설(2) | 기타 | | 라코프 겐나디 | 한국문학번역원 |
| 러시아어 | 18-19세기 중세소설(1)-춘향전 | 기타 | | 라코프 겐나디 | 한국문학번역원 |
| 러시아어 | 송강가사전집-외로운 문학 | 기타 | 정 철 | 칸체비치 | 한국문학번역원 |
| 러시아어 | 정지용시선 | 시 | 정지용 | 리 그리고리 니콜라예비치 | 한국문학번역원 |
| 러시아어 | 만세전 | 소설 | 염상섭 | 유승만/따지아나 모졸 | 한국문학번역원 |
| 루마니아어 | 이상작품선 | 시 | 이 상 | 김정환/록사나 안젤레스쿠 | 한국문학번역원 |
| 루마니아어 | 구운몽 | 기타 | 김만중 | 엄태현/이오노아이아 엘리아나 크리스티나 | 한국문학번역원 |
| 베트남어 | 20세기 한국문학의 이해 | 평론 | 이남호, 우찬제, 이광호, 김미현 | 황하이번 | 한국문학번역원 |
| 베트남어 | 한국의 고전문학 | 기타 | 한국언어문화연구원 | 다오티미 칸 | 한국문학번역원 |
| 베트남어 | 만세전 | 소설 | 염상섭 | 레당호안 | 한국문학번역원 |
| 불가리아어 | 한국속담집 | 기타 | | 김소영 | 대산문화재단 |
| 불가리아어 | 한국의 선시 | 기타 | | 류드밀라 아타나소바 | 한국문학번역원 |
| 프랑스어 | 식물들의 사생활 | 소설 | 이승우 | 최미경/장 노엘 주테 | 대산문화재단 |
| 프랑스어 | 열녀춘향수절가 | 기타 | | 최미경/장 노엘 주테 | 한국문학번역원 |
| 프랑스어 | 심청 | 소설 | 황석영 | 최미경/장 노엘 주테 | 한국문학번역원 |
| 프랑스어 | 아내의 상자 | 소설 | 은희경 외 | 이혜영/가브리엘 코르비에르 | 한국문학번역원 |
| 프랑스어 | 변강쇠전 | 기타 | | 최미경/장 노엘 주테 | 한국문학번역원 |

(계 속)

| 언어권 | 작품명 | 장르 | 원작자 | 번역자 | 지원처 |
|---|---|---|---|---|---|
| 프랑스어 | 성학집요 | 기타 | 이 이 | 필립 티에보 | 한국문학번역원 |
| 프랑스어 | 흰뱀을 찾아서 | 소설 | 남상순 | 파스카 그로트 | 대산문화재단 |
| 스웨덴어 | 윤흥길 단편선:장마 | 소설 | 윤흥길 | 레이프 구스타프손 | 한국문학번역원 |
| 스페인어 | 아들과 함께 걷는 길 | 소설 | 이순원 | 나송주 | 대산문화재단 |
| 스페인어 | 고창수 시선 | 시 | 고창수 | 페르난도 드 바르보사 | 한국문학번역원 |
| 스페인어 | 홍어 | 소설 | 김주영 | 고혜선/프란치스코 카란차 | 한국문학번역원 |
| 스페인어 | 한국단편선집 | 소설 | 손창섭 외 | 김은경 | 한국문학번역원 |
| 스페인어 | 소라단 가는 길 | 소설 | 윤흥길 | 윤선미/이강국 | 대산문화재단 |
| 영어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소설 | 박완서 | 유영나/스테판 엡 스타인 | 대산문화재단 |
| 영어 | 한국여성작가단편선 | 소설 | 박완서 외 | 김영희 | 대산문화재단 |
| 영어 | 인간문제 | 소설 | 강경애 | 샘 페리 | 한국문학번역원 |
| 영어 | 황순원 단편선 | 소설 | 황순원 | 브루스 풀턴/윤주찬 | 한국문학번역원 |
| 영어 | 고은 시선집1960-2002 | 시 | 고 은 | 안선재 | 한국문학번역원 |
| 영어 | 사라진 손바닥 | 시 | 나희덕 | 김원중/크리스토퍼 메릴 | 한국문학번역원 |
| 영어 | 운영전 | 기타 | | 마이클 제이 페티드/차길 | 한국문학번역원 |
| 영어 | 허균 시선집-성소복부고 | 기타 | 허 균 | 허태영/이안 하이트 | 대산문화재단 |
| 이탈리아어 | 고은 시선집 | 시 | 고 은 | 빈센차 두르소 | 한국문학번역원 |
| 이탈리아어 | 춘향전(열녀춘향수절가) | 기타 | | 마우리지오 리오토 | 한국문학번역원 |
| 일본어 | 태평한화골계전 | 기타 | 서거정 | 우메야마 히데유키 | 한국문학번역원 |
| 일본어 | 이호철 단편선 | 소설 | 이호철 | 강상구 | 한국문학번역원 |
| 일본어 | 조선문학의 지성/김기림 | 시 | 김기림 | 아오야키 유코 | 대산문화재단 |
| 일본어 | 윤동주평전 | 평론 | 송우혜 | 아이자와 가쿠 | 한국문학번역원 |
| 일본어 | 김수영 전집 | 시 | 김수영 | 한용무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토지1 | 소설 | 박경리 | 김호웅/유광명/김영금/김덕부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모순 | 소설 | 양귀자 | 장기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금오신화 | 기타 | 김시습 | 권석환/진포청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가지 않은 길 | 소설 | 김문수 | 김련란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마당 깊은 집 | 소설 | 김원일 | 김태성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삼국유사 | 기타 | 일 연 | 권석환/진포청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토지2 | 소설 | 박경리 | 김호웅/유광명/김영금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휘청거리는 오후 | 소설 | 박완서 | 이정교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삿뽀로 여인숙 | 소설 | 하성란 | 허련순 | 한국문학번역원 |
| 중국어 | 아주 오래된 농담 | 소설 | 박완서 | 김태성 | 한국문학번역원 |
| 체코어 | 화엄일승법계도 | 기타 | 의상대사 | 이바나 그루베로바 | 한국문학번역원 |
| 체코어 | 김삿갓 시선 | 시 | 김 립 | 미라암 뢰벤스타 이노바 | 한국문학번역원 |
| 파키스탄어 | 박완서 중단편선 | 소설 | 박완서 | 마스두 아샤르 | 대산문화재단 |
| 폴란드어 | 김영하 단편선 | 소설 | 김영하 | 최성은/베아타 보구쉬 | 한국문학번역원 |

이와 같은 번역출판 추세는 2009년도에 선정된 신규 번역지원 작품에도 계속 이어졌다(<표 12> 참조). 한국문학번역원이 선정한 번역지원 작품을 보면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미경(「내 아들의 연인」), 김애란(「달려라, 아비」), 공선옥(「수수밭으로 오세요」), 공지영(「고등어」), 배수아(「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한강(「채식주의자」, 「검은 사슴」), 박경리(「토지 3권」), 은희경(「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신경숙(「엄마를 부탁해」, 「외딴 방」), 양귀자(「모순」) 등을 볼 때 여성 작가들은 현재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지원 추세에 여전히 한국문학 작품으로 세계적 관심을 끌 만한 일부 작가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도 변함이 없다. 고은의 시(「순간의 꽃」, 「고은 시선집」, 「내일의 노래」)와 황석영의 소설(「개밥바라기별」, 「오래된 정원」)이 그러한 경우다. 소설 번역도 여전히 주류를 이루었다. 박범신(「촐라체」), 최인호(「타인의 방」), 이문열(「시인」), 김훈(「강산무진」), 김주영(「멸치」), 박민규(「카스테라」), 이승우(「오래된 일기」), 김영하(「퀴즈쇼」) 등 전체 번역 지원 작품 57건 중 44건을 차지했다. 그에 비해 시문학 번역 지원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향후 한국문학 번역에 있어 다양한 문인의 발굴과 시각의 개방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 지원 선정된 백무산(「인간의 시간」)의 경우는 눈여겨볼 만하다.

**▌표 12. 2009년 한국문학번역원 선정 신규 번역지원 작품 ▐**

| 언어권 | 작품명 | 장르 | 원작자 | 번역자 |
|---|---|---|---|---|
| 독어 | 카스테라 | 소설 | 박민규 | 안드레아스 쉬르머/강인숙 |
| 독어 | 순간의 꽃 | 시 | 고 은 | 한스 유르겐 자보로프스키 |
| 독어 | 채식주의자 | 소설 | 한 강 | 김선희/에델트루트 |
| 독어 | 고등어 | 소설 | 공지영 | 성경숙 |
| 독어 |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 소설 | 배수아 | 이경분/카이 쾰러 |
| 독어 | 강산무진 | 소설 | 김 훈 | 윤선영/미하엘 텝 |
| 프랑스어 | 개밥바라기별 | 소설 | 황석영 | 정은진/자크 바틸리요 |
| 프랑스어 | 오래된 일기 | 소설 | 이승우 | 최미경/장 노엘 주테 |
| 프랑스어 | 달려라, 아비 | 소설 | 김애란 | 김혜경/장 클로드 드크레센조 |
| 프랑스어 | 캐비닛 | 소설 | 김연수 | 최경란/피에르 비지유 |
| 영어 | 김남조 시선집 | 시 | 김남조 | 정정선/힐렐 슈와츠 |
| 영어 | 주변인의 초상 | 시 | 최승자 | 김은주/크리스토퍼 로버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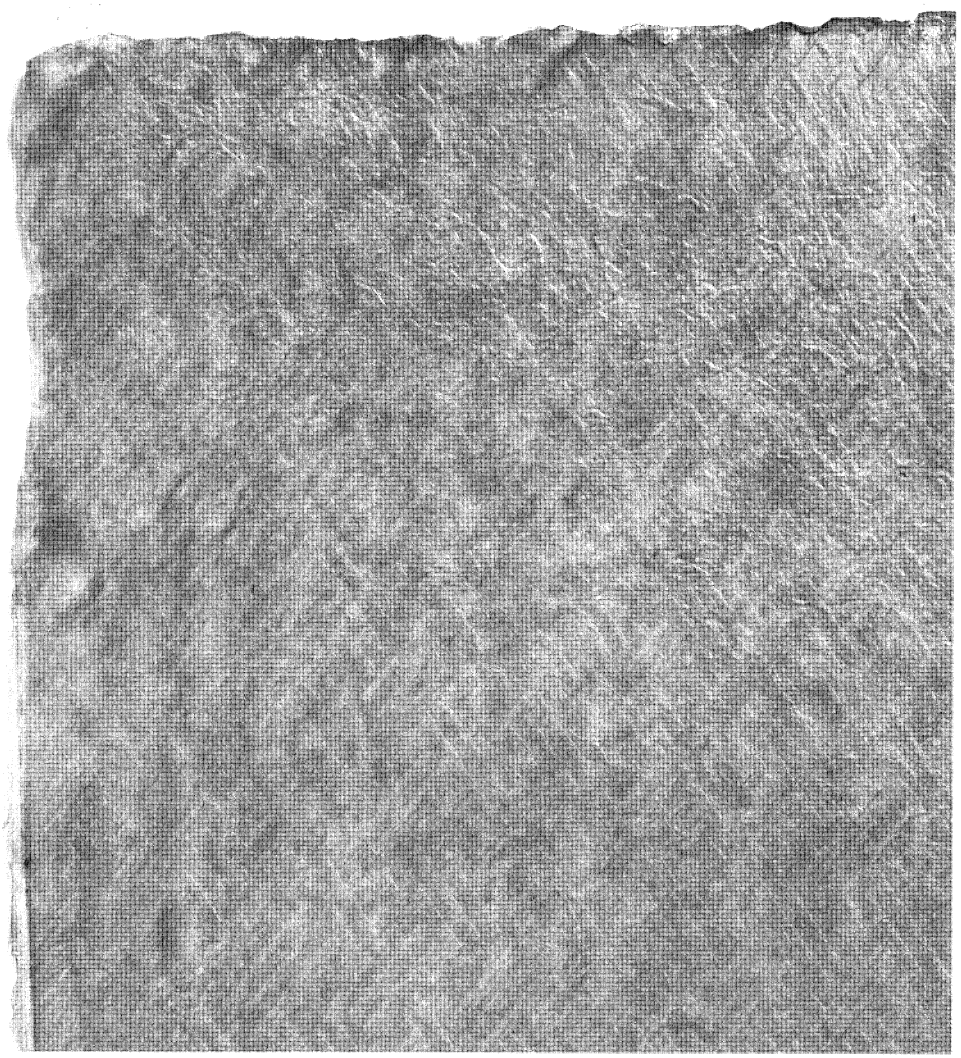
| 언어권 | 작품명 | 장르 | 원작자 | 번역자 |
|---|---|---|---|---|
| 영어 | 홍어 | 소설 | 김주영 | 유인례/루이스 빈치게러 |
| 영어 | 우주피스 공화국 | 소설 | 하일지 | 브루스 풀턴/주찬 풀턴 |
| 영어 | 하얀 저고리 | 소설 | 조세희 | 브루스 풀턴/주찬 풀턴 |
| 영어 | 그늘의 발달-문태준 시선집 | 시 | 문태준 | 김원중/크리스트퍼 메릴 |
| 영어 | 내 아들의 연인 | 소설 | 정미경 | 유영난 |
| 영어 | 김영랑 시집 | 시 | 김영랑 | 안선재 |
| 영어 | 고래 | 소설 | 천명관 | 정재원 |
| 영어 | 흙 | 소설 | 이광수 | 황선애/호라스 제프리 하지스 |
| 일본어 | 식물들의 사생활 | 소설 | 이승우 | 김순희 |
| 일본어 | 거울 속의 천사 | 시 | 김춘수 | 강상구 |
| 일본어 | 타인의 방 | 소설 | 최인호 | 이데 슌사쿠 |
| 일본어 | 운현궁의 봄 | 소설 | 김동인 | 아와카타 히사히꼬 |
| 일본어 | 그러나 | 소설 | 홍성원 | 안우식 |
| 일본어 | 유맹 | 소설 | 손창섭 | 하시카와 코이치 |
| 일본어 |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 소설 | 은희경 | 오영아 |
| 중국어 | 타인의 방 | 소설 | 최인호 | 남연 |
| 중국어 | 촐라체 | 소설 | 박범신 | 김련란 |
| 중국어 | 토지 3권 | 소설 | 박경리 | 김호응/유광명/김영금 |
| 중국어 | 멸치 | 소설 | 김주영 | 권혁률 |
| 중국어 | 수수밭으로 오세요 | 소설 | 공선옥 | 정혜 |
| 중국어 | 흙 | 소설 | 이광수 | 이승매/이용해/필신연 |
| 중국어 | 아제아제 바라아제 | 소설 | 한승원 | 량복선 |
| 중국어 | 유맹 | 소설 | 손창섭 | 천춘화 |
| 중국어 | 검은 사슴 | 소설 | 한 강 | 김련순 |
| 중국어 | 운현궁의 봄 | 소설 | 김동인 | 남광철 |
| 중국어 | 방현석단편집 | 소설 | 방현석 | 정유선/무력문 |
| 체코어 | 매월당 김시습 한시선 | 기타 | 김시습 | 이바나 그루베로바 |
| 터키어 | 고은 시선집 | 시 | 고 은 | 오은경 |
| 터키어 | 시인 | 소설 | 이문열 | 이난아 |
| 덴마크어 | 순간의 꽃 | 시 | 고 은 | 매스 정 닐슨 |
| 러시아어 | 엄마를 부탁해 | 소설 | 신경숙 | 타티아나 잘레스카야 |
| 러시아어 | 수수밭으로 오세요 | 소설 | 공선옥 | 조근희/율랴 바라하노바 |
| 러시아어 |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 기타 | 이어령 | 정인순/이리나 카사트키나 |
| 베트남어 | 내일의 노래 | 시 | 고 은 | 레 당 호안 |
| 베트남어 | 이상 단편선 | 소설 | 이 상 | 하밍타잉 |
| 베트남어 | 채식주의자 | 소설 | 한 강 | 황하이번 |
| 베트남어 | 퀴즈쇼 | 소설 | 김영하 | 응웬 티 히엔 |

(계 속)

| 언어권 | 작품명 | 장르 | 원작자 | 번역자 |
|---|---|---|---|---|
| 베트남어 | 퀴즈쇼 | 소설 | 김영하 | 응웬 티 히엔 |
| 불가리아어 | 모순 | 소설 | 양귀자 | 김소영 |
| 스웨덴어 | 오래된 정원 | 소설 | 황석영 | 박옥경/안데쉬 칼손 |
| 스페인어 | 멸치 | 소설 | 김주영 | 고혜선/프란시스코 카란사 |
| 스페인어 | 인간의 시간 | 시 | 백무산 | 윤선미 |
| 스페인어 | 연암박지원 소설집 | 기타 | 박지원 | 이혜경 |
| 스페인어 |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 소설 | 배수아 | 권은희/성초림 |
| 이탈리아어 | 외딴 방 | 소설 | 신경숙 | 데니콜라 주세페나 |
| 포르투갈어 |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 소설 | 배수아 | 성효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시각예술



2010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2009년 시각예술 총론
## - 회화, 조각, 공예 -

하계훈(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 김달진미술연구소 객원연구원)

## Ⅰ. 총론

2009년의 미술계는 2008년 후반부터 깊어진 침체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하였다. 미술계의 침체와 이에 따른 위축된 분위기는 미술시장에서부터 그 파장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침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문제점 때문이기보다는 미국의 부동산 관련 파생 금융상품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국내 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미술계의 체질은 내재적 역량보다는 외부 변화에 향방이 크게 좌우되는 허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공 영역의 확고한 정책과 다양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미술 저널리즘과 비평 담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상황은 더욱 더 미술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술시장의 침체는 공공영역의 미술정책을 상대적으로 주목받게 만들어준다. 2009년 1월 15일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격동 옛 기무사령부 자리에서 미술인들과 신년인사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대통령을 초청하여 그곳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만들 것을 선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을 특수법인화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연내에 법안제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임 관장이 해임된 미술관의 관장 자리가 미술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후임 관장에게 넘겨진 것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였다.

기무사령부 터 분관 건립사업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은 기관의 법인화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11월 24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국립

현대미술관 발전방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독립법인화 문제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에 비해 재정 안정성의 결여와 상업주의적 운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직원들의 신분보장 문제 등 부정적인 예측이 앞선 의견과 서로 대립하고 있다.

독립법인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지역미술관들과의 협력망 구축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왔다. 4월 6일 국립현대미술관 주관으로 전국 미술관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각 시도의 지역 대표 미술관 15곳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주도하는 미술관 협력망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중앙정부의 미술정책과 함께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결합된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정책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상당액의 예산이 공공 기반 시설 확보에 배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사업계획서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신장'을 정책기조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그러한 목표의 연장선상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강북 분관을 비롯하여 양주천경자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목포노적봉미술관, 남도전통미술관, 고흥군립천경자미술관, 신안김환기미술관, 영암망향미술관 등 주요 지방도시의 문화시설 확충에 31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제주도립미술관과 포항시립미술관이 개관하였고 대구시립미술관도 이듬해로 예정된 개관을 위해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제주도립미술관과 포항시립미술관은 둘 다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이라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건립과정에서 상반된 진행절차를 보여주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개관 직전까지 관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외부 기획자에 의존하여 개관기념 전시를 치른 반면에 포항시립미술관은 개관을 일 년 정도 앞두고 관장과 학예연구 인력을 선임하여 건립 단계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며 장기적인 계획 속의 준비를 비교적 잘 처리하였으며 개관 기념전도 관장과 학예실장을 포함한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치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09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에서 미술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독산동 인쇄공장 터를 리모델링하여 금천예술공장이라는 작가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어서 신당동 중앙시장을 개조한 신당 창작아케이드, 서교동 동사무소 자리를 개조한 서교예술실험센터 등의 공간을 작가들의 창작과 작품발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공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미술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증가에 머무는 수준이거나 공간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기존의 공간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참여 작가들에게 그저 일 년간 공간을 내주고 관료주의적인 행동지침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속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창작 진흥과 문화향수를 위한 공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선감도의 옛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미술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생산될 수 있는 경기창작센터를 10월 29일에 개관하였다. 경기문화재단 측에서는 기존의 창작 공간들과 달리 규모를 대형화하고 정식 개관 이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기창작센터는 국제 레지던스의 성격을 강화하여 외국으로부터 다수의 작가가 이곳에 참여하여 국내 작가와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경기창작센터 운영에 기대를 거는 시선들이 많은 편이다.

인천시에서는 중구 해안동에 위치한 옛 창고 건물을 개조하여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로 만들고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기존의 레지던스 공간이 비교적 일률적인 크기의 공간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대, 중, 소 등 다양한 크기의 공간을 조성하여 작가들의 작업 특성에 맞게 공간을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작업을 하는 작가들뿐 아니라 평론가와 전시기획자들도 함께 이 공간에 입주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2009년 6월 1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기존의 인사미술공간이 아르코미술관에 흡수 통합되는 형식으로 하나의 기관이 되었다. 이로써 인사미술

공간에서 사용해오던 건물은 신진작가와 독립큐레이터들을 위한 기획전 전용 공간으로 활용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아르코미술관은 기존의 전시사업 이외에 신진작가 인큐베이팅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미술 아카이브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공공 영역에서의 미술문화 공간의 변화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의 공간 변화도 생겨났다. 우선 두산연강재단에서 운영하는 두산아트센터가 두산레지던시 뉴욕과 두산갤러리 뉴욕을 첼시 지역에 오픈하여 우리 예술가들의 국제적 진출에 교두보 노릇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 최초로 비영리적 바탕에서 국제적인 작가 지원과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제1기 작가로는 국내에서 이형구, 최우람, 정수진이 선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1998년부터 일찍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미술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쌈지스페이스가 경영상의 이유로 4월에 문을 닫게 되어 미술인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6월에는 성보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호림박물관이 관악구 신림동 본관에 이어 강남구 신사동에 분관 겸 호림아트센터를 개관하였다.

2009년은 특히 1909년 창경궁에 문을 연 이왕직박물관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 박물관 역사가 100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박물관학회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박물관과 관련된 학회들을 모두 참가시키는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박물관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100년에 대한 전망과 미군기지가 이전한 후 조성될 예정인 용산 뮤지엄 콤플렉스에 관한 문제 등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2009년의 미술시장은 전년의 후반기 침체가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미술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소위 미술계의 블루칩 작가를 선보이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블루닷아시아2009전』(6.20-25,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신장개업 효과인지 모르겠으나 미술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첫 행사를 무사히 치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부산에서 열린 『제27회 화랑미술제』(3.19-23, 부산 벡스코)나 『제3회 아트 대구』(2.27-3.3, 대구 엑스코), 『서울오픈아트페어』(4.15-29,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가을에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9.18-22, 코엑스) 등의 행사는 모두 저조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우리 화랑들의 외국 아트페어 참가도 저조한 편이어서 가을에 열린 런던의 프리즈 아트페어나 파리의 국제현대미술시장인 피악(FIAC)의 경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는 예년과 달리 한 화랑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화랑 밀집지역을 대표하는 두 곳에서 열린 『인사미술제』(11.18-24)와 『청담미술제』(11.26-12.5) 역시 두드러진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인사미술제는 '한국의 팝아트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15개 화랑이 한국적 팝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반면에 청담미술제는 23개의 국내 화랑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미국계 갤러리들이 동참하여 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 옥션을 통해 낙찰되었으며 2년 가까이 위작논쟁에 휩싸였던 박수근의 작품 <빨래터>는 마침내 법원에서 진품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진위 논쟁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으로 미술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작품 진위 감정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Making Worlds'를 주제로 열린 『2009베니스비엔날레』(6.7-11.22)에는 작가 양혜규가 참가하였으며 재미 작가 마이클 주의 동생인 주은지가 커미셔너로 활동하였다.

2009년 우리 미술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원로 미술인들의 타계 소식과 미술품 로비 의혹사건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미술계의 개척자이며 초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하였던 석남 이경성 선생이 미국에서 별세하였고, 프랑스와 파리를 오가며 활동하던 원로 여류화가 이성자 선생도 91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 밖에도 김점선, 신성희 화백이 지병으로 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신성희 화백의 경우에는 작가 한순자와 함께 서울의 소마미술관에서 2인전을 개최하고 있던 도중인 10월 17일에 운명하여 미술계 사람들뿐 아니라 관람객으로부터 안타깝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이 저무는 11월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미술품에 대한 정치적 로비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세청의 모 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그림을 강매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13억 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며 그 결과 당사자는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국장이 다시 전 국세청장이 차장 시절에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가지고 상사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미술품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미술계의 관심을 끌었는데, 최욱경 작품과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못하였다.

## II. 회화

2009년 우리 미술계의 시작은 2008년 말에 기획된 굵직한 전시가 이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젊은 모색 2008 I AM AN ARTIST전>은 2008년 12월 5일에 개막하여 2009년 3월 8일까지 열렸다. 1981년 <청년작가전>에서 출발하여 2000년부터 <젊은 모색전>으로 이름을 바꾸며 격년제로 열린 이 전시는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외부 자문위원들에 의해 출품작가가 결정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술관 내부의 학예 인력이 중심이 되어 작가를 선정했는데, 발전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2009년의 출품 작가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의 17명의 작가들로서 미술관 측에서는 "<젊은 모색전>이 표피적인 대중주의와, 물질 가치 중심적인 미술시장에 함몰되어 질식하고 있는 예술의 다양성과 근원에 대한 사유, 작가의 역할과 자존심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전시"라고 강조했다.

2007년과 2008년 전반에 걸쳐 미술시장이 활황국면을 누리던 시기에 비하여 미술시장에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앞다투어 선점하려는 분위기는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2009년에도 젊은 유망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자리에서 열린 『2009 아시아프-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7.29-8.23)는 아시아 7개국의 예비 작가 700여 명이 출품한 가운데 2008년의 성공 분위기를 이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터는 이어서 <플랫폼 2009-플랫폼 인 기무사전>(9.3-25)과 <신호탄-Beginning of New Era전>(10.20-12.6)의 무대로도 사용되었는데, 아시아프전이 이곳에서 열린 것에 대해서는 국립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시장 성격의 행사에 분관 설립 부지를 대여해준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2009재외한국청년미술제-U.S.B전>(11.5-12.6)은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지니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젊은 작가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연속 기획전시의 하나로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24명의 젊은 작가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세오갤러리에서 주최한 세오 영 아티스트 공모에 선정되어 초대전을 가졌던 영 아티스트들과 세오갤러리가 기획한 그룹전에 초대되었던 작가 가운데 젊은 작가 일곱 명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세오 홈커밍전: Heropia 히어로피아전>(1.13-2.26)은 지난 5년간 세오갤러리가 젊은 작가들을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co.kr

해온 결과로 이 사업을 거쳐 간 젊은 작가들이 국내외 미술계에서 어떻게 약진하고 있는가를 중간 정리하는 성격을 가진 전시로서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돋보인 전시로는 <내일을 향해 쏴라!2전> (1.21-2.20, 대안공간 충정각), 한지에 수묵을 사용하여 정적이 깃든 밤풍경을 표현한 <이채영전>(6.4-27, 신한갤러리), 의자를 모티브로 화려하고 섬세한 회화와 설치 등을 선보인 <손진아전>(6.17-29, 갤러리아트싸이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모임이나 행렬처럼 드러나는 움직임을 부감법적이고 파노라마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들을 보여주는 <민재영전>(9.16-9.27, 쌈지갤러리), 한 세대 이전의 우리 역사에서 기억되는 중요한 사건들과 장면들을 바탕으로 관람자들의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분위기가 담긴 풍경들을 사실적이면서 감상적으로 보여주는 <정재호전> (10.6-25, 갤러리현대 강남), 일상의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는 작품을 보여준 <공성훈전>(6.10-27, 아트포럼뉴게이트), 녹색 톤의 천과 흰색의 실을 자르고 붙이고 잡아당기면서 생성되는 가상의 생명체를 그려내는 <송명진전>(3.5-4.5, 성곡미술관),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민정연의 첫 개인전인 <불안정한 아름다움전>(11.10-12.6, 공근혜갤러리)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 <City_net Asia 2009>는 아시아 미술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아시아 미술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봄으로써, 현대미술에서 아시아 미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격년제 현대미술 프로젝트로서 2009년에 4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전시는 동경(Mori Art Museum), 베이징(Today Art Museum), 이스탄불(Istanbul Modern), 서울(Seoul Museum of Art) 등 4개 도시의 주요 현대미술관들이 참여하여 아시아 주요 도시에 위치한 현대미술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는데, 각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동시대 지역의 사회문화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그에 부합하는 작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작가들과 큐레이터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정체성과 동시대 미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도 2008년 말부터 <한국근대미술 걸작전: 근대를 묻다>(2008.12.23-2009.3.22)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한국근대미술 걸작전은 한국 근대미술을 이끌었던 100명의 거장들의 작품 230여 점을 선보였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격동의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근

대인들의 삶과 꿈이 어린 것으로, 오늘의 우리 미술의 지형을 이루는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었다.

이외에도 <한국근대서화의 재발견전>(1.7-24, 학고재),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인 <여민해락전>(9.28-11.8,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는데, <한국근대서화의 재발견전>은 근대서화 명작 120여 점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평가가 소홀했던 우리나라 근대기의 변혁 속에서 전통회화의 멋과 맛을 소개함으로써 한국미술사를 새롭게 조망하였다. <여민해락전>은 제목 그대로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하고자 왕실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을 개방하였던 순종 황제의 뜻을 이어받은 전시로서 국보 19건 40점 등 150여 점의 유물을 선보였는데, 무엇보다도 일본 천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의 화가 안견(安堅)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산수화 <몽유도원도>가 13년 만에 다시 전시되었다. <몽유도원도>가 열흘간 한정적으로 대여전시되면서 이 작품을 보기 위하여 관람객들이 6시간 정도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박물관 정규 폐관시간을 넘겨 밤 12시까지 관람시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한국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전으로는 정종미의 <역사 속의 종이부인전>(2.6-3.1, 금호미술관)과 <나형민_nowhere전>(2.18-3.1, 갤러리쌈지)을 들 수 있는데 정종미는 우리 역사의 가부장적인 질곡을 극복하고 뚜렷한 자취를 남긴 여성들을 화면에 도입하고 그들에게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한지로 만든 옷을 입혀 형식적으로는 입체적 회화성을 보여주면서 주제면에 있어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전시를 선보였다. 나형민은 황토색조의 도시풍경과 코발트색 하늘이 대조되는 특이한 화면을 구성하여 산수화가 단순히 산수자연을 재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인의 산수자연에 대한 귀의를 대신한 와유(臥遊)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도시화(都市化)를 통해 건설된 공간 역시 현실 공간에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화의 현대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전시로는 <유근택_만유사생(萬有寫生)전>(11.4-11.29, 사비나미술관)과 한지에 대한 극명한 인식과 그를 통해 구현되는 질료에 대한 관조와 투명한 깊이의 표현을 시도하는 <송수련전>(4.9-19, 금호미술관) 등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간송미술관에서 겸재 서거 2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겸재화파의 전시회인 <겸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서거 250주년기념 겸재화파전>(5.17-31)도 주목할 만하였다. 간송미술관은 겸재 서거 250주년을 계기로 김홍도, 신윤복, 심사정, 이인상 등을 포함한 소위 '겸재화파' 전을 개최하여 관람객들이 정선 대표작을 거의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였다. 겸재 정선 서거 250주기를 기념하는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겸재 정선,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9.8-11.22)라는 제목으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2009년 2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앙 램프코어에 영구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출신으로 세계미술계에서 이름을 떨친 고 백남준 화백의 작품과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견작가 강익중의 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멀티플 다이얼로그∞전>(2009.2.6-2010.2.7)이 국립현대미술관 램프코어 현장에서 열렸다. <멀티플 다이알로그∞전>은 지난 1994년 미국 뉴욕의 휘트니미술관 챔피언 분관에서 역시 백남준과 강익중의 2인전 형식으로 열렸던 <멀티플 다이얼로그전>의 후속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시에서 강익중은 한 변의 길이가 3인치인 작은 사각형 작품 6만여 개를 나선형의 램프 통로를 따라 벽에 부착하여 중앙에 서 있는 백남준의 작품 다다익선(多多益善)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2009년에도 외국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 형식의 전시가 이어졌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클림트의 황금빛 비밀-토탈아트를 찾아서전>(2.2-5.15)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19세기말 빈 분리파라는 반(反)아카데미 운동을 이끈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빈의 벨베데레 미술관을 주축으로 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클림트의 작품들을 한곳에 모아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가졌는데, 클림트의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작품들과 예술과 일상의 통합을 추구한 토털아트 작품들을 선보여 29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아람미술관에서는 영국의 애슈몰린미술관에서 온 <피사로와 인상파 화가들전>(1.5-3.25)이 열렸는데 애슈몰린미물관의 피사로 컬렉션은 인상주의 작품 가운데 가장 좋은 컬렉션으로, 단일 작가를 집중해서 다룬 것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행복을 그린 화가 르누와르전>(5.28 -9.13)이 열렸으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는 <모네에서 피카소까지-필라델피아미술관전>(12.16-2010.1.14)을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에 소장된 25만 점의 작품들 가운데 선정된 96점의 인상파, 야수주의 및 입체파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외국의 유명 작가 전시회가 열렸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풍만한 인물을 보여주는 회화와 조각 작품을 전시한 <페르난도 보테로전>(6.30-9.17)과 <인도현대미술전-세번째 눈을 떠라전>(4.17-6.7)을 개최하여 유럽과 북미에 편중된 미술 전시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균형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서울대학교미술관 MoA에서 열린 <체코현대미술전-할루페츠키상 수상 젊은 작가들전>(2.25-5.24)도 체코공화국의 유망한 젊은 작가 9명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체코의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외국의 현대작가 전시로는 영국 yBa(ydung British artists)의 산파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스마트한 라인과 화려한 색채로 팝아트 계열의 작품을 보여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전시회(2.23-3.31)가 PKM 트리니티 갤러리에서 열렸으며 윌렘 드쿠닝, 잭슨 폴록 등 미국 추상표현주의 1세대 작가들과 나란히 활동했던 <조안 미첼전>(10.22-11.22)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밖에도 둥근 머리와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진 전신상 속에 뉴미디어 시대의 인간의 이미지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줄리안 오피전>(4.29-5.31, 국제갤러리), 프랑스 추상회화의 거장 <장 미요트전>(7.17-8.30, 성곡미술관), 빠른 붓터치로 추상작업을 구사하는 <베르나르 프리츠전>(3.4-4.26, 학고재),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화가 겸 건축가로서 자연주의 혹은 생태주의적 조형을 탐구하는 작가로 알려진 <훈데르트 바서전>(4.10-6.13, 디갤러리), 일본 특유의 만화적 특성을 보이면서 네오팝 계열의 작품을 선보인 <가와시마 히데아키전>(2.26-3.29, 국제갤러리)과 꽃을 소재로 감각적인 설치와 회화를 보여준 <오마키 신지전>(9.3-9.24, 갤러리선컨템포러리), 그리고 앤디 워홀을 비롯하여 시그마 폴케, 네오 라우흐, 마크 퀸, 데미언 허스트, 키스 해링 등 외국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었던 <아라리오 20주년 소장품전>(2009.11.10-2010.1.10, 아라리오 서울), 영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작가들로만 구성된 영국현대미술전인 <런던콜링London Calling: Who Gets to Run the World전>(6.10-7.22, 토탈미술관), 대안공간루프와 두산갤러리에서 열린 <일본현대미술전, The Next of Japan>(5.14-6.25) 등이 주목할 만하다.

중견작가들의 작품전도 주목할 만한데 우선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서용선의 <올해의 작가 2009 서용선전>(7.3-9.20)은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하고 오직 작업에만 몰두하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나는 의욕적인 전시였다. 이는 우리 전통의 오방색을 떠올리게 하는 강한 윤곽선을 구사하며 표현주의적 작품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주제를 담아내는 전시였다. 2008년 미국 산타페비엔날레에 참가하고 돌아온 홍순명이 귀국보고전 형식으로 준비한 <사이드스케이프전>(2.17-3.15, 쌈지스페이스), 회화뿐 아니라 조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실험 작업을 해왔으며 우리에게 모노톤의 빠른 붓터치로 흐르는 듯한 이미지를 제공해온 이강소가 20년의 화업을 정리한 <이강소 1989- 2009전>(9.8-27, 갤러리현대), 한국화 훈련을 기초로 한국적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청색과 핑크색 등 모노톤으로 대형 화면을 구사하는 <석철주_신몽유도원전>(7.15-8.20, 학고재), 대형 캔버스에 색채 추상작업을 통해 서예적인 기운생동감과 자연의 에너지를 담아온 <노정란전>(11.3-12.4, 표갤러리), 미술사 속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에서 인용한 다양한 오브제를 실험한 <한만영전>(10.7-24, 노화랑), 극사실적인 인물을 대형 화면에 담고 눈동자를 강조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압도하는 작품을 선보인 <강형구전>(4.21-5.1, 아라리오 서울), 참을성 있게 화면을 마주하여 일상의 이미지들을 세밀한 묘사로 담아온 김홍주의 <시공간의 빗장풀기> (10.31-12.2, 아르코미술관), 새로운 질료의 실험을 선보이는 화면을 보여주는 <김종학_Image et Mémoire> (11.13-12.6, 가나아트센터), 시원한 붓터치로 대상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잡아내는 <최진욱_임시정부전>(10.20-11.15, 갤러리로얄) 등이 눈에 띈다.

원로작가와 작고작가의 회고전 가운데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 저평가되었거나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작가를 발굴하여 작가의 예술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첫 번째 전시로 기획한 <이병용 유작전>(9.11-10.25, 국립현대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C에서 '한국 근현대 작가 재탐색' 시리즈의 두 번째 작가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기틀 마련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타계한 근대 서양화가 박영선 화백을 기리는 <박영선을 추모하다전>(1.8-2.28), 서울대학교미술관 MoA에서는 소박한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듯한 장욱진의 작품을 전시한 <장욱진전>(2009.12.10-2010.2.21), 일본 현대미술의 대표작가로 활동해오면서 1980년대 초부터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던 <곽인식전>(3.24-4.21, 아틀리에705),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에서 열린 <문신 미공개 펜 드로잉전>(1.30-3.15),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하인두의 20주기 추모전인 <오색동행(五色同行)전>(8.5-8.17), 국제갤러

리에서 열린 <이우환전>(8.28-10.9),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정상화전>(11.17-12.6), 토속적 색채와 단순화된 윤곽선으로 한국 교유의 정서와 순수성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 <이만익전>(12.3-20, 갤러리현대 강남), 효성여대 미대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영남화단을 이끌어온 김종복의 화업 60년을 결산하는 <김종복전>(9.9-10.7, 대구 이안갤러리) 등이 개최되었다.

미술계의 활동이 국제화되면서 외국 작가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전시와 함께 우리 작가들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는 기회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40주년 기념 순화전의 보고전 형식으로 열린 <박하사탕-한국현대미술 중남미순회전 보고전>(2009.10.21-2010.2.25)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열린 <조우: 더블린, 리스본, 홍콩 그리고 서울: 2009 현대미술국제교류전>(1.7-21) 등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했던 전시의 귀국보고전 형식으로 개최되어 우리 현대미술의 해외진출 성과를 정리해볼 수 있었다. 작은 큐브를 한지로 싸서 시간과 공간을 집적한 조형적 독창성을 화면 가득히 펼쳐 보이는 작품을 구사하는 전광영의 전시가 미국의 와이오밍대학 미술관(9.12-12.23)에서 열렸으며, 흐르는 듯한 선과 색채의 조화와 동양화적인 여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두식전>(9.6-10.9)이 갤러리아트싸이드 베이징에서 열렸다.

## Ⅲ. 조각

2009년 한국의 조각은 이전에 비하여 대체로 큰 변화나 부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작가들의 활동이 이어졌다. 회화 장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시의 양이 적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의미 있는 작품 활동을 보여준 개인과 단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조각 분야의 유망주들을 꾸준하게 길러 온 <MBC구상조각대전>의 경우처럼 한국 조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양을 장기적으로 제공해온 행사에 대해서는 미술인들의 격려와 감사가 전해져야 할 것이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MBC구상조각대전>은 9월 22일 스무 번째 시상식을 갖고 기성부 대상에 이철희, 신인부에 정의지를 수상작가로 포상하였다. 이밖에도 오랜 기간 동안 조각 분야의 수상제도를 시행해온 기관으로는 1987년부터 '김세중조각상'을 시상해온 재단법인 김세중기념사업회, 1990년부터 여성 조각가들에게 시상하는 '석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미술상'을 제정한 석주문화재단, 1995년부터 '모란조각대상전'을 시행해온 모란미술관과 1990년부터 '김종영미술상'을 시행해온 우성김종영미술사업회 등이 있다.

2009년부터 프라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국미술평론가협회는 '한국미술평론가협회상'을 제정하여 젊은 작가 1인과 평론가 1인에게 상을 주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 해의 수상자로 조각가 정현이 결정되어 시상식을 가졌으며,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포스코청암재단이 철과 스테인리스를 주제로 한 미술작업을 대상으로 우수 작가를 선정하는 '포스코스틸아트 어워드' 대상 수상작에는 이병훈의 <이미지를 쏘는 화포 1·2>가 당선되었다.

오늘날 조각과 설치나 사진 등의 인접 장르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각이나 소조보다는 복합적인 표현이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전통적인 형식의 조각은 활성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조각 분야의 활동은 인접 장르와의 융합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평창동 스페이스 크로프트에서 열린 <유비호_Flexible Landscape전>(1.30-2.15),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함경아_욕망과 마취전>(8.22-10.25), 몽인아트센터에서 열린 <지니서_End of the Rainbow전>(5.21-6.19),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개념과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보여주는 <오유경_날아다니는 꿈전>(12.18-27, 노암갤러리) 등은 한국 현대조각의 확장된 개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재료면에 있어서 점차 무겁지 않은 재료, 자연 환경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마련하여야 하며 연마 시간이 긴 재료보다 단시간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디지털 가공이 용이하며 장르 간의 통섭과 융합이 가능한 자료가 선호되면서 조각예술 전체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심정수의 40년 작업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심정수전>(2008.11.21-2009.1.25, 일민미술관), 돈키호테 시리즈에서 출발하여 동물과 인물 등의 형상을 바탕으로 중후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구사하는 <성동훈_머릿속의 유목민전>(3.25-5.10, 사비나미술관), 베이징 금일미술관에서 열린 <정현_From Material to Life전>(2.13-2.20), 한국 추상조각의 1세대로서 40년 이상 금속의 물질성을 탐구하며 깎고 용접하는 장인적 노력을 보여준 <엄태정_쇠, 그 부름과 일전>(성곡미술관, 5.20-6.28) 등은 전통 조각의 재료

의 물성을 파악하고 매스의 양감과 볼륨에 충실하며 작가의 노동이 작품 속에 진실하게 반영된 사례로서 관심을 끌었다.

2009년 조각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던 전시 가운데에는 2006년 제9회 김종영미술상을 받은 <박선기전>(2008.12.15-2009.2.1, 김종영미술관), 우리 전통의 가위를 재료로 다양한 표정을 보여준 <이영학전>(2.5-22, 두가헌), 사실주의적인 누드 인물을 표현하는 <최수앙_The Persuit전>(2.13-28, 덕원갤러리),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출퇴근길을 오가는 샐러리맨의 애환을 표현하는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유머와 풍자로 풀어내는 조각 작품을 보여준 <정국택전>(3.3-27, 크링), 왜곡된 인체를 통해 인간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표현하며 관람객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대상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환권전>(6.25-7.17, 카이스갤러리), 비누를 원료로 도자기와 같은 골동품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면서 소멸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신미경_트랜슬레이션전>(2009.11.19-12.19, 국제갤러리), <월인천강지곡>을 시각적 언어로 재구성하여 미술관 입구와 실내의 중앙 공간에 작품을 설치한 전수천의 <전수천_新월인천강지곡전>(10.16-12.12, 서울대미술관 MoA), 회화, 조각, 사진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실재와 환영을 인식함에 있어서 불완전과 모호함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보여준 <유현미전>(2009.11.19-2010.1.17, 몽인아트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주제를 설정한 단체전 성격의 전시로는 조각의 전통적 개념이면서 핵심적 개념이기도 한 양감을 결여한 조각, 가급적 실체감과 물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조각을 통해서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그 범주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드로잉 조각: 공중누각전>(7.9-8.30, 소마미술관), 관람자의 개입에 의하여 작품에 운동성과 반응이 유발되는 작품들을 보여주는 <반응하는 조각전>(10.10-12.10, 모란미술관), 조각적인 것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조각과 설치에 집중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조각적인 것에 대한 저항전>(2009.11.28-2010.2.1,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의 두 번째 기획전인 <수퍼하이웨이 첫 휴게소전>(3.7-5.16),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작가 30명이 미술관이 위치한 동숭동 대학로의 장소성을 추억하는 형식의 오브제 설치 작업을 가지고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된 <대학로 100번지전>(5.21-7.5)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 대표 작가로 참가한 양혜규가 선보인 <일련의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치기 쉬운 배열-블라인드 룸>과 같은 작품들 역시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한 설치 작품으로서 조각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에서 열린 <건축 도자전 Now&New전>(2009.9.5-2010.3.7) 역시 조각 작품일 수도 있고 건축적 구조물이거나 도자 작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 전시 역시 확대된 의미의 조각적 설치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각 작가들의 외국 전시도 적지 않게 열렸는데 베이징 금일미술관에서 열린 <정현_From Material to Life전>(2.13-20), 베이징의 미술특구 798 내에 있는 창아트와 워터게이트갤러리에서 열린 <박성태_인드라의 그물: 존재와 신화전>, 그리고 미국 서부의 LA카운티미술관에서 텍사스의 휴스턴미술관으로 순회 전시된 <당신의 밝은 미래: 한국현대미술 12인전>에 출품한 서도호, 전준호, 최정화의 작품 등을 들 수 있다.

외국 작가의 조각 작품이 소개되는 전시도 적지 않게 열렸는데 그 가운데 마치 연극무대 공간처럼 설정된 전시 공간에서 5명의 작가의 작품을 연극적으로 보여주는 <북유럽 작가 5인전>(국제갤러리>(7.23-8.23), 2001년 터너상 수상자로서 미니멀한 설치에서부터 조각, 드로잉, 사운드, 필림 등 다양한 매체를 구사하는 <마틴 크리드전>(10.21-2010.2.15)이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렸다. 마틴 크리드는 영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개념 미술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개인전이었는데, 이 전시를 통해 작가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작가만의 치밀한 구성법으로 반복적인 일상의 삶이 예술과 하나가 되는 작업을 선보였다.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린 벨기에 작가 <로랑스 데브로전>(1.10-3.1)에서는 인체를 물질로 환원하여 유리 용기 속에 붉은색 액체를 담은 유리 조형 작품들이 선보였으며, 두산갤러리에서는 중국의 뉴에이지 작가 <치우 샤오페이_보이지 않는 여행전>(2.12-3.12)이 열렸다. 작가 치우 샤오페이는 중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대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것들로 일상에 존재하지만 때때로 그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현대 조각과 함께 한국 전통미술 속에서 드러나는 전통 조각의 미를 탐구하는 전시회도 개최되었다. 한국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영원한 생명의 울림-통일신라 조각전>(2008.12.16-2009.3.1)은 한국 조각계의 관심이 현대성과 국제성을 추구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어준 전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또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전>(4.28-8.30)을 개최하여 한국 관람객들에게 고대 이집트 조각을 가까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조각 분야의 의미 있는 회고전도 열렸다. 한국 근대 조각의 거장인 권진규의 일본 유학 시기부터 말년에 이르는 작품을 선보인 회고전으로서, 일본에서 도쿄 국립근대미술관과 권진규가 수학했던 무사시노미술대학의 공동기획전 형식으로 개최되었던 전시를 한국으로 연장시킨 <권진규전>(12.22-2010.2.28)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작고 조각가 민복진의 화집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전(9.25-10.15)이 선화랑에서 열렸다.

조각은 장르의 성격상 미술관 실내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과 함께 야외 공간에서 선보이는 방법도 다른 장르의 미술품에 비하여 효과적인 전시 방법일 수 있다.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주관하여 서울부터 제주까지 21개 지역의 공간에 미술품 장식을 통하여 생활공간을 공공미술이 개입하는 예술적 공간으로 바꾸어 주민들의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을 북돋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조각가들이 공원이나 산책로 등 지역의 공공 공간에 자신들의 작품을 설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10월 9일에는 새로 단장한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에게 개장되었는데 김영원 홍익대 교수가 제작한 높이 6미터가 넘고 무게가 20톤을 육박하는 세종대왕상이 광장에 새롭게 설치되었다.

## IV. 공예

2009년 공예 부문의 작품 활동과 행사 내용은 비엔날레나 공예를 테마로 하는 대형 전시장에서의 프로젝트성 행사들이 많이 개최됨으로써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술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와 신종플루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행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전개된 이러한 활동이 행사 규모에 맞는 콘텐츠로 충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4.25-5.24)는 '불의 모험'이라는 주제 아래 본 전시 및 분원백자 학술세미나, 국제도자워크숍,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1,726명의 작가가 3,196점의 작품을 가지고 참가한 세계적인 공모전, 그리고 전 세계 유명 도예인, 전문가 400여 명이 참여한 학술회의 등 도자의 가치를 문화·예술 산업적 측면에서 조명해보는 테마를 제시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도자문화 산업계에서 차세대 도예산업을 선도하는 도예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도예인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도자예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미술관에서는 흙과 점토의 조형적 표현 가능성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현대조형 도자전: 세라믹스&클라이맥스전>(4.27-7.5)이라는 전시를 조직함으로써 현대미술에서 공예 장르가 회화나 조각과 나란히 공공미술관의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경기도미술관은 매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시를 기획해왔는데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 전통인 도예가 현대로 전승, 특화된 측면을 조명하며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의 문화지형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기획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이 도자전에 이어서 <패션의 윤리학-착하게 입자전>(7.23-10.4)을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 전시 역시 우리 사회에서의 미술과 패션, 혹은 미술과 섬유예술 사이의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시로서 미술과 공예의 예술적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포함하는 주제를 다룬 전시로서 이채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소위 순수미술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공공미술관에서 공예 분야로까지 전시 장르를 확산하려는 시도는 현대미술에서의 장르 간의 경계가 해체되는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경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에는 '만남을 찾아서'를 주제로 『2009 청주공예비엔날레』(9.23-11.1)가 개최되었는데 53개국에서 3,000명이 넘는 작가가 참가하여 동시대 공예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술로서의 공예의 가능성과 정체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 전시 이외에도 아트 페어, 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를 통해 공예개념의 재구조화와 공예를 둘러싼 환경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발전의 모색을 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인공의 지평>, <오브제, 그 이후>, <프로

젝트, 생활세계 속으로> 등 3부로 구성된 본 전시는 사용가치와 미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전통공예가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어떻게 생활 속에 접목될 수 있는가를 묻는 기회를 가졌다.

2009 청주공예비엔날레는 공예의 장르적 특성을 재해석하여 행사의 내용을 비엔날레의 성격과 아트마켓 형식을 융합하여 크래프트 페어와의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 구성, 현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통공예전을 배제하는 등 획기적인 변혁을 시도하였는데, 행사 준비 과정에서 예술감독과 공예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사이에 공예의 개념과 참가 범위 등에 관한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빚어져 청주공예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행정당국자인 사무총장이 퇴진하는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광주비엔날레 현장에서는 비엔날레가 열리는 짝수 해를 피하여 홀수 해에는 디자인 비엔날레를 열고 있다. 세 번째로 열린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18-11.4)에서는 공예와 디자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대규모로 공예와 디자인 장르 간의 융합이 벌어지는 장을 펼쳤다. '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한 나라의 문화가 총체적 삶의 관점에서 우리 삶의 정신적인 풍요를 위해 필요한 양질의 시각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삶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개선한다는 공예와 디자인 본연의 목적을 구현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 특성이 한자리에서 만나 인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이라는 주제는 총체적 삶으로서의 디자인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 속의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나아가 그러한 콘텐츠는 국제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문화의 '실마리(clue)'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주제어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 실마리는 단순히 디자인 콘텐츠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각적 영역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더할 나위 없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삶의 질과 연계된 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발전 단계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는 두 번째 행사인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10.9-29)가 잠실종합운동장과 시청앞 광장, 한강변, 홍대 앞과 신사동 가로수길 등 서울 시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여러 곳에서 열려서 디자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i-Design,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전시회, 공모전, 페스티벌 등 생활 속 디자인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선보였다.

세계디자인수도의 첫 공식 지정도시로서 그 위상에 맞는 국제 디자인 행사로 열린 서울디자인 올림픽은 2010 세계디자인수도(WDC) 지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세계디자인,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세계인의 디자인 문화 종합 축제이며, 이번 행사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도심 곳곳에서 더욱 찬란한 디자인의 꽃들이 피어나, 그 디자인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행사 주최측의 능력에 비하여 행사 장소를 지나치게 확대시킴으로써 행사 내용이 전달되는 데 밀도와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으며 행사 명칭에서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올림픽 관련 기관으로부터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받기도 하였다.

대구에서는 '섬유의 원형(Fabric Arche)'이라는 주제 아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09 대구텍스타일아트도큐멘타>(11.8-29)가 열렸다. 이 행사 역시 텍스타일아트, 패션디자인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장르 간의 공통적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패브릭아트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서 조형예술의 근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미술관은 <Now&Now 예술, 디자인, 그리고 도시전>(2009.9.5-2010.3.7)을 개최하였다. 원래 생활도예의 좁은 영역으로부터 도예 장르를 해방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클레이아크미술관답게 이 전시를 통하여 미술관에서는 현대 건축도자의 현황과 위상을 점검하고 향후 그 발전 가능성을 조망한다는 의미로 전시를 기획하였는데, 행사는 창작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건축도자-예술>, 건축도자 부문의 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축내장재 인테리어 제품과 도자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건축도자-디자인>, 그리고 친환경 최첨단 건축 외장재로 구성된 <건축도자-도시> 등 3부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이 행사는 도예 부문의 작가, 큐레이터뿐 아니라 공간연출가나 타 장르의 예술 관련자 및 도예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참여를 유도하여 공예와 타 장르 예술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예술과 관련 산업이 우리 사회에 함께 기여할 가능성을 모색한 전시라는 평을 받았다.

이와 같은 대형 행사 이외에도 공예 전문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치우금속공예관에서 열린 <오디세이아-컨템포러리 크래프트와 드로잉전>(5.15-6.13), <크라프트 드림 2009전>(10.9-11.7) 등은 작품의 완성과 오브제에 대한 관심보다 기획 의도나 작품 제작과정의 사유체계 등을 조명한다든지, 혹은 젊은 공예작가들의 가능성을 적극 발굴하여 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학교미술관 MoA에서는 <말하는 손-현대금속공예의 세계전>(6.3-20)이 열렸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19명의 유럽 및 미주의 작가들과 서울금공예회가 장신구, 실용기물, 조각품 등 200여 점의 작품전시 및 학술행사를 갖는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서울금공예회가 1983년에 창립한 이래 2년마다 정기회원전을 개최하고 특강, 워크숍의 학술행사를 통해 현대 금속공예의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활동의 맥락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말하는 손-현대금속공예의 세계전>은 과거로부터 공예가 특수하게 유지하고 있는 수작업의 특징과 공예를 현대 미술의 문맥 속에서 작가의 발언을 위한 표현매체로 활용하고 또 하나의 특징이 합쳐진, 현대 금속공예의 다면적 모습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였다.

전시기간 중 개최된 학술행사는 세계적인 공예저술가이자 작가인 브루스 메트케프(Bruce Metcalf, 미국), 루돌프 봇(Rudolf Bot, 독일)의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강연자들은 강연을 통해 현대인의 삶에서 공예의 의미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들을 논의함으로써, 공예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 공예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대중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대형 전시 프로젝트, 워크숍, 강연, 포럼 등과 함께 주목할 만한 소규모 전시나 개인들의 전시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도예 분야에서는 <이정섭과 친구들 part1. 신동원전>(1.3-31, 내촌목공소), <조영국전>(3.11-17, 통인화랑), <이지혜전>(6.3-9, 인사아트센터), <민영기 찻사발전>(9.5-11.22, 부산시립미술관), <김미경전>(9.23-29, 한국공예문화진흥원), <고경욱전>(10.30-11.14, 스페이스15번지), <양명심전>(11.2-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예술원 회원이며 원로 도예가인 권순형의 50년 작업을 결산하는 <도예 50년의 여정전>(1.3-31, 서울대미술관 MoA), <최정윤전>(11.11-17, 갤러리아트싸이드) 등을 들 수 있다.

금속공예 분야에서는 <박성숙전>(3.20-29, 갤러리담), <국제현대장신구전>(4.14-28, 갤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러리아트링크), <한국의 금속미술-두드리고 다듬다전>(5.19-7.24, 이화여대박물관), <금속공예-전통과 현대의 만남전>(9.22-10.18, 국립청주공예박물관), <고욱전> (10.14-23, crafts아원), <신혜림 장신구전_마음의 지도>(11.11-17, 가나아트스페이스) 등을 들 수 있고, 섬유예술 분야에서는 <김혜란_바늘땀: 여성, 치유, 생태전>(3.25-4.3, 한전 프라자갤러리), 유리공예 분야에서는 <이후창_상실의 시대: 타자의 시선전>(4.22 -28, 가나아트스페이스), <한·중·일 유리예술교류전>(4.30-5.30, 갤러리스클로), <이상민전_공시성의 풍경전>(6.6-1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허혜욱전>(7.8-14, 갤러리 소나무), <Hot&Cold with Glass Festival전>(7.14-8.16, 목금토갤러리) 등이 열렸다.

두 가지 이상의 공예 분야가 함께 선보이는 전시들도 열렸는데, 그 가운데 류수현과 주소원이 가구와 금속공예를 협업 전시한 <Art in Living전>(4.28-5.12, 갤러리로얄), 김태환이 기획한 <기억의 방식전>(7.8-14,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조각 분야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기획된 <Mad for Furniture전>(7.17-8.8, 아트컴퍼니 에이치) 등을 들 수 있다.

외국 작가의 한국 전시로는 <피엣 스톡만전>(5.7-17, 통인옥션갤러리), 생동하는 다양한 이미지의 형상들을 오롯이 수백 수천의 날실과 씨실로 일일이 손으로 짜넣으며 만들어낸 색감과 형상을 회화적 사실성으로 표현한 <존 에릭 리스 태피스트리전>(6.15-8.14, 숙명여대박물관), 프랑스의 가구 디자이너 겸 건축가인 장 프루베의 <20세기 프랑스 실용주의 디자인의 중심, 장 프루베 회고전>(9.18-11.29, 대림미술관), 유리 재료의 특성을 잘 응용하여 미술 장르의 작품으로 확대시키는 데 성공한 <데일 치울리전>(9.1-10.31, 롯데백화점 에비뉴엘갤러리) 등이 있었다.

# 2009년 시각예술 총론

## - 사진/판화, 미디어아트/설치미술, 서예, 미술이론/평론 -

김성호(미술평론가, 중앙대 겸임교수)

## Ⅰ. 총론

2009년에 상기 장르들은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다양한 면모를 선보였다. 분석 결과 시각예술의 장르별 구분이 상호 간 영역을 상호침투하면서 점차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근본적으로 개별 작가들의 창작 활동으로부터 기원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각예술 매개체(자)들이 소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의 범주화가 함께 생성되기도 한다. 대규모의 시각예술 행사나 전시에서는 장르별 구분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주제별로 작품들을 묶어내는 방식을 꾀하면서 주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합 장르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일테면 <경계전>(5.28-7.28, 광주시립미술관)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현대조각을 다양한 매체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여기에는 조각, 브론즈라는 전통적 매체로부터 프로세스 아트, 영상, 소리조각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매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오늘날의 지역적 경계 담론에 덧붙여 매체적 경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또한 <요술 이미지전>(8.8-9.12, 한미사진미술관)은 사진이 매체의 중심을 차지하면서도 평면, 입체, 설치의 경계를 넘고, 그래픽 이미지, 영화, 연극적 장르의 관심을 조명하고 있는 탈매체적 관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준, 배준성, 임택, 장승효, 전소정, 정연두 등 참여작가 14인 중 사진 전공이 아닌 작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진 장르의 최근 변모하는 현장을 가늠케 하는 전시였다.

한편, <마그네틱 파워전-한, 아세아 현대 사진미디어아트>(5.20-6.6, 코리아나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스페이스C 외)는 움직이는 영상예술이 근간이 된 최근의 미디어아트의 개념에 이전에 올드 미디어로 간주되었던 사진 장르를 다시 통합한 전시다. 그런가 하면, <미술시네마전-감각의 몽타주전>(6.6-10.4,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은 사진, 영상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콜라주와 영화의 몽타주 기법이 상호 간 오가며 다양한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제2회 아시아 퍼포먼스 아트 인 서울>(12.7-12, 제로원디자인센터 외)은 행사의 중심에 11개국 예술가 20인이 참여한 특정 장르 퍼포먼스아트가 자리하고 있지만, 퍼포먼스아트 장르 자체가 지닌 통합 장르적 특성 외에도 행사 자체도 사진 도큐멘테이션,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들이 통합된 행사였다.

따라서 오늘날 장르별·분과별 구분은 작품을 분석,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주화라는 차원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다. 여기의 구분 즉, '사진/판화, 미디어/설치, 서예, 미술이론/평론'도 그러한 차원이다.

2009년, 경계를 통섭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상기 장르에 관련한 일련의 행사들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 1. 사진/판화 부문

무엇보다 판화의 재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사)한국판화사진진흥회가 몇 년 전 출범하면서 사진과 판화의 장르적 구분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형성된 『서울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SIPA)』의 발전적 설계와 기획은 돋보였다. 다만 세 파트로 산재시킨 무리한 전시공간 확장으로 이전의 집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운 지점이다.

그 외 『제15회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 『2009 한국현대판화축제』와 같은 판화계의 거대 행사의 지속적 실행은 다양한 층의 판화 인구를 생존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다. 보다 더 다양한 판화계 행사가 주요 행사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사진계로선 다행스럽게 사진 매체의 대중적 친밀도로 사진 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하다. 2009년 주요 행사에서는 전문가적 사진행사와 대중적 사진행사 사이의 접점을 잘 형성시키는 노력이 잘 드러났다. 또한 주요 전시기획과 개인전들에서는 사진의 다변화하는 매체적 실험이 지속되었다. 주목할 것은 사진의 매체적 미학 성찰 너머로 노인, 청소년, 제도, 문명, 이데올로기, 환경, 역사 등 예술사회학적 의

미를 묻는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이 함께 병존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진계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들로 평가된다. 물론 다양한 사진상의 신설과 진행으로 사진계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킨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다.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Photo Print Belt>는 그런 점에서 2009년에도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2. 미디어아트/설치미술 부문

2009년 주목할 만한 현상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부가 U-City 시대의 문화정책으로 실현하려는 각종 프로젝트와 맞물려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활용되고 그것이 예술행사로 제시되기도 하면서 시각예술계의 미디어아트, 설치미술의 활발한 움직임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다.

일테면 서울시의 『2009 서울빛축제』, 인천시의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1회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그리고 강남구의 『U_스트리트 미디어폴』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나서서 도시 환경 구축에 예술가들의 힘을 빌림으로써 새로운 미디어아트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서울역 앞 옛 대우빌딩 전면을 미디어아트로 변모시킨 <서울스퀘어 미디어캔버스>는 주목되는 사건이었다. 특히 예술을 포함한 콘텐츠 차원의 미디어 정책과 산학 협력체계가 최근 보다 활성화되면서 미디어아트의 발전적 전개는 괄목할 만하다. 미디어테크놀로지가 관건인 몇몇 기업은 아트센터 등 전시 및 활동 매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미디어아트에서 드러나는 통섭과 융합의 모색은 비교적 모던의 범주였던 설치미술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그것은 회화, 조각, 건축, 미디어아트를 모두 포함하면서 큰 덩치와 작은 덩치를 오가는 새로운 퍼블릭아트의 유형을 제시한다. 「2009마을미술프로젝트」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한편, 미디어아트/설치미술의 발전적 전개는 『2009아시아프-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플랫폼2009_플랫폼 인 기무사』, 『제3회 인천여성미술국제비엔날레』 등 대형 미술행사로 인한 동력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설치미술은 자연과 교감하는 『2009 자라섬 바깥미술전』, 『2009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2009양평환경미술제』 등 다른 방향성 속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3. 서예 부문

2009년 서예 역시 대규모 행사인 『제7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09부산서예비엔날레』 등을 통해서 최근 활동이 집대성되었다. 오늘날 시대에 서예가 필요한 대중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영역에서만 행사가 진행되기보다는 보다 경계를 넘나드는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서 열렸던 <2009문자문명전>은 그런 면에서 주요했던 기획전이었다.

순수 전문가의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전통의 계승'과 '전통의 현대화'라는 두 가지 화두가 벌이는 양 극단의 모습이다. 서예 고유의 위상을 확인시키는 전통의 계승은 따라야 할 원전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발전적 전개의 양상을 놓치는 경향이 다분하다. 반면, 전통의 현대화는 서예의 외형적 변화를 다양한 매체의 사용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추구하면서 서예 정신의 훼손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둘 사이의 접점에 대한 이해도 불가피하지만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논란이 서예계 안에서 충분히 수렴되는 양태로 확장되는 데 있다. 주목될 만한 것은 '전통의 계승'과 '전통의 현대화'의 두 방향성이 한자 서예와 한글 서예의 두 영역에서 각각 나타났다는 것이다. 상호 간 다름에 대한 연구와 비평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부분이다.

## 4. 미술이론/미술평론 부문

2009년에도 미술평론과 더불어 미술경영, 미술행정을 대표하는 미술이론은 정부나 공적 기관 주도의 미술정책과 경영 관련 행사에 활발한 참여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 개선 토론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국립현대미술관 발전방안 공개 토론회』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분과별 행사로 마련되었던 『아시아미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미술현장 응용이 필수인 미술경영, 미술행정과 같은 미술이론과 달리 미학, 예술철학과 같은 미술이론들은 연구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이론 생산의 깊이를 만들어낸다. 반면, 미술경영, 미술행정과 관련한 미술이

론은 물론이고 현장에 개입함으로써 언제나 가능한 미술평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자발적인 이론 생산이기보다는 비자발적인 이론 생산이 다수인 까닭이다.

미술평론과 함께 현장 참여의 미술이론에 필요한 지점은 자발적 이론 생산에 대한 활성화다. 물론 미술정책과 경영 관련 행사에 미술이론 및 미술비평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는 필수다. 그럼에도 청탁이나 요구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한, 현장 관련 미술이론이나 미술비평의 한계는 명징하다.

따라서 출판에서도 미술평론집을 표방한 출간은 드물었다. 미술평론의 임시적이고 소멸적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술비평의 장에는 저널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일회성 비평을 생산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단행본 출판을 통해 반론과 반성적 점검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술평론의 튼튼한 뼈대를 구축하는 일과 더불어 임시성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향성을 검토할 과제가 시급하다. 반면, 대중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친대중 미술서적은 미술출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미술이론의 장에서 국내 저자에 의한 출판은 동양 및 한국미술사에 치우친 경향이 많았다. 서구미술사 및 미학, 예술학 관련 저작은 번역서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저작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이론과 미술평론 부문에 가장 필요한 점은 메타이론의 생성과 비평의 순환이다. 미술이론에 대한 반론과 문제제기가 다른 저자들로부터 촉발되어서 다양한 논의와 새로운 이론들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 대한 비평'과 더불어 '비평에 대한 비평' 즉 메타 비평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메타이론 메타비평 그리고 이론과 비평의 순환체계들이 잘 형성되고 있지 않지만 2009년 미술이론/미술평론의 장에도 그것이 여전히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 II. 사진/판화

### 1. 사진/판화의 주요 행사

2009년에도 사진/판화계에는 각종 페스티벌이 풍성했다.

우선 사진계와 판화계가 하나로 뭉쳐 치르는 『서울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SIPA)』(9.12-1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는 단연코 그것이 아트페어임에도 하나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처럼 기능한다. 에디션아트라는 공유지점이 있음에도 사진과 판화가 다른 장르로 간주되어 온 비교적 오랜 역사 때문에 국내에선 비교적 최근까지도 둘이 함께 치르는 행사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하다.

원래 이 행사는 판화아트페어로 출발했으나 최근에 사진계와 힘을 합치면서 판화사진아트페어로 확장된 것이다. 즉 (사)한국판화미술진흥회는 판화계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시대적 위기에 직면해서 2005년부터 사진계의 급증한 미술인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사진계와 힘을 합쳐 '(사)한국판화사진진흥회'로 개명하면서 판화의 외연을 확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서울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SIPA)』로 변신하면서 글로벌아트페어로 외연을 확장해온 지 4회째를 맞아 2008년에는 11개국 63개 화랑 참여를 통해 행사의 덩치를 크게 키워냈다. 2009년 5회 행사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10개국 43개 화랑으로 조금 규모가 줄긴 했지만, 외레 전시공간을 두 곳 더 늘리면서 에디션아트의 미래적 향방에 대한 실험을 시도했다. 순수예술제는 아니지만 아트페어와 더불어 특별전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축제의 성격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판화 및 사진 인구의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판화계는 『제15회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4.9-5.10, 서울시립미술관)가 대표적이다. 설립 29주년을 맞이한 이 행사는 49개국 364명이 참여한 출품작 677점 심사를 거쳐 100점이 엄선돼 전시를 가졌다. 아시아에서 가장 독보적인 판화비엔날레로 정초된 이 행사는 디지털 기술의 대중화와 다양한 혼합매체의 두각 속에서 판화의 본원적 속성과 미학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9 한국현대판화축제』(8.25-30,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가 대표적 행사였다. 한국현대판화가협회가 주관한 이 판화제는 협회 회원 13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포트폴리오전이 메인 전시로 열렸다. 고충환, 신수진, 김중걸 등 11인의 기획자가 기획한 11개의 섹션들이 연계된 메인 전시인 셈이다. 아울러 특별전으로 원로와 중견 판화가들과 신입회원의 작품을 한데 모은 <화이부동(和而不同)전>을 열었다. 그 외 벼룩시장 및 판화체험마당을 통해서 대중들과 판화의 거리를 좁히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는 평가다.

사진계에 국한해서는 2008년 말에 열려 2009년까지 지속된 주요 행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인간풍경(Humanscape)이라는 주제 아래 열렸던 『2008서울국

제사진페스티벌』(2008.12.13-2009.1.15, 구 서울역사), 프랑스현대사진가 21인이 참가했던 주한 프랑스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전시인 <사진의 힘-21명의 프랑스사진가들전>(2008.10.30-2009.1.11, 성곡미술관), 그리고 한국의 군사문화의 기억을 화두로 한 <39조 2항전>(2008.12.6-2009.2.15, 아트선재센터)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전시일정을 지닌 기획전이다. 장기 전시의 목적은 오랫동안 준비, 기획했던 의미 있는 전시를 보다 많은 관객과 공유하려는 것인 만큼, 시각예술계 현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전시 중 제기되었던 여러 비판과 요구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획 측의 지속적인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사진계에서 유독 많은 사진상 시상 또한 2009년 사진계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대목이다. 2009년 일우재단이 새로 제정한 '일우 사진상'은 300명이 넘는 응모자 중에서 재독 작가 김인숙과 백승우가 수상했다. 박건희문화재단이 주관한 '제8회 다음작가상'에는 총 35명의 응모자 중에서 박현두가 수상했다. 제11호 사진비평상은 작품상 부문에서 총 56명의 응모자 중에서 김선영, 김은지, 문은지, 현준영, 홍진훤 등 5인이 입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활동을 심사위원들이 검토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제8회 동강사진상'은 국내 부문 수상자로 이상일이 선정되었다. 상금 1천만 원의 수혜를 받는 수상자 1인은 최근 5년간의 작품활동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추천된 사진가들 중 최종 선정된 3인에 대한 토론을 거쳐 선정된다. '제4회 갤러리나우' 작가상에는 파야가 선정되었다.

(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의 작가 지원프로그램인 BELT2009의 사진 장르에서는 김소희, 박승훈, 이예린, 이인청, 주현아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들과 큐레이터를 매칭하는 <BELT2009 Artist+Curator_Pick & Match>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시를 통해 장르별로 선발된 2인의 우수작가에게 판화·사진 전문 국제아트페어인 『SIPA2010: Seoul International Print Photo Art Fair』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판화 부문에서는 총 10명의 작가가 선정되었다. 문정희(청화랑), 양재열(갤러리PICI), 임지혜(갤러리PICI), 정진경(유아트스페이스), 허문희(유아트스페이스)와 사진의 김소희(샘터화랑), 박승훈(UM갤러리), 이예린(카이스갤러리), 이인청(이목화랑),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현아(웅갤러리)가 그들로 각각의 공간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판화작가뿐 아니라 사진작가들의 전시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기획자들과 매칭을 통해 각자의 개인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BELT 프로그램의 새로운 변화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 또한 노출하였다. 사진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판화계에서 제정된 상은 소수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진 쪽에 치우친 에디션아트가 지향하는 트렌드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사진계에서는 최근 들어 아시아를 좌표로 설정하거나 글로벌 지형을 도모하는 국제적 행사가 부쩍 늘었다. 2009년에 열렸던 사진계의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제8회 동강국제사진제』(7.24-8.23, 동강사진박물관 외 4곳)는 '동강사진축제'로부터 2009년 행사명을 변경하고 국제전으로 확장을 도모했다. <Masks-가면을 쓴 사람들전>이라는 주제전으로 40여 명 사진가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였다. 국제전 전환 이전까지 이 행사는 외국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했지만, 주로 지역주민과 사진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실천해오면서 지역과 예술, 전문가와 애호가 사이의 문제들을 풀어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국내 행사에서 국제전으로 변경 기획된 만큼 『동강국제사진제』는 지역발 국제전들이 담고 있는 지역과 중앙, 그리고 국제라는 고민들을 새로이 풀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반면, 『2009 울산국제사진페스티벌』(9.12-20, 울산문화예술회관 외 10곳)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전 행사다. 울산 지역일간지 울산매일신문사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산업, 공업도시 울산의 문화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매년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9년은 자연주의를 내세웠다. 주제전인 <Naturalism전>에는 40개국 125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2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제3회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12.1-2010.1.31, 가든파이브)은 (사)사진문화포럼이 주최한 행사로 '크로스-현실과 가상의 교차'라는 부제로 첨단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사회문화현상들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미국, 북미, 아시아를 포함하는 등 10개국 사진작가 50여 명과 더불어 1,800여 명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참여했다.

작은 규모지만 아시아 작가들이 참여한 행사로 <제9회 포토페스티벌_What is Real?전>(6.12-7.19, 가나아트센터)이 있었다. 전시는 배준성, 유현미, 류 이타다, 황 신 치엔 등 한국, 일본, 대만 작가 총 9인의 대표작 40여 점으로 꾸려진 주요 전시였다. 사진의 근본적 속성과 이를 개척해 나가는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함께 고

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산에서는 작은 규모의 <국제사진영상기획전>(2.8-3.13, 고은미술관)이 열렸다. 한국사진학회가 주최한 전시로 회원 96명과 해외 11개국의 작가 47명의 사진과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교육현장에 있는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한편 사진시장에서 『2009서울포토페어』(4.8-12, 코엑스)는 2008년 아시아 지역 최초의 포토페어를 표방하며 출발하여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사진 전문지 『포토넷』이 주관한 이 행사는 이미 조명된 작가와 조명되지 않은 작가들을 비평적 시각으로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 작품 소장의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전문 컬렉터 외에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의 사진작품들을 선보임과 아울러 2009년 주빈국으로 초대된 스웨덴의 대표 작가 13인의 129점의 작품을 대거 소개, 판매했다.

## 2. 사진/판화의 주요 기획전

2009년에도 과거의 사진계 역사를 정리하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사진비평상 10년의 궤적전>(12.17-29,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은 1998년 창간된 계간지 『사진비평』이 제정, 진행해온 사진비평상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한 전시다. 10년간 작품 부문에서 63명, 평론 부문에서 11명 등, 총 74명의 신인들을 배출한 사진비평상은 이전과는 달리 제11회부터는 수상자 가운데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방식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10주년 기념전은 그동안의 수상작가 중 30인의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역시 지난 10년간 한국 사진 현장을 조명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2009 포토코리아전-슈팅 이미지>(8.1-27, 코엑스)는 총 52명 작가 300여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자가 한 단체의 10년간의 비영리적 지원활동을 점검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라면 후자는 한겨레신문사와 (주)마르텔아르떼가 공동 주최했다는 점에서 영리적 사업이라는 취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깔끔한 전시 구성이나 연출은 관람객들의 호평으로 이어졌다.

반면 <한국 현대사진 대표작가 10인전_2009 오디세이>(7.14-8.18, 예술의전당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db.kyobobook.co.kr

한가람미술관)는 대중에게 인지도 있는 고명근, 구본창, 배병우 등 유명 사진가들을 내세움으로써 주제에 근거한 기획전임을 무색케 했다. 취지야 어떻듯 대표작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사진계의 현재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반은 공정하거나 반은 불공정하다. 선정되지 않은 작가들은 한국 현대사진의 대표작가가 정녕 아닌가라는 반문을 기획측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진이 지니고 있는 매체적 한계와 더불어 사진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소규모의 전시도 많았다. 일테면 <모호한 층 애매한 겹전>(2.11-3.10, 갤러리룩스)은 다양한 재료기법을 통한 사진 창작 방법론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한지에 컴퓨터 프린트, 금속, 대리석이나 유리판에 사진인화와 같은 다양한 시도는 물론이고 사진의 표면을 긁기, 지우기, 바느질하기, 입체화하기 등 실험적 모색을 검토한다. 평론가 박영택이 기획한 이 전시에는 '1부 사진의 질료화', '2부 사진적 리얼리티의 제거'로 구성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읽는 사진, 느끼는 사진전>(3.6-5.24,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또한 현대사진의 전통적 창작으로부터 다양한 기법에 의한 창작 등을 검토함으로써 사진예술의 새로운 미래적 비전을 검토한다. 김아타, 김준, 민병헌, 육명심, 이형구, 황규태 등 사진작가 25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요술 이미지전>(8.8-10.1, 한미사진미술관) 역시 사진의 다양한 연출기법과 더불어 사진의 매체 확장으로서의 의미를 알아보는 전시였다. 특히 발전하는 테크놀로지가 예술에 끼친 영향력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기도 하다. 전시는 젊은 작가 14인이 참여해 사진에 기초하되 다양한 변화를 꾀하는 작품 50여 점을 선보였다. 회화와 사진, 입체와 사진,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디지털이미지, 영화 같은 사진, 연극 같은 사진이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더 포토그래프 에즈 컨템포러리 아트전(The Photograph as Contemporary Art)>(7.9-8.20, 두산갤러리) 역시 전시명에서 드러나듯이,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 현대미술이 되어버린 사진계의 변모지점을 살펴본다. 현대미술 같은 사진이란 결국 찍기 대신 만들기라는 과정이 개입한 디지털 메이킹 포토로부터 그 가능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 전시는 변모하는 사진의 미래적 위상을 예견한다. 권두현, 권순관, 김도균, 박형근 등 12인이 참여했다.

반대로 <Unreal전-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사이>(2009.12.2-2010.1.16, 더컬럼스갤

러리)는 사진의 매체적 한계를 끌어안고 사진 이미지의 존재론적 입장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고민한다. 즉, 존재와 부재, 현실과 비현실, 사실과 허구의 문제를 시각성에 기반한 이미지 차원에서 검토한다. 기획자는 그것을 상상력으로 검토한다. 다니엘 부에티, 마이클 웨슬리 등 해외 작가 7인의 작품으로 꾸려졌다.

사진에 관한 미학적 성찰로는 <스피킹 위드 핸즈_불 컬렉션전>(3.5-5.24, 대림미술관)이 돋보였다. 미국의 컬렉터, 헨리 불(Henry Buhl)의 소장 사진 116점과 조각 32점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손'에 집중하는 이미지들로 특히 앤디 워홀, 헨리 무어, 테레사 수녀 등 유명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1840년대 윌리엄 헨리 폭스 탈봇의 사진부터 만 레이, 비토 아콘치, 바바라 크루거에 이르는 160여 년간의 사진의 역사가 거장들의 작품들을 통해 펼쳐졌다. 여기에 대중적 기호가 덧붙여진 전시들로는 세계 유명인사들의 초상사진전 <카쉬전>(3.4-5.8,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패션사진의 거장 <사라문전>(9.25-11.29, 예술의전당 V갤러리)이 대표적이었다.

한편, 사진의 매체적·미학적 성찰 너머로 예술사회학의 의미를 묻는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도 열렸다.

<세로토닌전>(3.18-4.7, 갤러리나우)은 사진의 시각 이미지가 지닌 심리적 영향력을 기획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일테면 조용하고 명상적인 화면이 끼치는 안정효과와 같은 것이다. 전시는 예술 작품이 성장기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모색하면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를 도모한다. 구본창, 서성원, 순리, 원성원, 유현미 외 다수의 작가가 참여했다. 한편 <세로토닌전 II전>(10.8-15,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은 사진과 더불어 회화와 같은 장르를 포함하면서 예술심리학적 효과 연구 취지를 명확히 했다.

증거로서의 사진이라는 사진의 예술사회학을 성취하는 전시로 <청소년전>(6.19-8.23, 일민미술관)이 대표적이다. 전시는 일민문화재단이 발간하는 일민시각문화 총서 4권째인 「청소년」 발간에 맞춰 진행되었다. 산업현장을 시각 이미지로 구상화하고 풀어낸 「공장」, 「새마을」과 같은 총서 시리즈의 후속을 기념한 전시라 하겠다. 고정남, 권우열, 박진영, 양재광, 오석근, 이지연, 최은식, 최종규 등의 작가가 참여하여 촬영한 700여 컷의 이미지들의 일부를 전시로 꾸려냈다. 실제로 전시 결과물보다는 이와 같은 통합 사업의 취지가 더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문제도 조명되었다. <지구를 인터뷰하다전-사진으로 본 기후변화)(6.19-8.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대림미술관)가 대표적이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에 관한 여러 내용을 담은 총 9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자연과 사물전>(1.7-2.3, 물파스페이스)은 환경운동의 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객에게 자연, 환경, 생태의 문제를 되새기게 한다. 산, 나무, 달, 풀 등 자연을 소재로 한 남성 작가 5인과 도시생활 주변의 일상과 사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한 여성 작가 5인이 참여했다.

그 외 다큐멘터리 사진과 관련한 기획전으로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전>(12.9-19, 평화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개개인에게 있다는 자각을 보여준다. 김홍구, 노익상 외 11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한편, 포스갤러리에서 30, 40대 다큐멘터리 사진가 12명을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개인전으로 개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를 만나다전>이 주목할 만하다. 이규철, 최향영, 안해룡, 석재현, 정은진, 백지순, 박태희 등이 참여했다. 또한 사회성 있는 다큐멘터리 작가의 개인초대전으로 기획된 '클래식으로의 초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전시는 <박하선_천장전>(4.23-5.6, 갤러리엠), <이상일-망월동전>(5.7-20, 갤러리엠), <강용석_동두천기념사진1984전>(5.21-6.3, 갤러리엠), <성남훈_루마니아 집시전>(6.4-17, 갤러리엠)으로 개인전이 마련되었다.

판화계의 주요 기획전은 특별히 많지 않았다.

앞서 주요 행사로 살펴본 『서울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SIPA)』, 『2009 한국현대판화축제』, 『Print BELT2009』 외에 다음 전시가 눈에 띈다. <예술의 두 가지 꿈전: 세계의 거장들과 이탈리아 판화공방 2Rc의 만남>(9.16-10.29, 서울대학교미술관 MoA)이 그것이다. 전시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27인과 유명한 이탈리아 판화공방인 2RC의 40여 년간의 협업 작업 121점을 소개했다. 197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세계적인 공방과 세계적인 작가의 만남 자체로 판화계의 신선한 전시로 평가된다. 이 전시는 전통적 판화기법과 현대화된 판화 기법 사이에서 판화의 정체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사진/판화 주요 개인전

회고전이나 기념전이 2009년에도 있었다. 구왕삼 탄생 100주년 기념전인 <무성의

시(詩) 전>(6.16-21, 대구 봉산문화회관)이 대표적이다. <이형록 회고전>(12.7-2010.1.31, 갤러리제비꽃)은 사진 인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생존하는 최고령 사진작가의 전시였다. 1950~60년대 삶의 현장을 담은 <김한용_희망의 연대기전>(1.13-3.8, 동강사진박물관), 우울하고도 낭만적 분위기 풍경사진을 담은 <홍순태_우울한 겨울전>(3.30-4.12, CBL갤러리), <류경선_바다, 그 기억을 그리다전>(2.11-17, 인사아트센터), 원로사진가 주명덕의 장미와 차이나타운 사진전인 <주명덕전>(6.13-7.25, 한미사진미술관)과 풍경전인 <주명덕_풍경전>(2009.12.17-2010.2.7, 대림미술관)이 대표적인 회고전이었다.

중견사진가들의 전시로는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전시한 <배병우전>(10.1-12.6, 덕수궁미술관)을 비롯해 <박종우_히말라야 모노그래프전>(3.4-24, 고은사진미술관), <이상일 사진전>(8.14-10.31, 고은사진미술관), <박영숙전>(2009.11.7-2010.1.1, 고은사진미술관), <윤건혁_베이징, 원 월드 원 드림전>(11.5-11, 광주 롯데아트갤러리), 그리고 분단의 흔적을 간직한 현대사를 보여주고 있는 <강용석_한국전쟁기념비전>(11.28-2010.2.20, 한미사진미술관) 등이 선보였다.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작가군들을 포함한 젊은 감각의 전시들을 일정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포지티브를 반전시킨 네거티브 화면으로 잘 알려진 <고상우_돈과 조건보다 사랑이 소중하다 믿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전>(2.6-28, 갤러리선컨템포러리), 개인사적 동기와 공동체 인류의 담론으로 확장하는 <천경우_Thousands전>(3.3-29, 토탈미술관·가인갤러리), 현대사회의 소소한 일상의 내러티브를 위트 있는 진중함으로 드러내는 권순관의 <2009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전: 권순관_A Practice of Nehavior>(3.6-4.5, 성곡미술관)가 있었다.

<이일우_박제의 초상전>(3.12-30, 세오갤러리)은 죽음 이전과 이후의 문제를 관객에게 되돌려주고, <인효진_불안정한 질서전>(4.10-5.5, 성곡미술관)은 미성년자들의 제도 속 욕망을 담담하게 드러낸다. <고정남_연분홍 진달래전>(4.24-5.7, 갤러리브레송)은 진달래와 대전차 장애물의 콘크리트 물성이 맞닥뜨리는 대립과 공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되뇌게 한다. 돌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황선구_Stone, Beyond the Wall Ⅱ전>(4.27-5.10, CBL갤러리)이나 거울의 반영 이미지가 야기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노순택_거울정치전>(5.14-6.16, 트렁크갤러리), 현대의 소비적 일상이 희화화된 채 클로즈업된 <구성연_사탕전>(6.8-7.28, 트렁크 갤러리)도 빼놓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을 수 없다.

<김미루_나도의 우수전>(8.25-9.13, 갤러리현대)은 용도 폐기된 도시의 공간에 은닉한 알몸을 통해 환경 속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고, <신선주_Manière-noir -Beijing Photos전>(9.4-17, 스페이스캔)은 사진과 검은 오일 파스텔 사이를 통해 새로운 매체적 실험을 거듭한다. <김병걸_오래된 질문전>(10.7-20, 유엠갤러리), 휴대용 인공자연을 소비하는 <이민호전>(10.8-11.4, K&갤러리), 사물들의 비현실적 공존을 다루는 <임안나전>(11.3-20, 두인갤러리), <이단_벗겨진 전통전> (11.11-21, 갤러리더케이)은 인간 육체가 담고 있는 내면의 본질과 욕망을 다루고, <이원철_유기체적 공간전>(11.17-30, 갤러리진선)은 산업화 과정을 거친 현대의 자화상을 만들어낸다.

시각예술의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사진예술의 경계를 오고가는 작가들의 사진전도 주목할 만하다. <이강우_석탄풍경전>(1.3-2.22, 태백 석탄박물관)은 철암과 사북에 남아 있는 탄광촌 원형을 정직한 눈으로 재현하고, <강홍구_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기록전>(3.13-5.3, 몽인아트센터)은 은평 뉴타운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일상의 단면들을 제도,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겹쳐놓는다. 설치미술로부터 사진계로 깊숙이 들어온 <이상현_삼천궁녀전>(6.11-30, 갤러리선컨템포러리)은 근대사의 원전과 교차하는 현대의 대중문화식 해학이 흥미롭다. <유현미_Bleeding Blue전>(2009.11.19-2010.1.17, 몽인아트센터)은 단연코 시각예술 언어와 사진예술 언어의 의미를 꿰뚫어내는 전시였다. 퍼포먼스, 회화, 조각, 사진으로 전개되면서 최종 마감된 오브제 사진은 더 이상 무생물의 무엇이 되기를 거부한다.

## Ⅲ. 미디어아트/설치미술

### 1. 미디어아트/설치미술의 문화계 주요 행사

2009년에도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을 아우르는 복합매체의 영역은 주요 시각예술 행사에서는 물론 문화 행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다. 그만큼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이 표방하는 혼성의 조형언어가 이미 시각예술 현장에서 보편화된 까닭이다.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은 최근 각 지자체 정부의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이나 기

업의 사회공헌 콘텐츠와 맞물려 이전에 주로 조각이 담당했던 퍼블릭아트의 새로운 유형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 송도 U-City, 창원 유비쿼터스 시티, 동탄 U-city뿐 아니라 오늘날 첨단을 지향하는 도시정부에 있어서 예술, 테크놀로지, 사회가 통합되는 양상은 일상을 예술과 구별이 없게 만든다. 미래적 과제였던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오늘날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날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은 양자가 통합되는 형태로 이러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현실의 장에 도입되곤 한다. 지금까지는 DB구축 등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테크놀로지가 우선했지만, 문화관광 자원의 지능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콘텐츠 영역과 결합한 미디어아트의 유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시 지원으로 강남구가 기획한 <U_스트리트 미디어 폴>일 것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에 달하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의 760m 구간이 '유비쿼터스'를 테마로 하는 첨단 미디어 거리로 탈바꿈한 것이다. 12.4m의 미디어폴(media pole)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가로시설물 22개는 지역, 교통, 뉴스 등의 정보 키오스크(Info-booth)의 기능과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한다. 이것은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이 도시에서 일상의 테크놀로지를 만나 창출한 '미래형 도시의 퍼블릭아트'로 평가된다. 이것은 일상을 예술화시킨 비근한 예 중의 하나다.

그런 면에서 『2009 서울빛축제』(2009.12.19-2010.1.24, 광화문 일대) 역시 '일상의 예술화'에 관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예다. '문화의 빛_세종문화회관의 미디어 퍼포먼스', '소통의 빛_KT빌딩의 미디어퍼포먼스' 그리고 '창조의 빛_미디어타워와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세 개의 섹션으로 진행된 서울시의 문화 행사는 가히 도시를 예술화를 성취하는 단계까지 넘본다. 실제 백남준의 유작인 <프랙탈 거북선>이 광화문 광장의 투명 유리박스 안에서 전시될 만큼 예술작품과 문화 행사를 조우하는 전략이 실행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조명기술의 범주에 한정되었던 '루미나리에'와 같은 거리 조명의 단계를 넘어서 빛 자체를 예술작품화시켜 퍼블릭아트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평이다.

이것이 일회적 행사를 거친 미디어-설치 퍼블릭아트였다면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미디어캔버스>(옛 대우빌딩)는 항구적인 미디어-설치 기반의 퍼블릭아트라 할 것이다. 2009년 타임스퀘어는 일 년여 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4층부터 23층까지 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물 외벽에 가로세로 99×78m에 이르는 면적에 4만 2천 개의 LED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 초대형 LED 미디어 캔버스를 설치했다. 가나아트센터 기획을 통해 줄리안 오피의 <워킹 피플>, 양만기의 <미메시스 스케이프>가 상영되었다. 세계 최대의 미디어캔버스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타임스퀘어 미디어캔버스는 첨단도시의 미래형 퍼블릭아트임에 분명하다. 예술 콘텐츠를 담고 있는 하드웨어가 시각예술의 면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창의적인 프로그램들로 활성화하는 작업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제1회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8.7-10.25, 인천세계도시축전 주 행사장)은 외형적으로는 시각예술 현장에서 기획된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한 부분으로 할당된 인천의 문화 행사로 치러졌다. 물론 일회성인 도시축전과 상관없이 2010년에도 지속될 계획이지만 다분히 일상 속에 예술의 형식을 끌어안으려는 지자체 정부의 문화 페스티벌 유형의 일면을 잘 드러내준다. 도시축전 주 행사장 안에 가건물로 성급하게 마련된 전시장은 규묘의 효율성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출품작을 통한 주제전은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Inter-time, Inter-face, Inter-space'라는 주제로 디지털아트의 존재론적 위상과 더불어 미디어 사이의 매개자로서의 역할, 테크놀로지, 일상, 예술 사이의 맥락 그리고 예술가, 예술작품, 관객 등의 관계의 문제 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미디어폴이나 대우센터빌딩의 미디어캔버스, 디지털아트페스티벌이 미디어아트의 유형이 앞선 것이라면 2007년 이래 2009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설치미술의 유형이 앞선 것이라 하겠다. 장소성, 공공미술, 참여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성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늘공원 희망전망대에 마련한 임옥상의 <Growing Sculpture_하늘을 담는 그릇>, 이은화의 해치 퍼레이드인 <Haechi, Haechi, Haechi>, 김석의 환경조형물인 <함께 일어서自> 그리고 노일초등학교의 학교갤러리로 기획된 내일의 도시팀의 <천 개의 집> 등 많은 프로젝트형 퍼블릭아트가 실현되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한 <2009마을미술프로젝트>는 자유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전국 21개소에서 실행되었다. 마을 단위의 퍼블릭아트가 지향하는 참여와 소통 그리고 문화환경 개선이 한데 어우러진 대형 설치미술이라 할 것이다.

한편,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서울 경희궁에 설치한 <프라다 트랜스포머>는 렘 쿨하우스의 건축사무소 OMA가 설계를 맡아 그 외형이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인 모션'을 주제로 한 <웨이스트 다운-미우치아 프라다의 스커트전>과 같은 친대중 지향의 전시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이처럼 규모는 크지 않아도 일상의 장에 미디어아트 혹은 설치미술을 유입하려는 문화 프로젝트가 상업적 영향력과 만나는 행사들도 그 외에도 많았지만 여기서 생략한다.

## 2. 미디어아트/설치미술의 예술계 주요 행사와 전시

시각예술 현장에서의 미디어아트/설치미술 행사의 규모나 위상은 문화 프로젝트와 맞물린 것보다 예산 외 여러 문제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르별로 특화되지 않는 상태로 기획된 시각예술 현장의 행사와 전시는 규모가 크다. 일테면 기무사 부지에 서울관 분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속된 일련의 미술행사들, 즉 『2009아시아프-아시아 대학생 청년 작가 미술축제』(7.29-8.23), 『플랫폼2009_플랫폼 인 기무사』(9.3-25, 구 기무사), <신호탄-Beginning of New Era전>(10.22-12.6, 구 기무사) 등은 규모나 시각예술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디어아트/설치미술의 유형이 대거 포함된 대표적 행사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제3회 인천여성미술국제비엔날레』(8.1-31, 인천아트플랫폼 외)는 오늘날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여성성 문제를 검토하게 했고, 아시아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격년제 프로젝트인 『아시아현대미술프로젝트』(9.30-11.22, 서울시립미술관)는 서울, 이스탄불, 도쿄, 베이징 4개 도시의 주요 현대미술관이 참여해 작가 40여 명의 다매체 작품 100여 점을 선보였다. 또한 <2009재외한국청년미술제-USB>(11.5-12.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는 한국 특정 지역성을 지니면서도 각기 다른 도시에서 활동하는 정체성을 지닌 24명의 재외 한인 작가의 다매체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전_숨비소리>(6.26-9.30), <포항시립미술관 개관전_철기시대의 대장장이>(12.22-2010.3.14, 포항시립미술관) 그리고 <패션의 윤리학-착하게 입자전>(7.23-10.4, 경기도미술관) 모두 회화, 조각 외에도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이 어우러진 복합형 시각예술전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시각예술이 다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르별 범주화로 전시를 특정화시키지 않으려는 기획자의 노력을 우리에게 검토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각예술 현장에서 최소한의 장르별 범주에 관한 위상을 탐색한 전시들이 주목되었다.

사진과 미디어아트의 장르별 혼합을 주 전략으로 내세운 경우로 <마그네틱 파워 전-한, 아세아 현대 사진미디어아트>(5.20-6.6, 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C 외)가 주목되었고, 조각과 미디어아트의 장르별 범주를 주요 화두로 제시한 경우로 <경계전>(5.28-7.28, 광주시립미술관)이 주목받았다. 특히 후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현대조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했는데, 조각, 브론즈에서부터 프로세스 아트, 영상, 소리조각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조각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의 미디어아트/설치미술로의 확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제2회 아시아 퍼포먼스아트 인 서울>(12.7-12, 제로원디자인센터 외)은 퍼포먼스아트가 중심이 되면서도 총 11개국의 예술가 20명이 참가해 퍼포먼스아트, 사진 도큐멘테이션, 영상 등 다양한 내용으로 펼쳐진 행사였다.

미디어아트 전문 전시공간을 표방하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 또한 미디어아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화의 전시: 전자 테크놀로지전>(6.12-10.4, 백남준아트센터)은 설치미술과 오늘날의 미디어아트 장르가 혼합되었던 백남준의 첫 개인전에 대한 패러디와 오마주를 의미하는 만큼, 참여작가들의 조각, 설치미술, 미디어아트가 다양하게 제시된 복합 장르형 전시로 꾸려졌다.

<미술시네마전-감각의 몽타주>(6.6-10.4,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는 영화 기법인 몽타주 기법을 주제로 한 전시로서 사진과 영상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미디어아트의 근원을 더듬는다. <어반&디스어반전(Urban&DISurban)>(8.7-20, 통의동 옛 보안여관)은 경복궁 앞 서민들의 임식 숙소였던 여관의 퇴락한 모습 자체가 그대로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시각의 궤적을 타고 있는 문화지층이 지금, 여기에 다른 언어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게 만든 설치, 영상전이었다.

2008년부터 상설전에 돌입한 삼성미술관 리움은 개관 5주년이 되는 2009년말 상설 특별전인 <미디어상설전>(10.6-계속, 삼성미술관 리움)을 기획했는데 미디어설치, 미디어조각, 미디어영상을 포함한 백남준, 빌비올라 등 7인의 작가의 다매체 작품들로 구성된 미디어아트전이었다.

2009년 앞서 언급했던 행사 및 전시 외에, 미디어아트전을 표방한 기획전을 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브 온 아시아2009전>(2.6-3.11, 대안공간 루프)은 14개국 21명의 기획자가 추천한 미디어아트 작가 35명이 참여한 전시로 미디어아트의 초기 유형이 오늘날에 가지는 위상을 검토하는 전시였다. <크로스 애니메이트전>(4.2-5.10, 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C)은 현대미술과 애니메이션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미디어아트의 다양한 범주를 탐색했다. <VIDEO: VIDEO&O전>(9.4-10.18, 아르코미술관)은 비디오아카이브와 컬렉션 구축을 통해 한국 비디오아트의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로 꾸려졌다. 초기 작가들과 최근 작가들의 작품을 병치해서 전시함으로써, 비디오아트의 역사와 미디어아트의 현재적 위치를 점검했다. <앨리스 뮤지엄_퓨처 스쿨>(5.1-6.2, 소마미술관)은 소마미술관과 아트센터나비가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놀이터를 제시한 미디어아트전이였다. 시각성 외에도 공감각적 소통을 도모한 전시로 평가된다. <기계가 꾸는 꿈전>(6.16-7.2, 스페이스 캔, 숭실대 정보과학과 미디어스페이스) 역시 '기계와 생명에 대한 확장된 시각과 융합예술의 가능성'이라는 부제처럼 시각뿐 아니라 공감각을 통한 시각예술의 소통의 국면을 제기함으로써 점차 통합화되는 예술의 변화되는 위상을 검토하고 있다.

<New Sci-Art Open Lab전>(7.1-11.30, 사비나미술관)은 과학문화융합포럼 7차 대회의 결과물을 전시함으로써 과학자와 예술가의 결합을 지속화한 사비나미술관의 전통적인 전시기획 방향을 선보였다. <라이트월전>(8.1-9.19, 서울시립미술관 외벽)은 그룹 뮌의 10분 내외의 영상작품을 건축물에 프로젝션한 것으로 다이내믹한 미디어아트의 퍼블릭아트로서 가능성을 타진했다. <Velet Inspiration전>(10.13-11.17, 키마아트)은 빛을 소재로 6인의 작가가 참여하여 시각적 리듬감과 빛의 환영을 선보였고, <Lack of Electricity-미디어아트, 전기 나갔을 때 대처방안전>(10.22-11.9, 스페이스 캔)은 짧은 시간 동안 급속히 양적 성장을 보여온 미디어아트에 대한 반성과 재성찰을 드러낸 전시였다. 로테크놀로지 기술에 근간을 둔 작품들을 선보이고 오늘날 하이테크놀로지에 근간한 미디어아트를 성찰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미디어아트가 가진 한계점을 검토하게 한다. <미디어 시즌 인 헤이리 2009>(12.11-2010.1.10, 갤러리 소소, 갤러리 터치아트, 아트팩토리)는 9인의 참여 작품을 통해 2009년 한 해의 미디어아트의 흐름과 비전을 점검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편, 2009년 앞서 언급했던 것 외에, 설치미술을 전면에 내세운 주요 기획전을 언급하고 이후 다양한 유형으로 혼성된 설치미술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적으로 설치미술제임을 표방하고 나선 <2009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9.18-29, 울산 태화강 둔치)는 3회째인 2009년부터 예술감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호흡의 지평'이라는 주제 아래 구영모, 베른트 할프에르, 피오트르 자모스키, 쇼고 키우치, 왕신시에 등 32명의 국내외 작가들과 프로젝트팀의 참가로 꾸려졌다. 주로 설치적 조각, 조각적 설치의 개념이 교차하는 이 행사가 야외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시각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시각예술과 자연, 환경의 상관성에 대한 실천 담론들이 주요하게 부각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2009 자라섬 바깥미술전>(1.10-2.1, 자라섬)은 '씨알 하나'라는 주제 아래 정수, 박형필, 왕광현 등 바깥미술회 회원 7명과 김해심, 김용민, 문병탁, 백성근, 정혜령, 최영옥, 기무라 가쯔아끼, 요시노 쇼타로 등 초대작가 18명이 참가해 펼쳐졌다. 특히 처음으로 외국 작가가 참여한 올해 행사는 추후 국제전으로서의 위상을 예견해 본 전시라 할 것이다. 서구의 대지미술 유형과 일정부분 공유하면서도 자연미술의 특성을 표방하는 이 전시는 매년 야외 미술현장으로 뛰쳐나가 벌이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야외설치미술제 혹은 자연설치미술제라 할 것이다.

『2009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10.17-11.7, 금강자연미술센터)는 『2010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행사로, 38개국 150여 명의 작가가 공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내온 작품 스케치와 실제로 자연물로 만들어진 소품들로 구성되었다. 이 전시는 '자연과 평화'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2010비엔날레의 참여 작가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열리는 것이다. 이 행사는 자연미술 프로젝트전을 비롯, 자연미술체험학습, 비엔날레 국내홍보전시, 자연미술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2009 양평환경미술제』(10.17-11.1, 한강생태학습장 외) 역시 양평의 지형적 특성과 자연, 환경의 문제를 시각예술로 풀어보고자 하는 데 집중했다. 권남희, 금중기, 김승영, 이재효 등 다수의 조각가 11명(팀)이 참가한 조각적 설치, 설치적 조각이 대세를 이룬 설치미술제로 꾸려졌다.

대구아트스퀘어의 일환으로 열린 『2009 청년미술프로젝트』(11.11-29, KT&G별관)는 광대한 전시공간에 젊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회화, 조각, 영상, 설치가

한데 어우러진 그 자체로 하나의 스펙터클 설치미술이었다. 사진이 주를 이루었던 그동안의 대구미술계의 잠재된 현대미술의 실험정신을 불러낸 전시 기획으로 평가받기에 족하다.

그 외에도 <이머징9전>(1.15-2.8, 쌈지스페이스)은 당시 폐관 전에, 그룹 김과현의 공동작업과 박은영, 이철현 작가의 설치, 미디어아트 작업을 선보였다. <신오감도전>(3.18-6.7, 서울시립미술관)은 시각성만이 아닌 후각, 촉각, 청각 등 비시각성의 공감각적 상상력을 도구로 쓰고 관객에게 그것을 드러낸 전시였다. 시각에 대한 후각이나 촉각을 강조하는 <코스메틱 잼전>(3.25-31, 인사아트센터)은 간략하게 화장품 브랜드인 클리오가 주관한 '미술과 화장품의 만남'으로 정리해볼 수 있지만, 시각에 덧붙이는 후각, 촉각, 상업적 속성 등이 부가된 전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객과의 상호작용과 참여, 재미와 해학, 만화적 상상력과 위트를 담아내었던 <2009 미술관봄나들이전_미술관 습격사건>(4.30-6.14, 서울시립미술관)은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매체 미술 40여 점을 선보였다.

## 3. 미디어아트/설치미술의 주요 개인전

개인전은 아니지만 2009 시각예술계의 화제였던 양혜규가 참여했던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6.7-11.2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한국관 설치작품은 설치미술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시켰다. 작가 자신이 거주하는 독일 베를린 부엌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조각 <살림>, 빛과 불라인드를 소재로 한 설치 작업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 그리고 영상 작업 <쌍과 반족-이름없는 이웃들과의 사건> 등이다. 삶의 흔적을 드러내는 해체적 설치였다는 평가였다.

나아가 국립현대미술관은 강익중의 <멀티플 다이얼로그 ∞전>(2009.2.6-2010.2.7, 국립현대미술관)을 마련했다. 백남준 작고 3주기를 기념하는 전시로 기존의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배경으로 한 나선형 벽면에 강익중의 삼라만상이 함께 참여하는 설치미술전이다. 백남준의 비디오 조각과 어우러진 강익중의 다양한 오브제 설치작업이 함께 조화를 시도하는 전시였다.

<천대광전>(3.5-22, 브레인팩토리)은 전시장 전체를 커다란 격자무늬 터널로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꾼 전시다. 경복궁을 향한 공간으로 열려 있는 출입구와 연결된 구조물의 숨통 틔우기가 상호교차하는 거대한 설치구조물이다. 공간, 시간, 예술의 문제를 넘나든다.

개념적 조각 설치의 <안규철_2.6평방미터의 집전>(3.11-4.16, 공간화랑)은 작가가 오랜만에 선보인 개인전이었다. <지니서전_End of the Rainbow>(5.21-7.19, 몽인아트센터)는 철이라는 재료가 가진 질료적 힘을 통해 전시장 전체를 작가의 내적 에너지가 투영된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전시장, 1, 2층을 유기적이거나 기하학적인 설치 구조물로 대비시켜 설치미술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2009년 빼놓을 수 없는 전시로 차기율의 <세 개의 장소전>(9.23-10.30, 공간화랑)을 꼽을 수 있다. 작가가 태어난 화성, 성장한 인천, 활동 중인 서울 등 세 공간에서 각기 진행되었던 고고학적 발굴 프로젝트의 결과를 선보인 전시는 역사와 공간이 내접한 삶에 대한 성찰을 지속되게 요구한다. 일일이 꿰매 만든 상처받은 심장들을 설치적 어법으로 제시하여 애증과 욕망의 커뮤니케이션을 고스란히 드러낸 <오혜선전>(10.21-27, 관훈갤러리) 역시 주목할 만한 전시였다.

설치와 접목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인전이 주목된다. <오인환전>(5.15-7.19, 아트선재센터)은 언어, 개념, 설치미술과 영상미술이 넘나드는 가운데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장치를 비판하고 <함경아전-욕망과 마취>(8.22-10.25, 아트선재센터)에서 작가가 세계 각지의 커피숍, 호텔에서 훔쳐온 컵, 그릇, 후추, 접시 등 오브제의 무덤을 한 장소에서 경험함으로써 관객들은 약탈된 문화재와 예술작품으로 꾸며진 미술관의 역사를 성찰한다. <전수천_新월인천강지곡>(10.16-12.12, 서울대미술관)은 작가의 일관된 우주, 문명, 생명 등 시공간을 넘나드는 존재와 의미론 탐구의 일단을 드러낸다.

<줄리안 오피전>(4.29-5.31, 국제갤러리) 역시 회화, 조각, 설치, 영상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설치, 미디어전으로 선보였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 팝아트 작가 줄리앙 오피의 국내 첫 개인전으로 현대의 매스미디어 이미지와 예술이란 무엇인지를 가벼운 어조로 묻고 있다.

<강애란전_The Sublime: The Space of Heteropopia>(5.15-6.15, 갤러리시몬)에서는 관객에 의한 디지털북의 이동과 그로 인한 텍스트 내용의 자동재생 등 관객과 상호작용을 벌이면서 설치와 미디어아트가 교류하는 새로운 인터랙티브 아트를 선보인다.

그 외에도 모션 그래픽 작업에 기반한 <김영진전>(7.3-16, 김진혜갤러리), 사진과 영상작업으로 선보인 <이영호전>(8.27-9.27, 대안공간 루프), 움직임을 부과한 로테크놀로지를 오랫동안 구사해온 <안수진전>(10.30-12.3, 김종영미술관)은 김종영미술관의 '오늘의 작가상 수상전'으로 꾸려졌다. 내러티브의 영상 언어로 현대인의 일상을 재조명한 <이진준전_Your stage>(11.6-27, 갤러리선컨템포러리)도 주목할 만하다. <양아치전_Middle Corea: Yangachi Trilogy>(12.4-8, 아트센터나비)는 아트센터나비의 뉴시어터 시리즈의 네 번째 전시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작가의 에피소드 시리즈의 최종편으로 기획된 전시는 24점의 영상, 사운드, 입체, 사진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파괴와 교란이 침투하는 주목할 만한 미디어아트전으로 평가된다.

## IV. 서예

서예계에서 단연코 화두는 국제행사였다. 『제7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9.19-10.18,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외 전주시 일원)는 '소통'을 주제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5개국 978명의 작가가 대거 참여하여 작품 1,400여 점이 선보였다. <동아시아 서예의 유파전-한자 서예전>, <서방에 싹트는 서예바람전>, <한국가곡과 한글 서예전>, <병풍으로 보는 수묵사군자전>, <도법서예전>, <전북서예의 새로운 모색전>, <깃발 서예전> 등 전시행사 11개, 관련 행사 5개로 준비되었고 신종플루 등으로 개막, 학술, 부대 행사는 아쉽게 취소되었다.

<2009 부산서예비엔날레>(11.6-19, 부산시문화회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옛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정신세계를 꽃피운다'는 의미의 '승고신화(承古新花)'를 주제로 내걸고 <세계서화 초대전>, <세계서화의 동향전>, <기념휘호 작품전> 등 3개의 주제전과 <실용서화의 변주>, <기념공모전> 등 2개의 기념 행사에 초대작품 647점, 공모작 253점 등 총 9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서예 인구가 여타 시각예술 인구보다 소수인 까닭에 비엔날레 출품 작가 중 특정 작가가 매번 중복 참여한다는 것이 서예비엔날레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규모가 큰 주요 전시로 <2009 문자문명전>(9.9-20, 창원 성산아트홀)이 꼽힌다. '다호리에서 디지털까지'라는 주제를 통해 전통과 현재를 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는 가교 역할을 이번 전시가 도맡고자 한다. 전시는 창원 다호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붓을 출발로 해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현대예술로 재해석한 문자예술 그리고 이에 대한 사료들을 모아 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회는 <한국현대문자 예술의 향방전>, <한국현대사경전>, <창원문자사료전>, <지역 중견작가 20인전>, <현대조형문자전> 등 5개의 주제전으로 꾸려졌다.

2009년은 유독 서예 대가의 기념전들이 많이 열렸다. 소치 허련 탄생 200주년 기념 특별전인 <소치 200년 운림 이만리전>(2008.12.27-2009.2.1,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겸재 서거 250주년 기념전인 <겸재화파전>(5.17-31, 간송미술관), 원곡 김기승 탄생 100주년 특별전인 <말씀대로전>(7.17-8.16,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이 대표적이다. 또한 유당 탄생 100주년 특별전인 <정현복전>(9.10- 11.29, 경남도립미술관),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특별전인 <여민해락전>(9.29- 11.8, 국립중앙박물관), 희재 한상봉 소장-한국 금석문 100선전인 <다시 볼 수 없는 비장 비첩전>(10.15-21, 백악미술관), 추사 연행 200주년 기념 특별전인 <김정희와 한중묵연전>(11.5-16, 과천시민회관), 은초 탄생 100주년 특별전인 <은초 정명수전>(2009.12.10-2010. 2.21, 경남도립미술관) 등이 열렸다. 그리고 안중근 의거 순국 100년 기념전인 <안중근, 독립을 넘어 평화로전>(2009.10.26-2010.2.15,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도 대중들에게는 이전 위인들의 필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2009년의 서예 비평에서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한글과 한자 서예의 비교 연구였다. 한글 시조로 꾸며진 <아름다운 한글서예전>(9.8-13,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과 <2009 한글서예대축제>(10.13-19,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가 대표적이었다. <한글서예대축제>는 '관통'을 주제로 한글 서예의 여러 가능성을 실험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창립 열돌 기념전>(11.12-18, 백악미술관), <제4회 한글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3.27-4.5, 세종대왕기념관) 또한 한글서예의 전통과 현대화의 양측면을 제시한 전시였다.

2009년 서예가 개인의 한글서예 전시들은 최민렬 소장본인 <옛 한글 서예자료전>(10.8-14, 백악미술관), <한글 서예 발자취_산돌 조용선전>(9.14-21,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현병찬 三無 필묵전>(10.29-11.4, 백악미술관/11.25-30, 제주문예회관) 등이다. <다천 김종원 런던 초대전>(3.30-5.16, 런던 한국문화원)은 한글문자의 내용과 조형을 동시에 화두로 삼아 역사, 일상, 문학과 퍼포먼스가 다양하게 구사

된 행사로 평가받았다. 즉 그는 성삼문의 시조 '이 몸이 죽고 죽어'를 가지고 한글 창제의 기본인 천, 지, 인 삼재사상을 일필휘지(一筆揮之), 일기가성(一氣呵成)으로서의 퍼포먼스, 즉 가무들로 풀어내었다. 한편, 그는 한글사전에도 없는 토종 제주말을 소재로 한글문자의 내용과 조형을 탐구했다는 평이다.

한편, 2009년 다음 서예가들의 활동 역시 활발하다는 평이다. 김양동은 한글, 한자 모두 서예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빗살무늬 같은 도상도 서예의 재제로 사용한다. 최민열은 전통적인 한글서예에 기초하면서도 지필묵이 아닌 혼합매체를 수용하면서 시각예술의 장으로 확장한다는 평가다. 한태상은 한글의 원형적 접근을 하는 서예에 몰두하고 있는데 일테면, 자음과 모음의 조형성과 창제 배경의 역리에 주목하여 문자를 해체하고 다시 만나게 한다. 마치 기하학적 추상회화의 일단을 보는 것과 같은 서예를 연구한다. 문자와 회화가 어우러진 조형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는 평이다. 허회태는 문자를 점획으로 필묵의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필묵의 순수성에 집중한다. 김종원은 전통과 실험을 한몸에 담고 있다. 행초서와 먹의 농담을 극대화해 단숨에 써내려나간 작품의 텍스트와 조형의 합치를 통해 작가 내면의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조형언어에 심혈을 기울인다.

한글서예가 다양한 변모와 현대화의 언어를 접목하면서 전개되고 있지만, 반면에 한자서예는 관성에 젖어 있다는 평이다.

한자서예는 여전히 전통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까닭에 다분히 순수예술 영역에 기울어 있는 편이다.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고전적 규범에만 국한된 한자서예는 새로운 실험을 도모하기보다는 전통의 계승 차원을 중요시하는 까닭에 발전적 전개가 더디다는 평이다. 반면 <송민 이주형의 무성지음(無聲之音)전>(7.16-22, 백악미술관)은 서예 본질의 한자와 한글을 하나로 보여준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간산 김광욱전>(8.12-13, 경인미술관)은 한자의 시작과 끝의 서체 미학을 전예와 초서의 만남으로 펼쳐낸 것으로 평을 받았다. 아울러 석송 이종호의 <노자, 필묵과 대화전>(5.6-11,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무의자연의 미의식을 노자의 텍스트에 담아냄으로써 한자서예가 담고 있는 전통의 정신성을 잘 되살렸다는 평이다.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2009 서예비평계에서 일고 있는 또 하나의 화두는 서예와 시각예술의 혼융의 양상이다. 서예가 담고 있는 필획의 운동에 의한 명상, 성찰의 과정이 점차 간과되고 글씨의 외형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흐름이 서예계에 빠르게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혼융을 통해서 외래 전통의 현대화된 정신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희망 아래 실험적인 서예의 현대화 모색은 지속된다.

<유수종전>(10.21-30, 갤러리엠)은 '장미 아이콘과 디지털 미학'이라는 주제 아래 미술의 점선이 아니라 서예의 점획으로 디지털시대 0과 1의 미학을 몰입적인 반복 행위로 형상화해내고 있다. 이일구의 대나무 그림전인 <댓잎에 바람 일어전>(9.23-29, 인사아트센터)은 대나무를 단일 소재로 접근하고 있지만 전통과는 거리가 먼 기법을 사용한다. 감필보다는 화면을 빽빽하게 채운 형태로 풀어놓는다. 영상과 디자인을 넘나들며 서예의 현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그가 구사하는 서예의 근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평가도 없지 않다.

한글서예든, 한자서예든, 서체와 도상이 섞여드는 방식의 서예든, 시대의 대세가 된 장르 혼융의 문제를 현대서예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예가 이전 시대에 세상의 존재 이치를 파악하는 철학적 사유와 명상과정을 통한 자아성찰에 집중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선비의 품격에 젖어 있는 창작 태도로부터 벗어나 다른 지점들, 일테면 서예 예술과 현대의 일상에 대한 소통, 둘 사이의 통합되는 관점들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 V. 미술평론/미술이론

### 1. 미술이론 학술행사

미술평론은 개별 평론가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저널로부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단체로부터 청탁받아 주어진 과제를 하는 비자발적 비평이 대세다. 각종 미술행사의 부대행사 격으로 만들어진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서 주어진 과제에 자신의 비평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평활동을 생산해낸다.

반면 미술이론은 다분히 연구를 전제로 한 자발적 연구가 토대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술평론 현장과는 성찰의 깊이가 달라 보인다. 이런 연구는 주로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쉬운 지점은 미술평론 영역과 미술이론 영역 양자 모두에 걸쳐서 활동하는 미술이론가, 미술평론가들의 활동이 양자 사이의 충분한 매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이다. 하나의 전문 분야에 충실한 연구자들이 있어 역할이 주요한 만큼, 둘 사이를 매개하는 현장 이론가들의 역할 또한 주요하다. 특히 실질적인 미술이론, 즉 미술정책, 행정, 경영에서의 이론과 실제는 상호작용이 매우 주요하다. 미술이론과 미술비평은 이상과 현실을 매개하는 양자의 매개역할을 스스로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주도의 미술정책과 경영 관련 행사에 미술이론 및 미술비평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는 필수적이다. 2009년의 이와 같은 대표적인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2009.5.21, 국립민속박물관)과 『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 개선 토론회』(7.10, 아르코미술관)다. 상기 심포지엄에는 『미술장식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이재언 미술평론가), 『서울시공공미술_도시갤러리』(이광준 도시갤러리 전 책임큐레이터),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와 대책』(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건축, 도시, 공공 속의 미술』(배형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예술정책 관련 미술이론가들이 발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토론에는 양현미(상명대 교수) 등 일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아쉬운 점은 미술정책 및 미술현장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줄 미학, 예술사회학 등 인문학자들이 전혀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심포지엄에 이어 진행되었던 토론회 또한 발제자와 질의자로 구성되어 진행되었고 여기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및 제도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술장식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7월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되는 개선안에는 조형물 설치를 원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설치비용을 공공기금에 출현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기금운용과 공공미술 진흥 업무를 맡을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발전방안 공개 토론회』(11.24, 국립민속박물관)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미술관 운영의 선진 사례를 통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 방안과 독립법인화에 대한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최병식(경희대), 유진상(계원디자인예술대) 2인의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5명의 토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과 방청객들의 참여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미학, 미술사, 예술학 등 학계의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학계의 미술이론 분야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사연구회(회장 한정희)는 춘계정기학술대회(5.16, 홍익대 조형관)를 개최했는데 고명지의 「고려 범종의 장식요소 연구」 등 4편의 아시아 지역의 미술사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10.10,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미술의 동서 교류'라는 주제로 김영나의 「근대동서양미술의 교류」 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서양미술사학회(회장 송혜영)는 춘, 추계 학술발표회 외에도 국제학술심포지엄(5.16,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을 통해 '미술사와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제 아래, 이은주의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광증의 변용적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줄리안 스탈라브라스의 「세계화의 균열」 등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미술사학회(회장 정우택)는 제164, 165회의 월례연구발표회에 이어 제12회 전국미술사학대회(5.30, 서울대 문화관)를 통해 이홍주의 「17~18세기 조선 궁중 채색인물화에 보이는 중국 원체 인물화의 영향」 등 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회장 김영나)는 국제학술심포지엄(6.20,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 '미술과 공중'이라는 주제 아래 권미원의 「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케빈 추아의 「중국의 공공영역」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윤범모)는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10.17, 국립고궁박물관)를 통해 '도시와 미술'이라는 주제 아래 윤범모의 「도시와 미술의 상관관계」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현대미술사학회(회장 김현주)는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10.24, 국민대)을 통해 '문화통섭시대의 현대미술사 방법론-미술사와 시각문화 논의를 중심으로'란 주제 아래 마커드 스미스의 「미술사에서 시각문화 연구로-역사, 이론 그리고 작업의 화두」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인물미술사학회(회장 김영호)는 하계, 추계 학술대회를 거쳐 제주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 학술대회(5.29, 제주도립미술관)를 열었다. '제주미술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를 통해 제주 출신 미술가들과 관계한 한국미술사 연구를 펼쳤다.

현대미술학회는 춘계학술대회(5.23, 경기대), 추계학술대회(10.24, 홍익대) 등 2차례에 걸친 학술대회를 통해 '미술과 자본'이라는 주제로 심층적인 연구들을 발표했다. 두 학술대회를 통해 장민한의 「미술의 종말 이후의 미술관 정책의 역할」 등 7

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한국미술이론학회의 춘계학술대회(4.25, 동덕여대)를 통해서 노유니아의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 등 8인의 연구발표를 가졌다. 이어 추계학술대회(11.21, 서울대미술관 MoA)에서는 '미술과 소통'이라는 주제 아래 한주연의 「국내 미술관의 성립과 교육기능」 등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는 춘계학술대회(4.25, 국립중앙박물관)를 통해 미야마 요시오의 「일본 예술 경영인력 양성의 새로운 방향」 등 총 6인의 연구 논문을, 추계학술대회(12.11, 서울역사박물관)를 통해 '공공성 논쟁, 새로운 패러다임으로-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이라는 주제 아래 박소현의 『일본 미술관에서의 공공성 대논쟁』 등 총 6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3회 한국박물관학술대회를 통해 '박물관 건립 계획과 박물관 진흥'이라는 주제 아래 박신의의 『한국의 박물관 건립 현황과 박물관 건립 계획의 필요성』 등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예술경영학회는 제15회 학술세미나(2.23, 서울문화재단)를 열어 국공립문화기관 운영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한 김은영의 『국공립미술관의 운영과 전문적 역할』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6회 학술세미나(6.22, 중앙대 아트센터)에서는 정상우의 『문화법제 관련(해외)』 외 문화예술세제 및 문화법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는 국제학술대회(9.10, 공주교대)를 통해 '시각문화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크리스틴 밸런지 모리스의 『시각문화의 정체성』 등 4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프랑스학회는 2009 가을학술대회(11.28, 중앙대)를 통해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연구를 1분과 미디어테크놀로지, 2분과 미디어문화정책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특히 1분과는 시각예술 중심의 미디어테크놀로지와 미학 연구발표가 주를 이루었다. 김성호의 『디지털 시대를 전술한 프랑스 미학-베르그송과 들뢰즈를 중심으로』 등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2. 미술이론/미술비평_단체, 기관 연구발표

2009년 역시 협회 차원의 미술이론, 비평 생산은 주로 정기적·부정기적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는 '극사실회화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 아래 학술세미나(7.14, 성남아트센터)를 가졌다. 김영호의 『한국 극사실회화의 기원들』 등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동 협회는 회원 중 34명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2년간의 작업 끝에 작가연구집인 「한국현대미술가 100인」(사문난적)을 출간하였다. 선정된 작가는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근, 현대 작가들로 근대미술의 선구자들에서부터 광복 이전 출생 작가까지로 한정되었다. 작가 선정에는 오광수, 서성록, 윤난지, 김현숙, 조은정이 참여했다.

(사)한국박물관협회는 『2009 한국박물관대회』(5.22-25, 국립중앙박물관)를 열었다. 한국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해 용산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 및 뮤지엄 진흥을 위한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의 전망을 타진한 것이다. 『제12회 전국박물관인대회』와 함께 기획된 『제3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는 공동학술회의와 학술단체별 주제학술회의로 나뉘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큐레이터협회은 위의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큐레이터협회 주관 행사인 『변화하는 미술관 정책과 큐레이터의 역할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화랑협회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분과별 행사 중 미술 분야 토론회인, 『아시아미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활발한 미술교역과 문화 교류의 방법론'으로 9개국 대표 10명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 미술의 활로와 대응방안 연구가 주요 내용으로 한국에서는 정준모, 윤진섭이 발제자로 참가했다.

미술관, 갤러리 등 기관이나 비엔날레, 미술제 등 미술 행사를 주관하는 미술 단체에서는 장기적 정책 실현을 위한 세미나가 기획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기획전의 부대 행사로 열린 세미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대비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미래 설계 세미나』(3.27, 한국프레스센터)를 비롯, 『외국 큐레이터 초청 세미나』(10.9,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협력체계를 위한 세미나』(10.29,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운영 실무 전문 워크숍』(10.30, 덕수궁미술관) 등 다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아시아 미술관 확장 건립과 국제교류 세미나』(10.21, 프라자호텔)를 통해 한중일 국가들의 새로운 미술관 확장 계획과 비전,

전시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으며, 전시 <아리랑 꽃씨: 아시아재외한인작가>(7.17-9.27, 국립현대미술관)의 부대 행사로 아시아한인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아리랑 꽃씨 학술 세미나』(7.17, 국립현대미술관)가 열린 바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10년도 차기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심포지엄』(12.8-9, 서울시립미술관)이 개최되었다. '미디어아트에 관한 병력적 시선들'이라는 주제 아래 양일간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담론에 대한 논쟁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한 기획전인 <조각적인 것에 대한 저항전>(11.28-12.22, 서울시립미술관)을 계기로 『학술대회: 동시대 조각의 탈조각화 현상』(11.28, 서울시립미술관)이 마련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부산비엔날레 조직위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부산비엔날레 2009년도 학술심포지엄』(5.28-29, 부산시청 · 삼성해운대연구소)을 개최했다. '부산비엔날레 10년, 전환점에서'라는 주제 아래 포럼과 워크숍을 함께 진행하면서 향후 차기 2010 비엔날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차기 행사를 발전적으로 준비하는 열성을 드러냈다.

200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공예의 새로운 글로벌 비전'이라는 주제로 『젊은공예포럼』(2.21, 상명대)을 개최한 이래 7회에 이르는 공예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공예 장르의 파괴와 공모전의 혁신적인 변화, 공예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모아내었다. 일반적으로 비엔날레의 부대행사 격으로 치러지는 이론행사를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지속함으로써 포럼을 공예담론의 산실로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였다. 조각 분야의 심포지엄으로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학술세미나』(3.27, 이천시청)가 개최되었다. '공공미술과 지역이미지'라는 주제로 최태만 외 다수의 이론가, 조각가들이 참여했다.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는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여성미술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국제심포지엄』(8.2, 인천아트플랫폼)을 개최했다. 아시아 여성미술로부터 글로벌 포스트 페미니즘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담론들을 개진했다.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은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INDAF 2009 국제컨퍼런스』(8.7-8, 송도 컨벤시아)를 열었다. '미래의 디지털 세계'와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향유'라는 양 주제를 통해 이틀간 우리 시대에 새로이 도래한 디지털아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공유했다. 파리1대학 교수 베르나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르 다라스, 디지털아트의 저자 크리스티안 폴 등 저명한 국내외 이론가들이 대거 참여한 컨퍼런스로 2009년 동시대 미술이론과 평론 부문에 기여한 행사로 평가된다.

경기도미술관이 주최한 『학술 세미나: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정치미술-악동들, 지금/여기』(11.20, 경기도미술관)는 동명의 기획전 부대행사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민중미술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참여미술의 지평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유의미한 미술이론 행사였다.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이영철)는 『제1회 국제세미나』(2.4-5, 백남준아트센터)를 '백남준의 선물-관점 이동과 시간성'이라는 주제 아래 백남준의 작가론과 작가의 이력이 스며 있던 당시의 독일, 일본의 테크놀로지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2회 국제세미나』(9.3-4,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의 선물2-고르디아스의 매듭 다시 묶기'라는 주제 아래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인류학, 음악, 기술, 현대물리학, 미디어정치학, 미학 등 다양한 담론을 통한 분석을 시도했다.

각 미술대학과 연구소들의 연구발표도 주목할 만하다.

홍익대 미술대학은 『세계화 속 문화정체성, 영국 아시아 그리고 우리의 현대미술 국제심포지엄』(5.18, 홍익대)을 개최했고, 서울대 미술대학 조형연구소에서 개최한 『2009 공공세미나』(1.9)에서 클라우스 부스만 등 4인의 발제자가 발표했다. 한편, 동 연구소는 『2009 한국미술연구센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근현대미술/디자인과 자료'라는 주제 아래 김달진, 이인범, 최열, 최태만 등이 미술자료와 문헌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한편, 쿤스트독미술연구소는 일 년간 지속되는 '이미지에서의 서사'라는 주제의 2009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상반기 연구의 결과물은 『아트인컬쳐』에 연계 게재하고, 하반기 연구의 결과물을 『제2회 쿤스트독미술아카데미』(12.12, 쿤스트독갤러리)에서 발표했다. 또한 동 연구소는 이론의 실천이란 모토 아래 같은 주제를 다룬 공동 전시기획전인 <전시기획자 P씨의 죽음전>(2.17-26, 쿤스트독갤러리)을 열었다. 참여작가가 없고 연구소 연구원들의 공동 전시기획 의도만으로 전시를 꾸렸다는 점에서 이론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남겼다. 미술이론의 실천적 모색이라는 취지에서 <비평의 지평전>(3.13-5.17, 일민미술관) 역시 주목받았다. 전시기획자를 포함한 미술비평가 10인이 각자의 비평적 사고와 경험을 비평이 아닌 전시형식으로 선보이게 기획함으로써, 미술비평의 오늘날 의미와 역할에 문제제기

를 하는 신선한 전시로 평가받았다. 강수미, 류병학, 고충환, 반이정, 장동광, 최금수, 서진석, 임근준, 유진상, 심상용이 참여했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대구미술비평연구회가 추진한 『대구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2-6월, 방천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각자 개성에 맞춰 탈바꿈하고 작품을 완성하며, 작가들에 대한 평론가들의 비평과 코디네이터, 큐레이터들의 업무 지원 등 세분화된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관객에 대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고민했다.

한편, 창작에 대한 운동으로서의 이론적 점검을 지향해왔던 한국 민중미술계의 모임인 현실과 발언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연속 토론모임을 개최했다. <현실과 발언 30주년 기념 콜로키움>(3-7월)이 그것이다. 현실과 발언은 1979년 창립 이후 1990년까지 10년 동안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미학개념에 근간한 이론과 실천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해오며 역사에 자리매김했다. 여섯 차례에 걸친 콜로키움을 통해서 임옥상, 이태호, 윤범모, 안규철, 김종길, 이대범, 김지연, 김준기 등 비평가들이 오늘날의 계승적 발전에 대해 토론했다. 이 콜로키움은 향후 진행될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첫 단추였다는 평가다.

## 3. 미술이론/미술비평_개인비평 활동

개개인의 자발적 미술비평 활동은 최근 부쩍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평론에 대한 미래적 비전이 그리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응모자의 급감으로 일간지의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도 그러하지만, 없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간지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은 당선자가 없어 해를 거를 때가 많았다. 2009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변종필의 평론 『한국 근대 초상화의 표상-석강(石江) 채용신(蔡龍臣)이 그려낸 한국 초상화의 아이덴티티』가 미술평론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반면 제11회 사진비평상 비평 부문에는 단 1편의 응모작만 있어 수상작을 뽑지 못했다. 사진계든 미술계든 인식면에서 비평의 역할은 점차 그 의미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미술 월간지 『퍼블릭아트』 11월호는 특집으로 『crisis & Idleness today's critic』을 마련해서 위기와 안일함 사이의 오늘의 미술비평을 조망했다. 여기서 심상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비평, 다른 이야기를 위한 준비』에서 오늘날 비평이 위치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평의 감내해야 할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언급한다. 임근준은 『큐레이터와 평론가의 다양한 (현대적) 노릇』에서 큐레이터와 평론의 병행을 통해서 점차 소멸되어 가는 전문적 비평의식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대범은 『비평을 위한 시스템은 구축되었는가?』에서 잡지와 비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잡지를 기반으로 한 비평의 주요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학술대회나 단행본 연구서 출간과 같은 일을 주요 연구활동으로 인식하는 미술이론과 달리 미술비평은 많은 부분 잡지를 통해 활동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적 제도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9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12.5, 코엑스)에서는 미술평론 부문 수상자로 원로 미술평론가 김인환이 수상하였다. 한편 미술이론과 미술비평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 제도인 『제14회 월간미술대상 시상식』(10.2, 로댕갤러리)에서는 월간미술 학술평론 부문 장려상에 심상용 동덕여대 교수와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미술이론과 비평활동에 대한 입지를 지닌 미술인사에 대한 시상은 향후에도 괄목한 업적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론 신진 미술비평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할지라도 훗날 미술비평 전문인력이 더욱 급감할 경우 비평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술평론이 주로 현장에서 빠른 개입과 판단을 통해서 활동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미술이론은 주로 연구와 성찰의 계기를 통해 비교적 느린 걸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두 장르는 분명 다른 지점을 지닌다. 특히 저널이나 잡지를 통해 생산되는 미술비평은 순간적 대응이 강한 성격을 지닌 만큼, 논리나 비판의식의 허점 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출판물로 실현되기에는 부적절한 감이 있다. 그런 탓인지 지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평론집의 형태는 출판계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2009년에도 마찬가지다. 출판된 미술서적은 대부분 미술이론 분야다. 그것도 일부 전문서를 제외하고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깊이 없는 미술지식을 재기발랄한 문체에 담아내는 대중서적들이다. 2009년 미술평론집의 특성을 내세우며 출간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최열의 「미술과 사회」(청년사)는 미술평론가 최열의 468페이지에 이르는 비평전서로 출간되었다. 1976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저자의 비평을 방대하게 담고 있다. 시기별 구분을 통한 비평문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그의 비평의 특징은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기를 민족미술운동의 전후 맥락으로 바라보면서 미술과 사회의 제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한편 서성록의 「미술의 터치다운」(예서원)은 학술대회, 세미나에 발표한 논문을 모아 출간했고, 조상영의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은 대전의 작품과 전시기록, 자료집을 포함한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미술평론집은 작가론인 경우가 태반이다. 강경호의 「영혼과 형식」(시와 사람)은 문학 전공자가 피력하는 미술평론으로 12인의 작가론을 다루고 있으며, 강수미의 「한국미술의 원더풀 리얼리티: 탐미와 위반, 29인의 성좌」(현실문화연구)는 유혹, 관찰, 경계, 확장, 정치 등 5개의 범주로 조망하는 29인의 작가론으로 구성되었다. 임근준의 「이것이 현대적 미술」(갤리온)은 16개의 범주를 통해서 지역과 시대를 아우르는 60명의 미술가들에 대한 작가론이다. 김종근의 「마음에 품는 현대미술」(아트블루) 역시 기발표했던 한국현대화가 70명에 대한 작가론을 모은 미술평론집이다. 윤난지의 「마음의 빛」(풀잎)은 프랑스에서 활동해왔던 화가 방혜자, 그리고 이주헌의 「강익중」(마로니에북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 작가 강익중의 작가론, 작품론을 담고 있다.

미술평론과 미술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단행본 출간도 적지 않았다.

「한국시각예술의 과제와 전망」(다할미디어)은 최태만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원회가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한 『시각예술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연구들을 선별, 편집해 출간한 비평적 이론서다. 시각예술 창작환경 조성, 시각예술 제도의 개선과 발전, 공공미술 등의 범주로 미술시장, 지원제도 및 세제 개선방안, 시각예술교육과 미술비평 등 다양한 담론을 담고 있다.

그 외, 미술사 분야 관련 서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휘준의 「안견과 몽유도원도」(사회평론)의 개정신판, 그리고 전통불화 감상서인 김정희의 「불화: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돌베개)는 미술사 전문 서적으로 손색이 없다.

또한 18세기의 시, 서, 화론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그 미학적 의미를 다룬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종면의 「18세기 조선 시대의 예술론」(한국학술정보),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 관련 인물화와 당시의 삶을 탐구한 안휘준, 민길홍의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학고재)와 74점의 초상화 걸작을 연구한 조선미의 「한국의 초상화-형과 영의 예술」(돌베개)과 18세기 서예가들 중 독창성을 지닌 이광사, 강세황, 김상숙의 서론과 서체를 연구했던 최경춘의 「18세기 문인들의 서예론 탐구」(한국학술정보)와 더불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문화의 교환과 분배의 관점에서 기술한 박남수 등의 「한국의 예술지원사」(미메시스)도 당대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명쾌한 해설서다.

파키스탄의 간다라 문화와 불상을 조사 연구한 문명대의 「간다라에서 만난 부처」(한언), 저자의 전공인 중국미술 연구가 방대하게 집적되고 조선과 각국의 상호교류가 조망된 김홍남의 「중국, 한국미술사」(학고재)의 출간도 주목할 만하다.

홍선표의 「한국 근대미술사」(시공아트)는 한국 근대미술 60년사를 조망하고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다듬은 조은정의 「권력과 미술」(아카넷)은 제1공화국과 한국미술의 권력관계를 살핀다.

여기서 개별 연구자 단독의 것은 아니지만 각 연구들을 한데 끌어모으는 기획으로 출간된 미술사 관련 서적 또한 주목할 만하다.

대학미술협의회가 펴낸 「한국현대미술 추억사: 1970-80」(사회평론)은 1970-80년대 청년미술의 흐름을 정리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펴낸 「동시대 한국미술의 지형」(학고재)은 1980-90년대 이후 한국미술이 이룩해온 성과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성찰한다. 박이소, 김홍주, 서용선, 이불, 마이클 주, 차학경 등 작고 작가를 포함하여 중견 작가 12명의 작가론, 작품론을 모음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된 현대미술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것 외에도 서구 관련 미술가들과 미술이론 관련 출판물 역시 많은 수를 헤아린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들이 대부분 번역에 치우친 것이란 사실이다. 국내의 자생적인 미학, 미술이론을 창출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술이론/미술평론에 대한 반론과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장에 대한 비평만 있지 비평에 대한 비평이 없는 것이다. 미술이론에 대한 반론과 문제제기가 다른 저자들로부터 촉발되어서 다양한 논의와 새로운 이론들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 대한 비평'과 더불어 '비평에 대한 비평' 즉 메타 비평이 필요한 것이다. 미술이론과 미술평론 부문에 가장 필요한 점은 메타이론의 생성과

비평의 순환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메타이론, 메타비평 그리고 이론과 비평의 순환체계들이 잘 형성되고 있지 않지만 2009년 미술이론/미술평론의 장에도 그것이 여전히 절실하다.

한편 잡지 및 저널에 기고한 개별 비평들 역시 무수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여기서는 개인 저서로서의 미술비평서와 미술사 저작만 살펴보는 것으로 2009 개별비평 및 미술이론 활동 분석을 갈음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2009 시각예술 현황분석

김달진(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 Ⅰ. 통계분석으로 본 시각예술

2009년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시는 총 11,305건으로, 2006년 9,185건, 2007년 9,840건, 2008년 10,96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현황분석의 전시 분류는 먼저 전시가 진행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전과 국내작가 해외전으로 분류했고, 국내전은 전시 주체에 따라 개인전과 단체전, 해외작가 국내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외작가 국내전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작가들의 개인전 또는 참여한 단체전 모두를 포함하였다. 또 국내전은 지역별, 월별, 장르별로 구분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지역은 서울과 광역시, 도 단위로 분류해 16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표 1. 2009년 지역별 월별 통계 ▐**

| 도시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비율(%) |
|---|---|---|---|---|---|---|---|---|---|---|---|---|---|---|
| 서울 | 318 | 432 | 467 | 577 | 574 | 513 | 486 | 407 | 648 | 793 | 756 | 488 | 6,459 | 57.13 |
| 부산 | 24 | 34 | 55 | 62 | 61 | 54 | 48 | 32 | 34 | 71 | 61 | 61 | 597 | 5.28 |
| 광주 | 9 | 12 | 15 | 18 | 17 | 16 | 15 | 12 | 34 | 38 | 25 | 17 | 228 | 2.02 |
| 대구 | 25 | 38 | 60 | 68 | 70 | 51 | 48 | 38 | 85 | 103 | 104 | 100 | 790 | 6.99 |
| 대전 | 7 | 12 | 13 | 30 | 30 | 53 | 28 | 18 | 39 | 62 | 42 | 34 | 368 | 3.26 |
| 인천 | 6 | 11 | 9 | 16 | 13 | 20 | 21 | 16 | 15 | 18 | 15 | 17 | 177 | 1.57 |
| 울산 | 0 | 4 | 6 | 6 | 2 | 2 | 2 | 1 | 7 | 5 | 7 | 5 | 47 | 0.42 |
| 제주 | 9 | 4 | 10 | 10 | 9 | 11 | 8 | 9 | 9 | 21 | 16 | 10 | 126 | 1.11 |
| 강원 | 4 | 3 | 5 | 14 | 16 | 18 | 18 | 13 | 21 | 34 | 16 | 12 | 174 | 1.54 |

(계 속)

| 도시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비율(%) |
|---|---|---|---|---|---|---|---|---|---|---|---|---|---|---|
| 경기 | 28 | 34 | 52 | 82 | 75 | 65 | 69 | 42 | 88 | 105 | 99 | 54 | 793 | 7.01 |
| 충남 | 2 | 6 | 1 | 5 | 11 | 11 | 1 | 3 | 5 | 16 | 6 | 3 | 70 | 0.62 |
| 충북 | 8 | 7 | 5 | 12 | 11 | 9 | 7 | 6 | 6 | 12 | 20 | 12 | 115 | 1.02 |
| 경남 | 5 | 7 | 10 | 9 | 16 | 15 | 13 | 15 | 25 | 29 | 33 | 19 | 196 | 1.73 |
| 경북 | 4 | 2 | 5 | 5 | 12 | 13 | 6 | 4 | 13 | 13 | 20 | 14 | 111 | 0.98 |
| 전남 | 1 | 2 | 0 | 3 | 6 | 5 | 4 | 4 | 4 | 10 | 9 | 4 | 52 | 0.46 |
| 전북 | 6 | 8 | 9 | 17 | 19 | 22 | 19 | 15 | 22 | 25 | 19 | 12 | 193 | 1.71 |
| 해외미술 국내전 | 39 | 53 | 54 | 77 | 68 | 63 | 61 | 54 | 110 | 89 | 67 | 74 | 809 | 7.16 |
| 합계 | 495 | 669 | 776 | 1,011 | 1,010 | 941 | 854 | 689 | 1,165 | 1,444 | 1,315 | 936 | 11,305 | 100.00 |
| 비율 | 4.38 | 5.92 | 6.86 | 8.94 | 8.93 | 8.32 | 7.55 | 6.09 | 10.31 | 12.77 | 11.63 | 8.28 | 100.00 |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전은 작년보다 45건, 해외작가 국내전은 133건 감소하였으며, 단체전은 518건이 증가하였고, 국내작가 해외전도 132건 적게 조사되었다.

**▌표 2. 209년 개인전 월별 통계 ▐**

| 도시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비율(%) |
|---|---|---|---|---|---|---|---|---|---|---|---|---|---|---|
| 서울 | 159 | 254 | 304 | 374 | 345 | 298 | 256 | 218 | 387 | 474 | 431 | 274 | 3,774 | 66.36 |
| 부산 | 11 | 25 | 31 | 32 | 35 | 38 | 26 | 14 | 17 | 37 | 39 | 40 | 345 | 6.07 |
| 광주 | 5 | 3 | 7 | 8 | 7 | 12 | 6 | 7 | 16 | 20 | 13 | 4 | 108 | 1.90 |
| 대구 | 10 | 20 | 29 | 35 | 37 | 29 | 26 | 17 | 51 | 63 | 55 | 51 | 423 | 7.44 |
| 대전 | 1 | 4 | 7 | 15 | 13 | 21 | 8 | 9 | 12 | 28 | 18 | 14 | 150 | 2.64 |
| 인천 | 3 | 5 | 6 | 6 | 7 | 11 | 10 | 7 | 6 | 6 | 9 | 9 | 85 | 1.49 |
| 울산 | 0 | 3 | 3 | 2 | 1 | 2 | 0 | 0 | 4 | 2 | 2 | 3 | 22 | 0.39 |
| 제주 | 6 | 1 | 5 | 5 | 2 | 3 | 3 | 3 | 6 | 10 | 12 | 4 | 60 | 1.06 |
| 강원 | 3 | 1 | 5 | 10 | 8 | 11 | 8 | 4 | 6 | 12 | 5 | 5 | 78 | 1.37 |
| 경기 | 11 | 16 | 22 | 42 | 30 | 32 | 24 | 20 | 47 | 46 | 52 | 24 | 366 | 6.44 |
| 충남 | 1 | 4 | 0 | 3 | 5 | 5 | 1 | 1 | 2 | 6 | 1 | 3 | 32 | 0.56 |
| 충북 | 3 | 4 | 2 | 5 | 8 | 6 | 3 | 3 | 0 | 7 | 14 | 10 | 65 | 1.14 |
| 경남 | 1 | 2 | 0 | 1 | 7 | 4 | 3 | 7 | 7 | 7 | 12 | 7 | 58 | 1.02 |
| 경북 | 1 | 1 | 2 | 4 | 1 | 7 | 1 | 0 | 4 | 4 | 1 | 2 | 28 | 0.49 |
| 전남 | 0 | 2 | 0 | 1 | 1 | 4 | 1 | 0 | 1 | 1 | 4 | 2 | 17 | 0.30 |
| 전북 | 2 | 3 | 2 | 7 | 6 | 10 | 3 | 2 | 13 | 12 | 8 | 8 | 76 | 1.34 |
| 합계 | 217 | 348 | 425 | 550 | 513 | 493 | 379 | 312 | 579 | 735 | 676 | 460 | 5,687 | |
| 비율 | 3.82 | 6.12 | 7.47 | 9.67 | 9.02 | 8.67 | 6.66 | 5.49 | 10.18 | 12.92 | 11.89 | 8.09 | 100,00 | 100.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과거 전시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전체적인 전시 횟수가 증가하면서 개인전, 단체전, 해외작가 국내전, 국내작가 해외전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9년의 전체 전시 횟수는 작년과 비교해보면 늘었지만 개인전, 해외작가 국내전, 국내작가 해외전 모두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유일하게 단체전만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의 동호회 전시 성격의 단체전시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시 편람 자료 조사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다양한 동호회 회원들의 전시들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개인전은 총 5,687건이 열렸는데, 작년보다는 45건 적게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2008년 통계수치와 비교해보면 서울에서의 개인전 횟수는 175건 감소하였고 반대로 대구와 대전에서 개인전이 각각 45건, 62건이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지방에서의 개인전 횟수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전시를 여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반대로 서울에서 활동하지만 지방갤러리에서 열리는 초대전 형식의 전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갤러리 지역군이 형성된 부산, 대구, 광주 등과 같은 광역권 도시에서 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표 3. 2009년 단체전 월별 통계 ▐**

| 도시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비율(%) |
|---|---|---|---|---|---|---|---|---|---|---|---|---|---|---|
| 서울 | 159 | 178 | 163 | 203 | 229 | 215 | 230 | 189 | 261 | 319 | 325 | 214 | 2,685 | 55.83 |
| 부산 | 13 | 9 | 24 | 30 | 26 | 16 | 22 | 18 | 17 | 34 | 22 | 21 | 252 | 5.24 |
| 광주 | 4 | 9 | 8 | 10 | 10 | 4 | 9 | 5 | 18 | 18 | 12 | 13 | 120 | 2.50 |
| 대구 | 15 | 18 | 31 | 33 | 33 | 22 | 22 | 21 | 34 | 40 | 49 | 49 | 367 | 7.63 |
| 대전 | 6 | 8 | 6 | 15 | 17 | 32 | 20 | 9 | 27 | 34 | 24 | 20 | 218 | 4.53 |
| 인천 | 3 | 6 | 3 | 10 | 6 | 9 | 11 | 9 | 9 | 12 | 6 | 8 | 92 | 1.91 |
| 울산 | 0 | 1 | 3 | 4 | 1 | 0 | 2 | 1 | 3 | 3 | 5 | 2 | 25 | 0.52 |
| 제주 | 3 | 3 | 5 | 5 | 7 | 8 | 5 | 6 | 3 | 11 | 4 | 6 | 66 | 1.37 |
| 강원 | 1 | 2 | 0 | 4 | 8 | 7 | 10 | 9 | 15 | 22 | 11 | 7 | 96 | 2.00 |
| 경기 | 17 | 18 | 30 | 40 | 45 | 33 | 45 | 22 | 41 | 59 | 47 | 30 | 427 | 8.88 |
| 충남 | 1 | 2 | 1 | 2 | 6 | 6 | 0 | 2 | 3 | 10 | 5 | 0 | 38 | 0.79 |
| 충북 | 5 | 3 | 3 | 7 | 3 | 3 | 4 | 3 | 6 | 5 | 6 | 2 | 50 | 1.04 |
| 경남 | 4 | 5 | 10 | 8 | 9 | 11 | 10 | 8 | 18 | 22 | 21 | 12 | 138 | 2.87 |
| 경북 | 3 | 1 | 3 | 1 | 11 | 6 | 5 | 4 | 9 | 9 | 19 | 12 | 83 | 1.73 |
| 전남 | 1 | 0 | 0 | 2 | 5 | 1 | 3 | 4 | 3 | 9 | 5 | 2 | 35 | 0.73 |
| 전북 | 4 | 5 | 7 | 10 | 13 | 12 | 16 | 13 | 9 | 13 | 11 | 4 | 117 | 2.43 |
| 합계 | 239 | 268 | 297 | 384 | 429 | 385 | 414 | 323 | 476 | 620 | 572 | 402 | 4,809 | 100.00 |
| 비율 | 4.97 | 5.57 | 6.18 | 7.99 | 8.92 | 8.01 | 8.61 | 6.72 | 9.90 | 12.89 | 11.89 | 8.36 | 100.00 | |

장르 분류는 작년과 동일하게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영상, 서예, 판화, 디자인, 만화와 기타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화, 서양화를 비롯하여 평면 작업은 회화로 분류하였고, 조각은 조소, 테라코타, 조각&설치를, 공예는 도자, 금속, 섬유, 목, 유리, 옻칠, 한지공예로, 설치&영상은 설치나 영상 전시 외에 비디오아트를 비롯하여 미디어 전시까지 포함시켰다. 그리고 디자인에는 그래픽, 의상, 캘리그라피를 포함시켰고, 혼합된 장르로 분류가 애매한 장르의 전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4. 2009년 개인전 장르별 통계 ▐**

| 장르 |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설치/영상 | 서예 | 판화 | 디자인 | 만화 | 기타 | 미분류 | 합계 |
|---|---|---|---|---|---|---|---|---|---|---|---|---|
| 수치 | 3,249 | 447 | 497 | 563 | 225 | 155 | 64 | 23 | 10 | 339 | 115 | 5,687 |
| 비율(%) | 57.13 | 7.86 | 8.74 | 9.90 | 3.96 | 2.73 | 1.13 | 0.40 | 0.18 | 5.96 | 2.02 | 100.00 |

개인전 장르에서는 작년에 이어 3.90% 증가한 회화가 57.13%로 개인전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진이 9.90%, 공예 8.74%, 조각 7.86% 순서로 이어졌다. 2009년도에는 회화와 조각 분야를 제외한 다른 장르의 전시 횟수는 감소하였다. 특히, 사진 분야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전시가 증가하였지만 작년 11.51%에서 올해 9.90%로 감소하였다. 한편, 2009년도에도 『제8회 동강국제사진제』를 비롯하여 『2009 울산국제사진페스티벌』, 『제3회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등 국제전 성격의 대형 전시가 2008년도에 이어 꾸준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개인전에서만 사진 분야의 전시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9년 전체 전시에서 사진 전시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09문예연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로 분류된 전시는 2008년 170건에서 2009년은 339건으로 2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장르로 분류하기에는 모호한 전시가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체전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동시에 전시되는 경우가 많아 장르별 전시 구분이 어려워 별도로 통계지표로 분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편람에서는 전시 장르를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단체전에서 기획전의 비율을 파악해보았는데, 대략 13~14%로 추정되었다. 기획전의 분류 기준은 다양한 단체들의 정기 연례전 성격의 전시는 기획전에서 제외되었고, 기획의도가 있는 전시로 기획자가 작품을 선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진행한 전시로 판단되는 전시만 포함되었다. 다양한 전시를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표 5. 2009년 전시 기간별 통계 ▐**

| 구 분 | 1일 이하 | 8~15일 | 16일~한 달 | 한 달 초과~두 달 | 두 달 초과~석 달 | 석 달 | 합 계 |
|---|---|---|---|---|---|---|---|
| 개인전 | 2,703 | 1,614 | 993 | 330 | 34 | 13 | 5,687 |
| | 47.53% | 28.38% | 17.46% | 5.80% | 0.60% | 0.23% | 100.00% |
| 단체전 | 2,330 | 1,001 | 743 | 466 | 158 | 111 | 4,809 |
| | 48.45% | 20.82% | 15.45% | 9.69% | 3.29% | 2.31% | 100.00% |
| 해외작가 국내전 | 174 | 167 | 210 | 178 | 49 | 31 | 809 |
| | 21.51% | 20.64% | 25.96% | 22.00% | 6.06% | 3.83% | 100.00% |

2009년에는 전시 기간별 통계를 조사하였는데, 개인전, 단체전, 해외작가 국내전의 전시 기간을 알아보았다. 전시 기간별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전, 단체전은 7일 이하의 전시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반면에 해외작가 국내전은 7일 이하보다는 보름에서 한 달 사이의 전시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전의 경우 한 달을 초과하는 전시는 대략 6% 정도지만 단체전은 15%, 해외작가 국내전은 31%를 넘는다. 이는 단체전의 기획전과 해외작가 국내전의 블록버스터 전시가 포함되어 두 달에서 석 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II. 해외작가 국내전

해외작가 국내전은 작년(942건)보다 감소하여 809건의 전시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올해에도 블록버스터 전시가 홍수를 이뤘는데, 주요 전시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전>(2.2-5.15,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페르난도 보테로전>(6.30-9.17, 국립현대덕수궁미술관), <이집트 문명전-파라오와 미라전>(4.28-8.30, 국립중앙박물관), <모네에서 피카소까지-필라델피아미술관전>(2009.12.16-2010.1.14,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앤디워홀전>(2009.12.12-2010.4.4, 서울시립미술관) 등이 있었다. 관객 동원면에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르누아르전>이 61만 5천 명으로 올해

최다 관객동원을 하였다.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 전시로는 <프라다 트랜스포머>(4.23-9.30, 경희궁 앞뜰>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기획한 예술 문화 공간 프로젝트로 건축가 렘 쿨하스와 건축사무소 OMA가 설계를 맡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영화, 공연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행사로 경희궁에 설치된 회전형 건축물에서 진행되었다. <웨이스트다운-미우치아 프라다의 스커트> 전시, 나탈리 뒤버그의 설치 작품, 영화제 등이 이뤄졌다. 전시가 바뀔 때마다 설치된 건축물을 회전시키며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술사의 유명작가가 아닌 명품 '프라다'를 앞세운 블록버스터 전시였다.

화제가 되었던 해외작가들의 전시로는 <데미안 허스트전>(3.20-4.18, 대구 리안갤러리),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전>(2.26-3.31, pkm 트리니티갤러리), <줄리안 오피전>(4.29-5.31, 국제갤러리), <짐 람비에전>(5.28-8.9, 아뜰리에 에르메스), <앨리스's 미러전>(8.4-25, 갤러리선컨템포러리), <스탠 더글라스전>(9.1-11.1, 몽인아트센터), <장 푸르베전>(9.18-11.29, 대림미술관), <사라문 사진전>(9.25-11.29, 예술의전당 v갤러리), <프리 일겐전>(10.9-11.8, 학고재), <올라퍼 엘리아슨전>(10.9-11.28, pkm 트리니티갤러리), <마틴 크리드전>(2009.11.7-2010.2.12, 아트선재센터) 등이 있었다. 아울러 yBa(young british artists) 세대 작가들의 개인전이 국내에서 줄을 이었다. 그리고 yBa 이후 세대의 영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런던콜링전>(6.10-7.22, 토탈미술관)과 영국 현대미술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노운 언노운(known unknown)전>(7.4-8.20, 대안공간루프) 전시도 이어졌다. 올해 국내에서 진행된 해외작가들은 대거 '영국'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 Ⅲ. 국내작가 해외전

2009년 국내작가가 해외에서 한 전시는 376건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의 508건에 비교해보면 132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33개의 나라에서 전시가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39개의 나라에서 국내 작가들의 전시가 진행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중국이 99건 26.33%, 미국 75건 19.95%, 일본 56건 14.89%, 독일 27건 7.18% 순서로 조사됐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6. 2009년 국내작가 해외전 국가별 통계 ■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러시아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몽골 | 미국 | 베네수엘라 | 스웨덴 |
|---|---|---|---|---|---|---|---|---|---|---|---|---|---|
| 1 | 2 | 1 | 1 | 7 | 2 | 27 | 2 | 1 | 1 | 1 | 75 | 1 | 2 |
| 0.27% | 0.53% | 0.27% | 0.27% | 1.86% | 0.53% | 7.18% | 0.53% | 0.27% | 0.27% | 0.27% | 19.95% | 0.27% | 0.53% |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네시아 | 일본 |
| 7 | 6 | 1 | 2 | 1 | 3 | 1 | 1 | 21 | 3 | 1 | 7 | 1 | 56 |
| 1.86% | 1.60% | 0.27% | 0.53% | 0.27% | 0.80% | 0.27% | 0.27% | 5.59% | 0.80% | 0.27% | 1.86% | 0.27% | 14.89% |
| 중국 | 체코 | 캄보디아 | 캐나다 | 쿠웨이트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프랑스 | 헝가리 | 호주 | 합 계 | | |
| 99 | 1 | 1 | 5 | 1 | 2 | 2 | 1 | 24 | 2 | 3 | 376 | | |
| 26.33% | 0.27% | 0.27% | 1.33% | 0.27% | 0.53% | 0.53% | 0.27% | 6.38% | 0.53% | 0.80% | 100.00% | | |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왕래가 편한 도시와의 교류전 등으로 국내작가들의 전시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작가들이나 국내갤러리들이 뉴욕에 지점을 두어 국내작가들의 전시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커미셔너 주은지와 설치작가 양혜규가 <응결>이라는 타이틀로 사적 공간을 탐구한 전시를 진행하였고, 특별전에 초대된 김아타는 사진 1만 장을 허공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국내 현대미술이 해외에 소개되었던 주목할 만한 전시로는 대만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정신의 지형전: 2009한국의 단면들>, 독일에서 전시한 <매직 코리아 익스프레스전>, 미국 LA카운티미술관과 휴스턴미술관에서 순회전을 가진 <당신의 밝은 미래: 12인전> 등이 있다. 또 휴스턴미술관에서는 <한국현대사진전>을 통해 국내 사진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특히, 세계적인 컬렉터인 찰스 사치의 사치갤러리에서 진행된 <코리안 아이전>은 많은 이목을 끌었으며 세계미술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각과 80주년을 맞이하여 출신 조각가 중 권진규의 대규모 회고전이 일본근대미술관에서 진행되었고, 국내에서도 덕수궁미술관에서 12월부터 <권진규 회고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남 강진청자전>은 2007년 일본 순회전과 2008년 미국 순회전을 거쳐 2009년도에는 유럽 순회전을 가졌다. 유럽의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체코, 노르웨이, 스웨덴 8개국 9개 도시를 순회했다.

## Ⅳ. 전시 지원금

『2010문예연감』에는 편람 조사 항목에 지원금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금을 받아 진행된 전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금 지원 여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연초에 결과 발표된 지원사업과 지방의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 진행됨에 따라 모든 지역들의 지원사업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제주, 경기, 경북, 경남 지역만 적용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실제 진행된 전시와 진행 예정인 지원사업의 정보는 차이가 있어 지원된 모든 전시가 표기되지 못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지원금 항목은 『2011문예연감』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완하여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숙제다.

지원된 전시의 실제 진행된 내용의 유무를 찾으면서, 각 지방에서 지역의 전시 정보를 잘 정리해두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전시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2009년 전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체전의 전체 전시 횟수가 다른 해보다 월등히 늘었는데, 이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의 전시에 지원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원금이 지원된 전시를 추가로 정보를 보완하다 보니 자연히 단체전 전시 횟수가 증가하였다. 실제로 별다른 홍보 없이 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었던 전시들이 상당히 많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전시 편람을 정리하고 있지만, 지방의 전시들을 속속들이 알기에는 한계에 부딪친다. 그리고 지역 전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들의 전시 횟수에 따른 통계가 지역적 편차가 크게 비춰지는 부분도 염려되는 바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은 전시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부산과 대전의 경우, 특정 블로그나 지역의 미술협회 사이트에서 월별로 전시를 정리해두어 정보를 찾는 데 수월한 반면, 그 밖의 도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예술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전시 자료를 관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료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kcaf.or.kr

# V. 신규 개관한 전시공간과 그 변화

2009년 한 해 동안 박물관, 미술관, 화랑, 전시관, 대안공간, 카페갤러리 등 새로운 전시공간은 99개가 개관하였다. 2007년은 서울 74개, 지방 33개로 전국적으로 보면 107개가 개관했고, 2008년에는 서울 94개, 지방 51개로 145개가 조사되었다. 2009년 신규 개관된 전시공간들은 2008년 145곳으로 조사되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약 31%가량 감소한 99곳으로 조사되었다. 그 원인은 경제 악화의 영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2008년 신규로 조사되었던 갤러리들 중에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폐관한 곳들도 있어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술계가 호황기였던 2007년과 그 영향력이 이어졌던 2008년에 비해 신규 전시공간 개관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조사된 신규 개관한 전시공간 99곳 중 60%인 59곳이 서울에서 생겼으며 부산 8곳, 경남 5곳, 광주와 경기, 강원도 각 4곳, 대구와 제주가 각 3곳 등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여전히 종로구에 19곳으로 제일 많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신규 갤러리들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과 카페가 함께 구성되어 즐길 수 있는 '갤러리 카페'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 1. 줄잇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2009년 새로 개관한 전시공간의 큰 특징은 도, 시, 군에서 건립한 박물관, 미술관들이 줄을 이어 개관한 것이다. 4월에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축성과 정조대왕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5월에 김해시가 건립한 국내 첫 분청도자전문 전시관인 김해분청도자관이 개관하였다. 6월 개관한 울산 대곡박물관은 대곡댐 수몰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수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며,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은 태평과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한다. 8월 강원도 고성에 개관한 DMZ박물관은 생태 환경 등의 전시물과 영상물을 보여준다. 10월 남양주시에 2006년 5월 건물 착공 후, 그동안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실학박물관이 만 3년 반 만에 개관하였다. 12월 문화재청에서는 태릉 안에 조선왕조전

시관을 개관하였다.

미술관 개관으로는 6월에 제주도립미술관, 12월에 포항시립미술관이 개관했다. 그밖에 서울 양천구에서 4월 겸재가 양천 현령으로 재직하면서 <경교명승첩>, <양천팔경첩> 등 절정기 산수화를 남긴 인연으로 가양동에 겸재정선기념관, 12월에 성북구에서 옛 성북2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성북구립미술관을 개관하여 이 지역 원로, 중진작가를 초대하여 전시를 가졌다. 전북 고창에는 9월 미술애호가 진기풍 씨가 소장한 작품을 기증하여 고창군립미술관이 개관하였다.

미술가 개인이 미술관을 개관한 경우도 있는데 2월 광주에 서양화가 국중효 교수, 아내 조각가 윤영월 씨와 국윤미술관, 5월 인천 강화에 서양화가 박진화 씨가 박진화미술관, 6월 충북 청원에 서양화가 김재관 교수가 쉐마미술관, 9월 부산에 조각가 김정명 교수가 킴스아트필드미술관, 11월 강원도 영월에 최바오로가 종교미술관을 각각 개관하였다.

인천시에 일랑미술관 건립 추진이 지역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 8월 안상수 인천시장과 일랑 이종상 화백은 송도 석산 일대에 미술관을 지어 소장 작품과 자료를 전시·보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15개 예술 단체들은 '인천시립일랑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인천문화예술단체 연대'를 결성하고 "인천시가 지역성과 역사성과 상관없는 개인 작가를 위해 땅을 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 운영까지 맡기겠다는 계획은 시민과 지역 미술인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시립일랑미술관 건립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2. 화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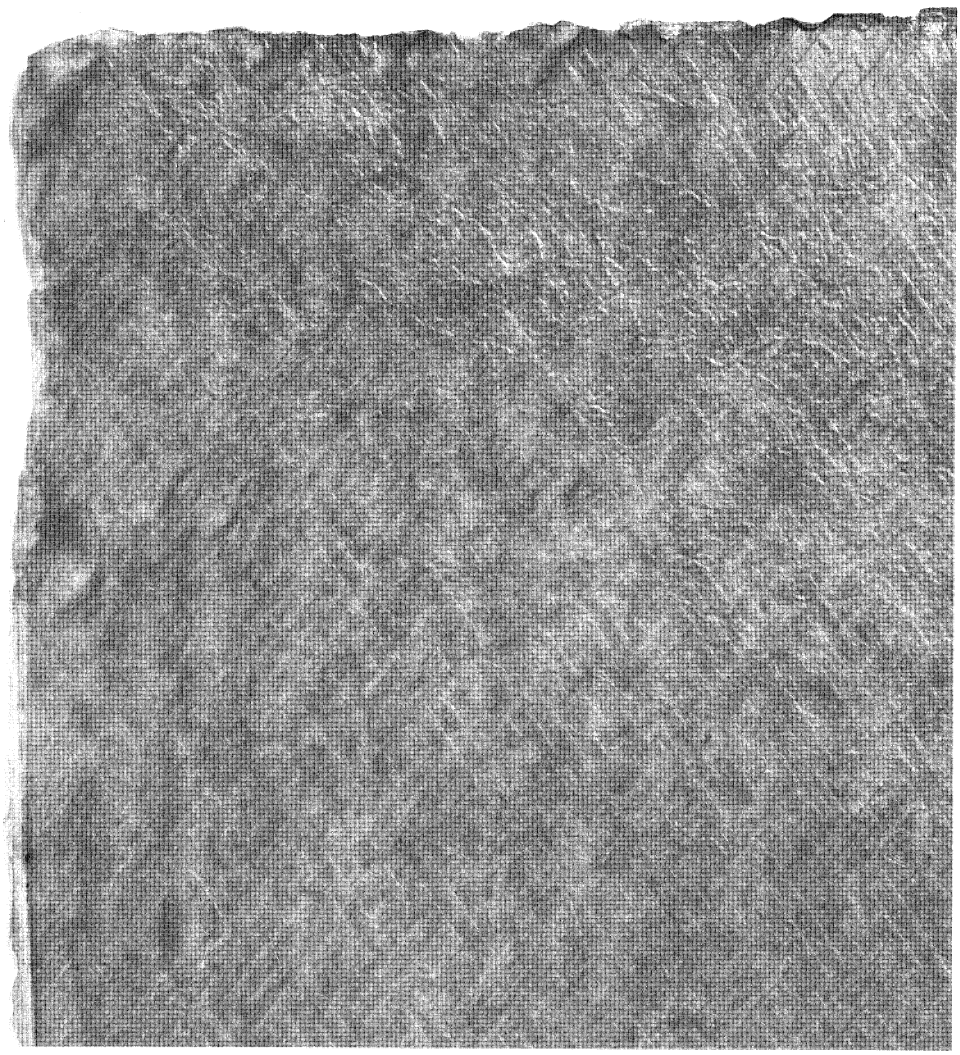
서울 강북 UNC갤러리와 갤러리정, 갤러리AM이 강남 청담동과 신사동에, 대구 리안갤러리가 청담동에 각각 매장을 늘렸다. 한 해 동안 이전한 갤러리로는 홍대에 있던 프로젝트 헛이 관훈동으로 이전하였고, 사간동의 갤러리예맥은 광진구 자양동으로, 청담동의 오픈옥션과 함께 운영되었던 오픈갤러리는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갤러리루미나리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갤러리더케이가 가회동에서 관훈동으로, 람아트바자와 리씨갤러리는 팔판동으로 이전하였고, 사간동에 있던 갤러리안단태는 전시공간은 폐관하고 전시기획 사무실만 신사동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담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에 있던 2X13갤러리는 현재 파주시로 이전한 상태이며 특별한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앤디스갤러리와 오룸갤러리가 청담동으로 이전하였고, 청담동 네이쳐 포엠의 갤러리S와 가나아트갤러리강남, 팔판동의 갤러리쿤스트라움,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작년에 신사동에 개관한 김재선갤러리서울은 문을 닫았다. 인사동의 아트싸이드는 12월까지만 전시를 하고 내년 10월경에 통의동으로 이전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 나무화랑과 서울갤러리 등이 재개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국 악



2010
Culture & Arts Yearbook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9년 국악 총론

전지영(국악평론가)

## Ⅰ. 머리말

2009년도 국악 공연은 횟수로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이 공연의 중심임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를 제치고 대구와 부산에서 공연 횟수가 더 많아진 것이 특이한 점인데, 이는 해당 지역의 악단 상설 공연과 공연장 설치가 중요한 요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연의 성격으로 볼 때, 국악과 여타 장르가 함께 무대에 펼쳐지는 복합 공연이 전체 공연의 4할에 가까운 횟수를 차지하고, 특히 서울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경향이 최근 전반적인 국악 공연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복합 공연이 주로 수도권 중심,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국악이 시장경제 속에서 적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체적인 국악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국악 전용극장 외에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창작 및 크로스오버 공연의 다양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Ⅱ. 계량적 측면

2009년도 국악 공연은 총 1,379건, 횟수로는 2,684회가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하면 매우 증가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년과 유사한 수

준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악 공연은 매년 대략 2,400~2,800여 회 조사되어 왔으며, 2009년의 경우 서울에서 이루어진 공연은 501건, 1,541회가 조사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850여 회 증가한 수치지만, 2008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의 전반적인 수치와는 큰 차이가 없다.

서울에 이어 대구는 123건, 158회, 그 다음인 부산은 117건, 128회, 그리고 전북이 102건, 139회의 순서로 공연이 조사되었는데, 전체적인 공연의 지역적 차이가 예년과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서울이 전체 공연에 있어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언제나 전라북도가 그 뒤를 잇곤 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판소리 공연이 많고 악단도 여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에서 최근 국악 공연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라북도보다 많은 공연 횟수가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대구시립국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의 상설 공연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와 횟수를 보면 건수로는 전라북도가 5.5건, 대구와 서울이 4.9건으로 많은 편이고(전국 평균 2.8건), 경기도가 0.8건으로 가장 적은 편이다. 횟수로는 서울이 15.1회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라북도가 7.5회, 대구 6.3회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가 1.5회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서는 장기 공연이나 상설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건수보다 횟수 조사에 있어서 수치가 크게 높아지는 편이다. 사실 오늘날 공연에 있어서 그 수요의 중요한 요건은 얼마만큼 한 지역에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는가뿐만 아니라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얼마나 인근 지역까지 포섭할 수 있는 접근성을 잘 갖추고 있는가도 포함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는 전국 평균(5.4회)의 거의 세 배에 해당하는 많은 수치를 보이는데, 서울이라는 전국적 교통망의 중심지라는 요건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가 15.1회지만, 실제로는 서울이 수도권 전체를 포괄하는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가진 현실적인 공연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공연 횟수의 낮은 수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차로 한 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한 곳이 서울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 내 공연 횟수는 많아질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품질이 여타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은 공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판소리 전공자들이 많고, 전북도립국악원, 전주시립국악단 등 대형 악단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이 느끼는 국악 공연의 체감 횟수는 매우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장르별 공연은 국악과 다른 분야 장르가 한 무대에서 만나게 되는 복합 공연 횟수가 전체의 39%, 국악 내부의 여러 장르가 혼합된 공연이 20%, 그리고 기악 15%, 성악 8%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악과 다른 장르 간의 혼종성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악과 대중음악, 국악과 서구 클래식 음악, 혹은 국악과 재즈 등 다양한 형태의 혼종적 경향이 최근 전반적인 국악 공연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질적 장르의 음악이 하나의 장소에서 만나는 복합 공연 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은 복합 공연 횟수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며, 반면 강원과 울산 지역은 연희 공연 횟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원 61%, 울산 54%). 또한 복합 공연의 경우 횟수 기준으로 수도권이 85%, 비수도권 15%로 큰 편차를 보인 반면, 연희의 경우 수도권이 45%, 비수도권이 55%로 편차가 적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연문화의 중심지일수록 복합 공연의 비중이 큰 반면, 국악 공연의 전반적인 불모지에 해당하는 지역일수록 연희 공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복합 공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국악뿐 아니라 여타 장르와의 교섭 비중이 크다는 말이며, 이는 결국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음악,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음악, 서구식 무대공연 양식에 최대한 근접해 있는 음악의 비중이 크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들 음악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의 투자를 요하며, 이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어야 소비가 가능해진다. 반면 연희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시장 중심의 음악이나 서구화된 양식에 근접한 음악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음악, 그리고 그런 음악 중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많은 자본이 투자된 화려한 공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출로 대중과 승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최적의 콘텐츠는 연희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 거칠게 보자면, 복합 공연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화려한 공연과 연결되고, 그로 인해 서울

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복합 공연이 몰려 있게 되며, 연희의 경우 주로 국악 공연 기반이 척박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콘텐츠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공연의 지역 편차를 보면, 공연 건수로는 수도권 46%, 비수도권 54%, 공연 횟수로는 수도권 66%, 비수도권 34%로 조사되었다. 공연 횟수가 수도권이 많아지는 것은 역시 수도권에서 장기 공연 및 상설 공연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공연 횟수 기준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75%, 시 단위에서 21%, 군 단위에서 4%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역시 절대 다수의 공연이 광역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국악 공연 역시 여타 공연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민초들의 자생적 틀을 벗어나서 상품시장에서 유통되는 매개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도시는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투자되며 그에 상응하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연이 이런 장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상품시장의 논리가 공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악 공연 역시 이제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지배구조 깊숙한 곳에서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역시 단위에서는 기악(78%)과 복합(88%) 공연 횟수가 평균보다 높고, 시 단위에서는 성악(30%)과 혼합(28%)과 연희(34%) 공연 횟수가 평균보다 높으며, 군 단위에서도 역시 성악(5%), 혼합(6%), 연희(6%) 공연 횟수가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대도시일수록 기악 비중과 복합 공연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는데, 이 두 형태의 공연은 다른 형태의 공연에 비해서 보다 세련된 공연 형태를 요구받으며, 관객들 역시 해당 장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받는다. 기악은 또한 노랫말을 갖는 성악보다 전달에 있어서 보다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노력을 요구받으며, 복합 공연은 보다 많은 자본이 투자될수록 많은 관객으로부터 소비가 증가하는 공연이기 때문이다. 반면 성악 공연, 혼합 공연, 연희 공연은 기악이나 복합 공연에 비해서는 적은 자본과 소략한 콘텐츠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시군 단위에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국악 공연장에서는 기존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곡 발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레퍼토리를 공연한 횟수가 76%이고 창작곡 공연 횟수가 24%로 조사되었다(미분류 공연 제외). 하지만 기존곡과 창작곡이 함께 연주된 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연을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창작곡이 발표되는 공간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2,684회 공연(미분류 공연 포함) 중에서 기존 레퍼토리가 연주된 공연은 1,455회(54%)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적어도 24%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의 창작곡 발표현장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많은 공연장에서 상설 공연들은 1월에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공연은 주로 5월(14%), 11월(11%)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4월과 12월 공연이 10%, 9월과 10월 공연이 9%였다. 이처럼 공연이 봄가을에 집중되는 현상은 예년과 다름없으며, 12월 공연이 많은 것은 공적 기금을 지원받은 공연들이 대부분 12월 이전에 공연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국악 전용 공연장들이 많아졌는데, 국립국악원(예악당, 우면당, 별맞이터),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서울남산국악당, 경기도국악당 등이 역시 전체 국악 공연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 횟수로 보면 가장 많은 공연이 이루어진 장소는 명동·정동극장으로 634회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 중 대부분은 상설 공연 혹은 장기 공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실제로 공연의 다양성과 중요도에 있어서는 역시 국립국악원(250건, 289회)과 남산국악당(90건, 214회)과 같은 국악 전용 공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악 공연의 경우 전체 248회 공연 중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이루어진 공연이 108회로, 거의 44%에 해당되는 수치를 보였다. 기악 공연의 경우 많은 연주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국립국악원 무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용 공간 외에 국악이 펼쳐지는 공간은 과거보다 더욱 다변화되고 있는데, 예컨대 DS홀, 화이트홀, 모차르트홀 등이 독주회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고, <천차만별콘서트>가 열리는 북촌창우극장도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우리소리 상설무대는 대학생들에게 무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클럽이나 다양한 소극장 및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공연 내용에 따라 공연 장소가 양분되는 현상도 있다. 전통음악은 여전히 국악 전용 극장이 중심이지만 창작 및 크로스오버 공연은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국악 공연은 공연 횟수로는 예년과 비슷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이질적 장르 간의 혼종적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악이 펼쳐지는 공연장이 다양해지는 것 역시 이런 혼종성 심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 Ⅲ. 비계량적 측면

한 해 공연을 정리하는 데 있어, 계량적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오히려 적은 부분만 보여준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연의 전반적인 내용과 질적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공연의 내용과 수준은 계량적 수치로 정리하기 어렵고, 그것의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주는 정보보다 의미 있는 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계량적 측면의 분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여기서는 국악 공연과 관련해서 세 가지 화두를 설정하고, 각각의 화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석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세 가지 화두는 "어디까지가 국악 공연인가", "무엇이 주목되는 공연인가", "국악 공연에 있어 시장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다.

### 1. 어디까지가 국악 공연인가?

흔히 공연이라고 하면 정형화된 무대 공연을 떠올린다. 이는 물론 서구식 무대 공연을 말한다. 하지만 원래 국악이 펼쳐지는 공간은 그런 서구식 무대가 아니었으며, 지금도 상당수의 전통음악들은 정형화된 무대 공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악이나 탈놀이, 굿(무가), 농요와 같은 민속현장의 음악 역시 오늘날에는 대부분 민중들 삶의 공간에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을 '대상화'한 공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무형문화재 발표 공연 형태로, 때로는 보존회 정기 공연 형태로, 때로는 지역 축제 초청 공연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이런 공연들이 실제로 국악의 본래 모습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식의 정형화된 무대 공연을 떠올리는 관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 국악 공연의 범주는 사뭇 넓어진다.

한편, 오늘날 국악 공연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악과 국악 이외의 장르가 혼재된) 복합 공연들, 퓨전 내지 크로스오버, 혹은 하이브리드 음악들로 채워지는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은 엄밀하게는 국악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주자들이 대학교 국악과 출신이라는 점은 이들 공연들을 국악 공연으로 분류하게 만들지만, 예컨대 국악과 재즈가 만나는 공연은 공연의 성격상 국악보다는 재즈에 가까운 경우가 일반적이고, 하이브리드 음악들은 말 그대로 이질적 장르가 혼재된 음악이지 그 자체를 국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심지어 이른바 창작국악으로 분류되는 음악들 역시 엄밀히 따지면 대부분은 국악의 요소와 국악 이외의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음악들이다. 따라서 국악의 범주는 민속예능을 시야에 포함시키는 순간 매우 넓어지는 것 같지만, 이른바 복합적 성격의 공연을 제외하면 매우 좁아지기도 한다. 이질적 요소가 섞여 있는 음악을 국악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국악계는 국악 공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간과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을 국악 공연에 포함시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국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 음악들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국악과 대중음악, 국악과 서구 클래식음악, 국악과 기타 월드뮤직, 국악과 재즈 등 범위도 다양하며, 심지어는 국악과 대중음악이 만난 음악을 퓨전국악이라고 부르고, 국악과 서구 클래식 음악이 만난 음악을 창작국악이라고 부르는 우스꽝스러운 분류법도 통용되고 있다. 복합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된 경향을 보였으며, 이질적 요소의 물리적 혼합 결과물을 '무슨 무슨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국악의 범주에 포괄함으로써, 국악 전공자들의 하이브리드 음악 지향은 정당성을 얻으면서 정규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국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 음악들이 '국악'의 이름으로 정당화됨으로써, 민속 현장의 음악에 대한 전공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욱 줄어들고 있다. 자신의 것과 남의 것에 대한 냉정한 구분이 새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겠다.

## 2. 무엇이 주목되는 공연인가?

비평가들이 찬사를 보내는 공연들, 혹은 언론이 주목하는 공연들은 대부분 두 종류다. 하나는 명인명창이 등장하는 공연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신진', '젊은', 혹은 '실험' 등의 표현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음악 공연이다. 특히 후자에 대한 관심

이 강도가 높은 편이며, 국악방송 주관의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북촌창우극장의 <천차만별콘서트> 등이 대표적인 형태다. 그런데 '신진', '젊은', 혹은 '실험' 등의 표현이 들어간 공연은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음악으로 채워진다. '젊은' 국악 전공자들은 자신의 본업인 국악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권유받는 것이 아니라 국악과 국악 아닌 장르의 이질적 혼합을 권유받고 있으며, '국악'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국악과 국악 아닌 장르의 이질적 혼합을 '실험'해야만 비로소 '실험'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복합성의 결과물이 다시 '국악'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악순환'이 '국가'로부터 권장받는 시대인 것이다. 2009년 국악계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많은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새로운 '국악'을 만들고 '국악'에 도전할 생각을 진지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보다는 국악과 타 장르의 복합적 결합을 강렬하게 시도하고, 그것을 '실험적 국악', '현대적 국악', '젊은 국악' 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더욱더 '빈틈없는 착각'에 빠졌다고 하겠다.

이른바 실험이라는 것은 보다 진보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시도할 때 의미가 있다. 물론 그 결과물은 국악을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킨 결과물이어야 한다. 단순히 국악과 다른 장르를 섞어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악과 다른 장르를 섞어서 보다 진보된 국악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위대한 실험이 되겠지만, 오늘날 대부분 실험들은 단순히 물리적 혼합만 해놓거나 혹은 (보다 많은 경우) 국악을 다른 장르의 완성에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이런 실험은 국악의 이름을 걸 수 있는 실험이 되지 못하며, 이런 실험을 한다고 해서 '젊은 국악'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왜 비평과 언론은 국악 공연을 이야기할 때 <슬기둥>과 <공명>을 주목하면서도 고성농요와 만구대탁굿과 평택농악 발표회를 언급하지 않는가? 왜 하이브리드 연주단체는 극찬하면서 정작 '국악' 연주 단체는 시야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런 현상이 이 시대 국악계의 흐름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3. 국악 공연에 있어 시장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은 시장에서 나온다. 시장은 매우 잔혹한 공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국악 공연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의 생존에 적응해 왔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대중음악과 서구 클래식 음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에 국악을 내몰고서 '자생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시장에서 생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국악은 타자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것이고, 돈으로만 계산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자의 힘과 강요에 의해 쇠약해진 것이다. 그런 국악을 타자가 압도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공간에, 그것도 탈출구가 없는 적자생존의 공간에 내몰아서 알아서 생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유컨대 젊은 장정들의 이종격투기 링 위에 노쇠한 자신의 아버지를 올려놓는 것과 유사하다. 자신이 봉양해야 할 대상을 압도적 파괴력을 가진 남과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악의 생존권은 국악 전공자들이 아니라 시장이 쥐고 있다. 국악 전공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코 전통음악만으로는 승산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전통음악은 20대 전공자들이 40~50대 세대와 싸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국악과 국악이 아닌 강자의 것을 섞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의 것을 남의 것에 의탁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안쓰러움을 강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한때는 젊은 세대의 이런 모습이 기존 국악계의 보수적이고 안이한 분위기에 대항하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그때는 시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잔혹한 공간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이 시대 시장은 그 괴물 같은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술적 가치, 전통의 가치, 명인명창이 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의 가치는 시장 앞에서 순진한 공염불이 되어버린다. 오늘도 우리는 오로지 살기 위해 잔혹한 링 위에서 불합리한 게임을 펼쳐야 한다.

이 시대 국악을 지배하는 혼합성의 물결, 국악과 비국악 경계의 착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모두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이미 시장은 국악이 '몸부림치며' 적응해야 하는 공간에서 국악이 '몸부림치며' 탈출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화두는 오늘날 국악 공연을 규정짓는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국악의 범주에 대한 오해, 어피니언 리더들이 생산하는 지배적 담론의 허구, 지원금이 드러내는 빈익빈 부익부, 시장의 혹독함 등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

해 국악 공연을 정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화두들이 결국 공통적으로 걸쳐 있는 지점은 국악을 규정하는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심화현상과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복합성 심화현상이다. 2009년 국악 공연 역시 이런 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전형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이 시대 국악이 서 있는 좌표라고 하겠다.

## Ⅳ. 맺음말

이상에서 2009 국악 공연에 대해 계량적 측면과 비계량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해보았다. 계량적 측면이 보여주는 결과는 역시 국악 공연의 혼종적 성격 강화가 가장 큰 부분이었으며, 비계량적 측면이 보여주는 결과는 계량적 측면이 보여준 결과를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디까지가 국악 공연인가", "무엇이 주목되는 공연인가", "국악 공연에 있어 시장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 화두를 통해 얻은 결론은 이 시대 국악을 지배하는 혼합성의 물결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의해 얽혀 있는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국악과 비국악 경계에 대한 전공자들의 착각, 비평과 언론에서 왜곡한 채 보여주는 특정 편향의 시각, 전반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취약한 생존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한 해 공연을 정리하는 것이 객관성을 최대한 견지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수치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드러내서 분석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9년 국악 현황 분석

황윤숙(문화리서치피오 대표)

## Ⅰ. 국악 공연의 연도별 추이

최근 5년간 『문예연감』 편람에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악 공연의 양적인 추이를 살필 수 있다. 물론, 2008년 이전의 편람은 자료조사 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이고, 공연 건수를 제외하고 공연 횟수만 수집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다면 함께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차이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인다면 비교 자체를 피해갈 필요는 없다.

최근 5년간 국악 공연은 연간 평균 약 2,450회 무대에 올랐다. 자료조사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1,621회로 횟수가 낮아졌던 것을 제외하면 그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 2008년의 조사 방법을 보완해 국악 공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경로를 확대한 2009년에는 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2,684회 수준을 나타냈다.

**▌표 1. 최근 5년간 국악 공연의 공연 횟수 추이 ▌**

| 연 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공연 횟수 | 2,685 | 2,469 | 2,792 | 1,621 | 2,684 |

2008년부터는 자료조사 방법의 표준화와 함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를 수

집했기 때문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율은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평균 몇 회 정도 상연되는지 보여준다. 2008년은 한 공연당 평균 1.46회, 2009년은 1.95회로 전년도에 비해 공연 횟수가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상설 공연을 포함한 장기 공연이 2008년에 비해 2009년 편람에 더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2008년과 2009년의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 | 2008년 | 2009년 |
|---|---|---|
| 공연 건수 | 1,107 | 1,379 |
| 공연 횟수 | 1,621 | 2,684 |
| 공연 건수/공연 횟수 비율 | 1.46 | 1.95 |

## II. 2009 국악 분야 장르별 공연 현황

### 1. 국악 내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현재 『문예연감』의 분류 기준상 국악 공연은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된다.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는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공연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한두 숫자로 단순화해서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이 숫자들은 개별 공연들이 품고 있을 질적인 차이와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진 못하지만, '2009년 국악 공연계'라는 숲의 얼개를 또렷하게 반영한다.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기악이 389건으로 28%를 차지해 가장 높다. 혼합 분야가 376건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뒤를 잇고, 성악, 연희, 복합은 큰 차이 없이 기악, 혼합의 절반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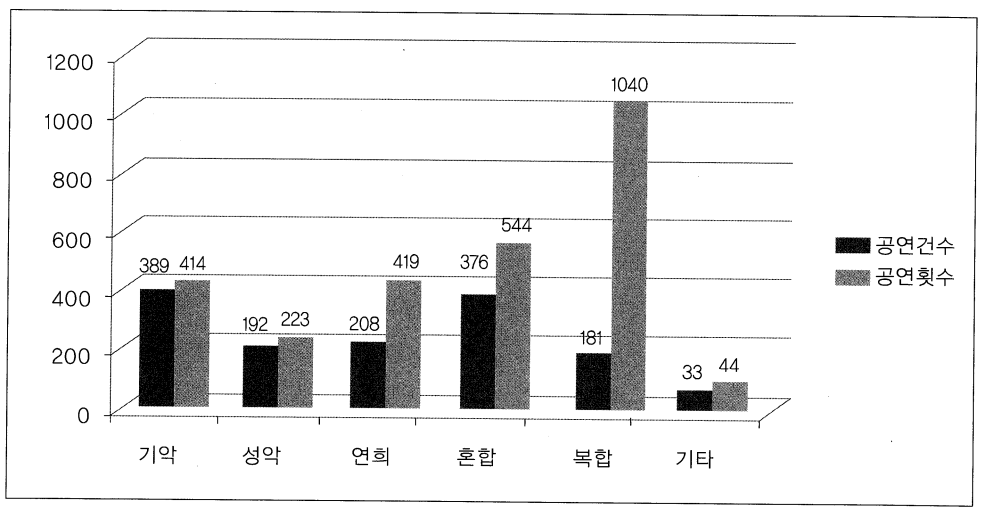
공연 횟수에서의 분포는 건수와 매우 다르다. 복합이 1,040회로 39%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은 혼합이 절반 수준인 544회로 전체 횟수에서 20%를 차지한다. 연희는 419회로 공연 횟수만 보면 혼합보다 적지만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격차는 혼합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악과 성악의 공연 횟수는 공연 건수와 큰 차이가 없이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3. 2009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389 | 192 | 208 | 376 | 181 | 33 | 1,379 |
| | 비율 | 28% | 14% | 15% | 27% | 13% | 2%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414 | 223 | 419 | 544 | 1,040 | 44 | 2,684 |
| | 비율 | 15% | 8% | 16% | 20% | 39% | 2% | 100% |

▌그림 1. 2009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2.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로 살펴본 국악 내 세부 장르별 장기 공연 실태의 차이

국악 공연 전체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9회로, 평균적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2회 정도의 공연이 펼쳐지는 셈이다.

세부 장르별로는 복합이 5.8회로 가장 높고, 연희 2.0회, 혼합 1.5회, 기타 1.3회, 성악 1.2회, 기악 1.1회 순으로 나타난다. 평균 2회 수준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르는 복합과 연희 정도이고, 나머지 장르는 대개 한 번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경향은 국악 분야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장기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르와 그렇지 않은 장르로 어느 정도의 갈림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389 | 192 | 208 | 376 | 181 | 33 | 1,379 |
| 공연 횟수 | 414 | 223 | 419 | 544 | 1,040 | 44 | 2,684 |
| 건수/횟수 비율 | 1.1 | 1.2 | 2.0 | 1.5 | 5.8 | 1.3 | 1.9 |

국악과 타 공연 장르(연극, 무용, 양악 등)가 한 무대에 어우러진 공연을 범주화한 복합 분류에는 보통 국악아동극, 국악뮤지컬, 크로스오버 형태의 다양한 국악 공연과 타악 퍼포먼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악을 보다 친근하고 쉽게 가져가기 위한 시도들은 대부분 복합에 포함되어 있다. 그 시도들이 보통 국악과 국악이 아닌 다른 장르와 협업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동극장의 <미소(MISO)>는 626회로 복합 분야의 평균적인 공연 건수 대 횟수 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의 <엄마아빠랑 전통문화 나들이>가 36회, 국악놀이연구소와 예술기획놀이터의 <장단놀이 뮤지컬 '안녕, 핫도그'>가 32회,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26회 등으로 국악 내 타 장르에 비해 장기 공연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연희에는 창극, 소리극, 마당극, 여성국극 등이 주로 포함된 범주다. 전문예술법인 푸른문화의 <국악동요극 '강아지와 국악여행'>이 21회, 국립창극단의 <젊은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10회, 서울남산국악당에서 12월에 오른 <남산골 허생뎐>이 10회, 국립창극단의 <청-꽃 속을 거닐다>가 8회로 상대적으로 높은 공연 횟수를 보인 대표적인 공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혼합 분야는 국악 내 장르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경우를 말한다. 기악과 성악, 연희 공연이 한 무대에 함께 또는 번갈아 오르는 형태다. 복합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합 형태의 공연 역시 국악을 대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악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모둠 형태로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것이다. 국립극장의 <2009 엄마와 함께 하는 국악 보따리>가 28회, 젊은국악연대의 <모여놀기 프로젝트>가 17회, 서울남산국악당의 토요상설무대였던 <남산에서 놀다>와 금요상설무대였던 <꽃은 피어 웃고 있고>가 각각 8회로 비교적 높은 공연 횟수를 나타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Ⅲ. 2009년도 국악 분야 부문별 공연 현황

## 1. 창작 공연은 공연당 평균 3회, 기존 작품은 2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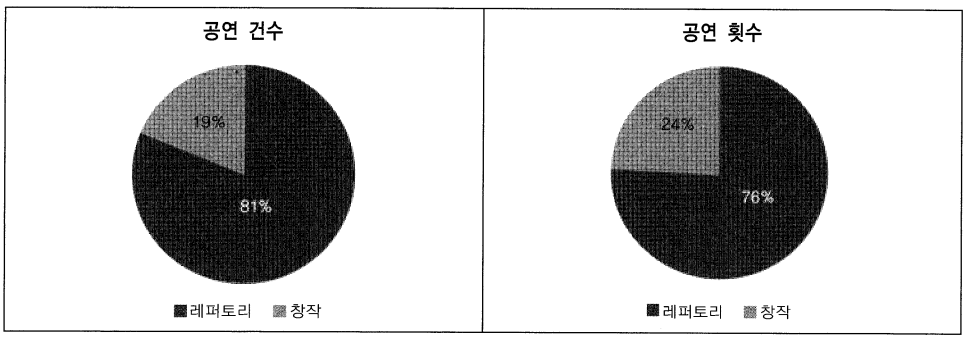
2009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올려진 모든 국악 공연에 대해서 사후 조사를 통해 그 해 창작된 작품인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작품인지를 판단하긴 몹시 어렵다. 하지만 한 해 공연된 작품 중 창작과 기존 공연작(편람상에서는 '레퍼토리'라는 용어 사용)을 나누어 살핀 자료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010문예연감』은 국악 공연에 대해 각 공연작품이 창작인지 아닌지를 불완전하나마 분류하고자 했다. 분명히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만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 상태로 두었다.

**▌표 5. 2009년 국악 공연의 창작과 레퍼토리 분포 ▐**

| 구 분 | 레퍼토리 | 창작 | 미분류 | 계 |
|---|---|---|---|---|
| 공연 건수 | 681 | 158 | 540 | 1,379 |
| 공연 횟수 | 1,455 | 463 | 766 | 2,684 |

미분류인 공연을 제외하고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창작 작품은 158건으로 19%, 기존 작품(레퍼토리)은 681건으로 81%를 차지한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창작 작품이 463회로 24%, 기존 작품(레퍼토리)이 1,455회로 76%를 차지한다.

**▌그림 2. 2009년 국악 공연의 창작과 레퍼토리 비중(미분류 항목 제외)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연 횟수보다 공연 건수에서 레퍼토리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진다. 이는 창작 공연의 공연당 공연 횟수가 레퍼토리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더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창작 공연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는 2.93회, 레퍼토리 공연의 2.14회 수준으로 나타난다. 창작 공연의 경우 평균 약 3회 공연했다면, 기존 공연 작품(레퍼토리)은 약 2회 공연을 한 것이다. 이는 여러 공연예술 지원이 창작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여러 번 무대에 올랐던 기존 작품에 비해 창작 공연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객을 구하려는 경향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연희와 복합 분야는 창작 활발, 기악과 성악은 기존 레퍼토리 중심

창작 공연과 기존 작품 공연의 비율을 국악 내 세부 분야별로 살피면, 창작이 활발한 분야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가 드러난다.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을 살펴보면, 혼합이 18.92%로 창작에 비해 레퍼토리 공연이 19배가량 많다. 이는 대개의 혼합 형태의 공연이 국악 대중화 차원에서 종합선물세트 같은 형태의 구성을 취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악과 기악이 각각 13.9%, 9.3%으로 창작에 비해 레퍼토리 공연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 2009년 국악 공연의 세부 분야별 레퍼토리 건수 대 창작 비율 ▐**

| 구 분 | 레퍼토리 | 창작 | 레퍼토리 /창작 비율(%) | 미분류 | 총합계 |
|---|---|---|---|---|---|
| 혼합 | 227 | 12 | 18.9 | 137 | 376 |
| 성악 | 139 | 10 | 13.9 | 43 | 192 |
| 기악 | 213 | 23 | 9.3 | 153 | 389 |
| 기타 | 3 | 2 | 1.5 | 28 | 33 |
| 복합 | 45 | 31 | 1.5 | 105 | 181 |
| 연희 | 54 | 80 | 0.7 | 74 | 208 |
| 총합계 | 681 | 158 | 4.3 | 540 | 1,379 |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와는 반대로 연희의 경우엔 창작 공연이 더 많아서 비율이 0.7%로 나타난다. 연희만큼은 아니지만, 복합의 경우에도 1.5%로 창작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소리극, 국악뮤지컬, 국악아동극, 타악 퍼포먼스 등 새로운 틀의 공연이 모두 연희와 복합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 Ⅳ. 2009년 국악 분야 월별 공연 현황

## 1. 월별 공연은 완만한 M자형 곡선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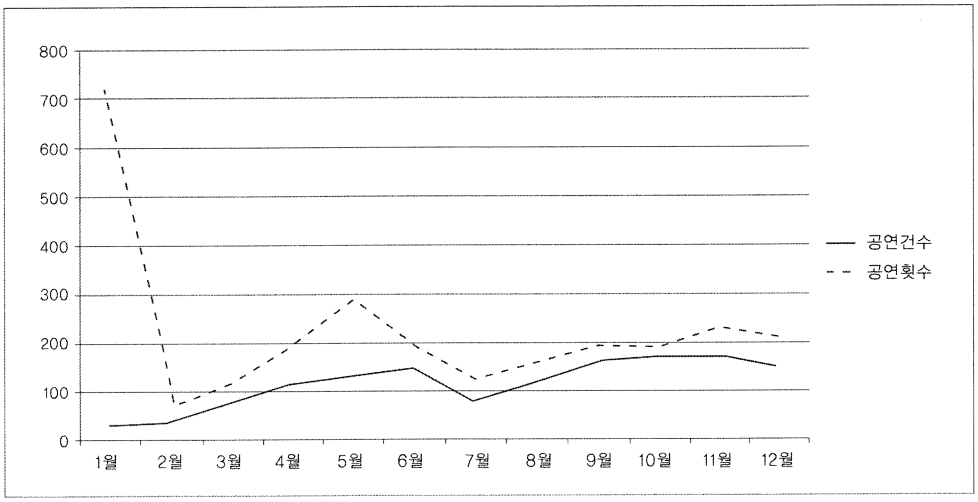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완만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는 국악만 아니라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서도 관찰되는 패턴으로, 봄과 가을이 여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7. 2009년 국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32 | 42 | 78 | 111 | 132 | 148 | 79 | 117 | 149 | 167 | 171 | 153 | 1,379 |
| | 비율 | 2% | 3% | 6% | 8% | 10% | 11% | 6% | 8% | 11% | 12% | 12% | 11%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701 | 77 | 116 | 196 | 289 | 195 | 128 | 165 | 192 | 193 | 226 | 206 | 2,684 |
| | 비율 | 26% | 3% | 4% | 7% | 11% | 7% | 5% | 6% | 7% | 7% | 8% | 8% | 100% |

<표 7>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3>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M자형 곡선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패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1월의 모습이다. 1월의 경우 공연 건수는 32건으로 비중으로 보면 2%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횟수가 701회로 2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1월부터 시작해 연중 계속되는 몇몇 공연 때문에 생긴 오류다. 공연을 단위로 자료가 취합된 만큼, 1월에 열리는 공연 횟수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연중 횟수가 모두 1월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2009년도 국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V. 2009년도 국악 분야 시도별 공연 현황

### 1. 서울·대구·부산·전북·경기·전남 순으로 국악 공연 활발

16개 시도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지역별 국악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서 가장 공연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바로 뒤를 잇는 대구의 123건과 비교해도 무려 다섯 배 수준인 501건이고,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인 경기 지역의 168회의 아홉 배 수준인 1,541회에 이른다.

전국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국악 공연 중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36.3%의 공연이,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57.4%의 공연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연이 비중이 많은 국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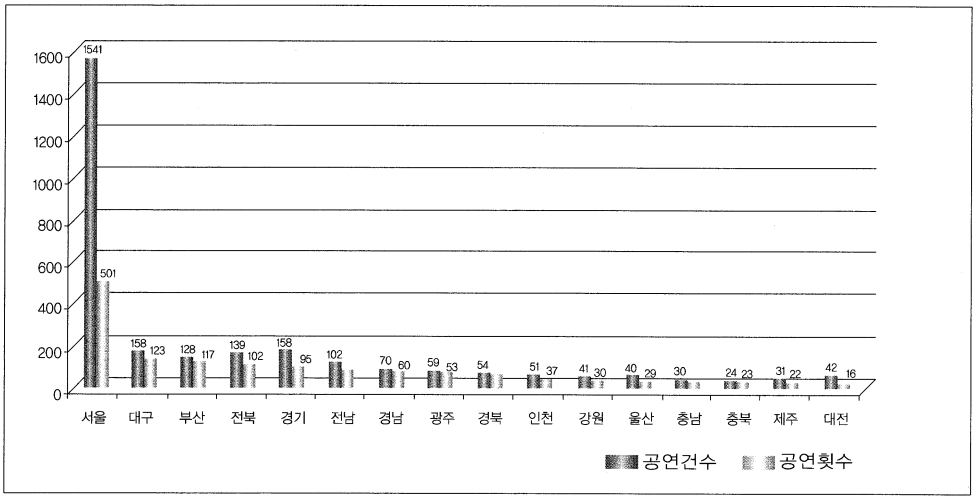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8. 2009년 16개 시도별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서울 | 대구 | 부산 | 전북 | 경기 | 전남 | 경남 | 광주 | 경북 |
|---|---|---|---|---|---|---|---|---|---|
| 공연 건수 | 501 | 123 | 117 | 102 | 95 | 90 | 60 | 53 | 52 |
| 공연 횟수 | 1,541 | 158 | 128 | 139 | 168 | 102 | 70 | 59 | 54 |
| 구 분 | 인천 | 강원 | 울산 | 충남 | 충북 | 제주 | 대전 | 계 | |
| 공연건수 | 37 | 30 | 29 | 29 | 23 | 22 | 16 | 1,379 | |
| 공연횟수 | 51 | 41 | 46 | 30 | 24 | 31 | 42 | 2,684 | |

16개 시도를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서울, 대구, 부산, 전북, 경기, 전남에서 연간 90건 이상의 국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대구, 부산, 경기 외에 예향이라 불리는 전북, 전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서울, 대구, 부산, 전북, 경기, 전남이 연간 100회 이상의 국악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연 건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그림 4. 2009년도 16개 시도별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서울이다. 한 공연당 평균 3회 정도 공연이 이루어진다. 조금 놀라운 결과는 대전이 2.63회로 서울의 뒤를

잇는다는 것. 이는 대전의 국악 공연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은 데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원형극장에서 5~9월간 열린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라는 상설 공연이 26회라는 높은 공연 횟수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다. 다음은 경기, 울산, 제주 순으로 이어진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 속했던 대구, 전북, 전남이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에서 이들 지역보다 밀리는 것은 대구, 전북, 전남 지역의 국악 공연이 장기 공연보다는 1~2회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9. 2009년 16개 시도별 국악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 ▐**

| 구 분 | 건수 | 횟수 | 비율 |
|---|---|---|---|
| 서울 | 501 | 1,541 | 3.08 |
| 대전 | 16 | 42 | 2.63 |
| 경기 | 95 | 168 | 1.77 |
| 울산 | 29 | 46 | 1.59 |
| 제주 | 22 | 31 | 1.41 |
| 인천 | 37 | 51 | 1.38 |
| 강원 | 30 | 41 | 1.37 |
| 전북 | 102 | 139 | 1.36 |
| 대구 | 123 | 158 | 1.28 |
| 경남 | 60 | 70 | 1.17 |
| 전남 | 90 | 102 | 1.13 |
| 광주 | 53 | 59 | 1.11 |
| 부산 | 117 | 128 | 1.09 |
| 충북 | 23 | 24 | 1.04 |
| 경북 | 52 | 54 | 1.04 |
| 충남 | 29 | 30 | 1.03 |
| 총합계 | 1,379 | 2,684 | 1.95 |

## 2. 공연 건수는 비수도권이, 공연 횟수는 수도권이 우세

16개 시도별 자료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나머지 13개

KOR 한국문화예술위원
http://www.kcaf.or.kr

시도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해서 살펴보면 새로운 양상이 드러난다. 공연 건수에서는 비수도권이 746건으로 633건인 수도권보다 다소 우세한 반면 공연 횟수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924회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1,760회를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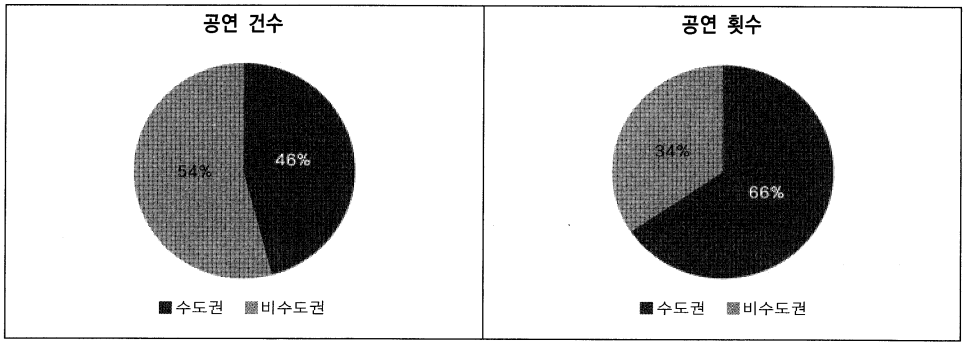
이 결과는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하나는, 다른 공연예술과 달리 국악은 공연 건수에 한해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앞지르는 유일한 장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수도권에 여러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연은 수도권에 몹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10.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비수도권 | 계 |
|---|---|---|---|---|
| 공연 건수 | 633 | 746 | 0.84 | 1,379 |
| 공연 횟수 | 1,760 | 924 | 1.91 | 2,684 |

<표 10>을 그래프화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 보인다.

**▌그림 5.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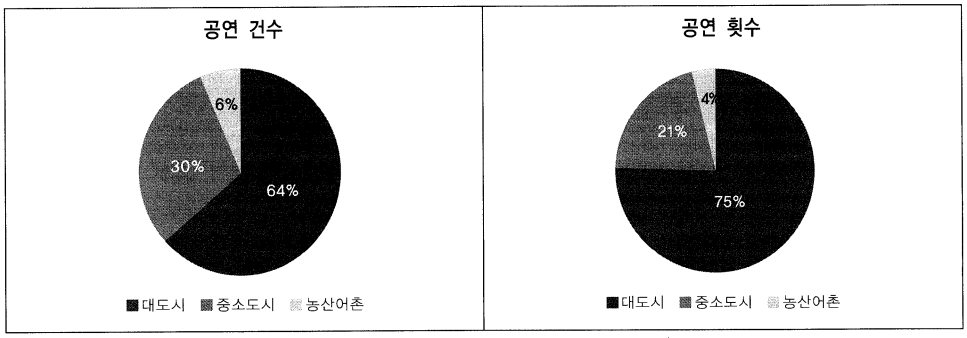

이렇게 건수에서 보다 횟수에서 지역 격차가 커지는 경향은 지역을 기초 단위까지 분류해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범주화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11.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구 분 | 대도시 | 중소 도시 | 농산어촌 | 계 |
|---|---|---|---|---|
| 공연 건수 | 876 | 415 | 88 | 1,379 |
| 공연 횟수 | 2,025 | 557 | 102 | 2,684 |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공연 건수 격차는 2배 수준이지만, 공연 횟수 격차는 3.6배 수준으로 더 크게 벌어진다. 반면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은 공연 건수 격차가 4.7배, 공연 횟수 격차가 5.5배 수준으로 공연 건수의 격차보다 공연 횟수의 격차가 비슷하다.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은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도시는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그림 6.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4. 지역 인구 대비 공연 건수는 전북이, 공연 횟수는 서울이 상위

지역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국악 공연이 해당 지역에서 어떤 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이다. 실제 그 공연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함께 고려하면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국악 공연이 열리는지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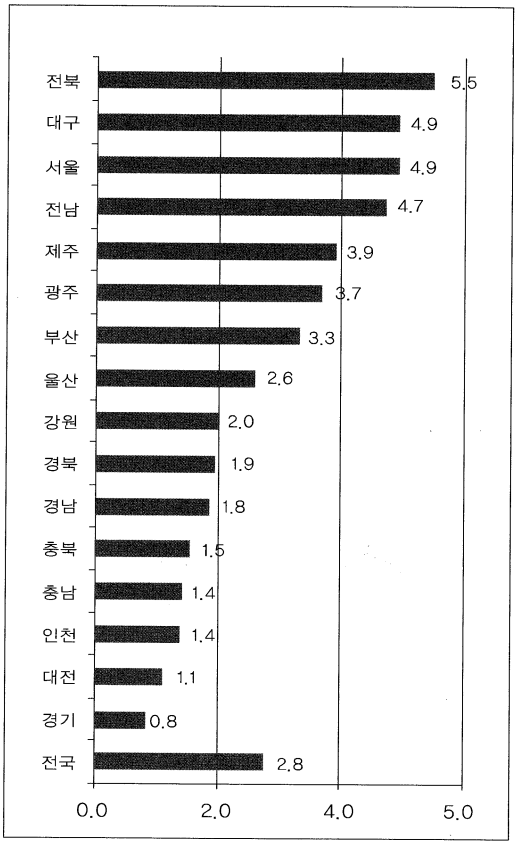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 전북이 5.5건으로 4.9건인 서울보다 더 높게 나타나 명실상부한 예향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대구도 4.9건으로 서울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남이 4.7건으로 그 뒤를 잇는다.

단순 비교에서는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에 속했던 제주가 전남에 이어 광주(3.7건)보다도 높은 3.9건을 나타내는 것도 큰 변화다. 경기의 경우도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큰 변화를 보여준다. 공연 건수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 전북에 이어 5위를 보이며 상위에 속했던 경기가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는 최하위인 0.8건에 그친 것이다. 서울과 거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경기 현지에서 오르는 공연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극적인 변화로 보인다.

**▌표 12. 2009년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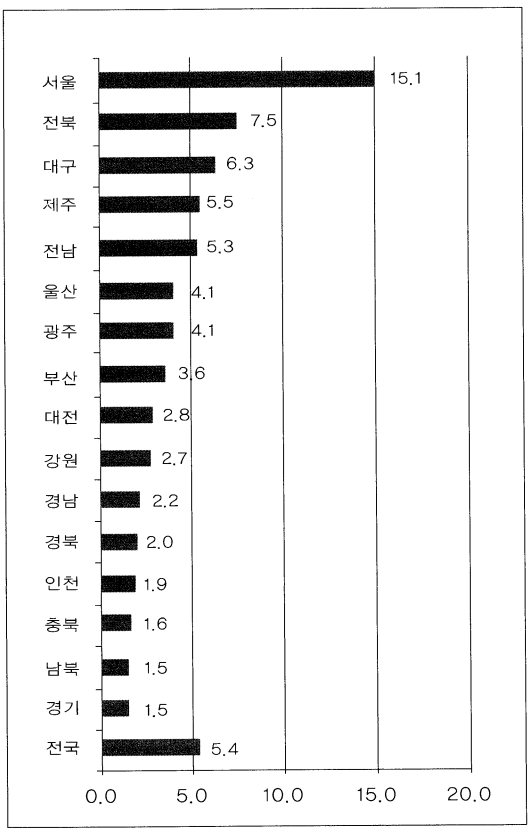
| 순위 | 지역 | 공연건수 |
|---|---|---|
| 1 | 전북 | 5.5 |
| 2 | 대구 | 4.9 |
| 3 | 서울 | 4.9 |
| 4 | 전남 | 4.7 |
| 5 | 제주 | 3.9 |
| 6 | 광주 | 3.7 |
| 7 | 부산 | 3.3 |
| 8 | 울산 | 2.6 |
| 9 | 강원 | 2.0 |
| 10 | 경북 | 1.9 |
| 11 | 경남 | 1.8 |
| 12 | 충북 | 1.5 |
| 13 | 충남 | 1.4 |
| 14 | 인천 | 1.4 |
| 15 | 대전 | 1.1 |
| 16 | 경기 | 0.8 |
| - | 전국 | 2.8 |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는 공연 건수와는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다.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이 15.1회로 7.5회인 전북을 큰 차이로 앞서며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공연 횟수를 보여준다. 전북(7.5회), 대구(6.3회), 제주(5.5회), 전남(5.3회) 등의 지역은 작은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13. 2009년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횟수 ▐**

| 순위 | 지역 | 공연횟수 |
|---|---|---|
| 1 | 서울 | 15.1 |
| 2 | 전북 | 7.5 |
| 3 | 대구 | 6.3 |
| 4 | 제주 | 5.5 |
| 5 | 전남 | 5.3 |
| 6 | 울산 | 4.1 |
| 7 | 광주 | 4.1 |
| 8 | 부산 | 3.6 |
| 9 | 대전 | 2.8 |
| 10 | 강원 | 2.7 |
| 11 | 경남 | 2.2 |
| 12 | 경북 | 2.0 |
| 13 | 인천 | 1.9 |
| 14 | 충북 | 1.6 |
| 15 | 충남 | 1.5 |
| 16 | 경기 | 1.5 |
| - | 전국 | 5.4 |




## 5. 최근 3년간 공연 횟수 증가 지역은 서울·대구·부산·인천 등 대도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국악 공연의 지역별 추이를 공연 횟수를 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준으로 살피면, 증가 추이보다는 감소 추이를 보이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 방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인 2007년과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그리고 보완을 통해 조사 방법의 표준화가 자리를 잡은 2009년의 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것에는 분명 유의해야 할 점이 많지만, 편람 자료의 중요성과 포괄성을 생각한다면 비교의 가치는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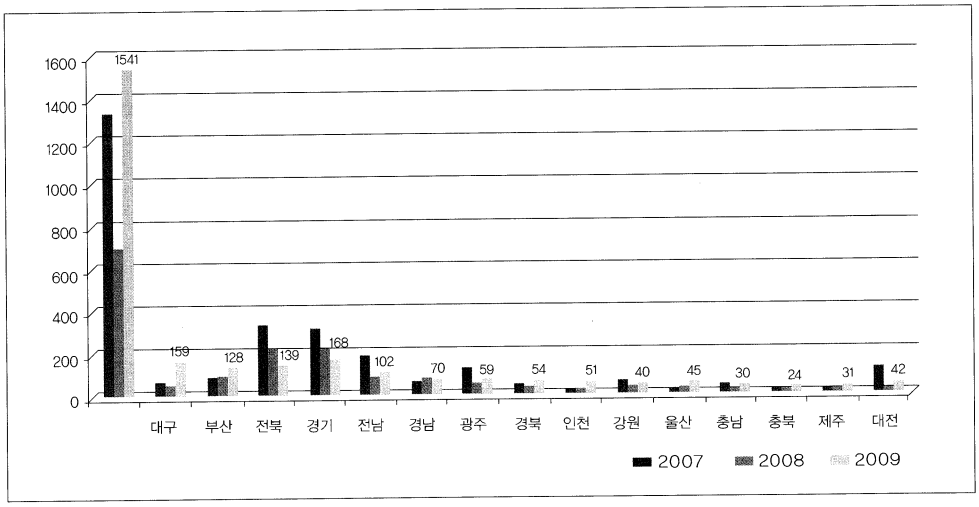
증가 추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 대도시라는 점이 가장 도드라진다. 광주나 대전처럼 광역시이면서도 국악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사례나 경남, 경북처럼 도 단위 지역이면서도 공연 횟수가 증가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증가, 도 단위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공연 건수가 아닌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한 만큼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의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와 도 단위 지역의 서로 다른 공연 횟수 추세는 상설 공연을 포함한 장기 공연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지역별 공연 비율을 살펴보면 단연 서울이 가장 높은 비율로 2007년 47,5%, 2008년 42.8%, 2009년에는 전체 공연의 절반이 넘는 57.4%의 공연을 가졌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미만을 보이며 지방 공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대구, 제주, 대전 등은 2008년에 비해 2배 정도 공연이 증가했으나, 전북과 경기, 경남 등은 약 2배 감소했다.

**▌표 14. 최근 3년간 국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 연도 | 서울 | 대구 | 부산 | 전북 | 경기 | 전남 | 경남 | 광주 | 경북 |
|---|---|---|---|---|---|---|---|---|---|
| 2007년 | 1,327 | 62 | 85 | 331 | 311 | 187 | 58 | 120 | 34 |
| 2008년 | 693 | 42 | 89 | 222 | 213 | 83 | 74 | 50 | 29 |
| 2009년 | 1,541 | 158 | 128 | 139 | 168 | 102 | 70 | 59 | 54 |
| 연도 | 인천 | 강원 | 울산 | 충남 | 충북 | 제주 | 대전 | 계 | |
| 2007년 | 13 | 58 | 17 | 36 | 21 | 11 | 121 | 2,792 | |
| 2008년 | 19 | 30 | 27 | 17 | 14 | 11 | 8 | 1,621 | |
| 2009년 | 51 | 41 | 46 | 30 | 24 | 31 | 42 | 2,684 | |

▌그림 7. 최근 3년간 국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 6. 16개 시도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국악 세부 분야별 비중

지역마다 국악 공연이 세부 분야별로 어떤 양상을 띠는지 보기 위해서는 16개 시도별로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등의 세부 분야별 공연 비중을 살펴야 한다. 이때 기준은 상대적으로 공연 횟수보다 공연 건수가 더 적합하다.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혼합, 연희, 복합의 비중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얼마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히 양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 횟수 기준으로도 추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특성 파악이 쉽도록 아래 표에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진한 색 표시)와 그 다음 비중이 높은 분야(흐린 색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기악과 혼합이 각각 28.2%와 27.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연희(15.1%), 성악(13.9%), 복합(13.1%)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악 공연이 기악 공연의 2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많은 성악 공연이 순수한 성악 공연 형태보다는 연희나 혼합, 복합의 형태를 선호하는 흐름 때문일 수도 있고, 성악 공연에서 상대적으로 도드라지는 공연자의 체력적인 한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각 세부 분야별로 몸담고 있는 국악인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비중을 해석하는 데 또 다른 관점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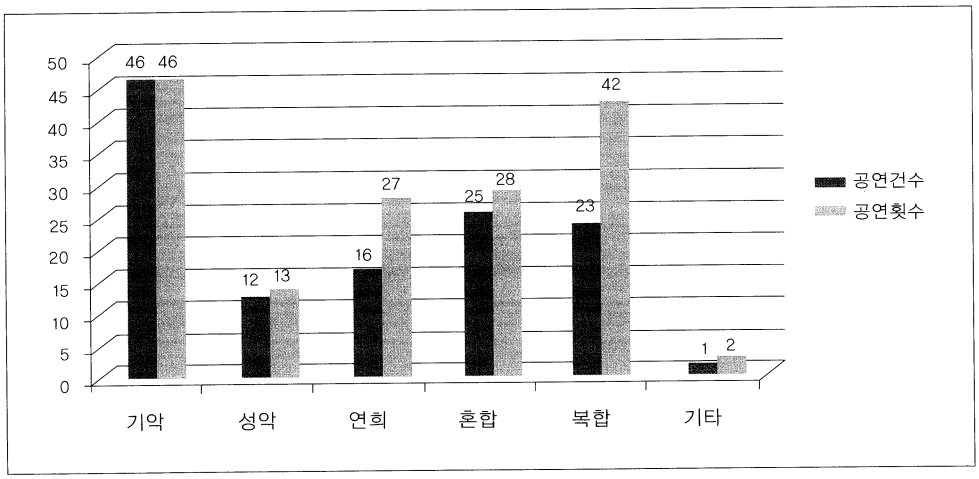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표 15. 2009년 지역별로 살펴본 국악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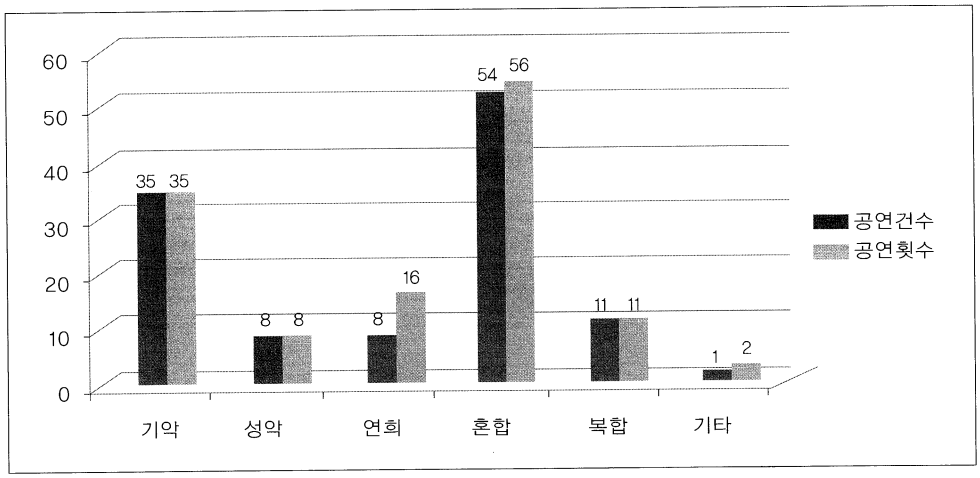
| 지역 |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서울 | 빈도 | 185 | 70 | 46 | 129 | 57 | 14 | 501 |
| | 비율 | 36.9% | 14.0% | 9.2% | 25.7% | 11.4% | 2.8% | 100% |
| 대구 | 빈도 | 46 | 12 | 16 | 25 | 23 | 1 | 123 |
| | 비율 | 37.4% | 9.8% | 13.0% | 20.3% | 18.7% | 0.8% | 100% |
| 부산 | 빈도 | 35 | 8 | 8 | 54 | 11 | 1 | 117 |
| | 비율 | 29.9% | 6.8% | 6.8% | 46.2% | 9.4% | 0.9% | 100% |
| 전북 | 빈도 | 22 | 22 | 23 | 21 | 13 | 1 | 102 |
| | 비율 | 21.6% | 21.6% | 22.5% | 20.6% | 12.7% | 1.0% | 100% |
| 경기 | 빈도 | 21 | 13 | 13 | 29 | 18 | 1 | 95 |
| | 비율 | 22.1% | 13.7% | 13.7% | 30.5% | 18.9% | 1.1% | 100% |
| 전남 | 빈도 | 5 | 16 | 8 | 43 | 13 | 5 | 90 |
| | 비율 | 5.6% | 17.8% | 8.9% | 47.8% | 14.4% | 5.6% | 100% |
| 경남 | 빈도 | 11 | 7 | 18 | 13 | 10 | 1 | 60 |
| | 비율 | 18.3% | 11.7% | 30.0% | 21.7% | 16.7% | 1.7% | 100% |
| 광주 | 빈도 | 19 | 14 | 6 | 8 | 4 | 2 | 53 |
| | 비율 | 35.8% | 26.4% | 11.3% | 15.1% | 7.5% | 3.8% | 100% |
| 경북 | 빈도 | 10 | 7 | 18 | 10 | 7 | | 52 |
| | 비율 | 19.2% | 13.5% | 34.6% | 19.2% | 13.5% | 0.0% | 100% |
| 인천 | 빈도 | 4 | 8 | 9 | 7 | 6 | 3 | 37 |
| | 비율 | 10.8% | 21.6% | 24.3% | 18.9% | 16.2% | 8.1% | 100% |
| 강원 | 빈도 | 3 | - | 15 | 8 | 4 | - | 30 |
| | 비율 | 10.0% | 0.0% | 50.0% | 26.7% | 13.3% | 0.0% | 100% |
| 울산 | 빈도 | 7 | 3 | 8 | 7 | 3 | 1 | 29 |
| | 비율 | 24.1% | 10.3% | 27.6% | 24.1% | 10.3% | 3.4% | 100% |
| 충남 | 빈도 | 5 | 5 | 7 | 9 | 2 | 1 | 29 |
| | 비율 | 17.2% | 17.2% | 24.1% | 31.0% | 6.9% | 3.4% | 100% |
| 충북 | 빈도 | 10 | 1 | 2 | 6 | 4 | | 23 |
| | 비율 | 43.5% | 4.3% | 8.7% | 26.1% | 17.4% | 0.0% | 100% |
| 제주 | 빈도 | 4 | 4 | 8 | 2 | 3 | 1 | 22 |
| | 비율 | 18.2% | 18.2% | 36.4% | 9.1% | 13.6% | 4.5% | 100% |
| 대전 | 빈도 | 2 | 2 | 3 | 5 | 3 | 1 | 16 |
| | 비율 | 12.5% | 12.5% | 18.8% | 31.3% | 18.8% | 6.3% | 100% |
| 계 | 빈도 | 389 | 192 | 208 | 376 | 181 | 33 | 1,379 |
| | 비율 | 28.2% | 13.9% | 15.1% | 27.3% | 13.1% | 2.4% | 100% |

서울·대구·광주·충북 지역은 기악 분야가, 부산·경기·전남·충남·대전은 혼합 형태의 공연이, 경남·경북·강원·제주 등은 연희 분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지역별 관객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했는지, 해당 지역 국악인의 분포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공연 프로그래밍 수준의 선호나 공연장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8. 2009년 대구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기악 중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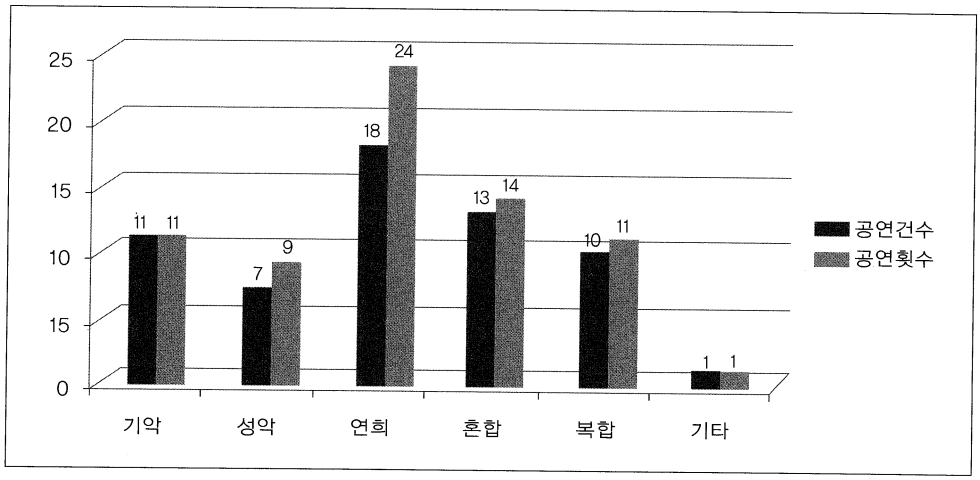



**▌그림 9. 2009년 부산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혼합 중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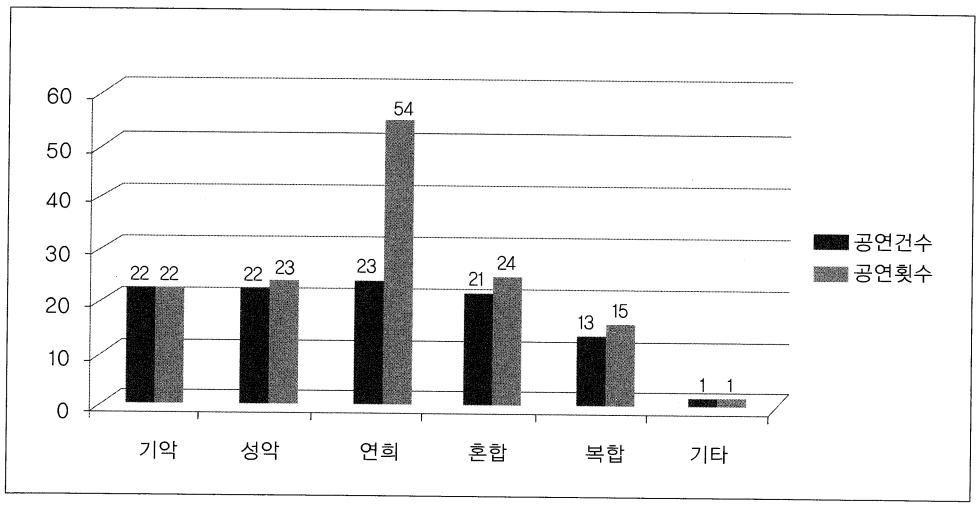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10. 2009년 경남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연희 중심) ▐




전북 지역은 복합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나머지 전 분야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국악 장르가 고르게 소개되고 있는 전북 지역의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두터운 애호가 수준의 관객층의 존재, 또는 공연 프로그래밍의 개입 등의 원인을 유추해보게 한다.

▌그림 11. 2009년 전북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비율) ▐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38.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합 장르다. 혼합이 20.3%로 그 뒤를 잇고, 연희와 기악이 각각 15.6%, 15.4%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성악은 횟수에 있어서도 8.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작다.

**▌표 16. 2009년 지역별로 살펴본 국악 세부 분야별 공연 횟수 ▐**

| 지역 |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서울 | | 207 | 93 | 162 | 249 | 812 | 18 | 1,541 |
| 경기 | | 23 | 13 | 14 | 57 | 55 | 6 | 168 |
| 대구 | | 46 | 13 | 27 | 28 | 42 | 2 | 158 |
| 전북 | | 22 | 23 | 54 | 24 | 15 | 1 | 139 |
| 부산 | | 35 | 8 | 16 | 56 | 11 | 2 | 128 |
| 전남 | | 5 | 18 | 9 | 48 | 17 | 5 | 102 |
| 경남 | | 11 | 9 | 24 | 14 | 11 | 1 | 70 |
| 광주 | | 20 | 17 | 7 | 8 | 5 | 2 | 59 |
| 경북 | | 10 | 7 | 18 | 11 | 8 | 0 | 54 |
| 인천 | | 4 | 8 | 11 | 7 | 18 | 3 | 51 |
| 울산 | | 7 | 3 | 25 | 7 | 3 | 1 | 46 |
| 대전 | | 2 | 2 | 4 | 5 | 28 | 1 | 42 |
| 강원 | | 3 | 0 | 25 | 8 | 5 | 0 | 41 |
| 제주 | | 4 | 4 | 13 | 5 | 4 | 1 | 31 |
| 충남 | | 5 | 4 | 8 | 10 | 2 | 1 | 30 |
| 충북 | | 10 | 1 | 2 | 7 | 4 | 0 | 24 |
| 계 | 빈도 | 414 | 223 | 419 | 544 | 1,040 | 44 | 2,684 |
| | 비율 | 15.4% | 8.3% | 15.6% | 20.3 | 38.7% | 1.6%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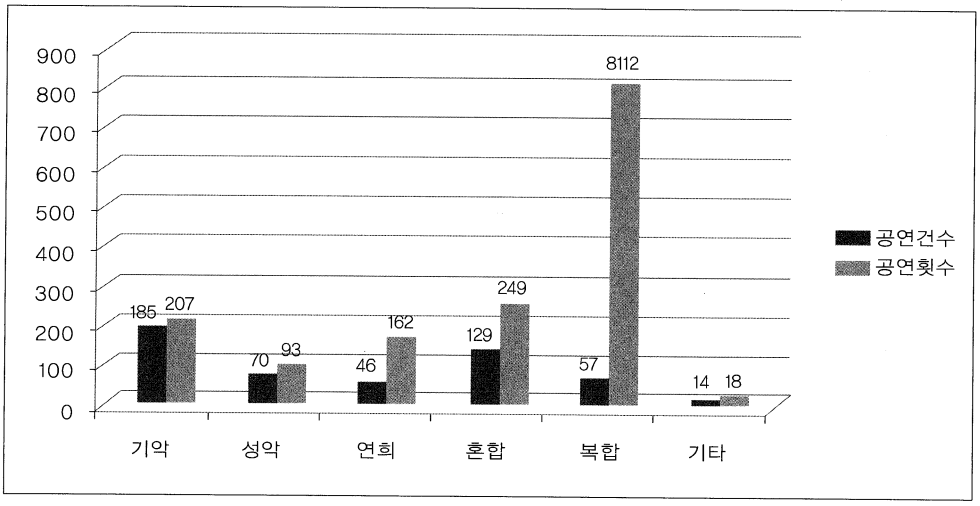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기악 중심에 속했던 서울 지역도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단연 복합 장르가 강세를 보인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악 공연 횟수 중 절반이 넘는 52.7%에 이른다. 정동극장의 <미소(MISO)>, 극단성시어터라인의 <가족국악뮤지컬 '여우야 뭐하니? 동산에 꽃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피면 나하고 놀자'>와 같은 몇몇 작품의 장기 공연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장르와 복합의 횟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복합 장르의 압도적인 비중은 서울만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중만 본다면 대전도 서울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 공연 횟수에서 차이가 큰 만큼 선뜻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림 12. 2009년 서울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빈도) ▐**




## 3. 공연 건수 기준, 비수도권이 기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장르에서 수도권보다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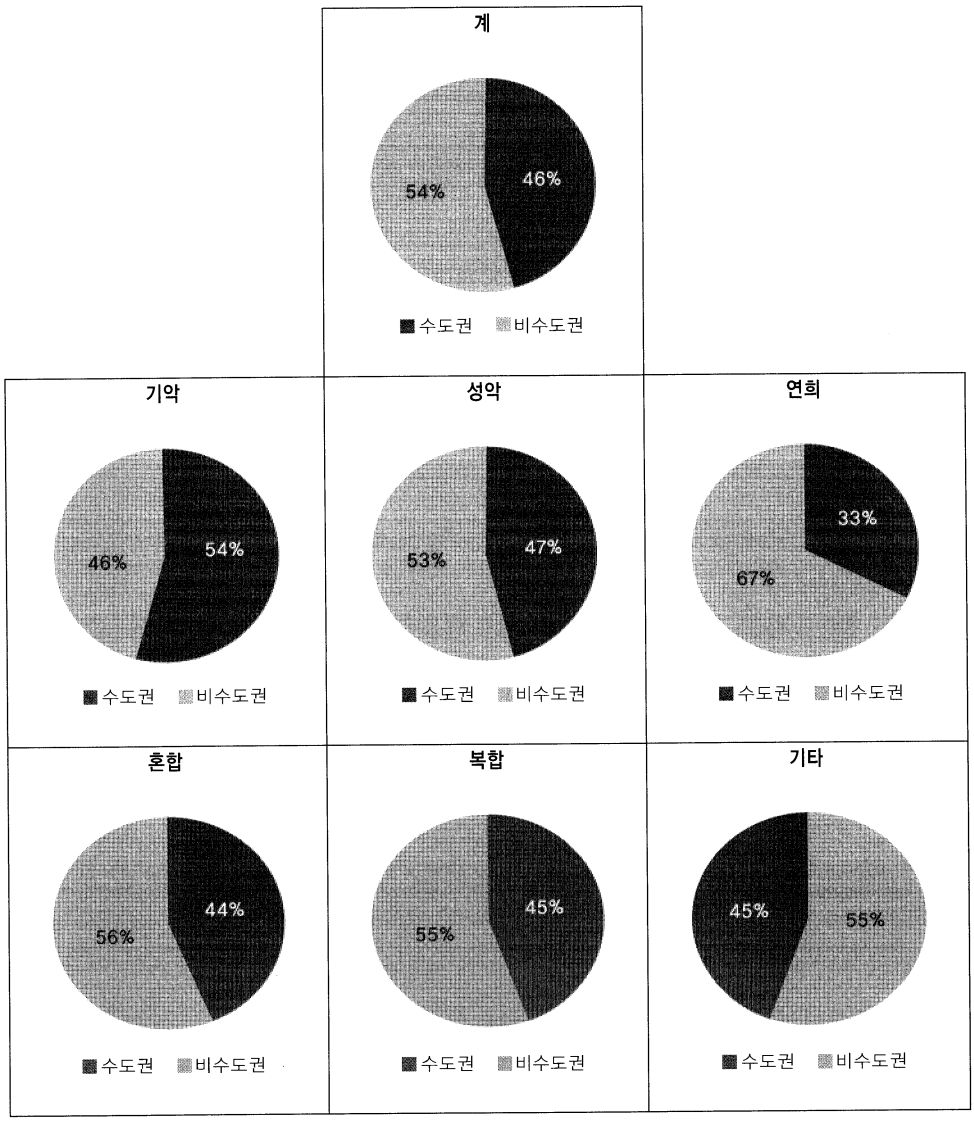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피면 16개 시도별 분석에서는 보지 못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앞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다소 앞선다. 이를 다시 세부 장르별로 나누어 살피면, 기악과 기타를 제외한 전 장르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희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2배 수준으로 가장 크다.

## ▌표 17.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건수 분포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수도권 | 210 | 91 | 68 | 165 | 81 | 18 | 633 |
| | 비수도권 | 179 | 101 | 140 | 211 | 100 | 15 | 746 |
| | 계 | 389 | 192 | 208 | 376 | 181 | 33 | 1,379 |

## ▌그림 13.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건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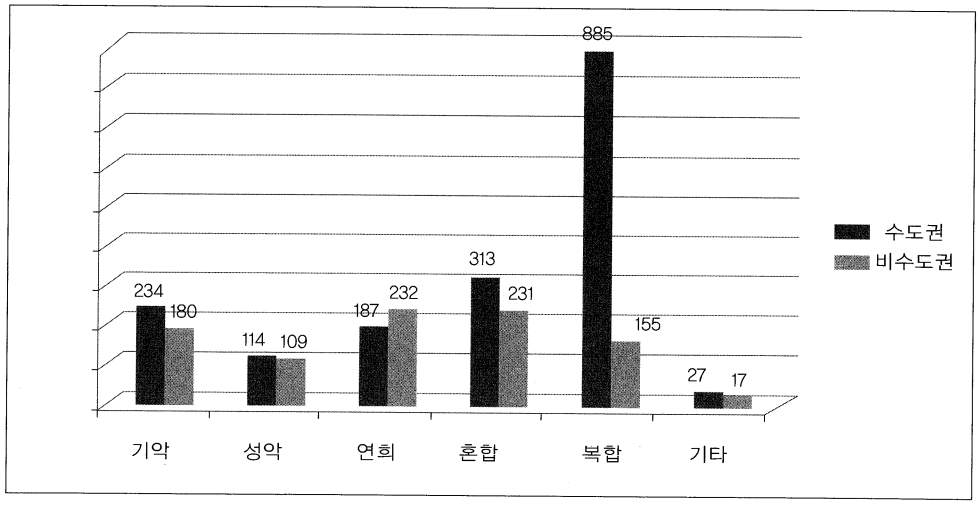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공연 건수와 확연히 다른 경향이 드러난다. 연희를 제외하고는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우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복합 장르에 있어서의 차이는 거의 6배에 이른다. 이러한 큰 차이의 주된 원인은 복합 장르에서 상설 공연과 같은 장기 공연이 비수도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8.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횟수 | 수도권 | 234 | 114 | 187 | 313 | 885 | 27 | 1,760 |
| | 비수도권 | 180 | 109 | 232 | 231 | 155 | 17 | 924 |
| | 계 | 414 | 223 | 419 | 544 | 1,040 | 44 | 2,684 |

**▌그림 14.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횟수 분포(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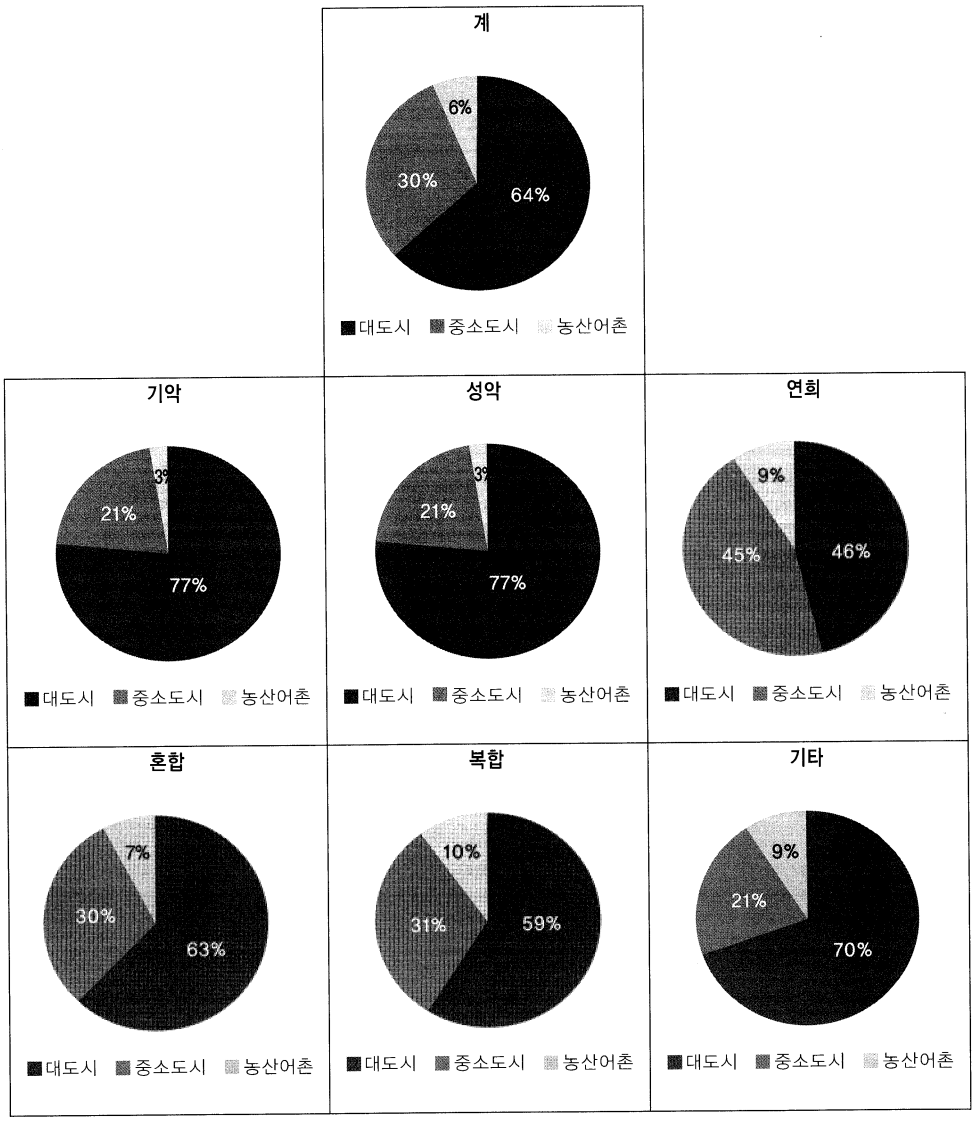



세부 장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나누어 다시 비중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다.

## ▌표 19.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대도시 | 298 | 117 | 96 | 235 | 107 | 23 | 876 |
| | 중소 도시 | 81 | 65 | 93 | 113 | 56 | 7 | 415 |
| | 농산어촌 | 10 | 10 | 19 | 28 | 18 | 3 | 88 |
| | 계 | 389 | 192 | 208 | 376 | 181 | 33 | 1,379 |

## ▌그림 15.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 비율 ▐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19>와 <그림 15>는 거의 대부분의 장르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16개 시도별로 살피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점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어쩔 수 없이 잠재 관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배후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에는 세부 장르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 기악은 국악의 세부 장르 중에서도 가장 대도시 중심적인 장르로 보인다. 연희는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 공연 건수상 큰 차이가 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국악 장르다. 공연 횟수에서는 공연 건수에서 나타난 이런 양상이 더 극단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복합, 혼합, 연희 등 공연당 공연 횟수가 많은 공연이 많이 포함된 장르에서 정도가 심해진다.

**▌표 20.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공연 횟수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횟수 | 대도시 | 321 | 144 | 252 | 360 | 919 | 29 | 2,025 |
| | 중소 도시 | 83 | 67 | 143 | 154 | 98 | 12 | 557 |
| | 농산어촌 | 10 | 12 | 24 | 30 | 23 | 3 | 102 |
| | 계 | 414 | 223 | 419 | 544 | 1,040 | 44 | 2,684 |

# VI. 2009년 국악 분야 시작월 기준 공연 현황

## 1. 기악 공연은 하반기, 복합 공연은 상반기에 집중

세부 장르별로 공연 시작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표 21>, <표 22>와 같다. 이 중 각 장르별로 상위 4개월을 짙은 색으로 칠해 표시해 두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기본적인 시기적 특징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악은 9~12월에 이르는 시기에, 복합 공연은 3~6월에 이르는 시기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혼합 형태의 공연과 연희는 기악이나 복합처럼 특정 시기에 쏠림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장르에서 여름과 겨울을 피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양상의 유일한 예외가 혼합 형태의 공연이다. 이

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악을 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국악 전체 자료를 기본으로 한 분포에서 볼 수 있었던 완만한 형태의 M자형 분포는 세부 장르별로 그래프화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나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에서 더욱 그렇다.

**▌표 21. 2009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분포 ▐**

| 장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기악 | 4 | 4 | 19 | 29 | 33 | 38 | 16 | 26 | 47 | 66 | 60 | 47 | 389 |
| 성악 | 4 | 4 | 14 | 16 | 14 | 26 | 11 | 9 | 23 | 18 | 28 | 25 | 192 |
| 연희 | 4 | 6 | 9 | 17 | 27 | 29 | 7 | 26 | 16 | 20 | 23 | 24 | 208 |
| 혼합 | 15 | 18 | 11 | 27 | 33 | 33 | 35 | 41 | 42 | 46 | 39 | 36 | 376 |
| 복합 | 5 | 10 | 25 | 20 | 21 | 18 | 8 | 15 | 16 | 10 | 16 | 17 | 181 |
| 기타 | 0 | 0 | 0 | 2 | 4 | 4 | 2 | 0 | 5 | 7 | 5 | 4 | 33 |
| 계 | 32 | 42 | 78 | 111 | 132 | 148 | 79 | 117 | 149 | 167 | 171 | 153 | 1,3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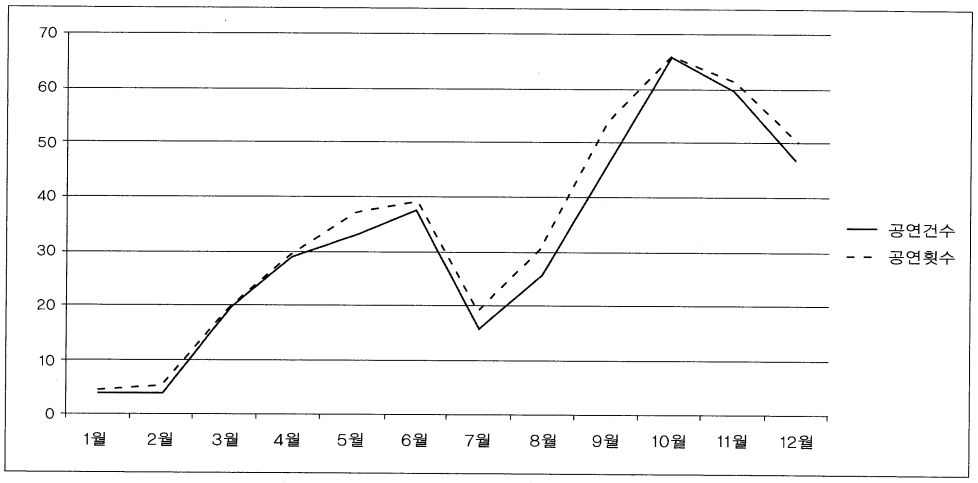
**▌표 22. 2009년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분포 ▐**

| 장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기악 | 4 | 5 | 19 | 29 | 37 | 39 | 19 | 31 | 54 | 66 | 61 | 50 | 414 |
| 성악 | 15 | 4 | 15 | 21 | 14 | 26 | 14 | 11 | 27 | 20 | 31 | 25 | 223 |
| 연희 | 7 | 36 | 27 | 30 | 74 | 40 | 14 | 36 | 21 | 28 | 69 | 37 | 419 |
| 혼합 | 45 | 21 | 11 | 36 | 58 | 43 | 62 | 55 | 61 | 57 | 44 | 51 | 544 |
| 복합 | 630 | 11 | 44 | 78 | 102 | 38 | 14 | 32 | 22 | 14 | 16 | 39 | 1,040 |
| 기타 | 0 | 0 | 0 | 2 | 4 | 9 | 5 | 0 | 7 | 8 | 5 | 4 | 44 |
| 계 | 701 | 77 | 116 | 196 | 289 | 195 | 128 | 165 | 192 | 193 | 226 | 206 | 2,684 |

기악 장르는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M자형 곡선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으며 4/4분기의 비중이 크다는 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듯 그려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작은 차이지만 4~6월, 7~10월에 이르는 시기에 2회 이상의 공연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16. 2009년 기악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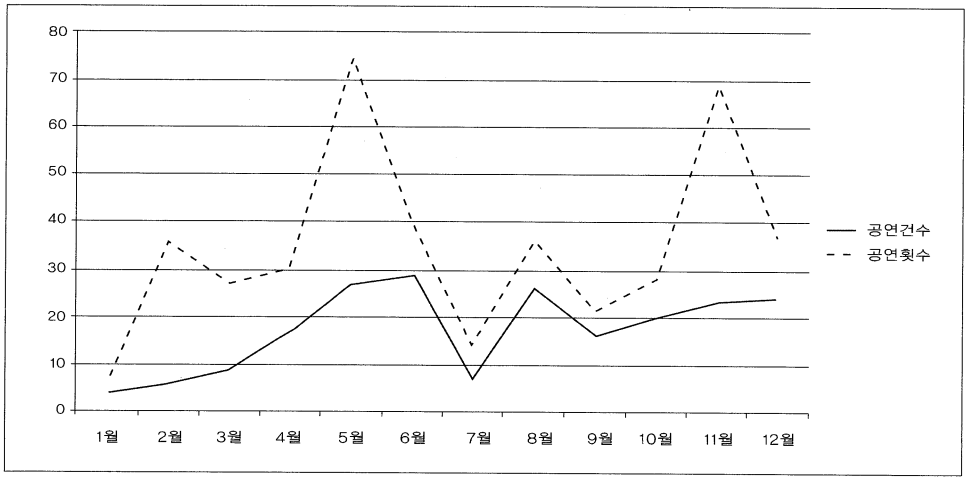



이에 비해 연희는 공연 건수에 있어서만 완만한 M자형 곡선이 나타나며,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간의 차이가 시기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M자형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은 공연 시작월별로 공연 건수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공연 횟수는 시기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해서, 특히 4~6월, 10~ 12월 사이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7. 2009년 연희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혼합 형태의 공연은 국악 내 다른 장르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유형의 시기 분포를 보인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모두 M자형 곡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물론, 공연 건수에서는 3월 이후 큰 오르내림 없이 희미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름과 겨울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5월과 7~8월, 11월에 공연 횟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학 기간을 목표로 기획되는 청소년·가족 대상의 국악 대중화를 위한 공연이 대개 혼합 형태의 공연으로 마련되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림 18. 2009년 혼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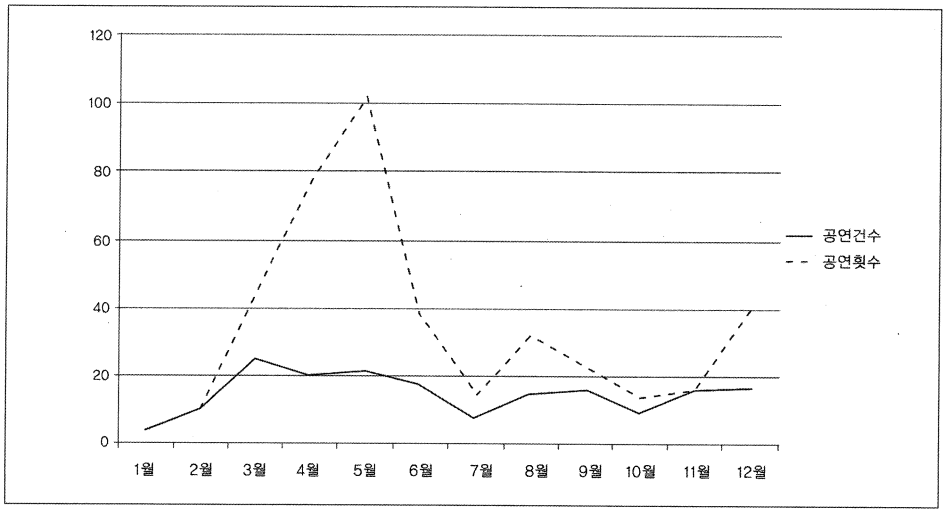

복합 공연의 공연 건수에서는 아주 희미한 M자형의 추이가 엿보인다.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이러한 추이는 마찬가지지만 그 형태가 공연 건수와 매우 다르다.

공연 건수상에서 3~6월 사이에 나타난 완만한 쏠림이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가파른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차이의 대표적인 예다.

복합이나 연희 형태의 국악 공연이 이처럼 공연당 공연 횟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비를 비롯한 제작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19. 2009년 복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1월 연간 공연 제외) ▐




## 2. '파도 효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건수를 보면 5~6월, 10~11월 사이에 공연건수가 늘었다(음영표시). 단순히 이월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공연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다. 이는 수도권 내 공연장에서 첫 무대가 오른 뒤, 동일한 공연이 비수도권의 다양한 공연장을 순회하며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변화다. 편람의 공연 건수 자료는 동일한 공연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연장에서 연속되지 않은 시점에 무대에 오르면 별도의 건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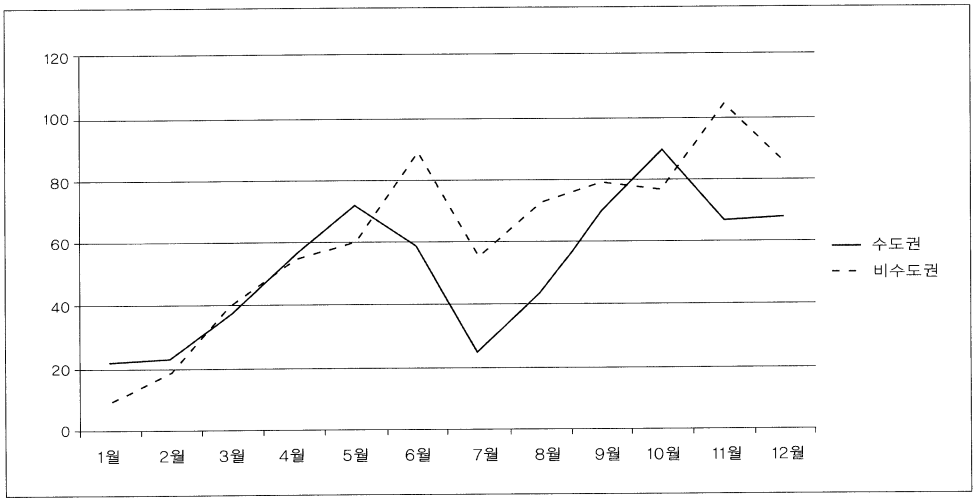
▌표 23.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수도권 | 22 | 23 | 38 | 56 | 72 | 59 | 24 | 44 | 70 | 90 | 67 | 68 | 633 |
| 비수도권 | 10 | 19 | 40 | 55 | 60 | 89 | 55 | 73 | 79 | 77 | 104 | 85 | 746 |
| 계 | 32 | 42 | 78 | 111 | 132 | 148 | 79 | 117 | 149 | 167 | 171 | 153 | 1,379 |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좀 더 또렷하긴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

작월별 분포에도 M자형 곡선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별 공연 건수 그래프를 나란히 그려놓으면 이와는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M자형 곡선에서 두 정점에 해당되는 시기 부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래프 사이에 일종의 파도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 20.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




공연 횟수에서도 공연 건수상에서의 관계와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볼 수 있다. 다만, 상반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5~6월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하반기는 분명치 않은 특성을 보인다. 이월 양상도 비수도권에서 되레 늘어났던 공연 건수와 달리 공연 횟수는 5월에 수도권에서 더 많은 횟수의 공연이 열리고 6월에 보다 적은 횟수의 공연이 비수도권에 이어지는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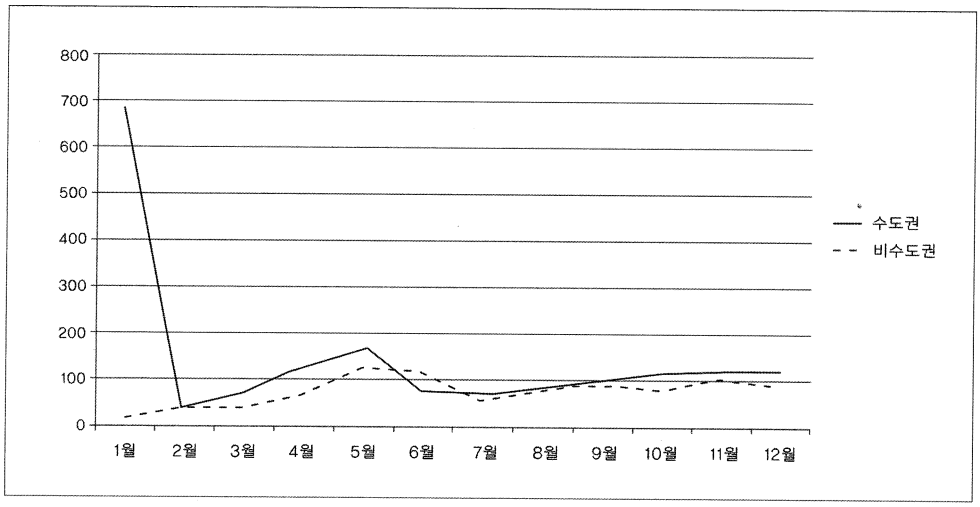
**▌표 24.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수도권 | 685 | 37 | 72 | 128 | 167 | 76 | 68 | 81 | 98 | 111 | 121 | 116 | 1,760 |
| 비수도권 | 16 | 40 | 44 | 68 | 122 | 119 | 60 | 84 | 94 | 82 | 105 | 90 | 924 |
| 계 | 701 | 77 | 116 | 196 | 289 | 195 | 128 | 165 | 192 | 193 | 226 | 206 | 2,684 |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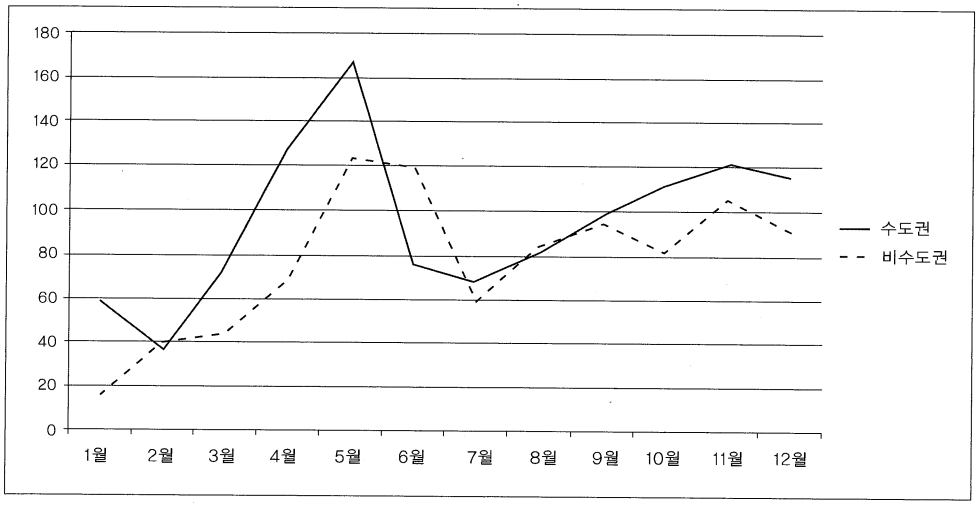
<표 24>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21>과 같은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월에 시작한 소수의 장기 공연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

**▌그림 21.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




소수의 장기 공연을 제거해서 보정한 뒤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또렷하게 파도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월 현상을 5~6월 사이에 볼 수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보정 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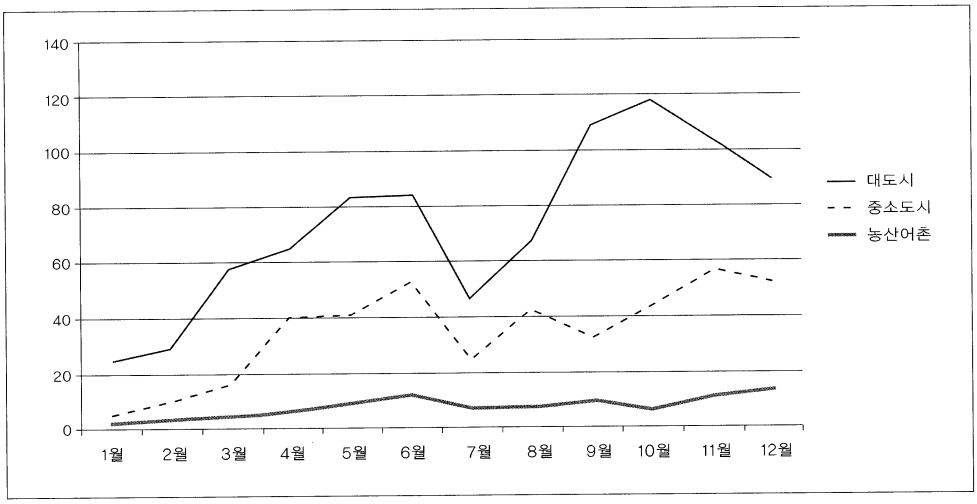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양상을 종합하면 5~6월 사이, 10~11월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공연의 순회로 인한 '파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공연 건수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공연 횟수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나타난 '파도 효과'는 수도권에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해 살핀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파도 효과'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도시로의 이동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건수 분포는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 월별 양상은 거의 나란하다. 물론 절대적으로 공연 건수가 적은 농산어촌에서는 월별 변화에 뚜렷한 양상이 도드라지지 않는다.

**▌표 25.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도시 | 25 | 29 | 57 | 65 | 83 | 84 | 47 | 68 | 108 | 118 | 104 | 88 | 876 |
| 중소 도시 | 5 | 10 | 17 | 40 | 40 | 53 | 25 | 42 | 32 | 43 | 56 | 52 | 415 |
| 농산어촌 | 2 | 3 | 4 | 6 | 9 | 11 | 7 | 7 | 9 | 6 | 11 | 13 | 88 |
| 계 | 32 | 42 | 78 | 111 | 132 | 148 | 79 | 117 | 149 | 167 | 171 | 153 | 1,379 |

**▌그림 23.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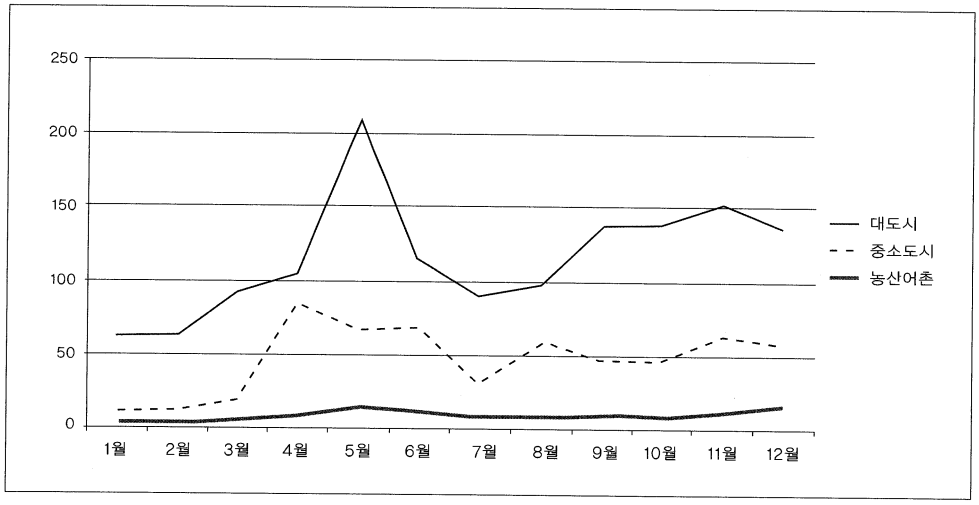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KOR.KOUNCIL.OR.KR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월별 양상이 나란히 나타나는 것은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월의 장기 공연을 보정한 그래프를 보면 5월에 따른 월보다 공연 횟수의 편차가 더 커지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26.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도시 | 688 | 63 | 93 | 104 | 210 | 114 | 90 | 99 | 137 | 139 | 153 | 135 | 2,025 |
| 중소 도시 | 10 | 11 | 18 | 85 | 65 | 69 | 31 | 58 | 46 | 46 | 62 | 56 | 557 |
| 농산어촌 | 3 | 3 | 5 | 7 | 14 | 12 | 7 | 8 | 9 | 8 | 11 | 15 | 102 |
| 계 | 701 | 77 | 116 | 196 | 289 | 195 | 128 | 165 | 192 | 193 | 226 | 206 | 2,684 |

**▌그림 24.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보정 후) ▌**




# Ⅶ. 2009년 국악 분야 주요 공연장별 공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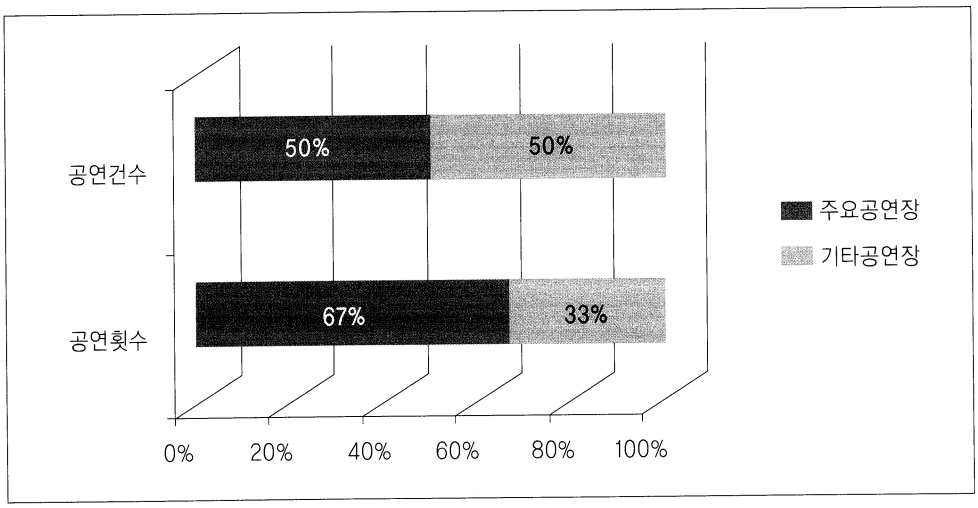
## 1. 주요 14개 공연장이 공연 건수 50%, 공연 횟수 67% 차지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연간 국악 공연이 3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

은 모두 14개다. 서울에 위치한 공연장이 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부산, 경기, 광주, 대전, 전북(남원), 전남(진도), 인천에 각기 1개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14개 공연장이 전체 국악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연중 공연의 절반을,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67%를 차지한다.

**▌그림 25. 2009년 주요 14개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중 ▐**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립국악원이 250건으로 가장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0건으로 그 뒤를 잇는 서울남산국악당과도 격차가 매우 크다. 공연 횟수에서는 명동·정동극장이 연간 634회로 가장 활발히 국악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 중 626회는 정동극장의 <미소(MISO)>의 오픈 런에 힘입은 것이다. 국립국악원은 289회로 정동극장 다음으로 국악 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연장이다.

국립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은 모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큰 차이가 없다. 국악 공연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지닌 기관인 만큼 특정 공연의 다회 공연보다는 보다 많은 작품에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27. 2009년 주요 14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 공연장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
| 명동·정동극장 | 8 | 634 |
| 국립국악원 | 250 | 289 |
| 서울남산국악당 | 90 | 214 |
| 국립극장 | 63 | 159 |
| 국립부산국악원 | 87 | 92 |
| 대구문화예술회관 | 50 | 78 |
| 경기도국악당 | 7 | 62 |
| 장충체육관 | 1 | 44 |
| 광주문화예술회관 | 35 | 41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13 | 39 |
| 국립민속국악원 | 32 | 37 |
| 국립남도국악원 | 29 | 33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20 | 32 |
| 인켈아트홀 | 1 | 32 |
| 계 | 686 | 1,786 |

## 2.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과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공연장

주요 14개 공연장은 공통점이 많지만, 세부 장르별 특성을 자세히 살피면 그 안에서도 유형화가 가능한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공연장은 다양한 장르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소개하는 반면, 다른 공연장은 특정 장르에 집중한다.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경우는 어느 장르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다.

▌표 28. 2009년 주요 14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

| 공연장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명동·정동극장 | 6 | 0 | 1 | 0 | 1 | 0 | 8 |
| 국립국악원 | 102 | 26 | 10 | 89 | 12 | 11 | 250 |
| 서울남산국악당 | 19 | 18 | 15 | 23 | 12 | 3 | 90 |

(계 속)

| 공연장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국립극장 | 21 | 14 | 11 | 7 | 10 | 0 | 63 |
| 국립부산국악원 | 30 | 7 | 4 | 39 | 6 | 1 | 87 |
| 대구문화예술회관 | 20 | 2 | 5 | 14 | 8 | 1 | 50 |
| 경기도국악당 | 2 | 0 | 0 | 3 | 2 | 0 | 7 |
| 장충체육관 | 0 | 0 | 1 | 0 | 0 | 0 | 1 |
| 광주문화예술회관 | 12 | 3 | 6 | 8 | 4 | 2 | 35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2 | 0 | 3 | 5 | 3 | 0 | 13 |
| 국립민속국악원 | 6 | 6 | 7 | 8 | 4 | 1 | 32 |
| 국립남도국악원 | 3 | 8 | 2 | 11 | 4 | 1 | 29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2 | 4 | 5 | 3 | 6 | 0 | 20 |
| 인켈아트홀 | 0 | 0 | 0 | 0 | 1 | 0 | 1 |
| 계 | 225 | 88 | 70 | 210 | 73 | 20 | 686 |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에는 국립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등 국립국악원 소속의 공연장과 국립극장, 서울남산국악당,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경기도국악당 등이 포함된다.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공연장은 정동극장, 장충체육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켈아트홀 등이다.

**▌표 29. 2009년 주요 14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공연 횟수 ▐**

| 공연장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명동·정동극장 | 7 | 0 | 1 | 0 | 626 | 0 | 634 |
| 국립국악원 | 108 | 27 | 16 | 104 | 21 | 13 | 289 |
| 서울남산국악당 | 29 | 36 | 35 | 72 | 37 | 5 | 214 |
| 국립극장 | 25 | 18 | 42 | 33 | 41 | 0 | 159 |
| 국립부산국악원 | 30 | 7 | 6 | 41 | 6 | 2 | 92 |
| 대구문화예술회관 | 20 | 2 | 11 | 17 | 26 | 2 | 78 |
| 경기도국악당 | 3 | 0 | 0 | 22 | 37 | 0 | 62 |
| 장충체육관 | 0 | 0 | 44 | 0 | 0 | 0 | 4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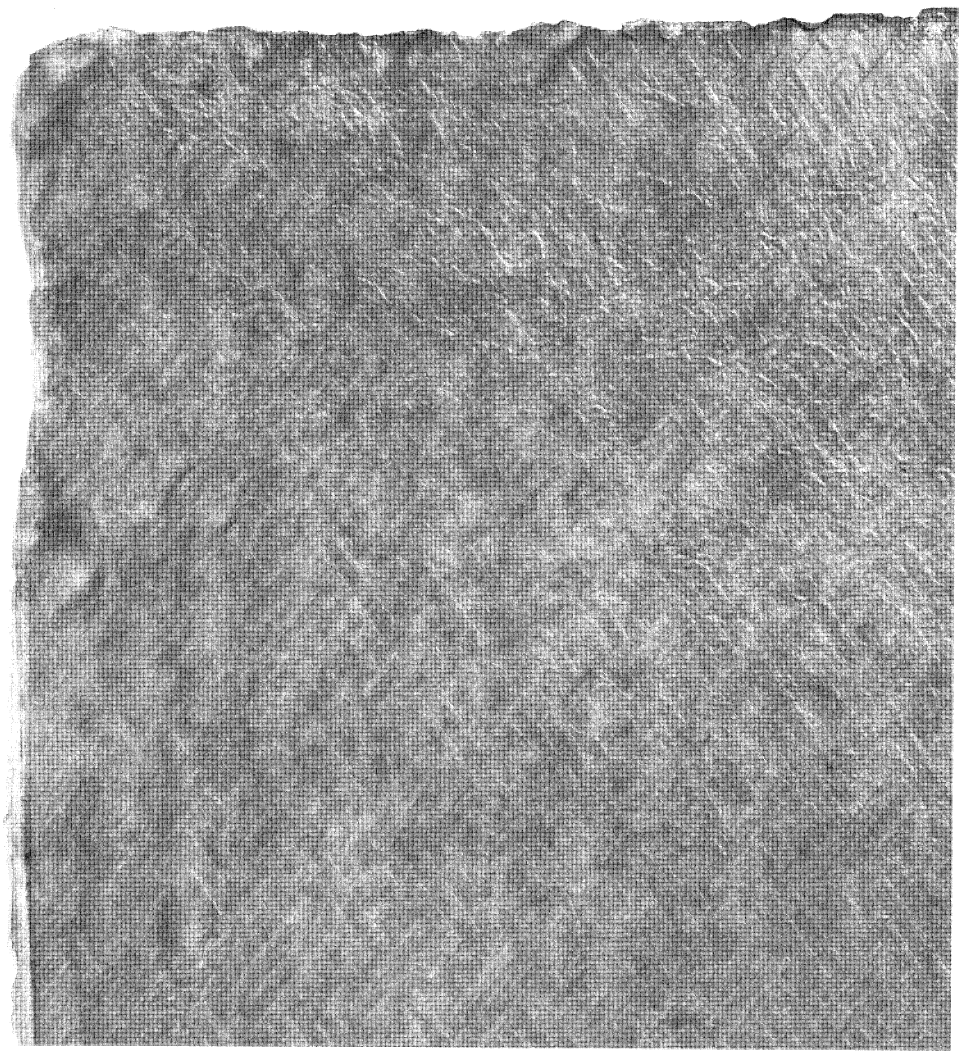
| 공연장 | 기악 | 성악 | 연희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광주문화예술회관 | 13 | 6 | 7 | 8 | 5 | 2 | 41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2 | 0 | 4 | 5 | 28 | 0 | 39 |
| 국립민속국악원 | 6 | 6 | 12 | 8 | 4 | 1 | 37 |
| 국립남도국악원 | 3 | 8 | 2 | 11 | 8 | 1 | 33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2 | 4 | 5 | 3 | 18 | 0 | 32 |
| 인켈아트홀 | 0 | 0 | 0 | 0 | 32 | 0 | 32 |
| 계 | 248 | 114 | 185 | 324 | 889 | 26 | 1,786 |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국립국악원과 국립부산국악원은 규모에서 차이가 날 뿐 기악과 혼합 공연이 주류를 이루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 국립민속국악원은 연희가 가장 활발한 가운데 성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성악의 비중이 높은 것은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국립남도국악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활발한 장르는 각각 기악, 혼합 형태의 공연으로 서로 다르다. 경기도국악당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보다는 복합과 혼합 형태의 공연에 치중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공연장은 주로 특정 공연의 다회 공연이나 상설 공연을 진행한 공연장들이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상설 공연에 집중한다면, 정동극장, 인켈아트홀은 특정 작품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양 악



2010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2009년 양악 총론

황성호(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Ⅰ. 머리말

2009년은 전년의 세계적 경제침체에 더하여 신종플루라는 악재로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한 한 해였다.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가운데 비교적 안전하다던 우리나라에도 국제 교류 행사들이 본격 시작되는 여름 시즌에 들어 7월에만 환자가 1,000명에 육박했으며 『제주도국제합창제』, 『경남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에서 많은 외국인 감염자들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2009 제14회 제주국제관악제』 역시 일부 프로그램의 취소, 파행을 거듭하다 마지막 날 전면 취소되었고, 원주 따뚜 주관의 『1회 아시아 태평양 마칭밴드 챔피언십 2009 원주대회』도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잇달았다.

이 상황에서도 음악계는 경제적 압박에 덜 민감한 개인 발표회가 많아 외형적으로는 기획사들의 상업적 공연과 기업 협찬이 필수인 오페라 등의 공연만 줄었을 뿐 여전히 분주했다. 경기침체와 환율 폭등 등으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내한공연이 여럿 취소된 중에도 기이하게 세계적 '필'들의 내한공연은 증가했다.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는 런던 필, 베를린 필, 빈 필, 뉴욕 필 등 세계적 명성의 오케스트라가 내한해 애호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티켓링크 매출 집계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예매율 탑 10 중 평균 3~4위가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발레 등 고급 예술 분야가 차지했다. <예프게니 키신 리사이틀>의 경우 고가의 티켓에도 불구하고 예매가 폭주하여 예매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소위 '베토벤 바이러스' 효과와 더불어 본격적인 스타 마케팅 등으로 불황 속에서도 2009년

상반기 예술의전당 전년 대비 총 관객 수가 7%나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비록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좋은 공연과 홍보 마케팅이라면 값에 상관없이 수요는 살아 있음을 뜻했다. 또한 공공 지원금 제도가 그나마 우리 공연계의 버팀목임을 증명한 해이기도 했다. 은연중 우리 주변의 많은 공연들이 국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기획사들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히트 프로젝트 중 적지 않은 것들이 지원금 혜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상업과 순수 활동이 혼재되어 지원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언젠가 정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해 늘어만 가는 음악제 현상해 여전해 여러 국제음악제가 이 해에 새로이 탄생했다. 물론 각기 필요에 의한 것이겠지만 세계의 한 지역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가 세계화한 현재, 이에 걸맞은 국제음악제는 과연 어떤 기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2009년 음악계의 특징 중 하나인, 음악 공연계의 전문화와 클래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향후 활력 요소이면서도 우려의 대상이기도 한 음악 분야의 상업화 현상을 시작으로 한 해 주요 공연들을 정리해본다.

## II. 클래식 음악의 상업화

일반인들의 와인에 대한 관심처럼 대중들의 문화취향 고급화 경향은 오페라, 클래식 음악, 순수미술, 발레와 같은 소위 고급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증명된다. 그러자 공연 자체를 고급 브랜드화하는 경향이 2009년에 두드러졌다. 사실 이는 2007년 앙상블 디토의 탄생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클래식 애호가가 아닌 사람들을 음악회장으로 불러모았고 앨범을 구입하게 해서 결국 클래식 음악 팬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대중들이 클래식 음악에 관심 갖게 된 이유 중에는 2008년 후반에 대중적으로 히트한 TV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와 김연아의 2008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사용된 <세헤라자데>, <죽음의 무도회>의 영향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9년에 이러한 클래식 음악의 고급 브랜드화는 불경기와 맞물려 더욱 주요한 마케팅 전략이 되었다. 연주가는 이제 연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어야 하고 말 잘해야 하고, 친절한 듯, 신비한 듯하고……. 한마디로 멋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남자 아이돌이어야 했다. 팬들은 당연히 젊은 여성과 아줌마들……. 여성층의 젊고 멋진 문화계 남성 선호 현상은 뮤지컬을 비롯한 대중문화 시장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것이기에 낯설지 않은 사회 현상이었다. 젊은 여성 관객을 타깃으로 한 기획 공연이 클래식 공연 대중화를 이끈 2009년이다. 클래식 스타 리처드 용재 오닐을 주축으로 한 '디토 플러스', 첼리스트 송영훈 등 네 명의 실내악 연주자 'MIK 앙상블', '노부스 콰르텟' 등 젊은 미남 실내악 연주자들의 기획공연이 이러한 예다.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디토'의 경우 '디토'란 명칭은 더 이상 연주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마케팅 프로젝트의 근원이 된다. 마치 '소녀시대'가 가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남는 것처럼, 그리하여 여러 파생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디토'는 다양한 부가사업을 위한 브랜드로서, 프로젝트의 기본 단위로 존재한다. 그리하여 디토 페스티벌, 디토 프렌즈, 디토 카니발 등 다양하게 변주된 후속 버전 상품들을 상황에 따라 계속 서비스함으로써 그들의 인기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결국 연주가들은 기획사의 철저한 상업 시스템 속에 관리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대중음악계의 프로젝트팀 운영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같다. 결국 대중들의 취향과 선택은 이미 기획사들과 이에 편승한 매스컴에 의해 제어되고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국제 유명 콩쿠르 입상을 통해 검증된 재능 있는 어린 연주가들이 사회적으로 과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더욱 기량을 키워나가야 할 그들의 무분별한 인상의 잦은 연주와 그 질에 상관없는 과찬은 주최측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연주자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분별한 연주와 무의미한 찬사는 그들의 음악에 대한 태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결국 그들의 재능을 단시간에 소진하게 할 것이다. 기획사 입장에서 그들의 후속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칫 소모품처럼 이용될 수 있다. 이들을 잘 보호, 관리하는 것이 절실한 때다.

이와는 달리 2009년 불경기를 감안한 염가 콘서트도 일반화된 현상 중 하나였다. 과거 경기도립교향악단이 시작한 '천원의 콘서트'류는 세종문화회관(천원의 행복), 서울시향 등이 이었으며 현재 여러 교향악단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한시적이고 특별한 기획으로서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매월 첫 주 월요일만 값싸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 이 일이 클래식은 비싼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일시적으로 관객층을

넓힐지는 몰라도 과연 효과가 지속적일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석 매진인 염가 콘서트의 경우에도 정작 객석 점유율이 70~80%인 경우가 많아 결국 허수 관객인 경우가 많고, 결국은 정상적인 티켓 시장을 교란시킬 염려도 있다. 게다가 공공 단체라면 모를까 민간 단체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Ⅲ. 정명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2008년 불경기 속에서도 목표 수입에서 11% 초과한 30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정명훈을 예술감독으로 재계약하여 그간의 사업들을 이어가게 했다. 아울러 2006년부터 상임작곡가로 활동하면서 현대음악 프로젝트, 『아르스 노바』를 이끈 진은숙도 재선임했다. 2009년 사업 중 주목할 것은 정명훈의 베를리오즈,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트라빈스키 등의 대편성 관현악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피스 시리즈』와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듣기 힘들었던 레퍼토리들로 구성된 『서울시향의 실내악 시리즈』였다. 이들 시리즈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며 폭넓은 레퍼토리들을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했다. 또한 이는 지속적으로 자기 단련하려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의지 표명이라고도 생각한다.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관현악과 실내악 연주회로 펼쳐졌는데, 이 중 특기하고 싶은 것은 4월 24일 LG아트센터에서 있었던 콘서트였다. 리게티, 푸러, 진은숙 등 5인의 서로 다른 음악세계를 파노라마처럼 펼친 지휘자 발두르 브뢰니만. 그가 마이크로 폴리포니 수법으로 짜여진 음향의, 1970년대 리게티의 <샌프란시스코 폴리포니>를 시작하는 순간 범상치 않은 느낌과 더불어 그와 서울시향에 대한 신뢰감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작곡가마다의 언어는 더 이상 새로운 기법이나 개념의 실험, 시도가 아닌 오랜 기간 숙성, 정제된 것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해도 구체적이며 명쾌했고 심지어 감각적이기까지 했다. 겉 구조는 다변적이고 복잡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이날의 압권이었던 진은숙의 <로카나>는 그것이 오케스트라 음향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그가 추구한 음향의 요지경 속에 청중을 몰입하게 했다. 산스크리트어로 '빛의 방'을 뜻한다는 <로카나>에서 소리는 빛이 되어 난무하며 사라지다가는 마그마처럼 분출되었다. 이 현란한 작품은 한마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디로 진은숙이 얼마나 오케스트라, 아니 음악을 다룸에 있어 자신만만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의도는 직설이 아니면서도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듣는 이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금관들의 포효 속 사이를 광속으로 넘나드는 빛줄기의 초현실주의적 판타지를 읽었다. 그러면서도 스트라빈스키, 드뷔시, 작곡가의 스승 리게티에 대한 오마주도 느꼈다면 과민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이고 집중했던 이 작품의 여운은 아직도 남았다.

## IV. 국제음악제로 본격 행보를 나선 『통영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는 '동과 서'라는 주제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2009 아시아태평양현대음악제』와 함께 열렸다. 2002년 작곡가 윤이상을 기려 시작한 『통영국제음악제』 주최측은 음악제의 국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총감독으로 알렉산더 리브라이허를 영입, 2011년부터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창단을 필두로 본격 활동케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휘자이기도 한 리브라이허는 개막 연주회에서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를 지휘, 이스라엘 출신 작곡가 오데 타미미의 <오케스트라의 출발>, 김자향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합주협주곡>, 일본의 도시오 호소가와의 <생황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구름과 빛>, 윤이상의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하여 호평받았다. 이번 음악제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쉽지 않은 톤 클러스터의 음악 리게티의 <론타노>와 다케나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비롯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6번>을 연주, 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영국의 노던 신포니아의 두 차례 연주회, 늦은 밤에 이루어진 실내악 음악회, 『나이트 스튜디오 시리즈』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뛰어난 연주자들에 의해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이 연주되는 『통영국제음악제』이기에 이는 먼 타지에서도 기다리고, 또 마다 않고 달려오는 진정, 음악 팬들을 위한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음악제에 대한 팬들의 높은 관심은 개막 당일 오전에 이미 개막 공연을 비롯 다섯 개의 공연이 전석 매진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좌석 점유율이 평균 93%에 이르렀다는 주최측의 설명도 있었다. 또한 도시의 음악제 열기를 달구기 위해 주최측은 시즌 1주 전부터 프린지 공연도 준비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보여주었다.

『통영국제음악제』와 같이 열린 『2009 아시아태평양현대음악제』는 아시아작곡가

연맹(ACL)의 28차 대회로 1979, 1993, 2002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네 번째 행사였다. 통영에서는 아시아작곡가연맹의 행사로서 <아시아의 젊은 작곡가들>과 <한국의 작곡가들>의 연주회가 열렸으며 3월 31일부터 서울로 무대를 옮겨 4월 2일까지 앙상블 비, 앙상블 리니아, 카로스 앙상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통한 ACL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 V. 『2009 교향악축제』

2009년은 1989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교향악축제』가 2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이 축제는 국내 최대의 축제로서 국내 오케스트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중앙 무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선보이는 지방 오케스트라에게는 한 단계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이번에는 전국 17개 교향악단만 참가, 또 그중 절반이 서울, 경기 지역의 오케스트라여서 다양한 지방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신 20~30대의 젊고 실력 있는 최고의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양고운, 김현아, 스테판 재키브, 첼리스트 고봉인, 피아니스트 임동민, 김태형 등 뛰어난 연주가들이 대거 참여, 기대를 모았다.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된 신예 연주자, 서민정, 김현지(이상 바이올린), 이민호(바순)도 협연했다. 축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지휘자가 무대에 서서 여자경이 KBS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한편 김청묵의 <나팔리 해안>, 박준영의 <디 클랑판타지>, 박태종의 <예감의 새>, 황성호의 <파랑도> 등 창작곡 4편도 소개되었다.

## VI. 『대한민국실내악작곡제전(Korean Music Expo)』

이는 "창작이 살아야 문화가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한국 창작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예술의전당과 한국작곡가협회가 공동으로 매달 한 차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실시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창작음악은 결코 음악계의 변방일 수 없다. 이는 우리 연주가들의 산 토양이 되어야 하며 우리 시대 유산으로 남아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현재 우리 삶의 중요한 증거다. 지금 당장 많은 관객을 모으지는 못해도, 또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이는 미래에 대한 문화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한국 작곡가들의 많은 실내악들이 만들어져 들려지고 또 연주가들에 의해 선택되어 재연될 것이다.

## Ⅶ. 기타 국제음악제

몇 년 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제음악제가 『대전국제음악제』, 『김해국제음악제』,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내장산국제음악제』(정읍), 『전북국제음악제』(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행해지고 있다. 개중에는 목적과 대상, 성격이 분명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음악제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제음악제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참여한 음악회들을 모아 국제음악제로 부르는 것도 흔하다. 과거와 달리 외국 연주가들의 내한 연주가 흔해졌고 국내 연주가들의 해외 활동도 잦아져 국제음악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글로벌한 음악회는 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 국제음악제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체단체의 국제 행사 개최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현 상황은 일종의 거품처럼도 느껴지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잘만 살린다면 성공적인 외국 음악제들처럼 지역문화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거장과의 만남'이란 부제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회의 관현악 연주회로 열린 『2009 대한민국국제음악제』는 아직까지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하다. 누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단체인 한국음악협회가 연관된 『대한민국국제음악제』라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대표해야 할 음악제'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일단 24세 바이올리니스트 소콜로프 등 젊은 연주가들을 '거장들과의 만남'이란 타이틀로 부른 주최측의 의도가 답답하고, 작은 『교향악 축제』 같은 구성의 KBS 교향악단, 원주시향, 제주시향,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참여도 그렇다. 게다가 매 해 지적되는 것이지만 온통 외국 작품으로만 짜여진, 여러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를 모은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음악제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렇듯 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음악제가 적지 않은 국고 예산, 그것도 매해 지속적인 지원이 확정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책임과 사명감

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가 시작되어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의해 'All Together in Music'을 주제로 음악을 통한 국제적 화합의 축제를 지향한 음악제에는 펜데레츠키를 비롯 아르토 노라스, 랄프 고도니, 폴란드국립방송교향악단 및 김정원 등 동양과 서양, 거장과 신예, 모슬렘과 유대인을 아우르는 등 다양한 음악가들이 참여한 축제였다. 그러나 음악제 탄생과 더불어 음악제 감독의 작품을 주 레퍼토리의 하나로 연주하는 것은 피했으면 했다. 감독은 공인으로서 결코 사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라도 애썼어야 할 것이다.

슐로모 민츠의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를 완주한 독주회를 비롯 에벤 사중주단, 주피터 사중주단 등 세 사중주단이 나눠서 한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회, 이구데스만과 주형기의 유모어 넘치는 공연 등 『2009 서울스프링실내악 축제』도 즐거운 여운을 남겼다.

## Ⅷ. 합창과 오페라

2009년 합창계의 가장 반가운 일은 『제1회 고양합창페스티벌』(9.2-12)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 국내 전문 합창단들의 종합 무대로서 예술의전당에서의 『교향악축제』가 있다면 고양아람누리의 합창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하다. 고양, 안양, 성남, 광주, 안산, 대전, 인천, 부천시립 합창단과 부천필코러스가 참석했다.

이외에 몇몇 국제 합창제가 열렸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성격상 플루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았는데, 결국 『2009 제주국제합창제』(7.15-19)가 행사 중 참가 외국인 합창 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A1) 의심 환자가 발생, 외국인 110명이 무더기 격리 조치되면서 일부 공연이 취소되어 난항을 겪었다.

윤학원 교수가 이끈 『2009 인천세계합창제』(8.26-30)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문화행사의 하나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아마코드(Amarcord), 인도네시안 유스 콰이어(Indonesian Youth Choir), 오레야 콰이어 카펠라(Oreya Choir Capella), 캔자스시티코랄(Kansas City Chorale), 인천시립, 창원시립, 안산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립합창단,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 합창단 등 국내외 8개 팀이 참가했다.

합창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립합창단의 활동이다. 2008년 6월에 세 번째로 국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맡은 나영수는 새로운 창작합창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본격 가동하여 5, 6월 정기연주회를 한국 합창창작곡으로만 발표했으며, 10월 정기연주회에서는 창작 칸타타 <서덕출>을 초연했다.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를 동요로 노래하는 서덕출을 그린 이강백 대본과 김기영 작곡의 작품이었다. <국립합창단 데뷔 콘서트>(7.9, 리사이틀홀)는 김철, 주광영 두 사람의 신인지휘자를 발굴, 6개월간 부지휘자 자격으로 지휘 경험을 쌓게 하고 연주하게 한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2007년 12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문을 닫았던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이 3월 6일 총 26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그랜드 오픈했다. 재개관 기념 공연작은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가 제작에 참여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었다. 이후 무악오페라단의 <피델리오>, 글로리아오페라단의 <라 보엠>, 국립오페라단의 <노르마> 등 총 여덟 개의 작품이 공연되어 오페라 중심 극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시작했다.

오페라계의 빅 이벤트 『대구국제오페라축제』(9.18-10.31)는 앙드레김 패션쇼, <Opera In Fashion>으로 시작해서 대구시립오페라단의 <투란도트>, 칼스루에 국립극장의 <마탄의 사수>, 대전, 대구, 고양의 세 극장 합작의 <사랑의 묘약>, 포항 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 <원이 엄마>, 로얄 오페라단의 <카르멘>이 공연되었다. 예산과 지역적 특성상 주로 대구 주변의 오페라단 공연이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날로 높아지는 대구 시민들의 이 축제에 대한 관심으로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 IX. 맺음말

불황과 신종플루 등 악재로 음악계 전반은 힘들었으나 그래도 수많은 음악인들이 음악적 열정으로 무대에 섰다. 물론 전문적으로 관리되어 안정되게 활동하는 전문 연주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금이나 자비로 자기 무대를 만드는 음악인들이다. 서양의 작곡가들의 작품과 공존하기 위해 이 땅의 작곡가들이 생존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연주가들 역시 잘 기획 관리되는 일부 연주가들과 공존하기 위해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대중적인 천편일률적 레퍼토리

나 갈라 쇼 형식을 빌린 난삽한 구성, 평이 없는 가운데 펼쳐지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연주, 과장 홍보 등인 경우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소위 잘나가는 연주자들과 그 주변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연습과 음악에 대한 진지함으로 연주자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제자나 친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후원자를 갖는 것이다. 청중을 두려워 않고 기금에 안주하여 실적 쌓기식의 연주활동을 펼치는 것은 정말 연주가로서 슬픈 일이다.

경제위기보다 무서운 것은 예술에 대한 초심을 잊고 지금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에 기금은 그 가치를 불현듯 생각나게 할 정도로 공연계의 맥을 잇게 한 주요 요인이었고 활력소였다. 그 엔진이 진가를 발휘해 우리 음악계가 예술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9년 양악 현황분석

황윤숙(문화리서치피오 대표)

## Ⅰ. 양악 공연의 연도별 추이

최근 5년간 『문예연감』 편람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양악 공연의 양적인 추이를 살필 수 있다. 물론 2008년 이전의 편람 자료는 자료조사 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이고, 공연 건수를 제외한 공연 횟수만 수집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다면 함께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차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비교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최근 5년간 양악 공연은 연간 평균 약 5,764회 무대에 올랐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많은 공연 횟수다. 자료조사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편람 전후에도 전체적인 수준엔 큰 변화가 없다. 2008년의 조사 방법을 보완해 양악 공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경로를 확대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4%(1,398회) 증가한 7,209회 수준을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양악 공연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1. 최근 5년간 양악 공연 공연 횟수 추이 ▐**

| 연 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공연 횟수 | 4,444 | 5,640 | 5,716 | 5,811 | 7,209 |

2008년부터는 자료조사 방법의 표준화와 함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를 수

집했기 때문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은 공연이 한 번 준비되면 평균 몇 회 정도 상연되는지 의미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양악의 경우 2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공연의 양적 증가는 있었지만,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는 1.12회로 변함이 없다. 양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공연이 1회 공연으로 마치는 까닭이다. 전체 6,380건 공연 중 94.5%인 6,032건이 1회 공연으로 공연예술 장르 중에서도 1회 공연의 비율이 가장 높다.

**▌표 2. 2008년과 2009년 양악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 연 도 | 2008년 | 2009년 |
|---|---|---|
| 공연 건수 | 5,181 | 6,380 |
| 공연 횟수 | 5,811 | 7,209 |
| 공연 건수/공연 횟수 비율 | 1.12 | 1.12 |

## II. 2009년 양악분야 장르별 공연현황

### 1. 양악 내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2010문예연감』의 분류 기준상 양악 분야는 기악, 성악, 오페라,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한다. 작곡발표는 장르라 여길 수 없지만, 창작 활동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 별도로 분류한다. 기타에는 재즈, 아카펠라, 뉴에이지 음악 등, 명확히 클래식 음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공연들이 분류되어 있다.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는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공연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한두 숫자로 단순화해서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이 숫자들은 개별 공연들이 품고 있을 질적인 차이와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진 못하지만, '2009년 클래식 공연계'라는 숲의 얼개를 한눈에 보여준다.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기악이 3,916건으로 62%를 차지해 다른 장르를 압도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성악 분야가 1,047건으로 1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격차를 쉽게 알 수 있다. 혼합(9%), 복합(4%), 오페라(3%)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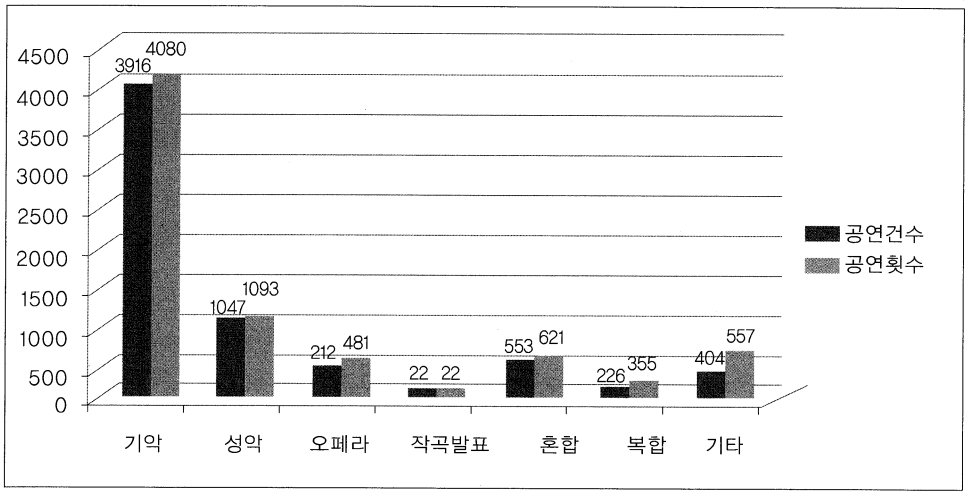
그 뒤를 잇는다.

공연 횟수 분포도 공연 건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연 건수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기악이 4,080회로 56%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다음은 성악이 약 4분의 1 수준인 1,093회로 전체 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이다. 공연 건수에 비해 공연 횟수에서 비중이 커진 장르는 오페라와 복합, 두 장르다. 오페라는 481회로 7%, 복합은 355회로 5%의 비중을 나타냈다.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많은 장르에서 볼 수 있는 변화다. 이에 대해서는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의 비율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악과 성악의 공연 횟수는 공연 건수와 차이가 없이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3. 2009년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3,916 | 1,047 | 212 | 22 | 553 | 226 | 404 | 6,380 |
| | 비율 | 62% | 16% | 3% | 0.3% | 9% | 4% | 6%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4,080 | 1,093 | 481 | 22 | 621 | 355 | 557 | 7,209 |
| | 비율 | 56% | 15% | 7% | 0.2% | 9% | 5% | 8% | 100% |

**▌그림 1. 2009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2.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로 살펴본 양악 내 세부 장르별 공연 양상

양악 공연 전체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13%로 평균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1회 정도의 공연이 펼쳐진다는 의미다. 연극, 무용, 국악 등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 양악 공연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여길 만하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1회에 참여하는 평균 관객 규모가 다른 장르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 다른 장르에 비해 절대적인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편람 작성 시 공연 건수 기준이 일정 시점에 특정 공연장에서 하나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공연이 공연장을 옮겨다니며 여러 회 공연을 이어가는 경우 각 회의 공연이 별도의 건으로 처리된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세부 장르별로는 오페라가 2.27회로 가장 높다. 유일하게 평균 2회 이상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르다. 오페라 공연 총 212건 중에서 절반 수준인 104건이 1회 공연이지만, 다른 장르와 비교하면 1회 공연의 비중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예술의 전당에서 선보인 <모차르트의 마술피리>(18회), 서울오페라앙상블의 <부암아트 살롱 오페라 페스티벌>(10회) 등 다회 공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다른 클래식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에 있어 투입 규모가 큰 오페라 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표 4. 2009년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

| 구 분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 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3,916 | 1,047 | 212 | 22 | 553 | 226 | 404 | 6,380 |
| 공연 횟수 | 4,080 | 1,093 | 481 | 22 | 621 | 355 | 557 | 7,209 |
| 횟수/건수 비율 | 1.04 | 1.04 | 2.27 | 1.00 | 1.12 | 1.57 | 1.38 | 1.13 |

오페라 다음으로는 복합이 1.57회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복합 분야에는 양악과 다른 공연예술 장르가 협업해 이루어진 공연이 포함되어 있다. 총 226건의 공연 중 85.8%인 194건이 1회 공연이지만, 톰방챔버앙상블의 <어린이 클래식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뮤직 드라마 '프록스'>(17회), <죽향체험마을의 한 여름밤 작은 음악회>(10회) 등 공연 횟수가 많은 몇몇 공연이 미친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재즈, 아카펠라, 뉴에이지 음악 등의 공연이 포함된 기타 장르 또한 복합 장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공연당 평균 횟수가 1.38로 상대적으로 높다.

기악, 성악, 혼합 등은 대부분이 1회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악은 3,916건 중 3,821건(97.6%), 성악은 1,047건 중 1,027건(98.1%), 혼합 분야는 총 553건 중 522건(94.4%) 이 1회 공연이다. 이는 한 공연장에서 여러 번의 공연을 갖기보다는 큰 객석 규모의 여러 공연장을 1회 공연으로 옮겨다니는 양악 공연만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 Ⅲ. 20009년 양악분야 부분별 공연현황

### 1.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합창 공연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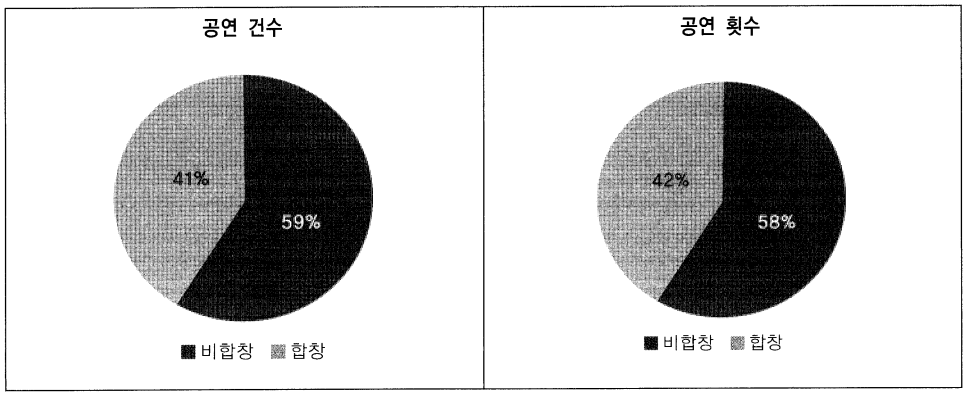
국악, 무용 등의 공연예술 장르에서는 작품별로 창작인지 레퍼토리인지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양악 장르에서는 이를 '작곡발표'의 조사를 통해 반영하는 대신, 성악 장르를 '합창'과 '비합창'으로 나누어 살폈다. 사전에 계획된 분류는 아니었으나, 편람 자료의 조사 과정에서 합창 공연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성악 장르에 뭉뚱그리기보다는 따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합창 성악 공연은 615건으로 59%, 합창 공연은 432건으로 41%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는 합창이 아닌 성악 공연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가 거의 비슷한 성악 장르의 특성상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 5. 2009년 양악 중 성악 공연의 합창과 비합창 분포 비교 ▐**

| 구 분 | 비합창 | 합창 | 계 |
|---|---|---|---|
| 공연 건수 | 615 | 432 | 1,047 |
| 공연 횟수 | 639 | 454 | 1,093 |

▌그림 2. 2009년 양악 중 성악 공연의 합창과 비합창 비중 ▐




16개 시도별로 합창과 비합창의 분포 양상을 보면 서울, 대전, 전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악 공연 중 합창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엄격히 보면 합창이 아닌 성악 공연의 비중이 뚜렷하게 더 큰 곳은 서울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서울 지역의 많은 비합창 성악 공연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비합창 부분의 비중이 조금 크게 나오게 한 주된 원인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합창과 비합창 공연이 거의 비슷하거나 합창의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합창제 등의 축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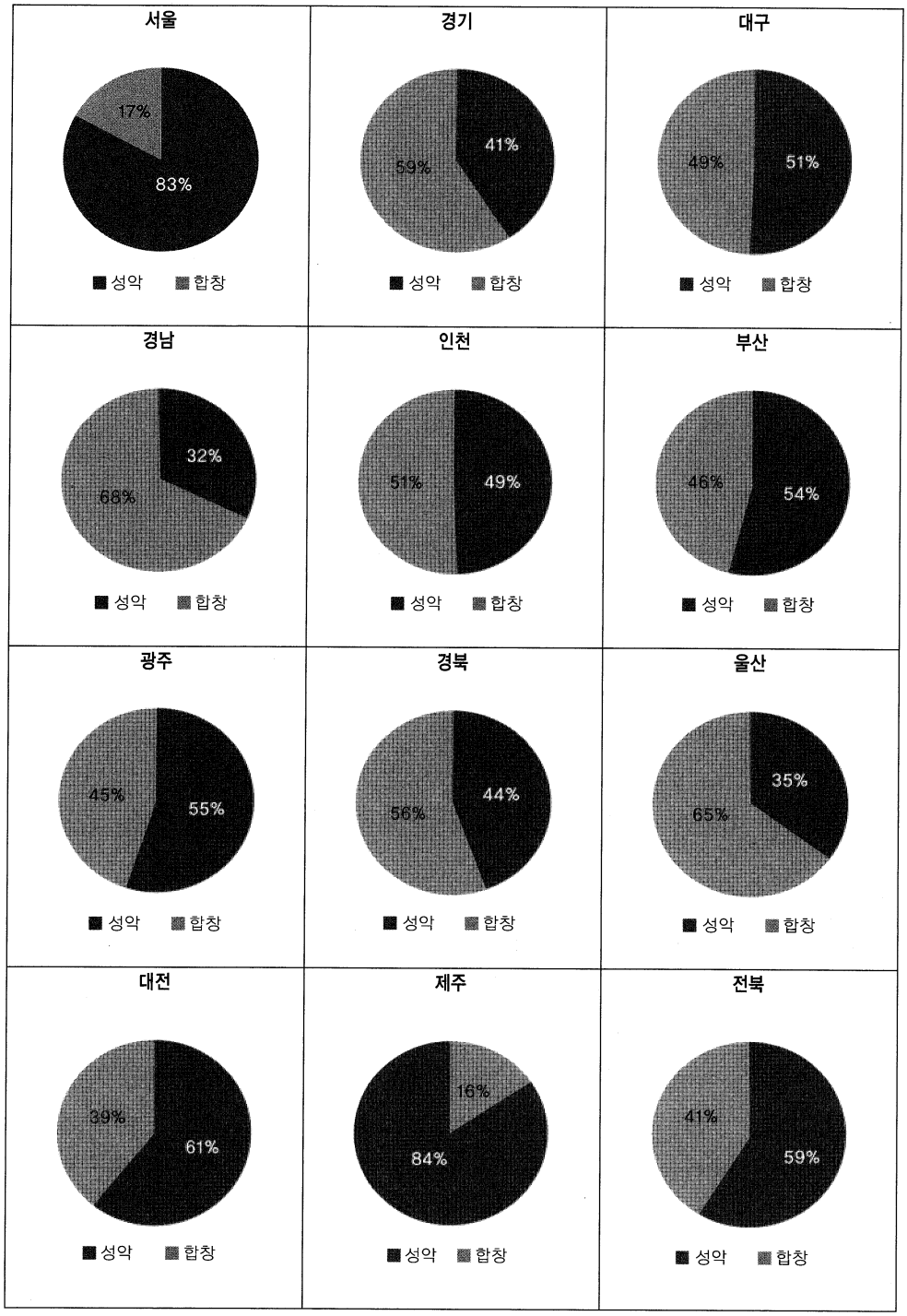
합창 공연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활발하고,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합창단만이 아니라 지역민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의 공연 또한 활발하다는 특성을 가지는 만큼,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참여활동에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표 6. 2009년 양악 중 성악 공연의 16개 시도별 합창과 비합창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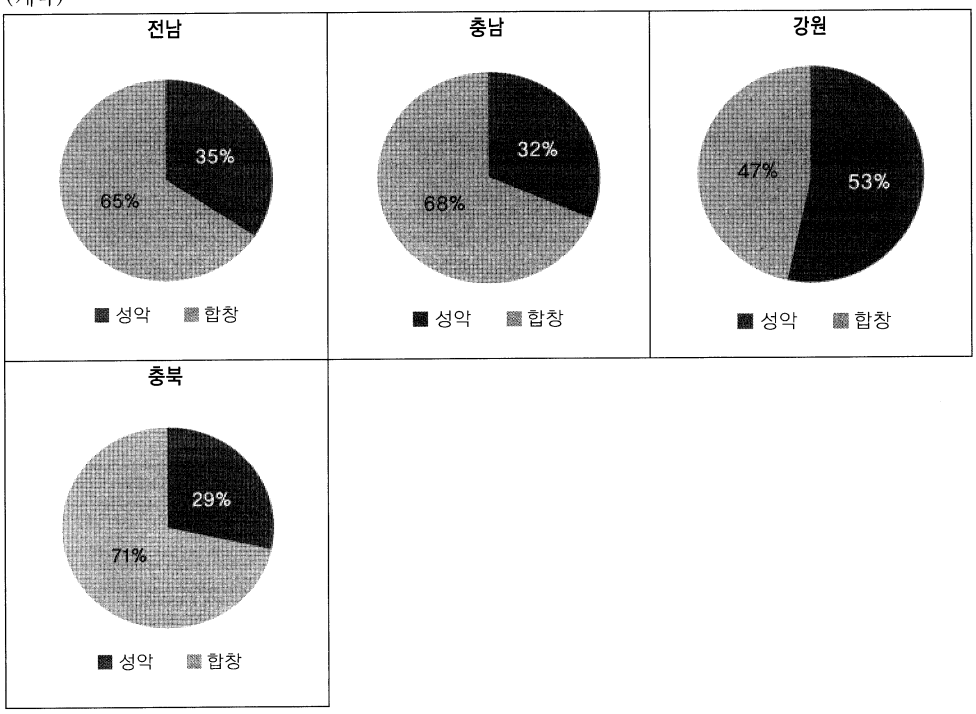
| 구분 | 서울 | 경기 | 대구 | 경남 | 부산 | 광주 | 경북 | 인천 | 울산 | 대전 | 제주 | 전북 | 전남 | 충남 | 강원 | 충북 | 계 |
|---|---|---|---|---|---|---|---|---|---|---|---|---|---|---|---|---|---|
| 합창 | 63 | 86 | 36 | 38 | 24 | 20 | 25 | 25 | 26 | 13 | 23 | 11 | 17 | 13 | 7 | 5 | 432 |
| 비합창 | 321 | 60 | 39 | 18 | 28 | 28 | 20 | 21 | 14 | 20 | 5 | 16 | 9 | 6 | 8 | 2 | 615 |
| 합창의 비중 (%) | 16.4 | 58.9 | 48.0 | 67.9 | 46.2 | 41.7 | 55.6 | 54.3 | 65.0 | 39.4 | 82.1 | 40.7 | 65.4 | 68.4 | 46.7 | 71.4 | 41.3 |
| 계 | 384 | 146 | 75 | 56 | 52 | 48 | 45 | 46 | 40 | 33 | 28 | 27 | 26 | 19 | 15 | 7 | 1,04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3. 2009년 양악 중 성악 공연의 16개 시도별 합창과 비합창 비중 ▐



(계속)




## IV. 2009년 양악 분야 국적별 공연 현황

### 1. 양악 공연 100개 중 90개는 국내 단체, 5개는 해외 단체, 5개는 협업

2008년에 이어 2009년 편람에도 공연 단체의 국적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또한 사후 조사 형태인 만큼 분류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만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로 범주화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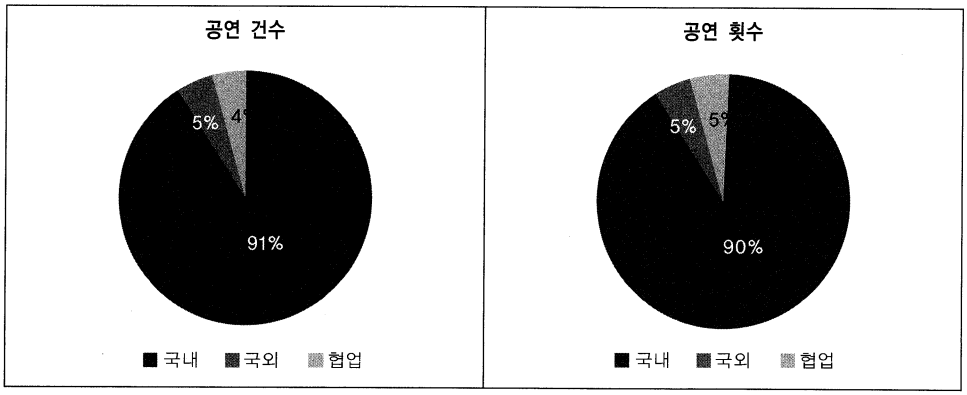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비중의 차이는 거의 없다. 2009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양악 공연이 100개라고 한다면, 그중 90개 정도는 국내 공연 단체가, 5개는 해외 공연 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5개는 국내 단체와 해외 단체의 협연으로 이루어진 공연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해외 단체의 공연당 평균 횟수가 국내 단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공연이 공연장을 옮겨다니며 여러 회 공연을 이어가는 양악 공연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7. 2009년 양악 공연자·단체 국적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국내 | 해외 | 협업 | 계 | 미분류 |
|---|---|---|---|---|---|---|
| 공연 건수 | 빈도 | 5,769 | 293 | 279 | 6,341 | 39 |
| | 비율 | 91.0% | 4.6% | 4.4% | 100% | - |
| 공연 횟수 | 빈도 | 6,464 | 333 | 361 | 7,158 | 51 |
| | 비율 | 90.3% | 4.7% | 5.0% | 100% | - |
| 횟수/건수 비율 | | 1.12 | 1.14 | 1.29 | 1.12 | - |

▌그림 4. 2009년 양악 공연자·단체 국적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V. 2009년 양악 분야 월별 공연 현황

## 1. 월별 공연은 뚜렷한 M자형 곡선으로 분포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뚜렷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M자형 곡선은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서도 관찰되는 패턴으로, 봄과 가을이 여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양악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태가 더 또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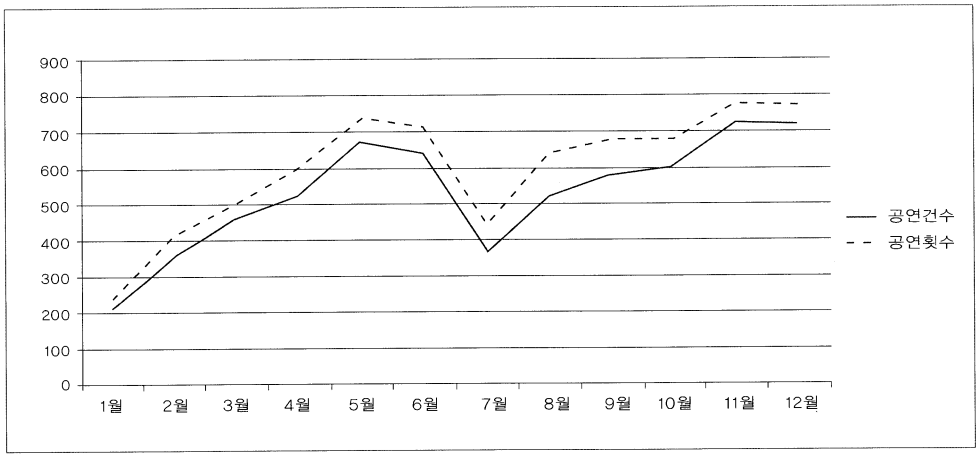
**▌표 8. 2009년 양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년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212 | 352 | 461 | 526 | 675 | 644 | 366 | 517 | 578 | 599 | 726 | 723 | 1 | 6,380 |
| | 비율 | 3% | 6% | 7% | 8% | 11% | 10% | 6% | 8% | 9% | 10% | 11% | 11% | 0%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235 | 415 | 502 | 602 | 737 | 716 | 444 | 642 | 673 | 682 | 779 | 774 | 8 | 7,209 |
| | 비율 | 3% | 6% | 7% | 8% | 10% | 10% | 6% | 9% | 9% | 10% | 11% | 11% | 0% | 100% |

<표 8>을 그래프화하면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M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근소한 차이로 공연 횟수가 위쪽에 위치하는 양상이다. 한 가지 특징은 하반기에서의 정점이 가을이 아닌 12월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그 점은 크리스마스나 송년을 기념한 기획 공연이 12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5~6월 상반기 정점을 지나 7월에 급격히 공연이 줄어들었다가 8월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여름으로 분류되더라도 7월과 8월은 큰 차이가 난다. 8월에 공연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방학 중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객을 염두에 둔 공연이 다수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8월 이후 10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던 곡선은 11월부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해 12월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5. 2009년 양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VI. 2009년 양악 분야 시도별 공연 현황

## 1.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양악 공연 활발

16개 시도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지역별 양악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서 가장 공연량이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바로 뒤를 잇는 경기의 806건과 비교해도 세 배가 넘는 2,575건이고,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해도 두 번째인 경기 지역 929회의 세 배 수준인 2,948회에 이른다.

전국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양악 공연 중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40.4%의 공연이,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40.9%의 공연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공연 수준을 보이는 지역은 충청도로, 충남이 공연 건수 및 횟수 기준 각 1.1%이며, 충북이 각 0.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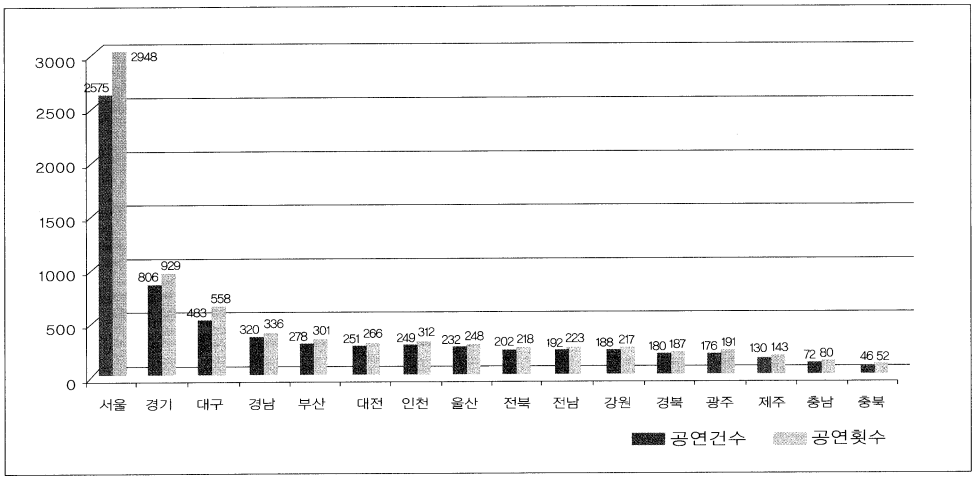
**▌표 9. 2009년 16개 시도별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서울 | 경기 | 대구 | 경남 | 부산 | 대전 | 인천 | 울산 | 전북 |
|---|---|---|---|---|---|---|---|---|---|
| 공연 건수 | 2,575 | 806 | 483 | 320 | 278 | 251 | 249 | 232 | 202 |
| 공연 횟수 | 2,948 | 929 | 558 | 336 | 301 | 266 | 312 | 248 | 218 |
| 구 분 | 전남 | 강원 | 경북 | 광주 | 제주 | 충남 | 충북 | 계 | |
| 공연 건수 | 192 | 188 | 180 | 176 | 130 | 72 | 46 | 6,380 | |
| 공연 횟수 | 223 | 217 | 187 | 191 | 143 | 80 | 52 | 7,209 | |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서울·경기·대구·경남이 300건 이상의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제주·충남·충북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중간 그룹을 이루고 있다.

공연 건수와 횟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패턴은 거의 동일하다.

▌그림 6. 2009년 16개 시도별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 상대적으로 인천이 1.25회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지만, 『제14회 서곶문화예술제』(11회), 『성산홀 재개관 음악제』(5회) 등 소수의 다회 공연에 기인한 것일 뿐 전체적인 양상에선 다르지 않다. 한 공연당 평균 1회 무대에 오른다.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놀라운 결과다. 대개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나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는 편람 작성 시 공연 건수 반영의 기준과 양악 공연의 패턴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10. 2009년 16개 시도별 양악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 ▐

| 지 역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횟수/건수 비율 |
|---|---|---|---|
| 서울 | 2,575 | 2,948 | 1.14 |
| 경기 | 806 | 929 | 1.15 |
| 대구 | 483 | 558 | 1.16 |
| 경남 | 320 | 336 | 1.05 |
| 부산 | 278 | 301 | 1.0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계 속)

| 지 역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횟수/건수 비율 |
|---|---|---|---|
| 대전 | 251 | 266 | 1.06 |
| 인천 | 249 | 312 | 1.25 |
| 울산 | 232 | 248 | 1.07 |
| 전북 | 202 | 218 | 1.08 |
| 전남 | 192 | 223 | 1.16 |
| 강원 | 188 | 217 | 1.15 |
| 경북 | 180 | 187 | 1.04 |
| 광주 | 176 | 191 | 1.09 |
| 제주 | 130 | 143 | 1.10 |
| 충남 | 72 | 80 | 1.11 |
| 충북 | 46 | 52 | 1.13 |
| 총합계 | 6,380 | 7,209 | 1.13 |

##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작지만,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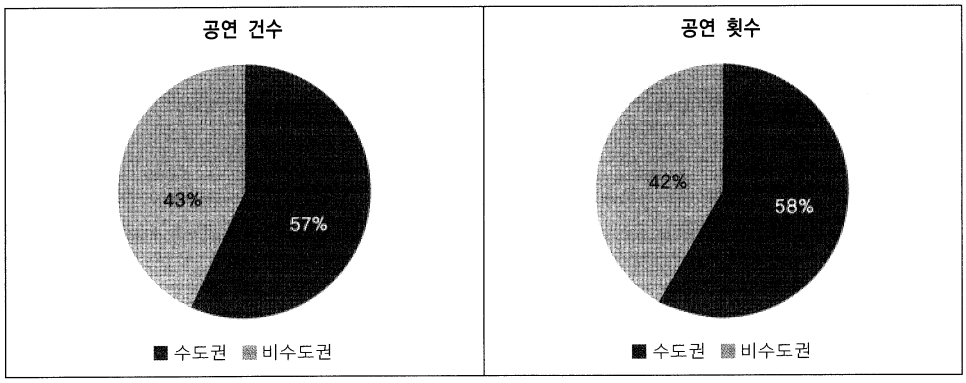
16개 시도별 자료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나머지 13개 시도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해서 살펴보면 공연 건수에서 수도권이 3,630건으로 2,750건인 비수도권보다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 이 경향은 공연 횟수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연 횟수를 공연 건수로 나누어 살핀 비율에서 수도권 1.15회, 비수도권 1.10회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표 11.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의 비중 | 계 |
|---|---|---|---|---|
| 공연 건수 | 3,630 | 2,750 | 56.9 | 6,380 |
| 공연 횟수 | 4,189 | 3,020 | 58.1 | 7,209 |

<표 11>을 그래프화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상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 한눈에 드러난다.

▌그림 7.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지역을 기초 단위까지 분류해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범주화할 경우에는 이와 조금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표 12.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구 분 | 대도시 | 중소 도시 | 농산어촌 | 계 |
|---|---|---|---|---|
| 공연 건수 | 4,244 | 2,038 | 98 | 6,380 |
| 공연 횟수 | 4,824 | 2,267 | 118 | 7,2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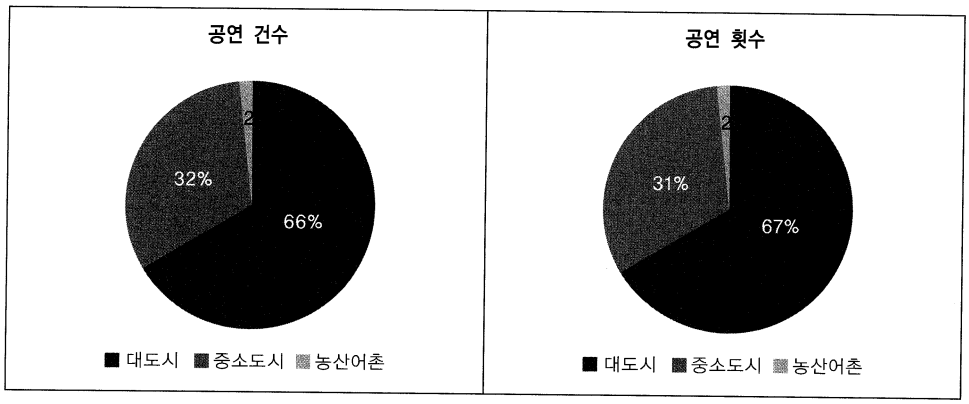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공연 건수, 공연 횟수 격차는 2배 수준으로 벌어진다. 게다가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은 20배가 넘어 격차를 언급하기도 어색하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중소 도시의 비중이 큰 반면 농산어촌의 비중은 더 작은 양악만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양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연장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중소 도시에는 많은 공연장이 생기고 있는 데 반해 농산어촌에는 큰 규모의 공연장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8.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3. 지역 인구 대비 공연 건수·횟수에서 제주와 울산이 약진

지역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양악 공연이 해당 지역에서 어떤 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함께 고려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다. 실제 그 공연에 참여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함께 고려하면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공연이 열리는지 살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선 지역별 단순 비교보다 실질적인 지역 비교에 도움이 되는 자료일 수도 있다. 실제로 각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해서,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단순한 지역별 비교 때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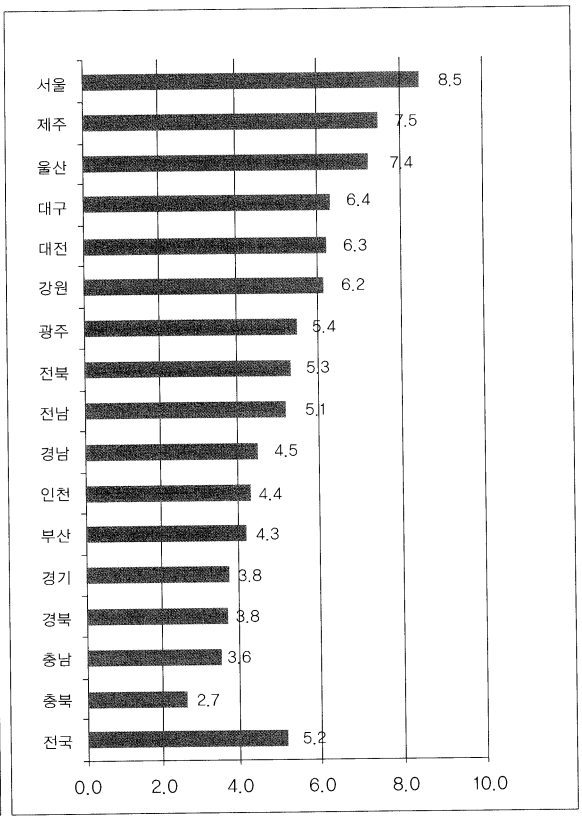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단순 비교 때 하위에 속했던 제주가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는 25.2건인 서울에 조금 못 미치는 23.1건으로 2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지역 연주 단체의 공연이 활발한 데다 『2009 제주국제관악제』와 같은 큰 규모의 축제가 미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방문객 유치 전략을 추진할수록 이런 경향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비교 때 중간 그룹에 속했던 울산도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는 20.8건으로 제주 다음을 기록하며 큰 변화의 폭을 보였다.

경기와 경남의 경우엔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단순 지역 비교에서는 상위 그룹에 속했던 이 두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는 각각 7.0건, 9.8건으로 지역별 순위가 급감한 것이다.

경기 지역의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에서 모두 나타난다. 서울과 거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경기 지역 내에서 오르는 공연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극적인 변화라고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표 13.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건수 ▐**

| 순위 | 지역 | 공연건수 |
|---|---|---|
| 1 | 제주 | 8.5 |
| 2 | 경남 | 7.5 |
| 3 | 울산 | 7.4 |
| 4 | 서울 | 6.4 |
| 5 | 대구 | 6.3 |
| 6 | 강원 | 6.2 |
| 7 | 전남 | 5.4 |
| 8 | 경북 | 5.3 |
| 9 | 인천 | 5.1 |
| 10 | 부산 | 4.5 |
| 11 | 광주 | 4.4 |
| 12 | 충북 | 4.3 |
| 13 | 경기 | 3.8 |
| 14 | 대전 | 3.8 |
| 15 | 전북 | 3.6 |
| 16 | 충남 | 2.7 |
| - | 전국 |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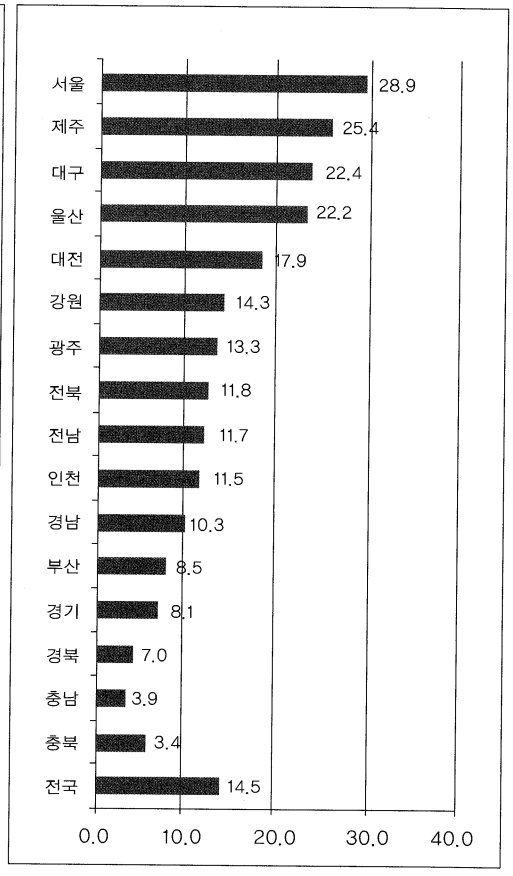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 또한 전체적인 양상은 공연 건수와 같다.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의 차이에 따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지역이 더러 눈에 띄는 수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4.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횟수 ▐

| 순위 | 지역 | 공연횟수 |
|---|---|---|
| 1 | 서울 | 28.9 |
| 2 | 제주 | 25.4 |
| 3 | 대구 | 22.4 |
| 4 | 울산 | 22.2 |
| 5 | 대전 | 17.9 |
| 6 | 강원 | 14.3 |
| 7 | 광주 | 13.3 |
| 8 | 전북 | 11.8 |
| 9 | 전남 | 11.7 |
| 10 | 인천 | 11.5 |
| 11 | 경남 | 10.3 |
| 12 | 부산 | 8.5 |
| 13 | 경기 | 8.1 |
| 14 | 경북 | 7.0 |
| 15 | 충남 | 3.9 |
| 16 | 충북 | 3.4 |
| - | 전국 | 14.5 |




## 4. 최근 3년간 공연 횟수 증가 지역은 서울·대구·인천·울산·전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양악 공연의 지역별 추이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감소 추이보다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

조사 방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인 2007년과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그리고 보완을 통해 조사 방법의 표준화가 자리를 잡은 2009년의 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것에는 분명 유의해야 할 점이 많지만, 편람 자료의 중요성과 포괄성을 생각한다면 비교의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증가 추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대구·인천·전남·경북 등으로 나타난다. 서울은 2008년 통계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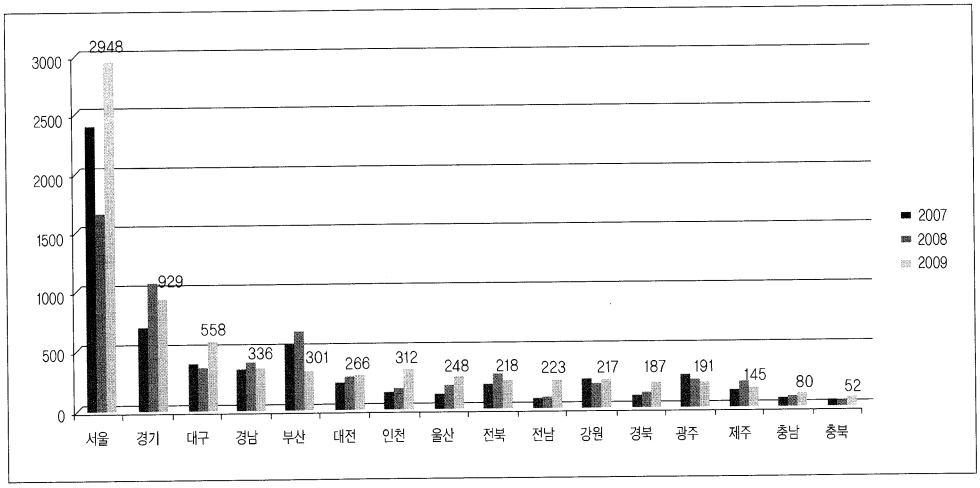
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변화에는 2009년도 편람 자료가 전년도에 비해 표준화된 조사 방법상에 보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영향이 뒤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구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09년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인다. 증가 폭만 놓고 본다면 전남이 가장 두드러진다. 2009년의 공연 횟수가 2008년 대비 3.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지역은 부산·광주가 대표적이다. 광주는 해를 거듭해가며 10~20%씩 감소하고, 부산은 2008년도에 다소 증가했다가 2009년도에 급감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15. 최근 3년간 양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 연도 | 서울 | 경기 | 대구 | 경남 | 부산 | 대전 | 인천 | 울산 | 전북 |
|---|---|---|---|---|---|---|---|---|---|
| 2007년 | 2,400 | 683 | 359 | 332 | 533 | 203 | 114 | 94 | 179 |
| 2008년 | 1,664 | 1,074 | 339 | 378 | 639 | 245 | 164 | 182 | 267 |
| 2009년 | 2,948 | 929 | 558 | 336 | 301 | 266 | 312 | 248 | 218 |
| **연도** | **전남** | **강원** | **경북** | **광주** | **제주** | **충남** | **충북** | **계** | |
| 2007년 | 58 | 222 | 78 | 253 | 125 | 50 | 33 | 5,716 | |
| 2008년 | 63 | 189 | 106 | 209 | 191 | 72 | 29 | 5,811 | |
| 2009년 | 223 | 217 | 187 | 191 | 143 | 80 | 52 | 7,209 | |

**▌그림 9. 최근 3년간 양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5. 양악 세부 장르별 비중은 16개 시도마다 동일한 양상

지역마다 양악 공연이 세부 분야별로 어떤 양상을 띠는지 보기 위해서는 16개 시도별로 기악, 성악, 오페라, 혼합, 복합 등의 세부 분야별 공연 비중을 살펴야 한다. 이때 기준은 상대적으로 공연 횟수보다 공연 건수가 적합하다.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장르의 비중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얼마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양악의 경우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도 큰 차이가 없다.

각 지역별 특성 파악이 쉽도록 아래 표에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진한 색 표시)와 그 다음 비중이 높은 분야(흐린 색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기악과 성악이 각각 61.4%와 16.4%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혼합(8.7%), 복합(3.5%), 오페라(3.3%) 순으로 한 자릿수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악의 비중이 큰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정도의 큰 비중이라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앞으로는 기악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각 세부 장르별로 몸담고 있는 예술인의 수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비중을 해석하는 데 또 다른 관점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표 16. 2009년 지역별로 살펴본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

| 지 역 | | 기악 | 성악 | 오페라 | 혼합 | 복합 | 작곡발표 | 기타 | 계 |
|---|---|---|---|---|---|---|---|---|---|
| 서울 | 빈도 | 1,843 | 384 | 68 | 106 | 41 | 11 | 122 | 2,575 |
| | 비율 | 71.6% | 14.9% | 2.6% | 4.1% | 1.6% | 0.4% | 4.7% | 100% |
| 경기 | 빈도 | 426 | 146 | 35 | 90 | 28 | 1 | 80 | 806 |
| | 비율 | 52.9% | 18.1% | 4.3% | 11.2% | 3.5% | 0.1% | 9.9% | 100% |
| 대구 | 빈도 | 257 | 75 | 31 | 62 | 24 | 3 | 31 | 483 |
| | 비율 | 53.2% | 15.5% | 6.4% | 12.8% | 5.0% | 0.6% | 6.4% | 100% |
| 경남 | 빈도 | 195 | 56 | 11 | 33 | 22 | 2 | 1 | 320 |
| | 비율 | 60.9% | 17.5% | 3.4% | 10.3% | 6.9% | 0.6% | 0.3% | 100% |

(계 속)

| 지 역 | | 기악 | 성악 | 오페라 | 혼합 | 복합 | 작곡발표 | 기타 | 계 |
|---|---|---|---|---|---|---|---|---|---|
| 부산 | 빈도 | 170 | 52 | 7 | 30 | 11 | 0 | 8 | 278 |
| | 비율 | 61.2% | 18.7% | 2.5% | 10.8% | 4.0% | 0.0% | 2.9% | 100% |
| 대전 | 빈도 | 170 | 33 | 10 | 20 | 4 | 1 | 13 | 251 |
| | 비율 | 67.7% | 13.1% | 4.0% | 8.0% | 1.6% | 0.4% | 5.2% | 100% |
| 인천 | 빈도 | 104 | 46 | 9 | 29 | 11 | 0 | 50 | 249 |
| | 비율 | 41.8% | 18.5% | 3.6% | 11.6% | 4.4% | 0.0% | 20.1% | 100% |
| 울산 | 빈도 | 100 | 40 | 8 | 34 | 32 | 0 | 18 | 232 |
| | 비율 | 43.1% | 17.2% | 3.4% | 14.7% | 13.8% | 0.0% | 7.8% | 100% |
| 전북 | 빈도 | 120 | 27 | 4 | 31 | 11 | 2 | 7 | 202 |
| | 비율 | 59.4% | 13.4% | 2.0% | 15.3% | 5.4% | 1.0% | 3.5% | 100% |
| 전남 | 빈도 | 99 | 26 | 1 | 20 | 9 | 0 | 37 | 192 |
| | 비율 | 51.6% | 13.5% | 0.5% | 10.4% | 4.7% | 0.0% | 19.3% | 100% |
| 강원 | 빈도 | 104 | 15 | 6 | 31 | 13 | 0 | 19 | 188 |
| | 비율 | 55.3% | 8.0% | 3.2% | 16.5% | 6.9% | 0.0% | 10.1% | 100% |
| 경북 | 빈도 | 92 | 45 | 10 | 22 | 8 | 0 | 3 | 180 |
| | 비율 | 51.1% | 25.0% | 5.6% | 12.2% | 4.4% | 0.0% | 1.7% | 100% |
| 광주 | 빈도 | 89 | 48 | 4 | 23 | 2 | 2 | 8 | 176 |
| | 비율 | 50.6% | 27.3% | 2.3% | 13.1% | 1.1% | 1.1% | 4.5% | 100% |
| 제주 | 빈도 | 78 | 28 | 4 | 12 | 4 | 0 | 4 | 130 |
| | 비율 | 60.0% | 21.5% | 3.1% | 9.2% | 3.1% | 0.0% | 3.1% | 100% |
| 충남 | 빈도 | 40 | 19 | 3 | 7 | 3 | 0 | | 72 |
| | 비율 | 55.6% | 26.4% | 4.2% | 9.7% | 4.2% | 0.0% | 0.0% | 100% |
| 충북 | 빈도 | 29 | 7 | 1 | 3 | 3 | 0 | 3 | 46 |
| | 비율 | 63.0% | 15.2% | 2.2% | 6.5% | 6.5% | 0.0% | 6.5% | 100% |
| 계 | 빈도 | 3,916 | 1,047 | 212 | 553 | 226 | 22 | 404 | 6,380 |
| | 비율 | 61.4% | 16.4% | 3.3% | 8.7% | 3.5% | 0.3% | 6.3%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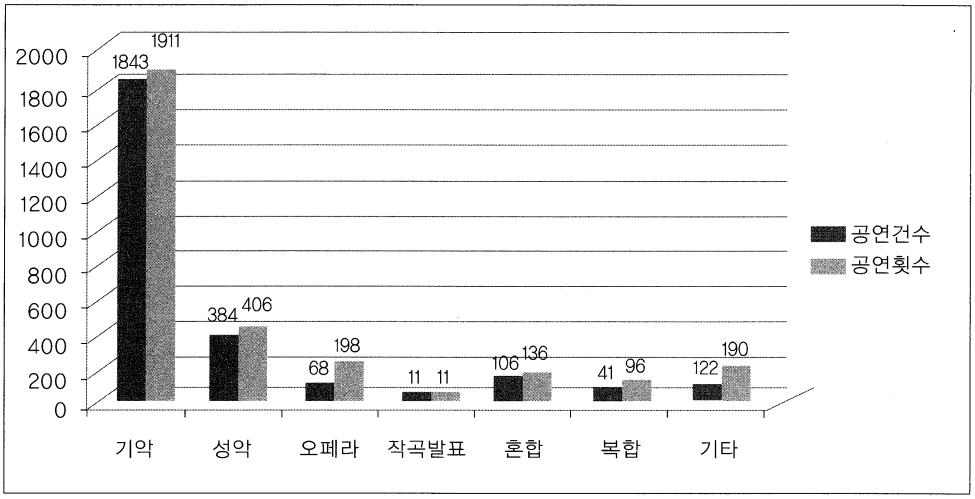
지역별로 세부 장르별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여타 공연예술 장르와 달리 양악은 16개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그나마 일관된 양상에서 벗어난 사례는 두 번째 비중이 큰 장르를 성악이 아닌 혼합 장르가 차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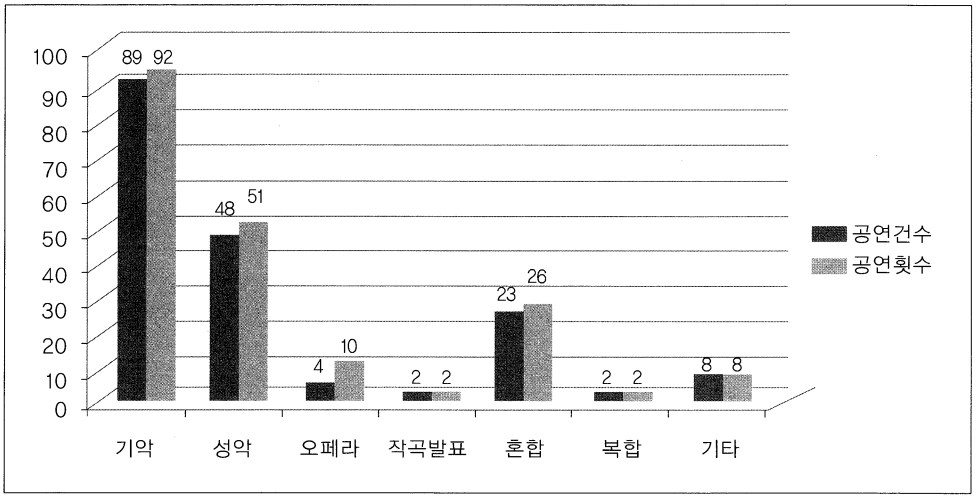
전북과 강원에 불과하다.

현재 『문예연감』이 채용하고 있는 양악의 세부 장르 분류상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포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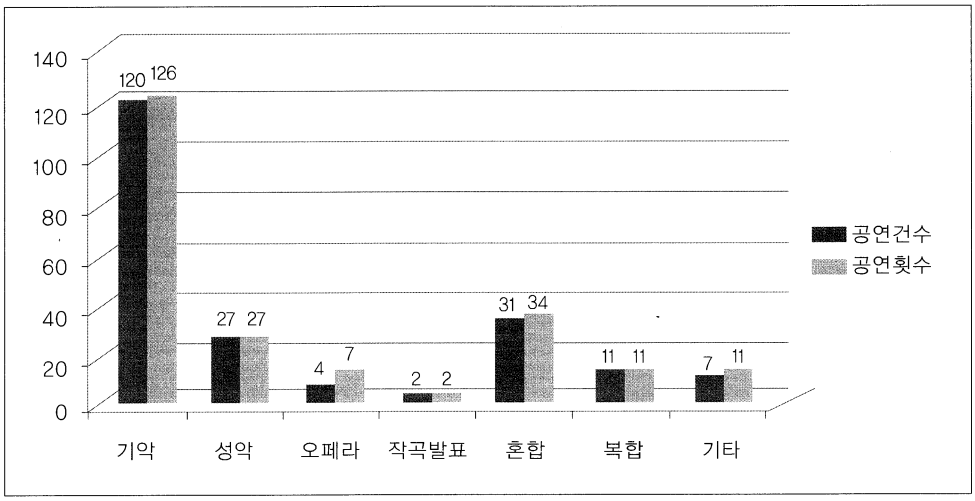
**▌그림 10. 2009년 서울 지역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분포(기악 우세-수도권) ▐**




**▌그림 11. 2009년 광주 지역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분포(기악 우세-비수도권) ▐**



▌그림 12. 2009년 전북 지역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분포(성악보다 혼합 우세) ▐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지역별 양상은 동일하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5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악 장르다. 성악이 15.2%로 그 뒤를 잇고, 혼합(8.6%), 오페라(6.7%), 복합(4.9%) 순으로 이어진다.

▌표 17. 2009년 지역별로 살펴본 양악 세부 분야별 공연 횟수 ▐

| 구 분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서울 | 1,911 | 406 | 198 | 11 | 136 | 96 | 190 | 2,948 |
| 경기 | 458 | 152 | 84 | 1 | 95 | 32 | 107 | 929 |
| 대구 | 267 | 79 | 67 | 3 | 74 | 37 | 31 | 558 |
| 경남 | 195 | 56 | 15 | 2 | 33 | 30 | 5 | 336 |
| 인천 | 113 | 53 | 22 | 0 | 36 | 26 | 62 | 321 |
| 부산 | 177 | 52 | 17 | 0 | 36 | 11 | 8 | 301 |
| 대전 | 173 | 33 | 17 | 1 | 21 | 6 | 15 | 266 |
| 울산 | 100 | 40 | 10 | 0 | 34 | 43 | 21 | 248 |
| 전남 | 109 | 26 | 1 | 0 | 20 | 21 | 46 | 223 |
| 전북 | 126 | 27 | 7 | 2 | 34 | 11 | 11 | 218 |
| 강원 | 104 | 15 | 9 | 0 | 31 | 22 | 36 | 217 |
| 광주 | 92 | 51 | 10 | 2 | 26 | 2 | 8 | 191 |
| 경북 | 93 | 45 | 14 | 0 | 23 | 8 | 4 | 187 |
| 제주 | 85 | 32 | 6 | 0 | 12 | 4 | 4 | 143 |
| 충남 | 48 | 19 | 3 | 0 | 7 | 3 | 0 | 80 |
| 충북 | 29 | 7 | 1 | 0 | 3 | 3 | 9 | 52 |
| 계 | 4,080 | 1,093 | 481 | 22 | 621 | 355 | 557 | 7,209 |
| | 56.6% | 15.2% | 6.7% | 0.3% | 8.6% | 4.9% | 7.7% | 1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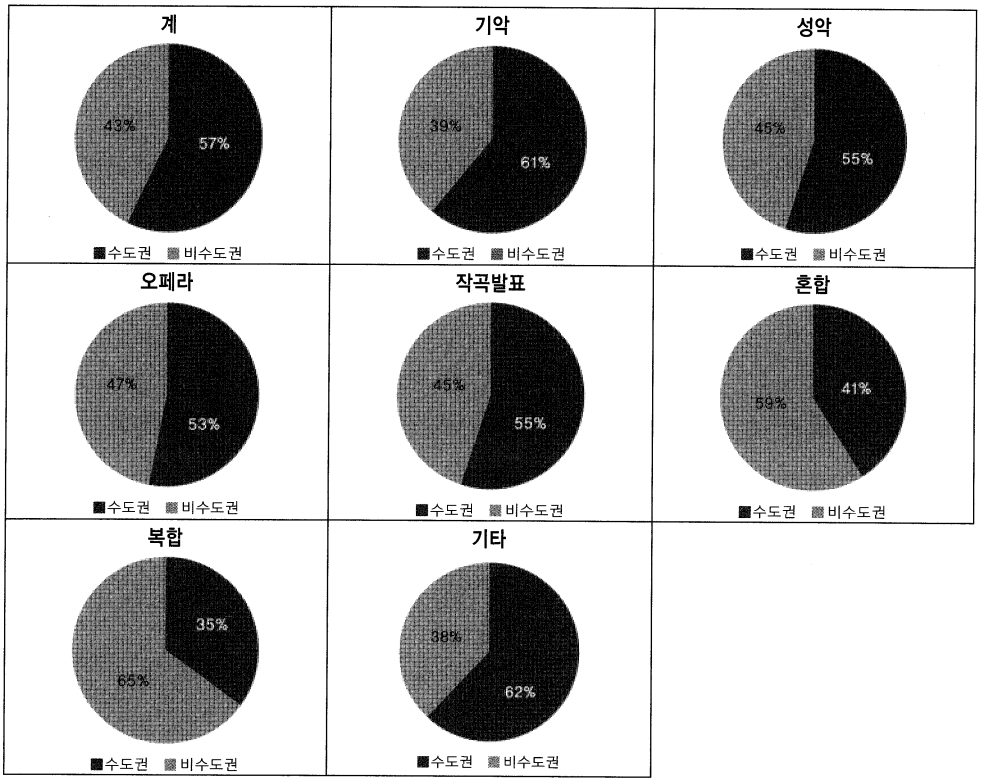
## 6. 혼합·복합을 제외한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우세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피면 16개 시도별 분석에서는 보지 못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앞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다소 앞선다. 이를 다시 세부 장르별로 살피면, 혼합과 복합 장르를 제외한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악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건수 분포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수도권 | 2,373 | 576 | 112 | 12 | 225 | 80 | 252 | 3,630 |
| | 비수도권 | 1,543 | 471 | 100 | 10 | 328 | 146 | 152 | 2,750 |
| | 계 | 3,916 | 1,047 | 212 | 22 | 553 | 226 | 404 | 6,380 |

**▌그림 13.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건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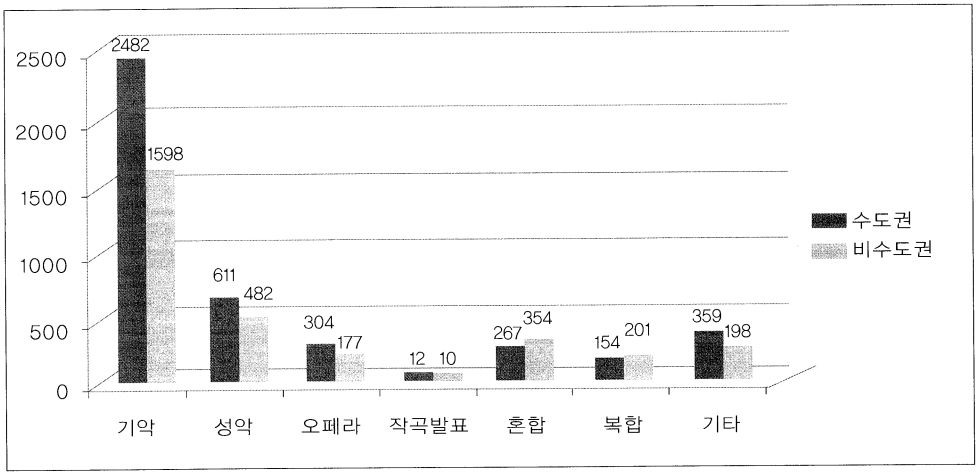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가 큰 차이가 없는 양악의 특성상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공연 건수와 동일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혼합과 복합을 제외한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우세한 경향이 여전하다.

**▌표 19.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횟수 | 수도권 | 2,482 | 611 | 304 | 12 | 267 | 154 | 359 | 4,189 |
| | 비수도권 | 1,598 | 482 | 177 | 10 | 354 | 201 | 198 | 3,020 |
| | 계 | 4,080 | 1,093 | 481 | 22 | 621 | 355 | 557 | 7,209 |

**▌그림 14.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횟수 분포(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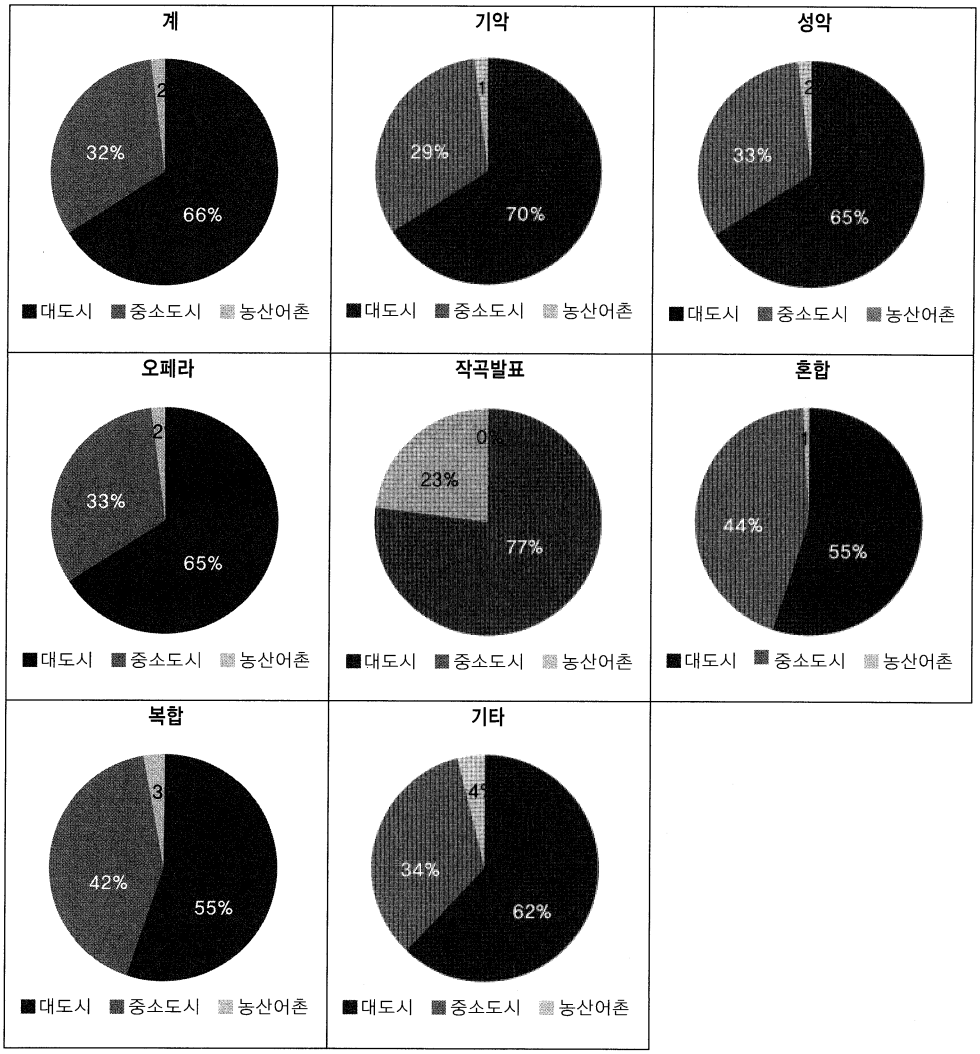

세부 장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나누어 다시 비중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다.

**▌표 20.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건수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대도시 | 2,733 | 678 | 137 | 17 | 304 | 125 | 250 | 4,244 |
| | 중소 도시 | 1,142 | 349 | 71 | 5 | 241 | 94 | 136 | 2,038 |
| | 농산어촌 | 41 | 20 | 4 | 0 | 8 | 7 | 18 | 98 |
| | 계 | 3,916 | 1,047 | 212 | 22 | 553 | 226 | 404 | 6,38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15.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건수 비율 ▐




<표 20>과 <그림 15>에서 보이듯이 거의 대부분의 장르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16개 시도별로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점이다. 예를 들어, 사례 수가 작은 작곡발표를 논외로 한다면 기악이 양악의 세부 장르 중에서도 가장 대도시 중심적인 장르로 보인다. 혼합과 복합 장르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 도시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공연 횟수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그대로 이어진다.

▌표 21.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횟수 ▐

| 구 분 |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횟수 | 대도시 | 2,833 | 714 | 341 | 17 | 363 | 221 | 335 | 4,824 |
| | 중소 도시 | 1,203 | 359 | 136 | 5 | 249 | 118 | 197 | 2,267 |
| | 농산어촌 | 44 | 20 | 4 | 0 | 9 | 16 | 25 | 118 |
| | 계 | 4,080 | 1,093 | 481 | 22 | 621 | 355 | 557 | 7,209 |

# VII. 2009년 양악 분야 시작월 기준 공연 현황

## 1. 기악 공연은 하반기, 복합 공연은 상반기에 집중

세부 장르별로 공연 시작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아래 두 개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각 장르별로 상위 4개월을 짙은 색으로 칠해 표시해두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기본적인 시기적 특징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장르별로 큰 차이 없이 5월, 9~12월에 공연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혼합 형태의 공연은 특정 시기에 쏠림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장르에서 여름을 피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양상의 예외가 기악, 혼합, 복합 장르의 공연이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주로 이 세 장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2. 2009년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분포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기악 | 144 | 252 | 299 | 315 | 390 | 424 | 233 | 359 | 353 | 349 | 412 | 386 | 3,916 |
| 성악 | 20 | 47 | 76 | 85 | 140 | 102 | 39 | 46 | 107 | 104 | 146 | 135 | 1,047 |
| 오페라 | 7 | 5 | 18 | 16 | 21 | 19 | 16 | 17 | 24 | 29 | 26 | 14 | 212 |
| 작곡발표 | 0 | 0 | 3 | 4 | 1 | 4 | 0 | 0 | 3 | 0 | 5 | 2 | 22 |
| 혼합 | 26 | 22 | 35 | 42 | 68 | 45 | 29 | 41 | 34 | 49 | 70 | 92 | 553 |
| 복합 | 6 | 10 | 4 | 25 | 31 | 17 | 19 | 23 | 22 | 21 | 18 | 29 | 225 |
| 기타 | 9 | 16 | 26 | 39 | 24 | 33 | 30 | 31 | 35 | 47 | 49 | 65 | 404 |
| 계 | 212 | 352 | 461 | 526 | 675 | 644 | 366 | 517 | 578 | 599 | 726 | 723 | 6,3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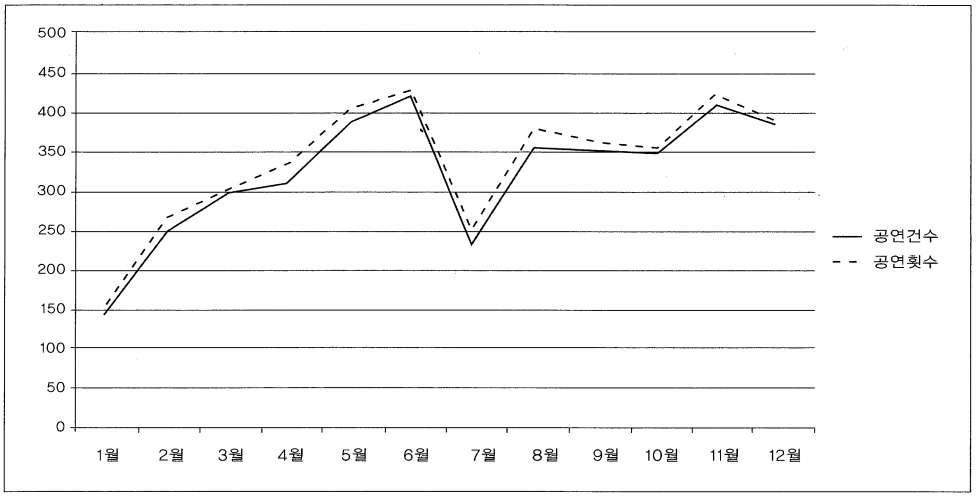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23. 2009년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기악 | 156 | 267 | 304 | 339 | 407 | 432 | 250 | 382 | 366 | 358 | 427 | 392 | 4,080 |
| 성악 | 20 | 47 | 78 | 86 | 145 | 105 | 50 | 51 | 109 | 114 | 147 | 141 | 1,093 |
| 오페라 | 11 | 20 | 35 | 35 | 41 | 43 | 48 | 51 | 52 | 66 | 49 | 30 | 481 |
| 작곡발표 | 0 | 0 | 3 | 4 | 1 | 4 | 0 | 0 | 3 | 0 | 5 | 2 | 22 |
| 혼합 | 33 | 22 | 41 | 44 | 72 | 50 | 32 | 70 | 40 | 52 | 71 | 94 | 621 |
| 복합 | 6 | 31 | 8 | 34 | 44 | 21 | 32 | 43 | 41 | 33 | 25 | 29 | 347 |
| 기타 | 9 | 28 | 33 | 60 | 27 | 61 | 32 | 45 | 62 | 59 | 55 | 86 | 557 |
| 계 | 235 | 415 | 502 | 602 | 737 | 716 | 444 | 642 | 673 | 682 | 779 | 774 | 7,201 |

양악 전체 자료를 기본으로 한 분포에서 볼 수 있었던 M자형 분포는 세부 장르별로 그래프화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나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에서 더욱 그렇다. 기악 장르는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M자형 곡선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반기의 비중이 다른 장르에 비해 크다는 것이 도드라져 보인다. 8월에 많은 공연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대부분의 공연이 1회인 만큼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듯 그려진다.

**▌그림 16. 2009년 양악 기악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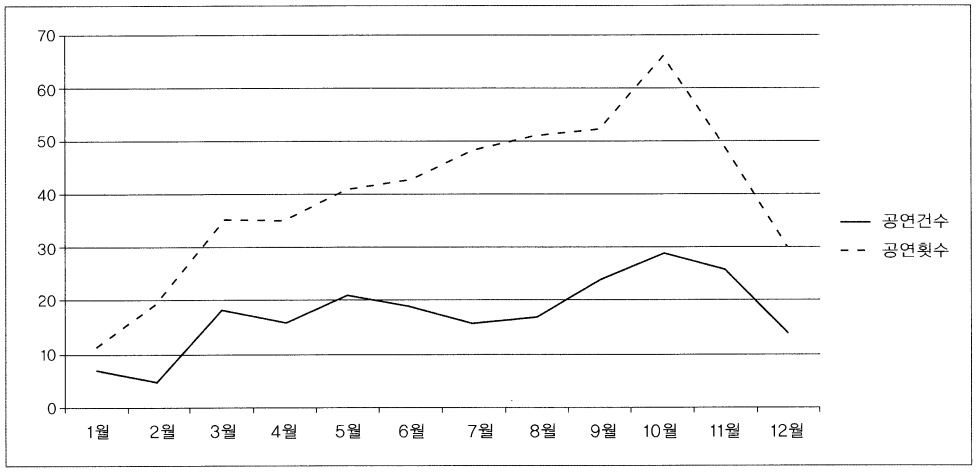


이에 비해 성악 공연은 M자형 곡선을 보이는 가운데 8월에도 공연이 급감한 상태여서 다른 장르에 비해 감소 기간이 긴 양상을 보인다. 9월에 공연 건수와 횟수가 급증했다가 10월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11월에 다시 한번 급증하는 단계형 변화가 특징이다.

**▌그림 17. 2009년 양악 성악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그림 18. 2009년 양악 오페라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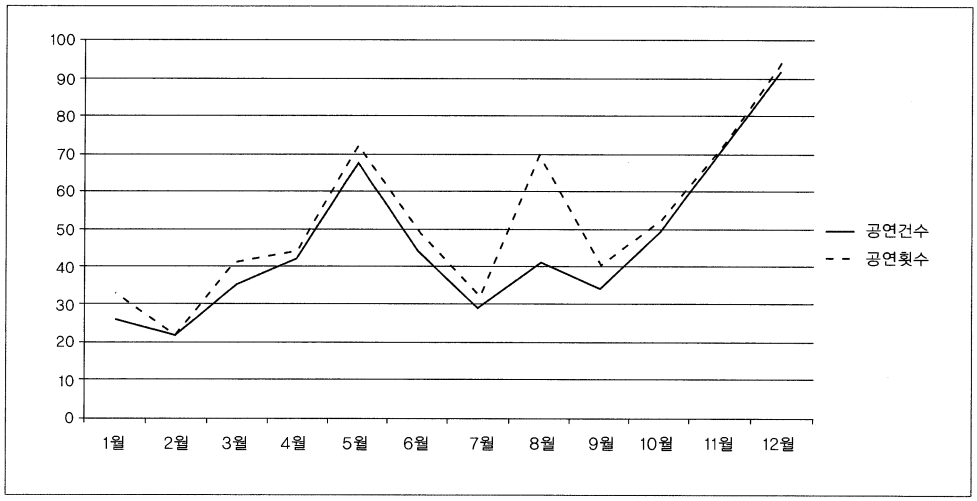

오페라에서는 M자형 분포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중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공연 건수·횟수를 보인다. 다만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상승해 10월에 정점을 이루는 모습이 특징이다(<그림 18> 참조).

혼합 형태 공연의 분포에서는 4~10월 사이에 작은 M자형의 양상을 볼 수 있다. 10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12월까지 이어간다. 공연 건수의 경우보다 공연 횟수에 있어 이 '작은 M자형 곡선' 추이가 뚜렷하다. 8월인 방학 시기에 집중적으로 클래식 공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다회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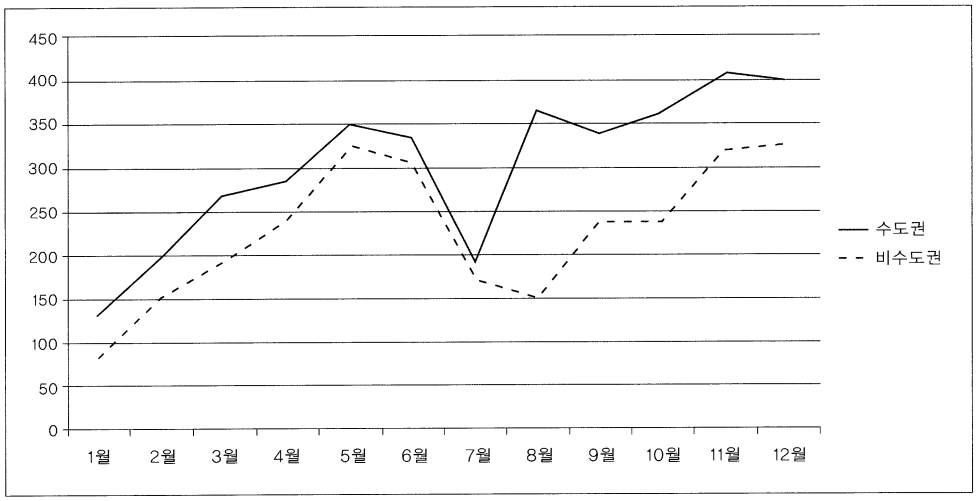
**▌그림 19. 2009년 양악 혼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2. '파도 효과'-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 관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좀 더 또렷하긴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에도 M자형 곡선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별 공연 건수 그래프를 나란히 그려놓으면 M자형 곡선에서 두 정점에 해당되는 시기 부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래프 사이에 일종의 파도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편의상 '파도 효과'라고 부르겠다)을 볼 수 있는데, 양악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관찰할 수 없다.

▌그림 20.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양악 공연 건수 ▐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문예연감』의 편람과 분석 내용으로 추측하자면 두 가지를 고려할 만하다. 하나는 대부분의 양악 공연이 1회 공연인 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기간이 한 달 이내에 짧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현재 시작월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수도권에서의 공연과 비수도권으로 이동해서 무대에 오른 공연이 같은 월의 통계에 포착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당연히 그래프상에는 1개월 정도를 간격으로 한 이월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표 24.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양악 공연 건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수도권 | 129 | 199 | 267 | 285 | 350 | 336 | 193 | 367 | 339 | 361 | 406 | 397 | 3,629 |
| 비수도권 | 83 | 153 | 194 | 241 | 325 | 308 | 173 | 150 | 239 | 238 | 320 | 326 | 2,750 |
| 계 | 212 | 352 | 461 | 526 | 675 | 644 | 366 | 517 | 578 | 599 | 726 | 723 | 6,379 |

양악 장르의 특성상 공연 횟수에서도 공연 건수상에서의 관계와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R
http://www.arko.or.kr

▌그림 21.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양악 공연 횟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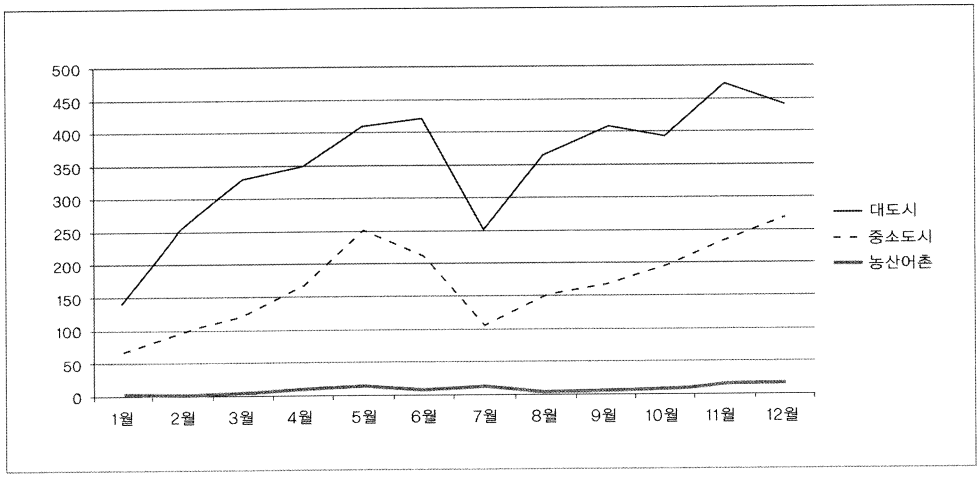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해 살핀 자료에서도 '파도 효과'는 찾아볼 수가 없다. '파도 효과'가 나타나는 국악, 무용과 같은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서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파도 효과'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도시로의 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할 경우 '파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도시, 중소 도시의 공연 건수 분포는 그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 월별 양상은 매우 닮아 있다. 절대적으로 공연 건수가 작은 농산어촌은 월별 변화에 뚜렷한 양상이 도드라지지 않는다.

▌표 25.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양악 공연 건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도시 | 143 | 254 | 332 | 350 | 410 | 424 | 249 | 365 | 404 | 395 | 476 | 441 | 4,243 |
| 중소 도시 | 68 | 96 | 124 | 166 | 251 | 212 | 106 | 148 | 169 | 196 | 235 | 267 | 2,038 |
| 농산어촌 | 1 | 2 | 5 | 10 | 14 | 8 | 11 | 4 | 5 | 8 | 15 | 15 | 98 |
| 계 | 212 | 352 | 461 | 526 | 675 | 644 | 366 | 517 | 578 | 599 | 726 | 723 | 6,379 |

▌그림 22.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양악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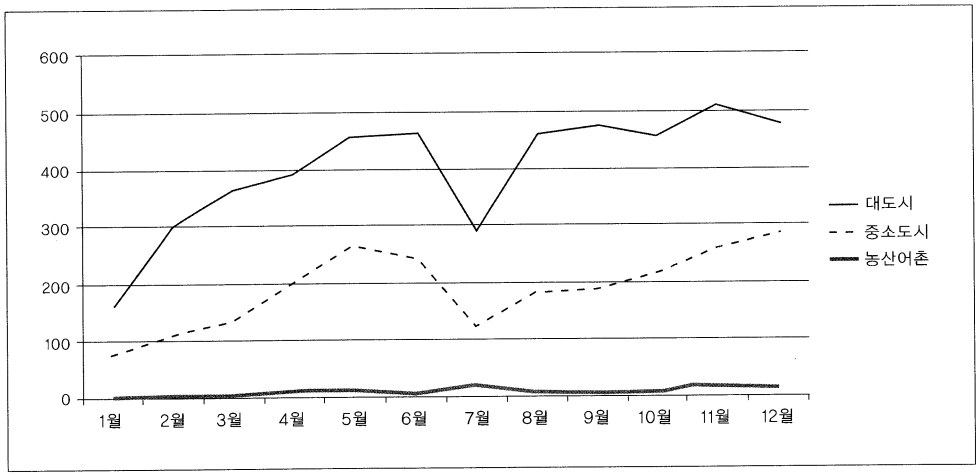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월별 양상은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표 26.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도시 | 160 | 302 | 365 | 392 | 457 | 466 | 297 | 457 | 478 | 458 | 506 | 478 | 4,816 |
| 중소 도시 | 74 | 108 | 132 | 200 | 266 | 242 | 124 | 177 | 190 | 216 | 258 | 280 | 2,267 |
| 농산어촌 | 1 | 5 | 5 | 10 | 14 | 8 | 23 | 8 | 5 | 8 | 15 | 16 | 118 |
| 계 | 235 | 415 | 502 | 602 | 737 | 716 | 444 | 642 | 673 | 682 | 779 | 774 | 7,201 |

▌그림 23. 2009년 대 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보정 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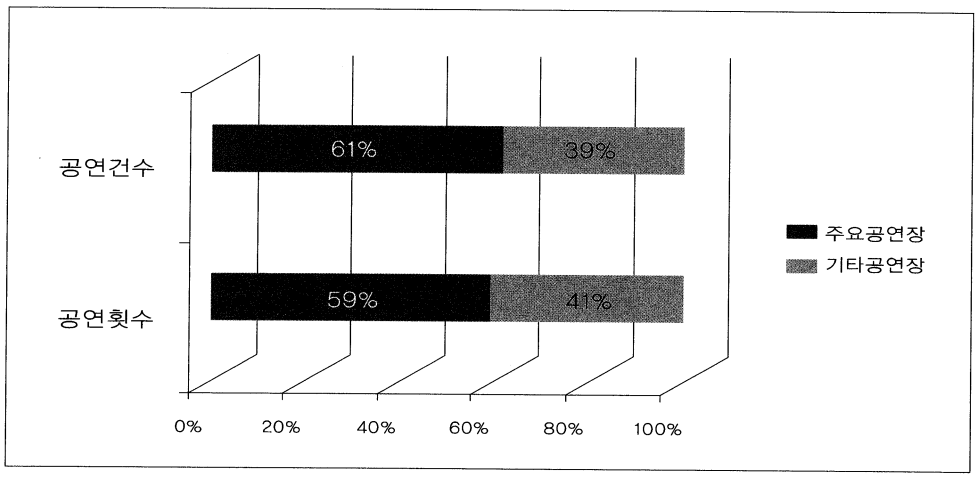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Ⅷ. 2009년 양악 분야 주요 공연장별 공연 현황

## 1. 주요 19개 공연장이 공연 건수 61%, 공연 횟수 59%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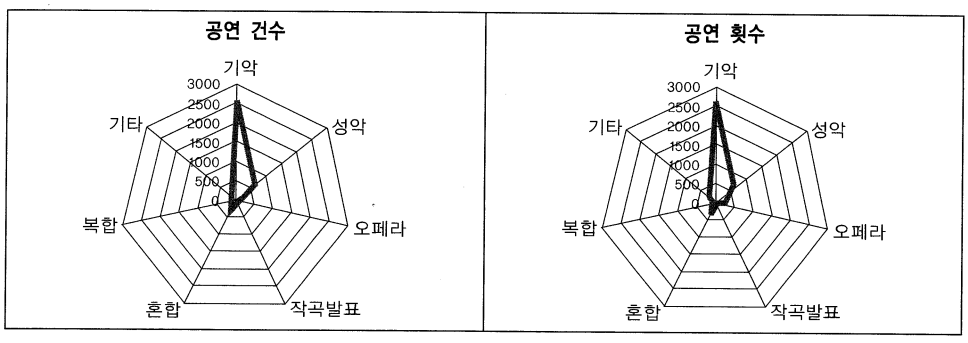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연간 10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19개다. 서울 6곳, 경기 3곳, 대구 2곳,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전북(전주), 경남(창원)에 각각 1개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4. 2009년 19개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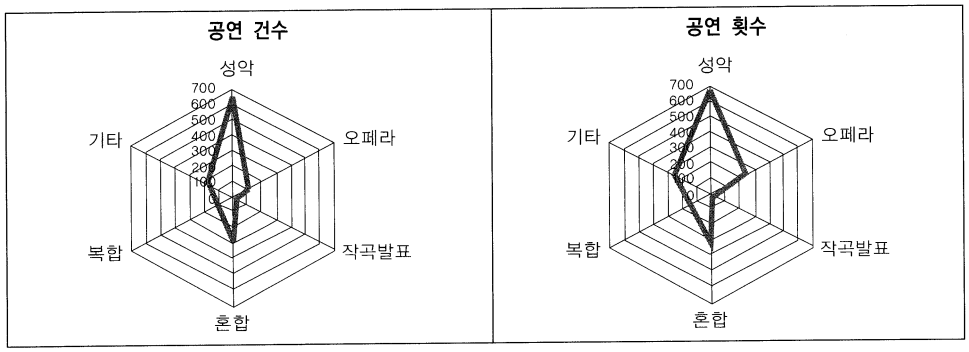

이 19개 공연장이 전체 양악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연중 공연의 61%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59%를 차지한다.

**▌그림 25. 2009년 주요 19개 공연장의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기악 포함) ▐**



주요 19개 공연장 세부 장르별 분포를 보면, 공연 건수·횟수 모두에서 기악과 성악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악의 비중이 60%인 점을 감안해 기악을 뺀 나머지 장르만 도표화하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2009년 주요 19개 공연장의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기악 제외) ▐**




공연 건수·횟수 모두에서 예술의전당이 768건, 863회로 가장 다양한 공연을 가장 활발히 무대에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97건의 공연을 435회 선보인 세종문화회관이 그 뒤를 잇는다.

**▌표 27. 2009년 주요 19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 공연장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
| 예술의전당 | 768 | 863 |
| 세종문화회관 | 397 | 435 |
| 영산아트홀 | 338 | 347 |
| 금호아트홀 | 321 | 322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226 | 241 |
| 성남아트센터 | 216 | 232 |
| 부산문화회관 | 178 | 189 |
| 울산문화예술회관 | 174 | 189 |
| 광주문화예술회관 | 161 | 176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138 | 174 |

| 공연장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
| 수성아트피아 | 166 | 172 |
| 고양아람누리 | 108 | 145 |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 123 | 136 |
| 대구문화예술회관 | 102 | 116 |
| 모차르트홀 | 112 | 115 |
| 경기도문화의전당 | 92 | 109 |
| 세라믹팔레스홀 | 96 | 103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98 | 102 |
| 창원성산아트홀 | 99 | 101 |
| 계 | 3,913 | 4,26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2.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과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공연장

주요 19개 공연장은 매우 공통점이 많지만, 세부 장르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피면 그 안에서도 유형화가 가능한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공연장은 다양한 장르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소개하는 반면, 다른 공연장은 특정 장르에 집중한다.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경우는 어느 장르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다.

**▌표 28. 2009년 주요 19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양악 공연 건수 ▐**

| 구 분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예술의전당 | 592 | 74 | 22 | 0 | 37 | 14 | 29 | 768 |
| 세종문화회관 | 270 | 93 | 6 | 2 | 11 | 6 | 9 | 397 |
| 영산아트홀 | 218 | 89 | 6 | 4 | 12 | 0 | 9 | 338 |
| 금호아트홀 | 296 | 17 | 0 | 0 | 5 | 0 | 3 | 321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155 | 27 | 10 | 1 | 18 | 3 | 12 | 226 |
| 성남아트센터 | 108 | 52 | 9 | 0 | 28 | 6 | 13 | 216 |
| 부산문화회관 | 102 | 38 | 3 | 0 | 24 | 7 | 4 | 178 |
| 울산문화예술회관 | 62 | 30 | 7 | 0 | 32 | 29 | 14 | 174 |
| 광주문화예술회관 | 78 | 46 | 4 | 2 | 23 | 1 | 7 | 161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58 | 23 | 6 | 0 | 18 | 5 | 28 | 138 |
| 수성아트피아 | 116 | 19 | 4 | 1 | 16 | 5 | 5 | 166 |
| 고양아람누리 | 59 | 15 | 8 | 0 | 15 | 3 | 8 | 108 |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 76 | 25 | 4 | 0 | 11 | 3 | 4 | 123 |
| 대구문화예술회관 | 52 | 19 | 3 | 2 | 10 | 5 | 11 | 102 |
| 모차르트홀 | 89 | 9 | 0 | 2 | 4 | 0 | 8 | 112 |
| 경기도문화의전당 | 66 | 13 | 1 | 0 | 4 | 3 | 5 | 92 |
| 세라믹팔레스홀 | 61 | 26 | 2 | 0 | 4 | 0 | 3 | 96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66 | 12 | 2 | 2 | 11 | 5 | 0 | 98 |
| 창원성산아트홀 | 53 | 18 | 6 | 2 | 12 | 8 | 0 | 99 |
| 계 | 2,577 | 645 | 103 | 18 | 295 | 103 | 172 | 3,913 |

▌표 29. 2009년 주요 19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양악 공연 횟수 ▐

| 구 분 | 기악 | 성악 | 오페라 | 작곡발표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예술의전당 | 601 | 76 | 79 | 0 | 38 | 14 | 55 | 863 |
| 세종문화회관 | 279 | 99 | 21 | 2 | 13 | 7 | 14 | 435 |
| 영산아트홀 | 226 | 89 | 6 | 4 | 13 | 0 | 9 | 347 |
| 금호아트홀 | 297 | 17 | 0 | 0 | 5 | 0 | 3 | 322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158 | 27 | 17 | 1 | 19 | 5 | 14 | 241 |
| 성남아트센터 | 114 | 53 | 17 | 0 | 29 | 6 | 13 | 232 |
| 부산문화회관 | 104 | 38 | 8 | 0 | 28 | 7 | 4 | 189 |
| 울산문화예술회관 | 62 | 30 | 9 | 0 | 32 | 39 | 17 | 189 |
| 광주문화예술회관 | 81 | 49 | 10 | 2 | 26 | 1 | 7 | 176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63 | 29 | 16 | 0 | 20 | 10 | 36 | 174 |
| 수성아트피아 | 117 | 21 | 7 | 1 | 16 | 5 | 5 | 172 |
| 고양아람누리 | 60 | 19 | 32 | 0 | 19 | 3 | 12 | 145 |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 83 | 29 | 6 | 0 | 11 | 3 | 4 | 136 |
| 대구문화예술회관 | 53 | 19 | 3 | 2 | 12 | 16 | 11 | 116 |
| 모차르트홀 | 92 | 9 | 0 | 2 | 4 | 0 | 8 | 115 |
| 경기도문화의전당 | 70 | 13 | 4 | 0 | 4 | 3 | 15 | 109 |
| 세라믹팔레스홀 | 66 | 26 | 4 | 0 | 4 | 0 | 3 | 103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67 | 12 | 4 | 2 | 12 | 5 | 0 | 102 |
| 창원성산아트홀 | 53 | 18 | 8 | 2 | 12 | 8 | 0 | 101 |
| 계 | 2,646 | 673 | 251 | 18 | 317 | 132 | 230 | 4,267 |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달리 양악은 기악의 비중이 다른 세부 장르에 비해 크기 때문에 주요 19개 공연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좀 더 극단화되어 나타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기악 분야의 자료를 제외한 세부 장르만 가지고 각 공연장의 특성을 살피면 예술의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이 비교적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공연장을 꼽자면 세라믹팔레스홀처럼 기악과 성악 공연만 다루거나, 고양아람누리처럼 오페라에 남다른 비중을 두는 모습이 더러 보인다. 하지만 기악과 성악의 비중이 높은 양악 장르의 특성상 각 공연장의 개성이 다른 공연예술 장르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IX. 2009년 양악 분야 작곡가별 공연 현황

## 1. 모차르트, 베토벤의 곡 가장 많이 연주

『2010문예연감』에서 새롭게 공연에서 연주된 연주곡의 작곡가다. 한 공연에서 다양한 곡이 연주되는 경우 해당 작곡가를 모두 기록해 넣으면 양악 장르의 전체 공연 건수·횟수보다 많을 수도 있다. 연간 공연 건수 기준 100건 이상의 공연에서 연주된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다음 2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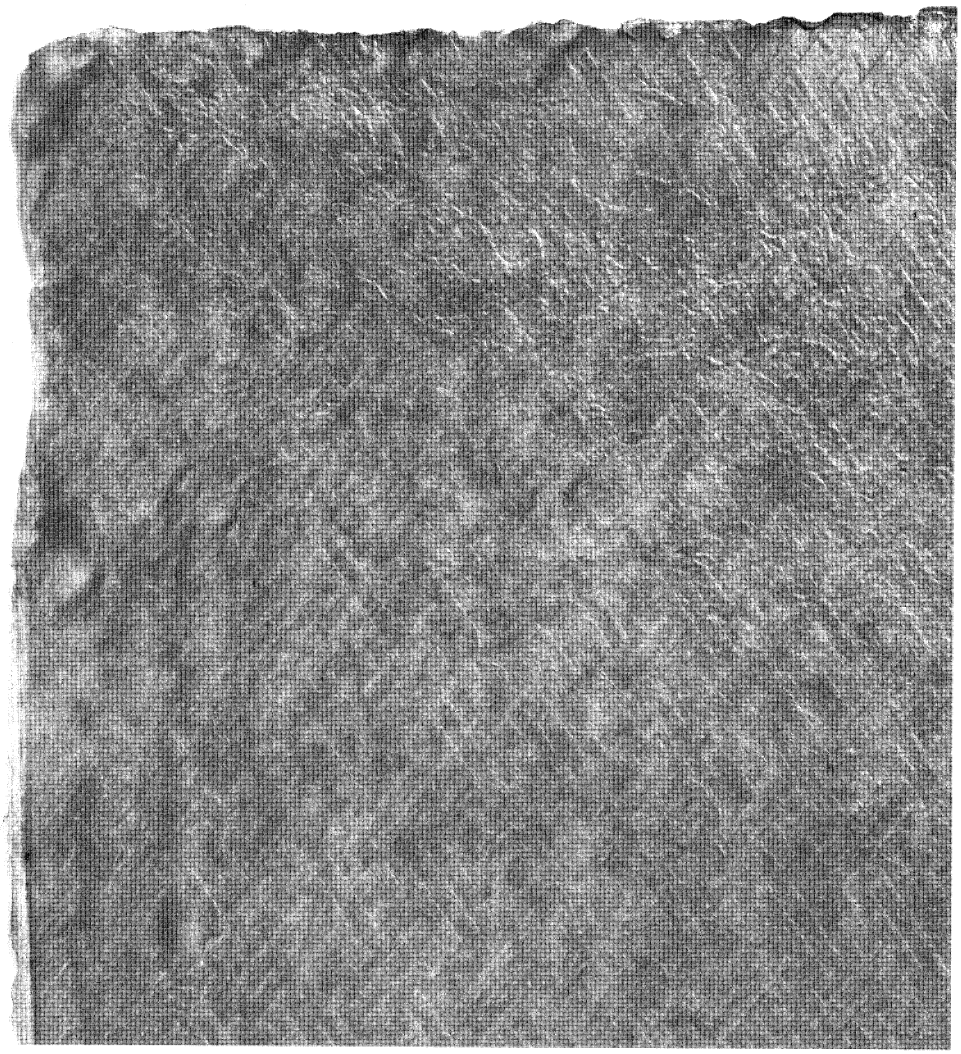
**▌표 30. 2009년 연간 100건 이상의 공연에서 연주되는 양악 분야의 작곡가 ▐**

| 작곡가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작곡가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
| 모차르트 | 900 | 983 | 푸치니 | 225 | 241 |
| 베토벤 | 793 | 839 | 로시니 | 213 | 226 |
| 바흐 | 447 | 458 | 드뷔시 | 211 | 219 |
| 브람스 | 420 | 444 | 라흐마니노프 | 203 | 211 |
| 차이코프스키 | 327 | 343 | 피아졸라 | 202 | 206 |
| 슈베르트 | 326 | 333 | 생상스 | 192 | 203 |
| 하이든 | 315 | 331 | 비제 | 187 | 201 |
| 멘델스존 | 305 | 320 | 비발디 | 181 | 183 |
| 쇼팽 | 305 | 317 | 쇼스타코비치 | 157 | 161 |
| 슈만 | 299 | 314 | 라벨 | 142 | 144 |
| 베르디 | 281 | 305 | 베버 | 140 | 142 |
| 슈트라우스 | 270 | 280 | 프로코피예프 | 119 | 130 |
| 헨델 | 242 | 279 | 도니제티 | 105 | 124 |
| 드보르자크 | 240 | 254 | 그리그 | 103 | 108 |
| 리스트 | 230 | 248 | 계 | 8,080 | 8,547 |

모차르트가 900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에서 연주되었고, 그 다음은 793건의 공연에서 연주된 베토벤이 잇는다. 향후 『문예연감』의 거듭된 조사와 자료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작곡가마다 다른 공연 건수·횟수가 클래식 팬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주자들의 선호도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 또 다른 방향에서 이러한 경향이 글로벌한 것인지, 우리나라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연 극



2010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kotic.or.kr



# 2009년 연극 총론

김윤철(국제연극평론가협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

## Ⅰ. 계량적 개괄

2009년 한국 연극은 양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다.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등 전국의 19개 주요 국공립극장에서 총 822건의 공연과 4,384회의 공연횟수를 기록했으니 한 편당 5.3회의 공연에 한 극장당 43건의 공연에 230회의 공연횟수를 기록한 셈이다. 주요 국공립극장이 하루 1회 공연을 상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면 일 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연이 있었다는 것이고 공연 준비를 위한 시간까지 감안해서 계산하면 일년 내내 연중무휴로 극장들이 풀로 가동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활발했기에 무척 다행스럽다. 연극 공연이 가능한 기타 공연장의 경우 조사된 333개의 극장에서 1,746건의 공연에 총 29,617회의 공연이 있었다. 작품당 17회 정도의 공연이 있었던 셈이고 한 극장이 약 5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역시 1일 1회 공연으로 환산하면 극장당 연 80일 정도가 공연에 사용된 셈이다. 지방 관객층의 빈약함을 감안하고, 제작 준비기간까지 포함시키면 일 년의 반 정도가 공연활동에 사용된 것이고 나머지 반은 휴관된 듯하다. 역시 공연장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관객층이 비교적 안정된 주요 공연장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운 통계지만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고려하면 그래도 절망할 수치는 아니다.

주요 국공립극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공연활동을 기록한 극장으로는 국립극장(705회), 예술의전당(526회), 대학로예술극장(488회), 아르코예술극장(357회) 등 서

울의 주요 공연장들이 예측대로 포진하고 있고 지방의 공연장으로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299회)이 가장 선두에 있고 그 뒤를 고양어울림누리(245회), 성남아트센터(231회)가 잇고 있는데, 역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의 극장들이 압도적으로 활발한 공연활동을 기록했다. 문화의 서울 편중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의 장르를 보면 주요 국공립극장의 경우 연극이 395건에 2,056회 공연, 뮤지컬이 291건에 1,871회, 퍼포먼스가 56건에 165회, 혼·복합이 49건에 193회 등을 기록했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연극은 작품당 52회, 뮤지컬은 6회, 퍼포먼스는 4회 등 공연된 것을 보면 통계상으로는 국공립극장에서 연극이 가장 장기 공연을 했고 그 다음이 뮤지컬,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진다. 뮤지컬의 절대시장을 감안하면 이 통계는 단순히 국공립극장에서 뮤지컬보다 연극이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만 이야기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동숭아트센터의 경우 476회의 공연 전체가 연극일 만큼 극단적으로 연극에 전념하는 극장도 있는 반면에 뮤지컬은 성남아트센터, 고양어울림누리, 국립극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충무아트홀, 두산아트센터 등 준 뮤지컬 전용 극장을 중심으로 공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무아트홀의 경우 연극 공연 횟수가 불과 94회에 불과한데, 뮤지컬은 무려 1,119회나 된다. 두산아트센터에서도 연극보다 뮤지컬이 거의 1.5배 더 공연된다. 뮤지컬업계가 다소 위축되고 있고 많은 뮤지컬 단체들이 연극 제작으로 돌아서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연극 경제에서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극의 그것보다 훨씬 큼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통계자료의 현실적 보완이 필요함이 느껴진다. 또한 장르적 분포를 볼 때 한국 연극계에는 아직도 혼·복합 같은 실험연극의 존재가 미미하여 연극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제적인 연극시장에서는 크로스오버가 시작되어 보편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한국의 경우 연극의 동시대적 흐름이 그다지 반영되고 있지 않거나 아주 미미하게 실험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연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시대적 흐름과 동시대문화에 소통하지 못하는 한국 연극의 오늘이 대단히 걱정스럽다.

한 나라 또는 시의 연극 애호도를 알려면 그 나라 또는 시의 인구와 일 년에 판매되는 연극 티켓의 수를 아는 것이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스톡홀름의 문화담당 관리로부터 시의 인구는 900만 명인데 연 600만 장의 연극 티켓이 팔린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거나 비슷한 규모의 시카고시의 관리로부터 인구 900만 명에 연 400만 장의 연극 티켓이 팔린다는 소개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의 인구와 지난 한 해 동안 판매된 극장 티켓의 수가 얼마인지 알면 다른 도시와 비교해 흥미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연극진흥정책을 개발하는 데 유익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예연감』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 II. 예술적 성과

2,600건에 달하는 공연작품 가운데 필자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100편 안팎을 관람하는 데 그쳤다. 국제연극평론가협회장을 맡고 있어 50편 이상의 연극을 외국에서 관람하고 있기 때문에 합하면 150편 정도를 국내외에서 보는 셈이다. 당연히 필자가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연극의 예술적 성과 면에서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편람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기록보다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칠 우려가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필자는 한국연극협회(이하 연극협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이하 평론가협회), 『동아일보』 등 공적 기관이 주관하는 연극상 수상작과 경쟁작들을 중심으로 2009년 한 해 동안의 한국 연극의 성과를 논하고자 한다.

지난해 최고의 작품은 박근형이 쓰고 연출한 극단 골목길의 <너무 놀라지 마라>다. 동아연극상의 연기상, 연출상, 작품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극협회의 베스트 7, 그리고 평론가협회의 베스트 3에 모두 선정되었다. 위 3개의 상을 모두 수상한 작품은 <너무 놀라지 마라>가 유일하다. 거세된 아버지, 집 나간 어머니, 구실 못하는 아들, 바람 피우는 며느리를 중심인물로 삼아 마치 해롤드 핀터의 <홈커밍>이나 샘 셰퍼드의 <매장된 아이>와 유사한 극적 상황을 펼치는데, 박근형 특유의 미시적 사실주의와 거시적 부조리주의의 상호작용이 이 극을 더욱 현대적으로 만든다. 목 매달아 죽은 아버지를 화장실에 매달아놓고 가족들이 화장실을 드나들며 죽은 영혼과 소통하는, 또는 죽은 뒤에도 소통하지 못하는, 참담한 가정파괴의 현실이 초현실적인 상징으로 그로테스크하게 초상된다. 이 연극의 압권은 며느리로 분한 장영남의 연기다. 그녀는 이미 쓰러지고 망가진 한심한 가정을 작부 노릇으로 부양하면서 무의미한 삶에 대한 절망과 포기, 그 와중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분노, 집착을 무시무시한 광기로 표현해냈다. 장영남은 어느덧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여

배우로 성장하였다. 자의식이 없는 동물적 집중력, 역과 쉽게 동화되는 정서적 민감성, 심리를 적절한 몸짓으로 번역해내는 잘 훈련된 신체를 발판 삼아 그녀는 아직도 성장하는 무한한 잠재력의 성인이 되었다. 연출자 박근형은 배우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창조하도록 방임하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들을 하나의 앙상블로 통합하는 숨은 재능을 보였다. 그래서 그의 연기자들은 무대 위에서 항상 숨 쉬며 싱싱하게 살아 있다. 희곡, 연출, 연기, 무대미술 등 모든 면에서 <너무 놀라지 마라>는 2009 한국 연극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

<너무 놀라지 마라>에 이어 창작극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은 작품은 주목받은 두산아트센터가 제작한 배삼식 작, 김동현 연출의 <하얀 앵두>다. 평론가 김방옥은 이렇게 희곡을 평가한다. "배삼식은 <하얀 앵두>에서 '일상의 나날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 스며든 인연, 순환, 생성, 소멸 등의 사유를 은근하면서도 섬세하게 배어나게 한다. 인연과 생명과 소멸의 고리에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같은 자연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난 따뜻함과 신선함의 감동을 준다.'" 두산아트센터의 기획 의도는 과학연극에 초점이 주어져 있지만 이 극에서 배삼식은 비록 삼엽층 화석을 통해 5억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한 가정의 소소한 일상으로 끌어들이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과학적 마인드를 적용한 흔적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연극이라는 틀을 제거해버리면 이 극은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명확하게 가르지 않고 사는 한국인 특유의 삶의 형식을 공감 있게 표현해낸다. 그 결과 상식과 비상식, 관습과 탈관습의 극 행동이 자연스럽게 무대를 건너 객석에 전달된다. 김동현도 두산아트센터의 불편한 무대구조의 한계를 역이용하면서 정갈하게 다양한 경계 넘나들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했으며, 특히 여고생 제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는 노총각 교사 역을 미워할 수 없도록 순진하게 역창조함으로써 동아연극상의 신인연기상을 수상한다.

2008년 <원전유서>라는 네 시간짜리 긴 희곡을 이윤택 연출로 발표한 김지훈이 2009년에 <방바닥 긁는 남자>를 발표하여 다시 주목을 받는다. <바닥> 3부작의 첫 작품이라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극작가 사카테 요지의 <다락방>처럼 이 극도 한국형 히키코모리들을 다루고 있다. 종말론 이후 시대의 폐가나 다름없는 한 낡은 주택에서 바깥을 몹시 두려워하는 일단의 남자 부랑아들이 한편으로 권력을 다투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를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이야기인데 집이 무너지면서 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는 수 없이 집 밖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되기까지의 극전개가 부조리와 그로테스커리로 충만하다. 그러나 이 공연은 희곡 이외의 부분에서 더 평가를 받는다. 극작가 겸 연출가인 이윤택이 <방바닥 긁는 남자>의 무대를 디자인하면서 갇힌 실내공간과 넓은 집 바깥 공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기능적으로 탄탄하게 구축하여 부조리한 존재의 한계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어 무대미술가로서는 그의 연극 생애 처음으로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을 수상한다.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연출자 이윤주는 좁은 방바닥에 기생하는 부랑아들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밀도 있게 구성해 냈고 외부와 내부, 외부인과 내부인,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그로테스크하게 그려내면서 종말 이후의 인간 풍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같은 상의 연출상을 수상했다. 세계의 연극은 더욱 젊어지고 있다. 시대정신이 '젊음'과 '새로움'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속한 무대미학의 변화에 젊은 예술가들이 더 능력 있게 대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점을 변방의 이윤주가 확인해준 것이다.

수상이라는 직접적인 영광은 성취하지 못했어도 모든 상에서 2009년 한국 연극의 주요 업적으로 거론된 작품은 이자람이 쓰고 작창한 남일우 연출의 <사천가>다. 브레히트의 대표적인 서사극을 역시 한국의 대표적 서사극 형식인 판소리로 새롭게 바꾸어 이자람이라는 걸출한 소리꾼을 통해 발표했는데, 극의 내용을 한국화 한 것과 판소리를 친근하게 만들어 전통을 기피하는 젊은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의 특유한 해학적 몸짓과 그림자극의 활용으로 극의 표현 지평을 넓힌 연출, 악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국악밴드의 연기 등 이 공연은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해외로 가장 자주 초청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되었다. 참고로 이자람은 2010년 6월 폴란드의 콘탁트 국제연극제에서 최우수 여자연기상을 타기도 했다.

2009 한국 연극은 번역극에서 많은 업적을 낸다. 그 가운데 서울시극단이 제작한 김동현 연출의 <다윈의 거북이>(스페인의 후안 마요르가 작)가 연극협회의 베스트 7, 평론가협회 베스트 3 상을 함께 수상하면서 가장 우수한 번역극 공연으로 인정받는다. 찰스 다윈 탄생 200주년과 그의 저서 「종의 기원」 출판 150주년을 기념하여 때맞춰 공연된 이 극은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데리고 나온 거북 해리엇이 유럽의 근현대사를 체험하며 인간으로 진화하여 전쟁과 학살로 이어지는 피의 역사를 증언하는데, 발상이 참 신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학대하는 동물의 눈으로 동

물보다 못한 탐욕스럽고 잔혹한 인간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를 사는 자신을 더욱 뼈저리게 성찰케 한다. 텍스트의 힘이 인문학적 사유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다. 해리엇 역의 강애심이 거북의 특징적 동작을 익숙하게 수행하면서 특유의 중성적 목소리로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대응하여 다른 어느 인간역 배우들보다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철학적 사유가 세속적 탐욕의 언어와 혼합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정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쉽게 만든 김동현의 연출도 주목받았다.

이밖에 실험극장이 구태환 연출로 공연한 <고곤의 선물>(피터 셰퍼 작)도 연극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강력한 정서 대입, 양식화된 시각 처리로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극단 청맥과 두산아트센터가 공동 제작한 본격적 과학연극 <코펜하겐>(마이클 프레인 작 윤우영 연출)은 상보성이론, 불확정성 원리 등 아주 난해한 물리학 이론들을 사제지간인 두 과학자의 관계와 인격, 양심 등 매우 인간적인 갈등과 연계하여 과학이론의 인간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는데 남명렬, 이상직, 김호정 등이 지적인 고뇌를 표현하는 데 엄청난 정서를 개입시켜 관객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냈다. 극단 여행자가 양정웅 연출로 공연한 입센의 <페르귄트>는 장난감 같은 무대도구들, 이중의 거울장치를 사용하여 페르귄트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화적이면서 동시에 실존적 고뇌로 가득한 주인공의 여정으로 효과적으로 도해하였다.

번역극 공연 가운데 큰 기대를 모았지만 아쉽게 끝난 작품으로 재일교포로 일본을 대표하는 극작가로 우뚝 서 있는 정의신이 쓰고 연출한 <바케레타>다. 한 해 전 <야키니쿠 드래곤>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찬사를 받았던 뒤라 기대는 더욱 컸을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은 <야키니쿠 드래곤>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지만 작가가 직접 연출했으니 원작의 미비점을 스스로 보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웠다. 폐암으로 죽어가는 극단 대표, 나날이 궁색해지는 극단 살림, 단원들의 동요. 죽어가는 연출가를 둘러싼 삼각관계,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로 가득한 이 극에 정의신은 다른 작품에서 번득였던 삶에 대한 통찰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지 못하고 단순히 감각과 상상만으로 죽어가는 극단의 단원들을 피상적으로 그리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연극은 한국 연극계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장르다. 사람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관심이 적어서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이미 그 시장은 상당히 커졌고 전문 극단도 상당한 수에 이르며,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극협회가 뽑은 베스트 7에 극단 학전이 폴커 루트비히의 원작을 김민기가 번안, 연출해서 공연한 <무적의 삼총사>가 들어 있을 만큼 예술적으로도 이제 상당한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 3학년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학원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지하철 1호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동극 역시 사회적 주제를 직접 태클하며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사실 아동연극이 성공하려면 어린이들을 극장으로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까지 만족시킬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연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동청소년 연극의 중흥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어릴 때부터 연극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평생 연극을 사랑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아동극이든 성인극이든 연극의 중심은 배우다. 현대서구의 연극 가운데 배우보다는 연출자의 극 개념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작아지고는 있으나 빈 공간에서 살아있는 배우와 살아 있는 배우가 공통의 경험을 나누거나 창조하는 연극예술의 본질을 감안할 때 배우 중심이 아닌 연극은 온전한 감동을 관객한테 선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배우의 연기를 중요시하는 필자는 2009년 한 해의 연극을 정리하는 이 글에서 두 배우의 업적에 대해 새삼 강조할 필요를 느낀다. 두 사람 다 긴 세월 동안 연극무대에서 활동해오고 있지만 그다지 큰 주목을 받아보지 못했던 배우들이다.

새로 개관된 명동극장에서 임영웅 연출로 공연된 <밤으로의 긴 여로>의 큰아들 제이미 역을 맡은 최광일과 오프 대학로의 아주 열악한 시설의 소극장에서 김은성 작, 전인철 연출로 공연된 <시동라사>의 아내 역 이지현이 그들이다. 최광일은 이 길고 우울하고 지루한 극을 등장할 때마다 마치 구원투수처럼 성격과 상황에 완전 일치한 진정성으로 생생하게 구출해냈다. 그의 역 비중이 다른 가족들에 비해 가장 작았지만 연기의 진정성으로 인해 그의 역할은 누구보다도 큰 크기를 주장했다. 많은 <밤으로의 긴 여로>를 한국에서 봤지만 그 가운데 최광일의 제이미 역할이 가장 진정했다. <시동라사>의 이지현은 남편의 의처증과 옷 만드는 일에 대한 집착, 옛 애인의 유혹, 자기실현에 대한 욕망 등 복잡하고 깊은 심리적 환경을 유영하면서 존재로 연기하는 보기 드문 업적을 이룩해냈다. 스타니슬라프스키가 진실한 연기를 위해서 학생배우들한테 "90%를 버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금언이다. 이지현은 무언가를 그려내려고 형용사적으로 역을 묘사하는 대신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로 극적 상황 속에서 유기적으로 생각했고, 동물적으로 집중했으며, 자유롭게 살았다.

## Ⅲ. 결론

2009년은 한국 연극의 한 전환점이다. 명동예술극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예술극장 등 중극장이 한꺼번에 개관되면서 그동안 소극장에만 의존하던 미학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다행히 제작자로서의 극장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이들 중극장에서 이루어지면서 극장마다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산예술센터는 새롭고 젊은 연극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물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명동예술극장은 오영진 작, 이병훈 연출의 <맹진사댁 경사>로 첫 작품을 발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클래식을 중심으로 중년 이상의 관객들을 타깃으로 삼아 예술적이면서 동시에 대중적인 연극의 복원에 힘쓰고 있다. 대학로예술극장은 주로 민간극단의 좋은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초청하여 공연하고 있다. 130여 개나 되는 대학로의 극장들은 말이 극장이지 대부분은 건물의 지하공간일 뿐이다. 연극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간이 아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의자, 탁한 공기, 좁고 낮은 무대, 형편없는 부대시설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연극을 목적으로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건축된 극장들이 생겼다는 사실은 한국 연극을 위해 대단히 다행한 일이다. 극장마다 개성 있고 다양한 특성을 살려나가되 어느 한 계층을 배제하는 기획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극장마다 방점이 다를 뿐, 거기를 찾아오는 관객이나 거기서 일하는 예술가들이 다양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을 때 연극이 진흥되고 극장이 건강해진다.

그동안 한국 연극이 해외로 진출하여 호평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유수한 국제연극제에서 그랑프리를 종종 타기도 할 만큼 성장했다. 한국예술가들의 해외초청 사례도 동아시아를 중심해서 더욱 빈번해졌다 이제 이들 중극장에서 제작된 본격적인 연극작품들이 좀 더 자주 국제적으로 초청받게 될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작품들이 일상적으로 초청되어 서울에서 공연되고 있는 지금, 한국 연극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남산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센터가 세계의 유수한 시립극장들과 연대하려는 기획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이런 교류를 확대하여 한국적 정체성 있는 연극을 만들되 국제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법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앞에 좋은 극장들이 일시에 개관된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고, 그런 희망으로 2009년 한국 연극을 정리한다.

연극 현황분석

# 2009년 연극 현황분석

황윤숙(문화리서치피오 대표)

## Ⅰ. 연극 공연의 연도별 추이

최근 5년간 『문예연감』 편람에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극 공연의 양적인 추이를 살필 수 있다. 2008년 이전의 편람은 자료조사 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이고, 공연 횟수를 제외하고 공연 건수만 수집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다면 함께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차이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인다면 비교 자체를 피해갈 필요는 없다.

최근 5년간 연극은 연간 평균 약 2,639건이 공연됐다. 자료조사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2,347건으로 건수가 낮아졌었지만, 2009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조사 방법을 보완해 연극 공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경로를 확대한 2009년에는 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2,568건 수준을 나타냈다.

**▌표 1. 최근 5년간 연극 공연의 공연 건수 추이 ▌**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공연건수 | 2,682 | 2,617 | 2,983 | 2,347 | 2,568 |

2008년부터는 자료조사 방법의 표준화와 함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를 수집했기 때문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율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율은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평균 몇 회 정도 상연되는지 보여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08년은 한 공연당 평균 13.9회, 2009년은 13.2회로 전년도에 비해 2009년엔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공연 기간이 짧은 지방 공연들이 2008년에 비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2008년과 2009년의 연극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 연 도 | 2008년 | 2009년 |
|---|---|---|
| 공연 건수 | 2,347 | 2,568 |
| 공연 횟수 | 32,647 | 34,001 |
| 공연 건수/공연 횟수 비율 | 13.9 | 13.2 |

# II. 2009년 연극 분야 장르별 공연 현황

## 1. 연극 내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2010문예연감』의 분류 기준에서는 연극 공연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한다. 세부 장르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피면 각 분야별로 한 해 동안 공연이 양적인 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단순화해서 알 수 있다. 이 숫자들은 하나하나의 공연이 품고 있을 차이와 특수성을 담아내진 못하지만, '2009년 연극 공연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표 3. 2009년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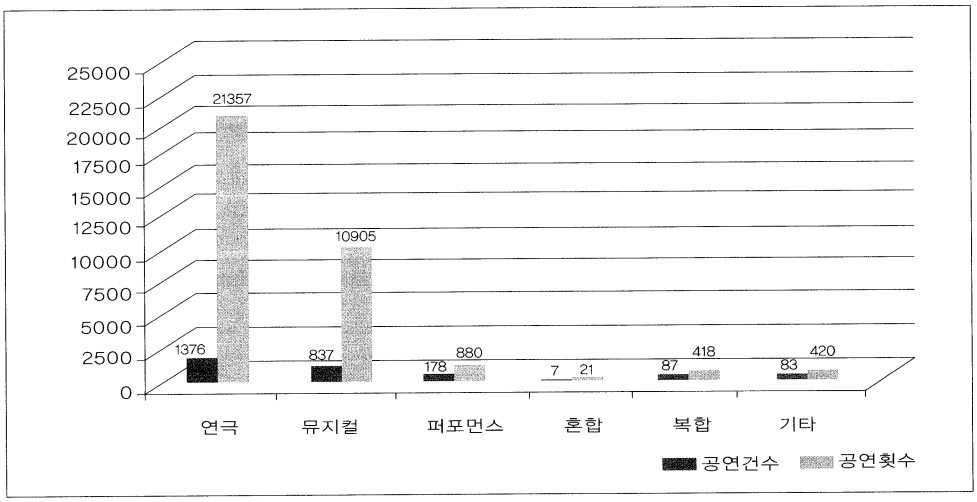
|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1,376 | 837 | 178 | 7 | 87 | 83 | 2,568 |
| | 비율 | 54% | 33% | 7% | 0% | 3% | 3%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21,357 | 10,905 | 880 | 21 | 418 | 420 | 34,001 |
| | 비율 | 63% | 32% | 3% | 0% | 1% | 1% | 100% |
|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 | | 15.5 | 13.0 | 4.9 | 3.0 | 4.8 | 5.1 | 13.2 |

공연 건수는 연극이 1,376건, 그 다음은 뮤지컬 837건, 퍼포먼스 178건, 복합 87건, 혼합 7건 순의 비중을 보인다. 그중 연극은 절반을 넘는 54%로, 그 다음을 잇고 있는 뮤지컬에 비해 21%나 많다. 다른 세부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연극과 뮤지컬을 더하면 전체의 86%에 달한다. 이렇게 일부 세부 분야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것은 연극과 뮤지컬의 특성상 하나의 레퍼토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말을 매개로 하는 장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 타 장르와의 융합이 덜 시도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장르들에 비해 혼합이 특히 적은 이유는 공연이 길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면 중간에 끊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러 공연을 짜깁기해 공연하기보다는 하나의 공연을 끝까지 상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 2009년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2.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로 살펴본 연극 내 세부 장르별 실태 차이

연극 공연 전체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3.2%로 다른 장르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다.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13회 정도의 공연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는 연극이 그만큼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으며, 4개의 공연 분야 중 가장 상업화된 장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부 장르별로는 연극이 15.5회로 가장 높고, 뮤지컬

13.0회, 기타 5.1회, 퍼포먼스 4.9회, 복합 4.8회, 혼합 3.0회 순으로 나타난다.

**▌표 4. 2009년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1,376 | 837 | 178 | 7 | 87 | 83 | 2,568 |
| 공연 횟수 | 21,357 | 10,905 | 880 | 21 | 418 | 420 | 34,001 |
| 횟수/건수 비율 | 15.5 | 13.0 | 4.9 | 3.0 | 4.8 | 5.1 | 13.2 |

연극 공연 중에서 가장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한 작품은 연극열전 주최로 PMC 소극장에서 오픈런으로 공연한 박춘근 극, 김낙형 연출의 <민들레 바람되어>로 2009년 한 해 동안 총 551회 공연이 진행됐다. 그 다음은 <new 강풀의 순정만화(3월, 오픈런)> 484회, <너만 사랑할 수 있어(오픈런)>, <사기꾼들(오픈런)>, <닥터 이라브 에피소드 1(오픈런)>, <그대를 사랑합니다(오픈런)>, <용띠 위에 개띠(오픈런)> 등 각 423회, <그 남자 그 여자(1월, 오픈런)>, <70분간의 연애-He&She(1월, 오픈런)> 등 각 406회로 400회 이상 공연만 8건이다.

뮤지컬 공연 중에서는 ㈜트라이프로가 대학로라이브극장에서 3월에 시작해 오픈런으로 공연한 서재준 극/연출의 <카페인 시즌2>로 347회 공연이 진행됐다.

그 외에 퍼포먼스는 동수컴퍼니의 <애니비트>가 286회, 혼합은 작은무대의 <성냥팔이 소녀, 미운 아기오리>가 5회, 복합은 <이오네스코 단막극시리즈>가 51회로 각 세부 분야별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다.

## Ⅲ. 2009년 연극 분야 부문별 공연 현황

### 1. 창작극은 공연당 평균 14.3회, 번역극은 14.4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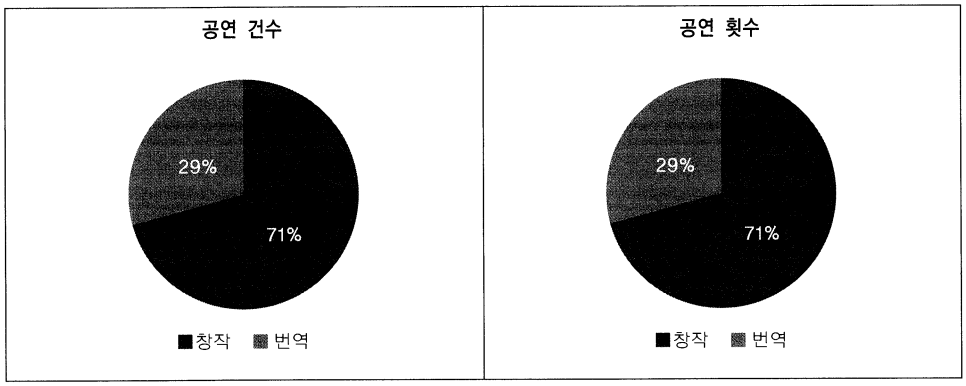
연극에서는 한 해 공연된 작품 중 창작극과 번역극을 나누어 살핀 자료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2010문예연감』은 연극 공연에 대해 각 공연작품이 창작극인지 번역극인지 불완전하나마 분류하고자 했다. 분명히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만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 상태로 두었다.

▌표 5. 2009년 연극 공연의 창작극과 번역극 분포 ▐

| | 창작 | 번역 | 미분류 | 계 |
|---|---|---|---|---|
| 공연 건수 | 1,485 | 613 | 470 | 2,568 |
| 공연 횟수 | 21,224 | 8,843 | 3,934 | 34,001 |
| 횟수/건수 비율 | 14.3 | 14.4 | 8.4 | 13.2 |

미분류인 공연을 제외하고,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창작극은 1,485건으로 71%, 번역극은 613건으로 29%를 차지한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해도 창작 작품이 21,224회로 71%, 번역극이 8,843회로 29%를 차지한다.

▌그림 2. 2009년 연극 공연의 창작극과 번역극 비중(미분류 항목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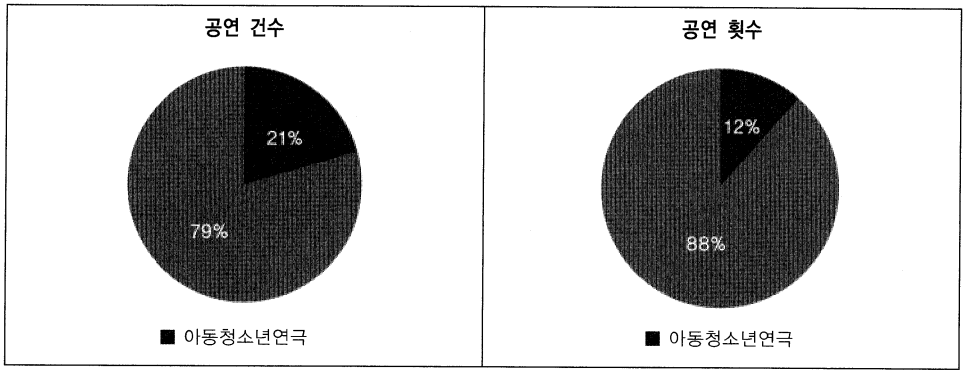

## 2. 연극 공연 5개 중 1개는 아동청소년 연극

2008년 분석에는 아동·교육극을 세부 분야로 다루었으나, 2009년에는 아동청소년 연극을 별도로 구분했다. 아동청소년 연극 또한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등 세부 분야로 구분되기 때문에 현실을 좀 더 명확히 반영하게 된 것이다.

2009년 공연 중 530건(3,940회)의 연극 공연이 아동청소년 연극이다. 이는 공연 건수 기준으로 21%, 공연 횟수 기준으로는 12%를 차지한다. 전체 연극 공연의 5분의 1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인 셈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3. 2009년도 연극 공연 중 아동청소년 연극 비중 ▐




# IV. 2009년 연극 분야 월별 공연 현황

## 1. 월별 공연 분포는 M자형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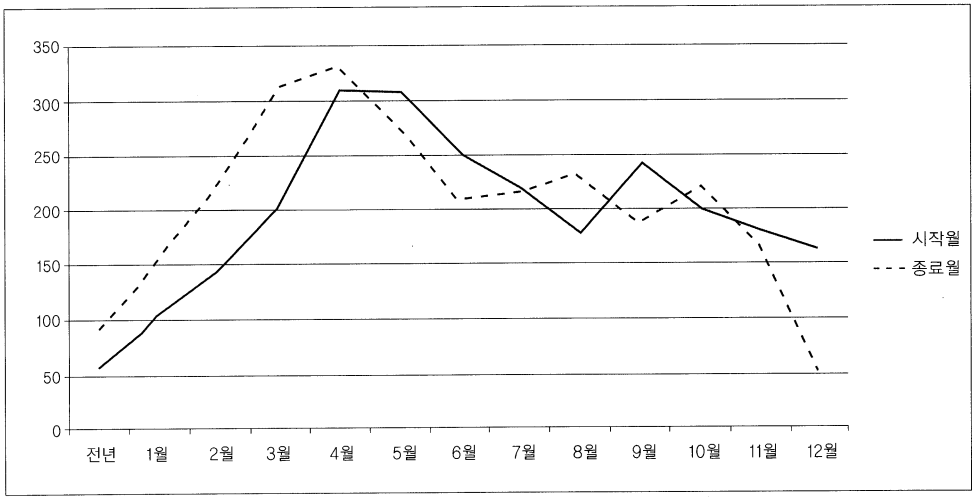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에서 관찰되는 패턴으로, 봄과 가을이 여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다.

▌표 6. 2009년도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시작월 기준 ▐

| 구 분 | | 전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55 | 103 | 147 | 206 | 311 | 307 | 252 | 223 | 178 | 241 | 200 | 181 | 164 | 2,568 |
| | 비율 | 2% | 4% | 6% | 8% | 12% | 12% | 10% | 9% | 7% | 9% | 8% | 7% | 6%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4,099 | 2,745 | 2,202 | 3,446 | 3,612 | 2,787 | 2,181 | 3,457 | 1,810 | 2,904 | 1,953 | 1,663 | 1,142 | 34,001 |
| | 비율 | 12% | 8% | 6% | 10% | 11% | 8% | 6% | 10% | 5% | 9% | 6% | 5% | 3% | 100% |

<표 6>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일부 변형은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M자형 곡선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2009년도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건수 분포 ▐




연극 공연의 경우 공연 기간이 다른 장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종료월 기준으로도 살펴야 한다. 약간 패턴의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만한 M자형 곡선을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표 7. 2009년도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종료월 기준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내년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92 | 151 | 212 | 296 | 317 | 257 | 203 | 207 | 223 | 180 | 212 | 162 | 56 | 2,568 |
| | 비율 | 4% | 6% | 8% | 12% | 12% | 10% | 8% | 8% | 9% | 7% | 8% | 6% | 2%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871 | 2,334 | 2,397 | 1,953 | 3,023 | 2,868 | 2,095 | 3,030 | 1,968 | 1,706 | 2,057 | 2,200 | 7,499 | 34,001 |
| | 비율 | 3% | 7% | 7% | 6% | 9% | 8% | 6% | 9% | 6% | 5% | 6% | 6% | 2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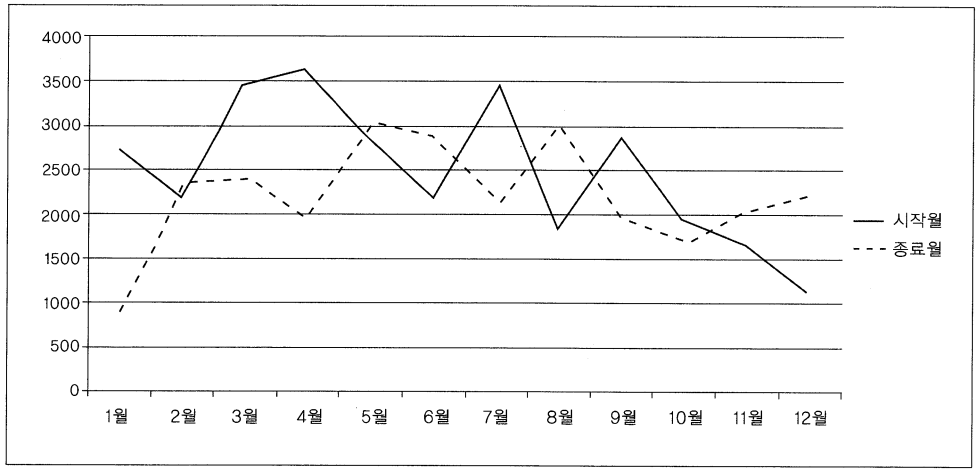
연극 공연의 경우 장기적으로 다회 공연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여러 해에 걸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작월 기준 분포에서 7월에 공연이 유독 많이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한 아동청소년 연극이 이때 집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료월 기준 분포에서 8월에 종료되는 공연이 급증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겨울방학 시즌인 1~2월에도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패턴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7~8월 패턴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공연을 단위로 자료가 취합된 만큼, 1월에 열리는 공연 횟수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연중 횟수가 모두 1월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2009년도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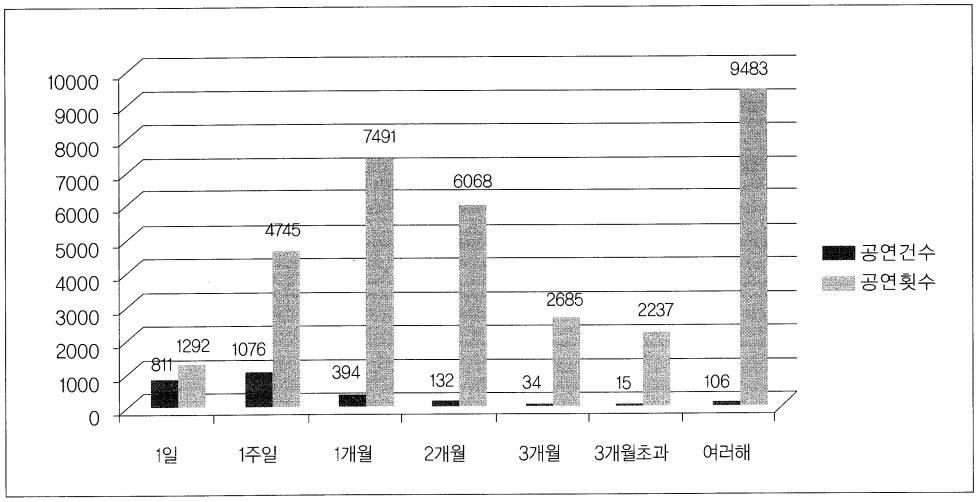

## 2. 한 주 정도 하는 공연이 가장 많음

연극 공연의 경우 공연 기간에 따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1주일 정도 하는 공연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극 공연이 장기적으로 공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만 하는 공연도 811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해 하는 공연을 제외하고, 공연 건수는 1주일 공연이 가장 많고, 공연 횟수는 1개월이 가장 많다.

**▌표 8. 2009년 연극 공연의 공연 기간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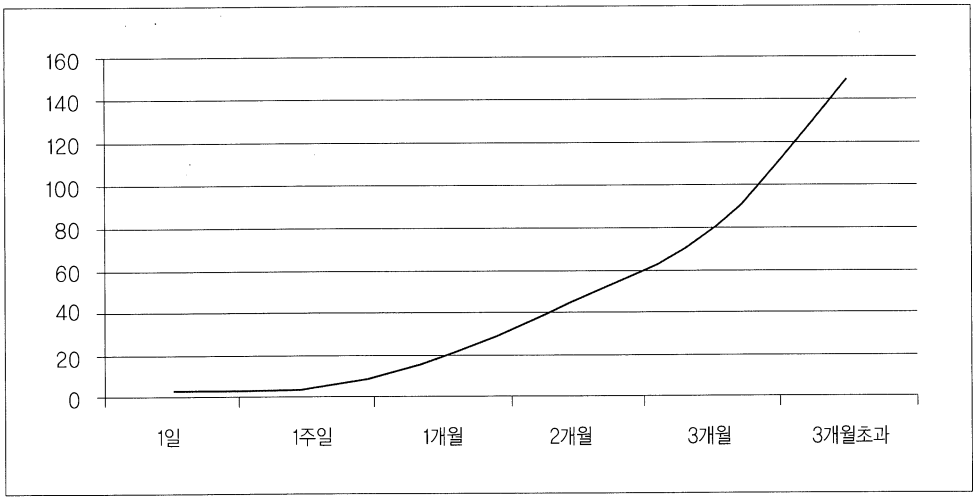
| | | 1일 | 1주일 | 1개월 | 2개월 | 3개월 | 3개월 초과 | 여러 해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811 | 1,076 | 394 | 132 | 34 | 15 | 106 | 2,568 |
| | 비율 | 32% | 42% | 15% | 5% | 1% | 1% | 4%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1,292 | 4,745 | 7,491 | 6,068 | 2,685 | 2,237 | 9,483 | 34,001 |
| | 비율 | 4% | 14% | 22% | 18% | 8% | 7% | 28% | 100% |
| 횟수/건수 비율 | | 1.6 | 4.4 | 19.0 | 46.0 | 79.0 | 149.1 | 89.5 | 13.2 |

▌그림 6. 2009년 연극 공연의 공연 기간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횟수 대 공연 건수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루 하는 공연들은 공연당 평균 1.6회 정도 공연하고, 1주일 공연은 4.4회, 1개월 공연은 19.0회, 2개월 공연은 46.0회, 3개월 공연은 79.0회, 해를 넘기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당 149.1회가 공연된다.

▌그림 7. 2009년 연극 공연의 공연기간별 공연 횟수 대 공연 건수 비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V. 2009년 연극 분야 시도별 공연 현황

## 1. 서울·경기·경남·부산· 대구 순으로 연극 공연 활발

16개 시도별 지역마다 달리 나타나는 연극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서 가장 공연 량이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는 다음으로 많은 경기의 1.5배 수준인 656건이지만,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8.5배에 달하는 23,003회다. 전국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연극 공연 중 서울에서 이루어진 공연은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5.5%지만,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67.7%로 전체의 3분의 2를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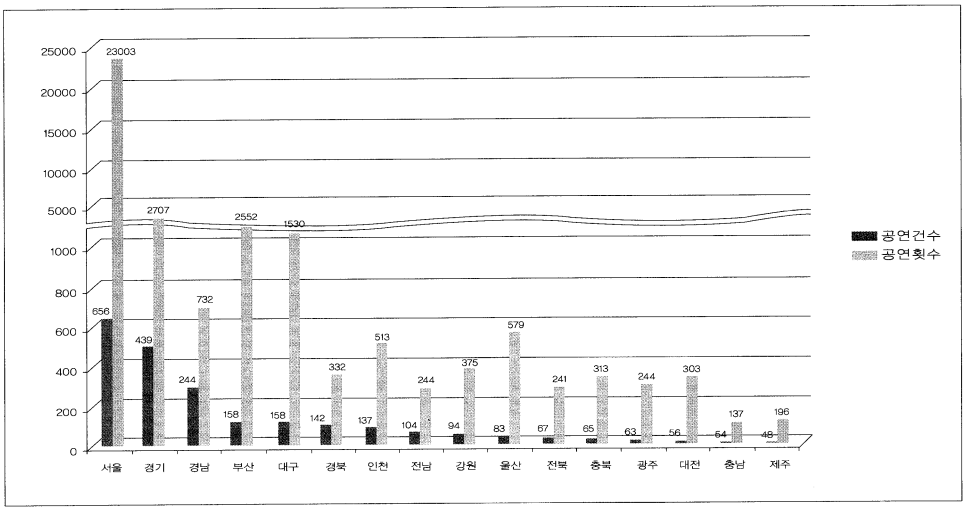
**▌표 9. 2009년 16개 시도별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서울 | 경기 | 경남 | 부산 | 대구 | 경북 | 인천 | 전남 | 강원 |
|---|---|---|---|---|---|---|---|---|---|
| 공연건수 | 656 | 439 | 244 | 158 | 158 | 142 | 137 | 104 | 94 |
| 공연 횟수 | 23,003 | 2,707 | 732 | 2,552 | 1,530 | 332 | 513 | 244 | 375 |
| 구 분 | 울산 | 전북 | 충북 | 광주 | 대전 | 충남 | 제주 | 계 | |
| 공연 건수 | 83 | 67 | 65 | 63 | 56 | 54 | 48 | 2,568 | |
| 공연 횟수 | 579 | 241 | 313 | 244 | 303 | 137 | 196 | 34,001 | |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16개 시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에서 연간 약 150건 이상의 연극 공연이 이루어졌다. 경남이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극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가족극페스티벌』, 『거창겨울연극제』, 『거창전국대학연극제』, 『경남연극제』, 『마산국제연극제』, 『블루거제페스티벌』, 『아시아공연예술제』, 『통영연극예술축제』 등 축제들이 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마산시(현 통합 창원시), 통영시 등지에서 활발하게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은 축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 공연 횟수는 더 적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 23,003회, 경기 2,707회, 부산 2,552회, 대구 1,530회, 경남 732회 순이었다.

▌그림 8. 2009년 16개 시도별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서울이다. 한 공연당 평균 35.1회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은 부산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인 16.2회를 기록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모두 한 자릿수다. 공연 건수와 횟수에서 수위를 기록했던 경남은 한 공연당 공연 횟수가 3.0회로 나타났다.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에서 울산이 두드러진다. 울산에서는 한 공연당 7.0회의 공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울산 동구의 한마음회관과 현대예술관을 중심으로 평균 20회 이상의 아동청소년 연극이 활발하게 공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웅을 기다리며>,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빨래> 등 뮤지컬이 평균 20회 이상 공연된 것도 한몫 했다.

▌표 10. 2009년 16개 시도별 연극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 ▐

| 지 역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비율 |
|---|---|---|---|
| 서울 | 656 | 23,003 | 35.1 |
| 부산 | 158 | 2,552 | 16.2 |
| 대구 | 158 | 1,530 | 9.7 |
| 울산 | 83 | 579 | 7.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계속)

| 지 역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비율 |
|---|---|---|---|
| 경기 | 439 | 2,707 | 6.2 |
| 대전 | 56 | 303 | 5.4 |
| 충북 | 65 | 313 | 4.8 |
| 제주 | 48 | 196 | 4.1 |
| 강원 | 94 | 375 | 4.0 |
| 광주 | 63 | 244 | 3.9 |
| 인천 | 137 | 513 | 3.7 |
| 전북 | 67 | 241 | 3.6 |
| 경남 | 244 | 732 | 3.0 |
| 충남 | 54 | 137 | 2.5 |
| 전남 | 104 | 244 | 2.3 |
| 경북 | 142 | 332 | 2.3 |
| 계 | 2,568 | 34,001 | 13.2 |

## 2. 공연 횟수는 수도권이 우세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나머지 13개 시도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했다. 공연 건수에서는 수도권이 1,230건, 비수도권이 1,338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연 횟수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7,793회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26,208회를 보인다. 비수도권에 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회 공연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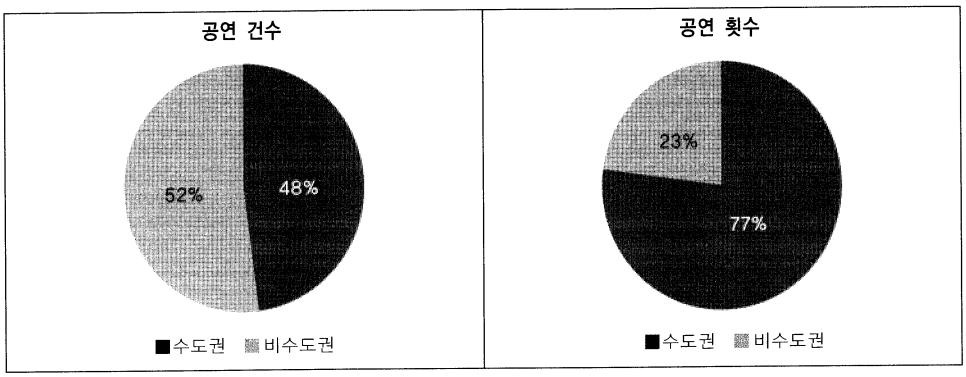
**▌표 11.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비수도권 | 계 |
|---|---|---|---|---|
| 공연 건수 | 1,230 | 1,338 | 0.9 | 2,568 |
| 공연 횟수 | 26,208 | 7,793 | 3.4 | 34,001 |

<표 11>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나타난다. 공연 건수에서는 비수도권이 약간 더 많지만, 공연 횟수에서는 큰 차이로 수도권이 앞선다.

**▌그림 9.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지역을 기초 단위까지 분류해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범주화할 경우, 공연 건수에서 나타난 차이가 공연 횟수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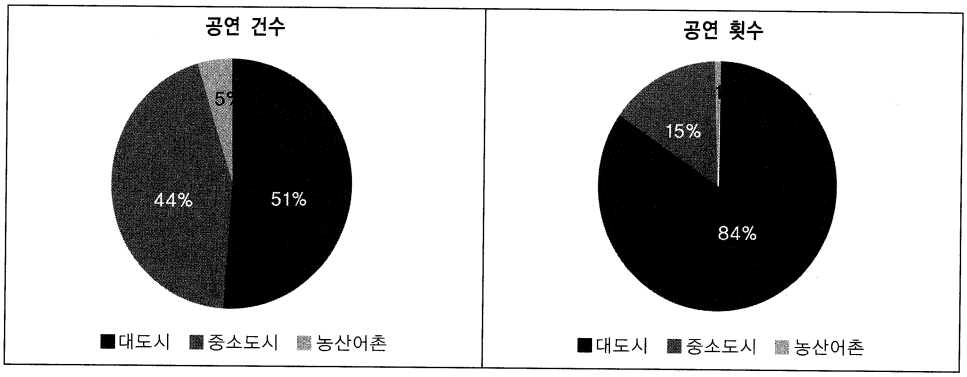
**▌표 12.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 대도시 | 중소 도시 | 농산어촌 | 계 |
|---|---|---|---|---|
| 공연 건수 | 1,311 | 1,137 | 120 | 2,568 |
| 공연 횟수 | 28,724 | 5,081 | 196 | 34,001 |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공연 건수 격차는 1.2배 수준이지만, 공연 횟수 격차는 5.7배 수준으로 더 크게 벌어진다. 이에 비해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은 공연 건수 격차가 9.5배에서 공연 횟수 격차가 25.9배 수준으로 대도시와 중소 도시 차이에 비해 더 큰 격차를 보인다.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공연건당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10.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3. 지역 인구 대비 공연 건수는 제주, 공연 횟수는 서울

지역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연극 공연이 지역별로 어떤 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해당 지역의 인구다.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연극 공연이 열리는지 살피면 실제 연극 공연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지역별로 단순히 공연 수에 기대어 살피는 비교보다 실질적인 지역 비교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실제로 각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해서,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단순한 지역별 비교 때는 볼 수 없던 특성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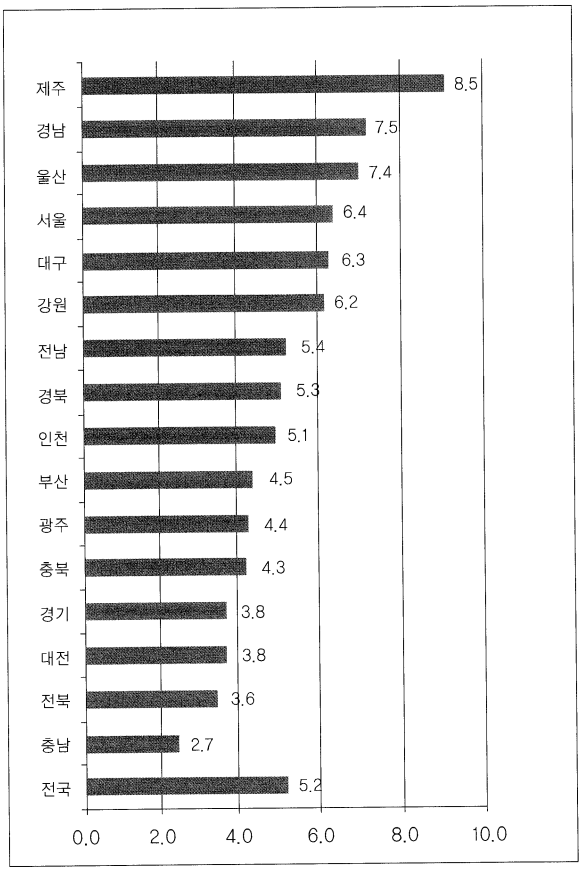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은 5.2건, 공연 횟수로 보면 68.3회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살폈을 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제주다. 제주는 공연 건수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하자 인구 10만 명당 8.5건으로 최상위를 기록했다.

공연 건수에서 2위를 차지했던 경기는 인구 10만 명당 3.8건 공연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인구 규모만 보자면 서울을 넘어서는 데 비해,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경기 현지에서 오르는 공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공연 수에서 경기의 부진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경남이 7.5건, 울산이 7.4건으로 지역별 단순 비교 때보다 순위가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지역은 이전 지역별 비교 때와 근소한 차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상이다.

**표 13.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 건수**

| 순위 | 지역 | 공연건수 |
|---|---|---|
| 1 | 제주 | 8.5 |
| 2 | 경남 | 7.5 |
| 3 | 울산 | 7.4 |
| 4 | 서울 | 6.4 |
| 5 | 대구 | 6.3 |
| 6 | 강원 | 6.2 |
| 7 | 전남 | 5.4 |
| 8 | 경북 | 5.3 |
| 9 | 인천 | 5.1 |
| 10 | 부산 | 4.5 |
| 11 | 광주 | 4.4 |
| 12 | 충북 | 4.3 |
| 13 | 경기 | 3.8 |
| 14 | 대전 | 3.8 |
| 15 | 전북 | 3.6 |
| 16 | 충남 | 2.7 |
| - | 전국 |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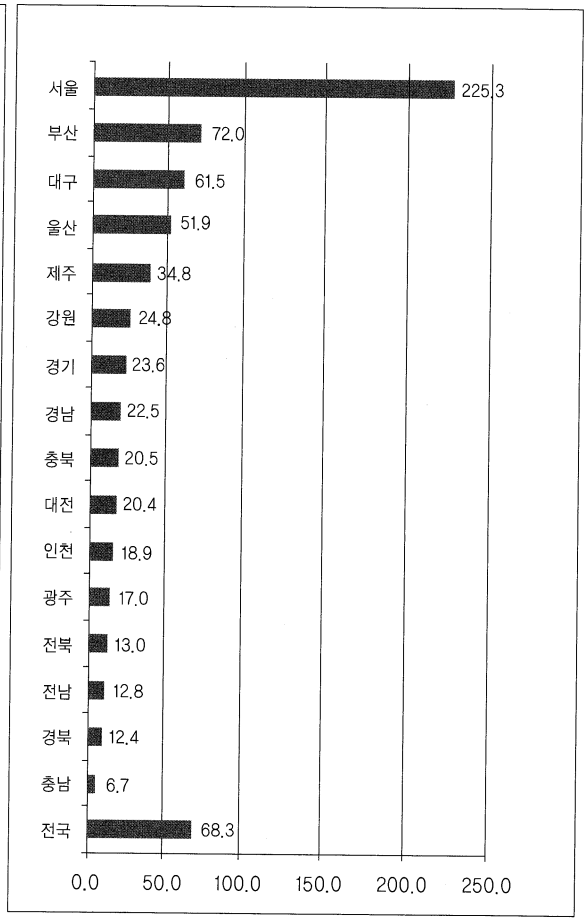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는 공연 건수와는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다.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이 225.3회로 72.0회인 부산을 큰 차이로 앞서며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공연 횟수를 보인다. 공연 건수에서는 아래쪽으로 처져 있던 부산(72.0회)이 다시 수위로 복귀하고, 경기(23.6회), 대전(20.4회)의 순위가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반면 전남(12.8회)이나 경북(12.4회)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4.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 횟수 ▐**

| 순위 | 지역 | 공연횟수 |
|---|---|---|
| 1 | 서울 | 225.3 |
| 2 | 부산 | 72.0 |
| 3 | 대구 | 61.5 |
| 4 | 울산 | 51.9 |
| 5 | 제주 | 34.8 |
| 6 | 강원 | 24.8 |
| 7 | 경기 | 23.6 |
| 8 | 경남 | 22.5 |
| 9 | 충북 | 20.5 |
| 10 | 대전 | 20.4 |
| 11 | 인천 | 18.9 |
| 12 | 광주 | 17.0 |
| 13 | 전북 | 13.0 |
| 14 | 전남 | 12.8 |
| 15 | 경북 | 12.4 |
| 16 | 충남 | 6.7 |
| - | 전국 | 68.3 |




## 4. 최근 3년간 경북·울산은 공연 증가, 서울·부산·강원·충남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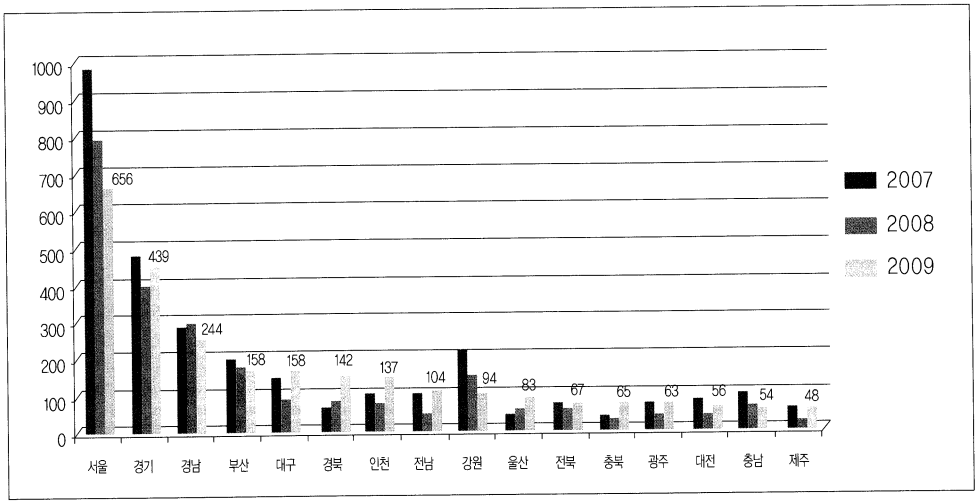
조사 방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인 2007년과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그리고 보완을 통해 조사 방법의 표준화가 자리를 잡은 2009년의 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것에는 분명 유의해야 할 점이 있지만, 편람 자료의 중요성과 포괄성을 생각한다면 비교의 가치가 충분하다.

▌표 15. 최근 3년간 연극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 | 서울 | 경기 | 경남 | 부산 | 대구 | 경북 | 인천 | 전남 | 강원 |
|---|---|---|---|---|---|---|---|---|---|
| 2007년 | 979 | 474 | 282 | 195 | 145 | 63 | 97 | 99 | 214 |
| 2008년 | 787 | 392 | 290 | 171 | 85 | 77 | 71 | 40 | 144 |
| 2009년 | 656 | 439 | 244 | 158 | 158 | 142 | 137 | 104 | 94 |
| | 울산 | 전북 | 충북 | 광주 | 대전 | 충남 | 제주 | 계 | |
| 2007년 | 34 | 71 | 32 | 70 | 77 | 95 | 56 | 2,983 | |
| 2008년 | 51 | 52 | 27 | 38 | 41 | 63 | 18 | 2,347 | |
| 2009년 | 83 | 67 | 65 | 63 | 56 | 54 | 48 | 2,568 |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연극 공연의 지역별 추이를 살피면 전체적인 큰 변동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몇몇 지역이 도드라진다.

▌그림 11. 최근 3년간 연극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상대적으로 큰 증가 추이를 보인 대표적인 지역은 경북·울산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경북은 2007년 63건에 비해 2009년엔 그 두 배 이상인 142건의 연극 공연이 이루어져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울산 또한 2007년 34건에서 2009년 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서울·부산·강원·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연극 공연이 적잖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비해 2009년 서울은 979건에서 656건으로, 부산은 195건에서 158건으로, 강원은 214건에서 94건으로, 충남은 95건에서 5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 5.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극이 우세

16개 시도별로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등의 세부 분야별 공연 비중을 살폈다. 기준은 상대적으로 공연 횟수보다 공연 건수가 더 적합하다.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특정 장르의 비중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을 얼마간 방지하면서 다양성을 중심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히 양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 횟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할 필요는 있다.

각 지역별 특성 파악이 쉽도록 아래 표에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진한 색 표시)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흐린 색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연극과 뮤지컬이 각각 54%와 3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퍼포먼스(7%), 혼합과 복합(각 3%) 순으로 이어진다.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큰 장르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극이다. 뮤지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경기(43%)·대구(56%)·광주(49%)·충남(50%)의 네 개 지역 정도. 전남은 뮤지컬에 비해 퍼포먼스가 10%로 비중이 더 크다.

이는 MBC의 각 지국에서 주최한 버블쇼가 순회공연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각 세부 분야별로 몸담고 있는 연극인의 수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세부 분야별 비중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16. 2009년 지역별로 살펴본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 지 역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서울 | 빈도 | 452 | 145 | 18 | 2 | 30 | 9 | 656 |
| | 비율 | 69% | 22% | 3% | 0% | 5% | 1% | 100% |
| 경기 | 빈도 | 144 | 187 | 49 | 1 | 20 | 38 | 439 |
| | 빈도 | 33% | 43% | 11% | 0% | 5% | 9% | 100% |
| 경남 | 비율 | 120 | 103 | 11 | 2 | 8 | 0 | 244 |
| | 빈도 | 49% | 42% | 5% | 1% | 3% | 0% | 100% |
| 대구 | 빈도 | 57 | 89 | 6 | 0 | 0 | 6 | 158 |
| | 비율 | 36% | | 4% | 0% | 0% | 4% | 100% |
| 부산 | 빈도 | 110 | 40 | 6 | 0 | 0 | 2 | 158 |
| | 빈도 | 70% | 25% | 4% | 0% | 0% | 1% | 100% |
| 경북 | 비율 | 75 | 52 | 10 | 1 | 3 | 1 | 142 |
| | 빈도 | 53% | 37% | 7% | 1% | 2% | 1% | 100% |
| 인천 | 빈도 | 54 | 38 | 30 | 0 | 5 | 10 | 137 |
| | 비율 | 39% | 28% | 22% | 0% | 4% | 7% | 100% |
| 전남 | 빈도 | 82 | 7 | 10 | 0 | 3 | 2 | 104 |
| | 빈도 | 79% | 7% | 10% | 0% | 3% | 2% | 100% |
| 강원 | 비율 | 60 | 17 | 12 | 0 | 2 | 3 | 94 |
| | 빈도 | 64% | 18% | 13% | 0% | 2% | 3% | 100% |
| 울산 | 빈도 | 38 | 27 | 10 | 0 | 2 | 6 | 83 |
| | 비율 | 46% | 33% | 12% | 0% | 2% | 7% | 100% |
| 전북 | 빈도 | 47 | 12 | 4 | 0 | 3 | 1 | 67 |
| | 빈도 | 70% | 18% | 6% | 0% | 4% | 1% | 100% |
| 충북 | 비율 | 29 | 25 | 6 | 1 | 2 | 2 | 65 |
| | 빈도 | 45% | 38% | 9% | 2% | 3% | 3% | 100% |
| 광주 | 빈도 | 27 | 31 | 2 | 0 | 2 | 1 | 63 |
| | 비율 | 43% | 49% | 3% | 0% | 3% | 2% | 100% |
| 대전 | 빈도 | 34 | 20 | 1 | 0 | 0 | 1 | 56 |
| | 빈도 | 61% | 36% | 2% | 0% | 0% | 2% | 100% |
| 충남 | 비율 | 20 | 27 | 3 | 0 | 4 | 0 | 54 |
| | 빈도 | 37% | 50% | 6% | 0% | 7% | 0% | 100% |
| 제주 | 빈도 | 27 | 17 | 0 | 0 | 3 | 1 | 48 |
| | 비율 | 56% | 35% | 0% | 0% | 6% | 2% | 100% |
| 계 | 빈도 | 1,376 | 837 | 178 | 7 | 87 | 83 | 2,568 |
| | 비율 | 54% | 33% | 7% | 0% | 3% | 3% | 1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지역별 관객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공연 프로그래밍 수준에서의 선호나 공연장 특성,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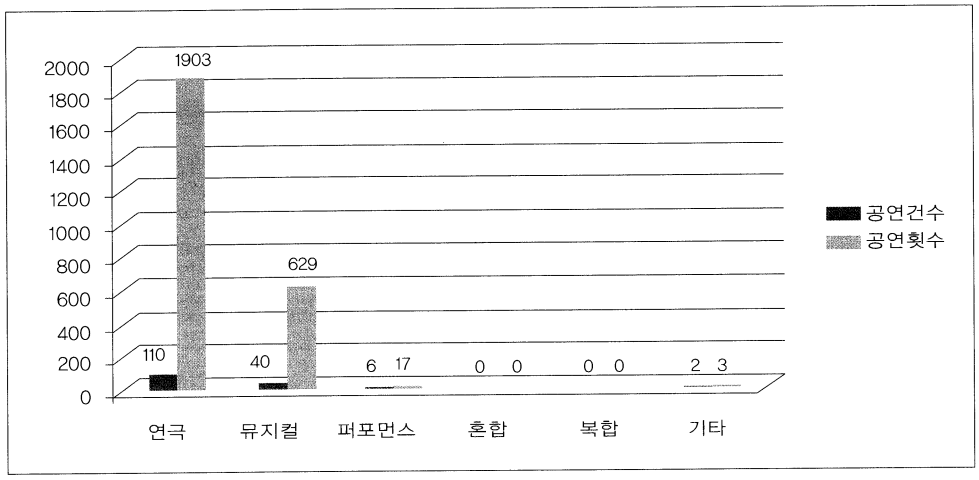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62.8%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극이다. 뮤지컬이 32.1%로 그 뒤를 잇고, 퍼포먼스 2.6%, 복합 1.2%, 혼합 0.1% 순으로 이어진다.

**▌표 17. 2009년 지역별로 살펴본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횟수 ▐**

| 지 역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서울 | 15,427 | 6,906 | 359 | 4 | 248 | 59 | 23,003 |
| 경기 | 1,117 | 1,020 | 217 | 4 | 94 | 255 | 2,707 |
| 부산 | 1,903 | 629 | 17 | 0 | 0 | 3 | 2,552 |
| 대구 | 672 | 788 | 27 | 0 | 0 | 43 | 1,530 |
| 경남 | 311 | 371 | 26 | 8 | 16 | 0 | 732 |
| 울산 | 324 | 201 | 39 | 0 | 8 | 7 | 579 |
| 인천 | 182 | 215 | 81 | 0 | 14 | 21 | 513 |
| 강원 | 306 | 40 | 21 | 0 | 2 | 6 | 375 |
| 경북 | 142 | 165 | 17 | 1 | 5 | 2 | 332 |
| 충북 | 144 | 119 | 22 | 4 | 12 | 12 | 313 |
| 대전 | 157 | 142 | 2 | 0 | 0 | 2 | 303 |
| 광주 | 111 | 122 | 8 | 0 | 2 | 1 | 244 |
| 전남 | 191 | 16 | 28 | 0 | 4 | 5 | 244 |
| 전북 | 181 | 46 | 7 | 0 | 6 | 1 | 241 |
| 제주 | 130 | 60 | 0 | 0 | 3 | 3 | 196 |
| 충남 | 59 | 65 | 9 | 0 | 4 | 0 | 137 |
| 계 | 21,357 | 10,905 | 880 | 21 | 418 | 420 | 34,001 |
| | 62.8% | 32.1% | 2.6% | 0.1% | 1.2% | 1.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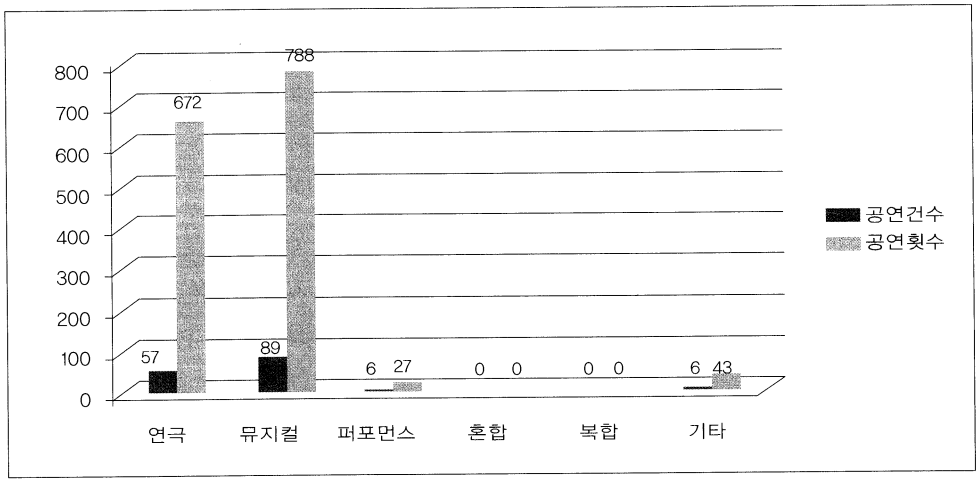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16개 지역이 각기 다른 패턴의 4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서울, 부산, 전남, 강원, 울산, 전북, 충북, 대전, 제주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연극이 가장 많다.

**▌그림 12. 2009년 부산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연극 중심) ▐**




그리고 공연 건수에서 뮤지컬이 가장 많았던 지역들 중 대구, 광주, 충남은 공연 횟수에서도 뮤지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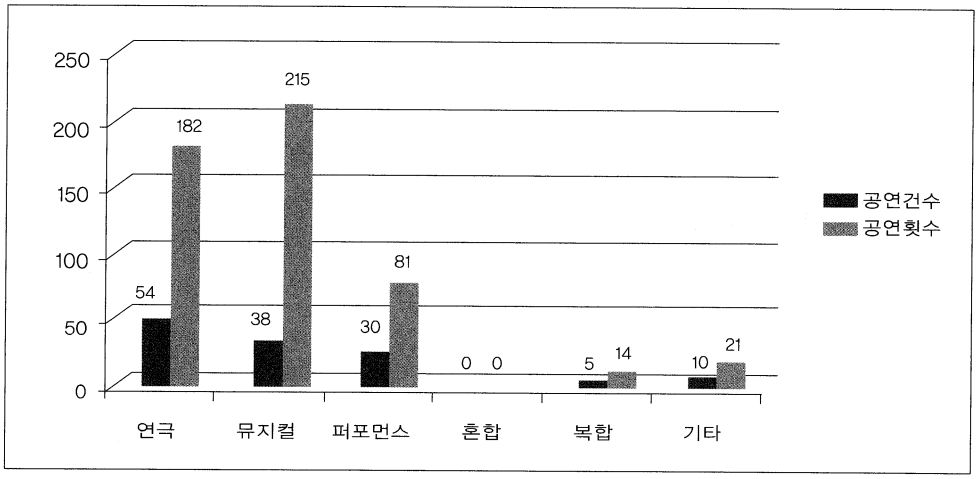
**▌그림 13. 2009년 대구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뮤지컬 중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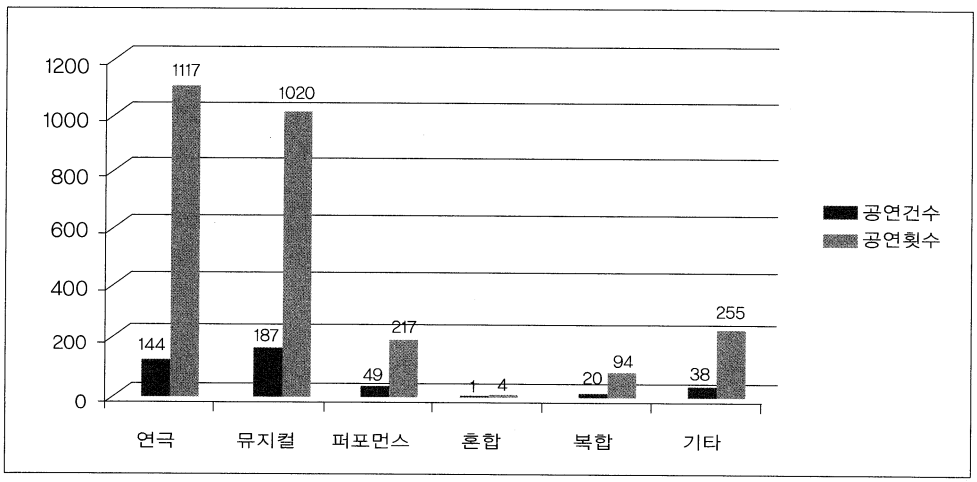

그러나 경남, 경북, 인천은 공연 건수는 연극이 많았으나, 공연 횟수에서는 뮤지컬의 비중이 더 크다. 경기는 공연 건수는 뮤지컬이 많았으나, 공연 횟수에서는 연극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14. 2009년 인천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연극→뮤지컬) ▐




▌그림 15. 2009년 경기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뮤지컬→연극) ▐




## 6. 공연 건수 기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해 보였지만, 공연 횟수 기준에서는 혼합을 제외한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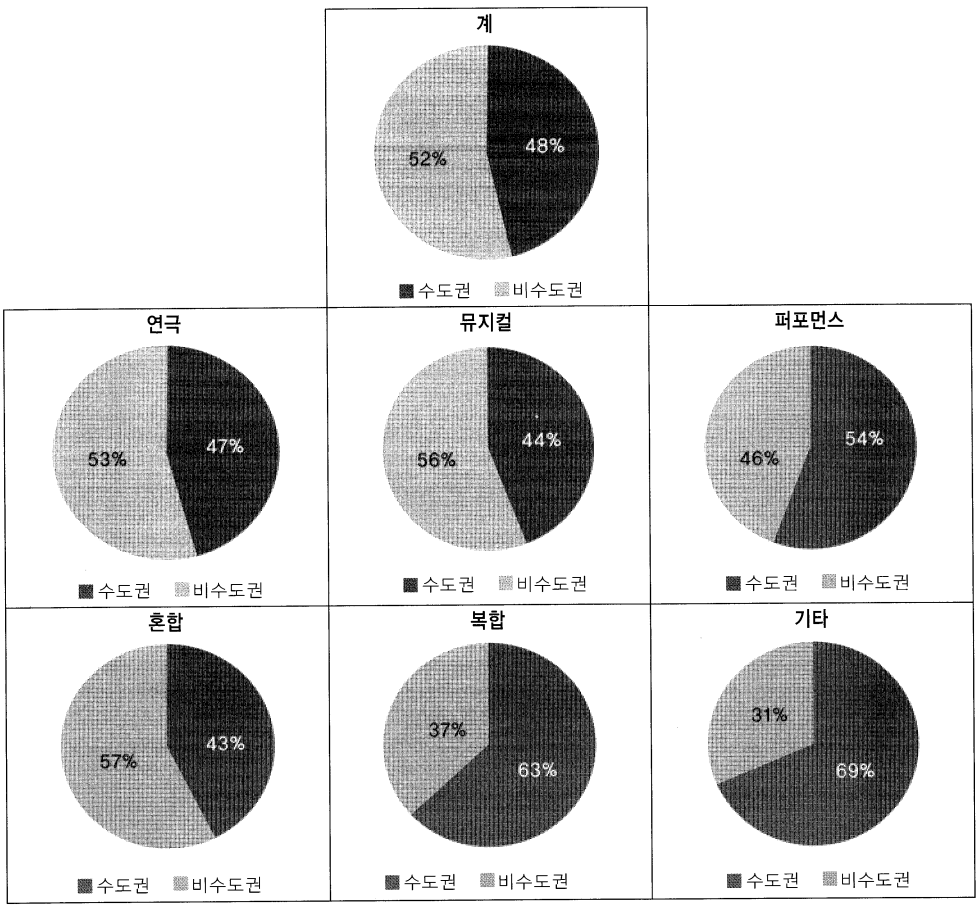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피면 16개 시도로 나누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하다. 이를 다시 세부 장르별로 나누어 살피면, 연극,

뮤지컬, 혼합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앞서고, 퍼포먼스, 복합, 기타는 수도권이 앞선다. 이는 다른 공연 장르들과는 구별되는 양상이다. 이유는 비수도권의 경우 다양한 공연을 짧게 하는 반면, 수도권은 하나의 공연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8.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건수 분포 ▐**

| 구 분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수도권 | 648 | 370 | 97 | 3 | 55 | 57 | 1,230 |
| | 비수도권 | 728 | 467 | 81 | 4 | 32 | 26 | 1,338 |
| | 계 | 1,376 | 837 | 178 | 7 | 87 | 83 | 2,568 |

**▌그림 16.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건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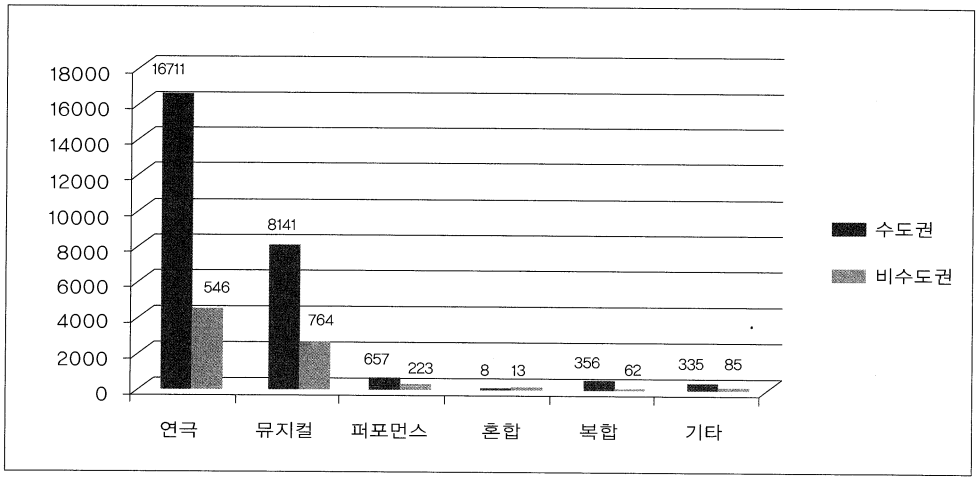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공연 횟수를 보면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이 많았던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압도적으로 앞지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혼합을 제외하고는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큰 우위를 나타낸다.

**▌표 19.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횟수 | 수도권 | 16,711 | 8,141 | 657 | 8 | 356 | 335 | 26,208 |
| | 비수도권 | 4,646 | 2,764 | 223 | 13 | 62 | 85 | 7,793 |
| | 계 | 21,357 | 10,905 | 880 | 21 | 418 | 420 | 34,001 |

**▌그림 17.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횟수 분포(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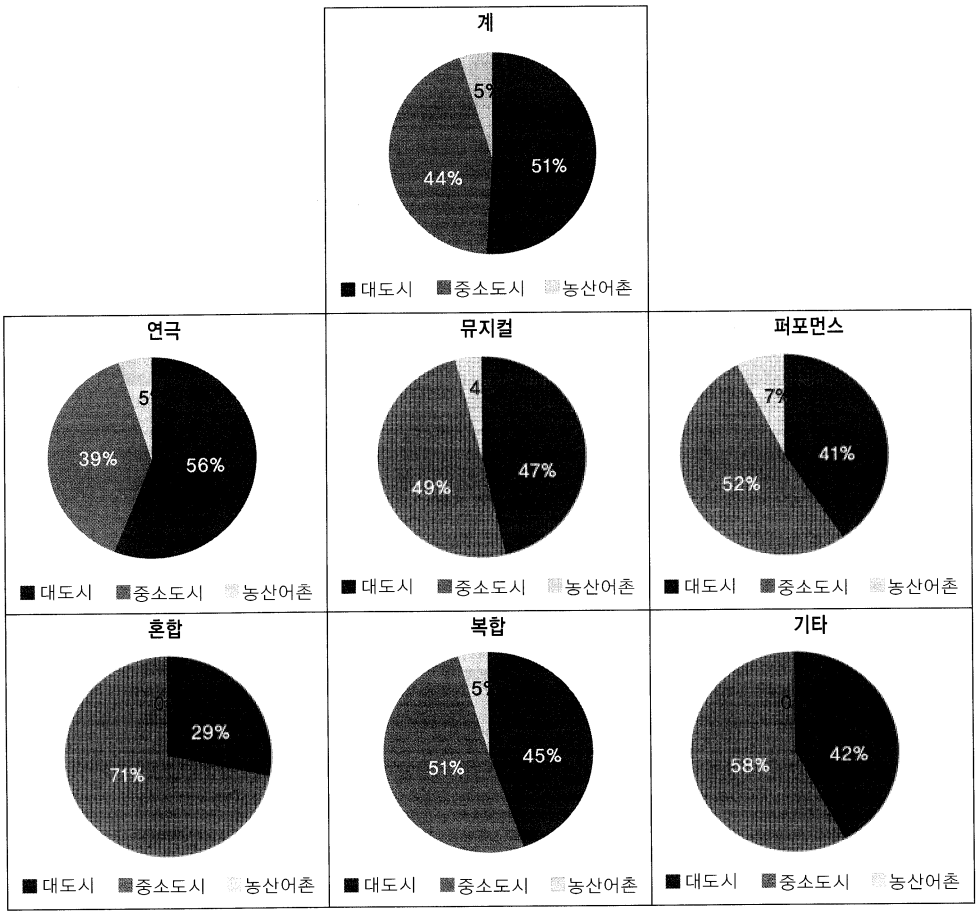



세부 장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나누어 다시 비중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다.

**▌표 20.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건수 ▐**

| 구 분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대도시 | 772 | 390 | 73 | 2 | 39 | 35 | 1,311 |
| | 중소 도시 | 534 | 414 | 92 | 5 | 44 | 48 | 1,137 |
| | 농산어촌 | 70 | 33 | 13 | 0 | 4 | 0 | 120 |
| | 계 | 1,376 | 837 | 178 | 7 | 87 | 83 | 2,568 |

▌그림 18.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건수 비율 ▐




<표 20>과 <그림 18>을 보면 연극과 뮤지컬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부 분야의 공연이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 횟수를 중심으로 보면 역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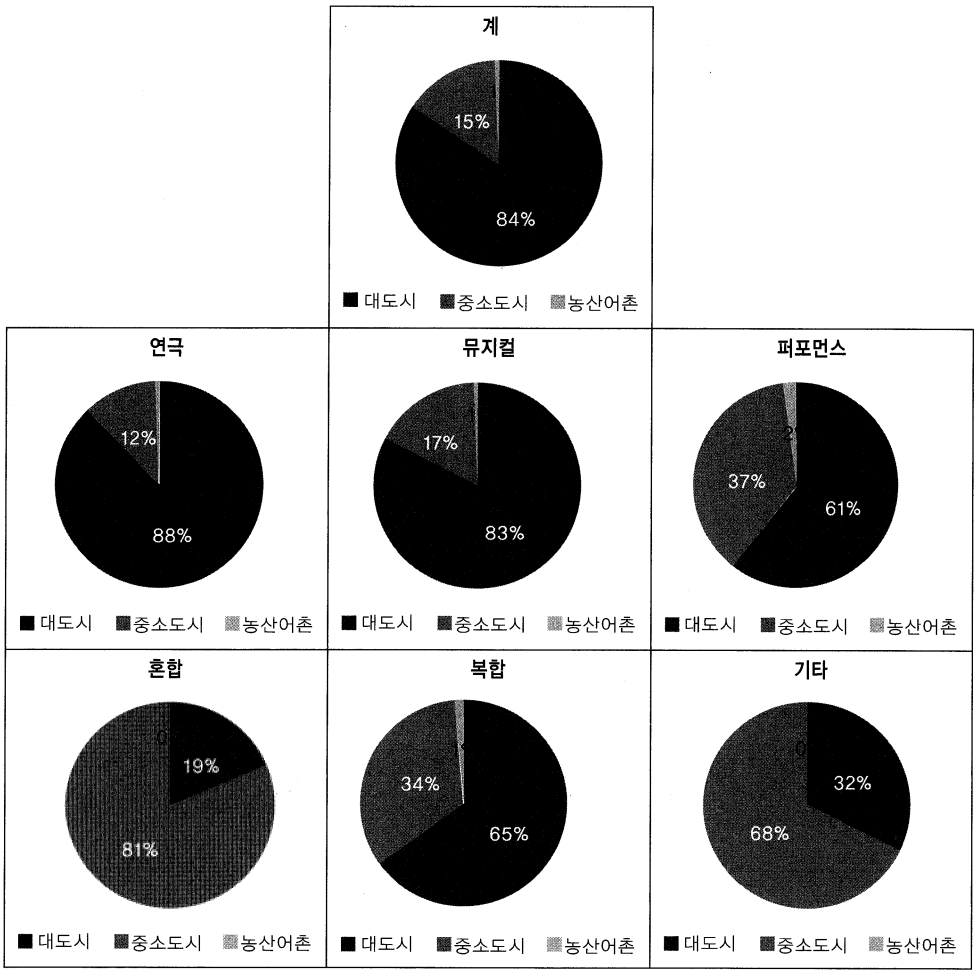
혼합이나 기타는 중소 도시의 비중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복합 등의 공연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정도는 연극, 뮤지컬 등 공연당 공연 횟수가 많은 공연이 많이 포함된 장르에서 더 심해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표 21.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횟수 ▌

| 구 분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횟수 | 대도시 | 18,776 | 9,003 | 533 | 4 | 272 | 136 | 28,724 |
| | 중소 도시 | 2,470 | 1,841 | 328 | 17 | 141 | 284 | 5,081 |
| | 농산어촌 | 111 | 61 | 19 | 0 | 5 | 0 | 196 |
| | 계 | 21,357 | 10,905 | 880 | 21 | 418 | 420 | 34,001 |

## ▌그림 19.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횟수 비율 ▌



# VI. 2009년 연극 분야 시작월 기준 공연 현황

## 1. 세부 분야에 따른 M자형 곡선의 다양한 변형

세부 분야별로 공연 시작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표 22>와 <표 23>과 같다. 이 중 각 장르별로 상위 4개월을 짙은 색으로 칠해 표시해 두었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는 봄부터 초하에 집중되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양상이 약간 다르다. 연극과 뮤지컬은 2008년 시작되어 연중 계속되는 공연의 비중이 제법 크게 나타난다. 연극은 1월, 4월, 9월에, 뮤지컬은 3월, 7월, 9월에 많이 이루어진다. 9월에 집중되는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는 다양하게 열리는 축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 2009년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분포 ▐**

| 구 분 | 전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연극 | 32 | 56 | 72 | 107 | 182 | 141 | 130 | 121 | 85 | 136 | 125 | 99 | 90 | 1,376 |
| 뮤지컬 | 23 | 41 | 62 | 74 | 95 | 75 | 89 | 77 | 61 | 74 | 56 | 61 | 49 | 837 |
| 퍼포먼스 | 0 | 0 | 7 | 11 | 15 | 56 | 13 | 13 | 10 | 19 | 10 | 9 | 15 | 178 |
| 혼합 | 0 | 0 | 0 | 2 | 0 | 2 | 2 | 0 | 0 | 0 | 0 | 0 | 1 | 7 |
| 복합 | 0 | 3 | 4 | 5 | 8 | 12 | 8 | 6 | 12 | 7 | 5 | 11 | 6 | 87 |
| 기타 | 0 | 3 | 2 | 7 | 11 | 21 | 10 | 6 | 10 | 5 | 4 | 1 | 3 | 83 |
| 계 | 55 | 103 | 147 | 206 | 311 | 307 | 252 | 223 | 178 | 241 | 200 | 181 | 164 | 2,568 |

**▌표 23. 2009년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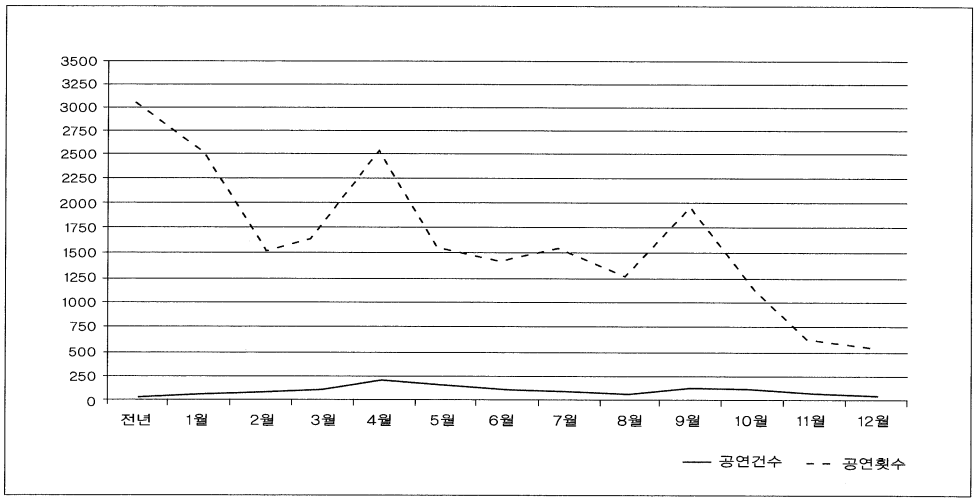
| 구 분 | 전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연극 | 3,043 | 2,180 | 1,534 | 1,753 | 2,591 | 1,603 | 1,357 | 1,674 | 1,039 | 1,857 | 1,294 | 741 | 691 | 21,357 |
| 뮤지컬 | 1,056 | 517 | 604 | 1,307 | 762 | 823 | 713 | 1,708 | 623 | 963 | 609 | 861 | 359 | 10,905 |
| 퍼포먼스 | 0 | 0 | 28 | 309 | 63 | 220 | 36 | 38 | 27 | 59 | 24 | 15 | 61 | 880 |
| 혼합 | 0 | 0 | 0 | 4 | 0 | 7 | 5 | 0 | 0 | 0 | 0 | 0 | 5 | 21 |
| 복합 | 0 | 15 | 12 | 5 | 109 | 75 | 32 | 12 | 67 | 11 | 15 | 45 | 20 | 418 |
| 기타 | 0 | 33 | 24 | 68 | 87 | 59 | 38 | 25 | 54 | 14 | 11 | 1 | 6 | 420 |
| 계 | 4,099 | 2,745 | 2,202 | 3,446 | 3,612 | 2,787 | 2,181 | 3,457 | 1,810 | 2,904 | 1,953 | 1,663 | 1,142 | 34,001 |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연극 전체 자료를 기본으로 한 분포에서 볼 수 있던 M자형 분포는 세부 장르별로 그래프화 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나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에서 더욱 그렇다.

연극은 공연 건수에서는 M자형 곡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공연 횟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공연 건수는 4~6월, 9~10월에 집중되는 편이다. 공연 횟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연간 공연이 이루어져도 시작되는 시기에 그 공연의 전체 횟수가 잡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에 시작되어 끝나지 않은 공연들이나 연초에 시작되는 공연들이 초반에 모두 높은 횟수로 잡혀 있다.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공연의 월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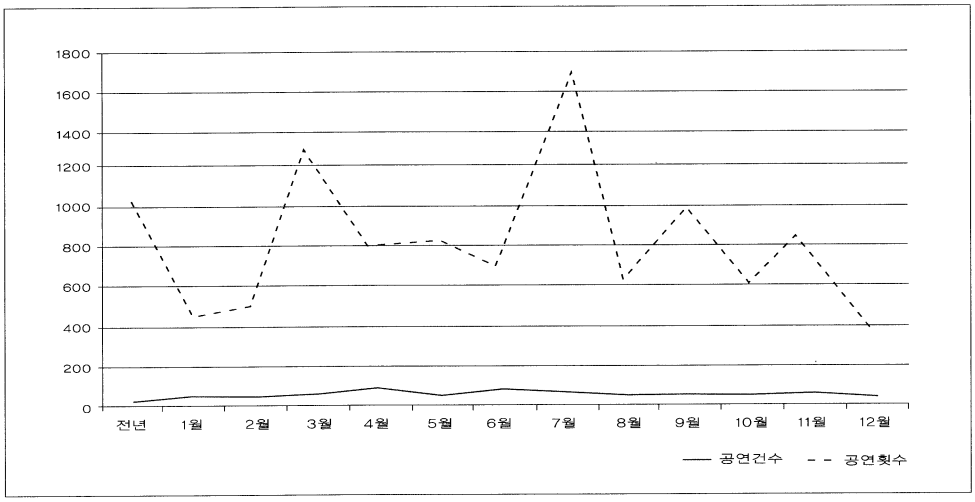
**▌그림 20. 2009년 연극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뮤지컬은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네 개의 정점을 가진 형태의 변형된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그러나 역시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정점의 수가 더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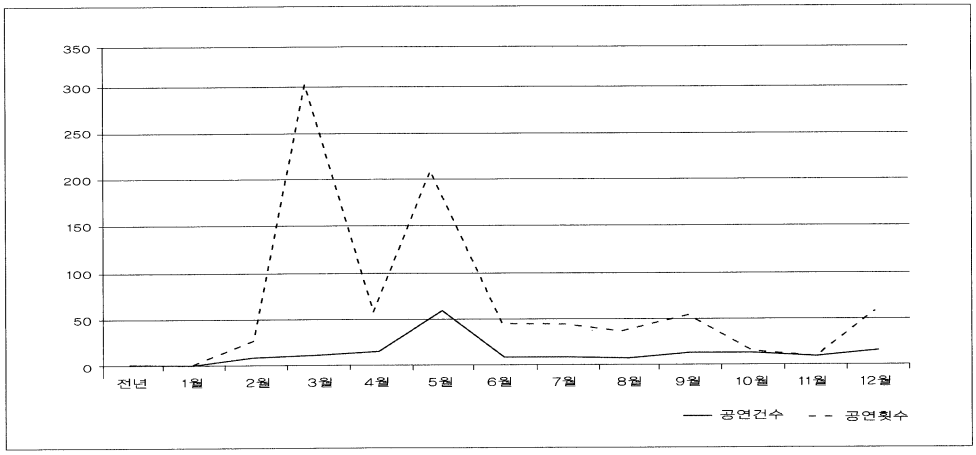
공연 건수 기준으로는 4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우하향세를 보인다. 그러나 공연 횟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3월과 7월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1. 2009년 뮤지컬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퍼포먼스의 경우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5월, 9월, 12월에 공연이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연 횟수 기준으로 보면 3월에 한 번 더 가장 높은 정점이 나타난다. 이는 3월에 시작하는 장기 공연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퍼포먼스로 분류되는 동수컴퍼니의 <애니비트> 공연이 3월에 시작해 오픈런으로 2009년 동안 286회 공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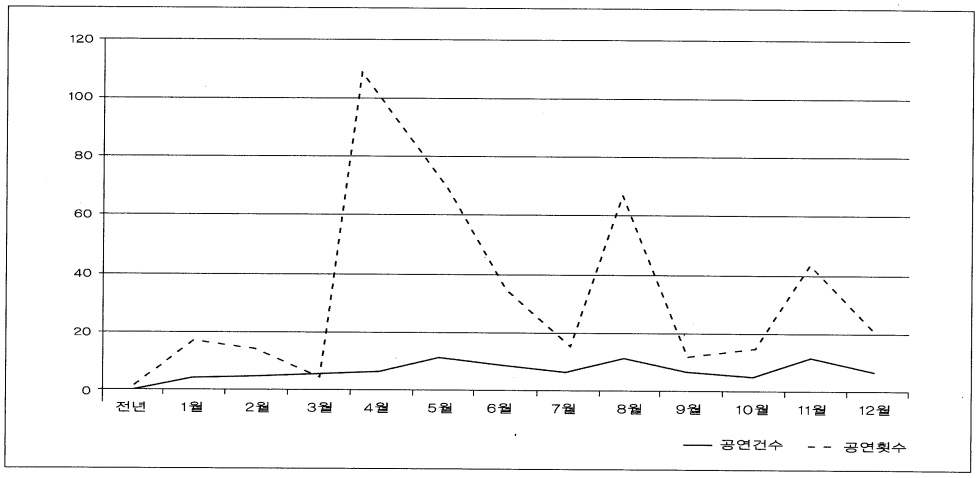
▌그림 22. 2009년 퍼포먼스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복합 형태 연극 공연은 공연 건수, 공연 횟수 공히 세 개의 정점을 가진 M자형 곡선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정점이 생기는 곳이 다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는 5월, 8월, 10월에 정점이 나타난다. 반면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4월, 8월, 10월에 그 정점이 나타난다.4월에 공연 횟수의 정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4월에 시작하는 다회 공연들 때문이다. 18회 공연하는 <플럭>, 11회 공연하는 <이오네스코 단막극시리즈>가 이 시기에 공연됐다.

**▌그림 23. 2009년 복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세부 분야별로 공연 종료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또 다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연극의 경우 여러 달에 걸쳐 공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료월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시각의 분석이 가능하다.

**▌표 24. 2009년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종료월별 공연 건수 분포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내년 | 계 |
|---|---|---|---|---|---|---|---|---|---|---|---|---|---|---|
| 연극 | 45 | 73 | 111 | 171 | 148 | 132 | 112 | 102 | 122 | 113 | 128 | 87 | 32 | 1,376 |
| 뮤지컬 | 42 | 64 | 80 | 93 | 74 | 92 | 67 | 71 | 70 | 51 | 60 | 51 | 22 | 837 |
| 퍼포먼스 | 0 | 7 | 10 | 13 | 58 | 13 | 13 | 10 | 19 | 10 | 9 | 14 | 2 | 178 |
| 혼합 | 0 | 0 | 1 | 1 | 2 | 2 | 0 | 0 | 0 | 0 | 0 | 1 | 0 | 7 |
| 복합 | 2 | 5 | 5 | 7 | 12 | 9 | 5 | 13 | 7 | 3 | 13 | 6 | 0 | 87 |
| 기타 | 3 | 2 | 5 | 11 | 23 | 9 | 6 | 11 | 5 | 3 | 2 | 3 | 0 | 83 |
| 계 | 92 | 151 | 212 | 296 | 317 | 257 | 203 | 207 | 223 | 180 | 212 | 162 | 56 | 2,568 |

▌표 25. 2009년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종료월별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내년 | 계 |
|---|---|---|---|---|---|---|---|---|---|---|---|---|---|---|
| 연극 | 391 | 1,150 | 1,634 | 1,192 | 1,696 | 1,918 | 962 | 1,888 | 1,354 | 1,095 | 1,485 | 1,414 | 5,178 | 21,357 |
| 뮤지컬 | 437 | 1,115 | 691 | 575 | 896 | 810 | 1,061 | 989 | 530 | 573 | 499 | 698 | 2,031 | 10,905 |
| 퍼포먼스 | 0 | 28 | 23 | 39 | 244 | 36 | 38 | 27 | 59 | 24 | 15 | 57 | 290 | 880 |
| 혼합 | 0 | 0 | 2 | 2 | 7 | 5 | 0 | 0 | 0 | 0 | 0 | 5 | 0 | 21 |
| 복합 | 10 | 17 | 5 | 92 | 61 | 63 | 10 | 69 | 11 | 5 | 55 | 20 | 0 | 418 |
| 기타 | 33 | 24 | 42 | 53 | 119 | 36 | 24 | 57 | 14 | 9 | 3 | 6 | 0 | 420 |
| 계 | 871 | 2,334 | 2,397 | 1,953 | 3,023 | 2,868 | 2,095 | 3,030 | 1,968 | 1,706 | 2,057 | 2,200 | 7,499 | 34,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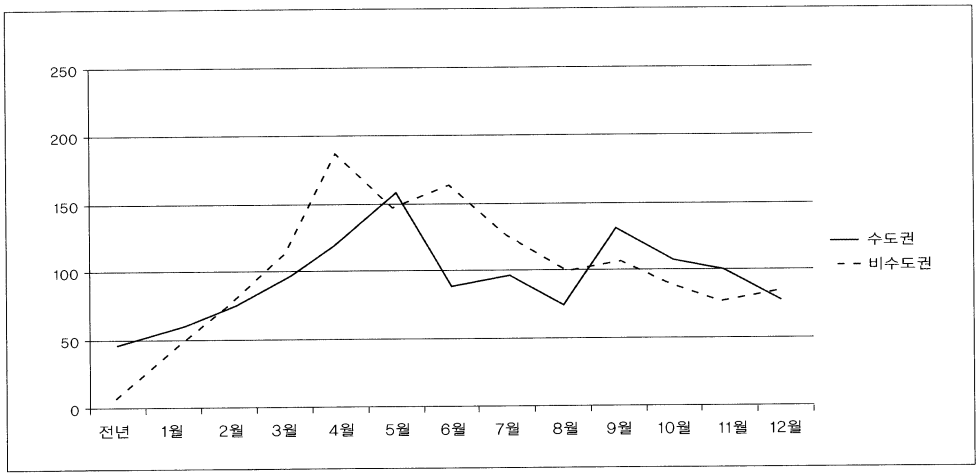
##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에도 M자형 곡선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다만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점이 여럿인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난다.

▌표 2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연극 공연 건수 ▐

| 구 분 | 전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수도권 | 47 | 58 | 72 | 93 | 120 | 158 | 87 | 95 | 75 | 134 | 109 | 103 | 79 | 1,230 |
| 비수도권 | 8 | 45 | 75 | 113 | 191 | 149 | 165 | 128 | 103 | 107 | 91 | 78 | 85 | 1,338 |
| 계 | 55 | 103 | 147 | 206 | 311 | 307 | 252 | 223 | 178 | 241 | 200 | 181 | 164 | 2,568 |

▌그림 24.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연극 공연 건수 ▐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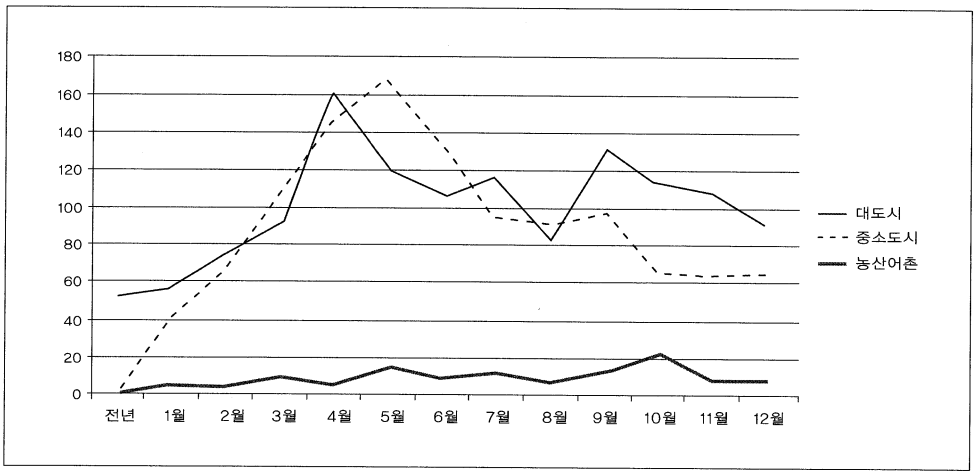
수도권은 5월, 7월, 9월에 정점이 생기는 반면, 비수도권은 4월, 6월에 정점이 생긴다. 특히 비수도권의 정점은 수도권의 가장 높은 점보다도 높다.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건수 분포는 그 양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월별 양상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다. 중소 도시에서 M자형 곡선이 비교적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도시나 농산어촌의 경우 정점이 여럿 나타나는 변형의 형태를 보인다.

**▌표 27.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연극 공연 건수 ▐**

| 구 분 | 전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도시 | 53 | 58 | 76 | 93 | 159 | 121 | 107 | 118 | 81 | 131 | 114 | 109 | 91 | 1,311 |
| 중소도시 | 2 | 40 | 67 | 103 | 146 | 171 | 135 | 93 | 90 | 97 | 65 | 63 | 65 | 1,137 |
| 농산어촌 | 0 | 5 | 4 | 10 | 6 | 15 | 10 | 12 | 7 | 13 | 21 | 9 | 8 | 120 |
| 계 | 55 | 103 | 147 | 206 | 311 | 307 | 252 | 223 | 178 | 241 | 200 | 181 | 164 | 2,568 |

**▌그림 25.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연극 공연 건수 ▐**




## Ⅶ. 2009년 연극 분야 주요 공연장별 공연 현황

### 1. 연간 30건 이상 공연장과 300회 이상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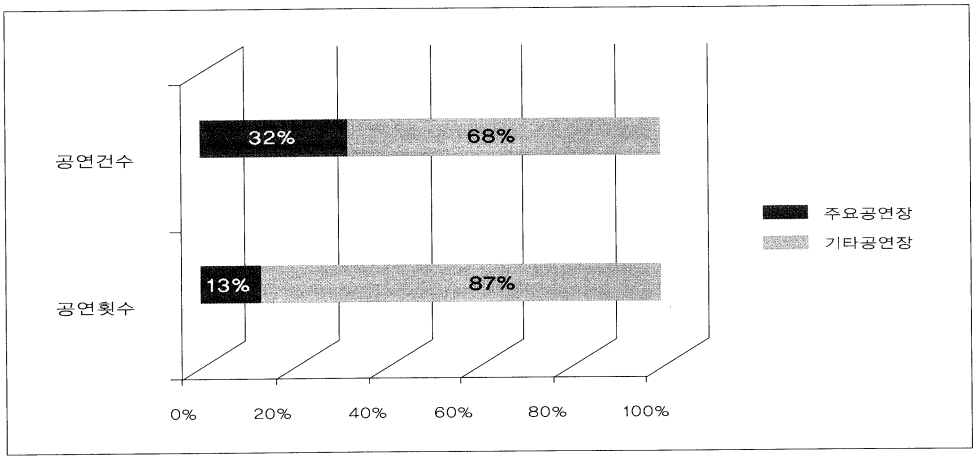
연극의 경우 주요 공연장의 잣대를 두 가지로 해야 한다. 공연의 다양성을 가늠

하는 공연 건수의 경우 주로 큰 공연장들을 주요 공연장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연극 공연의 메카는 대학로이며, 이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도 중요하다. 소극장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연을 일년 내내 상연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연간 공연 건수 기준으로는 잡아낼 수 없다. 그렇다고 일 년 동안 몇 백 회 연극을 공연하는 이런 공연장들을 주요 공연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 연간 연극 공연이 30건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19개다. 경기에 위치한 공연장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개, 인천과 경남(창원, 마산)이 각각 2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전남, 제주에 각기 1개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19개 공연장이 전체 연극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은 편이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 보면 연중 공연의 3분의 1 수준인 32%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 작은 13%를 차지한다.

**▌그림 26. 2009년 주요 19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주요 19개 공연장 세부 장르별 분포를 보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기준 공히 연극과 뮤지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 보면, 국립극장이 84건으로 가장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72건이었다. 공연 횟수 또한 국립극장이 연간 705회로 가장 활발히 연극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그 다음은 예술의전당으로 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간 526회 공연을 올린다. 19개 공연장 중 평균 공연 횟수가 5.3회를 넘는 공연장은 모두 6곳이다. 예술의전당이 14.6회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학로예술극장으로 12.2회를 기록했다. 이 두 공연장은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10회 이상이다. 그 다음은 아르코예술극장 8.9회, 국립극장 8.4회로 서울에 있는 4개 공연장 모두가 상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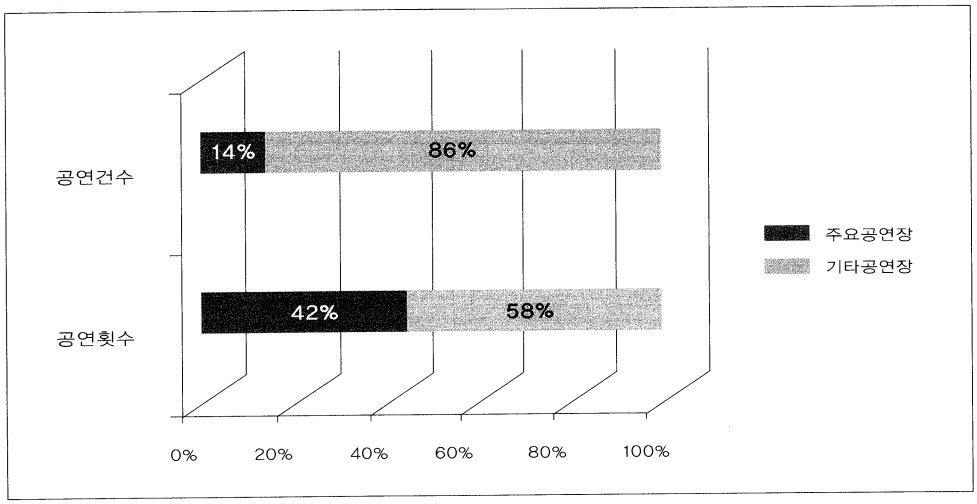
**▌표 28. 2009년 19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 공연장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횟수/건수 |
|---|---|---|---|
| 국립극장 | 84 | 705 | 8.4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72 | 299 | 4.2 |
| 인천서구문화회관 | 49 | 179 | 3.7 |
| 경기도문화의전당 | 47 | 180 | 3.8 |
| 의정부문화예술의전당 | 47 | 125 | 2.7 |
| 구미문화예술회관 | 46 | 141 | 3.1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44 | 138 | 3.1 |
| 광주문화예술회관 | 43 | 156 | 3.6 |
| 고양어울림누리 | 42 | 245 | 5.8 |
| 대학로예술극장 | 40 | 488 | 12.2 |
| 아르코예술극장 | 40 | 357 | 8.9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37 | 127 | 3.4 |
| 예술의전당 | 36 | 526 | 14.6 |
| 울산문화예술회관 | 34 | 100 | 2.9 |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 34 | 86 | 2.5 |
| 창원성산아트홀 | 33 | 148 | 4.5 |
| 3·15아트센터 | 33 | 86 | 2.6 |
| 순천문화예술회관 | 31 | 67 | 2.2 |
| 성남아트센터 | 30 | 231 | 7.7 |
| 계 | 822 | 4,384 | 5.3 |

공연 횟수 기준으로 연간 30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30개다. 부산, 대구, 경기도 광명에 공연장들이 각각 1개씩 있고, 27개의 공연장이 서울에 있다.

이 30개 공연장이 전체 연극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와는 반대의 양상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중 공연의 14%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에 가까운 42%를 차지한다.

**▌그림 27. 2009년 주요 30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주요 30개 공연장 세부 장르별 분포를 보면,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히 연극과 뮤지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극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립극장 다음으로 대학로예술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이 각각 40건씩이었다. 공연 횟수에서는 충무아트홀이 연간 1,207회로 가장 활발히 연극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그 다음은 대학로우리극장으로 연간 958회 공연을 올린다.

20개 공연장 중 연극 공연의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100회를 넘는 공연장만 모두 13곳이다. 특히 대학로더굿씨어터, 스타시티, 연극사랑솔나무극장, 이랑씨어터, 상상화이트소극장, 상상블루소극장 등 6개의 공연장은 하나의 공연을 연간 무대에 올린다. 다음은 대학로우리극장으로 3개의 공연을 958회 공연해 공연 하나당 평균 319.3회 공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29. 2009년 주요 30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 공연장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횟수/건수 |
|---|---|---|---|
| 충무아트홀 | 24 | 1,217 | 50.7 |
| 대학로우리극장 | 3 | 958 | 319.3 |
| 국립극장 | 84 | 705 | 8.4 |
| PMC소극장 | 3 | 686 | 228.7 |
| 소나무극장 | 12 | 558 | 46.5 |
| 예술의전당 | 36 | 526 | 14.6 |
| 허밍스아트홀 | 2 | 524 | 262.0 |
| 두산아트센터 | 13 | 506 | 38.9 |
| 대학로두레홀 | 5 | 489 | 97.8 |
| 대학로예술극장 | 40 | 488 | 12.2 |
| 동숭아트센터 | 10 | 476 | 47.6 |
| 김동수플레이하우스 | 8 | 458 | 57.3 |
| 대학로예술마당 | 4 | 447 | 111.8 |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1 | 429 | 39.0 |
| 대학로라이브극장 | 2 | 425 | 212.5 |
| 대학로더굿씨어터 | 1 | 423 | 423.0 |
| 스타시티 | 1 | 423 | 423.0 |
| 연극사랑솔나무극장 | 1 | 423 | 423.0 |
| 이랑씨어터 | 1 | 423 | 423.0 |
| 상상화이트소극장 | 1 | 406 | 406.0 |
| 원더스페이스 | 8 | 386 | 48.3 |
| SM아트홀 | 3 | 362 | 120.7 |
| 아르코예술극장 | 40 | 357 | 8.9 |
| 아츠플레이씨어터 | 3 | 354 | 118.0 |
| 대학로문화공간이다 | 6 | 334 | 55.7 |
| 상명대학교아트홀 | 5 | 332 | 66.4 |
| 세종문화회관 | 16 | 329 | 20.6 |
| 상상블루소극장 | 1 | 327 | 327.0 |
| 선돌극장 | 8 | 309 | 38.6 |
| 봉산문화회관 | 16 | 303 | 18.9 |
| 계 | 368 | 14,383 | 39.1 |

## 2.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과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공연장

공연 건수 기준 주요 19개 공연장은 매우 공통점이 많지만, 세부 장르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피면 그 안에서도 유형화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공연장은 다양한 장르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소개하는 반면, 다른 공연장은 특정 장르에 집중한다.

**▌표 30. 2009년 주요 19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연극 공연 건수 ▐**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국립극장 | 53 | 12 | 4 | 0 | 15 | 0 | 84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26 | 27 | 16 | 0 | 1 | 2 | 72 |
| 인천서구문화회관 | 19 | 10 | 9 | 0 | 4 | 7 | 49 |
| 경기도문화의전당 | 5 | 39 | 0 | 0 | 2 | 1 | 47 |
| 의정부문화예술의전당 | 19 | 19 | 3 | 0 | 4 | 2 | 47 |
| 구미문화예술회관 | 26 | 12 | 4 | 1 | 2 | 1 | 46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25 | 15 | 2 | 0 | 0 | 2 | 44 |
| 광주문화예술회관 | 9 | 29 | 2 | 0 | 2 | 1 | 43 |
| 고양어울림누리 | 12 | 24 | 2 | 0 | 3 | 1 | 42 |
| 대학로예술극장 | 33 | 3 | 0 | 0 | 1 | 3 | 40 |
| 아르코예술극장 | 33 | 0 | 1 | 2 | 4 | 0 | 40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21 | 14 | 1 | 0 | 0 | 1 | 37 |
| 예술의전당 | 22 | 8 | 1 | 0 | 2 | 3 | 36 |
| 울산문화예술회관 | 14 | 14 | 3 | 0 | 0 | 3 | 34 |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 18 | 13 | 0 | 0 | 3 | 0 | 34 |
| 3·15아트센터 | 20 | 13 | 0 | 0 | 0 | 0 | 33 |
| 창원성산아트홀 | 3 | 27 | 2 | 0 | 1 | 0 | 33 |
| 순천문화예술회관 | 27 | 1 | 3 | 0 | 0 | 0 | 31 |
| 성남아트센터 | 10 | 11 | 3 | 0 | 2 | 4 | 30 |
| 계 | 395 | 291 | 56 | 3 | 46 | 31 | 822 |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에는 국립극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서구문화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 봉산문화회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공연장들은 거의 연극과 뮤지컬 장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31. 209년 주요 19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연극 공연 횟수 ▐**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국립극장 | 345 | 277 | 5 | 0 | 78 | 0 | 705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97 | 154 | 43 | 0 | 2 | 3 | 299 |
| 인천서구문화회관 | 60 | 59 | 32 | 0 | 12 | 16 | 179 |
| 경기도문화의전당 | 17 | 150 | 0 | 0 | 9 | 4 | 180 |
| 의정부문화예술의전당 | 73 | 30 | 9 | 0 | 11 | 2 | 125 |
| 구미문화예술회관 | 58 | 73 | 4 | 1 | 3 | 2 | 141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75 | 47 | 5 | 0 | 0 | 11 | 138 |
| 광주문화예술회관 | 31 | 114 | 8 | 0 | 2 | 1 | 156 |
| 고양어울림누리 | 56 | 152 | 9 | 0 | 21 | 7 | 245 |
| 대학로예술극장 | 392 | 84 | 0 | 0 | 2 | 10 | 488 |
| 아르코예술극장 | 331 | 0 | 6 | 4 | 16 | 0 | 357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66 | 57 | 2 | 0 | 0 | 2 | 127 |
| 예술의전당 | 280 | 198 | 1 | 0 | 19 | 28 | 526 |
| 울산문화예술회관 | 32 | 55 | 10 | 0 | 0 | 3 | 100 |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 28 | 55 | 0 | 0 | 3 | 0 | 86 |
| 창원성산아트홀 | 5 | 135 | 7 | 0 | 1 | 0 | 148 |
| 3·15아트센터 | 37 | 49 | 0 | 0 | 0 | 0 | 86 |
| 순천문화예술회관 | 55 | 1 | 11 | 0 | 0 | 0 | 67 |
| 성남아트센터 | 18 | 181 | 13 | 0 | 9 | 10 | 231 |
| 계 | 2,056 | 1,871 | 165 | 5 | 188 | 99 | 4,384 |

공연 횟수 기준 주요 30개 공연장 또한 매우 공통점이 많지만, 세부 장르별 특성별로 유형화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표 32. 2009년 주요 30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연극 공연 건수 ▐**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충무아트홀 | 5 | 18 | 0 | 0 | 1 | 0 | 24 |
| 대학로우리극장 | 3 | 0 | 0 | 0 | 0 | 0 | 3 |
| 국립극장 | 53 | 12 | 4 | 0 | 15 | 0 | 84 |
| PMC소극장 | 3 | 0 | 0 | 0 | 0 | 0 | 3 |
| 소나무극장 | 12 | 0 | 0 | 0 | 0 | 0 | 12 |
| 예술의전당 | 22 | 8 | 1 | 0 | 2 | 3 | 36 |
| 허밍스아트홀 | 2 | 0 | 0 | 0 | 0 | 0 | 2 |
| 두산아트센터 | 9 | 4 | 0 | 0 | 0 | 0 | 13 |

(계속)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대학로두레홀 | 4 | 1 | 0 | 0 | 0 | 0 | 5 |
| 대학로예술극장 | 33 | 3 | 0 | 0 | 1 | 3 | 40 |
| 동숭아트센터 | 10 | 0 | 0 | 0 | 0 | 0 | 10 |
| 김동수플레이하우스 | 8 | 0 | 0 | 0 | 0 | 0 | 8 |
| 대학로예술마당 | 0 | 4 | 0 | 0 | 0 | 0 | 4 |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7 | 4 | 0 | 0 | 0 | 0 | 11 |
| 대학로라이브극장 | 0 | 2 | 0 | 0 | 0 | 0 | 2 |
| 대학로더굿씨어터 | 1 | 0 | 0 | 0 | 0 | 0 | 1 |
| 스타시티 | 1 | 0 | 0 | 0 | 0 | 0 | 1 |
| 연극사랑솔나무극장 | 1 | 0 | 0 | 0 | 0 | 0 | 1 |
| 이랑씨어터 | 1 | 0 | 0 | 0 | 0 | 0 | 1 |
| 상상화이트소극장 | 1 | 0 | 0 | 0 | 0 | 0 | 1 |
| 원더스페이스 | 7 | 1 | 0 | 0 | 0 | 0 | 8 |
| SM아트홀 | 2 | 1 | 0 | 0 | 0 | 0 | 3 |
| 아르코예술극장 | 33 | 0 | 1 | 2 | 4 | 0 | 40 |
| 아츠플레이씨어터 | 3 | 0 | 0 | 0 | 0 | 0 | 3 |
| 대학로문화공간이다 | 5 | 1 | 0 | 0 | 0 | 0 | 6 |
| 상명대학교아트홀 | 5 | 0 | 0 | 0 | 0 | 0 | 5 |
| 세종문화회관 | 3 | 11 | 1 | 0 | 0 | 1 | 16 |
| 상상블루소극장 | 1 | 0 | 0 | 0 | 0 | 0 | 1 |
| 선돌극장 | 8 | 0 | 0 | 0 | 0 | 0 | 8 |
| 봉산문화회관 | 8 | 7 | 0 | 0 | 0 | 1 | 16 |
| 계 | 251 | 77 | 7 | 2 | 23 | 8 | 368 |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택된 공연장들은 거의 규모가 작은 소극장들이기 때문에 국립극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연장이 한두 개 장르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공연을 연간 상연하는 경우도 있다.

**▌표 33. 2009년 주요 30개 공연장의 세부장르별 연극 공연 횟수 ▐**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충무아트홀 | 94 | 1,119 | 0 | 0 | 4 | 0 | 1,217 |
| 대학로우리극장 | 958 | 0 | 0 | 0 | 0 | 0 | 958 |
| 국립극장 | 345 | 277 | 5 | 0 | 78 | 0 | 705 |
| PMC소극장 | 686 | 0 | 0 | 0 | 0 | 0 | 68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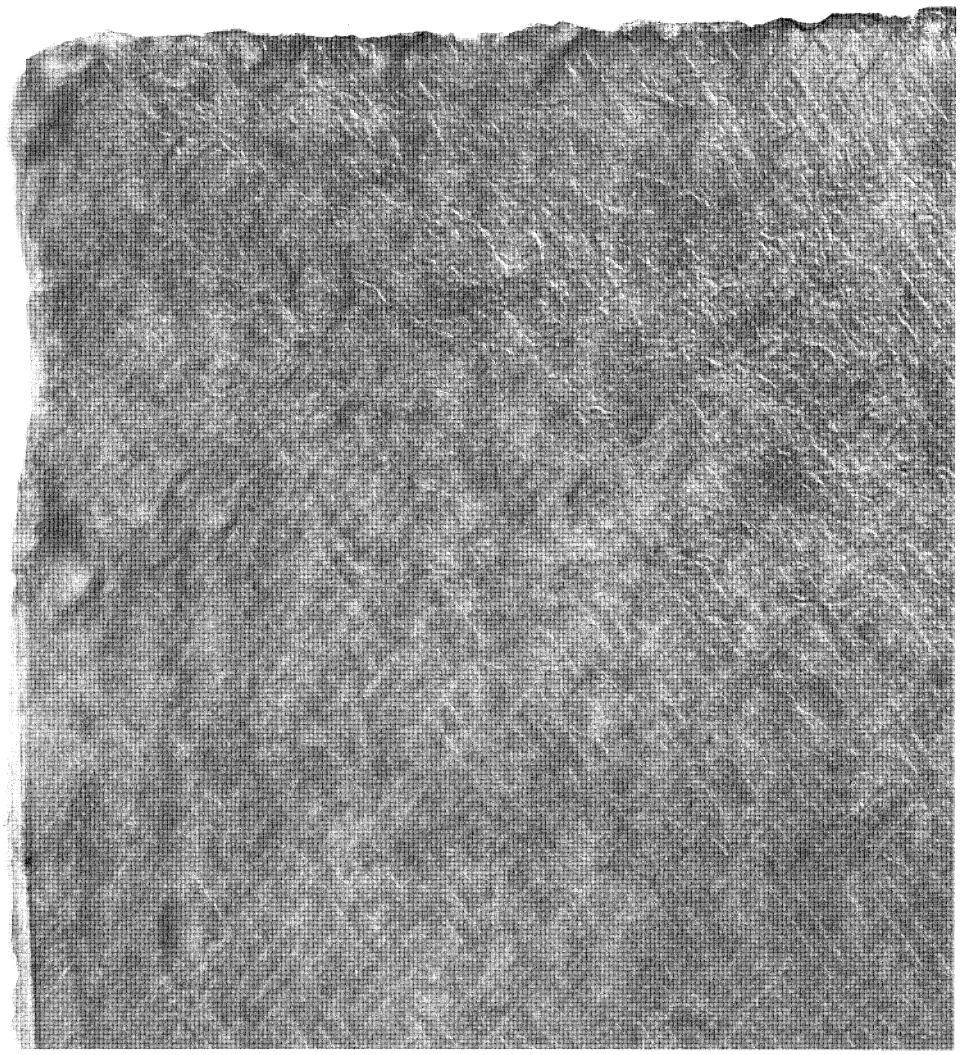
(계속)

| | 연극 | 뮤지컬 | 퍼포먼스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예술의전당 | 280 | 198 | 1 | 0 | 19 | 28 | 526 |
| 소나무극장 | 558 | 0 | 0 | 0 | 0 | 0 | 558 |
| 허밍스아트홀 | 524 | 0 | 0 | 0 | 0 | 0 | 524 |
| 두산아트센터 | 201 | 305 | 0 | 0 | 0 | 0 | 506 |
| 대학로두레홀 | 485 | 4 | 0 | 0 | 0 | 0 | 489 |
| 대학로예술극장 | 392 | 84 | 0 | 0 | 2 | 10 | 488 |
| 동숭아트센터 | 476 | 0 | 0 | 0 | 0 | 0 | 476 |
| 김동수플레이하우스 | 458 | 0 | 0 | 0 | 0 | 0 | 458 |
| 대학로예술마당 | 0 | 447 | 0 | 0 | 0 | 0 | 447 |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291 | 138 | 0 | 0 | 0 | 0 | 429 |
| 대학로라이브극장 | 0 | 425 | 0 | 0 | 0 | 0 | 425 |
| 대학로더굿씨어터 | 423 | 0 | 0 | 0 | 0 | 0 | 423 |
| 스타시티 | 423 | 0 | 0 | 0 | 0 | 0 | 423 |
| 연극사랑솔나무극장 | 423 | 0 | 0 | 0 | 0 | 0 | 423 |
| 이랑씨어터 | 423 | 0 | 0 | 0 | 0 | 0 | 423 |
| 상상화이트소극장 | 406 | 0 | 0 | 0 | 0 | 0 | 406 |
| 원더스페이스 | 305 | 81 | 0 | 0 | 0 | 0 | 386 |
| SM아트홀 | 224 | 138 | 0 | 0 | 0 | 0 | 362 |
| 아르코예술극장 | 331 | 0 | 6 | 4 | 16 | 0 | 357 |
| 아츠플레이씨어터 | 354 | 0 | 0 | 0 | 0 | 0 | 354 |
| 대학로문화공간이다 | 306 | 28 | 0 | 0 | 0 | 0 | 334 |
| 상명대학교아트홀 | 332 | 0 | 0 | 0 | 0 | 0 | 332 |
| 세종문화회관 | 75 | 250 | 1 | 0 | 0 | 3 | 329 |
| 상상블루소극장 | 327 | 0 | 0 | 0 | 0 | 0 | 327 |
| 선돌극장 | 309 | 0 | 0 | 0 | 0 | 0 | 309 |
| 봉산문화회관 | 123 | 144 | 0 | 0 | 0 | 36 | 303 |
| 계 | 10,532 | 3,638 | 13 | 4 | 119 | 77 | 14,383 |

한두 개 공연만으로 연간 공연하는 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들의 세부 장르별 분포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무 용



2010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2009년 무용 총론

김승현(무용평론가, 문화일보 문화부 선임기자)

## Ⅰ. 계량적 개괄

2009년 무용 공연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모두 1,203개 작품이 2,047회 공연됐다.

공연 건수에 있어서 2008년 1,05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5년 1,115건에서 2006년 1,05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07년 1,165건으로 늘어났으나 2008년 다시 1,055건으로 줄어드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횟수는 2005년 2,234회에서 2006년 2,085회, 2007년 1,775회, 2008년 1,736회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바닥을 찍고 2006년 수준을 회복했다. 2008년 하반기에 전 세계에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2010년에야 2005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장르별로 현대무용이 402개 작품(33%)으로 한국무용 387개 작품(32%)보다 약간 많았다. 발레는 147개 작품(12%)이 무대에 올랐다. 또 현대무용·한국무용·발레 3개 무용 장르가 혼합된 작품이 101개 작품(8%), 음악·미술·연극 등 타 장르와 복합무대로 공연된 작품이 91개 작품(8%), 벨리댄스·브레이크댄스 등 기타·미분류 작품이 75개 작품(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연 횟수로 보면 현대무용이 659회로 전체 무용 공연의 32%를 차지했고 한국무용은 519회로 25%에 그쳤다. 발레는 407회로 20%를 기록, 한국무용과 공연 건수 부문에서는 3대 1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횟수에서는 5대 4로 격차를 크게 줄였다. 혼합 공연은 140회(7%)에 그쳤고 복합 공연은 공연 건수에서는 혼합 공연에

뒤졌으나 공연 횟수에서는 196회(10%)로 혼합 공연을 앞섰다.

창작 공연은 593개 작품, 레퍼토리 공연은 313개 작품으로 자료상 창작과 레퍼토리를 구분할 수 없는 미분류 297개 작품을 제외하고 각각 65%, 35%를 차지했다. 공연 횟수에서도 창작과 레퍼토리가 1,003회(63%)와 600회(37%)의 비율을 유지했다.

국내외 공연으로 나눠보면 전체 공연 1,108개(미분류 제외) 작품 가운데 88%인 979개 작품이 국내 작품으로 1,603회 공연됐으며 외국 작품이 90개 작품(8%)으로 164회(9%) 공연돼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국내외 합동공연은 39개 작품(4%)으로 61회(3%) 공연됐다. 95개 작품은 자료상으로 공연 단체의 국적 분류가 불가능했다.

공연 시기는 174개 작품(14%)이 11월에 시작, 가장 많았으며 10월 149개(12%), 6월 142개(12%) 작품으로 그 뒤를 이었다. 133개(11%) 작품이 막을 올린 5월이 130개 작품이 시작된 12월을 근소한 차로 앞섰으며, 9월 117개(10%), 8월 107개(9%), 7월 89개(7%), 4월 74개(6%), 3월 41개(3%), 2월 31개(3%), 1월 15개(1%) 순으로 나타났다.

5월과 6월 봄, 9월과 10월 가을이 공연의 성수기라는 일반의 생각과 달리 11월에 무용 공연이 가장 많았고 하한기로 꼽히던 7, 8월에 무용 공연이 증가하는 것이 이채롭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9개 작품(41%)으로 작품 수에서는 절반에 못 미치지만, 공연 횟수에서는 1,126회(55%)로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기 122개 작품(10%) 189회(9%), 부산 102개 작품(8%) 139회(7%), 대구 100개 작품(8%) 138회(7%), 경남 89개 작품(7%) 97회(5%)로 경기와 부산, 대구, 경남 지역에 무용 공연이 크게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서울은 2007년 426개 작품 846회에서 2008년 488개 작품 960회 공연으로 작품 건수와 횟수에서 꾸준히 상승한 반면 경기 지역은 2007년 174개 작품 255회 공연에서 2008년 122개 작품 198회 공연으로 줄어들었다.

부산은 2007년 107개 작품 117회 공연에서 2008년 108개 작품 136회 공연으로 작품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횟수에서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대구 지역이 2007년 49개 작품 73회에서 2008년 39개 작품 65회 공연으로 줄어들었다가 2009년 100개 작품 138회로 공연 건수와 횟수에서 2배 이상 늘어나 주목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경남 지역도 2007년 58개 작품 75회 공연에서 2008년 54개 작품 66회 공연으로 소폭 줄었다가 2009년 89개 작품 97회로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인천 53개 작품(4%) 70회(3%), 전북 39개 작품(3%) 42회(2%), 대전 37개 작품(3%) 53회(3%), 울산 37개 작품(3%) 38회(2%), 광주 30개 작품(2%) 36회(2%), 전남 27개 작품 30회, 경북 26개 작품 28회, 강원 15개 작품 17회, 제주 9개 작품 10회, 충남 7개 작품 7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작품 개수로 환산하면 서울이 4.8개 작품으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2.4건의 2배를 차지했으며 대구가 4.0건으로 2위, 울산이 3.3건으로 3위, 부산이 2.9건으로 4위, 경남이 2.7건으로 5위, 대전이 2.5건으로 6위, 전북 광주 인천이 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적으로 2위를 차지한 경기가 1.1건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한편 제주 전남 충북 강원 경북이 1.6건에서 1건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인국 10만 명당 무용 공연이 0.3건으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1건 아래로 처졌다.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도 서울이 11회로 전국 평균 4.1회의 3배 가까이 됐으며 대구가 5.5회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부산이 3.9회로 근소한 차이로 전국 평균 아래였으며, 대전 울산 경남이 3.6회에서 3회, 인천 광주 전북이 2.6회에서 2회, 충북 등 나머지 지역이 역시 1회대를 기록했으며 유일하게 충남이 0.3회로 1회를 채우지 못했다.

인구 10만 명당 작품 수와 공연 횟수를 봐도 대구, 부산, 경남 지역의 무용 활성화가 역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또 공연 건수에서는 부산과 대전이 울산에 뒤졌지만 횟수에서는 앞섰다. 인천도 전북에 비해 공연 건수에서는 뒤졌지만 횟수에서는 앞섰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664개 작품(55%) 1,385회 공연(68%)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이 539개 작품(45%) 662회 공연(32%)에 그쳤다. 그러나 부산, 경남 지역의 무용 공연 활성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어 주목된다.

광역시와 시군 단위로 분류하면 광역시가 848개 작품(70%) 1,600회 공연(78%)으로 시 단위 317개 작품(26%) 404회(20%), 군 단위 38개 작품(3%), 43회 공연(2%)으로 나타나 무용 공연이 대도시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현대무용,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는 한국무용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현대무용/한국무용/발레의 비율이 208개 작품(43%)/145개 작품(30%)/64개 작품(13%)이었고, 인천이 12개 작품(23%)/8개 작품(15%)/8개 작품(15%), 대전이 21개 작품(57%)/8개 작품(22%)/4개 작품(11%)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 인천, 대전에서 현대무용이 가장 많이 발표됐다.

경기 지역은 공연 건수에서는 한국무용이 현대무용을 앞섰으나 횟수에서는 현대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은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각각 10개씩 같은 비율을 유지했으나 공연 횟수에서는 한국무용이 앞섰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국무용이 공연 건수와 횟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에서 현대무용이 가장 활성화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한국무용이 강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이 무용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한국무용이 현대무용에 비해 상당히 열세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한국무용 비율도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194개 대 193개 작품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299회(58%) 대 220회(42%)로 오히려 수도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레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공연 건수에 있어서 91개(62%) 대 56개 작품(38%),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325회(80%) 대 82회(20%)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작품 시작월과 장르를 교차분석하면 현대무용은 6월에 69건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등 5, 6월 봄, 10, 11월 가을에 전체 현대무용 공연의 절반 이상인 230건(57%)이 집중됐으며, 한국무용은 77건이 11월에 공연되는 등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219건(57%)이 몰렸다.

발레는 12월 29개 작품이 막을 올려 130회 공연, 1월에 2개 작품이 53회 공연되는 등 두 달 동안 한 해 전체 공연 횟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183회(45%) 공연이 집중돼 역시 연말연시가 발레 시즌임을 확인케 했다.

또 수도권에서 8월에 시작한 공연이 86개로 가장 많았던 11월(88개)에 근소하게 뒤진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무용 비수기였던 8월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페스티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등 새로운 무용 시즌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용 공연 건수는 국립국악원, 공연 횟수는 서울 예술의전당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으로는 공연 건수에 있어서 국립국악원이 77건, 아르코예술극장이 52건, 서울 예술의전당이 46건, 국립극장 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예술의전당이 129회로 1위를 차지했고, 아르코예술극장이 125회로 2위, 국립국악원이 91회로 3위를 차지했다.

한국무용이 집중적으로 무대에 오른 국립국악원은 공연 건수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공연 건당 평균 1.3회에 그쳐 3위로 처지고 말았다. 발레 등 장기 공연이 많은 예술의전당은 공연 건수에서는 3위에 그쳤지만 횟수에서는 129회로 1위를 차지했다. 아르코예술극장은 공연 건수와 횟수에서 모두 2위를 차지, 무용 중심 극장으로서의 체면치레는 했다.

가장 많은 작품을 안무한 안무가는 모던발레 안무가 제임스 전으로 13개 작품을 안무, 31회 공연했으며 그 다음이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을 안무한 마리우스 프티파가 차지했다. 3위는 국수호 씨가 9개 작품, 4위는 배정혜 씨가 8개 작품을 차지하는 등 전 현직 국립무용단장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5위는 7개 작품을 안무한 젊은 현대무용가 신창호 씨가 차지, 눈길을 끌었다.

탄탄한 테크닉이 바탕이 돼야 하는 발레는 50대 초반 중견안무가, 익을수록 맛이 나는 한국무용은 60대 원로, 도전적인 창작정신이 요구되는 현대무용은 30대 젊은 안무가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이 역시 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볼쇼이발레단의 살아 있는 전설로 꼽히는 유리 그리고로비치를 비롯해 박호빈, 정보경, 김진미 씨가 각각 6개 작품, 김매자, 김복희, 조성희, 김은희, 우혜영 씨 등이 각각 5개, 박명숙, 윤미라, 이혜경 씨 등이 각각 4개 작품을 안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II. 예술적 성과

2009년 무용은 계량적 총괄에서 살펴본 대로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그동안의 위축된 분위기에서 탈피,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내용적으로도 중견과 신진무용

가들의 장르를 넘어서려는 의지, 장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욕망, 춤에 온몸을 던지는 열정이 뜨거웠다. 중견은 자신이 쌓아온 세계를 더욱 깊이 파고 넘어서려는 의지가 빛났고 젊은 무용가는 신선한 열정이 돋보였다.

## 1. 독특한 개성이 더욱 깊어진 중견들의 작품

현대무용에서 정의숙·전미숙·안애순·손관중·강혜련·안성수·최상철·김형희, 한국무용에서 이경옥·윤미라·김선미·김은희, 발레에서 김선희·서미숙·안병남 등의 작품이 독특한 개성으로 특히 주목을 모았다.

현대무용에서 <보들레르의 여인들>(안무 정의숙, 5.29,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은 독특한 개성에 깊은 상징, 빛나는 아우라 또는 무거운 어둠을 갖고 있는 세기말 퇴폐적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 시에 나타난 여인들을 쉽고 명징한 이미지로 멋지게 그려내 관심을 모았다. 고독과 우울, 광기, 마약 등 비정상적으로 오해되는 보들레르 미학의 고전적 본질을, 편안해 보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움직임으로 잘 잡아냈다. <약속 하시겠습니까…>(안무 전미숙, 4.11~12,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신, 권력, 부 등 온갖 외계의 억압에 대해 온몸을 던져 저항하는 인간의 몸짓을 냉철하게 그려내 박수를 받았다. <불쌍>(안무 안애순, 6.25~26, LG아트센터)은 설치와 춤, 음악이 화려하게 만나 멋진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낸 수작으로 꼽혔다. <적Ⅸ-푸른 침묵>(안무 손관중, 4.11~12,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남성 춤 특유의 거친 힘과 호흡으로 자연으로 돌아간 원시적 에너지를 형상화했다. <빨간 말>(안무 최상철, 6.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현대사회의 오해와 오독을 신랄하게 풍자했으며 <섬>(안무 최상철, 9.3~4,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은 원시적 생명력과 치명적 유혹을 지적으로 잘 조각해냈다.

<장미&Mating Dance>(안무 안성수, 7.17~19,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와 <음악 그리기>(안무 안성수, 10.12, 서강대 메리홀)는 클래식 음악의 명증한 이미지를 아름다운 선으로 이어붙여 춤추는 몸의 아름다움을 잘 빚어냈다. <풍류(風流)-사구의 노래>(안무 강혜련, 3.6~7,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와 <페이딩 어웨이>(안무 강혜련, 10.12, 서강대 메리홀)는 잘 짜여진 미니멀한 무대에서 클래식과 모던이 결합된 음악에 기본이 탄탄한 춤을 힘차게 펼쳐냈다. <데칼로그-살인하지 말라>(안무 김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희·연출 김윤규, 7.1~5,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춤과 연극, 음악, 무대미술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힘 있게 만난 대형 총체극으로 주목됐다.

한국무용에서는 <분홍신>(안무 이경옥, 7.10~11,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 장르 간 크로스오버에 성공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를 새롭게 해석한 이 작품은 무대 전면을 평면으로 쓰고 그 뒤에 기하학적 착시의 공간을 만들어 무대와 영상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연극적인 다양한 동작을 바탕으로 인간의 끝 모를 욕망을 변주해내는 데 성공했다. <윤미라의 전통춤 2009-여인, 홍에 젖다>(안무 윤미라, 12.2~3, 세종M씨어터)는 한국의 장구춤 19가지를 집대성해 새로 구성한 춤으로 최승희의 <보살춤>, 김백봉의 <부채춤>을 잇는 전통의 세련된 재창작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기존의 장구가 아니라 좌우가 비대칭이면서도 크기가 작은 동해안별신굿의 장구를 이용, 움직임에 균형과 함께 격조를 더했다. 의상도 강렬한 원색을 빼고 파스텔 톤으로 바꿔 주술성을 배제하고 소매 폭을 줄인 고구려 복식에서 모티브를 따와 현대적 미감을 더하는 등 한국춤의 세련된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을 극대화했다. <볼레로>(안무 김선미, 10.12, 서강대 메리홀)는 다소 투박해 보이는 한국춤의 손짓, 발짓, 어깻짓, 몸짓으로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반복되는 투명한 음악을 동양적 명상으로 조각해냈다. <마라>(안무 김은희, 11.18~19,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와 <에테르>(안무 김은희, 6.1,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귀기 어린 에너지와 주술적인 무대가 잘 어울린 가운데 움직임은 크고, 빠르고 절도가 있었고, 호흡이 깊고 내뿜는 에너지가 독특했다.

발레에서는 국립발레단의 <왕자 호동>(안무 안병남, 11.18~2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이 모처럼의 창작 발레로 가장 주목을 모았다. 사랑 장면이 특히 아름다웠으며, 전체적으로 좋은 속도감과 균형을 이끌어냈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이 국립발레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무대였다. 사랑의 그랑 파드되가 궁정과 침대 위에서 감미롭게 펼쳐졌고, 결혼식의 디베르티스망도 훌륭했다. <오페라 발레-뮤즈>(안무 김선희, 12.21~22, 26~27,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와 <이야기가 있는 발레>(안무 서미숙, 7.21~22,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24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는 오페라 아리아와 재즈 등 고급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음악에 맞춰 발레 대중화를 위한 레퍼토리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 2. 파격적인 실험의 젊은 무용가들의 약진

현대무용에서 신창호·김남진·이정연·윤석태·이선아·이동원, 발레에서 김경영·이고은의 작품이 돋보였다. 특히 현대무용에서 신창호, 발레에서 김경영의 작품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무용 <Platform>(안무 신창호, 4.17~18, 서강대 메리홀)은 속도감 넘치는 춤의 역동성, 컴포지션, 리듬감, 그리고 유머까지 잘 어울린 무대로 젊은 안무가의 세상을 향한 플랫폼(Platform)이라고 하기 충분해 보였다. <미친 백조의 호수>(안무 김남진)는 강렬한 이미지와 격렬한 패러디로 환경 문제를 정면에서 접근, 주목됐다. <Triad>(안무 이정연, 9.10~11,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는 좋은 대칭과 균형으로 무대 전체에 음악적 하모니가 입체적으로 그려졌다. 특히 에너지의 변화와 흐름이 좋았다. <퍼즐>(안무 윤석태, 9.16,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명랑한 이미지를 재기발랄하게 풀어 음악과 움직임, 이미지가 좋은 밸런스를 유지했다. 솔로가 힘이 넘치고 군무의 감성도 좋아 객석을 절로 흥겹게 했다.

그 밖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기획공연 <뉴탤런트>(11.10~11,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 참가한 <저, 밖으로>(안무 이선아)와 <어떤 소리를 원하는가>(안무 이동원·김준희)가 신선한 감각으로 관심을 끌었다. <저, 밖으로>는 독특한 영상과 클래식, 영화음악, 록 등 다양한 음악을 사용, 인간 심연에 깔린 욕구를 감각적으로 표현해냈으며, <어떤 소리를 원하는가>는 비디오를 활용, 현장에서 상호 작용하는 실험을 통해 기하학적 구도 속에서 세련된 도시적 감수성을 그려냈다. 발레 <0+>(안무 김경영, 6.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정제된 다양한 움직임을 한 곳으로 집중, 크고 뚜렷한 메시지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데 성공, 가장 주목을 모았다. 대칭과 통일미가 살아 있는 기하학적 무대에서 현대적 타악에서 베토벤까지 다양한 음악의 변주에 맞춰 독특한 공간을 구성했다. 조명을 따라가지 않고 빛의 구조물을 잘 이용해 넉넉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 메시지를 집중 전달했다. <826번째 외침>(안무 김경영, 9.27~28,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정신대 할머니'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춤과 드라마, 조명, 영상 등을 잘 조화시켜 세련되면서도 감동적으로 풀어냈다. 격한 감정을 안정되고 세련된 테크닉으로 냉정하게 풀어갔으며 국내 무용 공연사상 처음으로 엔카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실험과 풍자미도 만만치 않았다.

<카드게임>(안무 이고은, 5.8~9, 아르코시티극장 대극장)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를 허물고 발레에 연극과 마임, 마법을 더하는 등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돋보였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80일간의 세계일주>, <웨스턴 영화> 등 널리 알려진 동화와 소설,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카드게임에 접목, 인간 삶의 영원한 숙제인 은밀한 사랑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 Ⅲ. 결론

2009년 한국의 무용은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공연 축소 등 위기국면을 탈피, 거의 정상화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장르별로는 현대무용 창작 공연이 여전히 한국 춤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대구, 부산 등 영남 지역의 무용 공연 활성화가 두드러졌다.

시기별로는 11월을 전후로 한 늦가을이 최고의 무용 시즌으로 자리잡았으며 공연 하한기로 분류됐던 8월 휴가철도 페스티벌 등 주요 무용 계절로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중견과 신진무용가들의 장르를 넘어서려는 의지, 장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욕망, 춤에 온몸을 던지는 열정이 돋보였다. 위기국면을 지나며 원로들의 퇴조가 눈에 띄는 가운데 자신의 작품세계를 더욱 심화하는 중견들의 노력과 과감한 젊은 무용가의 약진 속에서 무용계의 활발한 세대교체가 진행된 한 해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무용이 전체 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공연 횟수가 대부분 하루에 그쳐 현대무용과 격차가 벌어져 고정 레퍼토리 개발과 대중화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2009년 무용 현황분석

황윤숙(문화리서치피오 대표)

## Ⅰ. 무용 공연의 연도별 추이

무용 공연은 『2008문예연감』의 편람 자료조사 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부터 비교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왔고,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5개년간 추이를 살피기에 적합하다. 물론, 2008년 이전의 편람은 자료조사 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인 만큼 조사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비교 자체를 포기해야 할 만큼 커다란 차이는 아니다.

**▌표 1. 최근 5년간 무용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추이 ▐**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공연 건수 | 1,115 | 1,057 | 1,165 | 1,055 | 1,203 |
| 공연 횟수 | 2,234 | 2,085 | 1,775 | 1,736 | 2,047 |
| 공연 건수 대 횟수 비율 | 2.0 | 2.0 | 1.5 | 1.6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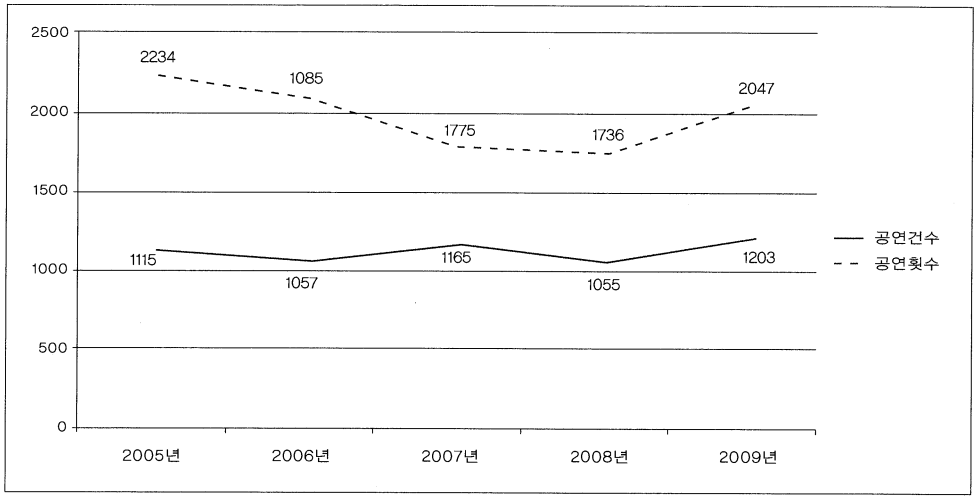
최근 5년간 무용 공연은 공연 건수 기준 연간 평균 약 1,119건, 공연 횟수 기준 1,975회 무대에 올랐다. 변화의 추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시각적으로 더 잘 드러난다. 2005~2009년간 공연 건수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2007년과 2009년에 완만한 증가가 이루어진 정도다.

이에 비해 공연 횟수의 변화는 폭이 크다. 공연 건수가 조금 늘어났던 2007년에 공연 횟수는 전년도의 2,085회에서 1,775회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 횟수의 감소는 2008년까지 계속되다가 2009년에 와서야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다.

**▌그림 1. 최근 5년간 무용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추이 ▐**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그래프가 2007년에 가까워졌다가 점차 다시 예전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각 연도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을 보면 잘 드러난다. 2005년과 2006년 2회 수준이었던 공연당 공연 횟수가 2007년에는 1.5회로 낮아졌다가 2008년의 1.6회를 거쳐 2009년에는 1.7회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이전 연도에 비해 1회에 그친 공연의 수가 줄어든 데다, PMC프러덕션이 한국춤교육연구회와 함께 선보인 <엄마! 우리춤에 자연이 보여요>, 유니버설발레단의 <오네긴>, <FEVER TANGO II> 등 공연 횟수가 10회 이상인 무용 공연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II. 2009년 무용 분야 장르별 공연 현황

### 1. 무용 내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2010문예연감』의 분류 기준에서는 무용 공연을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한다. 세부 분야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피면 각 분야별로 한 해 동안 공연이 양적인 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단순화해서 알 수 있다. 이 숫자들은 하나하나의 공연이 품고 있을 차이와 특수성을 담아내진 못하지만, '2009년 무용 공연계' 전체를 조망하는 새의 시점에서 일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표 2. 2009년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미분류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402 | 387 | 147 | 101 | 91 | 74 | 1 | 1,203 |
| | 비율 | 33% | 32% | 12% | 8% | 8% | 6% | 0%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659 | 519 | 407 | 140 | 196 | 125 | 1 | 2,047 |
| | 비율 | 32% | 25% | 20% | 7% | 10% | 6% | 0% | 100% |
|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 | | 1.6 | 1.3 | 2.8 | 1.4 | 2.2 | 1.7 | 1.0 | 1.7 |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현대무용이 402건으로 3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다. 한국무용이 387건으로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이며 뒤를 잇고, 발레 147건, 혼합 101건, 복합 91건의 비중을 보인다.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6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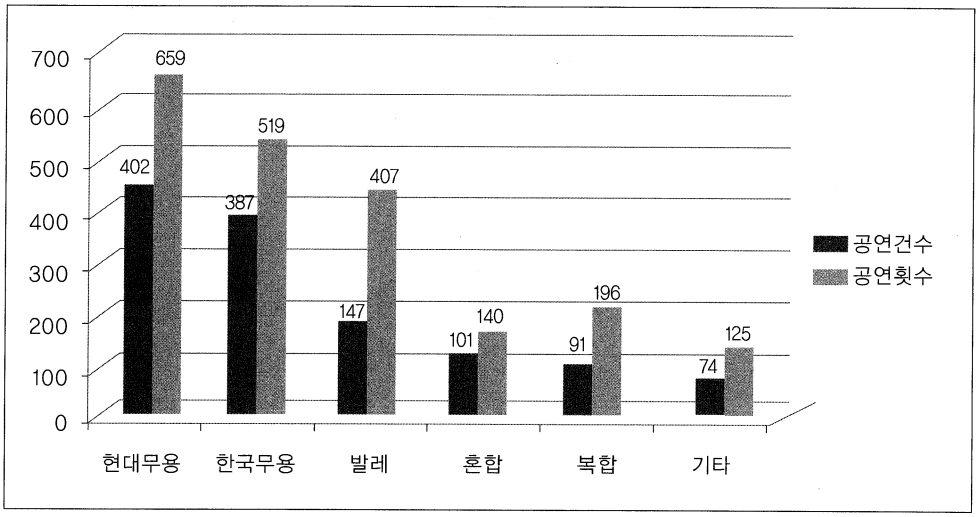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비교했을 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기타의 공연 건수가 74건(6%)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장르로는 분류가 어려운 형태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비보잉, 벨리댄스, 재즈댄스 등이 바로 기타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공연이다. 『문예연감』이 포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전문 예술인에 의한 창작 활동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공연들을 무심히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2010문예연감』에서는 이러한 공연을 편람에 포함시켰다.

공연 횟수에서의 장르별 비중도 공연 건수와 전반적인 분포는 다르지 않다. 공연 횟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은 모두 발레와 복합 장르의 공연당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관련 있다. 무용의 세부 장르 중 공연당 공연 횟수가 평균 2회를 넘는 장르는 발레와 복합뿐이다. 발레가 2.8회로 가장 많고, 복합이 2.2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 다음 순이다. 공연 건수에서 볼 수 있었던 현대무용·한국무용과 발레의 큰 차이는 공연 횟수에 있어선 백여 회 수준으로 좁혀지고, 공연 건수에서 8%였던 복합의 비중도 10% 수준으로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2. 2009년도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2.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로 살펴본 무용 내 세부 장르별 실태 차이

무용 공연의 전체적인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7%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1.7회 정도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셈이다. 전체 공연 건수 1,203건 중 793건이 1회 공연으로, 65.9%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다. 1, 2회를 더하면 90.9% 수준에 달해 3회 이상의 다회 공연은 매우 비중이 낮다.

**▌표 3. 2009년 무용 공연의 공연 횟수별 공연 건수 ▐**

| 구 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11·12·15·18·20·37·52회 | 총합계 |
|---|---|---|---|---|---|---|---|---|---|---|---|
| 공연 건수 | 793 | 301 | 34 | 16 | 25 | 10 | 6 | 6 | 4 | 8(각 1건 씩) | 1,203 |

세부 장르별로는 발레가 2.8회로 가장 높고, 복합 2.2회, 현대무용 1.6회, 혼합 1.4회, 한국무용 1.3회 순으로 나타난다. 기타 범주의 공연은 1.7회 수준으로 무용 공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연당 공연 횟수를 보여준다. 평균 2회 수준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르는 발레와 복합 두 장르이고, 나머지 장르는 대개 한 번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서 공연당 평균적인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무용 분야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다회 공연이 시도되고 받아들여지는 장르와 그렇지 않은 장르의 나뉨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2009년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

| 구 분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미분류 | 계 |
|---|---|---|---|---|---|---|---|---|
| 공연 건수 | 402 | 387 | 147 | 101 | 91 | 74 | 1 | 1,203 |
| 공연 횟수 | 659 | 519 | 407 | 140 | 196 | 125 | 1 | 2,047 |
| 횟수/건수 비 | 1.6 | 1.3 | 2.8 | 1.4 | 2.2 | 1.7 | 1.0 | 1.7 |

발레 공연 중에서 가장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한 작품은 이원국발레단이 창조콘서트홀에서 연중 월요상설발레공연으로 선보인 <사랑의 세레나데>로 총 52회 공연이 진행되었다. 그뒤를 잇는 3개의 공연은 모두 유니버설발레단의 작품이다. <호두까기 인형(12월)>이 20회, <오네긴(9월)> 12회, <라 바야데르(4월)> 11회로 모두 10회 이상 공연이 이루어졌다.

발레 공연에서도 1회만 공연하는 경우가 70건으로 절반 수준(47.6%)에 이르긴 하지만, 이러한 몇몇 다회 공연들이 발레 장르의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회만 공연하는 경우가 58건으로 63.7%를 차지하는 복합 장르에서도 이처럼 몇몇 공연이 전체 평균값을 이끄는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서울예술단의 댄스뮤지컬 <15분 23초>가 9회, 김선이프로젝트의 <Strange Island (괴짜섬)>가 7회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횟수를 보였다. 이는 무용과 뮤지컬, 무용과 연극 등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장르의 경우, 무용 공연의 일반적인 일정과 달리 다른 장르와 유사한 공연 일정을 취하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Ⅲ. 2009년 무용 분야 부문별 공연 현황

## 1. 창작 공연은 공연당 평균 1.7회, 기존 작품은 1.9회 공연

앞서 보았던 것처럼 무용 공연은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유독 적다. 달리 표현하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에 기초한 분석만으로는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무용 공연의 편람에서도 모든 공연에 대해 2009년에 창작된 작품인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작품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한 해 공연된 작품 중 창작과 기존 공연작(편람상에서는 '레퍼토리'라는 용어 사용)을 나누어 살핀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0문예연감』은 무용 공연에 대해 각 공연작품이 창작인지 아닌지 불완전하나마 분류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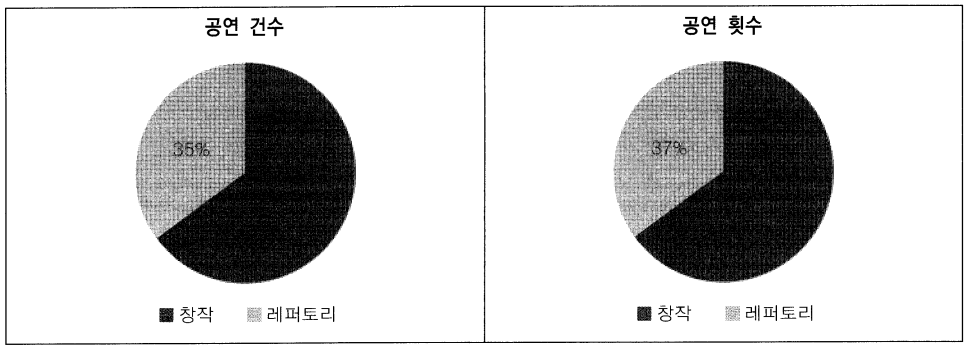
분명히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만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 상태로 두었다.

**▌표 5. 2009년 무용 공연의 창작, 레퍼토리 분포 ▐**

| 구 분 | 창작 | 레퍼토리 | 미분류 | 계 |
|---|---|---|---|---|
| 공연 건수 | 593 | 313 | 297 | 1,203 |
| 공연 횟수 | 1,003 | 600 | 444 | 2,047 |
| 횟수/건수 비율 | 1.7 | 1.9 | 1.5 | 1.7 |

미분류 공연을 제외하고,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창작 작품은 593건으로 65%, 기존 작품(레퍼토리)은 313건으로 35%를 차지한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창작 작품이 1,003회로 63%, 기존 작품(레퍼토리)이 600회로 37%를 차지한다.

▌그림 3. 2009년 무용 공연의 창작, 레퍼토리 비중(미분류 항목 제외) ▐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양상이 비슷하다. 실제 창작 공연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는 1.7회, 레퍼토리 공연은 1.9회 수준이다. 창작 공연의 경우 평균 약 1.7회 공연했다면, 기존 공연 작품(레퍼토리)은 약 1.9회 공연을 한 셈이다.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보기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향후 표준화된 조사 방법을 통한 편람 자료가 연도별로 축적이 되면 이 같은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무용 공연 100개 중 88개는 국내작, 9개는 해외작, 3개는 공동작

공연 단체의 국적도 창작·레퍼토리 구분과 함께 2008년에 이어 2009년 편람에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또한 사후 조사 형태인 만큼 분류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만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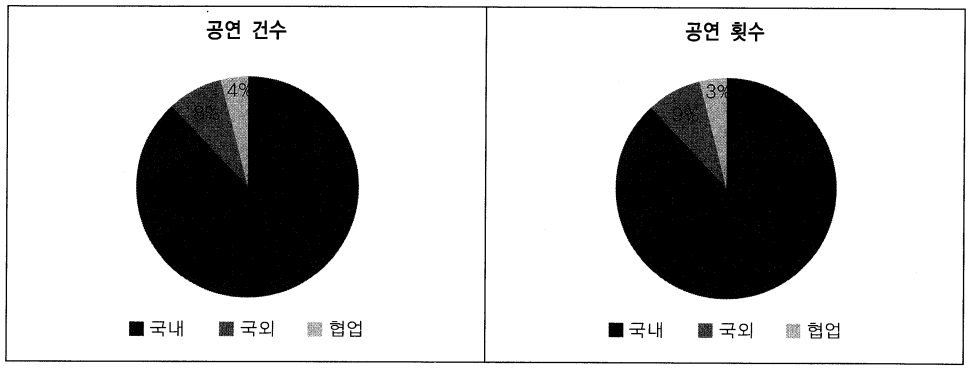
▌표 6. 2009년 무용 공연 단체 국적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국내 | 해외 | 협업 | 계 | 미분류 |
|---|---|---|---|---|---|---|
| 공연 건수 | 빈도 | 979 | 90 | 39 | 1,108 | 95 |
| | 비율 | 88.4 | 8.1 | 3.5 | 100% | - |
| 공연 횟수 | 빈도 | 1,603 | 164 | 61 | 1,828 | 219 |
| | 비율 | 87.7 | 9.0 | 3.3 | 100% | - |
| 횟수/건수 비율 | | 1.6 | 1.8 | 1.6 | 1.7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비중의 차이는 거의 없다. 2009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무용 공연이 100개라고 한다면, 그중 88개 정도는 국내 공연 단체가, 9개는 해외 공연 단체가, 그리고 3개는 국내 무용인과 해외 무용인이 함께 협업한 공연이다. 해외 단체 공연의 공연당 평균 횟수가 1.8회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1회 공연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드문 해외 공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2009년 무용 공연 단체 국적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3. 현대무용·복합·혼합은 창작 중심, 한국무용과 발레는 레퍼토리 중심

세부 장르별로 창작 중심의 장르와 레퍼토리 중심의 장르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무용 장르의 특성 중 하나다. 창작 공연과 기존 작품 공연의 비율을 무용 내 세부 분야별로 살피면, 창작이 활발한 분야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창작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1%를 넘어 커질수록 그만큼 레퍼토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무용의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은 0.08%로 창작 공연이 레퍼토리에 비해 12.5배에 달해 극단적으로 창작 중심인 장르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연예술 장르 간 협업으로 만들어진 공연이 속한 복합 장르는 특성상 창작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이 0.23% 수준이다. 무용 내 세부 장르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혼합 형태의 공연 또한 상대적으로 창작의 비중이 큰 장르에 속한다.

▌표 7. 2009년 무용 공연의 세부 분야별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 ▐

| 구 분 | 레퍼토리 | 창작 | 레퍼토리/창작 비율 | 미분류 | 계 |
|---|---|---|---|---|---|
| 현대무용 | 26 | 326 | 0.08 | 50 | 402 |
| 한국무용 | 179 | 125 | 1.43 | 83 | 387 |
| 발레 | 74 | 45 | 1.64 | 28 | 147 |
| 혼합 | 15 | 35 | 0.43 | 51 | 101 |
| 복합 | 12 | 53 | 0.23 | 26 | 91 |
| 기타 | 7 | 9 | 0.78 | 59 | 75 |
| 총합계 | 313 | 593 | 0.53 | 297 | 1,203 |

굳이 이러한 자료에 기대지 않아도 발레와 한국무용에 레퍼토리 공연이 많으리라는 것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해가 거듭해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기 위해선 이러한 편람 자료를 분석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발레는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이 1.64%로 창작보다 레퍼토리가 1.6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무용도 발레보다는 조금 작지만 창작 공연보다 레퍼토리가 1.43배 많이 무대에 오른다. 모두 레퍼토리의 비중이 크리라 여겨지는 두 장르지만, 한국무용이 발레보다 창작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현상으로 보인다.

## IV. 2009년 무용 분야 월별 공연 현황

### 1. 월별 공연 분포는 M자형 곡선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완만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에서 관찰되는 패턴으로, 봄과 가을이 여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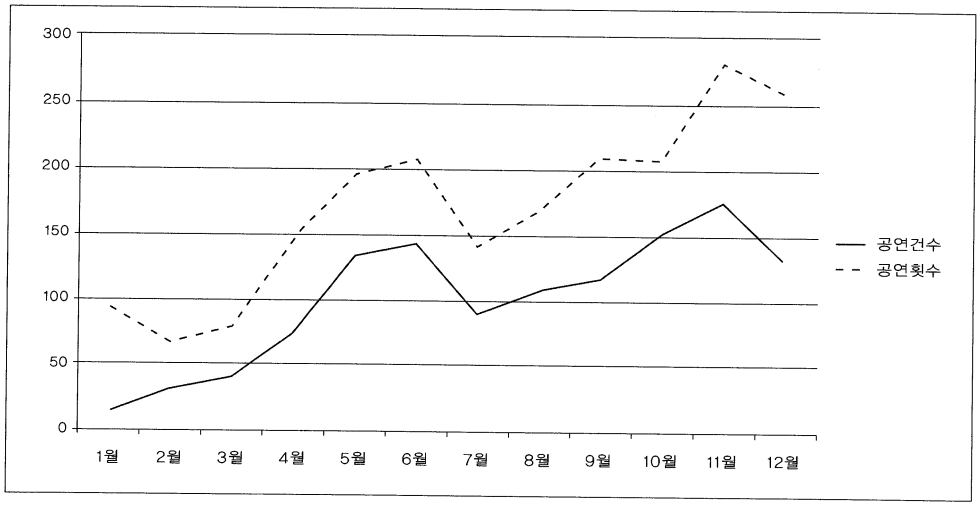
**▌표 8. 2009년 무용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년 | 계 |
|---|---|---|---|---|---|---|---|---|---|---|---|---|---|---|---|
| 공연 건수 | 빈도 | 15 | 31 | 41 | 74 | 133 | 142 | 89 | 107 | 117 | 149 | 174 | 130 | 1 | 1,203 |
| | 비율 | 1% | 3% | 3% | 6% | 11% | 12% | 7% | 9% | 10% | 12% | 14% | 11% | 0% | 100% |
| 공연 횟수 | 빈도 | 93 | 67 | 79 | 146 | 195 | 206 | 140 | 167 | 208 | 206 | 280 | 257 | 3 | 2,047 |
| | 비율 | 5% | 3% | 4% | 7% | 10% | 10% | 7% | 8% | 10% | 10% | 14% | 13% | 0% | 100% |

<표 8>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하반기 부분에서 조금 변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M자형 곡선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가 동일하게 완만한 형태의 M자형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공연 횟수가 일정 수준 높게 위치하는 형태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는 일정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5~6월과 10~11월에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5. 2009년 무용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무용에서 나타나는 M자형 곡선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을에 나타나는 하반기의 정점이 다른 공연에 비해 늦은 11월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11월 정점에 이르기까지 8~9월에는 완만한 상승세가 진행되다가 10월에 그 추이가

좀 더 가파르게 변화하는 형국이다. 10~11월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나 『SIDance』처럼 무용과 연관성이 높거나 무용만 다루는 좋은 공연예술축제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특징은 12월이 되어서도 공연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별 공연 횟수의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12월의 공연 횟수는 13%로, 11월의 14%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다. 이에 반해 1월에는 급격히 그 비중이 떨어진다. <그림 5>에 1월의 공연 횟수가 높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1월부터 시작해 연중 계속되는 몇몇 공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공연을 단위로 자료가 취합된 만큼, 1월에 열리는 공연 횟수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연중 횟수가 모두 1월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한 분포를 살피기 위해 소수의 연간 공연을 제외하고 <그림 6>과 같이 정리하면, 12월과 1월의 차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6. 2009년 무용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1월에 시작된 연간 공연 제외) ▐**




## V. 2009년 무용 분야 시도별 공연 현황

### 1. 서울·경기·부산·대구·경남 순으로 무용 공연 활발

16개 시도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서 가장 공연 량이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경기(122건) 4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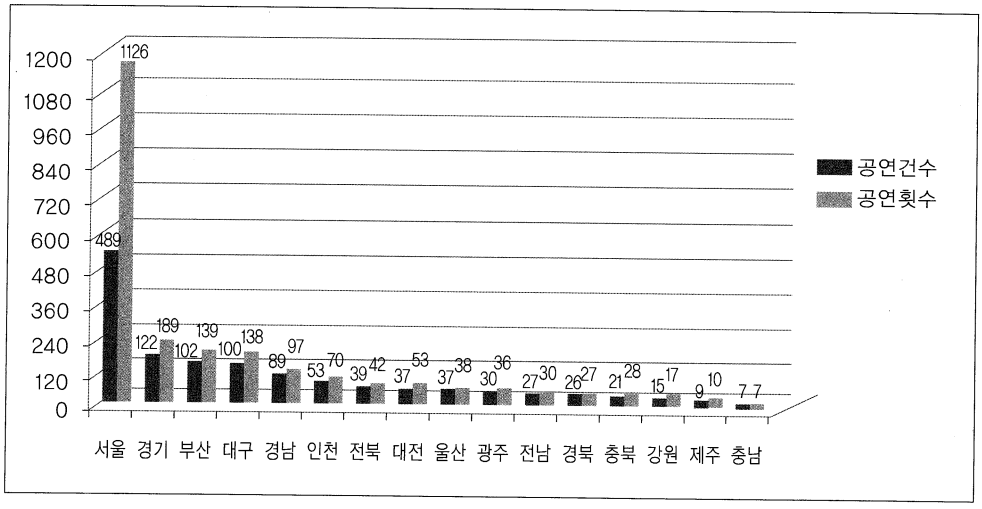
수준인 489건이고,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는 경기(189회) 6배인 1,126회에 이른다. 전국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무용 공연 중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41%의 공연이,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55%의 공연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표 9. 2009년 16개 시도별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구분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경남 | 인천 | 전북 | 대전 | 울산 |
|---|---|---|---|---|---|---|---|---|---|
| 공연 건수 | 489 | 122 | 102 | 100 | 89 | 53 | 39 | 37 | 37 |
| 공연 횟수 | 1,126 | 189 | 139 | 138 | 97 | 70 | 42 | 53 | 38 |
| 구분 | 광주 | 전남 | 경북 | 충북 | 강원 | 제주 | 충남 | 계 | |
| 공연 건수 | 30 | 27 | 26 | 21 | 15 | 9 | 7 | 1,203 | |
| 공연 횟수 | 36 | 30 | 27 | 28 | 17 | 10 | 7 | 2,047 | |

공연 건수로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에서 연간 약 90건 이상의 무용 공연이 이루어졌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비슷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 경남이 대구에 이어 인천보다 더 많은 무용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제18회 전국무용제』, 『제10회 경남무용제』 등의 축제가 김해문화의전당, 양산문화예술회관 등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열렸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그림 7. 2009년 16개 시도별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서울이다. 한 공연당 평균 2.3회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연당 횟수가 2회를 넘는 지역이다.

조금 이례적인 모습은 대전이 1.43회로 경기의 뒤를 이어 공연당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문화예술회관의 『2009 스프링 페스티벌』, 대전광역시와 대전MBC가 공동주최한 『한 여름 밤의 댄스 페스티벌』의 참가작이 대부분 2회씩 공연을 연 데다, 벨로루시국립발레단을 초청해 무대에 올린 <호두까기 인형>이 5회 공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순위는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공연당 평균 1회에 가까워지는 양상이다.

**▌표 10. 2009년 16개 시도별 무용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 ▐**

| 지 역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비율 |
|---|---|---|---|
| 서울 | 489 | 1,126 | 2.30 |
| 경기 | 122 | 189 | 1.55 |
| 대전 | 37 | 53 | 1.43 |
| 대구 | 100 | 138 | 1.38 |
| 부산 | 102 | 139 | 1.36 |
| 충북 | 21 | 28 | 1.33 |
| 인천 | 53 | 70 | 1.32 |
| 광주 | 30 | 36 | 1.20 |
| 강원 | 15 | 17 | 1.13 |
| 전남 | 27 | 30 | 1.11 |
| 제주 | 9 | 10 | 1.11 |
| 경남 | 89 | 97 | 1.09 |
| 전북 | 39 | 42 | 1.08 |
| 경북 | 26 | 27 | 1.04 |
| 울산 | 37 | 38 | 1.03 |
| 충남 | 7 | 7 | 1.00 |
| 총합계 | 1,203 | 2,047 | 1.7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2.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수도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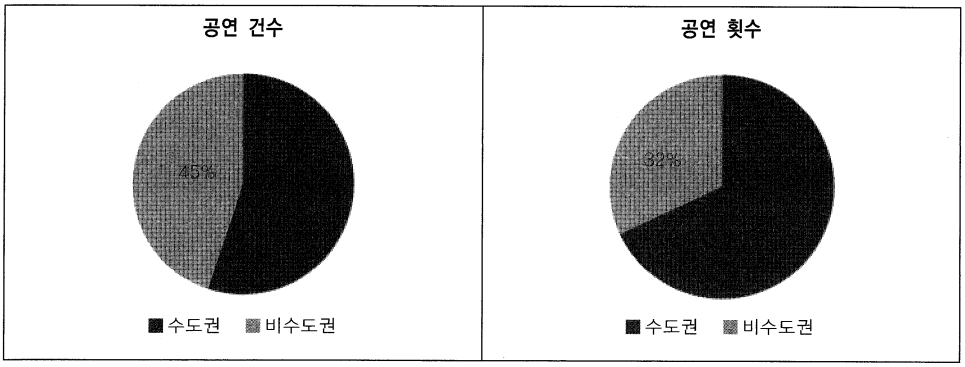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나머지 13개 시도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했다. 공연 건수에서는 수도권이 664건으로 539건인 비수도권보다 1.2배 정도 우세하고, 공연 횟수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662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1,385회를 보인다는 것이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수도권이 우세하다. 비수도권에 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회 공연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1.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비수도권 | 계 |
|---|---|---|---|---|
| 공연 건수 | 664 | 539 | 1.2 | 1,203 |
| 공연 횟수 | 1,385 | 662 | 2.1 | 2,047 |

<표 11>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나타난다. 공연 횟수에서 차이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림 8.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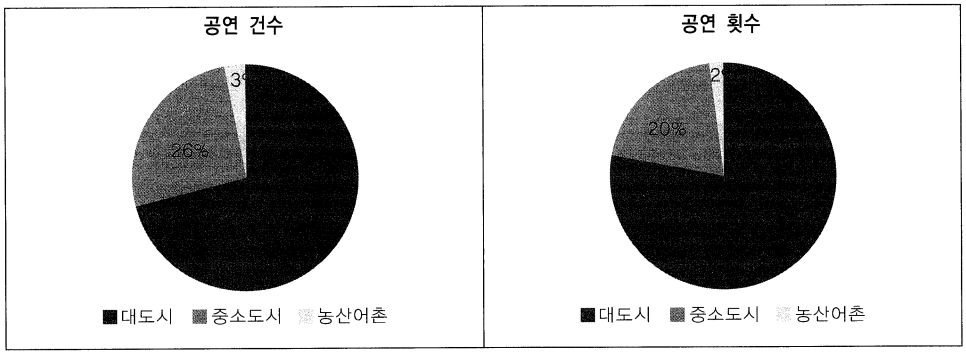

이렇게 건수에서보다 횟수에서 지역 격차가 커지는 경향은 지역을 기초 단위까지 분류해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범주화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12.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 대도시 | 중소 도시 | 농산어촌 | 계 |
|---|---|---|---|---|
| 공연 건수 | 848 | 317 | 38 | 1,203 |
| 공연 횟수 | 1,600 | 404 | 43 | 2,047 |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공연 건수 격차는 2.7배 수준이지만, 공연 횟수 격차는 4배 수준으로 더 크게 벌어진다. 이에 비해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은 공연 건수 격차가 8.3배, 공연 횟수 격차가 9.4배 수준으로 공연 건수의 격차보다 공연 횟수의 격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은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도시는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그림 9.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 3. 지역 인구 대비 공연 건수·횟수 모두 서울이 우세, 경기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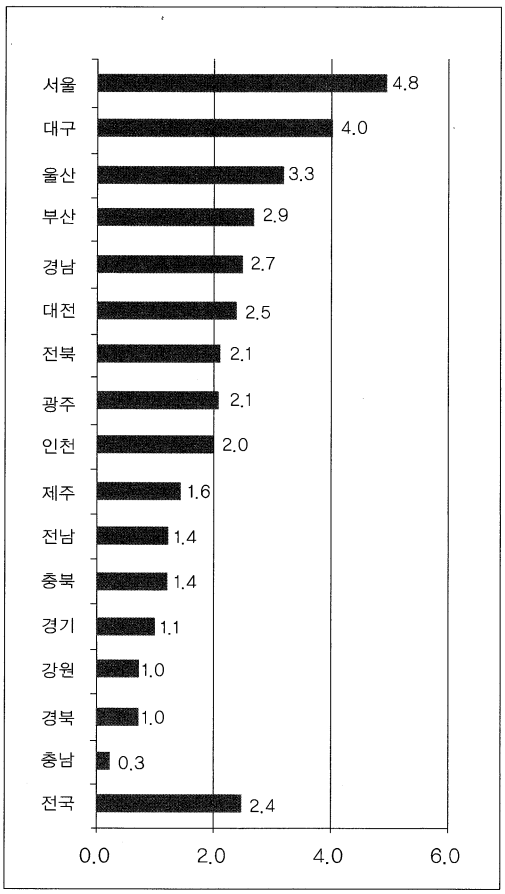
지역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무용 공연이 지역별로 어떤 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다.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무용 공연이 열리는지 살피면 실제 무용 공연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함께 고려할 수 있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제로 각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해서,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단순한 지역별 비교 때는 볼 수 없던 특성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 서울에 이어 많은 공연을 자랑하던 경기가 인구수를 고려하자 순위가 한참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다. 인구 규모만 보자면 서울을 넘어서는 데 비해,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경기 현지에서 오르는 공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대구가 4.0건, 울산이 3.3건으로 4.8건인 서울보다 낮긴 하지만 지역별 단순 비교 때보다 순위가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지역은 이전 지역별 비교 때와 큰 변동이 없이 근소한 차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상이다.

**▌표 13. 2009년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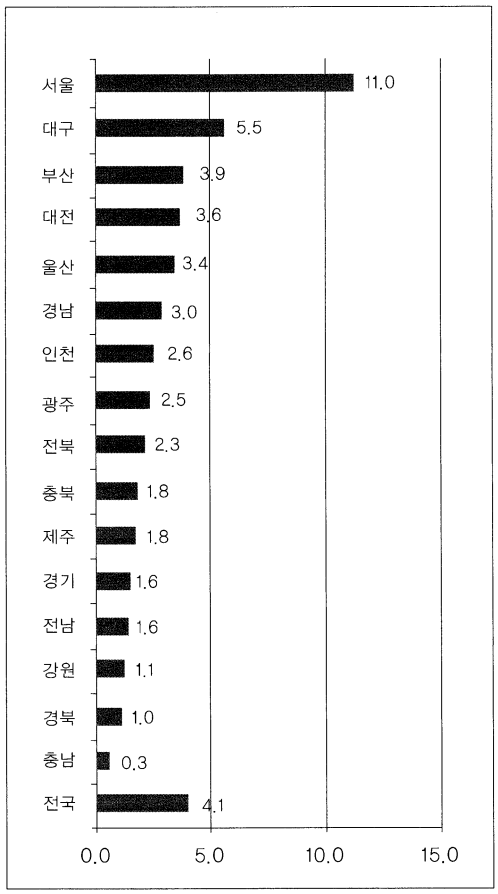
| 순위 | 지역 | 공연건수 |
|---|---|---|
| 1 | 서울 | 4.8 |
| 2 | 대구 | 4.0 |
| 3 | 울산 | 3.3 |
| 4 | 부산 | 2.9 |
| 5 | 경남 | 2.7 |
| 6 | 대전 | 2.5 |
| 7 | 전북 | 2.1 |
| 8 | 광주 | 2.1 |
| 9 | 인천 | 2.0 |
| 10 | 제주 | 1.6 |
| 11 | 전남 | 1.4 |
| 12 | 충북 | 1.4 |
| 13 | 경기 | 1.1 |
| 14 | 강원 | 1.0 |
| 15 | 경북 | 1.0 |
| 16 | 충남 | 0.3 |
| - | 전국 | 2.4 |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는 공연 건수와는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다.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이 11회로 5.5회인 대구를 큰 차이로 앞서며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공연 횟수를 보인다. 부산(3.9회), 대전(3.6회), 울산(3.4회), 경남(3.0회) 등의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14.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 횟수 ▐**

| 순위 | 지역 | 공연횟수 |
|---|---|---|
| 1 | 서울 | 11.0 |
| 2 | 대구 | 5.5 |
| 3 | 부산 | 3.9 |
| 4 | 대전 | 3.6 |
| 5 | 울산 | 3.4 |
| 6 | 경남 | 3.0 |
| 7 | 인천 | 2.6 |
| 8 | 광주 | 2.5 |
| 9 | 전북 | 2.3 |
| 10 | 충북 | 1.8 |
| 11 | 제주 | 1.8 |
| 12 | 경기 | 1.6 |
| 13 | 전남 | 1.6 |
| 14 | 강원 | 1.1 |
| 15 | 경북 | 1.0 |
| 16 | 충남 | 0.3 |
| - | 전국 | 4.1 |




## 4. 최근 3년간 서울·대구·경남은 공연 증가, 경기·강원·제주는 감소

조사 방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인 2007년과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그리고 보완을 통해 조사 방법의 표준화가 자리를 잡은 2009년의 자료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kof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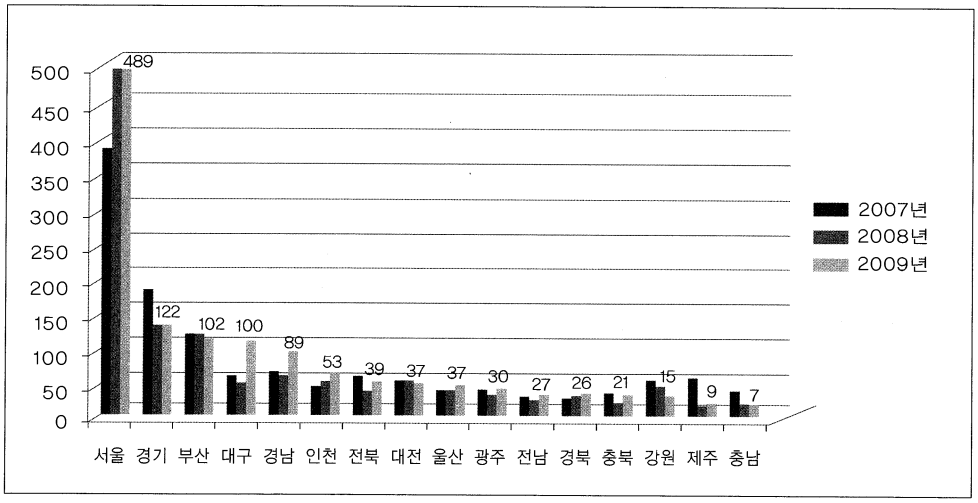
함께 비교하는 것에는 분명 유의해야 할 점이 있지만, 편람 자료의 중요성과 포괄성을 생각한다면 비교의 가치가 충분하다.

**▌표 15. 최근 3년간 무용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 연도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경남 | 인천 | 전북 | 대전 | 울산 |
|---|---|---|---|---|---|---|---|---|---|
| 2007 | 426 | 174 | 107 | 49 | 58 | 32 | 49 | 39 | 28 |
| 2008 | 488 | 122 | 108 | 39 | 54 | 39 | 31 | 40 | 27 |
| 2009 | 489 | 122 | 102 | 100 | 89 | 53 | 39 | 37 | 37 |
| 연도 | 광주 | 전남 | 경북 | 충북 | 강원 | 제주 | 충남 | 계 | |
| 2007 | 32 | 21 | 17 | 24 | 39 | 46 | 21 | 1,162 | |
| 2008 | 19 | 13 | 22 | 11 | 31 | 4 | 8 | 1,056 | |
| 2009 | 30 | 27 | 26 | 21 | 15 | 9 | 7 | 1,203 |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무용 공연의 지역별 추이를 살피면 전체적인 큰 변동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몇몇 지역이 도드라진다.

**▌그림 10. 최근 3년간 무용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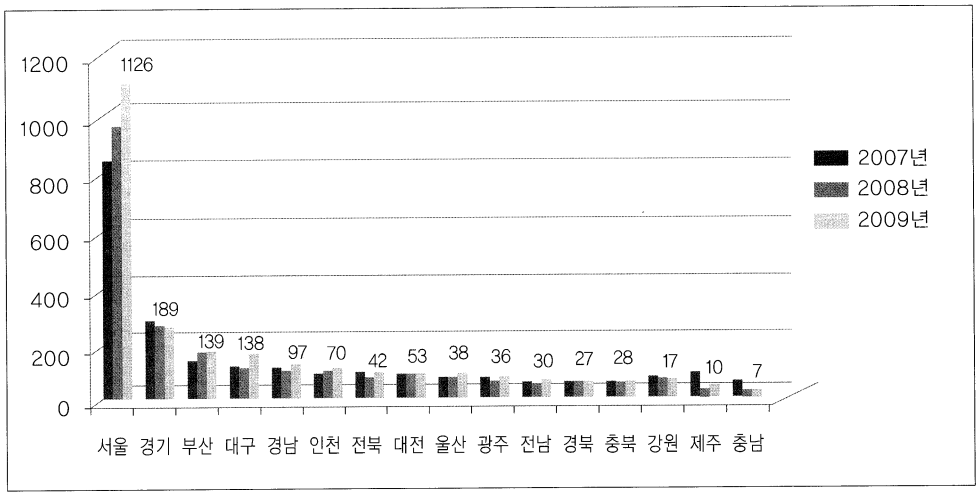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큰 증가 추이를 보인 대표적인 지역은 대구·서울·경남·인천 등을 꼽을 수 있다. 대구는 2007년 49건에 비해 2009년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00건의 무용 공연이 이루어져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서울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426건에서 488건으로 증가한 이래 2009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489건)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대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7년도 58건에서 2009년 89건으로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경기·강원·제주·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무용 공연이 적잖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서울이 166회 증가하였고 다른지역은 공연 건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16. 최근 3년간 무용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 연도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경남 | 인천 | 전북 | 대전 | 울산 |
|---|---|---|---|---|---|---|---|---|---|
| 2007년 | 846 | 255 | 117 | 73 | 75 | 40 | 53 | 53 | 31 |
| 2008년 | 960 | 198 | 136 | 65 | 66 | 58 | 33 | 53 | 30 |
| 2009년 | 1,126 | 189 | 139 | 138 | 97 | 70 | 42 | 53 | 38 |
| 연도 | 광주 | 전남 | 경북 | 충북 | 강원 | 제주 | 충남 | 계 | |
| 2007년 | 32 | 23 | 29 | 28 | 43 | 49 | 26 | 1,773 | |
| 2008년 | 22 | 14 | 28 | 21 | 39 | 5 | 8 | 1,736 | |
| 2009년 | 36 | 30 | 27 | 28 | 17 | 10 | 7 | 2,047 | |

**▌그림 11. 최근 3개년간 무용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5.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무용이 우세

16개 시도별로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혼합, 복합 등의 세부 분야별 공연 비중을 살폈다. 기준은 상대적으로 공연 횟수보다 공연 건수가 더 적합하다.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특정 장르의 비중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을 얼마간 방지하면서 다양성을 중심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히 양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 횟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할 필요는 있다.

각 지역별 특성 파악이 쉽도록 아래 표에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진한 색 표시)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흐린 색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각각 33.4%와 32.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발레(12.2%), 혼합(8.4%), 복합(7.6%) 순으로 이어진다.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큰 장르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무용이다. 현대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서울(42.5%)·대전(56.8%)·경북(38.5%)의 세 개 지역 정도다.

이 가운데에서도 경북은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의 비중이 동일하다. 이렇게 지역별로 보았을 때, 한국무용의 비중이 큰 지역이 더 많음에도 전국적으로 현대무용이 한국무용보다 근소하게 앞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공연 건수가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다.

인천은 28.3%를 차지하는 혼합 형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제18회 인천무용제』, 『2009 인천국제무용제』 등의 축제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 무대에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 장르별로 몸담고 있는 무용인의 수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장르별 비중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2009년 지역별로 살펴본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

| 지 역 |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서울 | 빈도 | 208 | 145 | 64 | 19 | 38 | 15 | 489 |
| | 비율 | 42.5% | 29.7% | 13.1% | 3.9% | 7.8% | 3.1% | 100.0% |
| 경기 | 빈도 | 40 | 41 | 19 | 4 | 10 | 8 | 122 |
| | 비율 | 32.8% | 33.6% | 15.6% | 3.3% | 8.2% | 6.6% | 100.0%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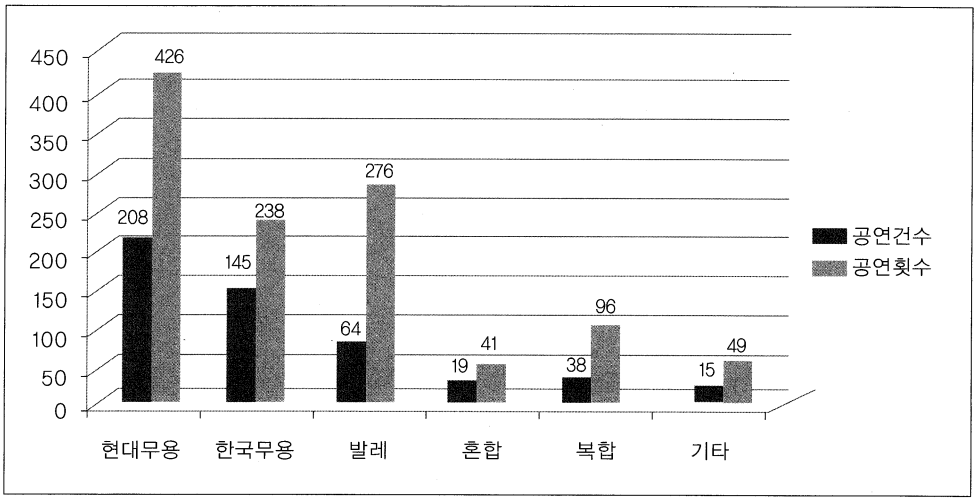
| 지 역 |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부산 | 빈도 | 40 | 43 | 6 | 6 | 5 | 2 | 102 |
| | 비율 | 39.2% | 42.2% | 5.9% | 5.9% | 4.9% | 2.0% | 100.0% |
| 대구 | 빈도 | 22 | 24 | 10 | 17 | 6 | 21 | 100 |
| | 비율 | 22.0% | 24.0% | 10.0% | 17.0% | 6.0% | 21.0% | 100.0% |
| 경남 | 빈도 | 26 | 39 | 8 | 10 | 4 | 2 | 89 |
| | 비율 | 29.2% | 43.8% | 9.0% | 11.2% | 4.5% | 2.2% | 100.0% |
| 인천 | 빈도 | 12 | 8 | 8 | 15 | 4 | 6 | 53 |
| | 비율 | 22.6% | 15.1% | 15.1% | 28.3% | 7.5% | 11.3% | 100.0% |
| 전북 | 빈도 | 9 | 17 | 5 | 3 | 3 | 2 | 39 |
| | 비율 | 23.1% | 43.6% | 12.8% | 7.7% | 7.7% | 5.1% | 100.0% |
| 대전 | 빈도 | 21 | 8 | 4 | 1 | 1 | 2 | 37 |
| | 비율 | 56.8% | 21.6% | 10.8% | 2.7% | 2.7% | 5.4% | 100.0% |
| 울산 | 빈도 | 1 | 15 | 4 | 7 | 3 | 7 | 37 |
| | 비율 | 2.7% | 40.5% | 10.8% | 18.9% | 8.1% | 18.9% | 100.0% |
| 광주 | 빈도 | 4 | 9 | 7 | 4 | 5 | 1 | 30 |
| | 비율 | 13.3% | 30.0% | 23.3% | 13.3% | 16.7% | 3.3% | 100.0% |
| 전남 | 빈도 | 1 | 10 | 6 | 3 | 2 | 5 | 27 |
| | 비율 | 3.7% | 37.0% | 22.2% | 11.1% | 7.4% | 18.5% | 100.0% |
| 경북 | 빈도 | 10 | 10 | 1 | 2 | 2 | 1 | 26 |
| | 비율 | 38.5% | 38.5% | 3.8% | 7.7% | 7.7% | 3.8% | 100.0% |
| 충북 | 빈도 | 4 | 8 | 1 | 4 | 3 | 1 | 21 |
| | 비율 | 19.0% | 38.1% | 4.8% | 19.0% | 14.3% | 4.8% | 100.0% |
| 강원 | 빈도 | 2 | 5 | 2 | 5 | 1 | | 15 |
| | 비율 | 13.3% | 33.3% | 13.3% | 33.3% | 6.7% | 0.0% | 100.0% |
| 제주 | 빈도 | 1 | 3 | | 1 | 2 | 2 | 9 |
| | 비율 | 11.1% | 33.3% | 0.0% | 11.1% | 22.2% | 22.2% | 100.0% |
| 충남 | 빈도 | 1 | 2 | 2 | | 2 | | 7 |
| | 비율 | 14.3% | 28.6% | 28.6% | 0.0% | 28.6% | 0.0% | 100.0% |
| 계 | 빈도 | 402 | 387 | 147 | 101 | 91 | 74 | 1,203 |
| | 비율 | 33.4% | 32.2% | 12.2% | 8.4% | 7.6% | 6.2% | 100.0% |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전·경북·인천 지역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국무용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공연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의 비중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을 보이지만 경남, 전북, 울산, 광주, 전남 등지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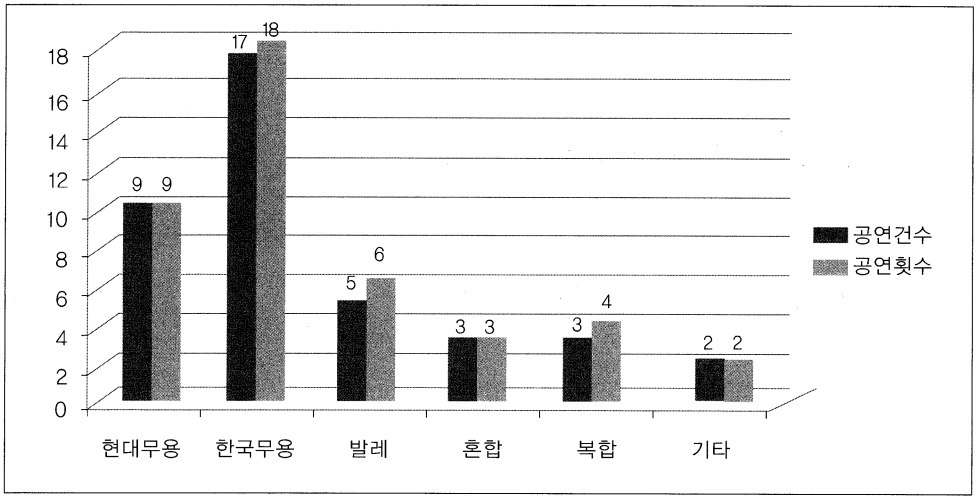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지역별 관객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인지, 해당 지역 무용인의 분포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공연 프로그래밍 수준에서의 선호나 공연장 특성,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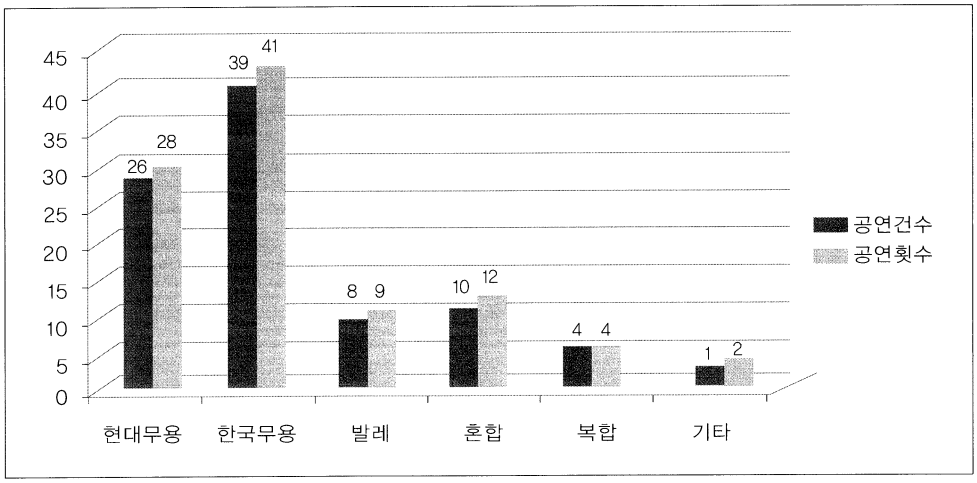
**▌그림 12. 2009년 서울 지역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분포(현대무용 중심) ▐**




**▌그림 13. 2009년 전북 지역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분포(한국무용 중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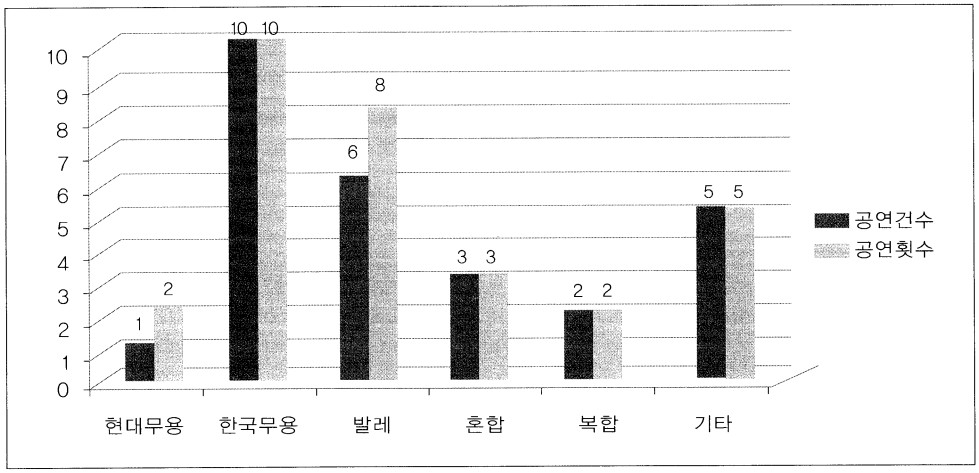


▌그림 14. 2009년 경남 지역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분포(한국무용 중심) ▐




광주·전남 지역처럼 한국무용의 비중이 높고 현대무용의 비중이 매우 작은 곳은 한국무용에 이어 발레가 비중이 높은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5. 2009년 전남 지역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분포(비율) ▐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32.2%의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무용이다. 한국무용이 25.4%로 그 뒤를 잇고, 발레 19.9%, 복합 9.5%, 혼합 6.8% 순으로 이어진다. 공연 건수에서 약 1% 포인트 차이였던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의 차이가 공연 횟수에서 6.8%로 더 벌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고, 공연당 평균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르인 발레와 복합의 비중이 공연 건수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를 제외하고는 공연 횟수에서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표 18. 2009년 지역별로 살펴본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횟수 ▐**

| 지 역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서울 | 426 | 238 | 276 | 41 | 96 | 49 | 1,126 |
| 경기 | 53 | 49 | 37 | 5 | 31 | 14 | 189 |
| 부산 | 51 | 58 | 14 | 6 | 8 | 2 | 139 |
| 대구 | 26 | 27 | 12 | 21 | 22 | 30 | 138 |
| 경남 | 28 | 41 | 9 | 12 | 4 | 3 | 97 |
| 인천 | 16 | 12 | 12 | 20 | 4 | 6 | 70 |
| 대전 | 25 | 10 | 10 | 3 | 2 | 3 | 53 |
| 전북 | 9 | 18 | 6 | 3 | 4 | 2 | 42 |
| 울산 | 1 | 15 | 5 | 7 | 3 | 7 | 38 |
| 광주 | 4 | 10 | 10 | 5 | 6 | 1 | 36 |
| 전남 | 2 | 10 | 8 | 3 | 2 | 5 | 30 |
| 충북 | 4 | 9 | 2 | 6 | 6 | 1 | 28 |
| 경북 | 10 | 11 | 1 | 2 | 2 | 1 | 27 |
| 강원 | 2 | 5 | 3 | 5 | 2 | 0 | 17 |
| 제주 | 1 | 4 | 0 | 1 | 2 | 2 | 10 |
| 충남 | 1 | 2 | 2 | 0 | 2 | 0 | 7 |
| 계 | 659 | 519 | 407 | 140 | 196 | 126 | 2,047 |
| | 32.2% | 25.4% | 19.9% | 6.8% | 9.5% | 6.1% | 100% |

## 6. 공연 건수 기준, 수도권이 한국무용과 혼합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장르에서 비수도권보다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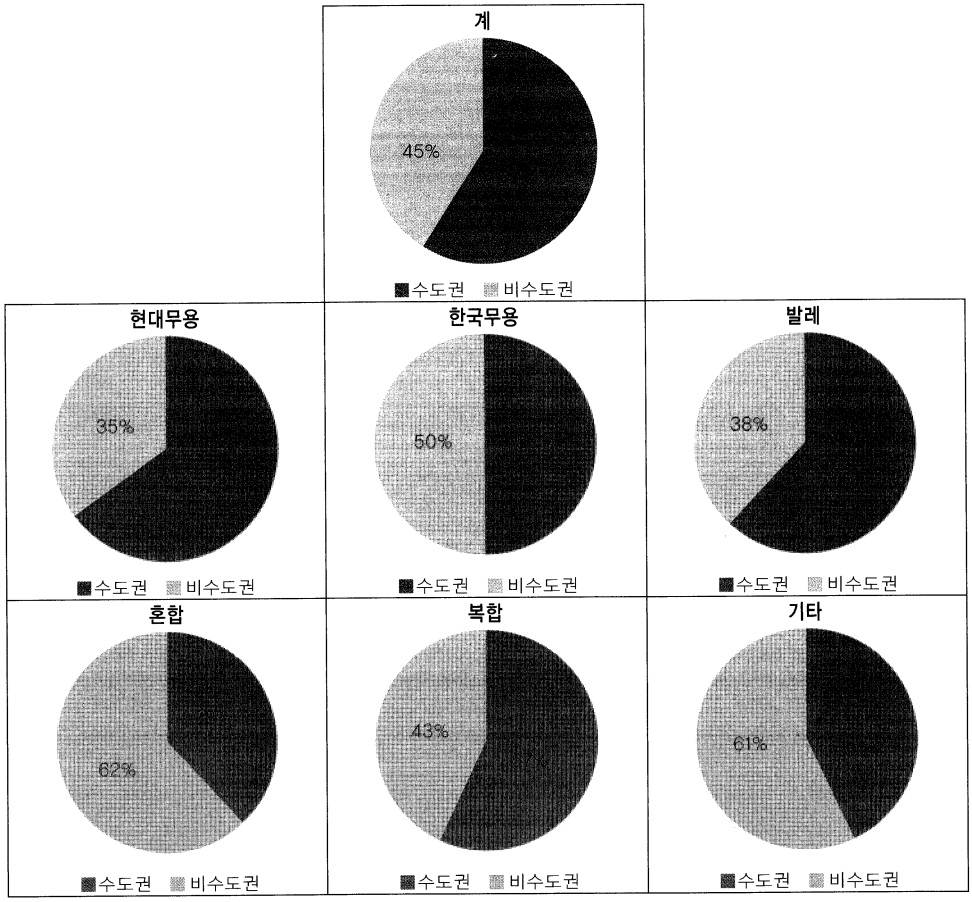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피면 16개 시도로 나누었을 때와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조금 앞선다. 이를 다시 세부 장르별로 나누어 살피면, 한국무용과 혼합을 제외한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무용은 정확히 50:50의 비율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비수도권에서 혼합 공연이 더 많은 이유는 여러 장르를 한 무대에 선보이는 모둠 형태의 공연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서 많이 무대에 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합 형태의 공연이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무용을 제외한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이다.

**▌표 19.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건수 분포 ▐**

| 구 분 |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수도권 | 260 | 194 | 91 | 38 | 52 | 29 | 664 |
| | 비수도권 | 142 | 193 | 56 | 63 | 39 | 46 | 539 |
| | 계 | 402 | 387 | 147 | 101 | 91 | 75 | 1203 |

**▌그림 16.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건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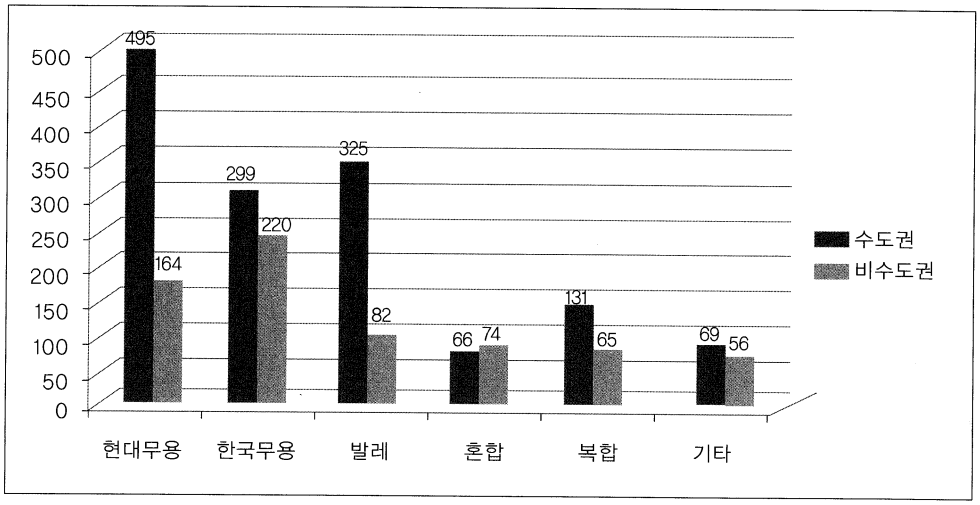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공연 건수와 다른 경향이 드러난다. 혼합을 제외하고는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큰 우위를 나타낸다. 특히 현대무용의 차이는 거의 3배에 이른다. 이러한 큰 차이의 주된 원인은 현대무용, 발레 등의 장기 공연이나 다회 공연을 비수도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20.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횟수 분포 ▐**

| 구 분 |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횟수 | 수도권 | 495 | 299 | 325 | 66 | 131 | 69 | 1,385 |
| | 비수도권 | 164 | 220 | 82 | 74 | 65 | 57 | 662 |
| | 계 | 659 | 519 | 407 | 140 | 196 | 126 | 2,047 |

**▌그림 17.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횟수 분포(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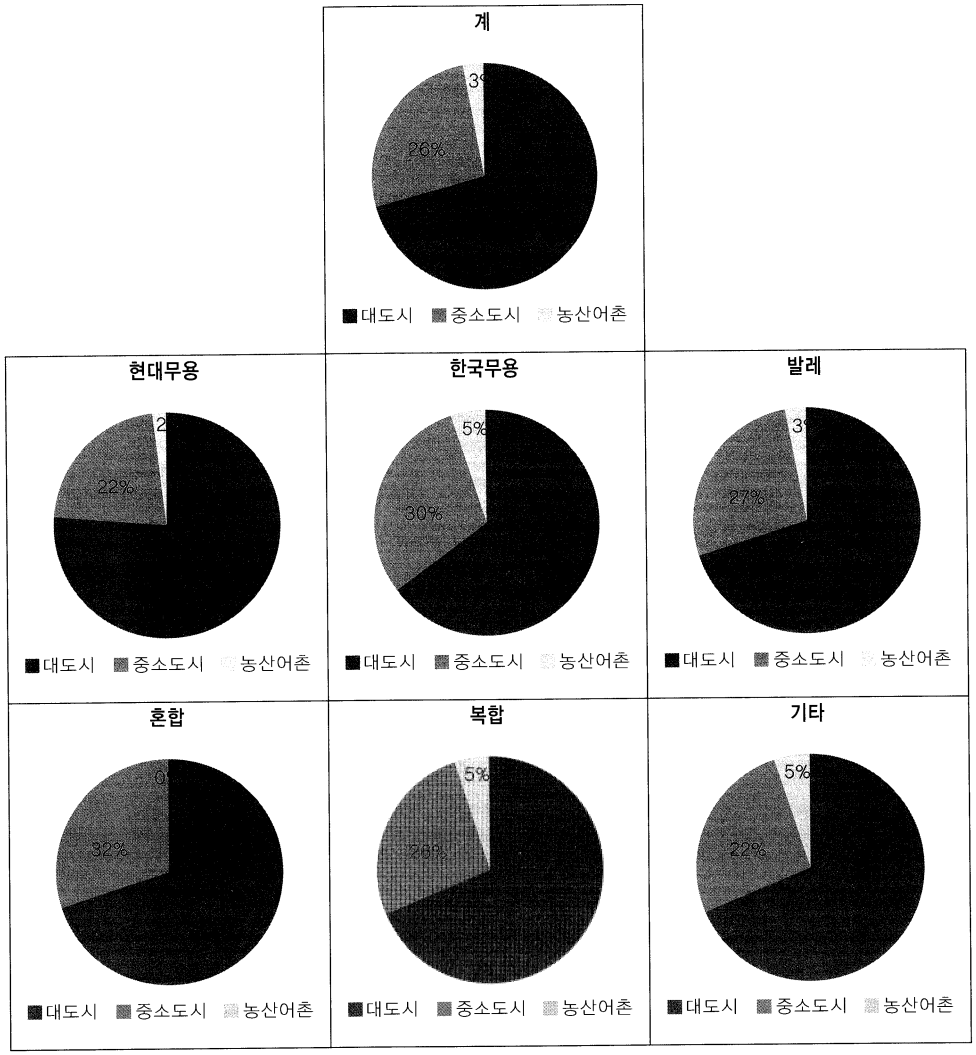



세부 장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나누어 다시 비중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다.

## ▌표 21.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건수 ▐

| 구 분 |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건수 | 대도시 | 308 | 252 | 103 | 69 | 62 | 54 | 848 |
| | 중소 도시 | 87 | 117 | 40 | 32 | 24 | 17 | 317 |
| | 농산어촌 | 7 | 18 | 4 | 0 | 5 | 4 | 38 |
| | 계 | 402 | 387 | 147 | 101 | 91 | 75 | 1,203 |

## ▌그림 18.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건수 비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21>과 <그림 18>에서 보이듯이 거의 대부분의 장르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이는 16개 시도별로 살피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점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어쩔 수 없이 잠재 관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배후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에는 세부 장르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예를 들어, 현대무용은 무용의 세부 장르 중에서도 가장 대도시 중심적인 장르다. 한국무용과 혼합 공연은 다른 장르에 비해 중소 도시의 비율이 커서, 대도시에서의 공연과 중소 도시·농산어촌에서의 공연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공연 횟수에서는 공연 건수에서 나타난 이런 양상이 더 극단화된다. 특히 그 정도는 현대무용, 복합, 발레 등 공연당 공연 횟수가 많은 공연이 많이 포함된 장르에서 더 심해진다.

**▌표 22.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횟수 ▐**

| 구 분 |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공연 횟수 | 대도시 | 549 | 370 | 339 | 103 | 141 | 98 | 1,600 |
| | 중소 도시 | 101 | 130 | 63 | 37 | 50 | 23 | 404 |
| | 농산어촌 | 9 | 19 | 5 | 0 | 5 | 5 | 43 |
| | 계 | 659 | 519 | 407 | 140 | 196 | 126 | 2,047 |

# VI. 2009년 무용 분야 시작월 기준 공연 현황

## 1. 현대무용은 M자형에 정점이 하나 더, 한국무용은 우상향, 발레는 12월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 두 개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이 중 각 장르별로 상위 4개월을 짙은 색으로 칠해 표시해두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기본적인 시기적 특징은 거의 일치한다. 여름과 겨울을 피해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 또한 여전하다. 현대무용은 6월, 8월, 10~11월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무용은 9~12월에 이르는 시기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무용 전체 자료를 기본으로 한 분포에서 볼 수 있던 M자형 분포는 세부 장르별로 그래프화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나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에서 더욱 그렇다. 무용의 경우 세부 장르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현대무용에서는 M자형 곡선에 정점이 하나 더 추가된 모습이 보이고, 한국무용은 11월에 정점을 그리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다. 발레는 U자에 가까운 흥미로운 분포 곡선을 보여준다.

**▌표 23. 2009년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분포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현대무용 | 2 | 5 | 9 | 19 | 50 | 69 | 25 | 53 | 27 | 52 | 59 | 32 | 402 |
| 한국무용 | 3 | 7 | 14 | 24 | 33 | 30 | 30 | 27 | 45 | 50 | 77 | 47 | 387 |
| 발레 | 2 | 6 | 14 | 9 | 19 | 10 | 13 | 9 | 10 | 15 | 10 | 29 | 146 |
| 혼합 | 4 | 2 | 0 | 4 | 6 | 15 | 9 | 7 | 16 | 17 | 11 | 10 | 101 |
| 복합 | 2 | 6 | 2 | 11 | 16 | 13 | 2 | 7 | 11 | 11 | 7 | 3 | 91 |
| 기타 | 2 | 5 | 1 | 7 | 9 | 5 | 10 | 4 | 8 | 4 | 10 | 9 | 74 |
| 계 | 15 | 31 | 40 | 74 | 133 | 142 | 89 | 107 | 117 | 149 | 174 | 130 | 1,201 |

**▌표 24. 2009년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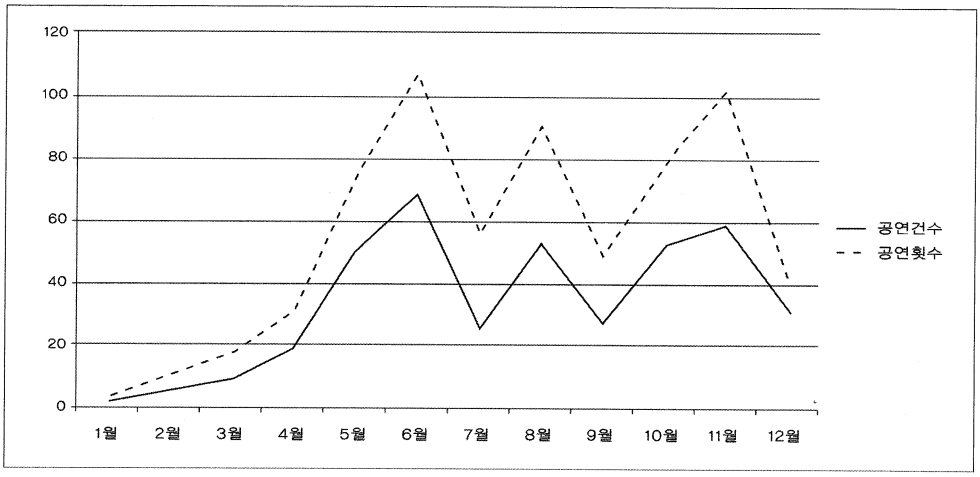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현대무용 | 3 | 10 | 17 | 31 | 73 | 108 | 55 | 91 | 49 | 78 | 103 | 41 | 659 |
| 한국무용 | 9 | 16 | 28 | 28 | 45 | 35 | 39 | 31 | 61 | 68 | 96 | 63 | 519 |
| 발레 | 53 | 14 | 24 | 32 | 31 | 17 | 23 | 16 | 26 | 21 | 17 | 130 | 404 |
| 혼합 | 4 | 2 | 0 | 9 | 7 | 20 | 10 | 12 | 28 | 22 | 16 | 10 | 140 |
| 복합 | 19 | 20 | 3 | 39 | 24 | 14 | 3 | 11 | 17 | 13 | 30 | 3 | 196 |
| 기타 | 5 | 5 | 6 | 7 | 15 | 12 | 10 | 6 | 27 | 4 | 18 | 10 | 125 |
| 계 | 93 | 67 | 78 | 146 | 195 | 206 | 140 | 167 | 208 | 206 | 280 | 257 | 2,043 |

현대무용 장르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M자형 곡선에서의 정점 2개에 덧붙여 8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정점을 하나 더 볼 수 있다. 이 주된 원인은 『제15회 창무국제예술제』와 『2009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다. 공연 건수 기준 68.1%에 이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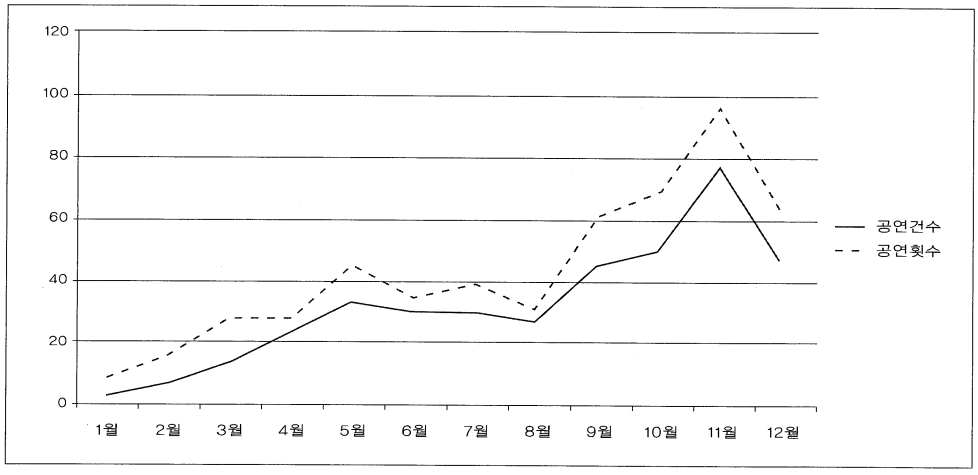
는 37건이, 공연 횟수 기준 69.8%인 62회가 이 두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공연이다.

**▌그림 19. 2009년 현대무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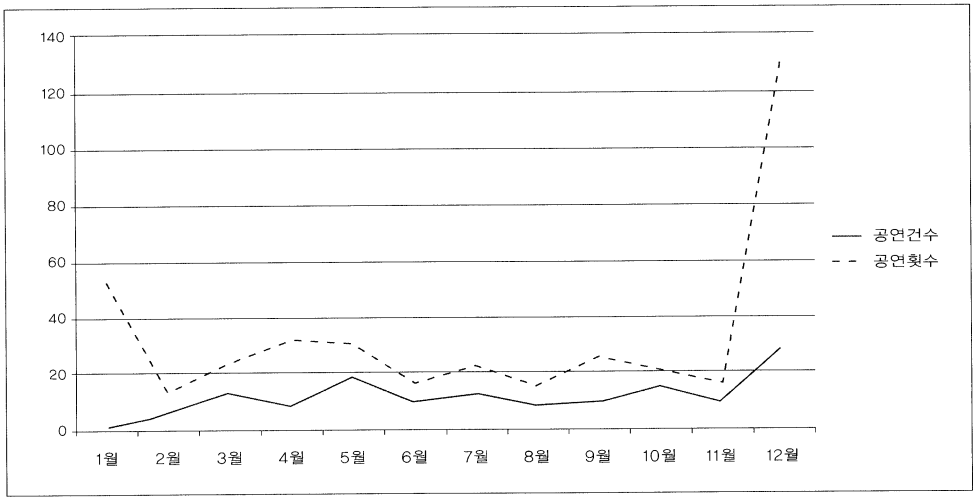

한국무용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9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11월에 정점에 이른다. 공연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9월부터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간의 차이도 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2월이 지나 1월이 되면 공연 량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적으로 공연이 단 3건 수준이 된다는 것이 이채롭다.

**▌그림 20. 2009년 한국무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발레 공연 또한 한국무용만큼 개성 있는 분포곡선이 나타난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중 큰 차이 없이 10~20건 수준의 공연이 지속되는 형태를 보이지만, 공연 횟수를 보면 1월과 12월에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U자형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중 1월의 많은 횟수는 연간 장기 공연을 진행한 한 공연의 52회가 모두 1월에 반영되어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실제 1월에 많은 회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연당 평균 4.5회의 높은 공연 횟수를 보이는 12월은 발레의 매우 중요한 시기적 특징이다. 이 현상의 주인공은 여러 발레단이 12월에 전국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호두까기 인형>이다. 총 29건의 공연 중 62.1%인 18건이 모두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고, 대부분 2~7회에 이르는 다회 공연으로 상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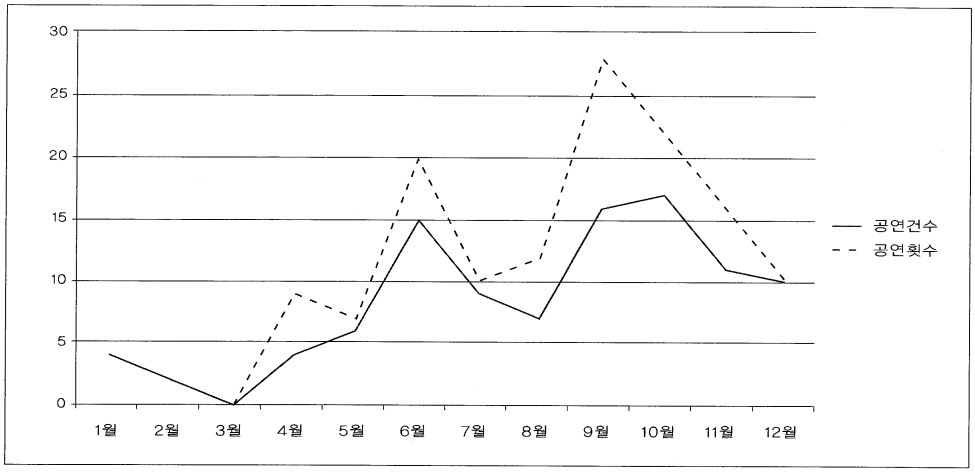
**그림 21. 2009년 발레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혼합 형태 무용 공연에서도 M자형 곡선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6월, 9~10월 사이에 정점을 이루고, 공연 횟수상으로는 4월에 작은 정점이 하나 더 있다. 이는 한국현대춤협회에서 주최한 <2009 현대춤 작가 12인전>의 6회 공연에 기인한 것이다. 정점을 전후로 평균적인 공연당 공연 횟수가 증가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다른 세부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22. 2009년 혼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에도 M자형 곡선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비수도권이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는 반면 수도권은 8월에 또 하나의 정점을 보여준다. 이는 수도권의 두 축제(『서울프린지페스티벌』과 『창무국제예술제』)로 인한 차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건수가 8월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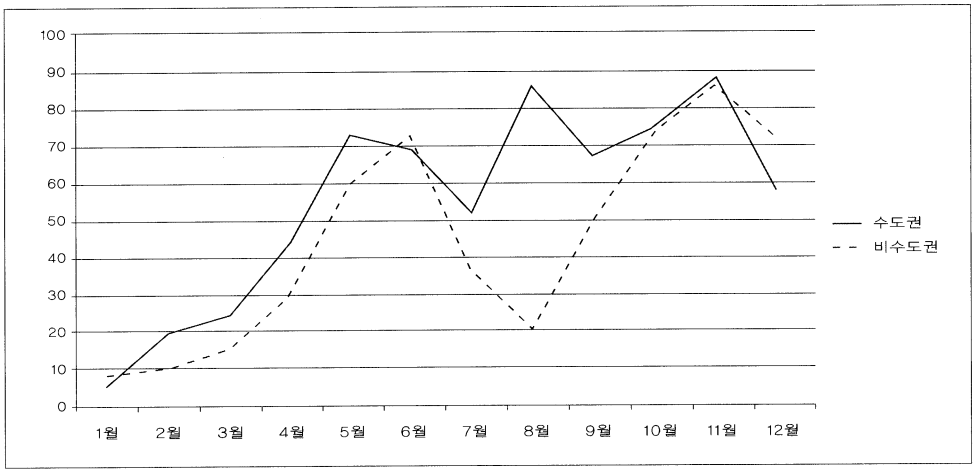
▌표 2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건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수도권 | 6 | 20 | 25 | 44 | 73 | 69 | 52 | 86 | 67 | 75 | 88 | 58 | 663 |
| 비수도권 | 9 | 11 | 16 | 30 | 60 | 73 | 37 | 21 | 50 | 74 | 86 | 72 | 539 |
| 계 | 15 | 31 | 41 | 74 | 133 | 142 | 89 | 107 | 117 | 149 | 174 | 130 | 1,202 |

<표 25>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6월 사이에 나타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연 건수의 관계를 볼 수 있다(음영 표시). 단순히 이월해가는 것만 아니라 공연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도 엿보인다. 이는 수도권 내 공연장에서 첫 무대가 오른 뒤, 동일한 공연이 비수도권의 다양한 공연장을 순회하며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변화다. 편람의 공연 건수 자료는 동일한 공연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연장에서 연속되지 않은 시점에 무대에 오르면 별도의 건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림 23.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건수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별 공연 건수 그래프를 나란히 그려놓으면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M자형 곡선에서 첫 번째 정점에 해당되는 시기 부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래프 사이에 한 달 간격으로 일종의 파도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연이 순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파도 효과'는 무용에 있어 상반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8월과 10~11월에는 무용과 관련한 공연예술 축제에 중심이 되는 만큼 이 같은 '파도 효과'를 관찰할 수 없다. 공연 횟수에서도 공연 건수상에서의 관계와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볼 수 있다. 4~6월 사이에 수도권에서 더 많은 횟수의 공연이, 5~6월에 보다 적은 횟수의 공연이 비수도권에 이어지는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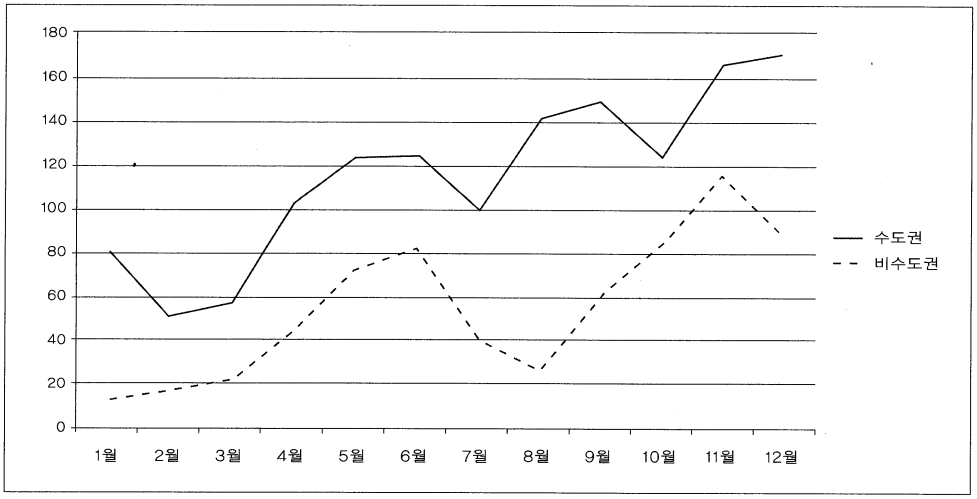
**▌표 26.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횟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수도권 | 80 | 50 | 57 | 102 | 123 | 124 | 99 | 140 | 149 | 123 | 165 | 170 | 1382 |
| 비수도권 | 13 | 17 | 22 | 44 | 72 | 82 | 41 | 27 | 59 | 83 | 115 | 87 | 662 |
| 계 | 93 | 67 | 79 | 146 | 195 | 206 | 140 | 167 | 208 | 206 | 280 | 257 | 2,04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이를 공연 건수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공연 횟수 분포 그래프를 볼 수 있고, 4~6월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파도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월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24. 200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횟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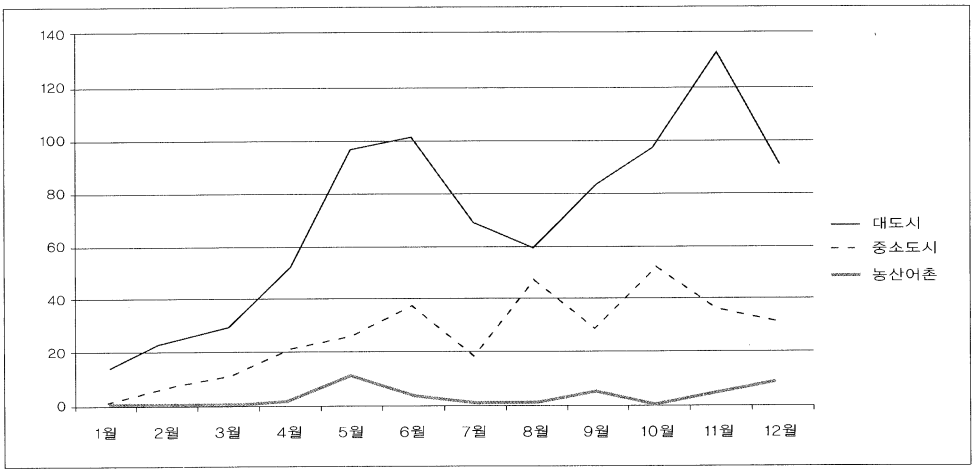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양상을 종합하면 4~6월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공연의 순회로 인한 '파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공연 건수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공연 횟수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월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나타난 '파도 효과'는 수도권에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해 살핀 자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파도 효과'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도시로의 이동에 기인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건수 분포는 그 양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월별 양상에서도 조금 다르다.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역시 8월이다.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차이가 가장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8월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창무국제예술제』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렸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절대적으로 공연 건수가 적은 농산어촌에서는 월별 변화에 뚜렷한 양상이 도드라지지 않는다.

▌표 27.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건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도시 | 14 | 24 | 30 | 51 | 96 | 101 | 69 | 59 | 83 | 97 | 133 | 90 | 847 |
| 중소도시 | 1 | 7 | 11 | 21 | 26 | 37 | 19 | 47 | 29 | 52 | 36 | 31 | 317 |
| 농산어촌 | 0 | 0 | 0 | 2 | 11 | 4 | 1 | 1 | 5 | 0 | 5 | 9 | 38 |
| 계 | 15 | 31 | 41 | 74 | 133 | 142 | 89 | 107 | 117 | 149 | 174 | 130 | 1202 |

▌그림 25.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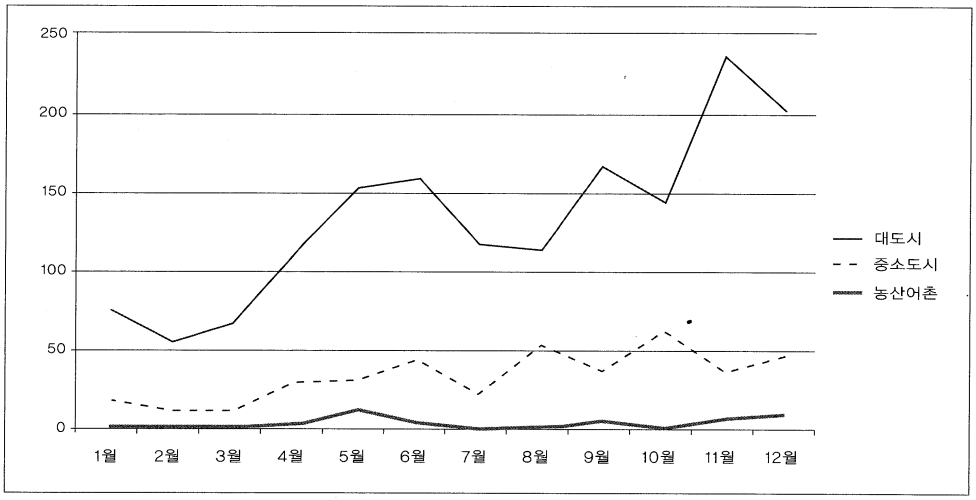

11월에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공연 횟수 차이가 최대로 벌어지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월별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1월의 현상은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열리는 무용과 관련한 공연예술축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8.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도시 | 75 | 55 | 67 | 113 | 152 | 158 | 117 | 113 | 166 | 144 | 236 | 201 | 1597 |
| 중소도시 | 18 | 12 | 12 | 30 | 31 | 44 | 22 | 53 | 37 | 62 | 37 | 46 | 404 |
| 농산어촌 | 0 | 0 | 0 | 3 | 12 | 4 | 1 | 1 | 5 | 0 | 7 | 10 | 43 |
| 계 | 93 | 67 | 79 | 146 | 195 | 206 | 140 | 167 | 208 | 206 | 280 | 257 | 204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26. 2009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횟수 ▐




# Ⅶ. 2009년 무용 분야 주요 공연장별 공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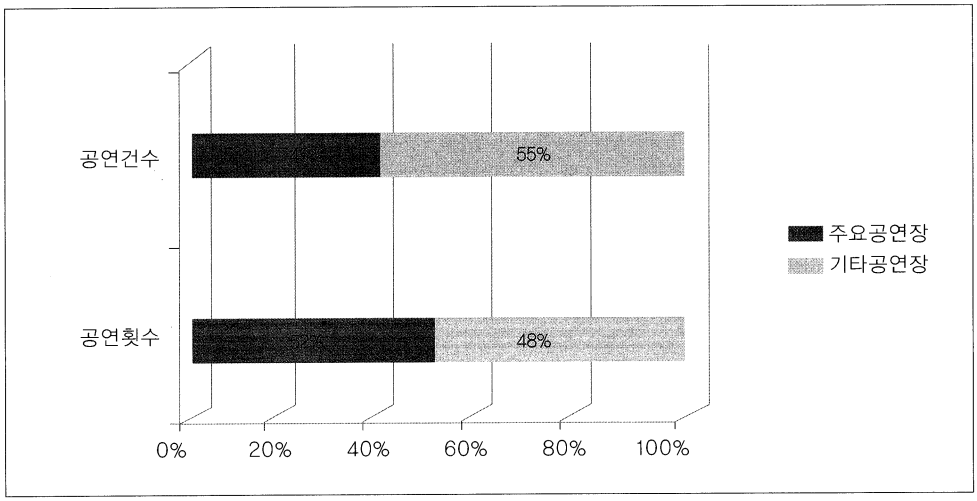
## 1. 주요 20개 공연장이 공연 건수 45%, 공연 횟수 52% 차지

공연 횟수 기준으로 연간 무용 공연이 3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20개다. 이 20개 공연장이 전체 무용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 보면 연중 공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52%를 차지한다(<그림 27> 참조).

주요 20개 공연장 세부 장르별 분포를 보면,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3개 장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립국악원이 77건으로 가장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2건으로 그 뒤를 잇는 아르코예술극장과도 격차가 제법 크다. 공연 횟수에서는 예술의전당이 연간 129회로 가장 활발히 무용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그림 27. 2009년 주요 20개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중 ▐




20개 공연장 중 무용 공연의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2회를 넘는 공연장은 모두 9곳이다. 창조콘서트홀과 올림픽공원 빅탑시어터는 각기 1개 공연을 각기 52회, 37회 진행한 까닭에 공연 횟수와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같다. 이를 제외한 7개 공연장은 유니버설아트센터(6.2회), LG아트센터(4.78회), 예술의전당(2.8회), 서울남산국악당(2.6회), 아르코예술극장(2.4회), 고양아람누리(2.2회), 대학로예술극장(2회) 순이다. 무용 공연의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2회 미만인 극장은 대부분 지역 문예회관이다.

▌표 29. 2009년 주요 20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 공연장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횟수/건수 |
|---|---|---|---|
| 예술의전당 | 46 | 129 | 2.80 |
| 아르코예술극장 | 52 | 125 | 2.40 |
| 국립국악원 | 77 | 91 | 1.18 |
| 국립극장 | 43 | 80 | 1.86 |
| 포스트극장 | 31 | 59 | 1.90 |
| 대학로예술극장 | 28 | 57 | 2.04 |
| 서울남산국악당 | 22 | 56 | 2.5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계 속)

| 공연장명 | 공연 건수 | 공연 횟수 | 횟수/건수 |
|---|---|---|---|
| 창조콘서트홀 | 1 | 52 | 52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36 | 47 | 1.31 |
| LG아트센터 | 9 | 43 | 4.78 |
| 부산문화회관 | 30 | 40 | 1.33 |
| 올림픽공원 | 1 | 37 | 37 |
| 서강대학교 메리홀 | 23 | 35 | 1.52 |
| 광주문화예술회관 | 28 | 34 | 1.21 |
| 고양아람누리 | 15 | 33 | 2.20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30 | 32 | 1.07 |
| 의정부예술의전당 | 18 | 32 | 1.78 |
| 세종문화회관 | 18 | 31 | 1.72 |
| 유니버설아트센터 | 5 | 31 | 6.2 |
| 울산문화예술회관 | 29 | 30 | 1.03 |
| 계 | 542 | 1,074 | 1.98 |

## 2.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과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공연장

주요 20개 공연장은 매우 공통점이 많지만, 세부 장르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피면 그 안에서도 유형화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공연장은 다양한 장르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소개하는 반면, 다른 공연장은 특정 장르에 집중한다.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경우는 어느 장르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다시 나뉜다.

**▌표 30. 2009년 주요 20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무용 공연 건수 ▐**

| 공연장명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예술의전당 | 27 | 5 | 10 | 2 | 2 | 0 | 46 |
| 아르코예술극장 | 33 | 5 | 4 | 6 | 4 | 0 | 52 |
| 국립국악원 | 1 | 63 | 0 | 2 | 8 | 3 | 77 |
| 국립극장 | 9 | 15 | 7 | 1 | 8 | 3 | 43 |
| 포스트극장 | 30 | 0 | 1 | 0 | 0 | 0 | 31 |

(계 속)

| 공연장명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대학로예술극장 | 12 | 3 | 4 | 3 | 3 | 3 | 28 |
| 서울남산국악당 | 0 | 22 | 0 | 0 | 0 | 0 | 22 |
| 창조콘서트홀 | 0 | 0 | 1 | 0 | 0 | 0 | 1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8 | 6 | 4 | 12 | 3 | 3 | 36 |
| LG아트센터 | 4 | 0 | 3 | 0 | 1 | 1 | 9 |
| 부산문화회관 | 5 | 15 | 3 | 2 | 4 | 1 | 30 |
| 올림픽공원 | 0 | 0 | 1 | 0 | 0 | 0 | 1 |
| 서강대학교 메리홀 | 15 | 0 | 1 | 3 | 3 | 1 | 23 |
| 광주문화예술회관 | 2 | 9 | 7 | 4 | 5 | 1 | 28 |
| 고양아람누리 | 8 | 1 | 3 | 0 | 0 | 3 | 15 |
| 의정부예술의전당 | 15 | 10 | 2 | 0 | 2 | 1 | 30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7 | 6 | 3 | 0 | 1 | 1 | 18 |
| 세종문화회관 | 4 | 11 | 1 | 1 | 1 | 0 | 18 |
| 유니버설아트센터 | 0 | 1 | 4 | 0 | 0 | 0 | 5 |
| 울산문화예술회관 | 0 | 15 | 2 | 5 | 3 | 4 | 29 |
| 계 | 180 | 187 | 61 | 41 | 48 | 25 | 542 |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에는 국립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의정부예술의전당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공연장들은 1~2개 장르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전당(현대무용, 발레), 아르코예술극장(현대무용), 국립국악원(한국무용), 포스트극장(현대무용), 대학로예술극장(현대무용), LG아트센터(발레, 현대무용), 부산문화회관(한국무용), 서강대학교 메리홀(현대무용), 고양아람누리(현대무용, 발레), 세종문화회관(한국무용), 유니버설아트센터(발레), 울산문화예술회관(한국무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31. 2009년 주요 20개 공연장의 세부 장르별 무용 공연 횟수 ▐**

| 공연장명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예술의전당 | 64 | 7 | 50 | 2 | 6 | 0 | 129 |
| 아르코예술극장 | 68 | 5 | 5 | 24 | 23 | 0 | 125 |

(계 속)

| 공연장명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 혼합 | 복합 | 기타 | 계 |
|---|---|---|---|---|---|---|---|
| 국립국악원 | 1 | 72 | 0 | 2 | 12 | 4 | 91 |
| 국립극장 | 20 | 27 | 13 | 2 | 14 | 4 | 80 |
| 포스트극장 | 58 | 0 | 1 | 0 | 0 | 0 | 59 |
| 대학로예술극장 | 24 | 4 | 10 | 3 | 9 | 7 | 57 |
| 서울남산국악당 | 0 | 56 | 0 | 0 | 0 | 0 | 56 |
| 창조콘서트홀 | 0 | 0 | 52 | 0 | 0 | 0 | 52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10 | 10 | 4 | 17 | 3 | 3 | 47 |
| LG아트센터 | 9 | 0 | 17 | 0 | 9 | 8 | 43 |
| 부산문화회관 | 7 | 20 | 4 | 2 | 6 | 1 | 40 |
| 올림픽공원 | 0 | 0 | 37 | 0 | 0 | 0 | 37 |
| 서강대학교 메리홀 | 25 | 0 | 2 | 4 | 3 | 1 | 35 |
| 광주문화예술회관 | 2 | 10 | 10 | 5 | 6 | 1 | 34 |
| 고양아람누리 | 16 | 1 | 8 | 0 | 0 | 8 | 33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11 | 8 | 9 | 0 | 2 | 2 | 32 |
| 의정부예술의전당 | 15 | 10 | 4 | 0 | 2 | 1 | 32 |
| 세종문화회관 | 9 | 17 | 1 | 2 | 2 | 0 | 31 |
| 유니버설아트센터 | 0 | 3 | 28 | 0 | 0 | 0 | 31 |
| 울산문화예술회관 | 0 | 15 | 3 | 5 | 3 | 4 | 30 |
| 계 | 339 | 265 | 258 | 68 | 100 | 44 | 1,074 |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연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국립극장은 한국무용의 비중이 큰 가운데, 현대무용, 발레, 복합 공연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혼합 형태의 공연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가운데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까지 고르게 선보이는 모습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현대무용은 거의 다루지 않지만, 한국무용과 발레를 두 축으로 혼합과 복합 형태의 공연도 소화한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의정부예술의전당은 현대무용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한국무용과 발레를 적절히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공연장 중 눈에 띄는 것은 현대무용에 전문화된 공연장 그룹이다. 아르코예술극장, 포스트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고양아

람누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비해 국립국악원, 서울남산국악당은 한국무용만 다룬다. 이 밖에 올림픽공원의 빅탑시어터나 창조콘서트홀은 한 개 공연을 연간 또는 장기에 걸쳐 여러 회 무대에 올린 경우에 속한다.

## Ⅷ. 국내 안무가는 여성이 남성의 2.2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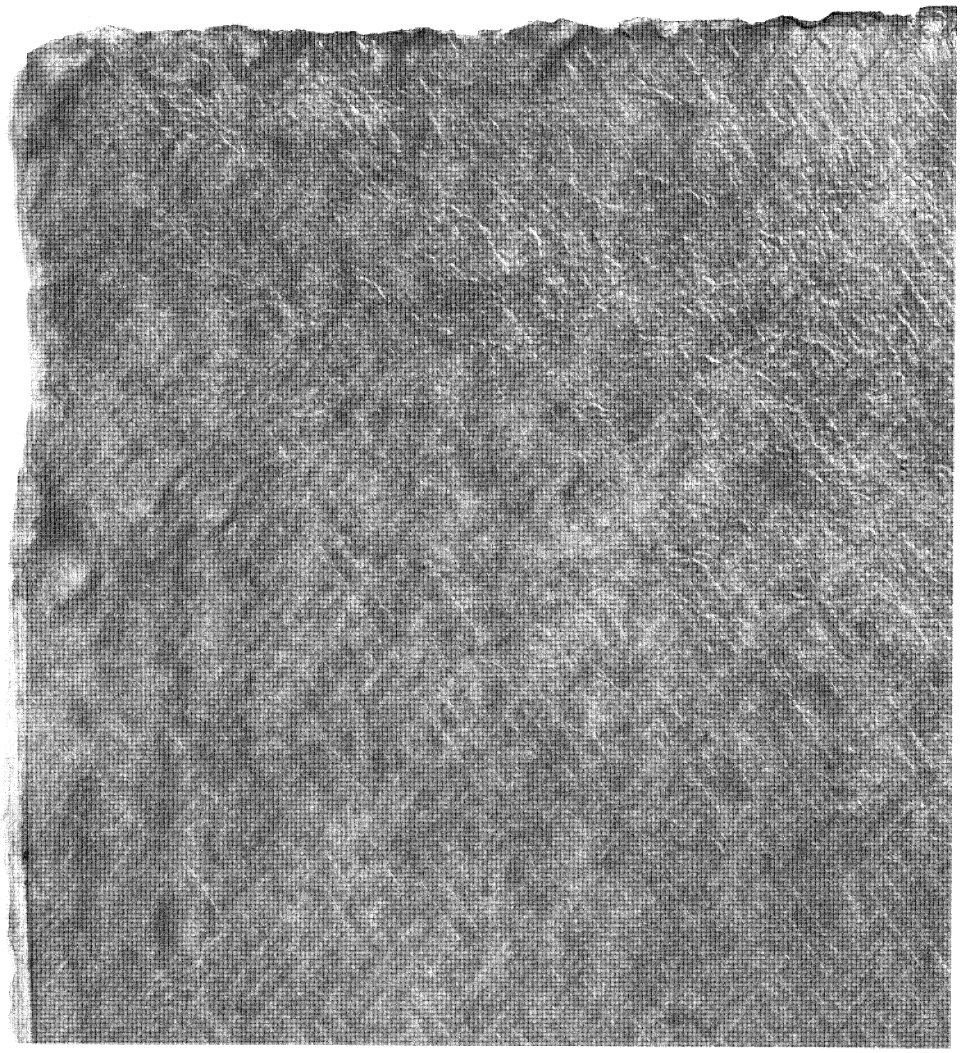
무용 공연의 안무가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2010문예연감』 무용 편람의 새로운 시도의 일환이다. 조사 시 안무가의 정보가 확보 가능한 경우 모두 편람에 포함시켰다. 총 730명의 안무가가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공연 건수 기준 1건 이상, 공연 횟수 기준 2회를 충족시키는 안무가 479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총 479명 중 해외 안무가는 71명, 국내 안무가는 408명으로 해외 안무가의 비중은 14.8% 수준이다. 국내 안무가의 경우 성별 분포는 남성 안무가 127명, 여성 안무가 281명으로 여성 안무가가 2.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개별 안무가의 활동에 대한 자료조사 방법과 항목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이에 무용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간다면, 단순히 공연의 계량적인 크기뿐 아니라 무용인의 정보를 더해서 한 해의 무용 공연을 보다 풍부하게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북한문화



2010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북한문화

# 2009년도 북한 문화예술계의 동향과 성과

오양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부교수)

## Ⅰ. 머리말

북한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그 해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대내외에 제시하는 공식 신년사로, 지난해 결산으로 시작해 새해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남북관계, 대외관계 등 부문별 정책 노선을 담고 있다. 2009년에도 어김없이 1월 1일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공동사설을 게재했다. 2009년 공동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지난해 김정일의 '현지지도'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건재를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50년대 전후 복구사업의 사상적 배경이 됐던 '천리마 사상', '천리마 운동'과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 조선로동당의 혁신 등을 강조했다. 2006년 이전 신년 공동사설이 사회·문화 분야에 별도의 소제목을 달고 문학예술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2007년 이후부터는 별도의 항목 구분 없이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취급해오고 있다.

문학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당의 령도 밑에 문학예술 분야에서 <강선의 노을>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음악예술작품들과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를 비롯한 국보적인 걸작들이 창작되고, 과학교육사업과 체육 부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자축했다. 이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온 사회에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후, 선군시대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활짝 꽃피워야 한다면서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문학예술 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사회주의 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한 명작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당의 령도 밑에 지난 시기에 창조된 정신문화적 재부들이 선군시대에 더욱 빛이 나게 하며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혁명적 랑만과 전투적 기상이 꽉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신년 공동사설은 그 해의 국정지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매년 정월에는 공동사설 관철을 다짐하는 궐기대회와 학습열풍, 그리고 언론보도가 북한 전역을 휩쓸게 된다. 우선 1월 내내 신년 공동사설 관련 총화와 학습이 이어져 북한 주민들은 공동사설 전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새해 공동사설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군중집회'들이 북한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개최된다.[1] 2009년에는 특히 공동사설이 경제 재건을 위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민들에게 독려하는 가운데, 60~80대 노인들로 구성된 선동대가 기업소 등 현장에서 경제선동에 나서기도 했다.[2] 건설과 혁명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계 역시 1월 초에 평양교예단, 만수대예술단, 국립연극단, 국립민족예술단, 피바다가극단 등이 평양과 평양남도 소재 기업소에서 경제선동을 했고, 조선로동당 출판사와 중앙미술창작사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로 천만군민을 고무 추동하는" 여러 점의 선전화(포스터)들을 내놓았다. 특히 중앙미술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소속 미술가들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원산청년발전소에 나가 100여 점의 미술작품들을 새로 창작한 가운데, 1월 20일에는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70여 점의 선전화와 80여 점의 습작품으로 『공동사설관철 선전화 전람회』를 개최했다.

2009년 북한 문학예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문학예술계가 가장 많이 소재로 다룬 경제사회적 사건은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 2009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월 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평양 시민 10여만 명이 참석한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6일에는 자강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 등 지방 당, 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과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군중대회가 열려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북한 전역의 각 기업소와 공장, 연구소에서도 공동사설 관철 궐기 모임을 가졌다.

2) 이들은 김일성 사망 10주년인 2004년 조직된 '평양시혁명열사유자녀실화기동대' 소속으로 "대일, 대미항쟁에서 생을 빛내인 애국렬사들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특히 1950~60년대 천리마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라는 점이 최근 북한이 2000년대의 천리마운동을 새로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김일성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09년도 대중 노력 동원운동으로 '150일 전투'(4.20~9.16)와 '100일 전투'(9.22~12.30)를 잇달아 전개했다. 이는 1970~80년대에도 있었던 노력 동원 운동의 하나로 주민들의 노동력을 극도로 집중시켜 단시간 내에 생산력 증대를 이뤄내려는 대중운동이다. '150일 전투'는 2009년 4월 20일 당 내부 문건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150일 전투'를 벌이는 데 대한 지시문을 하달함으로 시작되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명된 3남 김정은의 실적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은 '150일 전투', '100일 전투' 승리를 위해 각종 선전 포스터 구호판을 평양 등 주요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각 건설대나 공장별로 기동예술선전대를 조직하며, 문예작품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150일 전투'에 이어 막바로 '100일 전투'에 돌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 사이에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일부 태업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태업 현상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북한체제라는 둑에 나타난 총체적인 누수현상의 하나로 판단되는 현상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3]

## II. 2009년도 일반 동향

### 1. 정치·경제 및 사회 동향

문학예술의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외교와 통치, 정치·경제 및 사회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2009년도 북한의 전반적인 대내외 상황과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문학예술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필수라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9년도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부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과거 회귀적 경향을 보이는 등 정책적으로 보수적 방향으로 나

3) 북한 당국이 '100일 전투'를 시작한 이후 노력 동원과 군대 및 건설대 지원을 위한 인민반(보통 30가구로 이루어진 북한의 사회구성 최 말단 단위) 회의를 빈번하게 조직(소집)하자 주민들이 각종 핑계로 회의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고, 인민반장들도 자꾸 포치(지시를 내림)하기 싫어 '회람장'(통신문)을 돌리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또 노력동원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피로감 누적과 함께 운송수단 부재로 작업장까지 몇 시간 동안 걸어서 가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되지 않았고, 쌀이 없다는 구실로 일부러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오후에 대충 일찍 집에 간다는 것이다.

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은 2008년 2월 25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냉전시기와도 같은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5일 2차 핵실험, 7월 4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발사, 그리고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9.6), 동해안 단거리 미사일발사(10.12), 북한 경비정 대청도 인근 NLL 침범(11.10)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또한 3월 17일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탈북자를 취재한 미국 여기자 2명을 억류해오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면담을 계기로 141일 만인 8월 5일에야 특별사면 형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4] 북한 국내적으로는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축소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김정은의 개인 권력 남용설, 후계자 지명 불확실설 등 다양한 설이 흘러나왔다.

2009년도 상반기 중 경제면에 있어서는 작년 말에 "종합시장을 없애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적 경제활동 통제, 시장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예로서 시장에서 외국에서 만든 공산품(외국산 원자재로 만든 북한산 제외), 중고 가전제품, 음식 등에 대해 판매를 금지한다는 당 지시문을 하달했고, 주로 마을 주변의 산에 농사를 짓는 개인 부업지(소토지, 일명 '뙈기밭')를 없애기 위해 국토관리부에 당 중앙위의 지시문 (≪소토지를 없앨 것에 대하여≫)이 떨어졌다. 한편 북한은 11월 30일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했다.[5] 화폐개혁을 통해 인플레 압력의 해소, 화폐가치 증가를 통한 재정능력 개선, 시장 확산 제어를 통한 통제경제 기능 확대를 목표로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생산 감소와 물가와 외화 환율 급상승, 생활의 피폐화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과 당국에 대한 신뢰 손상 등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2008년 말 이래 김 위원장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

4) 2009년 하반기에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양면전략을 구사했는데, 앞서 예를 든 강경전략과 함께 현대아산 억류직원 136일 만에 석방(8.13), 현대-아·태 간 공동보도문 채택(8.17), 북한이 2008.12.1일 일방적으로 취한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 열차운행 차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 조치 등 이른바 '12.1조치' 철회 통지(8.2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특사조의방문단 파견(8.21~23), 남북 이산가족 상봉(9.26~10.1), 남북 해외공단 합동 시찰(12.12~22) 등 일부 온건전략도 보였다.

5) 한 가정당 최대 교환비율은 10만 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배려금'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씩 추가로 교환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제한 없이 은행에 저금하도록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남 남포시 소재, 옛 이름 '강선'), 원산청년발전소, 희천발전소 등을 현지 지도한 후 '강선의 봉화', '희천 속도' 등의 경제구호가 나왔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2009년 2월 26일자로 ≪전체 당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비밀편지(일명 '붉은 편지')를 전국 당원들에게 보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당원들이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4월 20일에는 당 내부 문건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150일 전투'를 벌이는데 대한 지시문을 하달하면서, 산하 당 세포조직들에게는 '150일 전투'를 지지하는 결의모임을 갖고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2012 강성대국건설 목표에 따라 각급 간부들에게 '150일 전투일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6] 이번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충성심을 과시하고 후계 업적을 쌓기 위해 기획하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에 안간힘을 쏟는 한편, 중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2009년을 '우호 친선의 해'로 정하고 각 분야 교류행사와 함께 9월과 11월 사이에 양국 고위층 관리들 간의 교환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어서 12월 초순에는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한 후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갔다.

## 2. 연례 기념행사

북한에는 매년 일정 시기에 당국이 주최하는 고정적인 연례행사가 많은데,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단연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경축행사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 생일은 설, 한가위 등 민족명절보다 우선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조선중앙통신), '인류 공동의 명절'(『로동신문』)로 간주하는 만

6) 북한은 과거 70~80년대 '70일 전투'나 '100일 전투', '200일 전투'와 같은 시한부 대중혁신운동 당시에도 '충성의 전투 기록장'과 같은 일지들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경쟁심을 유도한 바 있다. '70일 전투'는 김정일이 1974년 2월 후계자로 추대된 직후 경제 부문 업적쌓기 차원에서 발기, 지휘한 속도전인데, 공식 후계자가 된 1980년에도 '100일 전투'를 지휘했다.

7) 북한은 '150일 전투'를 마감하면서 이 기간 동안 생산계획이 11% 초과 수행됐고, 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1.2배로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자재와 전력 부족으로 실제로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에 맞춰 완공될 계획인 대규모 건설 사업 등도 '평양 10만 가구 건설'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큼 축하행사도 대규모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먼저 김정일 67회 생일인 2·16행사의 경우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중앙미술전시회, 영화상영순간(旬間), 직총 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성(省) 중앙기관 예술소조 종합공연, 중앙사진전람회, 녀맹원들의 예술공연, 재일조선인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상영, 제13차 김정일화 축전,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전국 각지),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중앙과 지방 극장의 경축공연(평양의 극장, 도 예술극장, 시·군 문화회관 등) 등이 이어졌다.

한편 97회 김일성 생일(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 함) 행사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는데,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4.10~18일)이 핵심 행사다. 그동안 매년 열던 동 축전을 격년제로 바꿔 2008년에는 국내 행사로 『제1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축전』을 개최했고, 2009년에는 다시 해외단체를 초청하여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개최한 것이다. 『로동신문』은 이번 축전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수십 개의 예술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애니모스 밴드'와 '캐스팅 크라운즈' 등의 뮤지션이 참가했다고 선전했다. 평양 시내 9개 극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위 축전 행사 외에 미술 부문 일군(간부)들과 창작가들의 회고 모임, 전국서예축전, 제14차 4월의 명절요리축전, 송화미술전람회, 영화상영순간, 기록영화 <한평생 인민들 속에서> 상영, 녀맹원들의 기념무대, 제11차 김일성화 축전, 초물공예 유물전시회, 직총 로동자예술선전대 공연, 평양 및 각지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만수대예술단 소속 삼지연악단 등 각 도 예술인들의 합창, 무용, 농악무도회 등, 농업근로자들의 기념무대, 청년학생들의 기념무대 등이 줄을 이었다.

기타 2009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연례행사로는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77돐 맞이 경축행사』(4.22~25)가 있다. 조선인민군협주단의 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4·25문화회관),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평양, 신의주, 해주, 함흥 등 각지), 경축공연(국립연극극장, 청년중앙회관, 윤이상음악당 등 중앙 및 도 예술극장과 문화회관)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5월 1일에는 『5·1절』(로동절) 119돌을 맞이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기념공연(대성산 유원지, 만경대 유희장 등), 공원·유원지·공장·기업소 등지에서 근로자들의 예술공연·무도회·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육유희오락경기, 평양의 극장 등에서 <꽃 파는 처녀>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6월 6일에는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평양학생소년궁전)을 가진 데 이어, 6월 9일에는 『조선인민군 제2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이 새로 건설된 '갈마극장'에서 진행되었다. 6월 19일 『김정일 총비서 당 사업 개시 45돐 맞이 경축행사』(6.7~19)로는 기록영화 상영, 외국 유학생들의 지은 글 발표모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 등 각지 경축공연,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등이 이어졌다.

2009년도 하반기에 북한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연례 기념행사로는 김일성 사망 15돌(7.8), 전승절(휴전기념일) 56돌(7.27), 선군혁명령도 49돌(8.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1돌(9.9), 조선로동당 창건 64돌(10.10),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8돌(12.24) 및 김정숙(김정일의 모) 출생 92돌(12.24)이 있고, 김형직(김일성의 부) 출생 115돌(7.10), 김정숙 사망 60돌(9.22), 기타 제40차 예술인체육대회(10.23) 등이 있다. 먼저 김일성 사망 15돌(7.8), 이른바 '꺾어지는 해(정주년)'를 맞이하여 7월 2일부터 8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회고모임, 맹세모임, 회고무대 등 각종 추모행사를 개최했는데, 특히 5년 만에 중앙추모대회(7.8, 평양체육관)도 진행했다. 관련 문화예술행사로는 평양에서 미술전시회(7.2, 평양국제문화회관), 중앙사진전람회(7.3, 인민문화궁전), 기록영화 상영(7.4, 인민문화궁전), 회고음악회 『인민의 어버이』(7.8, 동평양대극장) 등이 개최되었다.

전승절 56돌('조국해방전쟁승리' 56돌, 7.27) 관련 문화예술 행사로는 평양에서 조선인민군협주단 경축공연(7.26, 4·25문화회관)이 진행되었고, 평안남도 숙천군 검산혁명사적지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전승음악회 『장군님 계시여 영원한 승리의 7·27』이 개최됐다. 당일인 7월 27일에는 북한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열렸는데, 조선중앙통신(7월 27일발)은 "당창건기념탑, 4·25문화회관광장 등 수도의 광장들과 신의주, 강계, 함흥시를 비롯한 무도회장들에서 청년학생들은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우리의 7·27>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 바다를 펼쳐나갔다"고 보도했다. 8월 25일은 김정일이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한 지 49돌이 되었다는 날로,[8]

8) 북한은 그동안 모든 사업에 군(軍)과 군인정신을 앞세운다는 김 위원장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시작을 1995년 정월 초하루 다박솔 초소의 방문으로 기점을 삼아 왔다. 그러나 2005년 8월부터는 '선군혁명 령도'의 시원(始原)을 김정일이 남산고급중학교 졸업 직후인 1960년 8월 25일 김일성과 함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첫

8월 24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열린 데 이어 당일인 8월 25일에는 국립교향악단의 경축음악회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이날을 앞두고 8월 20일에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이 평양 당창건기념탑 광장과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리에서, 그리고 8월 21일에는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과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1돌(9.9)을 맞아 9월 초부터 묘향산(9.1~3)과 칠보산(9.5~7)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를 열었고, 9월 7일에는 직총 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의 공연(중앙로동자회관), 청년들의 경축음악회(청년중앙회관)를 개최했다. 또 9월 1일 방북한 러시아의 21세기 관현악단이 9월 4일 평양대극장에 첫 공연을 진행한 데 이어, '조·중(북·중) 친선의 해'와 병행하여 중국 작가들의 미술작품 90여 점이 출품된 『중국미술작품전시회』가 개최됐다. 9월 8일 저녁 중앙보고대회에 이어 당일인 9월 9일에는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경축공연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조선중앙통신, 9월 9일발). 무대에는 기악과 노래 '불후의 고전적 명작' <대동강의 해맞이>, 음악 <만경대의 노래>, 혼성5중창 <선군의 나의 조국아> 등 여러 종목이 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출연자들이 "건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이 땅 우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시여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김일성 주석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북한 전역, 중앙과 지방의 극장 및 야외무대들에서도 경축공연과 무도회가 개최되었다.[9] 9월 21일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서거 60돐(9.22)에 즈음하여 회고음악회 『위대한 생애』가 21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9월 21일발)이 보도했다.

한편 조선로동당 창건 64돌(10.10)에 즈음하여 은하수관현악단,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합동 경축공연인 『10월 음악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참석하에 동평양극장에서 진행된 데 이어, 10월 13일에도 재공연되었다(조선중앙통신, 10월 10일

---

침입한 전차부대)을 방문(현지지도)한 때로 끌어올렸다.

9)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은 모란봉극장에서 음악회를,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은 청년중앙회관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펼쳤으며,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종합교예공연이 진행되었고, 각도 예술극장과 문화회관들에서도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있었다. 또한 이날을 맞아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위대한 내 나라』(주체사상탑)와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주체사상탑, 당 창건 기념탑, 개선문광장 등 평양의 무도회장을 비롯, 사리원, 함흥, 청진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및 13일발). 북한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합동공연무대는 혼성합창 <당의 기치 따라>, 은하수관현악단 실내악합주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삼지연악단 음악 <대동강의 해맞이>, 혼성5중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최상급의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최고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고 보도했다. 기타 조선로동당 창건 64돌 기념행사로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10.8, 중앙로동자회관), 축포야회 『위대한 당을 따라 신심 높이 가리라』(10.9, 당창건기념탑 광장), 평양교예단의 종합교예공연(10.10, 평양교예극장),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 공연(10.11, 평양대극장), 기타 각 도·시·군에서 예술인과 근로자, 녀맹원,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대, 예술공연, 대합창공연, 무도회 등이 진행되었다.

10월 23일에는 『제40차 예술인체육대회』가 김일성경기장에서 개최되었고, 25일과 26일에는 일본 도쿄도 기다구의 호쿠토피아에서 문예동(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결성 50돌 기념전시회와 영화상영회가 진행되었다. 12월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8돌과 김정숙의 92돌 생일을 맞아 23일부터 북한 전역에서 각종 보고대회와 문화행사가 잇따랐다. 양 행사를 기념하여 12월 22~24일에 북한의 각 시·도 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어 평양특별시의 경우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4·25문화회관), 국립연극단의 혁명연극 <3인1당>(국립연극극장), 국립교향악단의 음악회무대(모란봉극장), 국립민족예술단 공연(청년중앙회관),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윤이상음악당), 평양교예단의 체력·희극·동물교예(평양교예극장) 등이 열렸고,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의 공연들과 함께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등이 있었다. 또한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는 김정숙 생일을 기념하는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12월 23일 개막되었고, 24일에는 최고사령관 추대 18돌을 기념하는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북한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한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야별 활동 횟수는 절대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정책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12월 26일자는 김 위원장이 2009년 공장과 협동농장, 학교는 물론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전국 200여 곳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언론매체 보도를 집계한 결과는 『연합뉴스』(12.27)의 경우 12월 26일을 기준으로 총 155회로 집계하고, 경제 분야 67회, 공연관람 등 기타활동 38회, 군부대 시찰 등 군관련 행사 참석 36회, 외빈접견 등 대외활동 14회로 분석했다. 이는 '08년 95회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는 분야별로 조금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동 연구소는 12월 28일을 기준으로 156회(『중앙일보』, 12.29자)로 집계하고, 2008년 94회와 대비해 특기할 만한 점으로 국방관련 활동이 47.9%에서 18.0%로 크게 줄고, 경제관련 활동이 33.0%에서 49.4%로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근래 2012년에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국가목표를 설정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문화 분야 활동의 경우에는 2008년 3회(3.2%)에서 2009년 11회(7.1%)로, 그리고 군 공연 관람은 2008년 8회(8.5%)에서 2009년 17회(10.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안보당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활발한 공개활동 보도에 대해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대역을 쓰거나 유사한 모습의 배우를 활용한 것으로 까지 보고 있으나(『연합뉴스』, 10월 22일자), 문화분야 활동의 경우 '08년에 비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에 관한 한 단순한 시찰이나 관람, 관람 후의 간단한 강평까지도 '현지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현지지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방문지에 이를 기념하는 표식비가 설치되기도 한다.

아래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텔레비죤,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예술』에 직접 '현지지도'한 것으로 보도된 2009년도 월별 행사를 종합한 결과 총 33회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
| 1월 | (1) 공동사설과업관철 선전화전람회(1.20, 평양국제문화회관)<br>(2) 『주체98년 설명절경축음악회』 공연(1.25, 동평양대극장 · 공훈국가합창단 · 은하수관현악단 · 국립교향악단 ·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 예술인 출연)<br>(3) 해군사령부 협주단과 공군사령부 협주단 합동공연(일자 · 장소 미상) |
| 2월 | (4) 함경남도 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 공연(일자 · 장소 미상)<br>(5) 조선인민군 제264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의 녀성독창과 방창, 합창공연(조선중앙통신, 2월 23일발) |
| 3월 | (6) 공훈국가합창단의 '붉은별극장' 개관 공연(통신, 3월 8일발)<br>(7) 중국 가극 <홍루몽> 창조사업 현지지도(3.22, 북 · 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조 · 중 친선의 해' 행사의 일환) |
| 4월 | (8) 개건된 '평양대극장' 현지지도(4.3)<br>(9)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통신, 4월 21일발, 설화와 노래, 어음금병창, 녀성독창과 남성중창 등)<br>(10) 조선인민군창건 77돌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4.25, 장소 미상)<br>(11) '송도원야외청년극장' 개건 현지지도(일자 미상, 강원도 원산시) |
| 5월 | (8) 개건된 '평양대극장' 현지지도(4.3)<br>(9)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통신, 4월 21일발, 설화와 노래, 어음금병창, 녀성독창과 남성중창 등)<br>(10) 조선인민군창건 77돌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4.25, 장소 미상)<br>(11) '송도원야외청년극장' 개건 현지지도(일자 미상, 강원도 원산시) |
| 6월 | (12) 5.1절(국제로동절)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5.1, 장소 미상, 5 · 1절 행사에 참가한 금속공업 부문과 연관 부문 기업소의 로동자들과 함께 관람)<br>(13) 피바다가극단의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 공연(5.3)<br>(14) 공훈국가합창단의 '갈마극장' 개관 공연(통신, 5월 31일발) |
| 7월 | (18) 전승절(7.27)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장소 미상) |
| 8월 | (19) 함흥대극장에서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 공연(조선중앙통신, 8월 12일발)<br>(20) 조선인민군 제974군부대관하 부대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과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통신, 8월 13일발)<br>(21) 4월에 이어 '송도원야외청년극장' 개건 2차 현지지도(강원도 원산시) 및 강원도예술단의 노래이야기 <우리 님 영웅되셨네> 관람(통신, 8월 25일발) |
| 9월 | (22) 조선인민군 제264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여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통신, 9월 1일발)<br>(23) 만수대예술극장에서 한 · 러합동공연 관람(『조선신보』 9월 9일자,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유를로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무반주합창단, 북한 은하수관현악단,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 |
| 10월 | (24) 가극 <홍루몽>을 방북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함께 관람(10.4, 평양대극장)<br>(25)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중국 총리와 함께 관람(10.5, 평양 릉라도 5월1일경기장)<br>(26) '황해북도예술극장' 개관기념 도(道) 예술단 공연(10.9, 조선중앙텔레비죤 )[10]<br>(27) 조선로동당 창당 64돌 기념 합동 경축공연(통신, 10월 10일발, 은하수관현악단,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 합동공연)<br>(28) 새로 건설된 '묘향산유원지' 시찰(통신, 10월 25일발)<br>(29) 조선인민군 제33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통신, 10월 27일발) |
| 11월 | (30) 2 · 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안비료련합기업소의 종업원예술소조 공연(통신, 11월 6일발)<br>(31) 조선인민군 제147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 공연(통신, 11월 22일발)<br>(32)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 담배련합기업소의 기동예술선동대원 및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예술소조원들의 공연(통신, 11월 22일발) |
| 12월 | (33) 사회주의 헌법절(12.27) 기념 해군사령부협주단의 공연(통신, 12월 28일발) |

10) 10월 9일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참관 하에 후계자인 3남 김정은 찬양가인 〈발걸음〉이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09년 8월 이후 후계작업이 갑자기 제한된 이래 유선방송과 가사 벽보에서 사라졌던 〈발걸음〉이 김 위원장 앞에서 불려졌다는 것은 후계구도 자체에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시

## Ⅲ. 북한 문화예술계 분야별 동향

### 1. 민족문화 및 문화재

오늘날 북한에서 민족 전통문화는 체제유지를 위한 중요한 보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한류를 포함한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대한 북한 문화예술계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칫 체제 붕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부르죠아 사상문화 전파 책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은 주민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북한 사회 전반에 '군인문화'를 정착시키며, 민족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민족 전통문화 중에서도 특히 전통 음식문화와 복식문화(조선옷), 그리고 민속명절 때의 놀이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조선료리협회가 4월 6~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주최한 『제14차 4월의 명절 료리축전』에서는 각종 이색 요리가 등장했다고 한다. 평양의 대표적인 식당과 호텔 등 대외봉사 단위들, 각 도의 요리봉사 부문들이 참가하여, 타조고기 전골과 뱀장어 요리, 마 단묵, 닭 내포(내장) 요리와 다양한 색깔을 입힌 각종 아이스크림이 관심을 모았다. 5월 5일에는 평양에서 막걸리, 감주경연이 진행되었는데, 20여 개의 단체들과 공장들, 가정부인들이 막걸리와 감주의 원법을 찾아내고 그 가공방법을 과학화하는 과정에서 창조한 1백여 가지의 음료들을 경연에 출품했다.

조선중앙통신(4월 17일 및 6월 10일자)은 평양에 있는 옥류, 보통문, 룡흥 등 조선옷점을 소개하면서 이 옷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흥성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손수놓이기법, 저고리도련선, 소매배래기선가공에서 기술적 전환이 있었다면서, 반회장저고리, 꼬리치마, 삼회장저고리 등 조선치마저고리는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조선녀성들의 모습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고 있는 수도의 거리들을 더 환하게 하며 민족적 정서와 향취를 한껏 돋구고 있다"고 마무리지었다. 한편 경공업성 피복연구소가 여성들의 계절별 옷들의 추세를 연구하고 현대적 미감에 맞는 조선식의 여성옷을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8월 4

---

사하는 것이어서 당시 국내 북한학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이후에도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축소와 재개를 반복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일자)는 연구원들이 여성들이 즐겨 입는 계절옷들의 자료를 모아 분석을 진행하여, 보급할 계절옷 도안 210점을 다매체(멀티미디어)에 수록하여 북한 전역의 양복점에 보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절 옷들은 『제7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 출품되었다. 조선중앙통신(10월 1일발)은 "최근 평양의 대동강반에 자리 잡고 있는 청년중앙회관에서 『제7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면서, 1,300여 벌의 조선옷과 계절옷이 전시된 전시회에는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와 조선은하무역총회사를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수십 개 단체가 참가하였다고 보도했다.

2008년부터 북한의 모든 중학교(중·고등학교)와 소학교(초등학교)들은 매주 토요일을 '민속놀이 운영의 날'로 정해놓고 있으며, 모든 학교들에서는 민속놀이 도구들을 일식으로 갖추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 조선민족박물관의 강사들이 2009년 내내 10만 명을 목표로 평양 시내를 돌며 근로자들에게 "민속전통을 해설하는 이동 강의"를 펼치고 있다고 『조선신보』(8월 10일자)가 전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말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돌아보며 "근로자들 속에서 민속전통 교양을 원리적으로 할 데 대하여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박물관 강사들은 선조들이 창조하고 계승 발전시켜 온 우수한 민속예법, 민속놀이, 민족음식 등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고 한다. 강사들은 북한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와 연계해 <청년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례의도덕을 잘 지키자>, <관혼상제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할 데 대하여>, <윷놀이 방법에 대하여> 등의 강의안을 만들고 '직관선전에 필요한 걸그림(홍보용 시각자료 패도)'들도 자체 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동강의는 평양시의 공장, 기업소들과 비생산단위뿐 아니라 학교와 인민반 등 주민행정 단위에서도 진행되었다.

민속놀이는 민속명절이나 절기에 시연되기 마련인데, 설 명절(음력설, 1.26)을 앞두고 김일성광장, 평양체육관 주변, 평양 창전중학교 등에서는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 경기가 있었다. 또한 설 명절음력설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중놀이문화인 '윷놀이'에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텔레비죤이 보도했다.[11]

11) 1월 26일자 〈설명절 맞이 윷놀이〉라는 방송 프로에서 "장군님께서 직접 제시한 새로운 윷놀이 규칙"인 '두 후도'(두 뒷도) 등을 소개했다. 윷 4개 중 2개에 표식을 해놓고 이 2개가 나올 경우 '두 후도'로 간주, 두 칸을 후퇴해야 하나, '도'나 '개' 자리에서 '후도'나 '두 후도'가 나오면 말이 판에서 아예 밀려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규칙이다. 또 상대방 말을 잡고 다시 던져 '모'나 '윷'이 나와도 더 이상 윷을 던질 수 없게끔 해놓았다.

설, 추석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정월 대보름(2.9)에도 평양 곳곳에 자리 잡은 민속놀이장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줄넘기와 팽이치기, 딱지치기,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썰매에 둥근 바퀴가 달린 '로라(롤러) 썰매'를 타는 모습이 방영됐다. 대보름의 민속놀이로는 횃불놀이, 연 띄우기, 바람개비놀이, 밧줄 당기기, 봉죽놀이 등 여러 놀이가 있고, 보름달을 보고 한 해 농사 작황을 예언하는 달맞이놀이는 가장 성대한 놀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제7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평양의 릉라도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9월 25일발)이 보도했다. 비교 씨름과 몸무게급별 씨름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경기에는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100여 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했다. 중앙통신은 10월 4일자 보도에서 "조선(북한)에서는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에서나 씨름판을 펼쳐놓고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볼 수 있다"며, "평안북도에만도 수백 개의 씨름소조가 무어져(조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반기의 고고학 발굴 성과로는 1월 말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에서 고구려 토성 2개와 새로운 도로시설을 발굴한 것(조선중앙통신, 1월 30일자)과 5월 초에 북한 지역 최초로 평안북도 곽산군 초장리에서 고려 말에서 이조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통경산 석굴암 유적을 발굴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남조선 위정자들이 유포하고 있는 신라정통성'에 맞서기 위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 그리고 종래는 북한과 연결시키기 위해 문화유적의 보호·관리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문화유적 보호·관리를 위해 중앙에는 문화보존지도국, 그리고 각 도에는 문화유적관리소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전담기관뿐 아니라 전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중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봄, 가을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문화유적들의 복원·보존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매년 4월과 11월을 '문화유적 애호월간'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회의(2004.7)에서 63기의 고구려 벽화무덤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래, 현재는 문화보존지도국의 주도로 개성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0일 전투' 기간에 문화보존 부문에서도 각지의 역사유적, 명승지들을 보다 훌륭히 개건,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선신보』(10월 14일자)가 보도했다. '150일 전투' 기간 중 국가적인 관심 속에 묘향산력사박물관, 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중앙력사박물관, 원산력사박물관, 해주력사박물관을 비롯, 북한 내 여러 역사박물관들에 대한 개건 및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모란봉의 현무문, 안주의 백상루, 태천의 양화사, 북청의 광제사, 연탄의 심원사를 비롯한 13개의 누정과 절간들이 복원, 보수되었다. 광제사, 심원사의 경우 대웅전, 무량수각, 보광루를 비롯한 절간의 기본 건물들을 모두 새로 복원하고 수십 리 구간의 인입도로도 신설하였다. 또한 평안북도 곽산의 릉한산성, 황해북도 평산의 태백산성, 강원도 이천의 무릉기산성, 함경남도 리원의 성평산성을 비롯한 7개 성에 대한 보수와 석축공사도 진행하였으며, 평안북도의 묘향산과 동림의 울림폭포, 강원도의 총석정, 시중호를 비롯한 북한 내 수십 개에 달하는 명승지들도 참관시설이 보강되고 새로운 도로들이 건설되었다고 보도했다. '150일 전투'에 이어 전개된 '100일 전투' 기간에도 전문일군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협조 속에 평양의 대성산 민속공원 건설, 각지 역사박물관의 개건 현대화 사업, 칠보산 개심사, 만포의 세검정, 경성군 향교 등의 역사유적들에 대한 복원 및 보수가 진행되었다.

특히 평양 대성산 기슭에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노천박물관인 '평양민속공원'이 2009년 안에 조성된다고 『조선신보』(7월 16일자, 11월 30일자)가 보도했다. 2009년 4월 하순 착공된 평양민속공원은 200여 정보(60여만 평, 약 198만㎡)의 면적에 역사종합교양 구역, 역사유적전시 구역, 민속촌 구역, 민속종합관 구역, 원림 구역과 안악궁터로 구성한다는 것이 북한 문화성 문화보존지도국의 계획이다. 신문은 민속공원이 담으려는 것은 "사색적인 공원"이라며, 이같이 "통 큰" 민속공원 건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말 직접 착상하고 발기한 것이며, 2012년 강성대국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원의 '민속촌구역'에는 "원시시대부터 이조(근대조선) 시기까지 시대별로 특징적인 주택들을 선정해 역사자료에 기초해 충실하게 재현"하는데, 시대별 건축물은 70여 채에 이르며 "재현 주택들은 모두 살아 있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즉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는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시대별 주거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역사의 흐름에 따른 구성뿐 아니라 지방별 특징도 고려해 민속촌 구역에는 우리나라의 북부, 중부, 남부지방의 주거생활을 각각 보여줄 수 있는 주택들이 건설된다. 아울러 사찰의 탑이나 왕릉의 무관상, 북관대첩비 등 80여 개 역사문화유적들도 민속학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실물 그

대로의 크기로 재현해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12월 3일발)도 2009년 가을철에만도 평양성의 외성의 하나로 고구려 시기에 건설된 토성인 서산성(적두산성)의 일부 복원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 7개의 옛 성들과 70여 기의 무덤들이 원상 복구되고 1,170여 개소에 대한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유적건물 대보수와 문화보존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끝났으며, 명승지, 유적지보호구역에 13만여 그루의 좋은 나무들이 뿌리내렸다고 전했다. 평안남도에서는 평원군 석암명승지를 주민의 문화휴식터로 개비하였고,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서는 구월산 팔담골, 단풍골의 하천을 정리하고 평산군의 공룡발자리화석보존관과 태백산성을 개건 보수하였으며, 연탄군 심원사 보광전에 대한 단청 수복작업을 진행하여 유적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강원도에서는 금강군의 불지암을 대보수하고, 석왕사 사기천 제방공사를 끝냄으로써 유적유물들이 큰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함경남도에서도 북청군 광제사의 대웅전과 보광루, 영광군 불지암을 비롯한 유적건물들을 옛 모습대로 보존하기 위해 지붕, 벽체, 마루, 삼문 등의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단청도 고적 맛이 나게 해놓았다. 이와 관련, 중앙통신은 북한이 4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사유적유물 보존관리사업은 "민족성을 고수하고 근로자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12월 10일발)은 이어서 북한이 문화보존 부문에서 민족의 귀중한 유산인 단청을 원상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룡악산 법운암의 단청을 본보기로 전국의 모든 단청을 원상그대로 보존,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단청을 오래 보존하고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강습과 토론회를 비롯한 학술연구 모임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북청의 광제사와 연탄의 심원사, 희천의 영파루 등에 대한 단청작업이 역사주의적 원칙과 학술적 요구에 맞게 완성된 데 이어, 전국의 유적들에 대한 단청 복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문화보존지도국, 사회과학원, 평양건설건재대학, 고려미술창작사 등 북한 내 민족건축연구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문화보존사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수백 점에 달하는 단청무늬들의 원 모습을 찾아내어 자료화한 데 기초하여,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 현지에서 시험단청에 대한 합평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10월 하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정·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새로 건설된 묘향산 유원지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시찰하면서 묘향산을 세계적인 관광등산지로 조성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 문화보존지도국, 묘향산명승지관리소, 조선문화보존사의 전문가들로 '묘향산명소발견조사단'을 편성해 1개월간 답사한 결과 124곳의 명소(현 등록건수 80여 곳)를 찾아냈다고 『조선신보』 12월 22일자가 전했다.

2009년 하반기에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대한 보도가 잇달았다. 먼저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평양시 삼석구역 표대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구덩이 2개와 승호구역 리천리 유적에서 고조선 시대 석기도구 제작장으로 추정되는 집터를 각각 발굴했다고 『조선신보』(9월 24일자)가 보도했다. 표대마을 앞벌에서 발견된 대규모 부락터 유적인 표대유적 1호 구덩이(직경 1.5~2m, 깊이 35㎝)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로 추정되는데 장방형의 점판암판돌과 무늬그릇 및 질그릇 조각, 갈돌판, 그물추 등이 발견됐으며, 생산폐기물 처리장소로 추정되는 2호 구덩이(직경 2.9~3m, 깊이 50㎝)에서는 500~600개 분량의 질그릇 조각과 함치, 갈돌대, 닦음돌, 도끼, 활촉, 그물추 등이 나왔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큼직큼직한 숯덩이들도 나왔다. 지난 2006년 발굴된 리천리유적 제2지구의 22호 집터에서 12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집 자리(남북 길이 10.6~10.8m, 동서 너비 6.15~6.3m)에서는 돌을 정교하게 가공해 만든 단검, 창끝, 반달칼, 대팻날, 끌, 도끼 등의 다양한 석기와 석기 반제품 수백여 점과 석기 반제품을 가는 데 사용한 숫돌 수십 점이 발굴되었다.

이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10월 24일발)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자들이 황해북도 황주군 청파대 동굴(입구 너비 6m, 길이 32m, 천장 높이 13.7m인 석회암 동굴)에서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1만 4천여 점을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2006년 3월에 이미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했던 내용이다.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인류진화발전사 연구집단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황주군의 '청파대 동굴유적'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1만여 점과 13개소의 불 자리, 인류화석을 포함한 1만 1천여 점의 포유동물 화석을 발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과학자들이 이 동굴에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의 2개의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며, 특히 제2문화층에서 나온 5개체분 7점의 인류화석 중 가장 오래된 약 4만~6만 년 전 이른 시기의 신인류의 뼈 화석을 '황주 사람'으로 명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은 이를 종래 인류 5대 문명 발상지로 주장해온 '대동강문화'와 연결시켜, 청파대 동굴의 유적유물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류역에

서 인류 역사의 려명기로부터 사람들이 살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해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말에는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평안남도 룡강군 후산리에서 20여 종 수십 점에 달하는 청동제 및 철제 무기류와 노동도구, 그릇류, 수레 부속품 등의 유물이 출토된 고조선 말기의 나무곽 무덤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10월 30일발)이 보도한 데 이어, 주간 『교육신문』(10월 29일자)도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의 교수와 연구사들이 황해북도 평산군에서 "6억 2천만 년 전의 것으로 판명"된 길이 5㎝ 되는 관 모양의 관상동물 화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관상동물은 원생대 말엽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는 과도적 단계를 대표하는 골격구조를 가진 동물이다. 12월 말에는 조선중앙통신(12월 23일발)이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대성산지구에 건설되는 평양민속공원 건설현장에서 고구려 시기의 벽화무덤과 첨성대 유적을 새로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기타 문화재관련 소식으로는 3월 초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개최된 『무기무장유물전시회』 소식이 있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북한이 주장하는 한민족의 '본토기원설'을 종합 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출판을 목표로 「조선인류학전서」(전 7권)의 집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그리고 무덤벽화 보존에 관한 기술서적인 「고구려벽화보존」(과학기술출판사), 「아득히 먼 옛날의 우리 선조들을 찾아서」(사회과학출판사), 「일제의 조선문화재 략탈사」(사회과학출판사), 「송도의 옛이야기」(금성청년출판사) 등의 신간 도서 출판 소식이 있다.

## 2. 문학 분야

2009년 들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문학』 2009년 1~3월호는 머리글을 통해 작가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1월호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선군문학 창작에서 앙양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머리글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선군혁명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문학작품 창작에서 앙양을 일으킬 것을 요구했다. 먼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에 따라 해결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울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것,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보다 왕성하게 창작해낼 것"을 촉구했다. 또 혁명적 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현실주제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벽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이바지할 작품 창작에 주목을 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보다 참신하고 감명 깊게 형상하고, 일심단결 주제, 조국통일 주제, 계급교양·혁명교양·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주제에 힘을 돌릴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부르죠아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부시기 위해 주체문학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자본주의 황색 바람' 내지 '한류 바람'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다.

한편 '15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자원을 '150일 전투'에 집중하는 가운데 작가들에게도 이를 위한 문학작품의 대량생산을 주문했다. 북한의 작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 5월 9일자는 ≪150일 전투에로 고무 추동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어 이를 "고무 추동하는 문학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알리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숙명>, <봄 향기>, <새벽산책> 등의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 전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담은 현실 주제"를 다룰 것을 제시했다. 이어 신문은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공화국(북한) 영웅들을 원형으로 한 작품 창작이 작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편소설 <아들>, 중편소설 <방축길>이 창작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평양 5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이 "들끓는 현실 속에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 천만군민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는 100여 편의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였다"면서,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이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시초 <희천 땅의 메아리>를 훌륭히 창작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16일 평양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작가들이 2009년 정초부터 10월까지 수십 편의 장편, 중편소설들과 서사시, 장시를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내놓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와 <불타는 려명>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하고 참신하게 형상함으로써 독자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다. 사회주의 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한 장편소설 <북두칠성>, <년륜>, 중편소설 <따뜻한 봄빛>, <박우물>을 비롯한 작품들도 인기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력사는 영원히 흐르며, 조국 땅 우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반드시 일떠서리라는 것을 격조높이 노래한 서사시, 장시 등이 창작되였다. 이밖에 장편사화 <문익점>, 중편사화 <삼포왜란>, 장편동화 <종달기자의 체험기>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문학작품들도 있다." 『조선문학』 2009년 12월호도 ≪전투에서 전투에로 이어온 기세 드높이 문학작품 창작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머리글을 통해 2009년도 장편소설 및 시초 부문의 성과작으로, 중앙통신이 거론한 네 편의 장편소설 외에 <내 고향의 봄>, <바다 사나이>, 그리고 시초로 <희천의 메아리>, <회령의 불타는 아침> 등을 거론했다.

장편소설 부문에서는 "당이 중시하고 있는 인민경제의 주요 부문의 생활을 반영한 적극적인 주제에 선차적인 창작적 관심"을 돌렸고, 시 부문은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세차게 펄럭이는 시가문학이 진격의 나팔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격동적인 목소리로 시대를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문학 부문은 "작가들의 피타는 노력과 탐구에 의하여 아동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특색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으며, "문학창작의 새로운 형상 분야를 탐색하며 문학운동을 적극 벌리는 데서 평론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문학의 "모든 부문들에서 새 세기의 미학정서적 요구에 맞게 형상수법을 대담하게 혁신하여 주체문학의 면모를 참신하고 생동하며 새 맛이 나게 일신"하기 위해서, 작가들의 창작실무적 자질을 높이고,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대중이 문학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문학』(2009년 12월호)은 또한 2009년 북한 소설문단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30~40대 젊은 작가들의 약진을 꼽았다. 이 잡지는 ≪주체 98(2009)년의 『조선문학』- 한 해의 마감장을 덮으며≫라는 제목의 연말 결산 기사에서 "올해 소설문단의 특기할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0~40대 젊은 작가들이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자기의 뚜렷한 얼굴'에 대해 "소설작품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숨결을 체현한 전형적이고 개성적인 성격 창조, 새롭고 독특한 구성 수법, 특이한 자기 나름의 문체 등을 들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R http://www.arko.or.kr

고 설명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출판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문학 분야 도서로는,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어느 한 전선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노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오늘날의 애국은 그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빛내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지니였던 자력갱생,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을 꿋꿋이 계승해 나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철리를 생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가 있다. 2009년에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발간한 도서로는 이외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화 창조과정에서의 현지지도를 다룬 「위대한 창조의 길에서」, 장편소설 「바다 사나이」, 중편사화 「삼포왜란」 등이 있다. 금성청년출판사에서는 장편소설 「우정의 별」, 조선민화집 「콩쥐팥쥐」, 해학일화집 「말하는 벙어리」, 김정숙 우상화 작품인 「백두산 녀장군의 거룩한 자욱」이, 그리고 사회과학출판사에서는 「중세 이름난 해학가들의 이야기」, 「조선구전설화집」 등이 발간되었다. 또 평양출판사에서는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인 손성모의 수기 「나의 삶, 나의 조국」, 한 통일애국자를 주인공으로 했다는 장편소설 「고목이 될지언정」, "어제 날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과 그 후대들의 삶을 다룬" 도서 「삶의 보금자리」 등이 발간되었다. 한편 고전 분야에서는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1998년에 시작한 조선시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원문 273책(2만 7천 쪽)을 총 150권(원고매수 30만 매)으로 번역을 마친 데 이어 교열, 편집작업을 마무리하고, 2011년 출판을 목표로 검독과 교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조선신보』(10월 15일자)가 전했다.

## 3. 시각예술 분야

북한의 미술계는 2009년에도 시기에 맞춰 혁명과 건설, 그리고 김정일 가계 우상화와 체제보위를 위한 작품 창작에 내몰렸다. 먼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예술』 2009년 1월호가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미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제하의 글을 통해 작가들의 분발을 촉구한 데 이어 2월 25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선전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동무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창작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작품들은 전체 당원

들과 근로자들이 영웅적 헌신과 애국의 실적으로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맡은 몫을 다해 나감으로써 시대의 이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평양미술대학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 발사"를 주제로 한 작품 창작이 진행되었다. 4월 5일 '광명성 2호' 발사 소식을 접한 교원, 학생들이 "위성 보유국, 위성 발사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반영한" 미술작품 창작을 전 대학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오전 강의가 끝나면 대학구내에서 조선화학부, 회화학부, 공예학부, 산업미술학부, 조각학부의 교원, 학생들이 작품 창작에 몰두했다고 한다. 심사를 통과한 서예 작품은 일부 『태양절(김일성 생일)기념 전국서예축전』(4.6~30)에,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작품들은 재심사를 거쳐 2009년 9월 대학에서 개최하는 미술전람회에 전시되었다.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한 4월 태양절 기간에는 여러 가지 미술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먼저 4월 하순 본격적인 '150일 전투' 개시를 앞두고 4월 초에 미술 부문 일군(간부)들과 창작가들의 회고 모임 『천리마동상 건립에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령도』(4.2, 인민대학습당)를 개최했다. 이 모임 참가자들은 "김일성 동지의 손길 아래 천리마동상이 시대의 기념비적 걸작으로 훌륭히 일떠서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 깊이 회고"하고,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 건립과 작품 창조에서 비약을 이룩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매년 개최돼 온 『태양절기념 송화미술전람회』(4.7~30, 평양국제문화회관)에는 70여 점의 조선화, 유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1996년에 창립된 송화미술원은 70~80대 인민 및 공훈예술가 등 원로미술가가 소속되어 있는 미술창작기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현지지도 소식에 접하고 강선 로동계급의 첫 출강 모습을 현지습작으로 형상·창작한 <강선의 본때>, <강선의 선군봉화> 등이 주목받았다.

6월에는 조선로동당출판사,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철도성미술창작사에서 "조선인민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조선중앙통신, 6월 1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선전화 <모두 다 김매기전투에로!>, <애국의 땀을 바쳐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껏 돕자!>는 모내기에 이어 김매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와 협동 벌로 달려 나가는 근로자들의 모습 등의 형상을 통하여 올해 알곡 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열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사상예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전화들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 농사를 잘 짓는 데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농업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반미공동투쟁월간(6.25~7.27)에 즈음하여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는 계급교양주제 미술전시회가 개최되어, 중앙과 지방의 미술창작기관 미술가들이 출품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조선중앙통신, 6월 25일자). 이 전시회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한 영웅적 기개와 미제의 비참한 몰골을 생동하게 반영한" 조선화·유화·조각·판화 등 50여 점이 전시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조선예술』 2009년 12월호에 게재된≪선군령장의 손길아래 날로 발전하는 주체미술의 자랑찬 화폭≫(리기숙)이라는 제목의 논설은 2009년도 주체미술 분야 성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론하고 있다. 1월 초 평양에서 개최된 『공동사설과업관철 선전화전람회』, 2월 중순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된 『2.16경축 중앙미술전시회』, 『반미투쟁 월간(6.25~7.27)에 즈음한 계급교양주제 미술전시회』,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된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9.3 개막, 490여 점 전시), 건축 부문에서 "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평양대극장,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황해북도예술극장, 마전호텔, 보통강상점, 송도원청년야외극장, "조·중 외교관계설정 60돐을 기념하여" 교환 개최한 베이징 북한미술 전시회와 평양 중국유화 전시회 등, 그리고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배경대 미술 등이다.

2009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는 『전국미술 현지습작 및 소품전시회』가 개최되어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을 지향한 경제건설 현장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전시"되었다고 『조선신보』(9월 7일자)가 보도했다. 전시회에는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시와 각 도 미술창작사, 교육 부문 등 북한 전역의 미술가들이 그린 180여 점의 조선화, 유화, 출판화, 수예와 현지 습작품 및 소묘작품이 출품됐다. 작품들은 미술가들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례성강발전소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현지에서 창작한 작품들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조선로동당출판사,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철도성미술창작사 등 각 미술창작사들이 "150일 전투를 고무 추동하는" 선전화 창작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 매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곧

바로 이어진 "100일 전투를 고무 추동하는" 선전화 창작에 열을 올렸다. 먼저 조선중앙통신(10월 6일발)은 '100일 전투'의 승리에로 근로자들을 추동하는 선전화들이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창작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선전화 <모두다 100일 전투에로!>에는 '강성대국'이라는 글발을 새긴 붉은 기를 틀어쥐고 전체 인민을 총돌격전에로 부르는 로동계급의 모습이 형상되여 있다. 네 굽을 안고 나래쳐 오르는 선군천리마와 무쇠주먹을 높이 쳐든 근로자의 모습을 담은 선전화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도 모든 전선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며 영웅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다시 한 번 떨칠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다."

『조선신보』(10월 31일자)도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이 '100일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반영한 미술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화, 유화, 보석화, 조각창작단들의 창작가들은 '100일 전투'가 시작되자 화판을 둘러메고 일제히 현장(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으로 달려나가 약동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고 한다. 또한 수예, 공예, 출판화, 벽화창작단들에서는 "독특한 미술기교와 대담한 창작기법들을 재치 있게 발휘하여 우수한 미술품들을 속속 내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중앙미술창작사가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인물들의 초상화 그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조선신보』(8월 1일자)가 전했다. 이 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전우와 연고자들의 인물사진에 근거해 해마다 조선화 또는 유화로 초상 및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있다"며 "회고록의 인물초상 및 미술작품은 국가미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모두 국보로 등록돼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된다"고 설명했다. 중앙미술창작사 최우철 부사장은 총 300여 점으로 계획된 회고록의 인물초상 및 미술 작품 가운데 7월 말까지 210점이 완성됐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가 평양체육관에서 9월 3일 개최되었다고 『조선신보』(9월 4일자)가 전했다. 전람회장에는 동 대학의 교원, 창작가, 학생들이 창작 완성한 490여 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됐다. 조선화, 유화, 조각, 소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된 미술작품들의 주요 주제와 소재는 '백두산 3대장군의 애국 헌신의 자욱',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총진군하는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과 투쟁모습', '선군시대에 솟아난 자랑스러운 창조물들과 경제강국 건설 전투장들에서 날마다 기적과 위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훈을 창조해가고 있는 혁신자들의 모습', '조신인민이 누리는 행복과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되는 조국산천의 풍경', 기타 다양한 산업미술 도안 등이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가 2009년 11월 17일로 창립 50돌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전람회가 11월 16일부터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신보』(11월 27일자)는 "조선의 상징으로서 세계에 알려진 천리마동상은 이곳 창작가들의 작품이다.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1959년 11월 17일 그 창작현장을 찾으시였다. 바로 그 현지지도의 날이 만수대창작사의 창립날로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동 창작사의 대표적인 미술작품들이 출품되었는데, 출품작이 근 500점에 달해 규모에 있어 종전에 열린 국가미술전람회의 거의 2배 수준이었다. 전시작품들 가운데는 연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한 단위들과 사회주의 건설장들을 찾아 "현실 속에서 종자를 잡고 창작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한다. 전람회에서는 특히 각이한(각각 다른) 천연색 돌을 재료로 한 돌쪽무이벽화(돌 모자이크 벽화)가 참관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김정일 가계에 대한 우상화물 건립은 계속되고 있으며,[12] 평양출판사에서는 하반기에 미술도서 「우리 민족의 옛 미술가들」과 함께 화첩 「인민의 나라」를 출판했다. 화첩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절세의 위인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여 인민들의 행복하고 참다운 삶이 꽃피는 공화국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남방일보』(11월 15일자)가 2009년 11월 광저우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북한의 조선민예연합상사 대표(최정애)의 말을 인용,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이른바 '1호 창작가'들이 최고 대우를 받는데, 예술가들의 사회적

12) '09년 상반기에 보도된 것만 황북 사리원방직기계공장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 김일성 모습이 담긴 모자이크 벽화(1월 28일), 삭주군 청수지구 및 룡청군 장산협동농장에 김일성 모자이크 벽화(4월 16일), 평양 조선콤퓨터쎈터에 김 부자(父子) 모자이크 벽화(4월 16일), 김화군과 해주의학대학 및 석정농장에 김일성 모자이크 벽화(6월 9일), 고원역 및 함흥시 동흥산구역 류정협동농장에 김 부자 모자이크 벽화(6월 9일), 대안친선유리공장에 김정일 혁명사적비(6월 20일) 등이 건립되어 각각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하반기에 건립된 모자이크 벽화는 언론(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만 총 54건으로, 김일성을 소재로 한 것이 30건, 김 부자(김일성과 김정일)를 소재로 한 것이 17건, 김정일이나 김정숙을 소재로 한 것이 각각 3건이고, 이른바 '백두산 3대장군'으로 일컫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을 소재로 한 것이 리원군에 1건 건립되었다. 또 혁명사적표식비는 조선중앙통신(12월 24일발)에 의하면 김일성 소재 2건, 김 부자 소재 1건, 김정일 소재 5건 등 8건이 건립되었다. 모자이크벽화 및 혁명사적표식비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각각 거행되었다.

지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도했다. 또 북한에서도 미술작품의 거래가 허용되고 있지만 공훈예술가나 인민예술가 등 유명 화가들은 그림을 내다 팔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만 창작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김 부자(父子) 초상화 복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화가도 '1호 창작가'로 부르는데, 복제 담당 '1호 창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13] "김 부자의 초상화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최대한 웅장하고 크게, 자애롭게 그리고 일반인과 차별화시키면서 부족한 점은 지우고 긍정적인 면은 부각시킨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의 원본 그림은 만수대창작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는 조선인민군미술창작사에서 대부분 그려지고, 여타 창작사에서는 여기서 나온 작품을 수작업으로 복제하며, 이 복제도 미대 졸업 후 시험을 통과한 '1호 창작가'만 할 수 있다.

'1호 창작가'는 미술 전공자들의 목표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고, 미대 졸업생의 80% 정도가 '1호 창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초상화 복제품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1호 창작가'는 모두 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히 만수대창작사와 인민군미술창작사에는 주로 평양미술대학 졸업생들이 들어가고, 그 밖의 지방 미대생은 도미술창작사, 철도미술창작사, 사회안전부미술창작사 등에 배치된다. 각 창작사는 노동당 위원회 관리 하에 있는데 매달 당위원회 선전비서가 작품을 심의하여, 여기서 불합격된 작품은 다시 그리게 하고, 불합격 작품이 많이 나오면 '1호 창작가'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김 부자를 주제로 한 '1호 작품'에 들어가는 원 재료는 모두 수입된 뒤 만수대창작사에서 다시 가공해 공급된다. 또 완성된 작품을 옮길 때는 기존 열차에 '1호 작품 모심 열차'라는 칸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동차와 안전원도 배정돼 있다. 공공건물에 걸린 작품은 해당 단위에서 6개월마다 보색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1호 창작가'의 방문 작업이 잦다고 한다. 작품 복제 할당량을 끝내면 '1호 창작가'에게는 봄, 가을에 보름씩 야외 자유습작 및 국가미술전람회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13) 그는 평성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개천철도미술창작사와 인민군25후방총국에서 김 부자의 그림을 전문적으로 복제하는 '1호 창작가'로 활동했다고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4. 공연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종합행사로는 지난 2002년 김일성 90회 생일을 기념해 첫선을 보인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 체조 및 예술공연 <아리랑>이 있다. 2009년도 <아리랑> 공연이 8월 10일 평양 릉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 50여 일 만인 10월 20일 폐막되었다. 10월 20일 조선중앙방송은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해외동포, 외국인들 140여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서장과 본문 1~4장 및 10경, 종장으로 구성된 1시간 20분짜리 초대형 공연물인 <아리랑>은 2008년의 경우 제2장 5경에 '녕변의 비단처녀' 장면을 새로 삽입하는 등 일부 장면을 개작했었다. 2009년 공연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문하면서 제시한 주민동원용 경제구호인 '강선의 봉화'를 주제로 한 장면과 '날로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추가됐다. 김 위원장은 10월 5일 방북 중이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함께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조·중 친선의 해'의 폐막식에 참석하고 <아리랑>을 관람했다.[14]

『조선예술』 2009년 12월호 정론 ≪세기에 떨치라, 주체예술의 위력을! - 위대한 선군령장의 주체 98(2009)년 주체예술령도사를 더듬어 보며≫(손창준)는 2009년 예술 분야 성과작으로 음악 부문에서 은하수관현악단,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합동공연으로 이루어진 『당 창건 64돐 기념 10월 음악회』와 피바다가극단의 가극 <홍루몽>,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와 관련된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과 <나는 양어처녀>를 꼽았다. 그리고 연극 부문에서는 국립연극단의 <네온등 밑의 초병>을 성과작으로 꼽았다. 같은 잡지 ≪변이 나는 해, 일이 나는 해에 주체의 음악예술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리인윤)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들, 가요 <폭풍쳐 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우리는 승리하리라> 등,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조선인민군 중대예술소조원들의 예술소조 공

14) 〈아리랑〉 공연을 체제선전과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은 '09년도 관람료를 두 배 이상 올리고 당초 9월 말 폐막에서 10월 20일까지 공연기간을 늘리는 한편, 중국과 미국 등지의 여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했으나, 미국과 유럽 등지의 관광객 수는 크게 줄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연들과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및 국제 교예무대에서의 수상 실적을 성과로 꼽았다.

### 1) 음악 부문

1월 1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선군시대 기념비적 대걸작'으로 일컬어지는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에 '김일성상'이, 그리고 이를 창작한 공훈국가합창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와 훈장, 메달이 수여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동 작품에 대해 "우리식의 관현악과 합창, 우리식의 양상을 창조할 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였으며, "주체음악예술의 자랑찬 발전 모습을 시위한 국보적인 명작"으로 평가했다. 3월 1일에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이 창립 60돌(1949년 3월 1일 창립)을 맞이하여 기념행사가 치르어졌다. 러시아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을 공연하는 한편, 대학음악당 홀에 꾸려진 민족고악기 전시장에 공후, 독, 부, 운라, 향비파, 아쟁 등 지금까지 북한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악기를 위주로 한 60여 점의 고악기들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악기는 196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역사학자들과 악기 전문가들이 1493년에 편찬된 「악학궤범」을 참고로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을 일으킨 이후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는 3남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와 관련, <발걸음>, <나래치자 선군조선 천리마여>라는 노래를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있다고 NK지식인연대가 7월 7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지식인연대 북한 현지 비밀 통신원의 전언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망일인 7월 8일을 계기로 각종 주민 강연회와 학습회를 통해, 그리고 특히 예술소조원들이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 창작된" 두 노래에 대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단위별로 아침 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 모여 합창을 부르도록 조직되었다고 한다. 통신원에 의하면 7월 8일을 앞두고 각 기업소와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동지애의 위대한 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강연회가 있었고, 이 강연회에서 "김정은 대장은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혁명적 동지애와 숭고한 도덕 의리를 그대로 지니신 만경대 가문의 위대한 귀감"이라며, 김정은 숭배사상을 고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강연회에서 당 비서가 "김정은 대장이 친히 창작 지도한 <발걸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과 <나래치자 선군조선 천리마여>를 전체 주민들에게 보급할 데 대한 중앙당 지시문 내용도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원은 "현재 예술소조원들에 의하여 노래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별로 아침 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 모여 합창을 부르도록 조직됐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김정은 우상화 가요인 <발걸음>에 등장하는 '발걸음'이라는 가사는 이전에도 김정일 찬양과 인민군대의 단결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노래에 자주 등장해왔다. 김정일 찬양가요 <우리를 보라>라는 노래에도 '총창은 번쩍, 발걸음은 쩡쩡'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발걸음>은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첫 찬양가요로 북한 최고의 작곡가라는 보천보전자악단의 리종오가 작사와 작곡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이 노래를 각급 단위에 조직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3절로 이뤄진 <발걸음>은 "척척 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식으로 김정은을 지칭하는 '김대장'의 표현이 매절에 들어가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월 생일을 염두에 둔 '2월의 위업 받들어' 등의 표현으로 후계자 결정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내부용 '위대성 교양자료'에서 이 노래를 "21세기의 수령 찬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각 급 공연에서 <발걸음>이라는 노래공연을 직접 관람한 데 이어 <발걸음> 노래를 소재로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의 금진강청년돌격대가 그린 소묘 작품까지 감상하고 이를 조선중앙통신(11월 7일발)과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은 ≪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음악예술≫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오늘 조선의 주체음악예술은 새로운 개화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최근년간에만도 전인민적 송가 <충성의 노래>와 교향악적 음악세계를 펼쳐 보이는 <눈이 내린다>, <강선의 노을>, <번영하라 조국이여>를 비롯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새로 형상된 특출한 기념비적 걸작품들이 수많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재능 있는 명가수들이 혜성처럼 나타나고 관록 있는 창작가, 성악가, 연주가들, 은하수관현악단, 삼지연악단을 비롯한 특색 있는 예술단체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나라의 음악 발전 수준을 대표하는 합창예술, 교향악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개화 만발하는 주체음악예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결론 맺었다. 이에 앞서 10월 8일발 보도에서도 ≪주체문학예술 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주체문학예

술의 면모를 과시하는 성과"로 강원도예술단에서 창조한 노래이야기 <우리 님 영웅되셨네>와 피바다가극단의 가극 <홍루몽>을 꼽았다.[15]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도 공연된 노래이야기 <우리 님 영웅되셨네>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원호에 떨쳐나선 금강마을 녀성들의 투쟁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 '조·중 친선의 해' 행사의 하나로 6월에 공연한 바 있는 가극 <홍루몽>에 대해서는 60년대에 중국의 유명한 고전소설을 각색하여 공연하던 것으로, "원작의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높은 예술적 수준에서 세련시켜 훌륭히 완성하였다"고 평했다.

7월 초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제32회 민족전통음악발표회가 개최되었다고 『조선신보』 8월 10일자가 밝혔다. 이 민족전통음악 발표회는 주체음악연구소 주최로 해마다 1~2회 진행돼 왔는데, 전국의 예술단체 및 극장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과 예술교육 부문의 교원, 학생들이 관람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민요 <룡강기나리>, 서도긴잡가 <승지평양>, 사거리 <놀양사거리> 등 십여 가지의 민족전통음악 종목들이 연주되었다. 발표회를 통해 민족전통음악들을 발굴, 보존하는 것과 함께 전통음악의 좋은 측면을 현대음악에 구현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발표회에는 국가에 등록된 민족전통음악 인재들과 그 제자들이 출연하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음악들을 옛 그대로 형상했다. 북한에는 문화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족음악인재등록위원회'가 있어, 민족전통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등록하고 그들의 기량 제고와 예술활동 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족전통음악 인재의 후비는 주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키우는데, 대학에서 육성된 연주가, 가수들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적인 인재로 등록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10월 7일발)이 "조선의 본보기예술단체인 만수대예술단이 조직 40돐(돌)을 맞이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주체58(1969)년 9월 27일에 조직된 만수대예술단은 지난 기간 당과 수령에 대한 송가들과 수많은 명곡들을 창작 창조하고 천 수백 차의 중요 행사공연과 수천 차에 달하는 국내 예술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예술단은 특히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녀

15) '노래이야기'는 1960년대 근로자들이 창조했다는 대중예술 형식의 하나로, "하나의 작은 이야기 거리를 노래와 대사로 표현하는 무대예술 형식의 하나"이며, "무용이 적절히 결합되기도 한다"(사회과학출판사 간, 「조선말대사전」).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성기악중주단, 무용단 등의 공연활동을 770여 회나 벌렸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다채로운 형식에 담아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은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백 수십 명의 '김일성상' 계관인,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들을 배출하였다" 특히 얼마 전에 출현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녀성 8중창조의 공연은 지금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특히 삼지연악단은 클래식 음악 대중화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악단의 연주가와 독창가 50여 명은 평균 나이 20대 초반에 "모두가 멋쟁이, 쌩쌩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대중과 호흡을 맞추는 파격적인 연주 형식으로 인해 90년대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의 공연 인기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조선신보』(9월 25일자)가 소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9월 인민문화궁전에서 인기리에 두 번째 일반공연을 가진 삼지연악단의 특징에 대해 『조선신보』는 북한의 음악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음악의 고상한 것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관중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통속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16]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자기 얼굴이 뚜렷한 주곡"을 가지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심히 지도"해줘, 1956년 만들어진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주곡으로 편곡해 내놓았다고 『조선신보』(8월 1일자)가 전했다. 신문은 "국립교향악단은 역사가 오랜 예술단체이지만 지난 시기에는 자기의 독자적인 주곡이 없었다"며, 교향악단은 '수령송가 작품'을 종자로 해 주곡을 창작하기로 한 결과, 이 노래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노래의 관현악 편곡은 악단의 지휘자인 리철웅(36살) 씨가 맡았으며, 6월 말 첫선을 보였다. 또한 제28차 윤이상음악회가 윤이상음악당에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어 가곡 <편지>, 현악합주를 위한 <교착적 음향>, 소관현악 <협주적 음형>, 소관현악 <인상>, 교향곡 제2번 등의 윤이상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한편 북한의 음상전자합영회사에서 '조선장단'이 도입된 대중용 '소백수' 전자피아노와 '장자산' 전자풍금을 제작하여 내놓았다고 8월 3일자 평양 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수자식'(디지털식) 음향기술이 도입된 이 전자악기들은 조기

16) 이 악단은 북한음악뿐 아니라 외국음악도 연목(레퍼토리)으로 갖고 있고 있는데, "과거에 창조된 음악들에 비해 더욱 밝아지고 명랑해졌다."고 한다. 이는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음악",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게 하는 대중과 호흡할 줄 아는 음악"을 만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음악 대중화, 통속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음악교육 및 대중음악보급용 악기로 널리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연결하여 음악 창작과 편집도 할 수 있다. 우선 '소백수' 전자피아노에는 조선장단 14종을 비롯한 42종의 리듬, 128종의 미디표준음색과 61종의 타악기음색이 기억되어 있다. 그리고 <흰눈 덮인 고향집>을 비롯한 여러 곡의 '조선명곡'도 기입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장자산' 전자풍금에는 아동음악 33곡과 조선장단 14종을 포함한 47종의 리듬, 136종의 표준음색, 61종의 타악기음색이 들어 있다. "이 악기들은 나라의 음악교육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세워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2) 연극 부문

조선중앙통신(10월 8일발)은 ≪주체문학예술 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이라는 제목 하에 2009년도 연극 분야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2009년 '조·중 친선의 해를 기념하여' 국립연극단이 재창조한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을 최대의 성과로 꼽았다. 이 연극은 1960년대 초 중국에서 창작되고 북한에서 번역극으로 공연된 것으로, "사상성이 높고 인식교양적 의의가 크며 예술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걸작으로 재창조"했다고 극찬했다. 8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은 함흥대극장 공연에 이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동평양대극장에서 30여 회 공연을 진행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 연극은 "갓 해방된 중국인민해방군 한 중대의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의 향기로운 바람에 물젖으면 승리한 혁명도 지켜낼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혁명을 하려면 계급적 각오가 투철해야 하고 계급투쟁의 무기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9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도 "적들의 총과 대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사람들이 사탕 바른 포탄 앞에서 무장 해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극의 장면들은 관람자들에게 반동적인 부르죠아 사상 독소, 양풍에 물젖으면 자기 운명도 승리한 혁명도 지켜낼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하나같이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진실한 연기형상, 높은 수준에 이른 화술형상, 원작을 초월하여 실감이 나면서도 새 맛이 나게 형상된 화면구성과 무대미술로 하여 공연은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고 있다", "출연자들의 화술형상을 비롯한 높은 연기수준과 실감 있는 무대미술은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등 높은 평가를 받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은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은 결국 동 연극 창작사업에 공로가 있는 창작가, 예술인, 일군(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표창으로 이어졌다(조선중앙통신, 11월 5일발). 11월 4일 진행된 표창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전달에 이어 미술가(피바다가극단 소속)에게 로력영웅칭호,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공훈예술가 칭호가 주어졌으며, 국립연극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는 김일성 시계표창, 김정일 표창장, 인민배우 칭호, 공훈배우 칭호, 공훈예술가 칭호, 국기훈장 제1급, 로력훈장 등이 수여됐다. 가극 <홍루몽>(평양대극장), 국립교향악단의 공연(모란봉극장)과 더불어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동평양대극장)은 2009년에 평양 시민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은 공연으로 꼽히고 있다.

### 3) 무용 부문

북한에서 노래와 춤이 배합된 전통 음악예술 형식인 가무가 30여 년 만에 다시 선보여 주목되고 있다. 『조선신보』 보도(4월 3일자 평양발)에 따르면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국립민족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3.20~30) 중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해당화> 등의 가무작품들이 공연되었다. 동 신문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가무는 전문예술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연목으로 취급되어 공연 기회도 없었고, 세월이 흘러 일반시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시기의 가무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재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2008년 4월 국립민족예술단에 가무를 전문으로 하는 배우집단이 꾸려졌고, 현재 평양음악무용학원을 비롯한 전문 교육기관에도 가무배우 양성체계가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6월 22일에는 북한 최고의 무용배우인 홍정화가 일흔 번째 생일을 기념해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무용발표회를 가졌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6월 23일자로 전했다. 만수대예술단을 거쳐 현재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김일성상' 계관인 및 인민배우이자 조선무용가동맹 서기장인 홍정화의 이번 발표회는 개인 발표회가 드문 북한에서 홍정화 개인의 네 번째 발표회로 기록된다.

북한이 일제 강점기에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무용가 최승희의 창작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를 50여 년 만에 복원, 2010년에 재연할 예정이라고 『조선신보』(7월 23일자)가 전했다. 이 신문은 "1956년에 최승희가 창작한 무용극 <사도성의 이

야기>가 50여 년 만에 재연 된다"며, 북한 무용 관계자들은 이를 "조선무용을 세계적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릴 계기"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시이 바쿠의 제자인 최승희는 일제 강점기에 유럽 무대 등에서 '동양의 무희'로 불리며 한민족의 춤사위를 전 세계에 알린 무용가로, 광복 직후인 1946년 남편 안막을 따라 월북, 활동하다가 1967년 "체제전복을 꾀한" 남로당에 연루된 죄목으로 숙청됐다. 최승희는 그러나 2003년 '신미리 애국열사릉'으로 이장되면서 복권돼 재평가받기 시작했으며, 그 묘비에 의해 사망 시기도 1969년 8월로 확인됐다. 신라시대 동해안의 '사도성'이라는 성에 쳐들어온 왜적들에 대한 백성들의 투쟁과 그 과정에 싹튼 성주의 딸과 한 어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사도성의 이야기>는 4장으로 구성된 1시간 20분짜리 무용극으로 최승희가 대본, 안무, 연출을 도맡았었다. 8월 5일 저녁에는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최승희를 "조선민족 무용계의 한 떨기 꽃"이라며 월북 이후의 행적을 상세히 소개하는 19분짜리 '소개 편집물' 영상을 내보냈다. 특히 2011년은 최승희 탄생 100주년이어서 남한 무용계도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무용극 복원 작업은 더욱 주목된다.

한편 『조선신보』 7월 23일자는 북한의 무용수들에 의한 발레극 <에스메랄다>가 2010년에 상연된다면서, 7월 현재 평양무용대학 소속 조선발레단에서 창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무용가들에 의한 발레극 상연은 1960년대 이래 처음이다.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홍정화 서기장에 의하면 지난 시기 <백조의 호수>, <에스메랄다>, <눈물의 분수>(<바후찌사라이의 샘>) 등이 "높은 수준에서 상연"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북한은 남녀 쌍 11조의 발레 무용수를 구 소련에 유학시킨 바도 있다. 그 후 1970년대, 80년대에는 발레보다 민족예술의 발전에 힘을 기울였으나 15년 전부터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발레강좌를 창설하여 발레 무용가들을 육성하여 왔다. 현재 70여 명이 여기에 재학하고 있다고 한다. 발레극 창조집단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이 형상한 <에스메랄다>, <눈물의 분수>, <백조의 호수>를 자료로 삼고 있는데, <에스메랄다>를 완성시킨 다음에는 <눈물의 분수> 창조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2010년 이후부터는 북한에서 발레공연이 왕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에 무용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평양무용대학이 새로 설립되었다고 『조선신보』가 8월 4일자로 보도했다. 종전에 무용교육은 평양음악무용학원에서 진행해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이번에 북한은 평양음악무용학원에 배속되어 있던 무용 부문을 분리하여 무용대학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평양음악무용학원의 이름을 평양음악학원으로 개칭했다.[17] 신설한 평양무용대학에는 조선무용학부, 발레무용학부, 무용창작학부, 사회과학학과, 조선무용연구소 들이 있다. 북한당국은 새 대학의 설립을 계기로 발레무용단과 관현악단, 박사원도 발족시켰다. 대학에는 6년제 중학반이 병설된다. 대학의 학제는 조선무용학부와 발레무용학부가 2년제로서, 학생들은 18살에 졸업하게 된다. 또한 무용창작학부의 안무학과, 무용표기학과는 3년제, 무용리론학과는 5년제로 규정했다. 학생들의 실천교육을 위한 현대적인 발레극장도 '일떠서게' 되어 '09년 8월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이다. 내각 교육성 관계자는 "무용인재의 원종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될 평양무용대학은 조선의 무용예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4) 기타 공연 부문

평양인형극단이 처음으로 민속놀이를 반영한 인형극 소편을 창작 공연했다. 무릎싸움, 팽이치기, 씨름, 상모춤 등 소편으로 구성된 작품은 학생들에게 민속놀이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그것을 더욱 장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작되었다. 작품은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유머적인" 형상들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인기작품이 되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특히 한 사람이 3~4명의 인물 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연출과정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150일 전투기간에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여 60일 동안에 완성하였다"고 전한다. 기타 공연예술 분야 중 군중문화관련 행사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담배련합기업소의 기동예술 선동대원들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예술소조원들의 평양 인민문화궁전 공연(11.24) 소식이 있다. 또한 인민보안성 예술선전대 공연이 12월 초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시군, 희천2호발전소 건설장 등에서 진행된 데 이어, 12월 10일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이루어졌다. 공연무대에는 혼성중창 <장군님 뵙고싶었습니

17) 한편 평양음악대학은 1949년 3월 국립음악학교로 시작해 1972년 2월 평양음악무용대학으로 개편된 후 2004년 4월 기존의 4년제에서 5년제로 전환하면서 평양음악대학과 평양음악무용학원(기존의 2년제 평양음악무용대학 무용학부에서 3년제 무용학원으로 전환)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 평양음악대학에 대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6.6.27일자 정령을 통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으로 개명한다고 발표했다.

다>, 어은금병창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트럼베트(트럼펫)와 녀성독창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합창시 <결사옹위의 천만리>, 소합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 5. 영화 분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월 11일 정령을 통해 내각에 국가영화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영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를 전하고 정령에는 이 위원회가 '내각 위원회급'으로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내각은 3위원회, 30성, 1원, 1은행, 2국 등 3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각 위원회급'이 내각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내각 구성기관이 38개 기관으로 늘어나는 것이 된다. 북한은 그동안 내각 문화성에 영화관리국 등 영화관련 업무를 보는 조직을 두었었다. 북한은 내각에 국가영화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로동당 비서국 내에도 선전선동부의 영화과를 확대해 영화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9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지시로 로동당 안에 영화와 무대공연 부문을 전담하는 영화부가 설치됐다"며, "영화부는 체계상 당 선전선동부 안에 배속됐지만, 국제부 등 다른 부서처럼 비중과 역할 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부서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내각과 당에 국가영화위원회와 영화부를 신설한 것은 김 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침체기에 빠져 있는 북한영화를 진흥시켜 체제유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영화를 제작·보급할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 외의 북한 영화계 동향은 주로 영화 제작 소식이다. 먼저 2월 초에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예술영화 <병사의 모습>을 제작했다. 이 영화는 "불의의 정황 속에서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혁명동지들을 구원한 한 인민군 병사의 모습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2월 5일자)이 전했다. 같은 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영화로는 4월 10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시사회가 개최된 예술영화 <북두칠성>이 있다. 조선중앙통신(4월 10일자)에 의하면 이 영화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북두칠성'이라는 대호를 가진 한 정찰조의 투쟁을 통하여 인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군 군인들이 지닌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영화계가 2009년도 상반기 성과작으로 꼽는 영화는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하여 4월 21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시사회를 가진 예술영화 <백옥>(제1, 2부)이다. 조선중앙통신(4월 21일자)은 이 영화에 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혁명투사 오진우(전 인민무력부장, 1995년 사망)를 원형으로 하여, 혁명의 령도자를 백옥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신 전사의 투철하고 진실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5월 20일에는 영화 <백옥>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토론자들은 이 영화가 거둔 성과와 경험을 살려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높이 선군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영화예술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백두의 봇나무(자작나무)> 시사회가 6월 10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있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영화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한 주인공이 평양을 떠나 백두산지구의 구시물동혁명전적지 강사로 자원 진출하여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을 빛내이는 길에 한생을 바쳐간다"는 줄거리다. 이 밖에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도 아동영화 세 편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다. 먼저 아동영화 <작은 산삼과 큰 산삼>은 사람은 약(인삼)을 써도 나이에 따라 써야 하며 모르고 무식하면 일만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인형영화 <빨간 별> 제4부 <고운 마음>은 항상 '동무'를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아동영화 <날개를 단 개미>는 아는 것이 힘이고 그래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조선중앙통신(10월 8일발)은 ≪주체문학예술 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영화 분야 2009년도 성과작으로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제2, 3부), <백두의 봇나무>, <조난>을 꼽았다. 또한 『조선예술』 '09년 12월호 정론 ≪세기에 떨치라, 주체예술의 위력을!≫(손창준)은 이외에도 상반기에 창작된 <백옥> 제1, 2부, 그리고 <북두칠성>, <생명선>, <가를 수 없는 정>, <훈련의 하루> 등을 성과작으로 꼽았고, 같은 잡지에 게재된 ≪위대한 사랑과 믿음 속에서 일으킨 대혁신, 대비약≫(김완중) 제목의 기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내가 본 나라> 제2, 3부는 사상성과 예술성, 창작방법과 창조기풍에 있어서 '조선식'(북한식)으로 독특하고

새롭게 창조되었다면서, 작품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력은 령토와 인구 수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을 대표하는 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에 있으며 자주의 대는 곧 승리라는 민족의 운명개척의 근본문제를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고 평했다. 이 영화에 대한 시사회(7.27, 대동문영화관)에 이어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 모임(9.28)이 이루어졌다. 6월 초에 제작된 <백두의 봇나무>에 대해서도 7월 15일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 모임이 이루어져 "수령결사옹위 정신으로 천만군민을 무장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되었다.

그리고 7월 10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시사회를 가진 예술영화 <조난>(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배 수리공장에서 기사(기술자)로 일하는 주인공이 계급적으로 각성돼 반 간첩 투쟁을 벌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책동은 '조난'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주었으며, "주체영화예술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빛내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술영화 <백옥> 창작에 공로가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표창식이 8월 12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진행되었다(조선중앙통신, 8월 13일발). 이 표창식에서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조선번역영화제작소,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김일성상', 시계표창, 공훈예술가(배우) 칭호, 국기훈장 제1급, 로력훈장 등이 수여됐다.

이상 소개한 영화 외에 북한 언론매체에 의해 2009년도 하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된 영화의 제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술영화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홍루몽>(제1, 2부>, <동해의 노래> 등, 그리고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동줄토리가 일으킨 소동>, <빨간 별> 제5부 <참외향기>, <빨간 별> 제6부 <다시 붙인 그림책>, <고와지는 약> 등 인형영화 4편, <전기궁전에 간 명진이>, <령리한 너구리> 제62부 <누구의 작간일가>, <긴긴 일요일>,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등 만화영화 4편 등 아동영화 8편을 제작했고, 12월 말 현재 만화영화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총 13부작)를 제작하고 있다. 한편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수십 편의 과학영화를 제작했는데, <강철공업의 정수 초고전력전기로>, <전기를 절약하는 단열내와벽돌>, <전력주파수를 정격으로 보장하자>, <현대적인 타일 생산>, <수달토끼>, <돼지 속성비육 먹이첨가제>, <추간판 탈출증을 미리막자> 등이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동 영화촬영소는 김일성 일대기인 <위대한 력사> 제21부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시며>, 김정일 일대기인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1부 <조선을 빛내이리>, 제2부 <혁명전통을 빛내이시며>, 제3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려>를 제작한 데 이어,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 동지> 제2부, <오가산 자연보호구> 등을 제작했다.

## 6. 문화예술계 종합

### 1) 주요 인사 동향

2009년 2월 당 선전선동부 영화부 신설과 내각 국가영화위원회 신설 당시, 2005년 지병으로 은퇴했던 최익규(76살) 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당 영화부장 및 국가영화위원장 혹은 당 선전선동부장으로 복귀하고 3월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있다. 최익규 부장은 북한 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영화, 가극, 연극 감독으로 꼽히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되기 이전인 1960년대부터 김 위원장과 함께 후계자 '업적'의 하나인 '명화'들을 다수 제작했었다.

아무튼 영화부가 신설되고 최익규가 재등장하게 된 것은 '09년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화를 관람하다가 "왜 요즘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좋은 영화가 나오지 못하느냐, 최익규를 데려다가 좋은 영화를 만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영화계 부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지속 주문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화폐개혁에 따른 경제 혼란의 책임을 물어 당 계획재정부장을 해임한 시기에 최익규 당 부장도 해임하여 강능수 전 문화상으로 경질했다고 『마이니치신문』(2월 3일 베이징발)과 『중앙일보』(2월 22일자)가 보도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숨겨진 돈을 끌어내 사회의 기강을 잡자는 취지에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지만, 물가 폭등과 신화폐의 유통 정체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최익규 부장의 경질이 건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화가 선우영이 8월 7일 6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북한의 주간지 『문학신문』(8월 15일자)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고를 통해 전했다. 산율 선우영은 60여 점의 작품이 북한의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북한 최고의 화가로 꼽히며 세화기법을 위주로 한 주제화, 풍경화 등에서 "진지하고 섬세하며 생동적인 화풍"으로 생전에 '진채세화의 대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의 작품은 남북한 유명 미술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던 서울의 『2002 남북평화미술축전』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2008년 4월 서울 인사동에서 마련했던 『북한 최고 인민·공훈예술가 4인 특별전』에도 전시돼 남한에도 잘 알려진 화가다. 한편 만수대예술단 작곡가인 인민예술가 김윤붕이 서거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12일 깊은 애도와 함께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8월 12일 발)이 보도했다. 이외에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 <아리랑>의 안무를 맡았던 북한 최고의 무용안무가 엄영춘(국립민족예술단 안무실장, 인민배우)이 1월 6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전 연출가인 고학림(인민예술가)이 4월 6일, 그리고 공훈국가합창단 작곡가 김건일이 4월 7일 각각 사망했다.

### 2) 시설 건립과 개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비교적 여러 곳에서 문화시설의 건립과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먼저 8백여 석과 2천여 석을 수용하는 극장 2개로 이루어진 봉화예술극장(평양 서성구역 소재, 1982년 7월 준공)의 부속건물을 개조하여 '붉은별극장'으로 전환하고, 3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당·군·정의 주요 간부 및 인민군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공훈국가합창단이 개관 공연을 가졌다. 또 대동강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평양대극장'이 최근 개건(리모델링)되어 4월 3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당·정·군 주요 간부를 대동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도 이루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4월 5일자, 5월 16일자)이 밝혔다. 1960년 8월에 개관한 평양대극장은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등 중요 정치행사들이 개최된 장소이자 "<피바다>식 혁명가극이 창조된 가극혁명의 발원지"이며, 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 공연된 "주체적 무대예술의 전당"이다. 이번 개건을 통해 1천 300여 석의 관람석과 무대, 최신 음향 및 조명설비, 여러 연습실과 분장실, 편의봉사시설 등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극장의 조선식 합각지붕기와를 전부 교체하고 건물 벽체를 독특한 건재와 부각장식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내부 중앙 홀 천정을 금강산팔선녀로 형상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또 벽체의 부각장식을 금빛으로 대조시켰으며 홀 천장 조명을 간접조명으로 개조하면서 대형 무리등(샹들리에)들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한편 평양 5월 3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당 중앙위 책임간부들을 대동하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갈마극장' 개관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갈마휴양소(강원도 원산시)에 새로 건설된 갈마극장 내부를 돌아보고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진 현대적인 극장을 훌륭히 일떠 세운 데 대하여"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갈마극장 개관에 즈음하여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같은 시기 장애인들에게 예술과 체육을 가르치는 '대동강장애자문화센터'가 재미동포단체와 스위스 외무성 등의 원조로 6월 초에 개관했다(『조선신보』, 5월 30일자).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에 있는 이 센터에서는 성악과 무용, 기악, 탁구 등을 가르치며, 북한 전역의 특수학교 예술소조학생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자신들의 기량을 평가받고 전문기량을 훈련하게 된다. 또한 '황해북도예술극장'이 6월 29일 준공되어 도 예술단의 개관공연이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6월 29일자)은 "연 건축면적이 15,000㎡인 극장에는 9백여 석을 가진 관람홀과 무대, 최신 음향 및 조명설비들을 비롯하여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조건들이 그쯘하게(빠짐없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전했다.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청년야외극장'가 개건되었다. 이와 관련 4월과 8월 두 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았고, 공사기간 중 다섯 차례나 공사의 방향과 방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고 『조선신보』(11월 5일자)가 보도했다. 이곳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음악회나 취주악경연, 웅변모임, 최우등생경험발표모임, 과학상식발표회 등이 진행되고 영화도 상영되는데, 무대 정면의 흰 벽은 그대로 영사막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특수 가공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1965년에 건설된 송도원야외극장은 준공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었으나, 2009년 4월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과정에서 이 극장을 현대식으로 개조할 것을 지시한 직후, 군인 건설자들에 의해 극장 내외부를 전면 개작하는 작업이 개시되었다고 한다. 약 70일 만에 공사가 끝나 조명, 음향설비들이 최신식으로 갖추어지고 3천여 석의 개별좌석이 꾸려졌으며, 지하에는 분장실, 사무실 등이 있다. 8월에 또 다시 이곳을 찾은 김 위원장은 극장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높은 수준

으로 개건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극장 운영방법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내 대학생들의 과학연구소조 활동에 관한 경험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를 축하하는 학생들의 공연도 기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극장은 원산 시내 각 계층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시설로 되어 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에는 야외극장 형식의 시설은 평양시의 청년공원야외극장(모란봉 구역)과 송도원청년야외극장, 두 곳에 있다.

한편 황해남도 해주시의 수양산 기슭에 '해주렬사릉'이 건설되어 12월 9일 준공식이 진행되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륭성번영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삶을 빛내인 렬사들과 공로자들의 유해가 안치되고 돌 사진이 붙은 묘비가 세워져 있다"고 조선중앙통신(12월 9일발)이 보도했다. 같은 시기 평양의 창광음식점 거리가 일 년 남짓한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어 12월 1일부터 조업에 들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12월 2일발)이 보도했다. 창광음식점 거리에는 조선음식점, 련광내포국집, 창광산국수집, 락원불고기집, 만풍떡국집, 풍년지짐집 등 많은 식당들이 늘어서 있다. 본래의 건축형식을 살리면서 인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매개 식당의 특성에 맞게 개건된 거리는 "그 주변의 고층건물들, 살림집들과 한데 어울려 경쾌하고 세련된 감을 준다"고 중앙통신은 설명했다. 이번에 음식점거리에 최신 주방설비들과 집기류, 봉사비품들도 '그쯘히' 갖추어놓았으며 내외부 불장식도 잘해 놓았다. 고려호텔 근처에 있는 창광음식점 거리는 1985년 조성되어 20여개의 음식점이 모여 있었으나 '08년 4월부터 개건공사가 진행돼 왔다. 또한 앞서 설명한 대규모 노천박물관인 '평양민속공원' 조성이 이루어졌다.

### 3) 대외교류

#### (1) 해외교류

북한과 중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은 수교 60주년(10월 6일)을 맞아 2009년을 '친선의 해'로 정하고 그 개막식을 3월 18일 베이징에서 거행했다. 양국은 연말 평양에서 가질 폐막식까지 정당, 의회, 사법, 문화, 경협, 무역, 교육, 보건, 언론매체, 관광, 은행 등 10개 분야에서 60여 개 기념행사와 활동을 추진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여러 개의 국가급 예술단들'이 상호 방문해 공연했으며, 특히 상반기 중에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국인민해방군예술단, 조선만경대학생소년궁전예술단 등의 상호 방문공연이 이루어졌다. 수교일인 10월 6일을 전후해 평양과 베이징에서 각각 기념전시회와 영화상영주간이 열렸고, 양국의 우수 TV물이 방영되었으며, 북한은 베이징에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고전 <홍루몽>을 북한판으로 개작한 가극을 공연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3월 26일자)은 중국 문화부가 가극 <홍루몽>의 주역, 단역배우들과 연꽃춤, 나비춤을 비롯한 여러 춤에 출연하는 무용배우들의 의상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홍루몽> 공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월 22일에 현지지도하고 6월 14일 관람한 바 있다. 이외에 6·1국제아동절을 맞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중 어린이 서예 및 그림전시회』가 개최되었다.

6월 15일로 결성 50돌을 맞는 문예동, 즉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소속 예술가 및 배우 5명에 대한 '공훈' 칭호 전달식이 일본 도쿄 조선회관에서 진행됐다. 즉 금강산가극단 작곡가, 문예동중앙 무용부장 겸 오사카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음악과 교수에게 공훈예술가, 그리고 도쿄조선가무단 단장, 금강산가극단 기악부장에게 공훈배우 칭호가 주어졌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 예술에 열광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취향에 맞춰 매년 관례적으로 러시아 예술공연 팀을 초청하고 있는데, 2009년에도 어김없이 '김정일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45돌을 경축하는' 러시아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민속무용단 초청공연이 6월 14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동 민속무용단은 근래 들어 거의 매년 방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순회 중에 김 위원장이 관람했다.

북한이 매년 해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교예(서커스) 분야를 꼽을 수 있다. 2009년 1월 20일 북한의 교예배우들이 모나코에서 열린 제33회 몽떼까를로 국제교예축전에서 '공중에서 뒤로 네 바퀴 돌아잡기' 등 난이도가 매우 높은 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한 <3단공중전회비행>으로 축전의 최우수상인 금상을, 그리고 <철봉과 유동그네날기>로 은상을 받았다. 한편 북한과 독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일에 즈음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독일의 건축물을 소개하는 <도이췰란드사진전시회>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미술전람관에서 개최되었고, 3월 24일부터는 쿠바 혁명승리 50돌과 쿠바 영화예술제작협회창립 50돌에 즈음하여 대동문영화관에서 쿠바영화상영주간 개막식을 개최하고 쿠바 예술영화 <참나무 향기>가 상영됐다. 3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그리고 '조선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 전람회가 페루에서 진행되었다. 기타 북한과의 직접적인 문화교류라고는 볼 수 없으나 1월 19일 미국 뉴욕의 영화사 비지트필름이 미국의 여성감독 N. C. 하이킨이 제작, 선댄스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북한 실상 다큐멘터리 <김정일리아(Kimjungilia)>의 전 세계 배급권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중 외교관계 설정 60돌과 '조·중 친선의 해'를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계속되었다. 먼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7월 13일 베이징의 국가대극원 음악청(콘서트홀, 2,017석)에서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노래와 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독무 <패랭이 춤>, 쌍무 <고기잡이>, 중국 노래 등 춤과 노래를 위주로 첫 공연을 가진 이래, 7월 29일까지 산시성, 네이멍구 자치구, 톈진 등을 순회 공연했다. 9월 4일과 5일에는 조선영화음악단이 베이징의 중앙세기극원(1,700석)에서 예술영화 <피바다> 삽입곡,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 중국 영화음악 등과 함께 혁명송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로 공연했다.[18] 11월 27일에는 조선인민군협주단이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초청공연을 가진 후 12월 3일에도 심양의 료녕인민회당에서 초대공연을 가졌다. 9월 11일 중국은 베이징 새 세기영화관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을 가진 후, 15일까지 <꽃파는 처녀>, <도라지꽃>, <한 녀학생의 일기>, <내가 본 나라> 등을 상영했다. 9월 28일에는 베이징의 중국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서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가 개막되어 조선화, 유화, 판화 등 북한의 주요 미술가들이 창작한 미술작품 60여 점이 전시된 데 이어, 10월 6일에는 홍콩에서 개막되었다.

10월 5일에는 수교 60돌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만수대예술단과 중국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양국 총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무대에는 북한 합창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녀성독창과 합창 <선군의 나의 조국아>와 중국의 혼성2중창 <나는 중국을 사랑하노라>, 민족무용 <황하>, 예술교예 <날아예는 마음>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양국의 출연 예술인들은 중국 노래 <나의 중화민족을 사랑하네>와 북한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서로 바꿔 불러 관람자들을 감동시켰다고 『조선신보』(10월 6일자)가 전했다. 만수대

18) 2009년에 창립 51돌을 맞은 이 음악단은 40여 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영화문학창작사와 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북한 영화의 3대 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 음악 4만 5천여 곡을 창작했다고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창작사가 『제12회 베이징 국제예술전람회』(8.27~31, 베이징 무역센터 전시장)에 참가해 북한의 현대미술을 중국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세계 각국의 화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전시는 세계 각국의 화랑 80여 곳이 참가했으며, 북한은 인민예술가인 리창(67살, <몽금포의 해질 무렵>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최고 창의상' 수상) 화백을 비롯해 공훈예술가 최명식, 1급예술가 전병진 등 창작사 소속 화가 5명은 이번 미술전에서 북한의 색채를 담은 풍경화와 인물화 등 사실주의적인 작품 21점을 선보였다. 만수대창작사 측은 2009년에 작품을 전시한 화가 5명은 출품을 위해 약 2개월 전부터 베이징에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했다고 밝혔다.[19] 11월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대표 화가들이 그린 1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어 작품당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에 판매되었다.

만수대창작사는 12월 5일 호주 퀸즐랜드주 주도 브리즈번 소재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개막하여 2010년 4월까지 계속된 『제6회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컨템포러리 아트』에 수채화와 유화 등 회화, 목각 등 조각, 포스터, 스케치 등 다수의 현대미술 작품을 출품했다. 이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은 만수대창작사 작가는 강재원, 황인재 등 10명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현대미술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외에 이란, 캄보디아, 티베트의 미술작품도 함께 전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담은 작품도 다수 선보였다. 추진과정에서 호주 연방정부가 북한작가 6명에 대해 이들의 출작품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 한동안 논란이 되었다. 한편 북한이 세네갈에서 제작 중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조각품인 <아프리카 르네상스 상징 조형물>(높이 50m)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몸매의 남성이 사내아이를 어깨에 앉힌 채 아내를 품에 안은 조형물로, 북한은 만수대창작사 해외사업부에서 2백여 명의 기술자를 세네갈에 파견했으며, 제작비는 세네갈 토지 일부를 현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20]

---

19) 북한 미술계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2008년 12월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해외에 전시·판매하는 미술관을 베이징 예술거리인 '798예술구'에 정식 개관했으며, 이에 앞서 2007년 9월 베이징 환톄(環鐵)예술구에 창작관을 열고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20) 이 조형물은 2009년 12월 다카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3회 흑인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축전 자체가 무기 연기됨에 따라, 12월 준공식을 거쳐 2010년 4월 4일 세네갈 독립 50주년 기념일에 일반에 유료 공개될 예정이다.

북한이 2009년 2월 내각 위원회급으로 신설한 국가영화위원회 산하에 국제영화합작사를 설치하고 외국 영화사와 영화합작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조선신보』(10월 22일자)는 "국가영화위원회 국제영화합작사가 외국의 영화업체들과의 합작을 염두에 둔 6편의 영화문학(시나리오)을 공개했다"면서, <고려처녀와 휘파람>, <옥호루의 한>, <신설화>, <칠보산 해녀와 왕자>, <백선행>, <인터나쇼날(인터내셔널)> 등을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합작사가 이미 "과거에 공개된 3편의 영화문학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현재 대방(상대방)들과의 협조 속에 영화제작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타 해외문화교류 소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에서 22개 나라와 지역, 32개 종목의 교예작품이 경쟁한 제12차 오교국제교예축전(10.31~11.8)에서 북한이 <쌍그네비행>과 <중심조형>으로 총 3개를 수여하는 최고상인 '금사자상'을 받았다. 그리고 2004년 6월부터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서 독일의 괴테 인스티투트가 운영해 오던 '도이췰란드과학기술도서보급실'(독일문화원 정보센터)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정치외교적인 경색국면으로 인해 폐쇄됐다(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 11월 23일자). 한편 11월 프랑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자크 랑 하원의원(전 프랑스 문화장관)을 통해 프랑스가 제안한 평양 문화협력사무소 개설에 북한이 동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12월 17일발)이 보도했다.

6월에 방문한 러시아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민속무용단에 이어 하반기에도 엔.에쓰.나제쥬지나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베료즈까 무용단(7.14, 평양대극장/7.22~28, 원산), 21세기관현악단과 유를로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무반주합창단(9.4, 평양대극장/9.8, 만수대예술극장), 엠.예.뻐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민속합창단(9.17, 원산/9.27, 평양대극장),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 협주단(10.9~11, 평양대극장) 등 5개의 러시아 예술단이 북한을 방문 공연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예술을 몹시 좋아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취향이 반영된 결과로, 김 위원장은 상반기 공연에 이어 9월 8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개최한 러시아 예술단과 북한 은하수관현악단,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과 합동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조선신보』 9월 9일자). 이밖에 하반기에 이루어진 해외교류행사로는, 한 미국인이 개인 수집품(북한화가 14명의 동양화 작품 24점)으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북한미술전시회』(7.17~8.1, 다운타운 그래니트룸)를 개최했고, 7개국 및 2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 국제기구에서 24개 출판사가 참가한 『평양 국제건축도서전시회』(8.3~5, 인민대학습당)와 『문예동 결성 50돐기념 서예전시회』(8.6, 개막, 평양 국제문화회관)가 열렸다.

또 8월 24일에는 『폴란드 사진전시회』가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어 원산 순회전시로 이어졌으며, 9월 30일에는 『몽골사진전시회』가 역시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다. 10월 16일에는 독일에서 개최된 『제2차 베를린아시아여성영화축전』에서 <한 녀학생의 일기> 등 북한영화가 상영되었고, 『제9차 북남어린이와 일본어린이그림전』(10.23~25, 도쿄 아오야마, 330여 점), 『남북코리아와 일본의 친구전』(10 말~12.19, 일본 간사이지역 대학교 순회, 80여 점), 『폴란드 독립절기념 영화감상회』(11.17, 대동강외교단회관), 『외교관계설정 35돐기념 스위스영화상영주간』(12.20, 개막, 대동문영화관)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선군혁명령도 49돐과 공화국창건 61돐'(8.12, 러시아 개막, 9월 러시아, 멕시코, 페루, 몽골), '당 창건 64돐과 <ㅌ.ㄷ> 결성 83돐'(10.1~16, 베트남, 라오스 등 13개국 / 10월 2~5일 중국 훈춘), '최고사령관을 모신 18돐과 김정숙 탄생 92돐'(11.25, 러시아)을 기념하여 해외 각국에서 북한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영화감상회,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가 진행되었다고 선전했다.

### (2) 남북교류

2008년에 이어 2009년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2009년 5월 22일 북한 평양시 대성산 광법사에서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촉구 북남불교도 합동법회』, 남북한 언어학자가 공동 집필하는 「겨레말큰사전」 사업 외에는 남북문화예술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다.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 7월 25일자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18차 회의가 6월에 열려, 2005년부터 준비해온 '올림말 선정' 작업에 이어 본격적인 뜻풀이 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북측 사전편찬위는 현재 집필 분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북과 남이 합의한 대로 분기간 500개의 새 올림말들을 계속 찾아내는 사업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전에는 각 지방 방언과 해외동포 방언도 규범어와 동등하게 오르게 되며, 올림말에 대해 발음, 원어, 문법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남북공동편찬위는 2012년까지 사전 집필을 끝내고 2013년에 32만~40만 어휘의 사전을 펴낼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저작권 협약 없이 출간돼 온 작가 10여 명의 작품이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출간되게 되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9년 2월 19일 "2월 초 평양을 방문해 북한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시인 백석, 이용악, 박세영, 소설가 송영, 이기영, 한설야, 최명익, 대중가요 작사가 조영출(필명 조명암), 동화작가 윤복진, 현덕 등 월북작가 10명의 저작권을 위임받았다"며, 불원간 추가로 이태준과 안회남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건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새로 출간되는 작품들에 대해 "관행대로 인세의 10%를 받아 소정의 수수료나 대행료를 제하고 북측의 저작권사무국과 작가 후손들에게 건네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3년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남·북한 동화를 한데 모은 「올레졸레 북녘동화 올망졸망 남녘동화」가 2009년 8월 남한(사계절 펴냄)에서 출간됐다. 「세 번째 별명 꿀꿀이」를 비롯한 총 7권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에는 남북경제문화교류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 계약을 하고 들여온 북한 단편동화 열세 편과 남쪽의 아동문학 작가 강정연, 안미란의 작품 열 편이 수록됐다. 정식 저작권 계약을 통해 들여온 북한의 아동문학 작품은 2006년 효리원에서 내놓은 「광복 60년 기념 남북 동화모음」에 이어 두 번째다. 열세 편의 북한 동화는 옛 이야기와 동물우화, 생활동화 등이 다양하게 선별됐는데, '거짓말하지 않기', '자연을 아끼기',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등 아이들이 알아야 할 보편적인 덕목을 담고 있다.

10월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저작권료 전달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의 북한저작권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관리, 저작권료를 거둬 북한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계좌이체 등 정상적인 거래방식을 거치지 않고 재단 측 인사가 방북하거나 3국에서 북한 관계자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학예술 부문은 아니나 2009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남측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이 7월 말 개최한 『가쓰라-태프트 밀약 104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에 남북이 함께 민족자주 운동을 벌여 나가자는 취지의 연대사를 보내왔다. 10월 13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한의 조선불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도연맹(조불련)이 금강산 신계사 복원 2주년을 기념하는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남북 불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WCC)가 10월 21~23일 홍콩 추엔완에서 개최한 『도잔소 회의 25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협의회』에 남한 대표단 50여 명은 물론 북한 대표단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명도 참석했다. 이 행사는 WCC가 1984년 일본 도쿄 인근 도잔소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남북 기독교 관계자들이 처음 만난 것을 기념해 열린다. 11월 3일에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모임』이 개성에서 열렸다. 모임에는 남측에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안중근연구소장 등이, 북측에서 조선종교인협의회장,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Ⅳ. 맺음말

근래 북한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선전선동과 통제 위주의 철권통치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한 해 내내 후계자 실적 쌓기 성격의 '150일 전투'에 이은 '100일 전투', 그리고 화폐개혁을 통해 나라 전체를 강제 노력동원과 통제경제라는 구시대적 방식으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로 몰아붙이는 한편, 체제 충성을 위한 각종 사회통제와 교양사업, 그리고 선전선동을 고조시켰다. 특히 '150일 전투'를 천리마운동에 빗대면서 5월 30일자 『로동신문』은 "전체 인민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여기에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동신문』 6월 11일자는 ≪집중적인 선전선동 공세로 모든 150일 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 번지게 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대와 세대,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이라는 표현을 통해 3대 세습체제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몰리는 등 남북 간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정권 10년간 북한에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사업에 종사하던 대남 일군(간부)들을 대부분 숙청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이 남한과의 교류·협력 단절의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 활

동 강화와 더불어 '자본주의 황색바람', '한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통해 자본주의 문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논설을 거의 주기적으로 게재하거나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5월 15일부터 '150일 전투'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비사회주의 검열사업을 진행했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 버릴 데 대하여≫라는 당 방침을 전달하기 위한 교양사업도 강력히 추진했다.[21] 5월 25일부터는 국경연선과 해안연선 지역에서 외부 전파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자동차단장치'를 체신소(우체국)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남한의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해 방송별로 상시적 혹은 간헐적으로 방해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한편 『로동신문』 8월 4일자는 개인 필명의 논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지 못하고 남의 풍, 서방에 놀아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만다는 것이다. 논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반동적 사상조류들과 궤변들을 철저히 폭로분쇄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족 자주의 원칙을 구현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해 나가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논설은 주장했다. 『로동신문』 9월 10일자도 ≪자주위업 수행에서 청년사업을 중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몰락한 이전 사회주의 나라 청년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를 받아 물고 전파시키는데 앞장섰다"며, 청년들이 '퇴폐적(퇴폐적)인 것으로 가득 찬 서방출판물', '불순한 서방영화' 등을 즐겨보고, 쟈즈(재즈), 로크(록) 음악을 틀어놓고 망탕(되는 대로 마구) 놀아댔다고 비판했다. 또 이 나라는 많은 청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자본주의 나라로 떠났으며, 청년들은 군대복무를 기피하고, 벌이가 좋은 직업을 골라잡는 데 신경을 썼다며, 이는 사회주의경제의 파괴과정을 촉진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

21) "불순 록화물과 출판물, 방송을 보거나 듣는 현상을 철저히 불허하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 하에, 검열에서 제기된 대상들은 공개재판에 회부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가족은 추방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거 평양이나 국경도시에 한정되어 있던 북한 내 '한류 바람'과 한국제 선호 취향은 이제 북한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양의 경우에는 엄격한 시장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샴푸와 린스, 향수, 귀걸이, 목걸이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도시들과 국경지역 젊은 층들 속에서 MP3나 MP4, 노트북을 이용한 한국영화 및 드라마 시청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주로 중국산인데 여기에 한국영화가 저장된 메모리칩을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방영되는 한국 채널의 영화들과 중국에서 시판되는 한국 DVD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방식도 점차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비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2개월 만에 중단되고 조선중앙방송위원장이 철직되기는 했으나, 북한의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인 '대동강 맥주'를 소개하는 TV 광고가 7월 2일 저녁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방송된 후, 개성고려인삼, 머리핀, 옥류관 메추리 요리 광고 등이 방송됐다. 또 평양 금성네거리에 6월 초에 북한 최초로 '속성음식쎈터'(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개업(『조선신보』, 7월 25일자)했고, '메아리음향사'가 마이크식 화면반주기를 생산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일반대중 사이에 노래방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졌다(『조선신보』, 9월 25일자). 한편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발생 후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2008년 12월부터 서비스가 재개된 손전화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손전화 오락'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조선신보』, 10월 23일자). 또한 북한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쌍꺼풀 수술과 콧대 높이기 수술, 입술 색 들이기,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의 성형 시술이 성행(열린북한방송, 12월 21일자)하고, 평양의 중앙당 간부나 부유층 자제들이 2000년대 이후 김정숙의 생일인 12월 24일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를 세계적인 명절날로 인식하여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한국 유행가를 부르며 노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데일리NK, 12월 24일자).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릴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남한의 각종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는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든 '자본주의적' 성향의 문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 또한 시나브로 '자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당국이 오늘날 벌이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와의 싸움은 인간 본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싸움은 결국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 2010년 문예연감

**발 행 일** 2010년 11월 25일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번지
전화 02-760-4546 팩스 02-760-4703
홈페이지 www.arko.or.kr
**편집·기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마케팅부
**제작·인쇄** (주)현대애드컴(TEL. 02-2275-8125)
**CD-ROM** (주)현대애드컴(TEL. 02-2275-8125)

통권 34호 ⓒ 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SSN 1226-2129 05
값 30,000원

• 이 책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예연감』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 및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